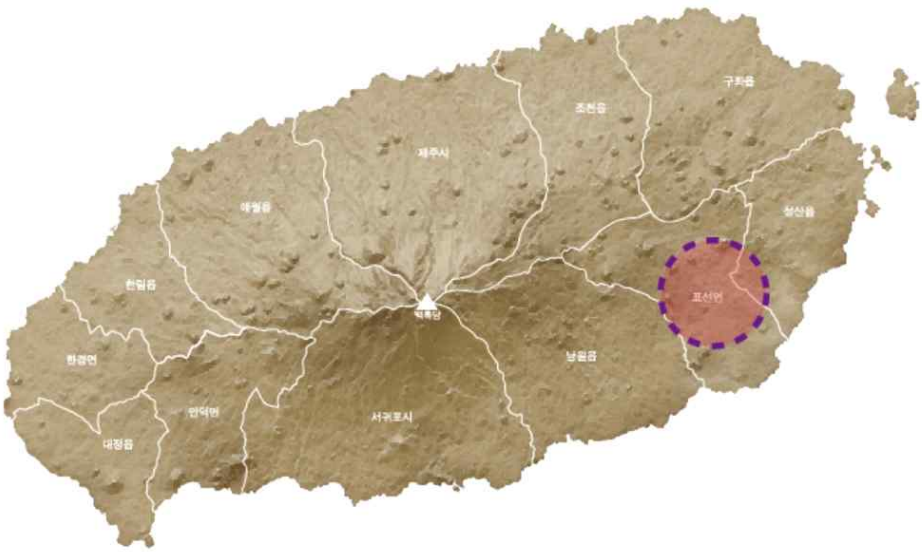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74-01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4

-표선면 성읍리

구술: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채록·전사: 김순자
표준어 대역: 허영선 김순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4

-표선면 성읍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32
3. 밭일 ····· 52
4. 들일 ····· 139
5. 의생활 ····· 181
6. 식생활 ····· 247
7. 주생활 ····· 372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순자 #1: 송순원 #2: 이미생 #3: 현신생)

1. 조사 마을

101001 @ 삼춘, 이 마을 그 형성이 어떻게 뒛덴 헌 거예, 아 그것 쫌 골아줍서?(삼촌, 이 마을 그 형성이 어떻게 됐다고 한 거요, 아 그것 좀 말해주십시오?)

101001 #1 이 마을이 형성이 어떻게 뒈, 이 뒈어신고 허니까 우리도 어린 때 그 어른덜 곧는 거 보면은 이제 한 육백 년 뒈엇덴 허는디. 성읍리 마을이.(이 마을이 형성이 어떻게 돼, 이 되었는가 하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 어른들 말하는 거 보면 이제 한 육백 년 되었다고 하는데. 성읍리 마을이.)

101001 @ 예.(예.)

101001 #1 원래 이디가.(원래 여기가.)

101001 @2 자단리?('자단리'?)

101001 #1 곶산[1]이랏어.('곶산'이었어.)

101001 @ 곶산? 으.('곶산'? 으.)

101001 #1 나무로 많은 곶산. 게난 이거 나무 전부 베여 데껴뒌 그때에 지금 저 폭나무영 느티나무영 잇는 게 그때는 제일 작은 걸로 넹긴다는 게 젤 작으니까 내부린 게.(나무로 많은 '곶산'. 그러니까 이거 나무 전부 베어 던져두고 그때에 지금 저 팽나무랑 느티나무랑 있는 게 그때는 제일 작은 걸로 남긴다는 게 젤 작으니까 내버린 게.)

101001 @ 으음.(으음.)

101001 #1 그래서 그 나무로 헤가지고 지금 마을이 여기 생긴 지가 한 육백 년 뒛다 이렇게 저 나무를 봐서.(그래서 그 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마을이 여기 생긴 지가 한 육백 년 됐다 이렇게 저 나무를 봐서.)

101001 @ 예.(예.)

101001 #1 누게 뭐.(누구 뭐.)

101002 @ 뭐 천년이여 뭐여 영 골암선게마는. (웃음). 이 성읍리는 성씨들은 주로 어떤 성씨로 이뤄졋수가?(뭐 천년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니만. (웃음). 이 성읍리는 성씨들은 주로 어떤 성씨로 이뤄졌습니까?)

101002 #1 강씨 홍씨 이씨. 성읍리는 잡씨가 별로 엇수다.(강씨 홍씨 이씨. 성읍리는 잡씨가 별로 없습니다.)

---

1) '곶산'은 '곶+산' 구성으로, '곶'은 '숲'의 제주어다. '곶산'은 '숲으로 이루어진 산'의 의미로, 제보자는 숲의 의미로 '곶산'을 썼다.

101002 @ 아아.(아아.)

101002 @2 강씨?(강씨?)

101002 #1 강씨 이씨 홍씨 송씨 조씨. 그 외 무슨 뭐 신씨니 뭐 이런 성들은 별로 엇어마씀.(강씨 이씨 홍씨 송씨 조씨. 그 외 무슨 뭐 신씨니 뭐 이런 성들은 별로 없어요.)

101003 @ 음, 그러면 거의 일가 방상들이 좀 많으켜예, 여기는예.(음, 그러면 거의 일가 방상들이 좀 많겠네요, 여기는요.)

101003 #1 예.(예.)

101003 @ 예, 이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허면서 살아가는 거예, 골아줍서?(예, 이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요, 말해주십시오?)

101003 #1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농사지언 살아신디 이젠 농사 힘들엄젠 다 농사덜 설러부러뒌 이젠 뭐 식당허는 사름 뭐허는 사름 허여부난 아, 전부 밧은 임대 줘불엇주 뭐. 자기대로 농사지는 사람이 성읍리 뭐 십 프로 뒈카?(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농사지어서 살았는데 이젠 농사 힘들다고 다 농사들 그만둬버려두고 이젠 뭐 식당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해버리니까 아, 전부 밭은 임대 줘버렸지 뭐. 자기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성읍리 뭐 십 프로 될까?)

101003 @ 으.(으.)

101003 #1 십 프로 안 뒈주. 우리 동네도 한, 이거 한 칠십 호 뒈는디 한 세 사름벳긔 농사 안 지어.(십 프로 안 되지. 우리 동네도 한, 이거 한 칠십 호 되는데 한 세 사람밖에 농사 안 지어.)

101001 @ 그러면은 이 성읍리는 멧 개 마을로 형성이 된 거라마씨? 무슨.(그러면 이 성읍리는 몇 개 마을로 형성이 된 거예요? 무슨.)

101001 #1 멧 동리주.(몇 동리지.)

101001 @ 예.(예.)

101001 #1 옛날도 우리 동네도, 이거 우리가 살고 잇는 디는 하동.(옛날도 우리 동네도,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하동.)

101001 @ 아동?('아동'?)

101001 #1 하동.(하동.)

101001 @ 아, 하동예?(아, 하동요?)

101001 #1 서하동.(서하동.)

101001 @ 음.(음.)

101001 #1 동하동.(동하동.)

101001 @ 음.(음.)

101001 #1 또 저 서상동 동상동 이렇게 해서 네 동이주.(또 저 서상동 동상동 이렇게 해서 네 동이지.)

101001 @ 아아, 무사 옛날 책 읽당 보면 뭐 진사리[2]여 무신거여 이런 말덜도

잇언게?(아아, 왜 옛날 책 읽다가 보면 뭐 '진사리'다 무엇이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101001 #1 글쎄 난 진사리 말도 허긴 허는디 난 별로 그런 건.(글쎄 난 '진사리' 말도 하기는 하는데 난 별로 그런 건.)

101001 @ 삼춘이 컹 오면은?(삼촌이 커서 오면?)

101001 #1 나가 큰 후제는 난.(내가 큰 후에는 난.)

101004 @ 동상 동하 서상 서하.(동상 동하 서상 서하.)

101004 #1 어.(어.)

101004 @ 이렇게 네 개만예. 예. 이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내창 바위 굴?(이렇게 네 개만요. 예. 이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내 바위 굴?)

101004 #1 굴은 너분못궤[3] 잇고, 소젱잇궤[4] 잇고, 또 원남갯궤[5] 잇고 그게 그게. 생이궤[6]엔 헌 디가 잇는디 생이궤는 우로 들어가곡 우로 나오는벳기는 못허는 궤가 잇어. 들어가는 입구는 혼 사름 정도벳긔 못 들어가는디.(굴은 '너분못궤' 있고, '소젱잇궤' 있고, 또 '원남갯궤' 있고 그게 그게. '생이궤'라고 한 데가 있는데 '생이궤'는 위로 들어가고 위로 나옴밖에는 못하는 굴이 있어. 들어가는 입구는 한 사람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안네 들어가면은 아마 이거 이 방 서너 늬 개 이 방 합친 것만이 넓어.(안에 들어가면 아마 이거 이 방 서너 네 개 이 방 합친 것만큼 넓어.)

101004 @ 어어.(어어.)

101004 #1 한 사름 들어가곡 한 사름 나오곡 못허는.(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고 못하는.)

101004 @ 거는 생이궤. 옛날에 거기에도 곱으레 뎅기고 허엿수가?(거는 '생이궤'. 옛날에 거기에도 숨으러 다니고 했습니까?)

101004 #1 그디 우리가 곱으레 뎅긴 게 아니고 ᄉᆞ삼사건 지나서 보니까 그디 뭐 소뻬 ᄀᆞ튼 거 잇는 거 보니깐 폭도들이 살아나지 아년가 셍각이.(거기 우리가 숨으러 다닌 게 아니고 사삼사건 지나서 보니까 거기 뭐 소뼈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깐 폭도들이 살았었지 않았나 생각이.)

101004 @ 건 생이궤고 다른 궤들은?(건 '생이궤'고 다른 굴들은?)

101004 #1 다른 궨 이디 넓은궤[7] 잇고, 수젱잇궤[8] 잇고 원낭갯궤[9] 잇고.(다른 굴은 이디 '넓은궤' 있고, '수젱잇궤' 있고 '원낭갯궤' 있고.)

---

2) '진사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3) '너분못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4) '소젱잇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달리 '수젱잇궤'라고도 한다.
5) '원남갯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6) '생이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7) '넓은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8) '수젱잇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제보자는 달리 '소젱잇궤'라고도 하였다.
9) '원낭갯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101004 @ 그런 데서는 살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예?(그런 데서는 살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101004 #1 그렇게는 안 헤보고 웨정 때에 아버지네가 그 뭐 왕 폭격허민 궤에 강 숨을라고 해서 우리 어린 때 간 궤에 간 돌로 헨 돌로 상자리[10] 놧어.(그렇게는 안 해보고 왜정 때에 아버지네가 그 뭐 와서 폭격하면 굴에 가서 숨으려고 해서 우리 어릴 때 가서 굴에 가서 돌로 해서 돌로 '상자리' 놨어.)

101004 @2 상자리예?('상자리'요?)

101004 #1 음.(음.)

101004 @ 상자리허는 거는 무신 말이우과?('상자리'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101004 #1 펭상 모냥으로 펭펭허게 울퉁불퉁헌 게.(평상 모양으로 평평하게 울퉁불퉁한 게.)

101004 @ 궤는?(굴은?)

101004 #1 밑창이 울퉁불퉁허니까 돌로 멘짝허게 깔앗다니까.(밑창이 울퉁불퉁하니까 돌로 평평하게 깔았다니까.)

101004 @ 거기는 그 잠자거나 앚앙은에 할 수 잇는 거라예?(거기는 그 잠자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101004 #1 폭격 올 땐 그디 강 그 피신허젠 그렇게 만들어 논 거.(폭격 올 땐 거기 가서 그 피신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101004 @ 어느 궤마씨?(어느 굴요?)

101004 #1 어디? 요디 아시궤[11]엔 헌 디가 잇어. 요디.(어디? 요기 '아시궤'라고 한 데가 있어. 요기.)

101004 @ 아시궤?('아시궤'?)

101004 #1 가시리레 가는 질 이펜이.(가시리로 가는 길 이편에.)

101004 @ 그러면 이 동네는 궤들이 으라 개 이신 편이우다예?(그러면 이 동네는 굴들이 여러 개 있는 편이네요?)

101004 #1 아니 세 개.(아니 세 개.)

101004 @ 으, 세 개, 으?(으, 세 개, 으?)

101004 #1 생이궤꼬지 네 개 잇엇구나.('생이궤'까지 네 개 있었구나.)

101004 @ 예, 오름은 여기 유명헌 오름 잇지 아녀우과?(예, 오름은 여기 유명한 오름 있지 않습니까?)

101004 #1 여긴 영주산[12].(여긴 '영주산'.)

101004 @ 으.(으.)

101004 #1 저 모지악[13]허고, 원 여기서 젤 큰 오름은 영주산허고 저 모지악벳긴 없고.(저 '모지악'하고, 원 여기서 젤 큰 오름은 '영주산'하고 저 '모지악'밖에는 없

10) '상자리'는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돌 따위로 만들어 놓은 대를 말한다.
11) '아시궤'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경에 있는 자연동굴의 하나다.
12) '영주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3) '모지악'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고.)

101004 @ 음.(음.)

101004 #1 이 근처는. 여기는 남산봉[14] 잇는디 남산봉은 저거 오름이 크질 안 허여. 족아.(이 근처는. 여기는 '남산봉' 있는데 '남산봉'은 저거 오름이 크질 안 해. 작아.)

101004 @ 그러면 이 성읍리 지경에 오름은, 세 개?(그러면 이 성읍리 지경에 오름은, 세 개?)

101004 #1 예.(예.)

101004 @ 그 오름마다 얽힌 이야기들도 잇어마씨?(그 오름마다 얽힌 이야기들도 있어요?)

101004 #1 성읍리 목장 안네 잇는 성읍리 경계 내에 잇는 오름은 목장은 저기 좌보미[15]라고 잇어.(성읍리 목장 안에 있는 성읍리 경계 내에 있는 오름은 목장은 저기 '좌보미'라고 있어.)

101004 @ 예.(예.)

101004 #1 좌보미 동산 아홉 형제엔 허는디 동산이 숫자가.('좌보미' 동산 아홉 형제라고 하는데 동산이 숫자가.)

101004 @ 음.(음.)

101004 #1 춤 그건 거리가 멀주. 이디서 한, 한 오 킬로 혼 육 키로쯤 가야.(참 그건 거리가 멀지. 여기서 한, 한 오 킬로 한 육 킬로쯤 가야.)

101004 @2 예.(예.)

101004 @1 그러면은 그 남산봉허고 영주산은 ᄀᆞ튼 거우과? 뚜나?(그러면 그 '남산봉'하고 '영주산'은 같은 겁니까? 달라?)

101004 #1 뚜나주게. 남산봉은 여기 보이는 게 기고.(다르지. '남산봉'은 여기 보이는 게 그렇고.)

101004 @ 예.(예.)

101004 #1 영주산은 요쪽에 잇는.('영주산'은 요쪽에 있는.)

101004 @2 큰 거.(큰 거.)

101004 @ 아, 영주산에 얽힌 뭐 이야기 이런 거는?(아, '영주산'에 얽힌 뭐 이야기 이런 거는?)

101004 #1 영주산에 얽힌 이야기가 뭐 잇어? 그대로 거기서 소 길르고 물 길루곡만 허단에 이 지금은 마을별로 지금 공동묘지 생기니까 그디 공동묘지 ****.(영주산에 얽힌 이야기가 뭐 있어? 그대로 거기서 소 기르고 말 기르고만 하다가 이 지금은 마을별로 지금 공동묘지 생기니까 거기 공동묘지 ****.)

101004 @ 음, 경허여도 다른 마을허고 ᄐᆞ나 갖고 오름이렌 안 헤영은에 산이렌 허지 아넘니까예? 영주산은.(음, 그래도 다른 마을하고 달라 갖고 오름이라고 안 해

14) '남산봉'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가운데 하나다.
15) '좌보미'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가운데 하나다.

서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영주산’은.)

101004 #1 영주산은 저게 원래 산으로 뒈 잇어.(영주산은 저게 원래 산으로 되어 있어.)

101004 @ 음.(음.)

101004 #1 겐디 요기 모지악엔 헌 건 오름으로 뒈 잇어.(그런데 요기 ‘모지악’이라고 한 건 오름으로 돼 있어.)

101004 @ 예, 게난 제주도에 산이 멧 개 엇인디 여기 영주산 잇덴 허멍 그런 말들도 헤예? 그 다음에 여기 내도 잇어마씨?(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산이 몇 개 없는데 여기 ‘영주산’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도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내도 있어요?)

101004 #1 내?(내?)

101004 @ 예.(예.)

101004 @2 내창.(내.)

101004 #1 내가 크주.(내가 크지.)

101004 @ 무신 내우과?(무슨 냅니까?)

101004 #1 올란이내[16]엔 헨에 한라산에서 바로 직행 오는 낸디, 그 전이는 내만 왓덴 허미는 이 남문 동네 ᄉᆞ방 사는, 사는 디는 전부 물 들엉.(‘올란이내’라고 해서 한라산에서 바로 직행 오는 낸데, 그 전에는 내만 왔다고 하면 이 남문 동네 사방 사는, 사는 데는 전부 물이 들어서.)

101004 @ 음.(음.)

101004 #1 헤나신디 이젠 하천을 절로 이젠 막 크게 만들어부리니까 뭐 물이 이레 오지 아녀는디 그전에는 그거 만들기 전이는 큰 내만 왓덴 허믄 남문 동네 사름들은 전부 사오십 호 정도는 물바다가 뒈어낫주.(했었는데 이젠 하천을 절로 이젠 매우 크게 만들어버리니까 뭐 물이 이리로 오지 않는데 그전에는 그거 만들기 전에는 큰 내만 왔다고 하면 남문 동네 사름들은 전부 사오십 호 정도는 물바다가 되었었지.)

101004 @ 아아, 그 정도로 물이 넘치는 거라예? 아아, 그러면은 그 내는 그거 하나?(아아, 그 정도로 물이 넘치는 거네요? 아아, 그러면 그 내는 그거 하나?)

101004 #1 어.(어.)

101004 @ 올란이는 무신 말이우과?(‘올란이’는 무슨 말입니까?)

101004 #1 올란이[17]엔 허니깐 모르주. 옛날부떠 우리 어린 때부터 올란이내창 올란이내창 허난.(‘올란이’라고 하니깐 모르지.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올란이내’ ‘올란이내’ 하니까.)

101004 @ 그 다음엔 그 바위, 큰 이 동네도 큰 엉덕이나 바위 같은 것도 잇수가? 유명헌 바위들?(그 다음엔 그 바위, 큰 이 동네도 큰 언덕이나 바위 같은 것도

16) ‘올란이내’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내 이름이다.
17) ‘올란이’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내 이름으로, ‘올란이’는 ‘올란이내’를 줄여서 부른 말이다.

있습니까? 유명한 바위들?)

101004 #1 큰 바위는 없고 저디 가면은 저 그디가 어디냐? 백반통[18]이엔 헌 딘 가미는 바위가.(큰 바위는 없고 저기 가면 저 거기가 어디냐? '백반통'이라고 한 데는 가면 바위가.)

101004 @ 예.(예.)

101004 #1 아메도 한 십 메다 높인 뭴 거라.(아마도 한 십 미터 높인 될 거야.)

101004 @ 음.(음.)

101004 #1 겐디 우리, 우리 이렇게 안앙은 열 발 둘레가 뒈여.(그런데 우리, 우리 이렇게 안아서 열 발 둘레가 되어.)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겐디 그 놈을 이 시[19]에서 왕 아져가보젠 멧 번 완 돌아가봐도 거 가져가지 못허연.(그런데 그 놈을 이 제주시에서 와서 가져가보려고 몇 번 와서 돌아봐도 거 가져가지 못했어.)

101004 @ 아, 지금도 잇어예? 그 이름은 뭐렌 헤, 그?(아, 지금도 있다고요? 그 이름은 뭐라고 해, 그?)

101004 #1 그 거시기 선돌[20]엔 허주. 선돌.(그 거시기 '선돌'이라고 하지. '선돌'.)

101004 @ 선돌, 어?('선돌', 어?)

101004 @2 게난 제주시는 무사 가져가켄 허는 거 닮수가?(그러니까 제주시는 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 같습니까?)

101004 #1 그건 뭐 몰르주 뭐.(그건 뭐 모르지 뭐.)

101004 @ 게민 선돌에 얽형 사람들이 그 돌 거시면 뭐 동티 난다 이런 말은 그런 거는 아니고?(그러면 '선돌'에 얽혀서 사람들이 그 돌 건들면 뭐 동티가 난다 이런 말은 그런 거는 아니고?)

101004 #1 그런 건 없고.(그런 건 없고.)

101004 @ 아, 물들은 어떤 물들이 잇수가?(아, 물들은 어떤 물들이 있습니까?)

101004 #1 물?(물?)

101004 @ 예. 먹는 물들?(예. 먹는 물들?)

101004 #1 먹는 물 그 전이는 이 시건이[21]엔 헌 물이 큰물 잇엇는디, 그거는 춤 삼백육십오일 ᄀᆞ물아도 물 ᄇᆞ뜨질 아녀주.(먹는 물 그 전에는 이 '시건이'라고 한 물이 큰물 있었는데, 그거는 참 삼백육십오일 가물어도 물 밭질 않지.)

101004 @1 으.(으.)

101004 #1 게난 가시린 물 엇이민 가시리 사름들이 이 물을 길어단 먹엇는디 그걸 하천 공사 허멍 다 부솨불엇주.(그러니까 가시린 물 없으면 가시리 사람들이

18) '백만통'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지경 이름의 하나다.
19) 여기에서 '시'는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20) '선돌'은 큰 바위가 서 있는 형태여서 붙은 이름인 것 같다.
21) '시건이'는 서귀포서 표선면 성읍1리에 있었던 물 이름이다. 달리 '시건이물'이라고도 한다.

이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그걸 하천 공사 하면서 다 부숴버렸지.)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게난 이젠 물 안 앚아.(그러니까 이젠 물 안 앉아.)

101004 @ 아아, 시건이물이 엇어져불엇구나예? 아.(아아, '시건이물'이 없어져버렸군요? 아.)

101004 #1 엇어져불언.(없어져버렸어.)

101004 @ 옛날부떠 시건이물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 많이 잇언게마는. 그러면 시건이물하고 따른 거는?(옛날부터 '시건이물'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 많이 있던데마는. 그러면 '시건이물'하고 다른 거는?)

101004 #1 거의 동네마다 물통이 잇긴 잇엇는디 먹는 물통이.(거의 동네마다 우물이 있긴 있었는데 먹는 우물이.)

101004 @ 예.(예.)

101004 #1 잇엇는디 동네이 거는 언마 크지 아녀니깐 물이 막 먹지 못허주게.(있었는데 동네 거는 얼마 크지 않으니깐 물이 막 먹지 못하지.)

101004 @ 으음.(으음.)

101004 #1 게난 대개 올란이물[22]은 옛날도 뭐 잔치가 결혼식이 허나 영장이 나나 허믄 동네에서 부주로 막 허벅으로 강 물 질어다주곡 마차 잇는 사름은 마차에 이껑간 도라무통 실렁 강 물 실러다주고 경 허멍 헤나신디.(그러니까 대개 '올란이물'은 옛날도 뭐 잔치가 결혼식을 하나 장사가 나나 하면 동네에서 부조로 막 '허벅'으로 가서 물 길어다주고 마차 있는 사람은 마차에 끌고가서 드럼통 실어서 가서 물 실어다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101004 @ 아, 게문 시건이물은 올란이내에 잇는 거?(아, 그러면 '시건이물'은 '올란이내'에 있는 거?)

101004 #1 예. 올란이[23].(예. '올란이'.)

101004 @ 올란이내창 안네.('올란이내' 안에.)

101004 #1 올란이허고 연결뭰 디라.('올란이'하고 연결된 데야.)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거기 펭풍산[24]엔 헌 디도 잇고. 펭풍. 펭풍산은 돌로 이렇게 바로 펭풍 모냥으로 쳐진 돌이 잇어.(거기 '펭풍산'이라고 한 데도 있고. 평풍. '펭풍산'은 돌로 이렇게 바로 병풍 모양으로 쳐진 돌이 있어.)

101004 @ 예.(예.)

101004 #1 겐디 그 우로 물이 떨어지주기.(그런데 그 위로 물이 떨어지지.)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게민 우리 어린 때도 그디 강 큰내가 안 온 때는 그디 강 앚앙 물 맞고 헤난 돌인디 하천 공사 허면서 그거 부솨불엇어, 다.(그러면 우리 어릴 때도

22) '올란이물'은 성읍1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했던 물 이름이다.
23) '올란이'는 성읍1리 지경의 하나다.
24) '펭풍산'은 성읍1리 지경의 하나다. 돌이 병풍처럼 둘러쳐져서 붙은 지명이다.

거기 가서 ‘큰내’가 안 올 때는 거기 가서 앉아서 물 맞고 했던 돌인데 하천 공사 하면서 그거 부숴버렸어, 다.)

101004 @ 음, 게난 그런 게 문제인 거라예? 다 밀어 불엉예.(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네요? 다 밀어 버려서요.)

101004 #1 다 뿌솨부런.(다 부숴버렸어.)

101004 @ 이젠 하천 해봐야 물도 하나도 엇언게.(이젠 하천 해봐야 물도 하나도 없었어.)

101004 #1 물 앚는 디가 엇어. 비오당 개믄 그만.(물 고이는 데가 없어. 비오다가 개면 그만.)

101004 @ 정소암인 어디우과?(‘정소암’인 어딥니까?)

101004 #1 정소암[25]은 저 우에. 이 저 거시기 영주산[26] 바로 서쪽 그 지금 그기다 지금 저수지 허는 디주.(‘정소암’은 저 위에. 이 저 거시기 ‘영주산’ 바로 서쪽 그 지금 거기다 지금 저수지 하는 데지.)

101004 @ 저수지 만들안마씨?(저수지 만들었어요?)

101004 #1 지금 만들암주.(지금 만들고 있지.)

101004 @ 아 이제?(아 이제?)

101004 #1 어, 내년, 내년끄지 완공엔 허멍.(어, 내년, 내년까지 완공이라고 하면서.)

101004 @ 게난 옛날에 이제 우리 성읍 얘기헐 때는 정소암이 원님들이 정수암이 놀레 갓젠 이런 말들 허잖아예?(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성읍 얘기할 때는 ‘정소암’이 원님들이 ‘정수암’에 놀러 갔다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101004 # 정수암놀이[27], 정수암놀이라고 헹 헤낫다고 허든만. 게난 우리가 육지에 혼번 그 저 문화재로 민속경연 갈 때에 그 정소암놀일 헨 혼번 갓다왓낫어. 저 옛날 천안.(‘정수암놀이’, ‘정수암놀이’라고 해서 했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한번 그 저 문화재로 민속경연 갈 때에 그 ‘정소암놀이’를 해서 한번 갔다왔었어. 저 옛날 천안.)

101004 @ 음, 게영 상 받안 옵디가?(음, 그래서 상 받아서 옵디까?)

101004 #1 뭐?(뭐?)

101004 @ 상 받아완?(상 받아왔어요?)

101004 #1 상 우리 저 거시기 국무총리상 받안.(상 우리 저 거시기 국무총리상 받았어.)

101004 @ 국무총리상이민 우수상인디.(국무총리상이면 우수상인데.)

---

25) ‘정소암’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의 내 이름 가운데 하나다. 경관이 좋아 예전에 그곳으로 물놀이를 다녔다고 한다.

26) ‘영주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소재하고 있는 오름 이름이다.

27) ‘정수암놀이’는 예전 성읍리에서 삼월 삼짇날 화전놀이를 했던 장소이다. ‘정수암’은 달리 ‘정소암’이라고도 하는데, 주민들은 못 모양이 가마솥과 비슷하다하여 ‘가매소(--沼)’라고도 부른다. 정의현(旌義縣) 당시 정의현감이 관속과 육방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큰 잔치를 베풀던 곳으로, 그 놀이를 ‘정소암 화전놀이’라고 불렀다. 그때 기생들이 불렀던 민요 중 하나가 ‘신목사 허리’라고 전해진다.

101004 @2 우수상.(우수상.)
101004 #1 대통령상이 우수상이주.(대통령상이 우수상이지.)
101004 @ 아 대통령상 받은 거우과?(아 대통령상 받은 겁니까?)
101004 #1 아니.(아니.)
101004 @2 건 췌고상이고.(건 최고상이고.)
101005 @ 최우수, 으, 예. 그 다음엔 삼춘, 이 마을에는 어떤 기관들은 어떤 거 잇수가?(최우수, 으, 예. 그 다음엔 삼촌, 이 마을에는 어떤 기관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1005 #1 기관?(기관?)
101005 @ 예.(예.)
101005 #1 기관이엔 헌 게 옛날 원님이 살단 가분 후젠 기관이엔 헌 건 아무것도 엇주.(기관이라고 한 게 옛날 원님이 살던 가버린 후에는 기관이라고 한 건 아무 것도 없지.)
101005 @ 그래도 농협이라든가 이런 거?(그래도 농협이라든가 이런 거?)
101005 #1 아, 농협허고 신협은 잇고.(아, 농협하고 신협은 있고.)
101005 @ 예, 그 다음은 학교는?(예, 그 다음은 학교는?)
101005 #1 학교는 이게 바로 학교고.(학교는 이게 바로 학교고.)
101005 @ 학교는 초등학교?(학교는 초등학교?)
101005 #1 예, 초등학교뿐.(예, 초등학교뿐.)
101005 @ 어, 유치원?(어, 유치원?)
101005 #1 유치원은 잇고.(유치원은 있고.)
101005 @ 어, 유치원은 잇고예? 게믄 그냥 다른 뭐 우체국, 우체국이나 이런 거는 없고.(어, 유치원은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다른 뭐 우체국, 우체국이나 이런 거는 없고.)
101005 #1 우체국은 없고 전화국은 잇어.(우체국은 없고 전화국은 있어.)
101005 @ 아, 전화국은 잇고예. 음, 게믄 기관은 전화국 농협?(아, 전화국은 있고요. 음, 그러면 기관은 전화국 농협?)
101005 #1 신협.(신협.)
101005 @ 신협. 음.(신협. 음.)
101005 @2 학교.(학교.)
101006 @ 학교, 그 정도겟다예? 아까 전화국하고예. 예전에는 어떤 일들 허젠 허민 다 접 운영헷잖아예. 접들.(학교, 그 정도겠네요? 아까 전화국하고요. 예전에는 어떤 일들 하려고 하면 다 계 운영했잖아요. 계들.)
101006 #1 서로 서로.(서로 서로.)
101006 @2 계, 계.(계, 계.)
101006 #1 그렇게 허주.(그렇게 하지.)
101006 @ 게난 그.(그러니까 그.)

101006 #1 엿날은 접이 많아.(옛날은 계가 많아.)

101006 @ 으.(으.)

101006 #1 이 산담접[28]엔 헌 사름덜토 잇고.(이 '산담접'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101006 @ 예.(예.)

101006 #1 남자덜토 접 허는 게 많고. 여ᄌᆞ덜토 접이 많앗주.(남자들도 계 하는 게 많고. 여자들도 계가 많았지.)

101006 @ 예.(예.)

101006 #1 큰일 나민 뭐 쏠로 갖당 부주헤주고 이렇게 접이엔 헌 게.(큰일 나면 뭐 쌀로 갖다가 부조해주고 이렇게 계라고 한 게.)

101006 @ 삼춘이 들엇던 접은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가?(삼촌이 들었던 계는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1006 #1 우린 저 갑장훼허고 이 동네에서 친목회벳긴.(우린 저 갑장회하고 이 동네에서 친목회밖에는.)

101006 @ 아, 아까 산담접은?(아, 아까 '산담접'은?)

101006 #1 산담접은 우리 흔 이십오 년 동안 허단에 이젠 산담[29]이 이젠 전부 공동묘지 가버리니깐 산담이 필요엇이난 해산해불엇주.('산담접'은 우리 한 이십오 년 동안 하다가 이젠 '산담'이 이젠 전부 공동묘지 가버리니깐 '산담'이 필요가 없으니까 해산해버렸지.)

101006 @ 옛날에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헤난마씨? 산담접 운영?(옛날에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산담접' 운영?)

101006 #1 산담 운영 소임엔 헌 사름 잇주게. 쳑임자 소임.('산담' 운영 소임이라고 한 사람 있지. 책임자 소임.)

101006 @ 예.(예.)

101006 #1 소임 한 사람 허영 허면은 산담 허민 언마 받아 허민 이거를 개인으로 갈랑 쓰는 게 아니라.(소임 한 사람 해서 하면 '산담' 하면 얼마 받아 하면 이거를 개인으로 갈라서 쓰는 게 아니라.)

101006 @ 예.(예.)

101006 #1 그거를 돈 모엿당.(그거를 돈 모았다가.)

101006 @ 음.(음.)

101006 #1 섣둘 섣둘 말일 뒈 가면은 뒈지 흔 머리 잡앙 추렴허영 또 나눠먹고 팔월멩질에도 그렇게 허곡 허멍 돈은 갈라 쓰지 안허곡.(섣달 섣달 말일 돼 가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추렴해서 또 나눠먹고 팔월명절에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돈은 나눠 쓰지 안하고.)

101006 @ 아, 일은 ᄀᆞ찌 간 헹 번 거를 가지고.(아, 일은 같이 가서 해서 번 거

28) '산담접'은 '산담+ 접' 구성으로, 묘 주변을 둘러싸는 담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을 함께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접'은 표준어 '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9) '산담'은 무덤 주위를 두른 돌담이다. 밭을 두른 담은 '밧담'이라고 한다.

를 가지고.)

101006 #1 똑가찌.(똑같이.)

101006 #1 팔월멩질허고 섣들 으, 게영 그걸 혼 이십오 년?(팔월명절하고 섣달 으, 그래서 그걸 한 이십오 년?)

101006 #1 이십오 년 헷주.(이십오 년 했지.)

101006 @ 예, 그런 거 말고 화단접 이런?(예, 그런 거 말고 '화단접' 이런?)

101006 #1 화단접[30]도 잇주. 화단접도 잇어낫주. 건 동네마다.('화단접'도 있지. '화단접'도 있었었지. 건 동네마다.)

101006 @ 음.(음.)

101006 #1 동네마다. 겐디 다른 딘 다 엇어도 우리 동넨 잇어. 화단.(동네마다. 그런데 다른 덴 다 없어도 우리 동넨 있어. 화단.)

101006 @ 아 지금도.(아 지금도.)

101006 @2 화단도 잇수가?(화단도 있습니까?)

101006 @1 어어.(어어.)

101006 #1 다 잇수다.(다 있습니다.)

101006 @ 그 화단접은 어떤 식으로 운영헷수가?(그 '화단접'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101006 #1 그것도 마찬가지. 돌아가멍. 반 그자 집집마다 올레 ᄎᆞ례로 돌아가멍 헤여.(그것도 마찬가지. 돌아가면서. 반 그저 집집마다 오래 차례로 돌아가면서 해.)

101006 @ 음.(음.)

101006 #1 그 책임 일 년씩.(그 책임 일 년씩.)

101006 @ 일 년씩. 그러면 지금 화단접은 멧 명이서 운영허는 거라마씨?(일 년씩. 그러면 지금 '화단접'은 몇 명이서 운영하는 거예요?)

101006 #1 이 동네는 전부 해. 이 동네.(이 동네는 전부 해. 이 동네.)

101006 @ 이 동네, 하동은?(이 동네, 하동은?)

101006 #1 우리 동네 사는 사름은 가입허고 싶은 사름은 누구라도 가입헹 헐 수 잇어.(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가입해서 할 수 있어.)

101006 @ 그러면 돈을 내근에 돈 운영허는 거우과? 어떻게 운영헴수가?(그러면 돈을 내서 돈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01006 #1 딴 동네서 왕 빌어갈 때는 그게 임대료를 받는디 우리 동네서 사용헐 때는 무료.(딴 동네서 와서 빌려갈 때는 그게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 동네서 사용할 때는 무료.)

101006 @ 으음, 성읍리는 공동묘지가 크니까 아직도 그런 화단을 이용허는 건가마씨?(으음, 성읍리는 공동묘지가 크니까 아직도 그런 화단을 이용하는 건가요?)

101006 #1 게난 이 공동묘지 생긴 후에는 화단을 사용을 안 헌덴 허니까.(그러

30) '화단접'은 상여를 꾸미기 위해서 둘러치는 '화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린 계다.

니까 이 공동묘지 생긴 후에는 화단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101006 @ 아, 건 무사?(아, 건 왜?)

101006 @2 게도 접은 잇고예?(그래도 계는 있고요?)

101006 #1 바로 병원에 강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바로 공동묘지 와버리민 필요가 엇주.(바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바로 공동묘지 와버리면 필요가 없지.)

101006 @ 으음. 게도 화단 쓰는 사람은 이실 거 아니?(으음. 그래도 화단 쓰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

101006 #1 화단 작년에 우리 저 이 어디 도에서 그 무시거게, 저 뭐니? 아, 곧젠 허난 잊어불엇저.(화단 작년에 우리 저 이 어디 도에서 그 무엇, 저 뭐니? 아,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다.)

101006 @ 탐라문화제마씨?(탐라문화제요?)

101006 #1 탐라문화제 갈 때 우리 동네서 그거 영장허는 거 헨 간 때 그거 헹 가왓주.(탐라문화제 갈 때 우리 동네서 그거 장례하는 거 해서 갈 때 그거 해서 가왔지.)

101006 @ 에에, 삼춘 상여소리허고. 게난 요즘은 실질적으로 쓰지는 안 허고?(에에, 삼촌 상여소리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실질적으로 쓰지는 안 하고?)

101006 #1 아녀고. 보관만 헹 잇어.(않고. 보관만 해서 있어.)

101006 @ 보관만 헹 잇인 거라예? 지금.(보관만 해서 있는 거네요? 지금.)

101006 @2 사진 찍엉 가야겟다.(사진 찍어서 가야겠다.)

101006 @ 예.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그 화단은 언제쯤 만든 거마씨?(예.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그 화단은 언제쯤 만든 거예요?)

101006 #1 만들 건지 오랫수다.(만들 건지 오랬습니다.)

101006 @ 아아, 그 옛날 화단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허영은에 만들엇수가?(아아, 그 옛날 화단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101006 #1 저 화단 천으로 뭰 거는 일부러 그 어디 육지로 허영 주문헤야 뒈여.(저 화단 천으로 된 거는 일부러 그 어디 육지로 해서 주문해야 되어.)

101006 @ 으음.(으음.)

101006 #1 그 웨에는 남으로 뭰 거는 여기서 ᄌᆞ체적으로 나무 ᄀᆞ튼 건 만들 수 잇이난에. 옆이 영 둘르곡 우에 영 더프는 옷[31]은 육지로 맞춰당 헤여.(그 외에는 나무로 된 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나무 같은 건 만들 수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두르고 위에 이렇게 덮는 옷은 육지로 맞춰다가 해.)

101006 @ 육지로. 여기서 어른들끼리 동네 어른덜끼리 바농질 헹 만든 건 아니고?(육지로. 여기서 어른들끼리 동네 어른들끼리 바느질 해서 만든 건 아니고?)

10100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1006 @ 아.(아.)

31) 여기에서 '옷'은 상여를 두른 천을 의미한다.

101006 #1 바농질허영 그렇게 만들 순 엇어.(바느질해서 그렇게 만들 순 없어.)

101006 @2 물켓낭은 멧 개우과?('물켓낭'은 몇 갭니까?)

101006 #1 물켓낭[32] 다섯 개.('물켓낭' 다섯 개.)

101006 @2 다섯 개.(다섯 개.)

101006 #1 요섯 갠가? 다섯 개우다. 다섯 개.(여섯 갠가? 다섯 갭니다. 다섯 개.)

101006 @ 다섯 개. 으, 그 다음에 이런 만약에 옛날은 잔치허젠 헤도 접 헹은에 헷잖아예? 쏠접[33]이여 뭐여 허는 거?(다섯 개. 으, 그 다음에 이런 만약에 옛날은 잔치하려고 해도 계 해서 했잖아요? '쏠접'이다 뭐다 하는 거?)

101006 #1 동네서 많이 그런 것들 헷주.(동네서 많이 그런 것들 했지.)

101006 @ 그런 것도 혼번 골아줘봅서. 큰아들 잔치허젠 허니까 어떵 헤낫수가?(그런 것도 한번 말해보십시오. 큰아들 잔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101006 #1 ** 어떵허여 뭐. 동네에서 게난 이 동네 사름덜토 접꾼 아닌 사름덜 왕 협졸 헤주주마는.(** 어떻게 해 뭐.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계원 아닌 사람들 와서 협졸 해주지마는.)

101006 @ 으.(으.)

101006 #1 접꾼덜은 혼 이삼일 전이부터 왕 협조를 허주주게. 옛날은 다 집의서 허니까 하루 도야지 잡아야지, 가문잔치[34]헤야지, 잔칫날 헤야지 허젱 허민 삼일을 계속 그 친목, 친목헌 사름덜은 왕 계속 삼일동안 동상[35] 가.(계원들은 한 이삼일 전에부터 와서 협조를 해주지. 옛날은 다 집에서 하니까 하루 돼지 잡아야지, '가문잔치'해야지, 잔칫날 해야지 하려고 하면 삼일을 계속 그 친목, 친목한 사람들은 와서 계속 삼일동안 '동서서' 가.)

101006 @ 예, 그게 예전에는 잔치허젠 헤도 다 쏠 엇이난 쏠 그 잔치허는 사름 한테 쏠 이렇게 혼 가마니 갖다 주고 영 허잖아양?(예, 그게 예전에는 잔치하려고 해도 다 쌀 없으니까 쌀 그 잔치하는 사람한테 쌀 이렇게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101006 #1 쏠로도 갖다 주곡.(쌀로도 갖다 주고.)

101006 @2 술?(술?)

101006 #1 저 돈으로도 갖다주곡 허주마는 젭에선 아메도 접꾼덜은 딴 사름덜보다는 더 내놩 모영 앚다주주게.(저 돈으로도 갖다 주고 하지마는 계에선 아마도 계원들은 딴 사름들보다는 더 내놔서 모여서 갖다 주지.)

101007 @ 예, 거는 이 약정한 대로 이렇게예. 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이 성읍 같은 경우는 민속마을이니까 남은 풍습들이 많아예? 이 가장 큰 풍속이 어떤 게 남

32) '물켓낭'은 상여(喪輿)의 양편 아래로 각각 매어진 긴 채에 양끝을 걸치고서 동여 묶은 나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물켓남'이라고도 한다.

33) '쏠접'은 동네 사람들끼리 혼례나 장사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번갈아 가며 쌀을 거두어 쓰려고 꾸민 조직이다. 달리 '쏠제'라고도 한다.

34)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다. 이날 친척끼리 잔칫날에 할 역할 등을 의논한다.

35) '동상'은 '동서서'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끝나서'라는 의미다.

아신고마씨?(예, 거는 이 약정한 대로 이렇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읍 같은 경우는 민속마을이니까 남은 풍습들이 많지요? 이 가장 큰 풍속이 어떤 게 남아있는가요?)

101007 #1 지금 풍속엔 해봐야 뭐 벨로 성읍리가 지금 남은 거는 초가집덜밧긴 남아 잇는 게 없주.(지금 풍속이라고 해봐야 뭐 별로 성읍리가 지금 남은 거는 초가집들밖엔 남아 있는 게 없지.)

101007 @ 초가집. 그래도 해마다 저기 풍물하면 성읍리 축제도 헴수게.(초가집. 그래도 해마다 저기 풍물하면 성읍리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101007 #1 마을축제.(마을축제.)

101007 @ 예.(예.)

101007 #1 그거는 여기 관광보존마을이라 노니깐 관광 손님덜 많이 오게시리 헐랴고 그거 허는 거지 뭐.(그거는 여기 관광보존마을이어 놓으니깐 관광 손님들 많이 오게끔 하려고 그거 하는 거지 뭐.)

101007 @ 으, 특별하게 허는 건 옛날 풍습은 이 초집 이는 거?(으, 특별하게 하는 건 옛날 풍습은 이 초가지붕 이는 거?)

101007 #1 예.(예.)

101007 @ 경헤도 다른 지역보다 노래 같은 경우도 하영 남아 잇잖아예?(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노래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101007 #1 예, 노래 같은 건 옛날 노래덜.(예, 노래 같은 건 옛날 노래들.)

101008 @ 음, 그 특산물? 성읍리 특산물은 뭘?(음, 그 특산물? 성읍리 특산물은 뭘?)

101008 #1 성읍리는 특산물이렌 헌 게 별로.(성읍리는 특산물이라고 한 게 별로.)

101008 @ 경헤도 요즘 특산물로?(그래도 요즘 특산물로?)

101008 #1 서쪽드레 가민 특산물이 많은디 여기는 주로 지금은 별로 안허는디 그전에 우리 커올 때는 고구마허곡 뭐 저 감자허곡.(서쪽으로 가면 특산물이 많은데 여기는 주로 지금은 별로 안하는데 그전에 우리 커올 때는 고구마하고 뭐 저 감자하고.)

101008 @ 예.(예.)

101008 #1 또 무시거 무허곡 거벳긴 특산물엔 헌 게 없어.(또 무엇 무하고 거밖엔 특산물이라고 한 게 없어.)

101008 @ 예, 요즘도 놈삐 하영 갈아마씨?(예, 요즘도 무 많이 갈아요?)

101008 #1 요즘도 놈삐 그자.(요즘도 무 그저.)

101008 @ 으, 놈삐, 특산물은 놈삐렌 보민 뒈켜예?(으, 무, 특산물은 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101008 #1 젤 많이 가는 게 지금 무수라.(젤 많이 가는 게 지금 무야.)

101009 @ 무수를 젤 하영 갈아예? 예. 이 마을 자랑거리렌 허믄 뭐우과?(무를

젤 많이 갈아요? 예. 이 마을 자랑거리라고 하면 뭡니까?)

101009 #1 자랑거리 헐 게 잇어. 자랑거리 저 성읍리 마을에 큰 나무나벳기 저 자랑거리도 벨로 엇고.(자랑거리 할 게 있어. 자랑거리 저 성읍리 마을에 큰 나무나 밖에 저 자랑거리도 별로 없고.)

101009 @ 아직도 성담도 남아 잇고.(아직도 성담도 남아 있고.)

101009 #1 성담도 허기야게.(성담도 하기야.)

101009 @2 (웃음).

101009 @ 예.(예.)

101009 #1 게난 이제 성담도 저 옛날 헷단 거 그대로 옛날식으로 지금 잇질 안 허여.(그러니까 이제 성담도 저 옛날 했던 거 그대로 옛날식으로 지금 있질 안 해.)

101009 @2 으음.(으음.)

101009 #1 엿날은 담 넓이가 상당히 넓엇다고. 웨냐허믄 이렇게 허민 일로 담을 쌓민 일로 사람이 다니면서 순찰도 다니곡 적이 와가민 총도 쏩는 그 총구녁이 잇수다. 다 만들어졋어.(옛날은 담 넓이가 상당히 넓었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일로 담을 쌓으면 일로 사람이 다니면서 순찰도 다니고 적이 와가면 총도 쏘는 그 총구멍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어.)

101009 @ 성에 올라가민.(성에 올라가면.)

101009 #1 총구녁이 잇엇는디 사삼사건 당시에 그렇게 헤낫는지 그루후제 사삼사건이 해지뒈어버리니깐 그 돌덜을 갖당 많이덜 밧담덜도 허는 사람은 실러당 밧담도 헤부니까 돌이 원 없는 자리가 잇어낫수다.(총구멍이 있었는데 사삼사건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지 그 이후에 사삼사건이 해지되어버리니깐 그 돌들을 갖다가 많이들 밭담들도 하는 사람은 실어다가 밭담도 해버리니까 돌이 전혀 없는 자리가 있었었습니다.)

101009 @ 아아.(아아.)

101009 #1 게난 그게 이 보존마을이 뒈니까 그 복원허렌 헨에 전부 돌 헤단에 다 만들어 놓긴 헷는디 옛날만이 넓게 만들지 못허연.(그러니까 그게 이 보존마을이 되니까 그 복원하라고 해서 전부 돌 해다가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옛날만이 넓게 만들지 못했어.)

101009 @ 음, 이런 성담 위에도예?(음, 이런 성담 위에도요?)

101009 #1 높이도 옛날만이 못허곡.(높이도 옛날만큼 못하고.)

101009 @ 여기는 또 벅수머리우꽈? 우석목 돌하르방.(여기는 또 벅수머리입니까? '우석목' 돌하르방.)

101009 #1 아, 돌하르방.(아, 돌하르방.)

101009 @ 음.(음.)

101009 #1 돌하르방은 남문 동문 서문만 잇주.(돌하르방은 남문 동문 서문만 있지.)

101009 @ 음.(음.)

101009 @2 예.(예.)

101009 @ 음, 이 동네서 돌하르방이렌 안 허연 옛날에 뭐렌 불럿수가?(음, 이 동네서 돌하르방이라고는 안 해서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101009 #1 이디도 돌하르방이렌 헷주.(여기도 돌하르방이라고 했지.)

101009 @ 우석목?(우석목?)

101009 #1 무석목[36]이엔도 헷주.('무석목'이라고도 했지.)

101009 @ 아, 무석목. 우석목이 아니라 무석목예?(아, '무석목'. '우석목'이 아니라 '무석목'요?)

101009 #1 무석목은 말 못 골으니까 무석목이엔 헤실 테주.('무석목'은 말 못 말하니까 '무석목'이라고 했을 테지.)

101009 @ 말 못 골으니까.(말 못 말하니까.)

101009 #1 말 못 골으난 아무 거엔 골아도 좀쫌허난.(말 못 말하니깐 아무 거라고 말해도 조용하니까.)

101009 @ 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얘길 헷구나. 아아, 경허고 여기에 그 돌멩이 쌓아 갖고예? 답?(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얘길 했구나. 아아, 그렇게 하고 여기에 그 돌멩이 쌓아 갖고요? '답'?)

101009 #1 탑.(탑.)

101009 @ 으, 탑. 여기는 탑 멧 개 잇어낫수가?(으, 탑. 여기는 탑 몇 개 있었었습니까?)

101009 #1 성읍리는 요디 또 표선리레 가는디 옛날 그 동산이 거욱대동산[37]이렌 헌 동산인데.(성읍리는 요기 또 표선리로 가는데 옛날 그 동산이 '거욱대동산'이라고 한 동산인데.)

101009 @ 예.(예.)

101009 #1 그딜 탑을 쌓낫는디 그게 왜 탑을 쌓느냐고 허니까 그 어르신덜 곧는 거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표선면 가면은 매봉[38]엔 헌 디가 잇는디.(거길 탑을 쌓았는데 그게 왜 탑을 쌓느냐고 하니까 그 어르신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표선면 가면은 '매봉'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101009 @ 매봉?('매봉'?)

101009 #1 매봉을 비추민 마을에서 그 매봉을 비추민 마을에 해가 뭔다고 헤서 그것을 방지허려고 헤서 탑을 쌓다는 거야. 겐디 도로 허면은 그 놈은 동산을 부솨불엇어.('매봉'을 비추면 마을에서 그 '매봉'을 비추면 마을에 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해서 탑을 쌓았다는 거야. 그런데 도로 하면은 그 놈의 동산을 부숴버렸어.)

---

36) '무석목'은 성읍1리에서 돌하르방을 달리 일컫는 명칭이다.

37) '거욱대동산'은 성읍1리에 세워진 탑이 서 있는 동산을 말한다. 이 탑을 '방사탑'이라고 하는데, 성읍1리에서는 '거욱대'라고 하였다. '거욱대'는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에 세우는 돌로 쌓아 올린 탑이다. 제주에서는 돌탑인 '거욱대'를 세우면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준다는 속설이 있다.

38) '매봉'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소재한 봉우리 이름이다.

101009 @2 아이고.(아이고.)

101009 @ 예.(예.)

101009 #1 길 빼면서.(길 뽑으면서.)

101009 @2 일이 생겻지예?(일이 생겼지요?)

101009 #1 생기멍말멍 기자. 우리 동네도 하여튼 칠십 전에 흔 해에 흔 으섯 사름이 죽엇어. 우리 동네도.(생기며말며 그저. 우리 동네도 하여튼 칠십 전에 한 해에 한 여섯 사람이 죽었어. 우리 동네도.)

101009 @ 아아 칠십 전 사람이?(아아 칠십 전 사람이?)

101009 #1 어어. 그 따문인지 아닌진 몰라도 그래서 지금 따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 또 탑을 쌓아놧는디 그 따문엔덜만 허난.(어어. 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다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 또 탑을 쌓아놨는데 그 때문이라고들만 하니깐.)

101009 @2 아마 그 때문일 거우다.(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101009 @ 게난 그 거욱대동산을 허물어둥은에 헷는데 지금 저기 거욱대 이십디다.(그러니깐 그 '거욱대동산'을 허물어둬서 했는데 지금 저기 '거욱대' 있습디다.)

101009 #1 잇는디 그게 거욱대 탑 쌓던 디 뭇아부난 이펜이 그 동산이 그 짤르단 남은 게 이시난 또 남은 디 강 쌓주게.(있는데 그게 '거욱대' 탑 쌓던 데 마버리니깐 이편에 그 동산이 그 자르다가 남은 게 있으니깐 또 남은 데 가서 쌓았지.)

101009 @ 으음.(으음.)

101009 @2 정자리가 아니고.(제자리가 아니고.)

101009 #1 예.(예.)

101009 @ 그런 식으로 이제 허다가.(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101009 #1 정자리가 아니우다.(제자리가 아닙니다.)

101009 @ 그래도 동네에서 이제 일들이 이시니까 이제 저게 싸아야겟다 헷나 보구나. 그러면은 그 거욱대는 하나밖에 엇어난마씨? 이 동네.(그래도 동네에서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게 쌓아야겠다 했나 보구나. 그러면 그 '거욱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동네.)

101009 #1 으.(으.)

101009 @ 젤 오랜 게 저기 거욱대구나예?(젤 오랜 게 저기 '거욱대'군요?)

101009 #1 이 가정집의는 이 저 탑을 못 싸게 허니까.(이 가정집에는 이 저 탑을 못 쌓게 하니까.)

101009 @ 으음.(으음.)

101009 #1 성읍리는 가정집의는 탑을 안 쌓아.(성읍리는 가정집에는 탑을 안 쌓아.)

101009 @ 그리고 여기 자랑거리는 그것 말고도 초가도 허주마는 향교도 잇고.(그리고 여기 자랑거리는 그것 말고도 초가도 하지만은 향교도 있고.)

101009 #1 생교 잇주.(향교 있지.)

101009 @ 예, 생교 잇고 일관헌도 잇고. 이런 관아 건물들 한 것도 성읍리 자랑 아닌가마씨? 우리 제주도에 있는 데가 거의 여기밖에 없으니까.(예, 향교 있고 일관헌도 있고. 이런 관아 건물들 많은 것도 성읍리 자랑 아닌가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데가 거의 여기밖에 없으니까.)

101009 #1 게난 그게 생교가 원래 저 고성[39] 잇어낫는데.(그러니까 그게 향교가 원래 저 고성 있었었는데.)

101009 @ 예.(예.)

101009 #1 고성리 잇다가 성읍리로 옮겨오면서 요디 성전터[40]엔 헌 디가 잇어.(고성리 있다가 성읍리로 옮겨오면서 요기 '성전터'이라고 한 데가 있어.)

101009 @ 성전터?('성전터'?)

101009 #1 어.(어.)

101009 @ 으.(으.)

101009 #1 거기를 지을랴고 재료를 갖다놧는데 그날 즈냑에 그 불 난에 그 재료가 타버리니까.(거기를 지으려고 재료를 갖다놨는데 그날 저녁에 그 불 나서 그 재료가 타버리니까.)

101009 @ 예.(예.)

101009 # 워님이 완 이디 짓지 말렌 헨 안 지엇젠 헙디다.(원님이 와서 여기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지었다고 합디다.)

101009 @ 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헌 거라?(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한 거야?)

101009 #1 이젠 간 자리가 그딜 갓주게. 성전터엔 헌 건 요딘데, 요딘디 그디질 처음 짓젠 헤낫덴 헙디다.(이젠 가서 자리가 거길 갔지. '성전터'라고 한 건 요긴데, 요긴데 거기 젤 처음 지으려고 했었다고 합디다.)

101009 @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제 느티남하고 그 다음.(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제 느티나무하고 그 다음.)

101009 #1 팽나무.(팽나무.)

101009 @ 팽나무예, 폭낭 이것도 완전 오래뒌 거잖아예?(팽나무요, 팽나무 이것도 완전 오래된 거잖아요?)

101009 #1 하여간 육백오십, 칠백 년 뒈실 거라.(하여간 육백오십, 칠백 년 됐을 거야.)

101009 @ 아, 그런, 그 폭남에도 얽힌 이야기가 이십디다. 옛날 거기 뭐 물 골른 거 먹으믄 어떵 헌다 허는 거.(아, 그런, 그 팽나무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습디다. 옛날 거기 뭐 물 고인 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

101009 #1 아, 그거는 그 나무도 시방은 잇어, 그냥.(아, 그거는 그 나무도 시방은 있어, 그냥.)

---

39) '고성'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40) '성전터'는 표선면 성읍1리의 지명의 하나다.

101009 @ 그냥 잇고예?(그냥 있고요?)
101009 #1 우리도 그걸 질어당 먹어봣는디.(우리도 그걸 길어다가 먹어봤는데.)
101009 @ 예.(예.)
101009 #1 나무가 요렇게 셍겻는디양.(나무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101009 @ 으.(으.)
101009 @2 가운디예.(가운데요.)
101009 #1 예. 요렇게 가진 벌이가 요렇게 생겻는디 요디 물이 흔 허벅 정도가 골라.(예. 요렇게 가진 벌이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기 물이 한 동이 정도가 고여.)
101009 @ 음.(음.)
101009 #1 게믄 이 놈의 물이 셍전 안 ᄇᆞ땅 그냥 잇어.(그러면 이 놈의 물이 생전 안 밭아서 그냥 있어.)
101009 @ 음.(음.)
101009 #1 게민 옛날도 무신 눈 아픈 사름 그 물 질어당은에 눈 시치민 좋넨 허곡덜 헤여낫주.(그러면 옛날도 무슨 눈 아픈 사람 그 물 길어다가 눈 씻으면 좋다고 하고들 했었지.)
101009 @ 아까 가지 벌어진 디를 뭐렌 ᄀᆞᆯ아마씨? 가지벌이?(아까 가지 벌어진 데를 뭐라고 말해요? '가지벌이'?)
101009 #1 가지 영 벌어졋주.(가지 이렇게 벌어졌지.)
101009 @ 으, 거기에 이런 호겡이가 생긴 거라예?(으, 거기에 이런 홈이 생긴 거네요?)
101009 #1 예, 지금도.(예, 지금도.)
101009 @ 지금도. 지금도 물 골라마씨?(지금도. 지금도 물이 고여요?)
101009 #1 예, 지금도. 그 물은 엇일 땐 엇주.(예, 지금도. 그 물은 없을 땐 없지.)
101009 @ 그게 저기 폭남이우과?(그게 저기 팽나뭅니까?)
101009 #1 팽낭.(팽나무.)
101009 @ 팽나무. 그 다음에 또 느티나문가 뭔가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허면 ᄇᆞ름 분다.(팽나무. 그 다음에 또 느티나문가 뭔가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하면 바람 분다.)
101009 #1 아니, 그거보단.(아니, 그거보단.)
101009 @ 으.(으.)
101009 #1 저것이 춤 나무가 이상헙니다. 흔 해는 남쪽에 ᄆᆞ녀 가지가 이파리가 돋을 적에 잇고.(저것이 참 나무가 이상합니다. 한 해는 남쪽에 먼저 가지가 이파리가 돋을 적에 있고.)
101009 @ 음.(음.)
101009 #1 북쪽에 돋을 때가 잇고. ᄆᆞ녀.(북쪽에 돋을 때가 있고. 먼저.)
101009 @ 예.(예.)

101009 #1 게민 어른덜 말씀이 저 가지 돋는 짝이 풍년이 든다.(그러면 어른들 말씀이 저 가지 돋는 쪽이 풍년이 든다.)

101009 @ 아아.(아아.)

101009 #1 이파리 ᄆᆞ녀 돋는 짝이 풍년이 든다.(이파리 먼저 돋는 쪽이 풍년이 든다.)

101009 @ 으음.(으음.)

101009 #1 남쪽이 ᄆᆞ녀민 남쪽에 풍년 들곡 북쪽에 허면은 북쪽에 풍년 들고.(남쪽이 먼저면 남쪽에 풍년 들고 북쪽에 하면은 북쪽에 풍년 들고.)

101009 @ 그 나무도 폭낭?(그 나무도 팽나무?)

101009 #1 그건 느티나무.(그건 느티나무.)

101009 @ 건 느티나무. 옛날에 그 느티나무예? 그런 거 잇고 여기엔 또 유명한 게 당도 유명하잖아예?(건 느티나무. 옛날에 그 느티나무요? 그런 거 있고 여기엔 또 유명한 게 당도 유명하잖아요?)

101009 #1 당이 여기 나가 알기로 ᄒᆞᆫ 다섯 개.(당이 여기 내가 알기로 한 다섯 개.)

101009 @ 음.(음.)

101009 #1 당 지금 다섯 개 ᄒᆞᆫ ** 잇어낫는디.(당 지금 다섯 개 한 ** 있었었는데.)

101009 @ 당 이름은 어떤 것덜?(당 이름은 어떤 것들?)

101009 #2 ᄂᆞᆺ은 당 잇고 높은 당 잇고.(낮은 당 있고 높은 당 있고.)

101009 @ 음.(음.)

101009 #1 또 잔인ᄆᆞ루[41]는 가면은 저, 저건 저건 베염당[42]엔 허는디, 베염당엔 허는디 ᄒᆞ나 잇고. 안할망[43] 잇고.(또 '잔인ᄆᆞ루'는 가면은 저, 저건 저건 '베염당'이라고 하는데, '베염당'이라고 하는데 하나 있고. '안할망' 있고.)

101009 @ 예.(예.)

101009 #1 또 저 거세기 문우당[44] 잇고. 문우당이 헌 디가 문우당이, 문우당엔 헌 당은 이 얼아이덜 머리에 허멀나면은 메 헹 강 그디 강 ᄀᆞ시허믄 그 허물 좋아진덴 허영덜 허영 우리 어린 때도 그거 봐낫고.(또 저 거시기 '문우당' 있고. '문우당'이라고 하는 데가 '문우당'이, '문우당'이라고 한 당은 이 어린아이들 머리에 종기나면 메 해서 가서 거기 가서 고사하면 그 종기 좋아진다고 해서들 해서 우리 어릴 때도 그거 봤었고.)

101009 @ 허물당이고? 안할망은?('허물당'이고? '안할망'은?)

101009 #1 안할망은 저 바로 지금 현 청사 잇는 데.('안할망'은 저 바로 지금 현

41) '잔인ᄆᆞ루'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지명의 하나다.
42) '베염당'은 뱀을 모시는 당(堂)이라는 의미다.
43) '안할망'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의 '안할망당'에 좌정해 있다는 신의 이름이다.
44) '문우당'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소재한 신당의 하나다. 어린아이들 허물이나 종기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청사 있는 데.)

101009 @2 예, 예.(예, 예.)

101009 #1 그디 잇어, 지금도.(거기 있어, 지금도.)

101009 @ 음, 거난 이 성읍리 본향은 이 어디우과?(음, 그러니까 이 성읍리 본향은 이 어디입니까?)

101009 #1 본향은 모르쿠다. 우린 어디산디.(본향은 모르겠습니다. 우린 어디인지.)

101009 @ 아, 게민 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당은, 요즘은 다니는 딘 어디마씨?(아, 그러면 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당은, 요즘은 다니는 덴 어디예요?)

101009 #1 이 안할망한티 가.(이 '안할망'한테 가.)

101009 @ 안할망?('안할망'?)

101009 # 안할망이 원래 옛날 할망인디 성격이 상당히 좋아낫젠 헙디다.('안할망'이 원래 옛날 '할망'인데 성격이 상당히 좋았었다고 합디다.)

101009 @ 음.(음.)

101009 #1 게난 줴 지영 영창에 들어간 사름 많이 다니곡.(그러니까 죄 지어서 영창에 들어간 사람 많이 다니고.)

101009 @ 예.(예.)

101009 #1 그 당에. 또 학생덜 쉬험 보레 가젠 헐 때, 그때덜 많이 다니고. 딴 디서도 와. 난산리[45] 같은 디서도.(그 당에. 또 학생들 시험 보러 가려고 할 때, 그 때들 많이 다니고. 딴 데서도 와. 난산리 같은 데서도.)

101009 @ 아.(아.)

101009 #1 게난 우리 장인 산 때 곧는 거 보니까 삼달리 사름이 이 제주시에 재판을 받으레 가는디 삼달리[46]서 바로 이제 그저 시에꼬지 가젠 허민 머니까 성읍리 왕 눗당 가젠 성읍리 오단에 아까 질레에서 그 사름이 오단 보니까 장꿩이 담고냥에 머릴 영 쳐박안 시난 그걸 잡안 심어아져 완에 그걸 잡안에 정성헨 간 그 안할망안티 뎅경 간 허니까 그 사람이 줴를 면헹 나왓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산 때 말하는 거 보니까 삼달리 사람이 이 제주시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삼달리서 바로 이제 그저 시에까지 가려고 하면 머니까 성읍리 와서 눴다가 가려고 성읍리 오다가 아까 길에서 그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장끼가 담구멍에 머릴 이렇게 처박아서 있으니까 그걸 잡아서 잡아가져서 와서 그걸 잡아서 정성해서 가서 그 '안할망'한테 다녀서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이 죄를 면해서 나왔다고 **.)

101009 @ 으음, 게난 그 장꿩 헹 간 정성헤둰은에 갓구나예? 아아.(으음, 그러니까 그 장끼 해서 가서 정성해두고 갔군요? 아아.)

101009 #1 이딘 대개 어디 쉬험 치레 갈 때. 그런 때덜은 딴 부락에서도 많이

45) '난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행정마을의 하나다.
46) '삼달리'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행정마을의 하나다.

와마씨.(여긴 대개 어디 시험 치러 갈 때. 그런 때들은 딴 부락에서도 많이 와요.)

101009 @ 예, 그게 안할망예? 알앗수다. 이 마을에 대헹예, 그거 말고 이제 유명헌 거, 소리꾼덜도 많다든가 이런 얘기덜 헤 봅서.(예, 그게 '안할망'요? 알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요, 그거 말고 이제 유명한 거, 소리꾼들도 많다든가 이런 얘기들 해 보십시오.)

101009 #1 소리꾼덜이 만헷는데 이젠 거의 돌아가셔버리고. 지금은 저 살아잇는 분은 남제덜은 엇고.(소리꾼들이 많았는데 이젠 거의 돌아가셔버리고. 지금은 저 살아있는 분은 남자들은 없고.)

101009 @ 예.(예.)

101009 #1 여자덜 혼두 분 쯤 살안.(여자들 한두 분 쯤 살았어.)

101009 @ 지금 놀이, 소리 잘허는 분마씨? 누구누구 잘해마씨? 지금 살앙.(지금 놀이, 소리 잘하는 분요? 누구누구 잘해요? 지금 살아서.)

101009 #1 저번에.(저번에.)

101009 @ 우리 왓단.(우리 왔던.)

101009 #1 할망. 우리 형순디.(할머니. 우리 형순데.)

101009 @ 이미생 할망예?(이미생 할머니요?)

101009 #1 형순디 이미생 송민선엔 헌 사름.(형순데 이미생 송민선이라고 하는 사람.)

101009 @ 또 송칩이네. 옛날부터 이 송칩이가 노래를 잘 불럿구나.(또 송집이네. 옛날부터 이 송집에가 노래를 잘 불렀구나.)

101009 #1 몰르쿠다, 건.(웃음)(모르겠습니다, 건.(웃음))

101009 @ (웃음). 삼춘네 일가우과?((웃음). 삼촌네 일갑니까?)

101009 #1 아, 우리허고 일가는 아닌데 그 사름네가 원래 어디 대정 사름인디 처가가 이 성읍리니까 성읍리 완 살아십주게.(아, 우리하고 일가는 아닌데 그 사람네가 원래 어디 대정 사람인데 처가가 이 성읍리니까 성읍리 와서 살았습지요.)

101009 @ 예.(예.)

101009 #1 살단에 죽어버리난 그 사름네가 일가가 엇수다.(살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네가 일가가 없습니다.)

101009 @ 음.(음.)

101009 #1 게난 족보상으로 하도 일가만 붙여달렌 헤연 우리신디 완 지금 일가로 헨에 족보도 만들고 헷는데. 그 사름네 게난 서대정 살단 오난 초상이 어디 신것도 모르고 아들 ᄒᆞ나 잇는디.(그러니까 족보상으로 하도 일가만 붙여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일가로 해서 족보도 만들고 했는데. 그 사람네 그러니까 서대정 살다가 오니까 조상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아들 하나 있는데.)

101009 @ 신평 쪽에도 송씨 잇고, 그 다음 여기 그때 여기 송지준 하르방네는 ᄀᆞ튼 일가 아니렌 헷잖아예?(신평 쪽에도 송씨 있고, 그 다음 여기 그때 여기 송지준 할아버지네는 같은 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01009 #1 누게?(누구?)
101009 @ 송지준 하르방네?(송지준 할아버지네?)
101009 #1 예, 그딘.(예, 거긴.)
101009 @ 송칩이도 여러 가지라는 거네.(송집에도 여러 가지라는 거네.)
101009 #1 본이 한 일곱 가지 뒌덴 허는디 **.(본이 한 일곱 가지 된다고 하는데 **.)
101009 @ 예에. 알앗수다.(예에. 알겠습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이제부턴 삼춘 나고 자란 과정 들어보쿠다. 언제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앗수가?(이제부턴 삼촌 나고 자란 과정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02001 #1 우리 낳기는 여기서 흔 오백 메다 쯤 가면은 우리 아버지네 그 살단 자린디, 거기서 난, 에 나가 열네 설에 일차 습격이 성읍리 들엇는디.(우리 낳기는 여기서 한 오백 미터 쯤 가면은 우리 아버지네 그 살던 자린데, 거기서 난, 에 내가 열네 살에 일차 습격이 성읍리 들었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내가 국민학교 육학년 때에 일차 습격 들언 성읍리 전부 불타불언 헷는데, 거기서 살단에 거기서 결혼허연 살고 허단에 그 나가 옛날 한라산에 도벌목[47]을 많이 헤낫수다게.(내가 국민학교 육학년 때에 일차 습격 들어서 성읍리 전부 불타버려서 했는데,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하다가 그 내가 옛날 한라산에 '도벌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도벌목 헤단에 땅 우리 아부지가 흔 백오십 평짜리 땅을 ᄒᆞ나 사주길래 나대로 집 지언, 집을 완전히 수리 못허연 군인[48]을 가불엇어. 군인 간 저 지금 처허고 결혼은 군대에서 휴가 완 결혼허고.('도벌목' 해다가 땅 우리 아버지가 한 백오십 평짜리 땅을 하나 사주기에 나대로 집 지어서, 집을 완전히 수리 못해서 군대를 가버렸어. 군대 가서 저 지금 처하고 결혼은 군대에서 휴가 와서 결혼하고.)
102001 @ 음, 게믄 혼자 독수공방헷엇네. 군인 가부니까예.(음, 그러면 혼자 독수공방했었네. 군대 가버리니까요.)
102001 #1 게난 씨아버지네허고 ᄀᆞ찌 살앗주.(그러니까 시아버지네하고 같이 살았지.)
102001 @2 음.(음.)

47) '도벌목'은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내는 일을 말한다.
48) 제보자는 여기에서 '군인'은 군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102001 @ 음.(음.)

102001 #1 나 십이월둘에 결혼허고 뒷해 나니까 구월달에 구 개월 만이 제대헨 완. 게난 제대헨 오난 그 집 짓어난 디 강 뚜로 살렌 헨에 뚜로 살안.(나 십이월달에 결혼하고 이듬해 되니까 구월달에 구 개월 만에 제대해서 와서. 그러니까 제대해서 오니까 그 집 지었던 데 가서 따로 살라고 해서 따로 살았어.)

102001 @ 예, 게난 삼춘 집 짓단 놔둔 디 간.(예, 그러니까 삼촌 집 짓던 놔둔 데 가서.)

102001 #1 갓다완 수리도 허고. 제대헨 완.(갔다와서 수리도 하고. 제대해서 와서.)

102002 @ 경헤근에 그 부모님은 어떤 일들을 한 거라마씨?(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은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102002 #1 우리 아버지넨 주로 농사.(우리 아버지네는 주로 농사.)

102002 @ 아.(아.)

102002 #1 옛날은 농사벳긴 제주도는, 성읍리는 헤볼 게 없고.(옛날은 농사밖에는 제주도는, 성읍리는 해볼 게 없고.)

102002 @ 예.(예.)

102002 #1 헤볼 게 없고. 나가 결혼헨에 흔 십오 년 넘으니까 우리 장인이 물을 좀 많이 헷는디.(해볼 게 없고. 내가 결혼해서 한 십오 년 넘으니까 우리 장인이 말을 좀 많이 했는데.)

102002 @ 예.(예.)

102002 #1 당신은 우리 장인이 저 자식이 없어.(당신은 우리 장인이 저 자식이 없어.)

102002 @ 음.(음.)

102002 #1 게난 우리 집사름도 저거 장인 자식이 아니라.(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거 장인 자식이 아니야.)

102002 @ 음.(음.)

102002 #1 우리 그 장인 처가 우리 집사름 고모주. 게난 고모네 집의 완 어린 때부터 살멍 허멍 허니까 뚤로 헨에 거기서 살안 결혼식도 헤주고.(우리 그 장인 처가 우리 집사람 고모지. 그러니까 고모네 집에 와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하니까 딸로 해서 거기서 살아서 결혼식도 해주고.)

102003 @ 그러면 아버지 고향도 성읍이고?(그러면 아버지 고향도 성읍이고?)

102003 #1 예, 우리 십사 대째.(예, 우리 십사 대째.)

102003 @ 아, 성읍리가. 어머니는?(아, 성읍리가. 어머니는?)

102003 #1 어머니는 가시리고.(어머니는 가시리고.)

102004 @ 아, 어머니는 가시리에서 여기 씨집온 거구나예? 예에. 그 다음에 삼춘, 어린 때는 어떤 놀이들 헤신고예? 삼춘네 어릴 때는. 노는 거는?(아, 어머니는 가시리에서 여기 시집온 거군요? 예에. 그 다음에 삼촌, 어릴 때는 어떤 놀이들 했

는가요? 삼촌네 어릴 때는. 노는 거는?)

102004 #1 우리 어린 때는 비석치기[49]엔 헤영 돌로 영 저기 세와낭 맞추고.(우리 어릴 때는 '비석치기'라고 해서 돌로 이렇게 저기 세워놓고 맞히고.)

102004 @ 예.(예.)

102004 #1 다마치기[50]. 돌생기[돌쌩기] 허영 뭇앙은에 다마치기허곡. 영 고냥치기[51]엔 헌 거는 동전 엇이난에 옛날은 사그망치주제기 허영 동글락허게 뭇앙 고냥 똘라놩 고냥치기 허곡.(구슬치기. 돌멩이 해서 마서 구슬치기하고. 이렇게 '고냥치기'라고 한 거는 동전 없으니까 옛날은 사금파리 해서 동그랗게 마서 구멍 뚫어놓아서 '고냥치기' 하고.)

102004 @ 예, 고망치기 허고. 그것만 헤봅디가?(예, '고망치기' 하고. 그것만 해봅디까?)

102004 #1 그것벳긔 무시거 헐 게 잇어?(그것밖에 무엇 할 게 있어?)

102004 @ 다른 뭐 ᄆᆞᆯ탈락여 이런 건 아녀보고.(다른 뭐 말타기다 이런 건 안 해보고.)

102004 #1 ᄆᆞᆯ탈락은 조금 역앙.(말타기는 조금 커서.)

102004 @ 예.(예.)

102004 #1 역안에. 나가 열일곱 설부터 마차를 허기 시작헷는디. 그 마차 허기 시작허기 전부터 ᄆᆞᆯ탐을 베왓주.(커서. 내가 열일곱 살부터 마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차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말타기를 배웠지.)

102004 @ 그때는 마차 허민 어떤 일을 헌 거마씨?(그때는 마차 하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102004 #1 아이, 마차 일은 많주. 이 팔월 나면은 촐 비면은 밧듸 눌엇당 마차로 시꺼와야주.(아니, 마차 일은 많지. 이 팔월 되면 꼴 베면은 밭에 가리었다가 마차로 실어와야지.)

102004 @ 으.(으.)

102004 #1 뭐 돗가레도 허민 마차로 시꺼가야지. 전부 마차벳긔는 운반헐 게 엇이난. 차도 엇고 아무것도 엇인 때난 마차로만 다.(뭐 돼지거름도 하면 마차로 실어가야지. 전부 마차밖에는 운반할 게 없으니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니까 마차로만 다.)

102004 @ 게민 그거는 우리 집 일 말고 남의 집 일도 허는 거우과? 아아.(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 일 말고 남의 집 일도 하는 겁니까? 아아.)

102004 #1 ᄒᆞ루 일 헤봐야 ᄒᆞ루 흔 팔백 원. 팔백 원벳긔 일당도 못 받고.(하루 일 해봐야 하루 한 팔백 원. 팔백 원밖에 일당도 못 받고.)

102004 @ 그 마차를 이 동네는 바레기렌 헙니까?(그 마차를 이 동네는 '바레기'

49) '비석치기'는 돌로 세워 놓은 돌을 쓰러뜨리며 노는 아이들의 놀이다.
50) '다마치기'는 구슬치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다마(たま)'는 구슬의 일본어다.
51) '고냥치기'는 구멍을 파놓은 곳에 사금파리를 넣은 후에 그걸 돌로 꺼내며 노는 아이들의 놀이다. 여기에서 '고냥'은 구멍, '-치기'는 놀이에 붙는 접미사다.

라고 합니까?)

102004 #1 바레기. 구루마[52], 구루마.(‘바레기’. 구루마, 구루마.)

102004 @ 으.(으.)

102004 #1 겐디 그때는 마차조합이 있어.(그런데 그때는 마차조합이 있어.)

102004 @ 음.(음.)

102004 #1 성읍리서도 마차가 좀 많긴 헷는디.(성읍리에서도 마차가 좀 많긴 했는데.)

102004 @ 아.(아.)

102004 #1 열두 사름이 조합을 헷는디.(열두 사람이 조합을 했는데.)

102004 @ 예.(예.)

102004 #1 짐새[53]엔 헌 게 잇어이. 짐새.(‘짐새’라고 한 게 있어. ‘짐새’.)

102004 @ 예.(예.)

102004 #1 김 부찌는 새.(김 붙이는 띠.)

102004 @ 예, 예, 예, 예. 짐.(예, 예, 예, 예. 김.)

102004 #1 팔월에 비는디, 팔월에 비면은 새가 파랑, 새파랑허주. 그거 당캐[54]에 실렁 가는 것도 조합에 가입 아년 사름은 운반을 못허여. 또 겨울틀미는 황모[55]로 뭘 짜냐 허민 뜸.(팔월에 베는데, 팔월에 베면은 띠가 파랑, 새파랗지. 그거 ‘당캐’에 실어서 가는 것도 조합에 가입 않은 사람은 운반을 못해. 또 겨울 들면 ‘황모’로 뭘 짜냐 하면 뜸.)

102004 @ 예.(예.)

102004 #1 뜸은 인삼밧듸 더끄는 거.(뜸은 인삼밭에 덮는 거.)

102004 @ 음.(음.)

102004 #1 그거 짜면은 그것도 실러가곡. 기자 마차 헐 일은 하주.(그거 짜면 그것도 실어가고. 그저 마차 할 일은 많지.)

102004 @ 짐새는 어떤 식으로 만들엇던 거우과?(‘짐새’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던 겁니까?)

102004 #1 짐새는 팔월 나민 비주.(‘짐새’는 팔월 되면 베지.)

102004 @ 예.(예.)

102004 #1 팔월 이 멩질 지나민 비여야 뒈.(팔월 이 명절 지나면 베어야 되어.)

102004 @ 게민 그거는?(그러면 그거는?)

102004 #1 그 색깔이 파랑헐 때 비면은 물류와도 파랑헌 냥 잇어.(그 색깔이 파랄 때 베면 말려도 파란 대로 있어.)

102004 @ 아.(아.)

102004 #1 경헤영 김 부찌는 거.(그렇게 해서 김 붙이는 거.)

---

52) ‘구루마’는 마차의 일본어다.

53) ‘짐새’는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띠를 말한다. ‘짐’은 표준어 ‘김’, ‘새’는 표준어 ‘띠’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54) ‘당캐’는 표선면 표선리의 포구 이름이다.

55) ‘황모’는 누렇게 익은 띠를 말한다.

102004 @ 김 부치는 거는 영 뜸처럼 짜지 안허고마씸?(김 붙이는 거는 이렇게 뜸처럼 짜지 않고요?)

102004 #1 그디 가민 그 사름네가 짱 허주게.(거기 가면 그 사람네가 짜서 하지.)

102004 @ 아아, 짐새로만 ᄑᆞ는 거라예? 다 깨끗허게만 헤갖고. 그걸 청새로 비영은에 허는 거우과?(아아, '짐새'로만 파는 거네요? 다 깨끗하게만 해갖고. 그걸 '청새'로 베어서 하는 겁니까?)

102004 #1 청새[56].('청새'.)

102004 @ 청새. 아까 황새는?(청새. 아까 '황새'는?)

102004 #1 황새[57]는 가을 뒈민 비주.('황새'는 가을 되면 베지.)

102004 @ 뜸은 황새로 허고? 으음 아까 황모렌.(뜸은 '황새'로 하고? 으음 아까 '황모'라고.)

102004 #1 저걸로 저 뜸 짜주.(저걸로 저 뜸 짜지.)

102004 @ 아아, 짐새는 청새로 비영 허고 게믄 황새로 황모옌도 허여?(아아, '짐새'는 '청새'로 베어서 하고 그러면 '황새'로 '황모'라고도 해?)

102004 #1 황모엔도 허고 저 새엔도 허곡 그자. 새엔 많이 헷주.('황모'라고도 하고 저 띠라고도 하고 그저. '새'라고 많이 했지.)

102004 @ 어딘 가난 익은새엔도 헙디다.(어딘 가니까 '익은새'라고도 합디다.)

102004 #1 어딘 가난 늙은새엔도 허는 디가 잇어.(어딘 가니까 '늙은새'라고도 하는 데가 있어.)

102004 @ 아, 늙은새엔도 헙디가? 게니까 그걸로 헤서 이제 뜸도 하고예, 그런 거를 마차조합에서 운반을 헌 거구나.(아, '늙은새'라고도 합디까?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뜸도 하고요, 그런 거를 마차조합에서 운반을 한 거구나.)

102004 #1 예.(예.)

102004 @ 수출허젠, 육지로 수출허젠 허난 당캐로 간예?(수출하려고, 육지로 수출하려고 하니까 '당캐'로 갔다고요?)

102004 #1 당캐 가야 베에 실를 거난.('당캐' 가야 배에 실을 거니까.)

102005 @ 음,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엔예, 그 공출? 삼촌도.(음,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엔요, 그 공출? 삼촌도.)

102005 #1 보리 공출.(보리 공출.)

102005 @ 일제 때 공출헤난 거 들어봅디가?(일제 때 공출했던 거 들어봅디까?)

102005 #1 아, 우리 아버지네 공출허는 걸 나가 봣주게.(아, 우리 아버지네 공출하는 걸 내가 봤지.)

102005 @ 예, 보리만 공출헨? 어떤 것덜?(예, 보리만 공출했어요? 어떤 것들?)

102005 #1 보리벳긴.(보리밖엔.)

---

56) '청새'는 파란 띠를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익은 띠를 '황새' 또는 '황모'라고 하였다.
57) '황새'는 누렇게 익은 띠를 말한다. 달리 '황모'라고 한다.

102005 @ 감저는?(고구마는?)

102005 #1 고구마는 공출 아녓고, 빼데기 헹 빼데기 헤영 픈는 건 봣는디. 저 놋그릇 많이 공출헤가고.(고구마는 공출 안 했고, 고지 해서 고지 해서 파는 건 봤는데. 저 놋그릇 많이 공출해가고.)

102005 @ 으음, 삼촌네 집의 것도 놋그릇.(으음, 삼촌네 집에 것도 놋그릇.)

102005 #1 아이고, 우리 아버지네 집의도 제사허니까 저 가져가지 못허게 험으로 구들 청장 우의에 올려놔신디 어떵사 알아신디 면에서 완 촞아낸에 가져가불언. 그땐 면서기덜.(아이고, 우리 아버지네 집에도 제사하니까 저 가져가지 못하게 함으로 구들 천장 위에 올려놨는데 어떻게야 알았는지 면에서 와서 찾아내어서 가져가 버렸어. 그땐 면서기들.)

102005 @ 면서기덜이예. 그게 다 총뿌렝이 만든덴 허멍 가져간 거 아니라예?(면서기덜이요. 그게 다 총부리 만든다고 하면서 가져간 거 아닌가요?)

102005 #1 모르주.(모르지.)

102005 @ 건 모르고.(건 모르고.)

102005 #1 그게 츰 놋그릇 헤연에 비헹기 만든덴 허더고. 일본 간.(그게 참 놋그릇 해서 비행기 만든다고 하더라고. 일본 가서.)

102005 @ 아, 비행기 만드는 저기로. 게난 그 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난예? 공출 때문에 막 배고팟던 경험은 엇어마씨?(아, 비행기 만드는 저기로. 그러니까 그 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요? 공출 때문에 매우 배고팠던 경험은 없어요?)

102005 #1 베고픔은 하영 잇주.(배고픔은 많이 있지.)

102005 @ 어떵 배고팟수가?(어떻게 배고팠습니까?)

102005 #1 그게 보리 공출 헤버리면은 경 아녀도 식량이 모지랜디 보리 공출 멧 가마 허민 그 가마니는 바쳐야 뒈니깐 그거 바쳐버리면은 팔월 나미는 쏠 떨어지면 어머니네 종달리나 함덕 근방에 내넌 보리 나민 물어주켄 허영 다 장례 빗지곡. 장례 빗지레 뎅겨. 우리 그렇게 허멍 살안.(그게 보리 공출 해버리면 그렇게 않아도 식량이 모자란데 보리 공출 몇 가마 하면 그 가마니는 바쳐야 되니깐 그거 바쳐버리면 팔월 되면 쌀 떨어지면 어머니네 종달리나 함덕 근방에 내년 보리 나면 물어주겠다고 해서 다 장리 빚지고. 장리 빚지러 다녀.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2005 @ 장례 빗지레예? 게영 그 굶엉은에 장례 빗정 온덴 헤도 또 굶잖아예?(장리 빚지러요? 그래서 그 굶어서 장리 빚져서 온다고 해도 또 굶잖아요?)

102005 # 굶주, 뭐.(굶지, 뭐.)

102005 @ 그 굶을 때 뭐 구황식물로 뭐 헹 먹으는 거 잇어마씨?(그 굶을 때 뭐 구황식물로 뭐 해서 먹는 거 있어요?)

102005 #1 구황 뭐. 먹을 게 아무 것도 엇주 뭐.(구황 뭐. 먹을 게 아무 것도 없지 뭐.)

102005 @ 으, 그냥 굶으는 거.(으, 그냥 굶는 거.)

102005 #1 고구마나 이시믄 땅 팡 묻엇당 겨울에 땅 팡 묻엇당 그거나 뽑아내영 청 먹음벳기 원.(고구마나 있으면 땅 파서 묻었다가 겨울에 땅 파서 묻었다가 그거나 뽑아내서 쪄서 먹을밖에 전혀.)

102005 @ 음, 밥도 게민 두 끼만 먹고 영 헤시쿠다예?(음, 밥도 그러면 두 끼만 먹고 이렇게 했겠네요?)

102005 #1 두 끼 먹을 때가 하주.(두 끼 먹을 때가 많지.)

102005 @ 두 끼 먹을 때.(두 끼 먹을 때.)

102005 #1 게난 놈의 일 허레 가면은 밥 세 끼 줄 거난 놈의 일 어디 헐 거만 이시민 그런 디만.(그러니까 남의 일 하러 가면은 밥 세 끼 줄 거니까 남의 일 어디 할 거만 있으면 그런 데만.)

102006 @ 으음. 집에는 먹을 거 없고. 사삼 때도 하영 힘들게 살앗지 아녓구양? 사삼 얘기 헤봅서.(으음. 집에는 먹을 거 없고. 사삼 때도 많이 힘들게 살았지 않았군요? 사삼 얘기 해보십시오.)

102006 #1 사삼 때 힘들엇주. 우리 아버지네 집이, 집이 세 거리랏는디 우연에 조눌[58]도 눌고 피눌[59]도 눌고 쉐 먹을 촐눌[60]도 눌고 헷는디. 게난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고.(사삼 때 힘들었지. 우리 아버지네 집이, 집이 세 채였는데 터 알에 '조눌'도 가리고 '피눌'도 가리고 소 먹을 '촐눌'도 가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일부러 불을 붙인 게 아니고.)

102006 @ 예.(예.)

102006 #1 그 곡석눌에 완 불을 부쳐부니까 집 옆이니깐 그땐 게연 집 세 거린디 두 거린 타불고 흔 거리 안 탄 헷는디 그 ᄉᆞ삼사건에 그렇게 허고.(그 곡식가리에 와서 불을 붙여버리니까 집 옆이니깐 그땐 그래서 집 세 챈데 두 채는 타버리고 한 채 안 타서 했는데 그 사삼사건에 그렇게 하고.)

102006 @ 뭐 피해보거나 이런 건 엇고?(뭐 피해보거나 이런 건 없고?)

102006 #1 피해, 불 부쪄부난 그놈덜 완 불 부쪄부니까 다 타볏지.(피해, 불 붙여버리니까 그놈들 와서 불 붙여버리니까 다 타버렸지.)

102006 @ 사람이?(사람이?)

102006 #1 사람이 죽거나 뭐허진 안허고.(사람이 죽거나 뭐하진 않고.)

102006 @ 아, 게도 다른 데보다는 성읍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은 하지 아녀지 않읍니까?(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성읍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102006 #1 일차 습격 때에 성읍리서 사람 죽은 게 ᄒᆞ루에 일차 습격 때 죽은 사름이 마흔두 사름이 죽고 이차엔 다섯 사름인가 죽고 헷주.(일차 습격 때에 성읍

58) '조눌'은 조를 쌓은 가리를 말한다. '조눌'의 '눌'은 문헌어 '누리'에서 온 말로, 표준어 '가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59) '피눌'은 피를 쌓은 가리를 말한다.
60) '촐눌'은 '촐+눌' 구성으로, '촐'은 표준어 '꼴', '눌'은 표준어 '가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리에서 사람 죽은 게 하루에 일차 습격 때 죽은 사람이 마흔두 사람이 죽고 이차엔 다섯 사람인가 죽고 했지.)

102006 102008 @ 음.(음.)

102006 #1 이차에는 성을 쌓아버리니까.(이차에는 성을 쌓아버리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성 안티렌 못 들어오니까 성 벳겻디 다니는 사름은 죽여분 거주.(성 안으론 못 들어오니까 성 바깥에 다니는 사람은 죽여버린 거지.)

102007 @ 음, 그 다음에 결혼은 중매결혼 헙디가? 연애결혼 헙디가?(음, 그 다음에 결혼은 중매결혼 합디까? 연애결혼 합디까?)

102007 #1 나 군대 가기 전에 좀 알앗단에.(나 군대 가기 전에 좀 알았다가.)

102007 @ 예.(예.)

102007 #1 게난 나가 자꾸 편지로 지금 집, 아버지네안티 이제 그디 강 새각시 구헤근에 헤줍센 자꾸 편질 허난.(그러니까 내가 자꾸 편지로 지금 집, 아버지네한테 이제 거기 가서 새색시 구해서 해주십사고 자꾸 편질 하니깐.)

102007 @ 게난 그 전에.(그러니까 그 전에.)

102007 #1 새각시허고 안면은 잇엇고.(새색시하고 안면은 있었고.)

102007 @ 안면은? 어떵허연 알아수가?(안면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102007 #1 같은 동네난에 무신.(같은 동네니까 무슨.)

102007 @ 그때부터 마음에 연정은 품엉 잇어낫구나.(웃음).(그때부터 마음에 연정은 품어서 있었었구나.(웃음).)

102007 @2 (웃음).

102007 @ 게영 그렇게 해서 연애 반 중매 반.(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애 반 중매 반.)

102007 #1 경헷주.(그렇게 했지.)

102007 @ 아, 군대 가기 전에도 만나기도 허고예?(아, 군대 가기 전에도 만나기도 하고요?)

102007 #1 군대 가기 전에 만나단 간.(군대 가기 전에 만나다가 갔어.)

102007 @ 군대 가부니까 어디 도망가부카부덴 군대 갓당 휴가 완 결혼헤불엇구나?(군대 가버리니까 어디 도망가버릴까보아 군대 갔다가 휴가 와서 결혼해버렸구나?)

102007 #1 휴가 그때도 휴가 오젠 허면은.(휴가 그때도 휴가 오려고 하면.)

102007 @ 이유가 잇엇주.(이유가 있었지.)

102007 #1 이 신부 사진 딱 펜지 소곱에 봉토 소곱에 놩 보내지 아녀민 휴가를 안 줘.(이 신부 사진 딱 편지 속에 봉투 속에 넣어서 보내지 않으면 휴가를 안 줘.)

102007 @ 음.(음.)

102007 #1 경헹 딱 사진 놩 신부 사진 놩 보내사.(그렇게 해서 딱 사진 넣어서 신부 사진 넣어서 보내야.)

102007 @ 음, 게믄 강 결혼헹 올 걸로 헹은에 휴가.(음, 그러면 가서 결혼해서 올 걸로 해서 휴가.)

102007 #1 특별휴가엔 헨 십오일 주주.(특별휴가라고 해서 십오일 주지.)

102008 @ 예에, 그 다음에 그때 사주도 봣겟다예?(예에, 그 다음에 그때 사주도 봤겠네요?)

102008 #1 사주사 봣주.(사주야 봤지.)

102008 @ 사주 보난 뭐렌 나와십디가?(사주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디까?)

102008 #1 사주 보난 좋으난 잘 살암주. 진짜.(사주 보니까 좋으니까 잘 살고 있지. 진짜.)

102008 @ (웃음).

102008 #1 돈 촌에서 하영 벌엇어.(돈 촌에서 많이 벌었어.)

102008 @ 하영 벌엇수가?(많이 벌었습니까?)

102008 #1 하영 버난 아이덜 칠 남매 다 결혼시키고 아덜덜 성제 지금 시[61]에 간 집 산 살고. 우리 이것도 내가 이 팔십이년도[62]에 지엇는디 이거.(많이 버니까 아이들 칠 남매 다 결혼시키고 아들들 형제 지금 제주시에 가서 집 사서 살고. 우리 이것도 내가 이 팔십이년도에 지었는데 이거.)

102008 @ 예.(예.)

102008 #1 팔십이년 지을 때에 쳇아덜, 거 큰아덜 줄 거난에 아시에 큰아덜 이름으로 집을 건축 허가 받안 지은 거주. 아시에 이 저 땅 이전도 아덜 이름으로 이전헤불곡. 게난 난 시방 삼십이년 저 집 읏이 살암서. 놈의 집 살암서.(팔십이년 지을 때에 첫아들, 거 큰아들 줄 거니까 애초에 큰아들 이름으로 집을 건축 허가 받아서 지은 거지. 애초에 이 저 땅 이전도 아들 이름으로 이전해버리고. 그러니까 난 시방 삼십이년 저 집 없이 살고 있어. 남의 집 살고 있어.)

102008 @ (웃음).

102008 #1 진짜.(진짜.)

102008 @ 으. 놈의 집 아덜 집이.(으. 남의 집 아들 집에.)

102008 #1 게난 나 재산세 안 나온 지가 이십 년 뒘서.(그러니까 나 재산세 안 나온 지가 이십 년 되고 있어.)

102008 @ 게난 삼춘은 재산 헤도 기초연금도 받암신게에.(그러니까 삼촌은 재산 해도 기초연금도 받고있네요.)

102008 #1 아니, 재산이 엇어. 재산세 십 원 안 내건디가 이십년 넘넨 허난.(아니, 재산이 없어. 재산세 십 원 안 낸지가 이십년 넘는다고 하니까.)

102008 @ 게난 미리 다 줘불언?(그러니까 미리 다 줘버렸어요?)

102008 #1 우리 막넹이아덜은 열아홉 설에 내가 재산을 좀 이전을 헷주게.(우리 막내아들은 열아홉 살에 내가 재산을 좀 이전을 했지.)

---

61) 여기에서 '시'는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62) 여기에서 '팔십이년도'는 1982년도를 가리킨다.

102008 @ 예.(예.)

102008 #1 웨냐민 아메도 줄 거난 에이 헤분덴 허연. 세무소에서 벌금이 천만 원 나왓어.(왜냐면 아마도 줄 거니까 에이 해버린다고 했어. 세무서에서 벌금이 천만 원 나왔어.)

102008 @ 으.(으.)

102008 @2 으으으음.(으으으음.)

102008 @ 증여세 나와불엇구나.(증여세 나와버렸구나.)

102008 #1 아이, 겐 세무서에 간에 아이 이거 어떵허연 이렇게 **냐고. 아이고, 아저씨 무사 성질 급허게 헙디겐. 무사 말이넨 허난. 일 년만 잇당 헤시민 야이가 스물만 넘엉 헤벼시민 미성년자가 안 뒐 건디 열아홉 설에 헤부리니까 미성년자로 벌금으로 이거 천만 원이우덴. 막 ᄉᆞ정헤연 칠백만 원 물엇어, 칠백.(아니,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아니 이거 어떡해서 이렇게 **냐고. 아이고, 아저씨 왜 성질 급하게 합디까고. 왜 말이냐고 하니까. 일 년만 있다가 했으면 얘가 스물만 넘어서 해버렸으면 미성년자가 안 될 건데 열아홉 살에 해버리니까 미성년자로 벌금으로 이거 천만 원입니다고. 매우 사정해서 칠백만 원 물었어, 칠백.)

102008 @ (웃음). 게난게, 미성년자안티는게.((웃음).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102008 #1 미성년자는.(미성년자는.)

102008 @ 돈도 벌 수도 없는디.(돈도 벌 수도 없는데.)

102008 #1 미성년잔디 재산 이전헤 줫덴 벌금이렌.(미성년잔데 재산 이전해 줬다고 벌금이라고.)

102008 @ 게난 벌금 물멍까지도 다 분짓헤불언예?(그러니까 벌금 물면서까지도 다 분깃해버렸어요?)

102008 #1 경헤부난 좋긴 허고 이젠.(그렇게 해버리니까 좋긴 하고 이젠.)

102008 @2 게난 자식덜 너무 착허우다게. 지금 가끔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그렇게 자식덜안테 재산 물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안 본다고 허는 거라예.(그러니까 자식들 너무 착합니다. 지금 가끔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그렇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안 본다고 하는 거래요.)

102008 #1 안 보민 이젠 부모 박대허미는 재산 반환.(안 보면 이젠 부모 박대하면 재산 반환.)

102008 @ 청구.(청구.)

102008 #1 춪아앗아불주.(찾아가져버리지.)

102008 @2 췌근에.(최근에.)

102008 #1 법이 경 뒘수게.(법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102008 @2 바꽈지긴 헷는데.(바뀌지긴 했는데.)

102008 #1 춪아앗아불주 뭐.(찾아가져버리지 뭐.)

102008 @ 으.(으.)

102008 @2 자재분들 착허우다.(자재분들 착합니다.)

102008 @ 용돈 받암수가?(용돈 받고 있습니까?)

102008 #1 용돈은 아져오주게. 용돈은 아져오는디 그자 밧 임대해도 나 돈은 통장으로 그자 부쳐줘불어. 나 그거 아니라도 먹엉 살 거난.(용돈은 가져오지. 용돈은 가져오는데 그저 밭 임대해도 나 돈은 통장으로 그저 부쳐줘버려. 나 그거 아니라도 먹어서 살 거니까.)

102008 @ 게난 자식들안테 밧 임제, 임대허영은에 농사지엄서마씨?(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밭 임자, 임차해서 농사짓고 있어요?)

102008 #1 아니, 아니. 나가 허는 게 아니고.(아니,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102008 @ 아.(아.)

102008 #1 놈을 빌려주듯이 가네 시에 살아부난 나신디 왕 밧 임대헤불믄게 임대료를 가네 통장으로 부쳐줘.(남을 빌려주듯이 걔네 제주시에 살아버리니까 나한테 와서 밭 임차해버리면 임차료를 걔네 통장으로 부쳐줘.)

102008 @ 으음, 아이고 분짓헤도게 살아생전이야 그 밧 나오는 거는 삼춘네가 먹어야주게. 게난 그거 안 헤도 먹을 만큼 잇다는 소리라예. 삼춘 통장에 돈이 한 모냥이라.(으음, 아이고 분짓해도 살아생전이야 그 밭 나오는 거는 삼촌네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먹을 만큼 있다는 소리네요. 삼촌 통장에 돈이 많은 모양이네.)

102008 #1 통장에 한 게 아니고 나 지금 그럭저럭 흔 한 달에 한 오륙십만 원 나오난 그걸로 먹엉 살주 뭐.(통장에 많은 게 아니고 나 지금 그럭저럭 한 한 달에 한 오륙십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 먹어서 살지 뭐.)

102009 @ 알앗수다.(웃음). 옛날에 결혼헐 때예 혼수품 결혼 예물 이런 것도 헤줜마씨?(알았습니다.(웃음). 옛날에 결혼할 때요 혼수품 결혼 예물 이런 것도 해줬어요?)

102009 #1 옛날은 그런 게 없주.(옛날은 그런 게 없지.)

102009 @ 우리 여자 삼춘은 뭐 헹 와십데가?(우리 여자 삼촌은 뭐 해서 왔습디까?)

102009 #1 이불허고 궤허곡.(이불하고 궤하고.)

102009 @ 이불허곡 궤허고.(이불하고 궤하고.)

102009 #1 그거라 원, 옛날은.(그거야 원, 옛날은.)

102009 @ 삼춘이 헤준 거는?(삼촌이 해준 거는?)

102009 #1 나 헤준 건 나 뭐 군대 가 이신 놈이 나가 어떵 허영 헤줘.(나 해준 건 나 뭐 군대 가 있는 놈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해줘.)

102009 @ 결혼허젠 허민 뭔가 여자안테도, 여자 집에를 뭐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잇어실 거 아니마씨?(결혼하려고 하면 뭔가 여자한테도, 여자 집에를 뭐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예요?)

102009 #1 여자 집에 보내는 건 옛날은 없고.(여자 집에 보내는 건 옛날은 없고.)

102009 @ 아, 여자들만 헤오는 거?(아, 여자들만 해오는 거?)

102009 #1 여자덜, 원 게난 여자덜도 하영 헹오도 아녀주게. 이불 ᄒᆞ나허곡 궤하나허곡.(여자들, 원 그러니까 여자들도 많이 해오지도 않지. 이불 하나 하고 궤하나하고.)

102010 @ 아, 경허고. 그 다음에 결혼은 어디서 헨마씨?(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은 어디서 했어요?)

102010 #1 아버지네 집의서.(아버지네 집에서.)

102010 @ 아버지네 집에서?(아버지네 집에서?)

102010 @2 아, 집에서예?(아, 집에서요?)

102010 @ 음. 게영 사진도 찍엇수가?(음.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까?)

102010 #1 사진이 어디 잇어? 안 찍엇주.(사진이 어디 있어? 안 찍었지.)

102010 @ 옛날은 집에서 헤도 사진 찍습디다.(옛날은 집에서 해도 사진 찍습디다.)

102010 #1 돈이랑말앙. 돈 잇어사 사진을 찍주.(돈은커녕. 돈 있어야 사진을 찍지.)

102010 @ 삼춘 결혼헐 때는 사진도 안 찍곡. 집 마당에서만 저기 헷수가?(삼촌 결혼할 때는 사진도 안 찍고. 집 마당에서만 저기 했습니까?)

102010 #1 ᄆᆞᆯ 탕 옛날은 가마 타곡 허영.(말 타서 옛날은 가마 타고 해서.)

102010 @ 여기서. 그 아버지네 동네는 어느 동네라난마씨? 여기, 거기는.(여기서. 그 아버지네 동네는 어느 동네였었어요? 여기, 거기는.)

102010 #1 일로 바로 여기. 이렇게 가면 사거리.(일로 바로 여기. 이렇게 가면 사거리.)

102010 @1 ᄀᆞ튼 하동?(같은 '하동'?)

102010 #1 아니, 그디는 동동[63].(아니, 거기는 '동동'.)

102010 @ 동동.('동동'.)

102010 #1 동하동[64].('동하동'.)

102010 @ 음, 동하동. 게난 거기까지는 ᄆᆞᆯ을 탕 가곡.(음, '동하동'.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말을 타서 가고.)

102010 #1 ᄆᆞᆯ 탕 가곡 여잔 가마 타고.(말 타서 가고 여잔 가마 타고.)

102010 @ 여자 삼춘넨 어디? 집이?(여자 삼촌네는 어디? 집이?)

102010 #1 저 느티나무 잇는 디 바로 그디라.(저 느티나무 있는 데 바로 거기야.)

102010 @ 그 느티나무 동네는 무슨 동네우과?(그 느티나무 동네는 무슨 동넵니까?)

102010 #1 그게 동하동.(그게 '동하동'.)

---

63) '동동'은 성읍1리의 자연마을의 하나. 마을 동쪽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64) '동하동'은 성읍1리 자연마을의 하나. 마을 동쪽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02010 @ 아 동하동. 게난 동하동에서?(아 '동하동'. 그러니까 '동하동'에서?)

102010 #1 서하동[65].('서하동'.)

102010 @ 서하동으로 가니까 삼촌은 물 탕 가곡 그 다음 여자 삼촌은?('서하동'으로 가니까 삼촌은 말 타서 가고 그 다음 여자 삼촌은?)

102010 #1 가마 타고.(가마 타고.)

102010 @ 가마 타고. 어, 가마 타고 헹은에 옛날식으로 헌 거네예.(가마 타고. 어, 가마 타고 해서 옛날식으로 한 거네요.)

102010 #1 아주 옛날식이주.(아주 옛날식이지.)

102010 @ 음, 겡은에 이제 뭐 그 기러기우과? 뭐우과? 이런 거?(음, 그래서 이제 뭐 그 기러깁니까? 뭡니까? 이런 거?)

102010 #1 아이고, 아.(아이고, 아.)

102010 @ 그런 거는 안하고. 어떤 식으로 결혼헌 거라마씨?(그런 거는 않고. 어떤 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102010 #1 가마 탕 오민 여기 왕 난 처가칩의 강 상 받곡 새각신 씨집이 왕 상 받곡 허민 그게 결혼식이주, 무신.(가마 타서 오면 여기 와서 난 처갓집에 가서 상 받고 새색시는 시집에 와서 상 받고 하면 그게 결혼식이지, 무슨.)

102010 @ 밥 먹고 상 받으민 그게 결혼식.(밥 먹고 상 받으면 그게 결혼식.)

102010 #1 그거주게.(그거지.)

102010 @ 어떵 상 받을 때 뭐 나와십디가?(어떻게 상 받을 때 뭐 나왔었습디까?)

102010 #1 신부상엔 헤근에 옛날은 우리도 어린 때 그렇게 해 봣는디 신랑이 왕 상 받은 때난 신부가 왕 상 받은 때나.(신부상엔 해서 옛날은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해 봤는데 신랑이 와서 상 받은 때니까 신부가 와서 상 받을 때나.)

102010 @ 음.(음.)

102010 #1 그 이 신랑이나 신부나 저 밥을 다 먹지 아녕양?(그 이 신랑이나 신부나 저 밥을 다 먹지 않아서요?)

102010 @ 예.(예.)

102010 #1 옆에 영 아이덜 앚아시민 조끔씩 수까락으로 떠 주주게.(옆에 이렇게 아이들 앉았으면 조금씩 숟가락으로 떠 주지.)

102010 @ 예.(예.)

102010 #1 그거 얻어먹을라고 아이덜 막.(그거 얻어먹으려고 아이들 막.)

102010 @2 창문에?(창문에?)

102010 #1 어, 신부가 왕 앚이민 막 창문에 왕 막 밀리멍덜.(어, 신부가 와서 앉으면 마구 창문에 와서 마구 밀리면서들.)

102010 @ 아, 삼춘도 얻어먹어본 경험 잇어?(아, 삼촌도 얻어먹어본 경험 있어?)

---

65) '서하동'은 성읍1리 자연마을의 하나. 마을 서쪽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02010 #1 우리도 얻어먹어봔, 어린 때.(우리도 얻어먹어봤어, 어릴 때.)

102010 @ 에, 얼마나 맛 좋아예?(에, 얼마나 맛 좋아요?)

102010 #1 맛 좋주게.(맛 좋지.)

102010 @ (웃음).

102010 #1 그때 곤밥이엔 헌 게 힘들주.(그때 흰밥이라고 한 게 힘들지.)

102010 @ 으음, 특히 성읍리 같은 경우는 막 피쏠도 먹고 허는 동네 아니라예?(으음, 특히 성읍리 같은 경우는 막 핍쌀도 먹고 하는 동네 아닌가요?)

102010 #1 피쏠 많이 먹엇주.(핍쌀 많이 먹었지.)

102011 @ 음, 게문 그 신혼살림은 어디서 헌 거라마씨? 결혼헹은?(음, 그러면 그 신혼살림은 어디서 한 거예요? 결혼해서는?)

102011 #1 게난 아버지네 집의서 일 년 살안 바로 그 뒤에 나가 군대 가기 전에 지은 집이 잇엇주게.(그러니까 아버지네 집에서 일 년 살아서 바로 그 뒤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지은 집이 있었지.)

102011 @ 음.(음.)

102011 #1 초가집 하나 짓어뒁 갓는디 그거 수장도 안 뒌 갓단에 나가 완엔 수장헨에 거기 살앗주.(초가집 하나 지어두고 갔는데 그거 수장도 안 되어서 갔다가 내가 와서 수장해서 거기 살았지.)

102011 @ 결혼허니까 그냥 우리 여자 삼춘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삼춘이 제대헨 완에 그?(결혼하니까 그냥 우리 여자 삼촌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삼촌이 제대해서 와서 그?)

102011 #1 그디서 흔, 흔 이십오 년 살단에 이디 집 짓언 완.(거디서 한, 한 이십오 년 살다가 여기 집 지어서 왔어.)

102012 @ 음, 자제분은 어떵 뒈마씨?(음, 자제분은 어떻게 돼요?)

102012 #1 칠 남매엔 허난.(칠 남매라고 하니까.)

102012 @ 칠 남매. 게난 여기 녹음허젠 허난 물어보는 거.(칠 남매. 그러니까 여기 녹음하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

102012 #1 즈제분이 칠 남매엔 인칙부터 골앗주.(자제분이 칠 남매라고 일찍부터 말했지.)

102012 @ 예, 칠 남매. 아들 멧이고 뚤은 멧 개?(예, 칠 남매. 아들 몇이고 딸은 몇 개?)

102012 #1 아덜 둘.(아들 둘.)

102012 @ 아덜 둘. 뚤 다섯. 젤 맏이가 누게우과?(아들 둘. 딸 다섯. 젤 맏이가 누굽니까?)

102012 #1 맏이가 아덜.(맏이가 아들.)

102012 @ 아덜. 음 손지들은 몃이라마씨? 다 합쳥.(아들. 음 손자들은 몇이에요? 다 합쳐서.)

102012 #1 뚤이나 아덜이나 다 두 개썩이라.(딸이나 아들이나 다 두 개씩이야.)

102012 @2 아.(아.)

102012 @ 음.(음.)

102012 #1 겐디 세 번채 뚤만 네 개라.(그런데 세 번째 딸만 네 개야.)

102012 @ 음.(음.)

102012 #1 그 웨엔 다 두 개썩.(그 외엔 다 두 개씩.)

102014 @ 완전 부자네. 그 자식들 결혼은 어떤 식으로 시켯수가?(완전 부자네. 그 자식들 결혼은 어떤 식으로 시켰습니까?)

102014 #1 어떤 식으로 뭐. 게난 츠츠츠츠 이디 결혼식이 조금 틀려가는 게 생활이 좀 나아져가니까 틀려 가는 거라.(어떤 식으로 뭐. 그러니까 차차차차 여기 결혼식이 조금 달라가는 게 생활이 좀 나아져가니까 달라 가는 거야.)

102014 @ 음.(음.)

102014 #1 우리 저 뭐 옛날 예식장이 어디 셔? 우리 아이덜은 전부 예식장에서 결혼헷주.(우리 저 뭐 옛날 예식장이 어디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전부 예식장에서 결혼했지.)

102014 @ 으음. 집에서 헌 사름은 엇고?(으음. 집에서 한 사람은 없고?)

102014 #1 아, 집에서 저 먹기만 헷주. 예식은 예식장에 간.(아, 집에서 저 먹기만 했지. 예식은 예식장에 가서.)

102014 @ 예식장 허고. 그래도 집에서 그 아까 칠 남매를 다 집에서 결혼시켯수가? 아니면 식당에서 헌 사름은?(예식장 하고. 그래도 집에서 그 아까 칠 남매를 다 집에서 결혼시켰습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한 사람은?)

102014 #1 집이서.(집에서.)

102014 @ 다 집의서. 일이 정말 큰일엇겟다.(다 집에서. 일이 정말 큰일이었겠다.)

102014 #1 그러지. 나가 우리 양, 양모 부친네가 두 부체가 나가 살아낫는디 그디 두 부체 삼년씩 육년 헤여, 장인 돌아가션 삼년씩 육년 헤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간 육년 헤여. 나가 큰일을 흔 ᄀᆞ만이 셍각헤보난 한 삼십 번은 헤진 거 닮아.(그러지. 내가 우리 양, 양모 부친네가 두 부처가 내가 살았었는데 거기 두 부처 삼년씩 육년 해, 장인 돌아가셔서 삼년씩 육년 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서 육년 해. 내가 큰일을 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삼십 번은 해진 거 같아.)

102014 @ 음.(음.)

102014 #1 아이덜 다 결혼 시켜, 산담 헤여. 게난 나가 돈을 하영 벌엇젠 허는 말.(아이들 다 결혼 시켜, 산담 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말.)

102014 @ 그니까 기둥뿌리 안 뽑아젼 그 정도로 허면예. 옛날에는 웨 먹을 일 허젠 허민 궹장히 많이, 음식 같은 경우도 많이 헷잖아예?(그러니까 기둥뿌리 안 뽑아져서 그 정도로 하면요. 옛날에는 왜 먹을 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음식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102014 #1 하영 허주.(많이 하지.)

102014 @ 그 큰아들 결혼할 때는 돗, 도새기 멧 머리나 잡앙은에 헷수가?(그 큰아들 결혼할 때는 돼지, 돼지 몇 마리나 잡아서 했습니까?)

102014 #1 그때는 도새기 세 개.(그때는 돼지 세 개.)

102014 @ 으.(으.)

102014 #1 지금은 다섯 개 으섯 개 잡아.(지금은 다섯 개 여섯 개 잡아.)

102014 @ 음.(음.)

102014 #1 동네잔치 허는 거 보믄. 막 이젠 궤긴 막 강. 그때는 도감 헨 궤기 썰엇는디, 허곡 궤깃반[66]도 똑 궤깃반 허는 사름이 잇어, 똑.(동네잔치 하는 거 보면. 마구 이젠 고기는 막 가서. 그때는 도감 해서 고기 썰었는데, 하고 '궤깃반'도 똑 '궤깃반' 하는 사람이 있어, 똑.)

102014 @ 예.(예.)

102014 #1 그 사름 빌어근에 허곡 헤난디 이제는 막 궤기 썰엉만 내불민 지네 먹고 싶은 냥 앗당 먹어, 이젠.(그 사람 빌려서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막 고기 썰어서만 내버리면 지네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가 먹어, 이젠.)

102014 @ 예.(예.)

102014 #1 잔치밧듸 가나 영장밧듸 가나 다 그거.(잔칫집에 가나 장지에 가나 다 그거.)

102014 @ 경헹예.(그렇게 해서요)

102014 #1 게난 그만큼 살기가 좋아진 거.(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좋아진 거.)

102014 @ 게난 그 잔치밧디든 영장밧듸든 허젠 허면 그 반 놓는 거 잇잖우꽈예? 반이렌, 그디 뭐, 뭐 놔마씨?(그러니까 그 잔칫집이든 장지든 하려고 하면 그 반기 놓는 거 있잖습니까요? 반기라고, 거기 뭐, 뭐 놔요?)

102014 #1 궤기 석 점허고 수에헤근에. 게난 고기가 족으니까 우의 전이엔 헌 게 잇어.(고기 석 점하고 순대해서. 그러니까 고기가 적으니까 위에 전이라고 한 게 있어.)

102014 @ 예.(예.)

102014 #1 저 ᄆᆞ멀ᄏᆞ르로 헤근에 전 요렇게 동글락허게 요렇게 지졍.(저 메밀가루로 해서 전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지져서.)

102014 @ 예.(예.)

102014 #1 접시 우의 더프주. 게민.(접시 위에 덮지. 그러면.)

102014 @ 경허영 그거를 무신거렌 헤마씨, 반?(그렇게 해서 그거를 무엇이라고 해요, 반기?)

102014 #1 궤깃반이주.('궤깃반'이지.)

102014 @ 궤깃반. 삼춘, 여기는 둠비 안 허여?('궤깃반'. 삼촌, 여기는 두부 안 해요?)

---

66) '궤깃반'은 잔칫집이나 상갓집에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돼지고기와 순대 등을 쟁반 따위에 담아 놓은 음식이다. '궤기+-ㅅ-+반' 구성으로, '궤기'는 고기, '반'은 반기의 의미다. 한 사람한테 보통 돼지고기 석 점과 순대 하나를 넣어 반기를 만들었다. 지역에 따라서 '두부'나 '묵적'을 더하기도 한다.

102014 #1 둠비 안 허여.(두부 안 해.)
102014 @ 표선도 안허잖아예?(표선도 안하잖아요?)
102014 #1 그런 거 허는 디는 엇어. 이제는 허는디.(그런 거 하는 데는 없어. 이제는 하는데.)
102014 @ 예.(예.)
102014 #1 이제덜은 헤여.(이제들은 해.)
102014 @ 이젠 허고.(이젠 하고.)
102014 #1 우리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우리 전에는 그런 게 없어.)
102014 @ 게난 그 이 고기는 딱 석 점.(그러니까 그 이 고기는 딱 석 점.)
102014 #1 음, 고기 석 점허영 수에 ᄒᆞ나 놔.(음, 고기 석 점해서 순대 하나 놔.)
102014 @ 예.(예.)
102014 #1 우에, 젤 우에.(위에, 젤 위에.)
102014 @ 그 다음에 더프는 건 이름은 뭐렌 헙니까?(그 다음에 덮는 건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102014 #1 전.(전.)
102015 @ 무슨 전 허여?(무슨 전 해?)
102015 #1 궤기 접시에 더끄는 게 전이옌 허여, 전.(고기 접시에 덮는 게 전이라고 해, 전.)
102015 @ 전, ᄆᆞ물ᄀᆞ르로예. 그 다음에 며느리허고 사위 자랑 좀 헤봅서?(전, 메밀가루로요.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사위 자랑 좀 해보세요?)
102015 #1 사위 자랑 허나마나 사위덜토 다 얌전허고 착허고 잘 사난 뭐. 게곡요 나가 나 시방 저 우리 셋뚤 사는 딘 시[67]에 살아도 어디 저 시청 옆이서 어디서 장사헌덴 헷자 나 ᄀᆞ자 원 ᄒᆞᆫ 번 멧 년 뒈도 뚤 사는 디엔 헤도 가보지도 안 헷어.(사위 자랑 하나마나 사위들도 다 얌전하고 착하고 잘 사니까 뭐. 그러고 요 내가 나 시방 저 우리 둘째딸 사는 데는 제주시에 살아도 어디 저 시청 옆에서 어디서 장사한다고 했자 나 아직 원 한 번 몇 년 돼도 딸 사는 데라고 해도 가보지도 안 했어.)
102015 @ 안 간 거.(안 간 거.)
102015 #1 갈 일이 엇주게.(갈 일이 없지.)
102015 @ 뚤은 여기 옵니까? 안 옵니까?(딸은 여기 옵니까? 안 옵니까?)
102015 #1 뚤허고 사윈 오는디.(딸하고 사윈 오는데.)
102015 @ 음.(음.)
102015 #1 우리 아이어멍은 ᄒᆞᆫ 멧 번 가왓덴 허고라마는 난 ᄒᆞᆫ 번도 어디. 시청 어디 그 근처에서 그 짜장면 장살허는디 난 안 가봔.(우리 아기어머니는 한 몇 번 다녀왔다고 하더라만 난 한 번도 어디. 시청 어디 그 근처에서 그 짜장면 장살하는데 난 안 가봤어.)

67) 여기에서 '시'는 제주시청이 있는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102015 @ 음.(음.)

102015 #1 뚤 두 개는 지금 ᄒᆞ난 부산 가고 ᄒᆞ난 일본 가고. 시에 세 개, 세 사름만.(딸 두 개는 지금 하난 부산 가고 하난 일본 가고. 제주시에 세 개, 세 사람만.)

102015 @ 예, 아 육지랑 일본 간 뚤도 잇구나예? 아들들은?(예, 아 육지랑 일본 간 딸도 있군요? 아들들은?)

102015 #1 아들덜은 다 시에 살암서.(아들들은 다 제주시에 살고 있어.)

102015 @ 으, 메느리 자랑혜봅서?(으, 며느리 자랑해보십시오?)

102015 #1 메느리덜토 착헤여.(며느리들도 착해.)

102015 @ 예.(예.)

102015 #1 저거 아니라. 저거 나 요자기 팔순잔치허멍 사진 찍은 거.(저거 아닌가. 저거 나 요번에 팔순잔치하면서 사진 찍은 거.)

102015 @ 아아. 게난 메느리가 다 출련? 큰, 큰메느리?(아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 차려서? 큰, 큰며느리?)

102015 #1 큰메누리영 족은메누리영 이번 몽창 속앗주. 돈 하영 들엇주.(큰며느리랑 작은며느리랑 이번 왕창 수고했지. 돈 많이 들었지.)

102015 @ 요기는 뚤 닮은게.(요기는 딸 같은데.)

102015 #1 거 뚤.(거 딸.)

102015 @ 예, 딱 셍긴 건 보난 뚤.(예, 딱 생긴 건 보니까 딸.)

102015 #1 건 메느리.(건 며느리.)

102015 @ 아, 메느리마씨?(아, 며느리요?)

102015 #1 큰메누리.(큰며느리.)

102015 @ 어 뚤, 아버지허고 닮아신게.(어 딸, 아버지하고 닮았는데.)

102015 #1 큰뚤은 요 붉은 옷 입은 게 큰뚤이라.(큰딸은 요 붉은 옷 입은 게 큰딸이야.)

102015 @ 여기가 큰뚤. 여기 게믄 뚤이네. 이것도. 얼굴 둘이니까.(여기가 큰딸. 여기 그러면 딸이네. 이것도. 얼굴 둘이니까.)

102015 #1 거 뚤. 그 옆에 잇인 거.(거 딸. 그 옆에 있는 거.)

102015 @ 이것도.(이것도.)

102015 #1 그건 족은메누리.(그건 작은며느리.)

102015 @ 여기도 뚤.(여기도 딸.)

102015 # 그게 이 짜장면 장시허는 세 번채 뚤.(그게 이 짜장면 장사하는 세 번째 딸.)

102015 @ 세 번째 뚤. 여기가 제일 큰뚤이고. 으, 닮긴, 둘은 막 닮앗저.(세 번째 딸. 여기가 제일 큰딸이고. 으, 닮긴, 둘은 아주 닮았네.)

102015 #1 저펜이 앚인 것도, 젤 저펜이 앚인 건 알로.(저편에 앉은 것도, 젤 저편에 앉은 건 아래로.)

102015 @ 이건, 이건?(이건, 이건?)
102015 #1 그건 막둥이뚤.(그건 막내딸.)
102015 @ 막둥이뚤.(막내딸.)
102015 #1 다섯 번째.(다섯 번째.)
102015 @ 여긴 누게우과?(여긴 누굽니까?)
102015 #1 건 네 번차.(건 네 번째.)
102015 @ 어, 딸들이 딸이 많으니까 딸 다섯이구나. 다 와낫구나예. 일본에서도 예.(어, 딸들이 딸이 많으니까 딸 다섯이구나. 다 왔었군요. 일본에서도요.)
102015 @2 그렇지, 와야지.(그렇지, 와야지.)
102015 @ 어렵주마씨?(어렵지요?)
102015 #1 일본에서 사위ᄁᆞ지 와낫주.(일본에서 사위까지 왔었지.)
102015 @ 어느 거우과? 일본에서 사는 뚤은 이거?(어느 겁니까? 일본에서 사는 딸은 이거?)
102015 #1 어.(어.)
102015 @ 이디하고 여기가 영 닮앗네.(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닮았네.)
102015 #1 거기 그 안경 쓴 게 일본 사위주.(거기 그 안경 쓴 게 일본 사위지.)
102015 @ 이거?(이거?)
102015 #1 아, 이짝에 거. 거, 거.(아, 이쪽에 거. 거, 거.)
102015 @ 여기? 으.(여기? 으.)
102015 #1 저짝에 거는 손지고.(저쪽에 거는 손자고.)
102015 @ 여기 손지고?(여기 손자고?)
102015 @2 일본 사위는 일본 사람이우과?(일본 사위는 일본 사람입니까?)
102015 #1 아니.(아니.)
102015 @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겨신게.(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102015 #1 대구.(대구.)
102015 @ 여기는 두에 누게우과?(여기는 뒤에 누굽니까?)
102015 #1 큰아들이고.(큰아들이고.)
102015 @ 여기가 큰아들? 큰아들은 지금 멧 살마씨?(여기가 큰아들? 큰아들은 지금 몇 살요?)
102015 #1 쉬은넷.(쉰넷.)
102015 @ 으음. 아버지 두에. 완전 손지들이 다 커신게. 이거 다 손지 아니?(으음. 아버지 뒤에. 완전 손자들이 다 컸는데. 이거 다 손자 아니?)
102015 #1 어.(어.)
102015 @ 예.(예.)
102015 #1 아니, 두 번째 사위고.(아니, 두 번째 사위고.)
102015 @ 여기 사위? 으으.(여기 사위? 으으.)
102015 #1 사위가, 막둥이사위만 저 바빤 직장 바빤에 오지 못헤연, 다 와난.(사

위가, 막내사위만 저 바빠서 직장 바빠서 오지 못했어, 다 왔었어.)

102015 @ 아이고게, 재산 엇어도 뒈쿠다, 보난 사진 속에 꽉 차 잇는데 뭐?(아이고, 재산 없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사진 속에 꽉 차 있는데 뭐?)

102015 #1 손손지 봣는디 저 큰뚤에.(증손 봤는데 저 큰딸에.)

102015 @ 예.(예.)

102015 #1 아덜 풀안 손지 낫어.(아들 장가보내서 손자 낳았어.)

102015 @ 손손지까지 다 봐불언예? 모두 엇수가? 이거 말고 이제 가족에 얽힌 이야기 중에 아이고 나 누게 때문에 막 고생헷저. 아니면 누게 때문에 나 살앗저 허는 말 이런 말 이시걸랑 하나 골아줘 봅서.(증손까지 다 봐버렸다고요? 모두 없습니까? 이거 말고 이제 가족에 얽힌 이야기 중에 아이고 나 누구 때문에 아주 고생했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 살았지 하는 말 이런 말 있거든 하나 말해줘 보십시오.)

102015 #1 아이덜 때문에 고생허는 거는 엇고.(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없고.)

102015 @ 예.(예.)

102015 #1 우리가 저 큰뚤 춤 학교 시기지 못헌 게 제일. 다른 것덜은 다 허는 체 헤신디. 자이 헐 때는 그땐 농사는 워낙 하영 헤놧지 둘만이라노난 놉은 빌지 못허지. 그때 우리가 유챌 만 평까지 갈아낫어.(우리가 저 큰딸 참 학교 시키지 못한 게 제일. 다른 것들은 다 허는 체 했는데. 재 할 때는 그땐 농사는 워낙 많이 해놓았지 둘만이어놓으니까 놉은 빌지 못하지. 그때 우리가 유챌 만 평까지 갈았었어.)

102015 @2 아이고.(아이고.)

102015 @ 유채, 유채 막 환금작물 헐 때구나, 으.(유채, 유채 아주 환금작물 할 할 때구나, 으.)

102015 #1 게난 자이보고 학교 가지 말앙 유채를 하여튼 ᄀᆞ치 헤줘사켄 하도 허난 홀 수 엇이 헤신디. 이젠 막 지 학교 안 보내줫젠 원성을 해.(그러니까 재보고 학교 가지 말고 유채를 하여튼 같이 해줘야겠다고 하도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이젠 매우 저 학교 안 보내줬다고 원성을 해.)

102015 @ 음.(음.)

102015 #1 게난 둘만 우린 밤이 좀 멧 시간 안 자봣주. 멧 시간.(그러니까 둘만 우린 밤에 잠 몇 시간 안 자봤지. 몇 시간.)

102015 @ 예, 예, 옛날에.(예, 예, 옛날에.)

102015 #1 하튼 놈보단 혼두 시간 ᄆᆞ녀 밧디 강 일을 헷주. 놈보단 떨어져 보진 아녓어.(하여튼 남보단 한두 시간 먼저 밭에 가서 일을 했지. 남보단 떨어져 보진 않았어.)

102015 @ 음, 경허니까 하영 돈도 벌고 그 많은 일곱 명 일에.(음, 그렇게 하니까 많이 돈도 벌고 그 많은 일곱 명 일에.)

102015 #1 하여간 유채도 표선면에서 췌고로 많이 헤연에 농협 조합장안티 상ᄁᆞ장 타보고.(하여간 유채도 표선면에서 최고로 많이 해서 농협 조합장한테 상까지 타보고.)

102015 @ 예, 게니까 그렇게 정말 부지런히 살앗다라는 걸 자식들이 알아줨신가? (웃음).(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부지런히 살았다는 걸 자식들이 알아주고 있는가? (웃음).)

102015 #1 우리 큰뚤은 알주.(우리 큰딸은 알지.)

102015 @ 예.(예.)

102015 #1 다른 것덜은, 다른 것덜은 다 경헤도 학교 뎅기노렌 헤연 헤불고 저 큰뚤만.(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학교 다니노라고 해서 해버리고 저 큰딸만.)

102015 @ 게 큰뚤안틴 다른 뚤들보다는 쫌 잘헤 줍디가?(그래 큰딸한테는 다른 딸들보다는 좀 잘해 줍디까?)

102015 #1 잘 아녀 줄 수가 엇주.(잘 안 해 줄 수가 없지.)

102015 @ 예, 뭐 헤 줍디가?(예, 뭐 해 줍디까?)

102015 #1 무신거 그자 ᄆᆞ른 걸로 줫주.(무엇 그저 마른 걸로 줬지.)

102015 @ (웃음). 젤 눈에 안 보이는 거.((웃음). 젤 눈에 안 보이는 거.)

102015 #1 경헤도 다른 것덜 몰르게 줫어.(그래도 다른 것들 모르게 줬어.)

102015 @ 예.(예.)

102015 #1 공부헌 셍각덜은 아녀고 그것만 줨젠 허카부덴.(공부한 생각들은 않고 그것만 주고 있다고 할까봐서.)

102015 @ 음.(음.)

102015 #1 다른 아이덜ᄀᆞ란 돈 줫덴 ᄀᆞᆫ지 말렌 허멍.(다른 아이들보고는 돈 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102015 @ 보상은 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셍각허니까 가능헌 거지. 부모님은 미안헌 마음 들고 딸은 또 고마운 마음 들고. 알앗수다. 잠깐만예.(보상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지. 부모님은 미안한 마음 들고 딸은 또 고마운 마음 들고.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3. 밭일

103001 @ 삼춘, 이제는 밧일예? 이 성읍리에서 밧일은 예전에 어떤 일들을 하영 헷수가?(삼촌, 이제는 밭일요? 이 성읍리에서 밭일은 예전에 어떤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103001 #1 밧일은 무시거 헐 거라게. 옛날은 이디가 이 우리는 안 봣어. 그 우리 쫌 조상님들이 얘길 허는 거 보면, 이 성읍마을이 원래가 산곳[68]이랏어[산꼬시

라서]. 산곳.(밭일은 무엇 할 거야. 옛날은 여기가 이 우리는 안 봤어. 그 우리 좀 조상님들이 얘길 하는 거 보면, 이 성읍마을이 원래가 '산곳'이었어[산꼬시라서]. '산곳'.)

103001 @ 음.(음.)

103001 #1 전부 나무. 산곳인디 이걸 전부 비여내고 이거 마을을 만들엇덴 허는디.(전부 나무. '산곳'인데 이걸 전부 베어내고 이거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03001 @1 예.(예.)

103001 #1 게난 그때 당시에 밧을 뭘로 일괏는고허니 밧을 만들엇는고 허니까 따비.(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밭을 뭘로 일궜는가하니 밭을 만들었는가 하니까 따비.)

103001 @ 예.(예.)

103001 #1 따비 두 갈래 따비가 잇어. 이 북군[69]에는 따비가 하나고.(따비 두 갈래 따비가 있어. 이 북군에는 따비가 하나고.)

103001 @ 예.(예.)

103001 #1 이딘 두 갈래.(여긴 두 갈래.)

103001 @ 음.(음.)

103001 #2 이걸로 쌩밧[70]을 갈아엎어서 밧을 만들기 시작헷주.(이걸로 '쌩밧'을 갈아엎어서 밭을 만들기 시작했지.)

103001 @ 음.(음.)

103001 #1 게연 따비가 막 우리도 역은지 후제도 따비 가젼 갈레 뎅겨낫는디, 이젠 따비가 거의 엇어져볏주마는 그렇게 해서 이 저 성읍리가 농사를 허기 시작헌 거주.(그래서 따비가 매우 우리도 성장한 후에도 따비 가져서 갈러 다녔었는데, 이젠 따비가 거의 없어져버렸지마는 그렇게 해서 이 저 성읍리가 농사를 하기 시작한 거지.)

103001 @ 음, 겡은에 그 밧일 종류는 어떤 종류 잇는 거마씨?(음, 그래서 그 밭일 종류는 어떤 종류 있는 거예요?)

103001 #1 종류는 겨울엔 보리 갈고.(종류는 겨울엔 보리 갈고.)

103001 @ 예.(예.)

103001 #1 밀 갈고.(밀 갈고.)

103001 @ 예.(예.)

103001 #1 또 여름 나민 조 갈고 산듸[71] 갈고.(또 여름 되면 조 갈고 산도(山稻) 갈고.)

103001 @ 응.(응.)

---

68) '산곳'은 산 숲을 이르는 말이다. 숲이 많은 지역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69) '북군'은 예전의 행정구역의 하나다. 북제주군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사라진 행정구역이다.

70) '쌩밧'은 개간하지 않은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71) '산듸'는 표준어 산도(山稻)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우리말로는 '밭벼'라고 한다.

103001 #1 ᄆᆞ물 갈고 피 갈고 그거 ᄀᆞ랑좁썰[72]이옌, ᄀᆞ랑조[73]엔 헌 게 잇어.(메밀 갈고 피 갈고 그거 'ᄀᆞ랑좁썰'이라고, 'ᄀᆞ랑조'라고 한 게 있어.)

103001 @ ᄀᆞ랑조, 예.('ᄀᆞ랑조', 예.)

103001 #1 그거, 그거허곡 헨 살앗주 뭐.(그거, 그거하고 해서 살았지 뭐.)

보리농사

103002 @ 예, 알앗수다. 게문 이제 보리농사, 농사를 여긴 용시렌도 ᄀᆞᆯ암수가?(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농사, 농사를 여긴 '용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까?)

103002 #1 어?(어?)

103002 @ 용시헷덴도 헙니까? 여기는.('용시'했다고도 합니까? 여기는.)

103002 #1 농ᄉᆞ, 농, 다 헷어 영.(농사, 농, 다 했어 이렇게.)

103002 @ 농ᄉᆞ. 게민 보리농ᄉᆞ 지어봅주예.(농사. 그러면 보리농사 지어봅지요.)

103002 #1 으.(으.)

103002 @ 보리농ᄉᆞ 짓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헌고양?(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103002 #1 보리농ᄉᆞ는 허민은 저게 보통 이 보리는 겨울 뒈영 입동이 뒈면은 이 밧, 밧 저 저 돗통에 그 돗걸름.(보리농사는 하면 저게 보통 이 보리는 겨울 되어서 입동이 되면 이 밭, 밭 저 저 돼지우리에 그 돼지거름.)

103002 @ 예.(예.)

103002 # 돗걸름을 마당에다가 내여.(돼지거름을 마당에다가 내여.)

103002 @ 예.(예.)

103002 #1 경허영 보리씨 거기다 삐영.(그렇게 해서 보리씨 거기다 뿌려서.)

103002 @ 음.(음.)

103002 #1 쉐 가져당 그 돗가레를 ᄇᆞᆯ리주.(소 가져다가 그 돼지거름을 밟지.)

103002 @ 예.(예.)

103002 #1 경허영 또 두집어놩.(그렇게 해서 또 뒤집어놓아서.)

103002 @ 으.(으.)

103002 #1 또 씨 삐영 ᄇᆞᆯ령 밧디 시꺼당 밧듸 뿌령.(또 씨 뿌려서 밟아서 밭에 실어다가 밭에 뿌려서.)

103002 @ 음.(음.)

103002 #1 이 쟁기로 밧을 갈아엇어근에 헌 것이 그 보리농사주.(이 쟁기로 밭을 갈아엎어서 한 것이 그 보리농사지.)

103003 @ 음, 게난 씨를 걸름에 이제 헨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구나예? 예, 그 다음에 그 보리밧 걸름 허젠 허면은 걸름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허는 거라

72) 'ᄀᆞ랑좁썰'은 조의 일종인 'ᄀᆞ랑조'에서 수확한 쌀이다. 좁쌀알이 자잘하다.
73) 'ᄀᆞ랑조'는 조의 품종의 하나다. 쌀알이 자잘한 조다.

마씨?(음, 그러니까 씨를 거름에 이제 해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그 보리밭 거름 하려고 하면 거름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3003 #1 걸름.(거름.)

103003 @ 어떻게 만든?(어떻게 만든?)

103003 #1 그거.(그거.)

103003 @ 예.(예.)

103003 #1 이 소 오양간에다 소 길루다근에 소걸름도 갖다 놓곡.(이 소 외양간에다 소 기르다가 소두엄도 갖다 놓고.)

103003 @ 예.(예.)

103003 #1 돗통에.(돼지우리에.)

103003 @ 예.(예.)

103003 #1 또 그렇지 않은 사름은 이 검질 같은 것도 갖다 놓곡 이렇게 헤근에 그 일부러 보리농사 짓젠 그 돗걸름 만들젠 막 허주.(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검불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일부러 보리농사 지으려고 그 돼지거름 만들려고 매우 하지.)

103003 @ 음.(음.)

103003 #1 거의 거의 소덜을 많인 안 길롸도 멧 개씩은 길루난 소걸름덜토 많이 갖다 놓곡 그렇게.(거의 거의 소들을 많이는 안 길러도 몇 개씩은 기르니까 소두엄들도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103003 @ 음, 게난 그 소걸름예? 여기는 쉐걸름?(음, 그러니까 그 소두엄요? 여기는 '쉐걸름'?)

103003 #1 으, 쉐걸름.(으, '쉐걸름'.)

103003 @ 쉐걸름을 게믄 돗통에다 또 집어놓는 거라마씨?(소두엄을 그러면 돼지우리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103003 #1 어.(어.)

103004 @1 아, 경헤영 이제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리는 언제 간다고 마씨?(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리는 언제 간다고요?)

103004 #1 입동 뒈여사.(입동 되어야.)

103005 @ 입동에. 아 입동에 헤서 이제 가는 거고. 보리씨는 아까 어떻게 뿌린 거라마씨?(입동에. 아 입동에 해서 이제 가는 거고. 보리씨는 아까 어떻게 뿌린 거예요?)

103005 #1 돗걸름에 헤다 놩.(돼지거름에 해다 놓아서.)

103005 @ 으.(으.)

103005 #1 이디 마당에 쫙허게 갖다 놔놩.(여기 마당에 쫙하게 갖다 놔놓고.)

103005 @ 예.(예.)

103005 #1 씨 뿌령.(씨 뿌려서.)

103005 @ 음.(음.)

103005 #1 쉐로 볼령.(소로 밟아서.)

103005 @ 음.(음.)

103005 #1 또 이 놈을 걸 뒤집엉.(또 이 놈을 걸 뒤집어서.)

103005 @ 음.(음.)

103005 #1 또 씨 뿌령 쉐로 볼령 이거 모여놧당 뒷날은 밧듸 시꺼당 시꺼다근에 저 듬성듬성 놓주게.(또 씨 뿌려서 소로 밟아서 이거 모여놓았다가 뒷날은 밭에 실어다가 실어다가 저 듬성듬성 놓지.)

103005 @ 예.(예.)

103005 #1 듬성듬성 놓민은 여저덜이 강 이젠 거 돗가레 논다고 헤서 돗가레 강 놔 허꺼. 손으로. 돗가레 허끄민 갈아엎으주.(듬성듬성 놓으면 여자들이 가서 이젠 거 돼지거름 놓는다고 해서 돼지거름 가서 놔서 흩어. 손으로. 돼지거름 흩으면 갈아엎지.)

103005 @ 갈아엎으면 끗.(갈아엎으면 끝.)

103005 #1 음.(음.)

103005 @ 음 그 다음 돗가레들 옮길 때는 어떤 식으로 옮겻수과?(음 그 다음 돼지거름들 옮길 때는 어떤 식으로 옮겼습니까?)

103005 #1 쉐로 옮기주게.(소로 옮기지.)

103005 @ 쉐로.(소로.)

103005 #1 질메 지왕은에 돗가레착[74]엔 헌 게 잇어, 멩텡이.(길마 지워서 '돗가레착'이라고 한 게 있어, 망태기.)

103005 @ 예.(예.)

103005 #1 멩텡이에 돗가레 담앙 흔 사름 들를만썩 담아근에 쉐에 갖당 시꺼근에 시껑 밧듸 강 뿌리주.(망태기에 돼지거름 담아서 한 사람 들만큼씩 담아서 소에 갖다가 실어서 실어서 밭에 가서 뿌리지.)

103005 @ 예, 그?(예, 그?)

103005 #4 것도 쉐질메도 잇어사 시끄는 거주게.(것도 소길마도 있어야 싣는 거지.)

103006 @ 예, 맞수다. 쉐질메도 있어사 헐 거. 그 옛날도 보리밧 보리 나면, 아 보리 종류부떠? 보리 종류 이 성읍에서.(예, 맞습니다. 소길마도 있어야 할 거. 그 옛날도 보리밭 보리 나면, 아 보리 종류부터? 보리 종류 이 성읍에서.)

103006 #1 솔보리. 솔우리.(쌀보리. 쌀보리.)

103006 @ 솔보리.(쌀보리.)

103006 #1 지넹이보리허곡.(맥주보리하고.)

103006 @ 지넹이보리허곡.(맥주보리하고.)

103006 #1 그거, 그거라.(그거, 그거야.)

103006 @ 보리는 두 가지?(보리는 두 가지?)

---

74) '돗가레착'은 돼지거름을 담아 나를 때 사용하는 멱서리를 말한다.

103006 #1 것보리가 잇엇어. 것보리.(겉보리가 있었어. 겉보리.)

103006 @ 아, 것보리. 것보리는 어떤 거우과?(아, 겉보리. 겉보리는 어떤 겁니까?)

103006 #1 것보리는, 쏠보리는 이 껍데기가 안 씌와지는데.(겉보리는, 쌀보리는 이 껍데기가 안 씌워지는데.)

103006 @ 으.(으.)

103006 #1 것보리는 껍데기가 씌와져.(겉보리는 껍데기가 씌워져.)

103006 @ 음.(음.)

103006 #2 거 맥주 헐 거, 술 헐 거.(거 맥주 할 거, 술 할 거.)

103006 #1 맥주맥허고 틀려.(맥주보리하고 달라.)

103006 @ 게믄 주넹이보리는 뭐우과?(그러면 '주넹이보리'는 뭡니까?)

103006 #1 맥주맥. 거 지금말로 맥주맥이라. 지넹이보리가 맥주맥이고.(맥주보리. 거 지금말로 맥주보리야. '지넹이보리'가 맥주보리고.)

103006 @ 지넹이보리허고 것보리하고는.('지넹이보리'하고 겉보리하고는.)

103006 #1 것보리가 잇엇어.(겉보리가 있었어.)

103006 @ 어떤 식으로 틋나마씨?(어떤 식으로 달라요?)

103006 #1 모냥도 틀려.(모양도 달라.)

103006 @ 어.(어.)

103006 #1 방울 자체가 쫄롬쫄롬허곡 이 껍데기가 씌와져 잇어.(방울 자체가 길쭉길쭉하고 이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

103006 @ 아, 요즘은 그런 보린 엇수가?(아, 요즘은 그런 보린 없습니까?)

103006 #1 아, 엇어, 엇어.(아, 없어, 없어.)

103006 #2 줄보린 밥해먹는 보리.(맥주보린 밥해먹는 보리.)

103006 #1 쏠보리가 밥헤먹는 거.(쌀보리가 밥해먹는 거.)

103006 #2 아, 게메. 줄보리도 밥헤먹는 거. 쏠보리보단 줄보리밥이 맛싯덴 헤나신디 그 것보리엔 헌 건 완전 꽝보리[75].(아, 글쎄. 맥주보리도 밥해먹는 거. 쌀보리보단 맥주보리밥이 맛있다고 했었는데 그 겉보리라고 한 건 완전 '꽝보리'.)

103006 @ 꽝보리. 꽝보리가 것보리구나.('꽝보리'. '꽝보리'가 겉보리구나.)

103006 #2 꽝보리가 그 저 골앙 술이나 허곡 허는 사름덜 허는 거 누룩 허는 거.('꽝보리'가 그 저 갈아서 술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누룩 하는 거.)

103006 @ 누룩 허는 거. 밥 허젠 허믄 맛이 없구나예?(누룩 하는 거. 밥 하려고 하면 맛이 없군요?)

103006 #2 맛 엇인 거. 젤 못생긴 거.(맛 없는 거. 젤 못생긴 거.)

103007 @ 여기도 보리밧 불라수가?(여기도 보리밭 밟았습니까?)

103007 #1 봄 나믄. 봄 나믄. 보리 나믄.(봄 되면. 봄 되면. 보리 나면.)

103007 @ 그 얘기 혼번 헤줍서.(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

75) 여기에서 '꽝보리'는 딱딱한 보리라는 의미로, 겉보리의 일종으로 보인다.

103007 #1 그거는 웨냐믄 겨울에 눈이 오면은 이제 땅이 곳으민 보리가 땅이 들러지주게.(그거는 왜냐면 겨울에 눈이 오면 이제 땅이 곱으면 보리가 땅이 들리지.)

103007 @ 예.(예.)

103007 #1 게민 이 보리 뿌리가 땅하고 비어져.(그러면 이 보리 뿌리가 땅하고 나눠져.)

103007 @ 예.(예.)

103007 #1 게민 이걸 볼라줘야만 뿌리가 땅에 부떠근에 크주.(그러면 이걸 밟아줘야만 뿌리가 땅에 붙어서 크지.)

103007 @ 음.(음.)

103007 #1 경 아년 헌 거는 많이 저 죽어붐도 허여.(그렇게 않아서 한 거는 많이 저 죽어버리기도 해.)

103007 #2 죽어불어, 죽어불어.(죽어버려, 죽어버려.)

103007 @ 죽어불어. 경허니까 게믄 그 보리 볼를 때는 어떤 식으로 헤서 볼르는 거라.(죽어버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보리 밟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밟는 거야.)

103007 #1 사름덜로 허고.(사람들로 하고.)

103007 #2 이녁 보리만썩덜 이녁 볼랏주.(이녁 보리만큼씩 이녁 밟았지.)

103007 #1 이녁 보리만썩.(이녁 보리만큼씩.)

103007 @ 발로 똑똑 볼르는 거라예? 보리 볼리젠 헹은에 연 날리거나 이렇게 허진 않고?(발로 똑똑 밟는 거네요? 보리 밟으려고 해서 연 날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103007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07 #2 발로 볼라불민 카져불렌.(발로 밟아버리면 타져버리라고.)

103007 @ 아아.(아아.)

103007 #1 물 잇는 사름은 이녁 물 가져다 강도 볼리곡 허여.(말 있는 사람은 이녁 말 가져다 가서도 밟고 해.)

103007 #2 물로 보리 볼라불민 보리가 뒈여?(말로 보리 밟아가면 보리가 되어?)

103007 #1 뒈여. 카져벼도 아무퉁도 안 헙니다.(되어. 타져버려도 아무렇지도 안 합니다.)

103007 @ 아아.(아아.)

103007 #1 굽뎅이만 살앙 시민 금방 자라나니까.(밑만 살아서 있으면 금방 자라나니까.)

103007 @ 아.(아.)

103007 #2 볼르는 사름은 볼라도 안 볼르는 사름은 안 볼라.(밟는 사람은 밟아도 안 밟는 사람은 안 밟아.)

103007 #1 안 볼랑 내부는 사름도 많고.(안 밟아서 내버리는 사람도 많고.)

103008 @ 경허믄 죽어불고예, 예? 보리밧 검질은 어떵 멧수가?(그렇게 하면 죽어버리고요, 예? 보리밭 김은 어떻게 맸습니까?)

103008 #1 봄에 메주.(봄에 매지.)

103008 @ 멧 번 메여?(몇 번 매?)

103008 #1 혼 번.(한 번.)

103009 @ 아, 보리밧 검질은 혼 번 메믄 끗. 그 보리밧 검질들은 어떤 거 잇어마씨?(아, 보리밭 김은 한 번 매면 끝. 그 보리밭 김들은 어떤 거 있어요?)

103009 #1 겨울에, 겨울에 나는, 겨울에 나는 풀이 틀려.(겨울에, 겨울에 나는, 겨울에 나는 풀이 달라.)

103009 @ 음.(음.)

103009 #1 요새 무신?(요새 무슨?)

103009 @ 이름은?(이름은?)

103009 #1 이름은 콩쿨[76]이엔도 허곡. 또 무신거. 요새 무신 풀이니?(이름은 '콩쿨'이라고도 하고. 또 무엇. 요새 무슨 풀이니?)

103009 #4 진쿨?(별꽃?)

103009 #1 진쿨. 진쿨엔도 허곡. 거 두 가지가 나주.(별꽃. 별꽃이라고도 하고. 거 두 가지가 나지.)

103009 @ 아, 보리밧듸는 이제 콩쿨하고.(아, 보리밭에는 이제 '콩쿨'하고.)

103009 #1 겨울에 나는 풀이 두 개라.(겨울에 나는 풀이 두 개야.)

103009 @ 아, 진쿨허고 콩쿨허고예? 진쿨은 그 꼿 영?(아, 별꽃하고 '콩쿨'하고요? 별꽃은 그 꽃 이렇게?)

103009 #1 꼿 피곡 줄 영 줄 벋어.(꽃 피고 줄 이렇게 줄 벋어.)

103010 @ 줄 벋는 거. 그 보라색 닮은 꼿 피는 게 진쿨이우과? 그 다음에 어, 보리 이제 갈면 수확은 언제 허는 거?(줄 벋는 거. 그 보라색 같은 꽃 피는 게 별꽃입니까? 그 다음에 어, 보리 이제 갈면 수확은 언제 하는 거?)

103010 #1 오월 단오 뒈사주게.(오월 단오 돼야지.)

103010 @ 오월 단오예?(오월 단오요?)

103010 #1 단오 지나사.(단오 지나야.)

103010 @ 예, 그 수확허는 과정? 보리 비는 것부떠 이제.(예, 그 수확하는 과정? 보리 베는 것부터 이제.)

103010 #1 보리는.(보리는.)

103010 @ 으.(으.)

103010 #1 이 호미 잇어이.(이 낫 있어.)

103011 @ 음.(음.)

103011 #1 육지는 낫이엔 허는디 이디는 호미엔 허는디.(육지는 낫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호미'라고 하는데.)

---

76) '콩쿨'은 김의 일종이다. 보리밭에 많이 났던 김의 하나다.

103011 @ 음.(음.)
103011 #1 호미로 강 손으로 비영 놩.(낫으로 가서 손으로 베어서 놔서.)
103010 @ 예.(예.)
103010 #1 이거 ᄆᆞᆯ롸, ᄆᆞᆯ라근에 무꺼.(이거 말려, 말려서 묶어.)
103010 @ 예.(예.)
103011 #1 게믄 집의 시꺼 왕 보리틀[77] 허영 홀타.(그러면 집에 실어 와서 그네 해서 홅어.)
103011 @ 보리틀로?(그네로?)
103011 #1 으.(으.)
103011 @ 으.(으.)
103011 #1 보리틀도 저 사진 찍엉 가켄 허민 나 베와주커라.(그네도 저 사진 찍어서 가겠다고 하면 나 배워주겠어.)
103011 @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103011 #1 그걸로 허영 홀타근에 도께로 두드리나 경 안 허영 ᄆᆞᆯ, ᄆᆞᆯ 잇는 사름은 ᄆᆞᆯ로 갖당 ᄆᆞᆯ로도 ᄇᆞᆯ려.(그걸로 해서 홅어서 도리깨로 두들기나 그렇게 안 해서 말, 말 있는 사람은 말로 갖다가 말로도 밟아.)
103011 @ 음.(음.)
103011 @2 아, 그 고고리를?(아, 그 이삭을?)
103011 #1 음.(음.)
103011 @ 그 보리틀로 헌 다음에.(그 그네로 한 다음에.)
103011 #1 음.(음.)
103010 @ 게문 ᄊᆞᆯ방울만 ᄯᆞᆯ라지는 거예? 그 다음에 묶젠, 그 보리 ᄆᆞᆯ랑 무끄젠 허면 뭘로 무꺼수가?(그러면 쌀알만 남겨지는 거요? 그 다음에 묶으려고, 그 보리 말라서 묶으려고 하면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103010 #1 그 보리남뎅이로 묶주게.(그 보릿대로 묶지.)
103010 @ 그냥 보리남뎅이로?(그냥 보릿대로?)
103010 #1 보리께[78]로.('보리께'로.)
103010 @ 보리께렌 허여, 그걸.('보리께'라고 해, 그걸.)
103010 #1 보리남뎅이로 직접 무꺼져.(보릿대로 직접 묶어져.)
103010 #2 남뎅이가 경 쫄르지 아녕 길쭉길쭉 나주게.(줄기가 그렇게 짧지 않아서 길쭉길쭉 나지.)
103010 @ 예에.(예에.)
103010 @2 영헤영예.(이렇게 해서요.)
103010 #2 게난 영허영.(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3010 #1 이거를 혼 줌 심엉.(이거를 한 줌 잡아서.)

77) '보리틀'은 보리를 홅을 때 사용하는 '그네'를 말한다.
78) '보리께'는 보리의 뭇을 묶을 때 사용하는 매끼로, 보리 자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103010 #2 영허민.(이렇게 하면.)

103010 #1 탁 데와당 이걸 영 갈랑 무끄주게.(탁 꼬아다가 이걸 이렇게 나눠서 묶지.)

103010 @ 으음.(으음.)

103010 @2 제께[79], 제께?('제께', '제께'?)

103010 @ 겡은에 그.(그렇게 해서 그.)

103010 #2 이제나 이제나 그레 모관[80]디레나 ᄀᆞ틀 거우다.(이제나 이제나 그리 '모관'으로나 같을 겁니다.)

103010 #1 무끄는 식은 비슷헐 테주.(묶는 식은 비슷할 테지.)

103010 @ 게믄 이 보리 헨 다음에 뭐 눌 눌거나 영도 헹 놔둡니까?(그러면 이 보리 한 다음에 뭐 가리 가리거나 이렇게도 해서 놔둡니까?)

103010 #1 보리, 보리눌게 비 왐직 허민 눌엉 놧당 허곡 허는 거. 이 집의 왕도 눌어둘엄서 빠당 홀트주. 그냥 내볏당 비오민 어떵 헐 말이라게. 보리 철에는 진짜 장마가, 장마가 심헌 땐디게. 눌어두럼서.(보리, 보리가리 비 옴직 하면 가려서 놨다가 하고 하는 거. 이 집에 와서도 가려두고서 뽑아다가 홅지. 그냥 내버렸다가 비오면 어떻게 할 말이야. 보리 철에는 진짜 장마가, 장마가 심한 땐데. 가려두고서.)

103010 @ 먹을 때마다예?(먹을 때마다요?)

103010 #1 비올 때, 비올 때는 집안에서 홀트곡.(비올 때, 비올 때는 집안에서 홅고.)

103010 @ 어.(어.)

103010 #1 날 좋을 땐 마당에서 홀트곡 헤낫주.(날 좋을 땐 마당에서 홅고 했었지.)

103012 @ 으, 어쨋든 보리눌덜은 집집마다 다.(으, 어쨌든 보리가리들은 집집마다 다.)

103012 #1 아, 눌엇주.(아, 가렸지.)

103012 @ 다 잇는 거예? 그렇게 하고. 그 보리쏠 장만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헤야뒈?(다 잇는 거요? 그렇게 하고. 그 보리쌀 장만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돼?)

103012 #1 보리 강 옛날에 ᄀᆞᆯ앙.(보리 가서 옛날에 갈아서.)

103012 #2 ᄀᆞ레에 ᄀᆞᆯ앙 헷수다.(맷돌에 갈아서 했습니다.)

103012 #1 저 ᄆᆞᆯ방아, ᄆᆞᆯ방아.(저 연자매, 연자매.)

103012 @ 예.(예.)

103012 #1 ᄆᆞᆯ방아.(연자매.)

103012 @ 예.(예.)

103012 #1 ᄆᆞᆯ방에에서 ᄀᆞᆯ아다근에.(연자매에서 갈아다가.)

---

79) '제께'는 매끼를 만들 때 곡식 대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보릿단 따위를 묶을 때 사용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께', '붙께'라고도 한다.

80) '모관'은 '목 안'이라는 말로, 예전에 제주목이 있던 지역을 가리킨다. 현재 제주시 지역을 말한다.

103012 @ 으.(으.)

103012 #1 그걸 ᄆᆞᆯ방에서는 껍데기만 까지지 집의 왕 또 정ᄀᆞ레로 보리 거펴.(그걸 연자매에서는 껍데기만 벗겨지지 집에 와서 또 맷돌로 보리 거피해.)

103012 @ 음.(음.)

103012 #1 거평 그걸로 밥을 헤엿주.(거피해서 그걸로 밥을 했지.)

103012 @ 음, 아까 삼춘, ᄆᆞᆯ방아렌 헷주마는 옛날은 여기에선 ᄆᆞᆯ방아렌 안 ᄀᆞᆯ앗잖우과?(음, 아까 삼촌, 'ᄆᆞᆯ방아'라고 했지만 옛날은 여기에선 'ᄆᆞᆯ방아'라고 안 말했잖아요?)

103012 #1 쉐, 쉐로 허주. 쉐로 헷어.(소, 소로 하지. 소로 했어.)

103012 #2 ᄆᆞᆯ그랑[81].('ᄆᆞᆯ그랑'.)

103012 #1 ᄆᆞᆯ도 헷어.(말도 했어.)

103012 #2 ᄆᆞᆯ그랑.(연자매.)

103012 #1 ᄆᆞᆯ그랑이엔 헷주. ᄆᆞᆯ그랑.(연자매라고 햇지. 연자매.)

103012 @ ᄆᆞᆯ그랑 으. 게니까 ᄆᆞᆯ그랑을.(연자매 으. 그러니까 연자매를.)

103012 #2 ᄆᆞᆯ그랑에.(연자매에.)

103012 #1 거 옛날말로 ᄆᆞᆯᄀᆞ레.(거 옛날말로 'ᄆᆞᆯᄀᆞ레'.)

103012 #2 사름 힘으로 못허난 그 저 ᄆᆞᆯ을 메완에 맷돌[82]헷주게.(사람 힘으로 못하니까 그 저 말을 메워서 '맷돌'을 했지.)

103012 #1 ᄆᆞᆯ 엇인 사름은 사름으로도 허곡.(말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하고.)

103012 @ 예에.(예에.)

103012 #2 ᄆᆞᆯ 엇인 사름은 사름으로 허곡.(말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하고.)

103013 @ 으, 경허영 ᄆᆞᆯ그랑 이제 한 거라예? 그 다음에 보리쏠로는 뭘 헤 먹은 거우과?(으, 그렇게 해서 연자매 이제 한 거네요? 그 다음에 보리쌀로는 뭘 해서 먹은 겁니까?)

103013 #1 밥헹 먹엇주게.(밥해서 먹었지.)

103013 #2 밥헤영 먹주게.(밥해서 먹지.)

103013 @ 밥만 헤영 먹언?(밥만 해서 먹었어?)

103013 #1 무시거 헐 말이라.(무엇 할 말이야.)

103013 #4 여름엔 보리밥만 허곡 겨울엔 조팝만 허고 허영 먹엇주, 옛날엔 무신 거?(여름엔 보리밥만 하고 겨울엔 조밥만 하고 해서 먹었지, 옛날엔 무엇?)

103013 @ (웃음).

103013 #2 죽도 쒀 먹곡 뭐.(죽도 쒀 먹고 뭐.)

103013 @ 보리로 헤 먹은 거는?(보리로 해 먹은 거는?)

103013 #1 보리쏠 놩 죽도 쒄 먹엇주게. 보리죽.(보리쌀 넣어서 죽도 쒀서 먹었지. 보리죽.)

---

81) 'ᄆᆞᆯ그랑'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서 '연자매'를 가리키는 말이다. 달리 'ᄆᆞᆯᄀᆞ레'라고도 하였다.

82) 여기에서 구술자가 사용한 '맷돌'은, 연자매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103013 @2 보리죽.(보리죽.)

103013 @ 보리죽 헤 먹고.(보리죽 해 먹고.)

103013 #2 보리쏠 놩 하영 죽 쒀 먹엇수가?(보리쌀 넣어서 많이 죽 쒀 먹었습니까?)

103013 @ 아, 죽 하영 쒕 먹어수가?(아, 죽 많이 쒀서 먹었습니까?)

103013 #1 죽 쒀 먹주게.(죽 쒀 먹지.)

103013 @ 으음. 그 다음에 여름엔 일 다 끗나면 보리 보깡은에 뭐 멘들아?(으음. 그 다음에 여름엔 일 다 끝나면 보리 볶아서 뭐 만들어?)

103013 #1 개역, 개역.(미숫가루, 미숫가루.)

103013 #2 보리개역.(보리미숫가루.)

103013 @ 보리개역. 옛날은 보리개역 하영 먹어서예?(보리미숫가루. 옛날은 보리미숫가루 많이 먹었지요?)

103013 #1 아, 아니.(아, 아니.)

103013 #2 아, 지금.(아, 지금.)

103013 #1 지금도 허주만은 옛날은 그 저 보리ᄀᆞ슬 끗나면은 장마 때 뒈가면 우선 보리 흔 말 정도 보까근에 ᄀᆞ레에 미리 ᄀᆞᆯ아.(지금도 하지만 옛날은 그 저 보리가을 끝나면 장마 때 돼가면 우선 보리 한 말 정도 볶아서 맷돌에 미리 갈아.)

103013 #2 보리 홀틀 땐 보리개역 먹으멍 보리 홀타.(보리 훑울 땐 보리미숫가루 먹으면서 보리 훑어.)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그거 먹젠 일부러덜 만들엇주게.(그거 먹으려고 일부러들 만들었지.)

103013 #4 유채 빌 때 먹젠게.(유채 벨 때 먹으려고.)

103013 #2 유채 비곡 보리 비곡 허젠 우선까라[83] 개역을 멘들앗주.(유채 베고 보리 베고 하려고 우선부터 미숫가루를 만들었지.)

103013 @ 아, 개역을 우선 만들엇어예? 예.(아, 미숫가루를 우선 만들었다고요?)

103013 #2 지금 장에 간 보난 처나서라마는.(지금 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났더니만.)

103013 #1 지금, 지금은 그자 돈만 아져가민 벨 게 다 잇수다.(지금, 지금은 그저 돈만 가져가면 별 게 다 있습니다.)

103013 #4 오천 원치만, 오천 원씩썩 무껑 풉디다.(오천 원어치만, 오천 원씩 묶어서 팝디다.)

103014 @ 경혜영은 이제 보리쏠 허젠 허면.(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쌀 하려고 하면.)

103014 #4 기곗방에서.(정미소에서.)

103014 #1 그만, 그만.(그만, 그만.)

103014 @ 보리, 보리 이제 그 정ᄀᆞ레로 헹은에 영 ᄀᆞᆯ 거 아니라예?(보리, 보리

83) '우선까라'는 '우선+까라(から)' 구성이다. 'から'는 '~부터'의 의미의 일본어다.

이제 그 맷돌로 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닌가요?)
103014 #1 으.(으.)
103014 @ 게믄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거 아니? 체도 나오고.(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거 아니? 겨도 나오고.)
103014 #1 아, 체는 엇주게. 쏠로만 뒌 건디.(아, 겨는 없지. 쌀로만 된 건데.)
103014 @ 예.(예.)
103014 #1 이게 굵은 방울이 두 개씩 벌러지는, 벌러지는 거라. 거피민.(이게 굵은 알이 두 개씩 쪼개지는, 쪼개지는 거야. 거피하면.)
103014 @ 거피면?(거피하면?)
103014 #1 보리 거피면.(보리 거피하면.)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두 개씩 벌러지는 거.(두 개씩 쪼개지는 거.)
103014 @ 게문 그 옛날 보리체도 나올 거 아니우과? 그, 그걸 뭐렌 헙니까? 여기서는.(그러면 그 옛날 보릿겨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103014 #1 어디.(어디.)
103014 @ 보리 헐 때.(보리 할 때.)
103014 #1 보리 거필 땐 체가 안 나온덴 허난.(보리 거피할 땐 겨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103014 @ 아, 게난 그땐 안 나오곡. 만약에 우리 보리.(아, 그러니까 그땐 안 나오고. 만약에 우리 보리.)
103014 #2 보리 거필 때 보리개역 나오주게. ᄉᆞ레기.(보리 거피할 때 보리미숫가루 나오지. 싸라기.)
103014 #1 ᄉᆞ레기 막 건 저 게난.(싸라기 매우 건 저 그러니까.)
103014 #2 건 도새기 줘부는 거.(건 돼지 줘버리는 거.)
103014 @ 거 이름을 뭐렌 해?(거 이름을 뭐라고 해?)
103014 #2 보릿ᄀᆞ르.(보릿가루.)
103014 @ 보릿ᄀᆞ르.(보릿가루.)
103014 #2 보릿ᄀᆞ르.(보릿가루.)
103014 @ 으, 보리ᄀᆞ를을 보리체엔도 헤?(으, 보리가루를 보릿겨라고도 해?)
103014 #1 보리체엔도 허곡.(보릿겨라고도 하고.)
103014 #2 아, 체는 저 그 방엣간에서 허는 거가 체주.(아, 겨는 저 그 방앗간에서 하는 것이 겨지.)
103014 #1 처음 방엣간에 체가 나오주게.(처음 방앗간에 겨가 나오지.)
103014 @ 아아.(아아.)
103014 #2 저 몰랴근에 보리 정, 그 방앗간에서 나오민.(저 말려서 보리 찧어서, 그 방앗간에서 나오면.)

103014 #1 ᄆᆞᆯᄀᆞ레서 ᄀᆞᆯ 땐 보리체가 나오는 거고.(연자매서 갈 땐 보릿겨가 나오는 거고.)

103014 #2 집의 왕 ᄆᆞᆯ랴근엥에 ᄊᆞᆯ 거필 때 나오는 건, 보릿ᄀᆞ르, 보릿ᄀᆞ르.(집에 와서 말려서 쌀 거피할 때 나오는 건, 보릿가루, 보릿가루.)

103014 @ 보릿ᄀᆞ르고.(보릿가루고.)

103014 #2 건 먹는 사름은 먹어도 우린 안 먹어.(건 먹는 사람은 먹어도 우린 안 먹어.)

103014 #1 보릿ᄀᆞ른 또 식량 모지린 사름도 먹기도 헤여.(보릿가루는 또 식량 모자란 사람도 먹기도 해.)

103014 @ 으음.(으음.)

103014 #1 먹어도 관계없는 거난.(먹어도 관계없는 거니까.)

103014 @ 게난 ᄆᆞᆯ그랑에서 나올 때는 보리체고. 게믄 그 체로는 뭐허여?(그러니까 연자매에서 나올 때는 보릿겨고. 그러면 그 겨로는 뭐해?)

103014 #2 도새기 주주게.(돼지 주지.)

103014 #1 도새기 주고.(돼지 주고.)

103014 @ 체는 도새기 주곡. 겡은에 ᄊᆞᆯ이 나왕 정ᄀᆞ레로 헐 때는 보릿ᄀᆞ르가 나오는 거라예? 으으.(겨는 돼지 주고. 그래서 쌀이 나와서 풀맷돌로 할 때는 보릿가루가 나오는 거네요? 으으.)

103014 #2 보릿ᄀᆞ르도 도새기 줘부는 거.(보릿가루도 돼지 줘버리는 거.)

103014 @ 예, 것도 도새기 줘부는데 없는 사름덜은.(예, 것도 돼지 줘버리는데 없는 사람들은.)

103014 #1 없는 사름은 먹엇주, 무신.(없는 사람은 먹었지, 무슨.)

103014 @ 그것도 먹기도 허고예? 그 다음에 보리 저기 이거 홀타나면 나머지 그 남뎅이는 뭐허여?(그것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리 저기 이거 훑어나면 나머지 그 대는 뭐해?)

103014 #1 남뎅이 무껑 놧당은에 무시거 허여? 뭐.(대 묶어서 놨다가 무엇 해? 뭐.)

103014 #2 밧듸 ᄀᆞᆯ아불곡 ᄉᆞᆯ아불곡.(밭에 깔아버리고 살라버리고.)

103014 #1 밧듸도, 밧듸도 ᄀᆞᆯ아불곡 그자 저 무시거 어디.(밭에도, 밭에도 깔아버리고 그저 저 무엇 어디.)

103014 #2 화장실 돗통에도 ᄀᆞᆯ아불곡.(화장실 돼지우리에도 깔아버리고.)

103014 #1 돗통에도 많이 놔불주.(웃음).(돼지우리에도 많이 놔버리지.(웃음).)

103014 @ 으.(으.)

103014 #1 걸름 만들젠.(거름 만들려고.)

103014 @ 걸름 만들젠. 그걸 짓이렌 헙니까? 그.(거름 만들려고. 그걸 짓이라고 합니까? 그.)

103014 #1 도새기 짓[84].(돼지 짓.)

103014 #2 보릿찝.(보릿짚.)

103014 #1 도새기 짓, 짓도 주곡. 집 소곱에 아상 도새기 짓도 주곡.(돼지 깃, 깃도 주고. 집 속에 가져서 돼지 깃도 주고.)

103014 @ 아아.(아아.)

103014 #2 도새기통에 담아놓민 것가 돗걸름이 뒐 거? 도새기가 붋아 놓민.(돼지우리에 담아놓으면 그것이 돼지거름이 될 거? 돼지가 밟아 놓으면.)

103014 @ 예, 거고 삼춘, 그 다음에 보리 해나면 그 ᄀᆞ시락, ᄀᆞ시락은?(예, 그러고 삼촌, 그 다음에 보리 해나면 그 까끄레기, 까끄레기는?)

103014 #1 으, ᄀᆞ스락은 놧당 굴묵 짇엇주게. 방에.(으, 까끄레기는 놔두었다가 '굴묵' 때지. 방에.)

103014 #4 (웃음).

103014 #1 방 뜻뜻허렌 굴묵[85] 짇엇어.(방 따뜻하라고 '굴묵' 때었어.)

103014 @ ᄀᆞ스락예?(까끄라기요?)

103014 #2 굴묵도 짇곡 밧듸서 케와부는 사름은 케왕 그디 밧듸 허꺼도 불곡.('굴묵'도 때고 밭에서 태워버리는 사람은 태워서 거기 밭에 흩어도 버리고.)

103015 @ 으, 삼춘, 이 보리농ᄉᆞ허멍 아이고, 나 그 보리농ᄉᆞ허멍 잊어불지 못허켜 허는 거 잇지양?(으, 삼촌, 이 보리농사하면서 아이고, 나 그 보리농사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하겠다 하는 거 있지요?)

103015 #1 하주.(많지.)

103015 @ 하지예? 골아봅서? 그 한 거?(많지요? 말해보십시오? 그 많은 거?)

103015 #1 어떵 말이라. 삭삭 더운디 보리 비당 앚이민 누게 물 흔 적 주진 아녀곡 그자 앚이민 춤 아, 춤 죽어불고 싶은 셍각날 때가 하주.(어떻게 말이야. 삭삭 더운데 보리 베다가 앉으면 누구 물 한 모금 주진 않고 그저 앉으면 참 아, 참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날 때가 많지.)

103015 @ 예, 게난 거 죽어불고 싶은 생각 말곡 딴 재미진 일은?(예, 그러니까 거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말고 딴 재밌는 일은?)

103015 #1 재미진 일은. 무사 보리 비당 똠 찰찰 낭 앚인 놈이 무신 놈의 재미진 일이 잇어게.(재밌는 일은. 왜 보리 베다가 땀 찰찰 나서 앉은 놈이 무슨 놈의 재밌는 일이 있어.)

103015 #2 (웃음).

103015 #1 일 엇이 똠 찰찰 나민 똠 씰 저를도 엇인디.(일 없이 땀 찰찰 나면 땀 쓸 겨를도 없는데.)

103015 #4 *** 더 못 전디주기.(*** 더 못 견디지.)

103015 @ (웃음).

103015 #1 옛날은 수건 잇엇어? 엇이민 영허영 그자 똠도 영, 그자 영허영 씰엇

84) '깃'은 표준어 '깃'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깃'은 외양간이나 마구간, 돼지우리에 깔아 주는 보릿대 따위를 말한다.

8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바깥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 어디 수건이 잇엇어게?(옛날은 수건 있었어? 없으면 이렇게 해서 그저 땀도 이렇게, 그저 이렇게 해서 쓸었지. 어디 수건이 있었어?)

103015 #2 수건도 이런 디 걸쳣주게. 걸쳐둠서 뚬 나가민 따끄멍 헷주. 경 아녀민 눈 어둑앙 못헙니께.(수건도 이런 데 걸쳤지. 걸쳐두고서 땀 나가면 닦으면서 했지. 그렇게 않으면 눈 어두워서 못합니다.)

103015 @ 게, 이 불더위에 허는 일이난예? 옛날에예.(게, 이 불더위에 하는 일이니까요? 옛날에요.)

103015 #1 막 더운 때만 허는 일이난.(매우 더운 때만 하는 일이니까.)

103015 #2 모가지에 수건을 물 적정 걸쳣주.(모가지에 수건을 물 적셔서 걸쳤지.)

103015 @ 보리 갈 때는 힘들지 안 헙디가?(보리 갈 때는 힘들지 안 합디까?)

103015 #1 아이, 보리 갈 땐 겨울이난게.(아니, 보리 갈 땐 겨울이니까.)

103015 #2 겨울에 허는 거난 무신 힘들어?(겨울에 하는 거니까 무엇 힘들어?)

103015 @ 어, 다른 덴 가면 보리 헐 때가, 갈 때가 막 힘들엇젠예. 입동허민 막 손 곱아불고 그거 영 허난에.(어, 다른 덴 가면 보리 할 때가, 갈 때가 매우 힘들었다고요. 입동하면 매우 손 곱아버리고 그거 이렇게 하니까.)

103015 #1 여자덜은게 아침이 세벡이 강 그 걸름 헤쓰젠 허민은 손 실렴은 헐 거주게. 지금은 장갑 쪔주만은 옛날은 장갑 잇엇어? 장갑 엇이난에.(여자들은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 거름 헤집으려고 하면 손 시리기는 할 거지. 지금은 장갑 끼고 있지만 옛날은 장갑 있었어? 장갑 없으니까.)

103015 #2 경헤도 이 쳇 번 간 땐 손 실럄도 그거.(그래도 이 첫 번 갈 땐 손 시려도 그거.)

103015 #1 헤가민 어떵 안 허여.(해가면 어떻게 안 해.)

103015 #2 막 부지런히 헤가민 경 손 실렵게 일을 헤게. 부지런이 헤가민 뚬이 찰찰 남주게. 손 실렴인 헤져게.(매우 부지런히 해가면 그렇게 손 시리게 일을 해. 부지런히 해가면 땀이 찰찰 나지. 손 시리면 해져.)

103015 #1 경헌디 그 돗가레 놓당도 옛날은 간식으로 ᄆᆞ멀펌벅 헤가민 이 돗가레 놓단 손으로 그냥 먹엇어.(그런데 그 돼지거름 놓다가도 옛날은 간식으로 메밀범벅 해가면 이 돼지거름 놓던 손으로 그냥 먹었어.)

103015 #4 간식이 어디 셔?(간식이 어디 있어?)

103015 #1 싯젠 허난 어디 물 셔?(씻으려고 하니까 어디 물 있어?)

103015 @ 맞수다.(맞습니다.)

103015 #4 간식은 무신 간식 말이우과?(간식은 무슨 간식 말입니까?)

103015 #1 물이 엇이난게 검질로 싹싹 씰어뒁 그냥 먹엇주.(물이 없으니까 검불로 싹싹 쓸어두고 그냥 먹었지.)

103015 @ 예, 게난 간식이 범벅이라낫수가?(예, 그러니까 간식이 범벅이었었습니까?)

103015 #1 범벅이나벳긔 먹을 거 잇어?(범벅밖에 먹을 거 있어?)

103015 @ 게난 가끔 갓다가 이제 그 돗가레 헹은에 씨 할 때 그때덜 감저 청허면 그거 먹엇덴 영 헙디다. 그 손으로.(그러니까 가끔 갔다가 이제 그 돼지거름 해서 씨 할 때 그때들 고구마 쪄서 하면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 합디다. 그 손으로.)

103015 #1 감저 청.(고구마 쪄서.)

103015 #2 돗가레 허끌 때?(돼지거름 흩을 때?)

103015 @ 예.(예.)

103015 #1 아, 그것도 먹엇주게.(아, 그것도 먹었지.)

103015 #2 먹엇주게.(먹었지.)

103015 @ 예, 그냥 그 손으로예?(예, 그냥 그 손으로요?)

103015 #2 밥만 베불 게 엇이난에 간식으로.(밥만 배부를 게 없으니까 간식으로.)

103015 #1 졸바로 물이 엇이난게 검질로 싹싹 씰어뒨 먹엇주 무신 뭐.(제대로 물이 없으니까 검불로 싹싹 쓸어두고 먹었지. 무슨 뭐.)

103015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15 #2 그건 온말이고. 돗가레 놓단 손으로 그자 밥 먹어낫수다. 정심도.(그건 참말이고. 돼지거름 놓던 손으로 그저 밥 먹었었습니다. 점심도.)

103015 @2 겐디 이상허게도예, 걸름 냇던 손인 경우 강예 물에 씻으면.(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거름 냈던 손인 경우 가서요 물에 씻으면.)

103015 #1 깨끗험니께.(깨끗합니다.)

103015 @ 깨끗헤마씨?(깨끗해요?)

103015 #2 예.(예.)

103015 #1 건 깨끗헙니다.(건 깨끗합니다.)

103015 @2 아주 깨끗헤마씨.(아주 깨끗해요.)

103015 #2 예.(예.)

103015 #4 (웃음). 걸름 막 헤납디가?((웃음). 거름 막 했었습니까?)

103015 #1 이게 아메도 이건 돗걸름에도양 그 기름기가 잇는 모양이라.(이게 아마도 이건 돼지거름에도요 그 기름기가 있는 모양이야.)

103015 @ 음.(음.)

103015 @2 아주 깨끗헤마씨.(아주 깨끗해요.)

103015 #1 이 쉐걸름 내나도, 쉐걸름 내나도 발이 깨끗헙니다.(이 소두엄 냈어도, 소두엄 냈어도 발이 깨끗합니다.)

103015 @ 게난 마사지 뒌 거주게. 다 예?(그러니까 마사지 된 거지. 다 예?)

103015 #2 마사지산디?(마사지인지?)

103015 @ 춤말 허듯이 아까 온말 이렇게?(참말 하듯이 아까 '온말' 이렇게?)

103015 @2 춤말, 온말.(참말, '온말'.)

103015 @ 예.(예.)

조농사

103016 @ 삼춘, 이젠 조 ᄇᆞᆯ립주, 이젤랑. 조 ᄇᆞᆯ리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헤마씨?(삼촌, 이젠 조 밟지요, 이젤랑. 조 밟으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103016 #1 보리 비여불면 보릿그를 초불 갈주게.(보리 베어버리면 보릿그루를 초벌 갈지.)

103016 @ 예.(예.)

103016 #1 쟁기로.(쟁기로.)

103016 @ 음.(음.)

103016 #2 초불 갈앗당 저거 유월절[86]이 ᄇᆞ뎌 가민 두불 갈앙 조를 ᄇᆞᆯ리주게. 이 유월절 보통 저.(초벌 갈았다가 저거 '유월절'이 가까워 가면 두벌 갈아서 조를 밟지. 이 유월절 보통 저.)

103016 #2 유월절에 ᄇᆞᆯ리는 거주.('유월절'에 밟는 거지.)

103016 #1 아니 유월절이 전 삼일 후 삼일 허는디 전 삼일은 저 쪼꼼 이 마을에서 쪼꼼 떨어진 디.(아니 '유월절'이 전 삼 일 후 삼 일 하는데 전 삼 일은 저 조금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데.)

103016 @ 음.(음.)

103016 #1 그쪽으로가 ᄆᆞ녀 한 이삼일 ᄆᆞ녀 농사를 허고, 이 가름 쪽에는 가름팟[87]엔 헤근에.(그쪽으로가 먼저 한 이삼일 먼저 농사를 하고, 이 마을 쪽에는 '가름팟'이라고 해서.)

103016 #2 좋은 밧이난.(좋은 밭이니까.)

103016 #1 저 거세기 유월절이 끗나민 마걷이밧이엔 보통 이 마에 마가 지나갈 무렵에 저 게난 건 후 삼일에 졸 농사허고.(저 거시기 '유월절'이 끝나면 '마걷이밧'이라고 보통 이 장마에 장마가 지나갈 무렵에 저 그러니까 건 후 삼 일에 졸 농사하고.)

103017 @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조팟듸도 거름을 헙니까?(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조밭에도 거름을 합니까?)

103017 #1 거름은 무신 거름.(거름은 무슨 거름.)

103017 #4 그때사 어디 셔?(그때야 어디 있어?)

103017 #1 그때 아무 것도 없주.(그때 아무 것도 없지.)

103017 @ 아, 조팟듸 거름 헐 게 엇어예?(아, 조밭에 거름 할 게 없다고요?)

103017 #1 보리 갈아난 밧은 그 돗걸름 놔놔니깐 조가 좋넨 허는 이유가 거주게. 걸름 놔놔난.(보리 갈았던 밭은 그 돼지거름 놨었으니깐 조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거지. 거름 놨었으니까.)

---

86) '유월절'은 이십사절기 가운데 '소서'를 말한다.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음력 6월, 양력 7월 7일이나 8일경이 된다.

87) '가름팟'은 '가름+팟' 구성으로, '가름'은 마을, '팟'은 '밧'이 앞의 '-ㅁ'이 영향을 받아 거센소리로 변한 경우다. '밧'은 표준어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3019 @ 아, 걸름 놔놔난예, 예. 예, 맞수다. 그 좁씨는 어떤 식으로 삐여마씨?(아, 거름 놨었으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조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요?)

103019 #1 게난.(그러니까.)

103019 @ 조 불리는 순서를 한번 골아봅서.(조 밟는 순서를 한번 말해보십시오.)

103019 #1 두불, 두불 갈민은.(두벌, 두벌 갈면.)

103019 @ 예.(예.)

103019 #1 물을 갖당은에 싹 혼번 불려.(말을 갖다가 싹 한번 밟아.)

103019 @ 예.(예.)

103019 #1 불리민 이게 소로 장기로 갈면은 이렇게 높은 디가 잇고 야튼 디가 잇거든.(밟으면 이게 소로 쟁기로 갈면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거든.)

103019 @ 예.(예.)

103019 #1 게민 물로 불리민 이게 어느 정도 수평이 뒈여.(그러면 말로 밟으면 이게 어느 정도 수평이 되어.)

103019 @ 음.(음.)

103019 #1 게민 이젠 좁씨를 뿌령 따시 우인 씨가볼른덴[88] 허영 또 혼 번 불려.(그러면 이젠 조씨를 뿌려서 다시 위엔 '씨가볼른덴' 해서 또 한 번 밟아.)

103019 @ 씨 뭐렌마씨?(씨 뭐라고요?)

103019 #1 씨가볼론덴 헨에. 씨 안 보이게 가볼른덴 헤영.('씨가볼론'다고 해서. 씨 안 보이게 '가볼른덴' 해서.)

103019 #2 씨 막아지는 거. 막아지는 거.(씨 막아지는 거. 막아지는 거.)

103019 @ 예.(예.)

103019 #1 씨가볼린덴 허영 또 혼 번 불리주. 두불.('씨가볼린'다고 해서 또 한 번 밟지. 두벌.)

103019 @ 그러면은 두 번 헹은에 간 다음에 좁씨를 삐염쩌예?(그러면은 두 번 해서 간 다음에 조씨를 뿌리고 있네요?)

103019 #1 아니, 간 다음엔 일단 혼 번 불령.(아니, 간 다음엔 일단 한 번 밟어서.)

103019 @ 예, 불린 다음에.(예, 밟은 다음에.)

103019 #1 또 씨 삐영 또 혼 번 불려.(또 씨 뿌려서 또 한 번 밟아.)

103019 @ 어, 그냥 뭐 갈지는 않는 거예? 그 다음에는예. 게믄 그렇게 밧 씨 뿌린 거를 그 무신 씨 헙니까?(어, 그냥 뭐 갈지는 않는 거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렇게 밭 씨 뿌린 거를 그 무슨 씨 합니까?)

103019 #1 좁씨주게, 좁씨.(조씨지, 조씨.)

103019 @ 아니, 아니. 좁씨 허면은 뭐 알씨여 우씨여 이런 말은 안 허여?(아니, 아니. 조씨 하면은 뭐 '알씨'다 '우씨'다 이런 말은 안 해?)

88) '씨가볼론덴'은 '씨를 잘 묻어준다고'의 의미다.

103019 #1 아니. 산듸는 알씨[89] 우씰 허는디.(아니. 밭벼는 '알씨' '우씰' 하는데.)

103019 @ 예.(예.)

103019 #1 산듸는 갈기 전의 삐영 갈아놩 우의 또 흔 번 삐영 물로 불리는디 조는 경 아녀주.(밭벼는 갈기 전에 뿌려서 갈아놓아서 위에 또 한 번 뿌려서 말로 밟는데 조는 그렇게 않지.)

103019 @ 아, 조는 그냥 안 허영은에예?(아, 조는 그냥 안 해서요?)

103019 #1 흔 번에.(한 번에.)

103020 @ 예, 그 다음에 그 조밧 불릴 때는 어떤 식으로 헷수가? 삼춘, 하영 헌 거 아니?(예, 그 다음에 그 조밭 밟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삼촌, 많이 한 거 아니?)

103020 #1 어?(어?)

103020 @ 조밧 불리는 거. 씨 삐영은에 불릴 때?(조밭 밟는 거. 씨 뿌려서는 밟을 때?)

103020 #1 불릴 때 어떵 허영 사름도 너댓 사름 허곡 물도 흔 이십, 흔 이십 두 뒈주게.(밟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도 네댓 사람 하고 말도 한 이십, 한 이십 두 되지.)

103020 @ 예.(예.)

103020 #1 흔 스무남은 개.(한 스무남은 개.)

103020 @ 그 조밧 불렷던 거,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불렷던 거 골아줘 봅서?(그 조밭 밟았던 거, 어떤 식으로 해서 밟았던 거 말해줘 보세요?)

103020 #1 뱅뱅 돌아뎅기멍 불르주게.(뱅뱅 돌아다니면서 밟지.)

103020 @ 어.(어.)

103020 #2 선ᄆᆞ쉬[90] 이끄는 사름은.('선마소(先-)' 이끄는 사람은.)

103020 #1 흔 사름 앞에서 물 이끄는 사름이 잇어.(한 사람 앞에서 말 이끄는 사람이 있어.)

103020 #2 물 이끄민 그 조름에 물덜 모는 사름은 선ᄆᆞ쉬 돌아가는 냥 좇아뎅기멍.(말 이끌면 그 꽁무니의 말들 모는 사람은 '선마소' 돌아가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103020 #1 그 물덜이 워낙 익숙헌 물들이라노니까 이 어떤 사름은 이끄지 아녕.(그 말들이 워낙 익숙한 말들이어서 이 어떤 사람은 이끌지 않아서.)

103020 @ 으.(으.)

103020 #1 이 저 막뎅이로만 영허영 ᄀᆞ리쳐 가민 물덜이 이 막뎅이 끗을 ᄯᆞ랑 돌아뎅겨. 진짜. 그렇게 헤낫다고.(이 저 막대기로만 이렇게 해서 가리켜 가면 말들이 이 막대기 끝을 따라서 돌아다녀. 진짜. 그렇게 했었다고.)

---

89) '알씨'는 농사를 지을 때 밭 갈기 전에 뿌리는 씨를 말한다. 반대로 밭을 간 후에 뿌리는 씨는 '웃씨'라고 한다.

90) '선ᄆᆞ쉬'는 말떼를 이용해 조밭을 밟을 때, 앞에 선 말을 가리킨다. 달리 '선물'이라고도 한다.

103020 #2 이꺼사주게.(이끌어야지.)

103020 #1 그렇게 헤연 불리단에 그 중간엔 물 걸련 헤나신디 처음 우리 어린 때 밧 불리레 간 때는 그 처음 앞에 사근에 그 인솔허는 사름이 막뎅이 영 허영 가가민 물덜이 그 막뎅이만 보멍 좇아 뎅겨.(그렇게 해서 밟다가 그 중간엔 말 걸려서 했었는데 처음 우리 어릴 때 밭 밟으러 갈 때는 그 처음 앞에 서서 그 인솔하는 사람이 막대기 이렇게 해서 가가면 말들이 그 막대기만 보면서 쫓아 다녀.)

103020 @ 예,(예,)

103020 #1 게난 물덜이 그만큼 숙달이 뒌 거주.(그러니까 말들이 그만큼 숙달이 된 거지.)

103020 @ 맨 앞에 선 물을 무신 물?(맨 앞에 선 말을 무슨 말?)

103020 #1 선물허여. 선물.('선말' 해. '선말'.)

103020 @ 선물. 게믄 선물 따라서 뒤에 것덜이 졸졸.('선말'. 그러면 선말 따라서 뒤에 것들이 졸졸.)

103020 #1 다 뜨라 뎅기주.(다 따라 다니지.)

103020 @ 으, 선물예? 그리고 그때 이제 선물 앞에서 같이 하는 그 사람은 뭐렌 헤?(으, '선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말' 앞에서 같이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해?)

103020 #2 밧 불리는 사름게.(밭 밟는 사람.)

103020 @ 밧 불리는 우두머리 그 저기 물 주인?(밭 밟는 우두머리 그 저기 말 주인?)

103020 #2 물 주인. 물 이끄는 사름.(말 주인. 말 이끄는 사람.)

103020 @ 음.(음.)

103020 #2 그, 것가 저 무신거 선물 이끄는 사름.(그, 것이 저 무엇 '선말' 이끄는 사람.)

103020 #1 그걸 뭐엔 헤나신디 걸 모르겟네.(그걸 뭐라고 했었는지 걸 모르겠네.)

103020 @ 게믄 옛날엔 테우리 이런 말은 안 헤낫수과?(그러면 옛날엔 '테우리' 이런 말은 안 했었습니까?)

103020 #1 테우리[91]는 ᄀᆞ만이 강 물 밧 불리는 디 강 동산에나 담 우의나 강 ᄀᆞ만이 앚앙 보기만 허주. 건 물 임젤 보고 테우리엔 헷주.('테우리'는 가만히 가서 말 밭 밟는 데 가서 동산에나 담 위에나 가서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지. 건 말 임잘 보고 '테우리'라고 했지.)

103020 @ 아아.(아아.)

103020 #1 물 임제보고.(말 임자보고.)

103020 @ 아아, 게믄 물 임제는 그 헹은에 이렇게?(아아, 그러면 말 임자는 그 해서 이렇게?)

91) '테우리'는 '목동'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말 주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103020 #1 강 ᄀᆞ만이 앉앙 보기나 허주, 일은 아녀.(가서 가만히 앉아서 보기나 하지, 일은 않아.)

103020 @ 아, 일은 안 헤? 물만 가졍 강 빌려주기만 허고.(아, 일은 안 해? 말만 가져서 가서 빌려주기만 하고.)

103020 #4 밧 임제가 게민 테우리 내시 정심 헤가곡. 고기 굽곡 막 잘 출령.(웃음).(밭 임자가 그러면 '테우리' 몫 점심 해가고. 고기 굽고 매우 잘 차려서.(웃음).)

103020 @ 아아.(아아.)

103020 #4 고기만 구믄 잘 출린 거, 옛날에.(고기만 구면 잘 차린 거, 옛날에.)

103020 #1 나도 테우리 혼 이삼십 년 헤먹어낫주.(나도 '테우리' 한 이삼십 년 해먹었었지.)

103020 @ 예. 게난 삼촌, 테우리 갈 땐 게영 어떵 헙디가? 맨 처음에 밧 불리젠 허민 뭐 거기에 제도 지내고 헌덴 허멍.(예. 그러니까 삼촌, '테우리' 갈 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밭 밟으려고 하면 뭐 거기에 제도 지내고 한다고 하면서.)

103020 #1 아니.(아니.)

103020 @ 경은 안헤?(그렇게는 않아?)

103020 #1 젠, 젠 벡중에벳긘 제 지내지 아녀고.(젠, 젠 백중에밖에는 제 지내지 않고.)

103020 @ 아, 밧 불릴 때는 제는 안 헤마씨? 게난 테우리 헹 가난 뭐 줍디가?(아, 밭 밟을 때는 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테우리' 해서 가니까 뭐 줍디까?)

103020 #1 뭘 줘. 밥헨.(뭘 줘. 밥해서.)

103020 @ 아까 밥헤줫덴 아까 삼춘.(아까 밥해줬다고 아까 삼촌.)

103020 #2 테우리 나시.('테우리' 몫.)

103020 #1 테우리 나, 테우리 밥엔 허영은에 뚜로 헤여 가. 뚜로.('테우리' 나, '테우리' 밥이라고 해서 따로 해서 가. 따로.)

103020 @ 아.(아.)

103020 #2 정심을 막 잘 출령 간다고. 테우리만 먹을 거.(점심을 아주 잘 차려서 간다고. '테우리'만 먹을 거.)

103020 @ 음.(음.)

103020 #2 테우리만 먹을 거. 물 임제가 먹을 거.('테우리'만 먹을 거. 말 임자가 먹을 거.)

103020 #1 그 밧 불리는 사름 헤 간 밥허고 테우리는 테우리만 찍세 뚜로 헤영 가.(그 밭 밟는 사람 해 간 밥하고 '테우리'는 '테우리'만 깃 따로 해서 가.)

103020 @ 으.(으.)

103020 #2 물 임제만 ᄐᆞ로 헤가곡.(말 임자만 따로 해가고.)

103020 #1 이디는 백멘디[92] 이디는 반지기[93]라.(여기는 '백메'인데 여기는 '반지

92) '벡멘디'는 '백메인데'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백메'는 흰밥을 가리킨다.

기’야.)

103020 @ 아아.(아아.)

103020 #1 보리쏠 서튼 밥.(보리쌀 섞은 밥.)

103020 @ 아아. 게민 곤밥을 허영 가는 거?(아아. 그러면 흰밥을 해서 가는 거?)

103020 #1 여기는 고기 혼 머리 궝 가민 이디는 혼 머리민 너댓 사름이 다 먹어야 뒈.(여기는 고기 한 마리 궈서 가면 여기는 한 마리면 네댓 사람이 다 먹어야 되어.)

103020 #4 (웃음).

103020 @ 테우린 강 ᄀᆞ만이 앚은덴 허멍.(‘테우리’는 가서 가만히 앉는다고 하면서.)

103020 #1 ᄀᆞ만이 앚아도.(가만히 앉아도.)

103020 #4 ᄆᆞᆯ 임제니까.(말 임자니까.)

103020 #2 ᄆᆞᆯ, ᄆᆞᆯ 간수만 허는 거.(말, 말 간수만 하는 거.)

103020 @ 아아, 직접 일을 허거나 일은 안허고?(아아, 직접 일을 하거나 일은 않고?)

103020 #2 일 아녀. 게민 ᄆᆞᆯ 빌엉 허는 사름이, 그디 선ᄆᆞ숴 이끄는 사름이 잇주게. 아무라도 밧 잘 ᄇᆞᆯ리는 사름이 선ᄆᆞ숴 이끄렌 허여근에 그 ᄆᆞᆯ ᄒᆞ나 이끄민 그 조름에덜 영 이레 갓닥 저레 갓닥 몰아 뎅기멍 허는 것이.(일 않아. 그러면 말 빌려서 하는 사람이, 거기 ‘선마소’ 이끄는 사람이 있지. 아무라도 밭 잘 밟는 사람이 ‘선마소’ 이끄라고 해서 그 말 하나 이끌면 그 꽁무니에들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몰아 다니면서 하는 것이.)

103020 @ 으음.(으음.)

103020 #2 그 선, 저 쳇 번 ᄆᆞᆯ 이끄는 사름이 선ᄆᆞ숴 이끄는 사름이 잇어.(그 선, 저 첫 번 말 이끄는 사람이 ‘선마소’ 이끄는 사람이 있어.)

103020 @ 선ᄆᆞ숴 이끄는 사람예? 게믄 그 밧 혼 번 ᄇᆞᆯ리젠 허민 사름이 멧 사름 필요혜?(‘선마소’ 이끄는 사람요? 그러면 그 밭 한 번 밟으려고 하면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해?)

103020 #2 사름 하영.(사람 많이.)

103020 #1 ᄆᆞᆯ 수정에 따라가지고 ᄆᆞᆯ이.(말 수에 따라가지고 말이.)

103020 #2 ᄆᆞᆯ이 하민 사름이 하곡.(말이 많으면 사람이 많고.)

103020 #1 ᄆᆞᆯ이 한 이십 두면은 한 육 명은 허여.(말이 한 이십 두면은 한 육 명은 해.)

103020 @ 아아.(아아.)

103020 #1 앞의 한 사름 옆에.(앞에 한 사람 옆에.)

---

93) ‘반지기’는 쌀이나 좁쌀 따위의 두 가지의 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주로 볍쌀이나 밭벼쌀에 보리쌀이나 좁쌀 따위를 섞어서 지은 밥을 가리킨다.

103020 @ 도망가지 못허게.(도망가지 못하게.)
103020 #1 두의 흔 사름.(뒤에 한 사람.)
103020 #2 경헤사 영 모두청은에 잘 불려지렌 그 물.(그렇게 해야 이렇게 모아서 잘 밟아지라고 그 말.)
103020 @ 아아.(아아.)
103020 #1 이게 허터지민 잘 안 불려지거든.(이게 흩어지면 잘 안 밟아지거든.)
103020 @ 예, 어어.(예, 어어.)
103020 #2 물이 뭉쳐야. 뭉치게. 게난 허터지지 못허게 허젠 사름이 딱 들어상 물.(말이 뭉쳐야. 뭉치게. 그러니까 흩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딱 들어서서 말.)
103020 #2 막아사는 거주. 막아사는 거.(막아서는 거지. 막아서는 거.)
103020 @ 게믄 삼춘, 그렇게 헹은에 이제 하는데, 또 도구가 필요헐 거 아니우과? 물 말고 다른 거.(그러면 삼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또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말 말고 다른 거.)
103020 #1 밧 불릴 때 도구는 막뎅이벳긘 필요엇어.(밭 밟을 때 도구는 막대기밖에는 필요없어.)
103020 @ 아아.(아아.)
103020 #4 (웃음).
103020 @ 게믄 그 물 안 헤 갖고 밧 불리젠 허면 도구가 필요헌 거? 물 안 빌믄?(그러면 그 말 안 해 갖고 밭 밟으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한 거? 말 안 빌리면?)
103020 #1 저 서쪽디레는 남테[94]엔 헌 거 잇잖아.(저 서쪽으로는 '남테'라고 한 거 있잖아.)
103020 @ 예.(예.)
103020 #1 남으로 만든 거이.(나무로 만든 거.)
103020 @ 예.(예.)
103020 #1 그거는 물 메왕은에 끗잖아.(그거는 말 메워서 끝잖아.)
103020 @ 예.(예.)
103020 #1 경허주마는 이디는 그런 거 아녀.(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않아.)
103020 @ 아아, 여기는 남테가 엇수가?(아아, 여기는 '남테'가 없습니까?)
103020 #2 없어, 그런 거.(없어, 그런 거.)
103020 @ 아아.(아아.)
103020 #1 물로 전부.(말로 전부.)
103020 @ 섬비로도 영 끌.(끙게도 이렇게 끌.)
103020 #1 아니.(아니.)

94)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든,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다.

103020 @ 안허고. 무조건 ᄆᆞᆯ로만. 아, 이 동네는 ᄆᆞᆯ들을 하영 질롸구나?(안하고. 무조건 말로만. 아, 이 동네는 말들을 많이 길렀구나?)

103020 #1 서쪽더렌 ᄆᆞᆯ이 없주게. 옛날도.(서쪽으론 말이 없지. 옛날도.)

103020 @ 예.(예.)

103020 #1 이 촌데레벳긔는.(이 촌으로밖에는.)

103020 #4 ᄆᆞᆯ로 밧을 봐도 공거 아니주게. 품을 삯을 물어사.(말로 밭을 봐도 공거 아니지. 품을 삯을 물어야.)

103020 @ 예, 예.(예, 예.)

103020 #2 ᄆᆞᆯ품[95]은 물어사 ᄆᆞᆯ 빌려주는 거. 테우리가 잘 먹는 이유가게 그 ᄆᆞᆯ 빌려준 그 인정으로 잘 먹는 거 아니? ᄆᆞᆯ임제로.('말품'은 물어야 말 빌려주는 거. '테우리'가 잘 먹는 이유가 그 말 빌려준 그 인정으로 잘 먹는 거 아니? 말 임자로.)

103020 @ 거난 그때 고기 구웟덴 헤신디 무신 궤기를 궈?(그러니까 그때 고기 구웠다고 했는데 무슨 고기를 궈?)

103020 #1 오토미주, 보통.(옥돔이지, 보통.)

103020 @ 오토미. 어, 여기는 이쪽 오토미가 나난예? 으음.(옥돔. 어, 여기는 이쪽 옥돔이 나니까요? 으음.)

103020 #1 테우리 나신 막 셍각허주.('테우리' 몫은 아주 생각하지.)

103020 @2 음.(음.)

103020 @ 예, 예.(예, 예.)

103020 #1 아, 진짜.(아, 진짜.)

103020 @ 예, 게난 그때는 다 그 ᄆᆞ쉬들은 다 ᄆᆞᆯ?(예,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 마소들은 다 말?)

103020 #1 ᄆᆞᆯ, ᄆᆞᆯ.(말, 말.)

103020 @ 쉐는 아니고 다 ᄆᆞᆯ예?(소는 아니고 다 말요?)

103020 #1 이 저 ᄆᆞᆯ 숫자가 모지린 디 쉐도 허긴 헷어. 겐디.(이 저 말 숫자가 모자란 데 소도 하긴 했어. 그런데.)

103020 #2 쉐는 느렁 밧 못 ᄇᆞᆯ려.(소는 느려서 밭 못 밟아.)

103020 #1 쉐는 ᄆᆞᆯ보단 걸어가는 동작이 뜨주게. 게난 좇아뎅기질 못허여.(소는 말보단 걸어가는 동작이 느리지. 그러니까 쫓아다니질 못해.)

103021 @ 으음, 게믄 대부분 여기 성읍에서는 다.(으음, 그러면 대부분 여기 성읍에서는 다.)

103021 #1 ᄆᆞᆯ로.(말로.)

103021 @ ᄆᆞᆯ로 헷다예? 조팟듸 검질은 어떤 식으로 멧수가?(말로 했네요? 조밭에 김은 어떤 식으로 맸습니까?)

103021 #1 여자들 멧주.(여자들 맸지.)

---

95) 'ᄆᆞᆯ품'은 말[馬]의 품삯을 말한다.

103021 #2 조팟듸 검질 여자도 메곡 남자도 메곡 뭐.(조밭에 김 여자도 매고 남자도 매고 뭐.)
103021 #1 남자덜토 멧주게.(남자들도 맸지.)
103021 #4 남자도 멧주게.(남자도 맸지.)
103021 #2 조 나근에게 무사게 댓잎 나가민.(조 나서 왜 댓잎 나가면.)
103021 @ 예.(예.)
103021 #2 다섯 잎도 나민.(다섯 잎도 나면.)
103021 #1 요 정도 뒈기 시작허민 메기 시작허주.(요 정도 되기 시작하면 매기 시작하지.)
103021 #2 파니로 다 만든 거난 혼 파니 혼 사름씩 앚앙은에 쭉허게 앉앙.(이랑으로 다 만든 거니까 한 이랑 한 사람씩 앉아서 쭉하게 앉아서.)
103021 @ 아, 게, 멧 불 메여마씨?(아, 게, 몇 벌 매요?)
103021 #2 세네 불 메여사.(서너 벌 매어야.)
103021 #1 두불 메는 사름 세불 메는 사름 허주.(두벌 매는 사람 세벌 매는 사람 하지.)
103021 @ 아아.(아아.)
103021 #2 조팟듸도 세불은 메사 조가 좋주게.(조밭에도 세벌은 매야 조가 좋지.)
103021 #1 깨끗허주, 아메도.(깨끗하지, 아마도.)
103021 @ 맨 처음 메는 검질은 무신 검질헙니까?(맨 처음 매는 김은 무슨 김합니까?)
103021 #1 초불검질.(애벌김.)
103021 @ 초불.(초벌.)
103021 #2 두불.(두벌.)
103021 @ 두불.(두벌.)
103021 #2 세불.(세벌.)
103021 #1 세 번 메민 세불.(세 번 매면 세벌.)
103021 @ 어, 게민, 초불 헐 때는 거 ᄉᆞ끄는 거?(어, 그러면, 초벌 할 때는 거 솎는 거?)
103021 #1 아니, 두불에가 많이 ᄉᆞ까.(아니, 두벌에가 많이 솎아.)
103021 @ 아아.(아아.)
103021 #1 초불에는 우선 검질 뽑기 목적이난에.(초벌에는 우선 김 뽑기 목적이니까.)
103021 @ 아아.(아아.)
103021 #4 벌레기[96] 둘르는 거?('벌레기' 두르는 거?)
103021 #1 벌레기 둘른다고 헤서 초불은 이 씨 ᄉᆞ끄는 거보단 검질을 검질을

96) '벌레기'는 김맬 때 처음에 대강 매는 김이다.

주로. 검질 뽑기 목적이주.(‘벌레기’ 두른다고 해서 초벌은 이 씨 솎는 거보단 김을 김을 주로. 김 뽑기 목적이지.)

103021 @ 아까 벌레기 둘르는 거는 무신 말이우과?(아까 ‘벌레기’ 두르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103021 #2 그것이 벌레기 둘르는 거.(그것이 ‘벌레기’ 두르는 거.)

103021 #1 초불, 초불 메는 거를 벌레기 둘른다고 허주. 벌레기 둘른다.(초벌, 초벌 매는 거를 ‘벌레기’ 두른다고 하지. ‘벌레기’ 두른다.)

103021 @ 게믄 두불 메는 거는?(그러면 두벌 매는 거는?)

103021 #2 두불 멜 때 씨 ᄉᆞᆺ고 씨 골르고.(두벌 맬 때 씨 솎고 씨 고르고.)

103021 #1 그게 제라헌 검질메는 거.(그게 제대로 김매는 거.)

103021 #2 제라허게 깨끗이 메는 거.(제대로 깨끗이 매는 거.)

103021 #1 두 번째.(두 번째.)

103021 @ 두 번 게난 다시 물어보커라예? 초불은 벌레기 둘르는 거?(두 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어요? 초벌은 ‘벌레기’ 두르는 거?)

103021 #1 으.(으.)

103021 @ 그때 벌레기는 무신 말이우과?(그때 ‘벌레기’는 무슨 말입니까?)

103021 #1 검질만 뽑는 거주게.(김만 뽑는 거지.)

103021 #2 큰 검질메는 거.(큰 김매는 거.)

103021 #4 큰 검질만 뽑는 거.(큰 김만 뽑는 거.)

103021 @ 큰 검질만 조 말고 큰 검질만 뽑는 거예?(큰 김만 조 말고 큰 김만 뽑는 거요?)

103021 #1 조 ᄉᆞᆺ고.(조 솎고.)

103021 @ 두 번째는 아까?(두 번째는 아까?)

103021 #1 조 ᄉᆞᆺ곡.(조 솎고.)

103021 @ 조 ᄉᆞᆺ곡.(조 솎곡.)

103021 #2 건 깨끗이 방수[97] 벌영 세우는 거.(건 깨끗이 ‘방수’ 벌여서 세우는 거.)

103021 @ 어, 방수 벌영은에 세우는 거는?(어, ‘방수’ 벌여서 세우는 거는?)

103021 #2 두불.(두벌.)

103021 @ 두불.(두벌.)

103021 #1 게난 조 이렇게 허주게. 요 손 사이에 이 정도 이 정도 간격으로.(그러니까 조 이렇게 하지. 요 손 사이에 이 정도 이 정도 간격으로.)

103021 @ 아, 손을 주먹을 딱 줴영 이, 이 사이로예? 아, 방 벌이는 거.(아, 손을 주먹을 딱 쥐어서 이, 이 사이로요? 아, 방 벌이는 거.)

103021 #2 포부뜬 것도 엇고.(겹치는 것도 없고.)

103021 @ 아, 포부뜬 것도 없고 하나씩 하나씩.(아, 겹친 것도 없고 하나씩 하

97) ‘방수’는 조 따위를 일정한 공간 안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방수’를 ‘방’이라고도 한다.

나씩.)

103021 #1 두 개 부뜨민 두 개 부뜨민 고고리가 줄주게.(두 개 붙으면 두 개 붙으면 이삭이 잘지.)

103021 @ 예에.(예에.)

103021 #1 게니까 하나씩.(그러니까 하나씩.)

103021 @ 그거를 방수 벌인덴 헤? 방수는 뭐우꽈?(그거를 '방수' 벌인다고 해? '방수'는 뭡니까?)

103021 #1 방수는 이 제 방에 세우렌 말이여. 빈틈없이.('방수'는 이 제 방에 세우라는 말이야. 빈틈없이.)

103021 #2 쭉허게.(쭉하게.)

103021 #1 빈틈없이 세우렌 말이주.(빈틈없이 세우라는 말이지.)

103021 #2 두 개 부뜬 것도 없고.(두 개 붙은 것도 없고.)

103021 #1 두 개 부뜬 것도 없고. 이 사이가 어느 정도 비슷허게.(두 개 붙은 것도 없고. 이 사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103021 #2 너무 줄게도 말고.(너무 잘게도 말고.)

103021 #1 간격이 비슷허게 세우렌 허는 말이주. 방수 먹이는 거.(간격이 비슷하게 세우라고 하는 말이지. '방수' 먹이는 거.)

103021 @ 방수 먹이는 거예. 근데 그 방수가 손을 딱 주먹을 쥐면?('방수' 먹이는 거요. 근데 그 '방수'가 손을 딱 주먹을 쥐면?)

103021 #1 대개 영 허민 맞아.(대개 이렇게 하면 맞아.)

103021 @ 어, 주먹 정도로 헤서 하나씩예?(어, 주먹 정도로 해서 하나씩요?)

103021 #4 매번 주먹 줴는 건 아니고.(매번 주먹 쥐는 건 아니고.)

103021 #1 영 메어가가믄 알아져지주게.(이렇게 매어가가면 알아지지.)

103021 @ 예.(예.)

103021 #1 검질을 이 조 사이만 메니까 영 메여 가믄 알아져가주게.(김을 이 조 사이만 매니까 이렇게 매어 가면 알아져가지.)

103021 @ 검질멜 때는 손으로만 멥니까? 조 검질은?(김맬 때는 손으로만 맵니까? 조 김은?)

103021 #4 골게, 골게.(호미, 호미.)

103021 @ 골게로?(호미로?)

103021 #1 골겡이.(호미.)

103021 @ 골겡이로, 으음, 그렇게 하고. 싀불검질은 무신 검질메는 거?(호미로, 으음, 그렇게 하고. 세벌김은 무슨 김매는 거?)

103021 #2 싀불검질은 떨어진 거 메는 거.(세벌김은 떨어진 거 매는 거.)

103021 #1 떨어진 거 허곡. 혹시나 겨도 조도 잇당 두 개씩 부뜬 것도 잇주게. 그런 것도 하나씩 뽑아불곡.(떨어진 거 하고. 혹시나 그래도 조도 이따가 두 개씩 붙은 것도 있지. 그런 것도 하나씩 뽑아버리고.)

103021 @ 그거를 이제?(그거를 이제?)

103021 #1 세 번째는 막 쉬와.(세 번째는 매우 쉬워.)

103021 @ 아아, 게민 젤 어려운 게 두불검질이 제라헌 검질이다예.(아아, 그러면 젤 어려운 게 두벌김이 제대로 된 김이네요.)

103021 #1 제라헌 거지.(제대로 된 거지.)

103021 @ 삼춘, 다른 데 가서 조사헐 때 보난 조 날 때 맨 처음에 허민 한 잎 이렇게 나잖아예?(삼촌, 다른 데 가서 조사할 때 보니까 조 날 때 맨 처음에 하면 한 잎 이렇게 나잖아요?)

103021 #1 걸 작박[98].(걸 '작박'.)

103021 @ 작박이렌 골아?('작박'이라고 말해?)

103021 #1 처음 나오는 게 작박.(처음 나오는 게 '작박'.)

103021 @ 어, 작박이 뒈잖아예?(어, '작박'이 되잖아요?)

103021 #1 작박 뒈영 다음 나오는 게 작박에 침[99] 질럿저 허주.('작박' 되어서 다음 나오는 게 '작박'에 '침' 찔렀지 하지.)

103021 @ 어, 작박에 침 질럿덴 허잖아예. 침 질른 다음에 비 왕은에 그 침이 엇어불면은?(어, '작박'에 침 찔렀다고 하잖아요. 침 찌른 다음에 비 와서 그 침이 없어버리면?)

103021 #1 물 들엉 썩주게.(물이 들어서 썩지.)

103021 @ 썩지예?(썩지요?)

103021 #1 조가 죽어불어.(조가 죽어버려.)

103021 @ 죽어불곡. 게믄 그때는 고고리도 안 난덴 허멍예?(죽어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이삭도 안 난다고 하면서요?)

103021 #1 으.(으.)

103021 @ 게민 그거를.(그러면 그거를.)

103021 #1 이 작박.(이 '작박'.)

103021 #2 마구레기[100].('마구레기'.)

103021 #1 작박 뒌 때에 큰비 와도 이디 물 들어근에 조가 많이 썩어불어.('작박' 될 때에 큰비 와도 여기 물 들어서 조가 많이 썩어버려.)

103021 #2 쏙이 엇인 건 마구레기.(속이 없는 건 '마구레기'.)

103021 #1 그거 마구레기 뒈영 남뎅이가 커도 피도 아녀곡 아무 것도 아니.(그거 '마구레기' 되어서 줄기가 커도 피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아니.)

103021 @ 걸 마구레기.(걸 '마구레기'.)

103021 #1 으.(으.)

---

98) '작박'은 작은 바가지를 말한다. 표준어 '쪽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조의 잎이 '작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잎을 '작박'에 비유해서 붙인 명칭이다.

99) 여기에서 '침'은 조 잎의 모양이 침처럼 뾰족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침'은 '작박' 사이로 나온 뾰족한 잎을 가리킬 때 부르는 이름이다.

100) '마구레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어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귀마구레기'라고 하는 데서 유추할 수 있다.

103021 @ 으.(으.)

103021 #2 그런 건 다 뽑아벼사.(그런 건 다 뽑아버려야.)

103021 #1 뽑아불어.(뽑아버려.)

103021 @ 예. 게난 그 마구레기 다른 디 가도 귀마구리 이렇게도 얘기헌덴 헨게 여기는 마구레기.(예. 그러니까 그 '마구레기' 다른 데 가도 귀머거리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더니 여기는 '마구레기'.)

103021 #1 귀마구리나 마구리나 ᄀᆞ튼, 비슷헌 걸 테주.(귀머거리나 '마구리'나 같은, 비슷한 걸 테지.)

103021 @ 예, 그런 말도 싹 날 때도예, 이 족박처럼 이렇게 모양 허니까 족박이렌? 콩도 그런 식으로 헤영은에 일름 싹 나면 뭐렌 불릅니까?(예, 그런 말도 싹 날 때도요, 이 쪽박처럼 이렇게 모양 하니까 쪽박이라고? 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 싹 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103021 #2 아니, 콩은 무신 작박이여 무신 말은 안 불럿어.(아니, 콩은 무슨 작박이다 무슨 말은 안 불렀어.)

103021 #1 그런 게 엇주.(그런 게 없지.)

103021 #2 한 입 두 입.(한 잎 두 잎.)

103021 @ 으, 한 입 두 입 이런 식으로예? 그 산듸 ᄀᆞ튼 거는?(으, 한 잎 두 잎 이런 식으로요? 그 밭벼 같은 거는?)

103021 #1 산듸도 마찬가지고게.(밭벼도 마찬가지고.)

103021 @ 무사 경 유독 조만 경 ᄀᆞᆯ아신고예?(왜 그렇게 유독 조만 그렇게 말했을까요?)

103021 #1 조는 아 처음 나올 때 봐봐. 똑 작박 모냥으로 나오지 않으냐. 영 오그라져근에. 작박 ᄆᆞ녀 나오난 작박이옌 헷주.(조는 아 처음 나올 때 봐봐. 똑 쪽박 모양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오그라져서. '작박' 먼저 나오니까 '작박'이라고 했지.)

103021 @ 경허영 옆에예?(그렇게 해서 옆에요?)

103021 #1 그 다음은 뾰조록허게 나온 게 작박에 침 질럿젠 허주게.(그 다음은 뾰족하게 나온 게 '작박'에 침 찔렀다고 하지.)

103021 @ 어.(어.)

103021 #2 산뒨 아시에 못ᄀᆞ치 쪼짝허게 나오잖아.(밭벼는 애초에 못같이 뾰족하게 나오잖아.)

103023 #1 산뒤 아시에 그자 못으로 쫙허게 나오니깐.(밭벼 애초에 그저 못으로 쫙하게 나오니깐.)

103023 @ 그런 말 엇고예. 예, 예. 그 다음에 게믄 그 아까 조가 이제 유월절 전 삼 후 삼 이렇게 헷지예? 수확은 언제헤마씨?(그런 말 없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까 조가 이제 '유월절' 전 삼 후 삼 이렇게 했지요? 수확은 언제해요?)

103023 #1 수확은 상강일 뒈사주.(수확은 상강일 돼야지.)
103023 @ 상강?(상강?)
103023 #2 으.(으.)
103023 @ 게믄 그 수확허는 순서 혼 번 골아줘봅서.(그러면 그 수확하는 순서 한 번 말해줘 보십시오.)
103023 #1 조팟도, 조도 마찬가지라. 비어 놩.(조밭도, 조도 마찬가지야. 베어 놓아서.)
103023 @ 예.(예.)
103023 #1 호미로 강 비어 놩 물르민.(낫으로 가서 베어 놓아서 마르면.)
103023 @ 예.(예.)
103023 #1 무껑.(묶어서.)
103023 @ 음.(음.)
103023 #1 쉐로 집의 시꺼왕.(소로 집에 실어와서.)
103023 @ 음.(음.)
103023 #1 조 코고리 튿앙.(조 이삭 따서.)
103023 @ 음.(음.)
103023 #1 그거 마당에 놩 도께로 두드리주.(그거 마당에 놓아서 도리깨로 두들기지.)
103023 @ 예, 근데 여기는 무끌 때 아까는 보리는 보리로 무껏잖우꽈? 이거는 뭘로 무꺼?(예, 근데 여기는 묶을 때 아까는 보리는 보리로 묶었잖습니까? 이거는 무엇으로 묶어?)
103023 #1 조도 걸로 무꺼져.(조도 걸로 묶어져.)
103023 #2 조남뎅이로 무꺼져.(조대로 묶어져.)
103023 #1 걸로 무꺼.(걸로 묶어.)
103023 @2 아.(아.)
103023 @ 조남뎅이로 무꺼져마씨?(조대로 묶어져요?)
103023 #1 걸로 무꺼져.(걸로 묶어져.)
103023 #2 조남뎅이로.(조대로.)
103023 @ 아, 남뎅이가 쎄진 않구나.(아, 줄기가 세진 않구나.)
103023 #1 으.(으.)
103023 #4 고고리 꼬부리민 무꺼지주게.(이삭 꼬부리면 묶어지지.)
103023 #2 조남뎅이도.(조대도.)
103023 #1 이것도 고고리 쪽으로 영 혼 줌 심엉 영 꼬부려 놩 탁허게 갈랑 무끄민.(이것도 이삭 쪽으로 이렇게 한 줌 잡아서 이렇게 꼬부려 놓아서 탁하게 나눠서 묶으면.)
103023 #2 보리 무끄는 식으로 무끄민 뒈여.(보리 묶는 식으로 묶으면 되어.)
103023 #1 보리 무끄는 식으로.(보리 묶는 식으로.)

103023 @ 게난 별도로 뭐 저기 새로 허거나 께 멘들지는 안허는구나.(그러니까 별도로 뭐 저기 띠로 하거나 매끼 만들지는 안하는구나.)

103023 #1 께 멘들앙 무끄는 게 잇어.(매끼 만들어서 묶는 게 있어.)

103023 @ 뭐?(뭐?)

103023 #2 ᄆᆞ믈.(메밀.)

103023 @ 아, ᄆᆞ멀은 께 멘들앙.(아, 메밀은 매끼 만들어서.)

103023 #1 ᄆᆞ믈은 걸 께 안 만들엉은 방법이 없주.(메밀은 걸 매끼 안 만들어서는 방법이 없지.)

103023 @ 아, 조나 저기는 하고예? 예.(아, 조나 저기는 하고요? 예.)

103023 #2 ᄆᆞ믈, 콩.(메밀, 콩.)

103023 #1 ᄆᆞ믈, 콩.(메밀, 콩.)

103023 @ 콩도 그렇고.(콩도 그렇고.)

103023 #1 ᄆᆞ믈, 콩.(메밀, 콩.)

103024 @ 그 다음에 그 마당질허는 건 어떵 헤?(그 다음에 그 마당질하는 건 어떻게 해?)

103024 #1 어떵 헤. 이디 왕 마당에 놩 도께로 두드리주.(어떻게 해. 여기 와서 마당에 놔서 도리깨로 두들기지.)

103024 @ 도께로 헤갖고. 어, 게믄 도께로 헌 다음에 도께로만 허민 끗나?(도리깨로 해갖고. 어, 그러면 도리깨로 한 다음에 도리깨로만 하면 끝나?)

103024 #1 아 도께로 털멍 자꾸 밑에 건 털어진 거 저쪽디레 밀려뒁 또.(아 도리깨로 떨면서 자꾸 밑에 건 떨어진 거 저쪽으로 밀어두고 또.)

103024 #2 안 털어진 건.(안 떨어진 건.)

103024 #1 덜 털어진 건 또 놩 두드리곡 또 놩 두드리곡 멧 번을 두드렴주. 게난 경 혼 번만.(덜 떨어진 건 또 놔서 두들기고 또 놔서 두들기고 몇 번을 두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103024 #2 떨어진 건 대체로 쳥.(떨어진 건 대체로 쳐서.)

103024 @ 예.(예.)

103024 #1 대체로 영 치곡.(대체로 이렇게 치고.)

103024 #2 경헤사 잘 불려진다고.(그렇게 해야 잘 불려진다고.)

103024 #1 영 털어가민 저펜이선 여저덜 앚앙 대체 허영 영 쳐근에 그 조팡울 영 또 치곡.(이렇게 떨어가면 저편에선 여자들 앉아서 대체로 해서 이렇게 쳐서 그 조알 이렇게 또 치고.)

103024 @ 음.(음.)

103024 #1 안 털어진 건 이쪽으로 밀령 또 두드리곡 경.(안 떨어진 건 이쪽으로 밀어서 또 두들기고 그렇게.)

103024 @ 음.(음.)

103024 #2 아지방[101]은 남자난 아니만 헤나ᄀᆞ렌 헴젠 헷주. 남자도 헷주.('아지

방'은 남자니깐 아니만 했었다고 하고 있다고 했지. 남자도 했지.)

103024 #4 아아.(아아.)

103024 @ 그 다음에.(그 다음에.)

103024 #1 나가 마당질을 오죽 헷수가?(내가 마당질을 오죽 했습니까?)

103024 @ (웃음.)

103024 #1 아, 진짜.(아, 진짜.)

103024 #2 게난 여자들신디레만 밀리지 마라게.(그러니까 여자들한테로만 밀리지 마라.)

103024 @ 마당질 하영 헷지양?(마당질 많이 했지요?)

103024 #4 아지방은 일 아니헤낫어양?('아지방'은 일 아니했었지요?)

103024 #1 일 아니헌 건, 일 아니 헤본 일은 엇고.(일 아니한 건, 일 아니 해본 일은 없고.)

103024 #4 아지바님[102]은 일 아니 헤낫수게예?('아지바님'은 일 아니 했었지요?)

103024 #1 아녀 봣주, 우리 형님.(안 해 봤지, 우리 형님.)

103024 #4 아지바님은 일 안 헨.('아지바님'은 일 안 했어.)

103024 #1 형님은 학교 허단 그냥 해병대 지원헹 가부난.(형님은 학교 하다가 그냥 해병대 지원해서 가버리니까.)

103024 @ 음.(음.)

103024 #4 해병대 지원헹 가불고 선생 가부난.(해병대 지원해서 가버리고 선생 가버리니까.)

103024 #1 학교 선생으로 살단 게메 해병대로 지원헨 가부난.(학교 선생으로 살다가 글쎄 해병대로 지원해서 가버리니까.)

103024 @ 으, 그 다음에 이제 덩드렁마께로 이렇게 저기.(으, 그 다음에 이제 '덩드렁마께'로 이렇게 저기.)

103024 #1 거 산듸찍. 산듸찍 두드리고.(거 밭볏짚. 밭볏짚 두들기고.)

103024 @ 아아, 조헐 때는 안 허여?(아아, 조할 때는 안 해?)

103024 #2 조칵메기도 ᄒᆞ꼼헌 건 마께로 두드령 털어낫주.('조칵메기'도 조금한 건 방망이로 두들겨서 떨었었지.)

103024 #1 그건 그자 ᄒᆞ꼼 남은 거 무신거.(그건 그저 조금 남은 거 무엇.)

103024 #2 건 하지 안헌 거. 도께 못 부찔 거는.(건 많지 않은 거. 도리깨 못 붙일 거는.)

103024 @ 도께도.(도리깨도.)

103024 #1 도께도 봉 찍엉 가켄 허민 베와주커라.(도리깨도 봐서 찍어서 가겠다고 하면 보여주겠어.)

---

101) '아지방'은 여자가 자기 아우의 남편이나 동기 이외의 손아래 남자, 또는 남편의 아우를 부르는 말이다.
102) '아지바님'은 여자가 자기 언니의 남편이나 동기 이외의 손위의 남자, 또는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이다.

103024 @ 예. 찍을 거 핫수다.(예. 찍을 거 많습니다.)
103024 #1 겐디.(그런데.)
103024 #2 골아ᄃᆞ렌 허는 것만 골아게.(말해달라고 하는 것만 말해.)
103024 #4 아아. (웃음.)(아아. (웃음.))
103024 #2 것도 다 못 골앙 허는디.(것도 다 못 말해서 하는데.)
103025 @ 좁쏠, 좁쏠 장만[103]은 어떵 헷수가?(좁쌀, 좁쌀 '장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025 #1 좁쏠은 ᄀᆞ레에서 골주.(좁쌀은 맷돌에서 갈지.)
103025 @ ᄀᆞ레에서. 물ᄀᆞ량에 강은에.(맷돌에서. 연자매에 가서.)
103025 #1 물고량에 강 두 번만 골민 조는 뒈여.(연자매에 가서 두 번만 갈면 조는 되어.)
103025 @ 아, 거는 껍질이.(아, 거는 껍질이.)
103025 #1 약허주.(약하지.)
103026 @ 으음. 그 다음에 이제 좁쏠로는 보통 어떤 것덜 헤 먹어신고예?(으음. 그 다음에 이제 좁쌀로는 보통 어떤 것들 해 먹었는가요?)
103026 #1 좁썰은?(좁쌀은?)
103026 @ 으.(으.)
103026 #1 조팝헹 먹곡.(조밥해서 먹고.)
103026 #2 떡헹 먹곡.(떡해서 먹고.)
103026 #1 떡헹 먹곡.(떡해서 먹고.)
103026 @ 음, 거 두 개 끗?(음, 거 두 개 끝?)
103026 #1 그거주, 무신.(그거지, 무슨.)
103026 #4 아, 안 골읍디가게. 여름엔 보리밥만 먹곡.(아, 안 말합디까. 여름엔 보리밥만 먹고.)
103026 @ 으.(으.)
103026 #4 겨울엔 조팝만 먹곡.(겨울엔 조밥만 먹고.)
103026 @ 조팝헤영은에 조로 헹은에 이제.(조밥해서 조로 해서 이제.)
103026 #2 좁썰로만 밥허곡.(좁쌀로만 밥하고.)
103026 @ 술도 허고.(술도 하고.)
103026 #1 술은.(술은.)
103026 #2 술은 저 차좁썰 헤사. 흐린좁쏠 헤사.(술은 저 차좁쌀 해야. 차좁쌀 해야.)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대국조[104]엔 헌 게 잇어. 또.('대국조'라고 한 게 있어. 또.)
103026 #2 술은 매집이 술 담앗어? 술 담앙 먹는 디가 따로 잇주. 부제칩이.(술

103) 여기에서 '장만'은 '곡식의 이삭을 떠는 일'을 말한다.
104) '대국조'는 조의 일종이다. '대국'은 제주에서 '중국(中國)'을 일컫을 때 사용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조의 일종이 아닌가한다.

은 매집에 술 담갔어? 술 담가서 먹는 데가 따로 있지. 부잣집에.)

103026 @ 좁썰 종류는 어떤 거 잇엇수가? 옛날에.(좁쌀 종류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옛날에.)

103026 #2 좁쏠 종륜게, 우리 밥헹 먹는 모힌좁쏠.(좁쌀 종륜, 우리 밥해서 먹는 메좁쌀.)

103026 @ 예.(예.)

103026 #2 옛날 대국조엔 허연 흐린조.(옛날 '대국조'라고 해서 차조.)

103026 @ 으.(으.)

103026 #2 그것벳긔 더 잇어?(그것밖에 더 있어?)

103026 #1 ᄀᆞ랑좁쏠[105].('ᄀᆞ랑좁쏠'.)

103026 #2 ᄀᆞ랑좁쏠.('ᄀᆞ랑좁쏠'.)

103026 @ 예. ᄀᆞ랑좁쏠.(예. 'ᄀᆞ랑좁쏠'.)

103026 #2 ᄀᆞ랑좁쏠은 또 피쏠 닮은 거라. 헤영허고. 조론 조라도.('ᄀᆞ랑좁쏠'은 또 핍쌀 같은 거야. 하얗고. 조론 조라도.)

103026 @ 조론 조라도.(조론 조라도.)

103026 #2 건 막 허기가 힘들어.(건 매우 하기가 힘들어.)

103026 @ 게믄 이제 흐린좁쏠은 어떤?(그러면 이제 차좁쌀은 어떤?)

103026 #2 흐린좁쏠은 보리쏠에 놩 헤도 밥이 찰찰 흐리곡.(차좁쌀은 보리쌀에 넣어서 해도 밥이 찰찰 차지고.)

103026 @ 예.(예.)

103026 #1 이 차좁쏠 모힌좁쏠은 케삭헌[106] 거 대개 우리 먹는 거는 모인좁쏠을 하영 먹어.(이 차좁쌀 메좁쌀 '케삭헌' 거 대개 우리 먹는 거는 메좁쌀을 많이 먹어.)

103026 @ 아, 여기선 모힌좁쏠을 하영 먹엇수가? 흐린좁쏠이 아니고.(아, 여기선 메좁쌀을 많이 먹었습니까? 차좁쌀이 아니고.)

103026 #1 히린좁썰이 이 밥 분량이 언만 안 뒈주.(차좁쌀이 이 밥 분량이 얼마 안 되지.)

103026 #2 흐린좁썰은 밧도 골령 좋은 밧듸나 허주. 궂인 밧딘 안 뒈여.(차좁쌀은 밭도 가려서 좋은 밭에나 하지. 궂은 밭에는 안 되어.)

103026 #1 아무 밧듸나 뒈도 아녀곡.(아무 밭이나 되지도 않고.)

103026 @ 아아.(아아.)

103026 #2 게난 그 저 모인좁쏠은 아무 밧듸나 뒈도 흐린좁쏠 완전 좋은 밧 아니믄 뒈지 안 허여.(그러니까 그 저 메좁쌀은 아무 밭에나 돼도 차좁쌀 완전 좋은 밭 아니면 되지 안 해.)

103026 @ 다른 지역 가면은 보통 밥은 흐린좁쏠로 헹은에 먹엇덴 허거든예. 보

105) 'ᄀᆞ랑좁쏠'은 조의 일종이다. 알이 자잘한 게 특징이다.
106) '케삭헌'은 '풀기가 없어 좁쌀알이 떨어질 정도로 메진'의 의미다.

리에 서끄든 뭐허든. 여기는 땅이 안 좋으니까 모인좁쌀을 이제 밥을 하영 헤영 먹은 거네.(다른 지역 가면은 보통 밥은 차좁쌀로 해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보리에 섞든 뭐하든. 여기는 땅이 안 좋으니까 메좁쌀을 이제 밥을 많이 해서 먹은 거네.)

103026 #2 모인존 많이 가니 그걸로만 양석헷어.(메존 많이 가니 그걸로만 양식했어.)

103026 #1 그걸 주로 농사를 그걸로 주로 허니까.(그걸 주로 농사를 그걸로 주로 하니까.)

103026 @ 예.(예.)

103026 #4 밥이 하니까 그거는.(밥이 많으니까 그거는.)

103026 #2 흐린좁쌀은 밧을 나무렁 아무 밧듸나 안 뒌다고.(차좁쌀은 밭을 나무래서 아무 밭에나 안 된다고.)

103026 #1 이 가름 쪽에 막 가름팟[107] 일 토지나 아녀면은 갈아 봐도 뒈질 아녀.(이 마을 쪽에 막 '가름팟' 일 토지나 않으면 갈아 봐도 되질 않아.)

103026 @ 예에, 게믄 흐린좁쌀 용도는 주로 뭘 헌 거라마씨? 여기서.(예에, 그러면 차좁쌀 용도는 주로 뭘 한 거예요? 여기서.)

103026 #1 흐린좁쌀은 이따 곤썰에 서꺼근에 곤밥 먹는 그런 디 서끄곡, 흐린좁쌀은 보리쌀에라도 놓민 밥이 맛이 좋곡. 경 아녀민 모힌좁쌀 서껑은 까락까락헤영은에게.(차좁쌀은 이따 흰쌀에 섞어서 흰밥 먹는 그런 데 섞고, 차좁쌀은 보리쌀에라도 넣으면 밥이 맛이 좋고. 그렇게 않으면 메좁쌀 섞어서는 까끌까끌해서.)

103026 #1 살락[108]허고.('살락'하고.)

103026 #2 살락허영.('살락'해서.)

103026 @ 삼춘네 살락헌 밥만 먹언 살안?(삼촌네 까끌까끌한 밥만 먹어서 살았어요?)

103026 #1 게난 크지 못허연.(그러니까 크지 못했어.)

103026 #2 흐린좁쌀은 밧이 좋지 아녀난 많이 갈질 못허주게.(차좁쌀은 밭이 좋지 않으니까 많이 갈질 못하지.)

103026 @ 게난 살락헌 밥만 이제 하영 먹은 거라예.(그러니까 '살락'한 밥만 이제 많이 먹은 거네요.)

103026 #2 우린 살락헌 밥 먹엉 살앗어.(우린 '살락'한 밥 먹어서 살았어.)

103026 @ 게난마씨. (웃음). 게난 그 살락헌 밥에 허젠 허면 감저도 ᄀᆞ치 놩 영 먹고.(그러게요. (웃음). 그러니까 그 '살락'한 밥에 하려고 하면 고구마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고.)

103026 #2 감저 썰어 놓곡 보리쌀 놓곡.(고구마 썰어 넣고 보리쌀 넣고.)

103026 @ 어.(어.)

103026 #1 건 식량 불르젠 허는 거주게.(건 식량 붇게 하는 거지.)

---

107) '가름팟'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이다. 보통 마을 안에 있는 밭은 토질이 좋아 농사가 잘 된다. '가름'은 마을, '팟'은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8) '살락허고'는 '풀기가 없어서 까끌까끌하고'의 의미다.

103026 @ 예 식량예.(예 식량이요.)

103026 #1 감저 놓고 무신거 놓고.(고구마 넣고 무엇 넣고.)

103026 @ 예전에?(예전에?)

103026 #2 아이고, 조팝 살락헌 조팝도 사름마다 잘 못 먹엇수다게.(아이고, 조밥 '살락'한 조밥도 사람마다 잘 못 먹었습니다.)

103026 @ 음.(음.)

103026 #2 신 사름덜 먹엇주. 엇인 사름 좁썰도 엇언 못 먹엇어. 그자 감저나 혼 방울[빵울][109] 놓곡 헤영덜.(있는 사람들 먹었지. 없는 사람 좁쌀도 없어서 못 먹었어. 그저 고구마나 조금 넣고 해서들.)

103026 @ 음, 기구나예? 게믄 이제 그 감주ᄀᆞ튼 거.(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감주같은 거.)

103026 #1 감, 감주는 그.(감, 감주는 그.)

103026 #2 흐린좁쏠로 헤사.(차좁쌀로 해야.)

103026 #1 흐린좁썰로 허여.(차좁쌀로 해.)

103026 @ 아, 감주는 흐린좁썰하고. 떡도 흐린좁썰로 헤야 뒈는 거.(아, 감주는 차좁쌀하고. 떡도 차좁쌀로 해야 되는 거.)

103026 #2 떡헐 때도 모힌좁썰도 하영 헤엿주만은 흐린좁썰.(떡할 때도 메좁쌀도 많이 했었지만은 차좁쌀.)

103026 #1 많이 허주.(많이 하지.)

103026 #2 반착 부쪙.(반쪽 붙여서.)

103026 @ 예.(예.)

103026 #1 반반.(반반.)

103026 #2 모힌좁썰에 반착 부쪙.(차좁쌀에 반쪽 붙여서.)

103026 #1 반반.(반반.)

103026 @ 아.(아.)

103026 #2 한쪽은 모힌조.(한쪽은 메조.)

103026 #1 모힌조 혼짝은 히린좁쏠 헤근에 반반.(메조 한쪽은 차좁쌀 해서 반반.)

103026 #2 한쪽인 히린조라도 반반 부쪈에 경헨 헤난.(한쪽엔 차조라도 반반 붙여서 그렇게 해서 했었어.)

103026 #1 경헹 떡을 헤낫주게.(그렇게 해서 떡을 했었지.)

103026 @ 삼춘, 그렇게 반반 부찐 떡은 무신 떡 헤여?(삼촌, 그렇게 반반 붙인 떡은 무슨 떡 해?)

103026 #2 친떡[110].('찐떡'.)

103026 #1 친.(찐.)

---

109) '혼 방울[혼 빵울]'은 '아주 조금'의 의미다.

110) '친떡'은 '찐떡'이라는 의미로, '시루떡'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103026 @ 친.(찐.)

103026 #2 아 무신거엔 골아나시니?(아 무엇이라고 말했었니?)

103026 #4 거 친떡 아니우과?(거 시루떡 아닙니까?)

103026 #2 친떡인디이.(시루떡인데.)

103026 @ 으.(으.)

103026 #2 알착 우착 흐린 거 좁썰 우에 부찐 거.(아래쪽 위쪽 차진 거 좁쌀 위에 붙인 거.)

103026 #1 뭐엔사 골아나신디 모르고.(뭐라고야 말했었는지 모르고.)

103026 #2 친떡엔만 골으난.(시루떡이라고만 말하니까.)

103026 @ 고달 부찐 거?('고달' 붙인 거?)

103026 #2 고달[111] 춤. 어떵 잘 셍각헴시니. 아 고달 맞다.('고달' 참. 어떻게 잘 생각하고 있니. 아 '고달' 맞다.)

103026 #1 문 알앙 뎅기면서 시방 들엄수다.(몽땅 알아서 다니면서 시방 듣고 있습니다.)

103026 #2 고달 맞다.('고달' 맞다.)

103026 @ 게난 그런 걸 고달, 징 부찐덴도 허고예? 고달 부찐 떡예.(그러니까 그런 걸 '고달', '징' 붙인다고도 하고요? '고달' 붙인 떡이요.)

103026 #1 고달 돌암젠 헤여근에 허주게.('고달' 달고 있다고 해서 하지.)

103026 #2 고달 ᄃᆞ는 거.('고달' 다는 거.)

103026 @ 고달 ᄃᆞ는 거예. 아, 이 성읍은 옛날 조 해도 다 모힌좁쏠이엇구나.('고달' 다는 거요. 아, 이 성읍은 옛날 조 해도 다 메좁쌀이었구나.)

103026 #2 모인좁썰이고 산딜 헤도.(메좁쌀이고 밭벼를 해도.)

103026 @ 예. 옛날 저 무시거니? 저 무신 그 목장에 가는 산듸.(예. 옛날 저 무엇이니? 저 무슨 그 목장에 가는 밭벼.)

103026 #4 산듸가 세 가지우다.(밭벼가 세 가지입니다.)

103026 @ 예.(예.)

103026 #2 흐린산듸 잇고 모인산듸 잇고 가마귀산듸엔 헤시냐?(찰밭벼 있고 모메밭벼 있고 '가마귀산듸'라고 했니?)

103026 #4 예, 갈산듸[112].(예, '갈산듸'.)

103026 #2 갈산듸.('갈산듸'.)

103026 @ 아.(아.)

103026 #2 그거는.(그거는.)

103026 #4 갈산듸 잇고. 세앙비[113]는 좋은 거.('갈산듸' 있고. '세앙비'는 좋은 거.)

---

111) '고달'은 볏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메좁쌀가루 위에 차좁쌀가루를 얹거나, 좁쌀가루 위에 멥쌀가루를 얹은 것을 '볏'에 비유해서 쓴 표현이다.

112) '갈산듸'는 밭벼의 일종으로, 색깔이 조금 거무스레한 밭벼다.

113) '세앙비'는 밭벼의 일종이다. 밭벼 가운데 품종이 좋은 종류로, 좁쌀 색깔이 노란 게 특징이다.

103026 #2 그거는 막 모인 거.(그거는 매우 메진 거.)
103026 @ 으.(으.)
103026 #4 녹산듸[114]는 두 번차.('녹산듸'는 두 번째.)
103026 @ 으.(으.)
103026 #2 세앙비엔 헌 산듸는.('세앙비'라고 한 밭벼는.)
103026 #4 젤 좋은 거.(젤 좋은 거.)
103026 #2 찹쏠 닮은 산듼 좋은 거.(찹쌀 같은 밭벼는 좋은 거.)
103026 @ 세 가지? 삼춘 다시 한 번 세 가지를 다시 한 번만 골아줘봅서. 처음엔 젤 좋은 건 무슨거?(세 가지? 삼촌 다시 한 번 세 가지를 다시 한 번만 말해 줘 보십시오. 처음엔 젤 좋은 건 무엇?)
103026 #4 제 좋은 건 세앙비.(제 좋은 건 '세앙비'.)
103026 #2 세앙비.('세앙비'.)
103026 @ 세앙비?('세앙비'?)
103026 #2 두 번채는 녹산듸.(두 번째는 '녹산듸'.)
103026 @ 녹산듸?('녹산듸'?)
103026 #4 으.(으.)
103026 @ 예.(예.)
103026 #2 또 세 번째는 갈산듸.(또 세 번째는 '갈산듸'.)
103026 #2 갈산듸.('갈산듸'.)
103026 #4 갈산듸. 젤 궂인 거.('갈산듸'. 젤 궂은 거.)
103026 @ 그럼예, 다음에 세앙비?(그럼요, 다음에 '세앙비'?)
103026 #2 세앙비가 젤 나록쏠 닮은 거 좋은 거.('세앙비'가 젤 볍쌀 같은 거 좋은 거.)
103026 @ 이거는 어떤 식으로 쏠이 어떤 거?(이거는 어떤 식으로 쌀이 어떤 거?)
103026 #2 것도 밧 좋은 디 가는 거.(것도 밭 좋은 데 가는 거.)
103026 #4 밧 좋은 디 갈아사.(밭 좋은 데 갈아야.)
103026 @ 밧 좋은 디 갈곡? 쏠은?(밭 좋은 데 갈고? 쌀은?)
103026 #2 쏠은 막 좋아.(쌀은 매우 좋아.)
103026 #4 쏠도 좋곡.(쌀도 좋고.)
103026 @ 어떻게 좋은 거?(어떻게 좋은 거?)
103026 #4 흐려.(차져.)
103026 @ 아, 흐려? 걸 세앙비렌 헤예.(아, 차져? 걸 '세앙비'라고 한다고요.)
103026 #4 쏠도 곱고.(쌀도 곱고.)
103026 @ 산듸 이파리나 이런 것도 ᄐᆞ나.(밭벼 이파리나 이런 것도 달라.)

114) '녹산듸'는 밭벼의 일종이다. 구술자는 '세앙비'보다는 품질이 떨어져도 '갈산듸'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03026 #2 똑ᄀᆞ타.(똑같아.)
103026 @ 아, 그건 ᄀᆞ튼디.(아, 그건 같은데.)
103026 #2 이파리는 다 ᄀᆞ튼디.(이파리는 다 같은데.)
103026 #4 색깔이 틀려, 껍데기가.(색깔이 달라, 껍데기가.)
103026 @ 아, 껍데긴 어떤 색깔이우과? 세앙비는?(아, 껍데긴 어떤 색깔입니까? '세앙비'는?)
103026 #2 갈산듸엔 헌 건 거멍허고.('갈산듸'라고 한 건 거멓고.)
103026 @ 예.(예.)
103026 #2 세앙비엔 헌 건 노랑허곡.('세앙비'라고 한 건 노랗고.)
103026 @ 예.(예.)
103026 #2 아, 춤, 저 갈산듸가 노랑허곡.(아, 참, 저 '갈산듸'가 노랗고.)
103026 @ 으.(으.)
103026 #2 세앙빈 완전히 노랑 완전 곱닥[115].('세앙비'는 완전히 노랑 완전 '곱닥'.)
103026 @ 으. 녹산듸?(으. '녹산듸'?)
103026 #4 녹산듸가 노리주. 녹산듸가 노려.('녹산듸'가 노랗지. '녹산듸'가 노래.)
103026 @ 것도 노리곡. 다 노랑허덴 헤믄 어떵 구분허지?(것도 노랗고. 다 노랗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하지?)
103026 #4 아니게, 껌주게. 막끗딘 건.(아니, 꺼멓지. 마지막 건.)
103026 @ 갈산듸는 막 꺼멍허곡. 삼춘 아까 서꺼부난.('갈산듸'는 매우 꺼멓고. 삼촌, 아까 섞어버리니까.)
103026 #2 갈산듼, 갈산듼 막 곶인 밧듸 가는 거. 피 가는 디 가는 거.('갈산듸'는, '갈산듸'는 막 곶은 밭에 가는 거. 피 가는 데 가는 거.)
103026 @ 아, 갈산듸는 꺼멍헌 디 갈고. 젤 이 가름팟듸 허는 거는?(아, '갈산듸'는 꺼먼 데 갈고. 젤 이 '가름팟'에 하는 거는?)
103026 #4 세앙비.('세앙비'.)
103026 #2 세앙비.('세앙비'.)
103026 @ 세앙비. 녹산듸는 어떤 거?('세앙비'. '녹산듸'는 어떤 거?)
103026 #4 녹산듸는 ᄒᆞ꼼 노려이.('녹산듸'는 조금 노래.)
103026 #4 것도 세앙비 가는 디 갈곡 아무 디 갈아도 뒈는 거.(것도 '세앙비' 가는 데 갈고 아무 데 갈아도 되는 거.)
103026 @ 아아, 게영 그거를.(아아, 그래서 그거를.)
103026 #2 종류만 틀려.(종류만 달라.)
103026 #4 쏠도 ᄒᆞ꼼 줄곡게.(쌀도 조금 잘고.)
103026 @ 아아. 녹.(아아. 녹.)

115) '곱닥'은 고운 모습을 나타내는 '곱닥허다'의 어근이다.

103026 #4 녹산듸가 쏠이 ᄒᆞ꼼 졸아.(‘녹산듸’가 쌀이 조금 잘아.)
103026 @ 녹산듸는 ᄒᆞ꼼.(‘녹산듸’는 조금.)
103026 #4 방울이.(알이.)
103026 @ 아, 방울이 졸고. 게믄 그 세앙비는 방울도 홁고.(아, 알이 잘고. 그러면 그 ‘세앙비’는 알도 굵고.)
103026 #4 훅고 곱고.(굵고 곱고.)
103026 @ 아, 곱고예?(아, 곱고요?)
103026 @2 세앙비?(‘세앙비’?)
103026 @ 예, 세앙비.(예, ‘세앙비’.)
103026 #2 것도 조거찌.(것도 조같이.)
103026 @ 세앙비.(‘세앙비’.)
103026 #2 밧을 나무려근에 건 ᄒᆞᆫ 가지만 허는 거.(밭을 나무래서 건 한 가지만 하는 거.)
103026 @ 세앙비.(‘세앙비’.)
103026 #4 세앙비가 좋은 거.(‘세앙비’가 좋은 거.)
103026 @ 두 번째 거는?(두 번째 거는?)
103026 #4 녹산듸.(‘녹산듸’.)
103026 @ 녹산듸.(‘녹산듸’.)
103026 #4 갈산듸.(‘갈산듸’.)
103026 @ 갈산듸예. 예. 오늘 수확입니다.(‘갈산듸’요. 예. 오늘 수확입니다.)
103026 @2 으.(으.)
103026 #1 석상베[116]도 잇어낫주, 무사.(‘석상베’도 있었었지, 왜.)
103026 @ 아, 석상베는 뭐우과?(아, ‘석상베’는 뭡니까?)
103026 #2 석상베는 완전히.(‘석상베’는 완전히.)
103026 #1 석방베는 ᄀᆞ시락 엇인 거.(‘석방베’는 까끄라기 없는 거.)
103026 @ 예?(예?)
103026 #1 석상베엔 헌 건.(‘석상베’라고 한 건.)
103026 #2 완전 흐린 거.(완전 차진 거.)
103026 @ 흐린 거, 거는, 것도 산듸?(차진 거, 거는, 것도 밭벼?)
103026 #2 산듸.(밭벼.)
103026 #1 산듼디 막 흐려.(밭변데 매우 차져.)
103026 @ 아, 석상베도.(아, ‘석상베’도.)
103026 #1 그건 그건 ᄀᆞ스락이 없어.(그건 그건 까끄라기가 없어.)
103026 #4 찹쏠엔 허는 거 아니우과? 건.(찹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
103026 #2 겐디 그건 잘 안 갈아.(그런데 그건 잘 안 갈아.)
103026 #4 잘 안 갈아.(잘 안 갈아.)

116) ‘석상베’는 찰기가 있는 밭벼의 하나다. 제보자 송순원은 ‘석상베’는 밭벼 끝에 까끄라기가 없다고 구술했다.

103026 #1 그건 식량용으로는 잘 안 갈아.(그건 식량용으로는 잘 안 갈아.)

103026 @ 아, 게민 석상베는 찰, 차진 거구나.(아, 그러면 '석상베'는 찰, 차진 거구나.)

103026 #4 춥쏠.(찹쌀.)

103026 @ 춥쏠. 춤쏠예.(찹쌀. 찹쌀요.)

103026 #2 잘 안 갈아.(잘 안 갈아.)

103026 #1 종류가 그것ᄀᆞ찌 잇어낫주. 네 개.(종류가 그것까지 있었었지. 네 개.)

103027 @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삼춘 왓으니까 그 다음에 조찍은 뭐 헷수가?(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삼촌 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짚은 뭐 했습니까?)

103027 #1 조찍은 쉐 줫주.(조짚은 소 줬지.)

103027 @ 쉐?(소?)

103027 #1 쉐도 주고 ᄆᆞᆯ도 주고.(소도 주고 말도 주고.)

103027 @ 아, 그거는 식량이구나. 으, ᄆᆞ쉬 식량예? 다른 걸론 안 써마씨?(아, 그거는 식량이구나. 으, 마소 식량요? 다른 걸론 안 써요?)

103027 #1 다른 걸론 무신거 별로 쓸 거 잇어?(다른 걸론 무엇 별로 쓸 거 있어?)

103027 @ 어.(어.)

103027 #2 쉐 주당 쉐 먹당 남은 거는 쉐 또꼬냥에 걸름 우의 꿀앗다근에 그거 그자 돗통에 시, 갖다놩 걸름 주곡.(소 주다가 소 먹다가 남은 거는 소 꽁무니에 거름 위에 깔았다가 그거 그저 돼지우리에 시, 갖다놔서 거름 주고.)

103027 @ 으, 그 쉐 먹당 남은 거 불르는 이름도 잇수가?(으, 그 소 먹다가 남은 거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까?)

103027 #1 건 쉐데치[117].(건 '쉐데치'.)

103027 @ 쉐데치.('쉐데치'.)

103027 #4 다 알암신게게.(다 알고 있는데.)

103027 @ ᄆᆞᆯ데치는 안 허여?('ᄆᆞᆯ데치'는 안 해?)

103027 #1 ᄆᆞᆯ 먹단 남은 건 ᄆᆞᆯ데치[118].(말 먹다가 남은 건 'ᄆᆞᆯ데치'.)

103027 #4 (웃음.)

103027 @ ᄆᆞᆯ데치렌. ᄆᆞᆯ도 먹당 넹깁니까?('ᄆᆞᆯ데치'라고. 말도 먹다가 남깁니까?)

103027 #1 아이고, 넹겨. ᄆᆞᆯ도.(아이고, 남겨. 말도.)

103027 @ 아, 그러우꽝?(아, 그렇습니까?)

103027 #1 어.(어.)

103027 @ 게도 ᄆᆞᆯ은 쉐보단 잘 먹는덴 *는데.(그래도 말은 소보단 잘 먹는다고 *는데.)

103027 #1 더 잘 먹긴 허주. ᄆᆞᆯ은 저 주로 골려낸 게 ᄀᆞ스락 저 고사리.(더 잘

117) '쉐데치'는 소가 먹다 남은 꼴의 찌꺼기를 말한다.
118) 'ᄆᆞᆯ데치'는 말이 먹다 남은 꼴의 찌꺼기를 말한다.

먹긴 하지. 말은 저 주로 가려낸 게 까끄라기 저 고사리.)
103027 @ 으.(으.)
103027 #1 고사리 많이 골려내곡.(고사리 많이 가려내고.)
103027 @ 다른 것덜은?(다른 것들은?)
103027 #1 다른 것들은 거의 잘 먹어.(다른 것들은 거의 잘 먹어.)
103027 @ 으.(으.)
103027 #1 물은.(말은.)
103027 @ 먹당 나머지를 데치렌 허는구나예?(먹다가 나머지를 '데치'라고 하는군요?)
103027 #2 쉐데치, 쉐데치.('쉐데치', '쉐데치'.)
103027 #1 물은, 물은 줌자는 시간이 별로 없어. 뒈새김이 없으니까.(말은, 말은 잠자는 시간이 별로 없어. 되새김이 없으니까.)
103027 @ 으음.(으음.)
103027 #1 소는 먹으면은 일단 뒈새김질 허젠 허민 누워서 뒈새김질허니까 오래 누워 잇는 거고.(소는 먹으면 일단 되새김질 하려고 하면 누워서 되새김질하니까 오래 누워 있는 거고.)
103027 @ 으음.(으음.)
103027 #1 물은 그자, 먹, 그자 잘 때도 누웡 자지 아녀. 영 사두람서 허주. 물은.(말은 그저, 먹, 그저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아. 이렇게 사두고서 하지. 말은.)
103027 @ 물은. 게도 요즘 물덜은 누웡 잡디다.(말은. 그래도 요즘 말들은 누워서 자대요.)
103027 #1 그 봄에, 봄에, 이른 봄에.(그 봄에, 봄에, 이른 봄에.)
103027 @ 아아.(아아.)
103027 #1 이 여름에 안 눠.(이 여름에 안 눠.)
103027 #2 옛날엔 물도 눠 가민 벵 걸렷젠 헤나신디.(옛날엔 말도 누워 가면 병 걸렸다고 했었는데.)
103027 @2 게민 물이 죽는덴.(그러면 말이 죽는다고.)
103027 #2 벵 걸련 아팟젠 헤나신디.(병 걸려서 아팠다고 했었는데.)
103027 #1 이른 봄에 저 추웟당 둣아가민 뚯뚯혜가민 어디 들어강 ᄒᆞ꼼 눕긴 헤도.(이른 봄에 저 추웠다가 따뜻해가면 따뜻해가면 어디 들어가서 조금 눕긴 해도.)
103027 #2 요샛 물덜은.(요새 말들은.)
103027 #1 오래 안 눠.(오래 안 눠.)
103027 #2 밧듸 물덜도 문 눠선게.(밭에 말들도 몽땅 눴던데.)
103027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27 #1 요새 물덜은 물은 이제 다 정신 틀련마씨.(요새 말들은 말은 이제 다 정신 틀렸어요.)

103027 @ (웃음.)

103027 #1 아, 진짜.(아, 진짜.)

103027 @ 게난 옛날에는 ᄆᆞᆯ은 누우면 죽는다고.(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은 누우면 죽는다고.)

103027 #2 누우면 병 걸렸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누우면 병 걸렸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103027 @ 예.(예.)

103027 #1 ᄆᆞᆯ은 오래 눠가민 이상허덴 헤낫주.(말은 오래 눠가면 이상하다고 했었지.)

103027 @2 게난 몽골서는예, 집의 쉐도 잇고 ᄆᆞᆯ도 있으면 쉐를 먼저 보내예.(그러니까 몽골에서는요, 집에 소도 있고 말도 있으면 소를 먼저 보내요.)

103027 #2 나갈 때마씀?(나갈 때요?)

103027 @2 예.(예.)

103027 @2 풀 먹으멍 ᄆᆞᆫ저 보내면.(풀 먹으면서 먼저 보내면.)

103027 @ 느려부난?(느려버리니까?)

103027 @2 아니, 소의 경우는 잇몸으로 풀을 뜯어먹거든.(아니, 소의 경우는 잇몸으로 풀을 뜯어먹거든.)

103027 @ 으음.(으음.)

103027 #1 맞수다.(맞습니다.)

103027 @2 그러면 ᄆᆞᆯ은 가당 남은 걸 먹는 거라. 그 반대로 허면 쉐가 죽어마씨. 먹은 걸 엇엉. 말인 경우 이거 다 헤갖고 땅만 넹겨두고 다 먹거든마씨.(그러면 말은 가다가 남은 걸 먹는 거야. 그 반대로 하면 소가 죽어요. 먹을 거 없어서. 말인 경우 이거 다 해갖고 땅만 남겨두고 다 먹거든요.)

103027 #2 ᄆᆞᆯ은 ᄇᆞᆨᄇᆞᆨ 튿어먹으난.(말은 박박 뜯어먹으니까.)

103027 @2 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103027 #1 여기서는 이 집에 잇단 ᄆᆞᆯ이, ᄆᆞᆯ이 ᄆᆞ녀 나갑주게.(여기서는 이 집에 있던 말이, 말이 먼저 나갑지요.)

103027 @2 음.(음.)

103027 @ 음.(음.)

103027 #1 여기는 쳉명만 뒈면은 ᄆᆞᆯ은 나가는디 소는 쳉, 한 이십일 간 늦어마씀. 나가는 시간이.(여기는 청명만 되면 말은 나가는데 소는 청, 한 이십일 간 늦어요. 나가는 시간이.)

103027 #2 튿어먹을 게 엇어부난.(뜯어먹을 게 없어버리니까.)

103027 #1 풀이 덜 커부니까. ᄆᆞᆯ은 요만이만 허민 뜯으는디 소는 요 정돈 뒈야 뜯으니까.(풀이 덜 커버리니까. 말은 요만큼만 하면 뜯는데 소는 요 정돈 되어야 뜯으니까.)

103027 @ 혀로 이렇게 하니까.(혀로 이렇게 하니까.)

103027 @2 혀로 감앙 튿는 겁주게.(혀로 감아서 뜯는 겁지요.)

103028 @ 예, 삼춘, 조 농사허멍은에 기억에 남는 거? 추억거리?(예, 삼촌, 조 농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추억거리?)

103028 #1 무시거 잇어.(무엇 잇어.)

103028 @ 아까 밧 볼리레 강은에게 놈들은 일허는디 ᄀᆞ만이 앚앙은에?(아까 밭 밟으러 가서 남들은 일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103028 #1 ᄀᆞ만히 앉안 봄만 허주게.(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지.)

103028 @ (웃음.) 게도 힘들거나 헷던 그 추억담 하나 ᄀᆞᆯ아줘봅서.((웃음.) 그래도 힘들거나 했던 그 추억담 하나 말해줘 보십시오.)

103028 #1 추억담이 무신거 잇어.(추억담이 무엇 있어.)

103028 @2 (웃음.)

103028 @ 일을 안 혜부난. 아까 마당질도 하영 헷덴 허멍.(일을 안 해버리니까. 아까 마당질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103028 #1 마당질, 마당질도 마당질은 도께, 도께로만 두드렷주, 뭐.(마당질, 마당질도 마당질은 도리깨, 도리깨로만 두들겼지, 뭐.)

103028 #2 입으로 두드려게게.(입으로 두드려.)

103028 #4 (웃음.)

103028 @ 도께 헐 때도 맞아 노래도 부르멍 허는 거 아니예?(도리깨 할 때도 맞아 노래도 부르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103028 #2 ᄆᆞ쉬 올릴 때 ᄆᆞ쉬 올리는 소리도 잇고게.(마소 올릴 때 마소 올리는 소리도 있고.)

103028 @ 음.(음.)

103028 #1 밧 볼리는 소리나 허주.(밭 밟는 소리나 하지.)

103028 @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103028 #2 ᄆᆞ쉬 내모는 소리 허여. 밧 볼리는 소리 오래곡.(마소 내모는 소리 해. 밭 밟는 소리 오래고.)

103028 @ 음.(음.)

103028 #2 저레 내미는 소리.(저리 내모는 소리.)

103028 @ 으.(으.)

103028 #2 영주산[119]디레 올리는 소리.('영주산'으로 올리는 소리.)

103028 #1 어러러러 오오오오오우 어러려려 어허히 어려려 어려려 어려려히 이야동 에이 에이이이이 월월월 어러럴 유월절 전 삼 일 후 삼 일이 뒈민이야 좁씨가 박세기에서 달락달락 춤만 추는구나 오우 어러러 어러러 어 씨야둉 에이에이이이이이 월월월 하량 안목[120]이랑 들여 몰곡 밧목[121]이랑 자쳐 상 담에염 돌아갈 때 잘 볼려진다 오이 어러러 어러러 이야동 이이어허허 어허 월월 하량. 밧 그거민 혼 천

119) '영주산'은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20) '안목'은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밭머리를 돌 때의 안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121) '밧목'은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밭머리를 돌 때의 바깥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평은 불르켜.(어러러러 오오오오오우 어러려려 어허히 어려려 어려려 어려려히 이야동 에이 에이이이이 월월월 어러럴 '유월절' 전 삼 일 후 삼 일이 되면이야 좁씨가 바가지에서 달락달락 춤만 추는구나 오우 어러러 어러러 어 씨야둉 에이에이이이이이 월월월 하량 '안목'은 들이 몰고 '밧목'은 젖혀 서서 담가 돌아갈 때 잘 밟아진다 오이 어러러 어러러 이야동 이이어허허 어허 월월 하량. 밭 그거면 한 천 평은 밟겠다.)

103028 #2 그만 불령 혼저 저레 ᄆᆞ쉬 올려벼게. 몽셍이덜 배고팜쩌.(그만 밟아서 어서 저리로 마소 올려버려. 망아지들 배고프고 있다.)

103028 @2 아까 안목은 어디우과?(아까 '안목'은 어딥니까?)

103028 #1 안목은 이 저 사람이 그 선 상 물 이끈 사름 산 쪽이 안목이우다.('안목'은 이 저 사람이 그 선(先) 서서 말 이끈 사람 선 쪽이 '안목'입니다.)

103028 @2 으.(으.)

103028 #2 안트레 쑥 잘 불리라.(안으로 쑥 잘 밟아라.)

103028 #1 항상 이 담에염 가민 이쪽으로만 도니까 저쪽디레 물이 많이 가야 담염 돌아갈 때 불립주. 이쪽디레 물이 많이 와불민 저짝이 담에염이난 불려지질 안허여. 게난 이쪽은 디려 몰곡 저짝은 물을 좀 자치고.(항상 이 담가 가면 이쪽으로만 도니까 저쪽으로 말이 많이 가야 담가 돌아갈 때 밟지요. 이쪽으로 말이 많이 와버리면 저쪽이 담가니까 밟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쪽은 들이 몰고 저쪽은 말을 좀 젖히고.)

103028 @2 게믄 예를 들면 물이 여기 잇으면 선물 이끄는 사름 여기 섭니까?(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 여기 있으면 선말[先馬] 이끄는 사람 여기 섭니까?)

103028 #1 아니우다, 이짝에.(아닙니다, 이쪽에.)

103028 @2 이짝에.(이쪽에.)

103028 #1 예. 이짝에 상 허민 이짝에 사름은 이짝 선물 이끈 사름 다음은 이짝은 선물 이끈 사름허고 바짝 ᄀᆞ찌 들어사곡, 이짝은 쫌 떨어졍 사야 물이 이짝으로 삐여집주게.(예. 이쪽에 서서 하면 이쪽에 사람은 이쪽 선말 이끈 사람 다음은 이쪽은 선말 이끈 사람하고 바짝 같이 들어서고, 이쪽은 좀 떨어져서 서야 말이 이쪽으로 흩어집지요.)

103028 @2 으음.(으음.)

103028 #1 경헤영 영 돌아갈 땐 이 물이 영 돌아가멍 불라지는디 이 물이 이디서가 바짝 디리 몰앙 영헤불민 이 물이 영 돌아갈 때 이 담에염디레 돌아갈 물이 없어. 경헹 따문에 안목은 드리 밀곡 밧목이랑 자치렌.(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땐 이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밟아지는데 이 말이 여기서가 바짝 들이 몰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담가로 돌아갈 말이 없어. 그렇게 해서 때문에 '안목'은 들이 밀고 '밧목'은 젖히라고.)

103028 @ 음, 안목은 안쪽으로 드리 밀곡 밖에는 자쳐야 밧에염까지 가니까.(음, '안목'은 안쪽으로 들이 밀고 밖에는 젖혀야 밭가까지 가니까.)

103028 #1 예.(예.)
103028 @ 게믄 선물은 안목에 잇는 거예?(그러면 선말은 '안목'에 있는 거요?)
103028 #1 항상 안목에 이십주.(항상 '안목'에 있습죠.)
103028 @ 예, 게영 아까 이제 삼춘 불른 노래는 무신 노래마씨?(예, 그래서 아까 이제 삼촌 부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103028 #1 밧 불리는 소리.(밭 밟는 소리.)

콩농사

103029 @ 밧 불리는 소리. 알앗수다. 자, 게믄 콩도 갈앗지양?(밭 밟는 소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콩도 갈았지요?)
103029 #1 콩도 갈앗주게.(콩도 갈았지.)
103030 @ 으, 콩은 언제 가는 거우과?(으, 콩은 언제 가는 겁니까?)
103030 #1 콩.(콩.)
103030 @ 예.(예.)
103030 #1 유월절 뒈여가민 갈주.('유월절' 되어가면 갈지.)
103028 @ 것도 유월절예. 콩은 유월절하면 콩 갈젠 헤도 뭐 준비허는 게 잇어마씨?(것도 '유월절'요. 콩은 '유월절'하면 콩 갈려고 해도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103028 #1 콩 준비허는 건 없고.(콩 준비하는 건 없고.)
103032 @ 예.(예.)
103032 #1 그자 콩씨 삐영 쉐로 갈민 뒈는 거.(그저 콩씨 뿌려서 소로 갈면 되는 거.)
103032 @ 아, 거는 걸로 끗나는 거?(아, 거는 걸로 끝나는 거?)
103032 #1 걸름이 셔서? 거름 엇이난 씨 삐영 쉐로 갈앙 헷주.(거름이 있었어? 거름 없으니까 씨 뿌려서 소로 갈아서 했지.)
103033 @ 콩밧 검질은 어떵 메연마씨?(콩밭 김은 어떻게 맸어요?)
103033 #1 콩밧 검질도 조팟 검질메는 거나 마찬가지라.(콩밭 김도 조밭 김매는 거나 마찬가지야.)
103033 @ 예.(예.)
103033 #1 두 번은 메야주.(두 번은 매야지.)
103033 @ 아, 두 번 메야뒈예? 게믄 그것도 소끄고 영 허는 거.(아, 두 번 매야 되어요? 그러면 그것도 솎고 이렇게 하는 거.)
103033 #1 콩은 벨로, 소끄진 안허고. 워낙 줏인 디나 잇이민 좀 뽑아불까 경 아녀민 콩은 소끄진 아녀.(콩은 별로, 솎진 않고. 워낙 잦은 데나 있으면 좀 뽑아버릴까 그렇게 않으면 콩은 솎진 않아.)
103034 @ 조나 콩은 여름 용시 아니우과? 경허당 보면 검질이 다른 때보다 할 거 같애예. 어떤 검질덜 주로 낫수가?(조나 콩은 여름 농사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김이 다른 때보다 많을 거 같아요. 어떤 김들 주로 났습니까?)

103034 #1 어어?(어어?)

103034 @ 어떤 검질들이 주로 잇엇수가?(어떤 김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103034 #1 검질 대개 이디는 제환지엔 헌 검질이 잘 나.(김 대개 여기는 바랭이라고 한 김이 잘 나.)

103034 @ 제완지, 예, 제완지. 다른 검질은 무슨?(바랭이, 예, 바랭이. 다른 김은 무슨?)

103034 #1 다른 검질들도 잇인디 제완지가 우선 많아.(다른 김들도 있는데 바랭이가 우선 많아.)

103034 @ 으음, 제완지예? 콩 ᄀᆞ튼 경우는 언제 수확허는 거마씨?(으음, 바랭이요? 콩 같은 경우는 언제 수확하는 거요?)

103034 #1 콩도 마찬가지라.(콩도 마찬가지야.)

103034 @ 언제?(언제?)

103034 #1 하여튼 상강일 지나사게.(하여튼 상강일 지나야.)

103035 @ 아, 저기 게민 가을에 이젠 허는 거구나예? 콩은 어떤 식으로 수확헤오는 거라마씨?(아, 저기 그러면 가을에 이젠 하는 거군요? 콩은 어떤 식으로 수확해오는 거예요?)

103035 #1 콩 강 꺼끄주, 이건.(콩 가서 꺾지, 이건.)

103035 @ 이건 꺼끄는 거. 다른 건 비는디.(이건 꺾는 거. 다른 건 베는데.)

103035 #1 이거는 호미 영 대영 호미 영 밀리민 제냥으로 딱딱 꺼꺼져. 영 대영 영 밀리민.(이거는 낫 이렇게 대서 낫 이렇게 밀리면 저대로 딱딱 꺾어져. 이렇게 대서 이렇게 밀리면.)

103035 @ 호미만 대고 낭.(낫만 대고 나무.)

103035 #1 밀리민.(밀리면.)

103035 @ 낭은 밀리멍 허는 거? 어어, 걸 꺼끈덴 헤예?(나무는 밀리면서 하는 거? 어어, 걸 꺾는다고 해요?)

103035 #1 콩 거껌젠 허주.(콩 꺾고 있다고 하지.)

103035 @ 음, 콩 꺼껌쩌. 자, 콩 꺼끈 다음에 탈곡은 어떵 헙니까? 여기는.(음, 콩 꺾고 있다. 자, 콩 꺾은 다음에 탈곡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103035 #1 탈곡은 어떵. 집의 아정왕 도께로 두드렷주. 옛날 탈곡헐 게 무시거셔?(탈곡은 어떻게. 집에 가져와서 도리깨로 두들겼지. 옛날 탈곡할 게 무엇 있어?)

103035 @ 예, 콩 종류도 ᄋᆞ러 가진가마씨?(예, 콩 종류도 여러 가진가요?)

103035 #1 옛날은 콩 종류는 벨로.(옛날은 콩 종류는 별로.)

103035 @ 어떤 종류로 갈앗수가?(어떤 종류로 갈았습니까?)

103035 #1 이디 옛날은 그땐 뭐 장콩엔 헹은에 그자 주로 그거 갈앗주.(여기 옛날은 그땐 뭐 장콩이라고 해서 그저 주로 그거 갈았지.)

103035 @ 장콩. 이제 홁은. 요즘은 장콩도 잘 안 갈아예?(장콩. 이제 굵은. 요즘은 장콩도 잘 안 갈지요?)

103035 #1 요샌 장콩이 옛날 거보다 방울이 더 커. 요즘 장콩은.(요샌 장콩이 옛날 거보다 알이 더 커. 요즘 장콩은.)

103035 @ 아아.(아아.)

103035 #1 옛날 건 지금 거보다 방울이 훅질 아녀낫주.(옛날 건 지금 거보다 알이 굵질 안했었지.)

103035 @ 음. 경헤도.(음. 그래도.)

103035 #2 이제 줌진 콩.(이제 자잘한 콩.)

103035 @ 줌진 콩.(자잘한 콩.)

103035 #1 그걸로 콩ᄂᆞ물도 놓곡 그자 장콩도 허곡 헤신디 요샌 장, 콩ᄂᆞ물 콩 틀리고 장콩 틀려게.(그걸로 콩나물도 넣고 그저 장콩도 하고 했는데 요샌 장, 콩나물 콩 다르고 장콩 달라.)

103035 @ 예, 예, 예. 여기는 콩ᄂᆞ물을 뭐렌 헷수가? 이 동네서는.(예, 예, 예. 여기는 콩나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네서는.)

103035 #1 콩ᄂᆞ물엔 허주, 무신.(콩나물이라고 하지, 무슨.)

103035 #2 콩ᄂᆞ물은 콩ᄂᆞ물이주게.(콩나물은 콩나물이지.)

103035 @ 콩주름은 안 허여?(콩기름은 않아?)

103035 #1 콩지름.(콩기름.)

103035 #2 콩지름.(콩기름.)

103035 #1 콩지름.(콩기름.)

103035 #2 건 저 저 콩ᄂᆞ물 콩지름 맞아게. 콩지름 옛날 콩ᄂᆞ물.(건 저 저 콩나물 콩기름 맞아. 콩기름 옛날 콩나물.)

103035 #1 옛날 거 놔근에 집의서 키울 때 콩지름 키왐젠 허주.(옛날 거 놔서 집에서 키울 때 콩기름 키우고 있다고 하지.)

103035 @ 예, 콩지름 키우는 거예? 예.(예, 콩기름 키우는 거요? 예.)

103035 #2 옛날에 파랑 ᄃᆞᆨ세기콩[122]도 잇엇고.(옛날에 파란 'ᄃᆞᆨ세기콩'도 있었고.)

103035 @ 으.(으.)

103035 #2 또 헤영헌 청콩에 저 무신 흰콩엔 헤연 홁은홁은헌 콩 잇고. 장콩 준준헌 거 잇고.(또 하얀 청대콩이라고 저 무슨 흰콩이라고 해서 굵디굵은 콩 있고. 장콩 자잘한 거 있고.)

103035 @ 으.(으.)

103035 #2 경헤낫주게.(그렇게 했었지.)

103035 @ ᄃᆞᆨ세기콩은 어떤 거우과? 삼촌.('ᄃᆞᆨ세기콩'은 어떤 겁니까? 삼촌.)

103035 #2 ᄃᆞᆨ세기콩은 동글락헌 거.('ᄃᆞᆨ세기콩'은 동근 거.)

103035 #1 똥글랑똥글랑.(똥글똥글.)

103035 #2 홁은 거, 홁은 거.(굵은 거, 굵은 거.)

122) 'ᄃᆞᆨ새기콩'은 콩의 일종으로, 콩 모양이 달걀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103035 @ 아.(아.)
103035 #1 똥글랑허여, 건.(동그래, 건.)
103035 @ 아, 똥글랑허고. 그 다음에 흰콩은?(아, 동글고. 그 다음에 흰콩은?)
103035 #2 그것가 그거 흰콩은 희여도 홁어. 것도 ᄃᆞᆨ세기콩ᄀᆞ치.(그것은 그거 흰콩은 희어도 굵어. 것도 ‘ᄃᆞᆨ세기콩’같이.)
103035 @ 아아.(아아.)
103035 #2 푸린콩ᄀᆞ치록.(푸르대콩처럼.)
103035 @ 푸린콩ᄀᆞ치록. 그 푸린콩은 어떤 거?(푸르대콩처럼. 그 푸르대콩은 어떤 거?)
103035 #2 색만 틀린 거주.(색만 다른 거지.)
103035 #1 푸린콩은.(푸르대콩은.)
103035 #2 푸린콩은 홁은 거.(푸르대콩은 굵은 거.)
103035 #1 퍼렁허주. 퍼렁허여.(퍼렇지. 퍼래.)
103035 @ 퍼렁허고예.(퍼렇고요.)
103035 #1 익어도 퍼렁허여.(익어도 퍼래.)
103035 @ 아, 익어도 퍼렁허고.(아, 익어도 퍼렇고.)
103035 #1 열매 여물이 퍼렁허여.(열매 여물이 퍼래.)
103035 @ 장콩은?(장콩은?)
103035 #1 장콩은.(장콩은.)
103035 #2 그걸로 장도 담곡 흰콩엔 헤영 그 저 ᄃᆞᆨ세기콩이엔 헤영헌 동글동글헌 거.(그걸로 장도 담그고 흰콩이라고 해서 그 저 ‘ᄃᆞᆨ세기콩’이라고 하얀 동글동글한 거.)
103035 #1 그거 다 장도 허곡 그걸로 콩ᄂᆞ물도 다 놓곡 다 헷주, 무신.(그거 다 장도 하고 그걸로 콩나물도 다 놓고 다 했지, 무슨.)
103035 @ 아니, 게니까 종류가 삼춘, 콩 종류가 ᄃᆞᆨ세기콩허곡 장콩허고 ᄀᆞ튼 거?(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삼촌, 콩 종류가 ‘ᄃᆞᆨ세기콩’하고 장콩하고 같은 거?)
103035 #1 거 비슷헌 거.(거 비슷한 거.)
103035 #2 그 비슷헌 건디 저 색깔이만 틀려.(그 비슷한 건데 저 색깔만 달라.)
103035 @ 아, 색깔이.(아, 색깔이.)
103035 #1 비슷헌 거.(비슷한 거.)
103035 @ 게믄 그 종류는 ᄐᆞ난 거라는 거 아니예?(그러면 그 종류는 다른 거라는 거 아닌가요?)
103035 #1 게 이름만 잇엇주게. 이름만.(그래 이름만 있었지. 이름만.)
103035 #2 겐디 그 장콩엔 헌 건 ᄒᆞ꼼 좀진 거주게.(그런데 그 장콩이라고 한 건 조금 자잘한 거지.)
103035 @ 예, 장콩은 ᄒᆞ꼼 좀질고예? 흰콩은?(예, 장콩은 조금 자잘하고요? 흰콩은?)

103035 #2 흰콩은 그 파란콩 ᄃᆞ세기콩광 ᄀᆞ튼 거, 홁은 거.(흰콩은 그 푸르대콩 ‘ᄃᆞ세기콩’과 같은 거, 굵은 거.)

103035 @ 아아, ᄃᆞ세기.(아아, 달걀.)

103035 #2 색만 틀린다고.(색만 다르다고.)

103035 @ ᄃᆞ세기콩은 파란 거 속이?(‘ᄃᆞ세기콩’은 파란 거 속이?)

103035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35 #2 청콩[123]. 흰 거.(청대콩. 흰 거.)

103035 #1 청콩엔 헌 건.(청대콩이라고 한 건.)

103035 #2 그 종류가 ᄀᆞ튼 건디 색만 틀려.(그 종류가 같은 건데 색만 달라.)

103035 #1 색이 틀리주.(색이 다르지.)

103035 @ 게민 ᄃᆞ세기콩이 청콩이우과? 아아.(그러면 ‘ᄃᆞ세기콩’이 청대콩입니까? 아아.)

103035 #2 똥글랑똥글락.(똥글똥글.)

103035 @ 예, 예. 알아지쿠다. 콩 헤도 좀 푸린 기 나는 거는 ᄃᆞ세기콩인데.(예, 예. 알겠습니다. 콩 해도 좀 푸른 기 나는 거는 ‘ᄃᆞ세기콩’인데.)

103035 #2 푸린 거 청콩.(푸른 거 청대콩.)

103035 @ 청콩이고.(청대콩이고.)

103035 #2 흰 거.(흰 거.)

103035 @ 흰 거는 알은 굵어도 희곡 쏙도 희고 장콩은 줌진 거.(흰 거는 알은 굵어도 희고 속도 희고 장콩은 자잘한 거.)

103035 #1 ᄒᆞ꼼 줄곡.(조금 잘고.)

103035 #2 ᄒᆞ쏠 줌진 거.(조금 자잘한 거.)

103035 @ 게믄 세 가지. 으음. 게민 청콩이 푸린콩이우꽈?(그러면 세 가지. 으음. 그러면 청대콩이 푸르대콩입니까?)

103035 #2 청콩이 푸린 거.(청대콩이 푸른 거.)

103036 @ 으, 푸린콩이렌 ᄀᆞᆫ는 거예. 그 다음에 이제 콩으로는 아까 이제 콩주름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콩은 뭐에 쓰는 거?(으, 푸르대콩이라고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콩으로는 아까 이제 콩기름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콩은 뭐에 쓰는 거?)

103036 #1 장허곡.(장(醬)하고.)

103036 @ 장.(장.)

103036 #2 장허곡 ᄀᆞ르 ᄀᆞᆯ앙 콩ᄀᆞ르 헹 먹곡.(장하고 가루 갈아서 콩가루 해서 먹고.)

103036 #1 콩 ᄀᆞᆯ앙은에 죽도 쒕 먹곡.(콩 갈아서 죽도 쒀서 먹고.)

103036 @ 예.(예.)

103036 #1 그거주, 무신.(그거지, 무슨.)

123) ‘청콩’은 콩의 일종이다. 달리 ‘푸린콩’이라고 한다. 표준어로는 ‘푸르대콩’, ‘청대콩’ 따위로 부른다.

103036 @ 여기는 둠비 같은 건 하영 안 헷수가?(여기는 두부 같은 것은 많이 안 했습니까?)

103036 #1 둠비는 별로.(두부는 별로.)

103036 #2 우리, 우리 이 ᄆᆞ슬선 둠비 ᄀᆞ튼 거 아녀.(우리, 우리 이 마을에선 두부 같은 거 않아.)

103036 @ 아, 게난 이 표선도 가니까 둠비 안 헷덴.(아, 그러니까 이 표선도 가니까 두부 안 했다고.)

103036 #2 표선도 안 헹은에.(표선도 안 해서.)

103036 #1 옛날은 아녀실 거라.(옛날은 안 했을 거야.)

103036 @ 잔치헐 때도 안 헌덴.(잔치할 때도 안 한다고.)

103036 #2 장날 풀레 오는 거 어디 딴 ᄆᆞ을에서 혜 오는 거.(장날 팔러 오는 거 어디 다른 마을에서 해 오는 거.)

103036 @ 어.(어.)

103036 #1 그것이 직접 만들지는 안 허여.(그것이 직접 만들지는 않아.)

103036 #2 표선리나 성읍리나 두부허는 딘 엇어.(표선리나 성읍리나 두부하는 덴 없어.)

103036 @2 게난 여기서 반 놓을 때.(그러니까 여기에서 반기 놓을 때.)

103036 #1 어.(어.)

103036 @2 돗궤기 석 점.(돼지고기 석 점.)

103036 @ 잔치나 뭐 헐 때 허면.(잔치나 뭐 할 때 하면.)

103036 #1 양?(예?)

103036 @2 돗궤기에 석 점허곡.(돼지고기에 석 점하고.)

103036 #1 뭐헐 때마씸?(뭐할 때요?)

103036 @ 반 놓는 거.(반기 놓는 거.)

103036 @2 반 놓을 때, 반.(반기 놓을 때, 반기.)

103036 @ 잔치 때 반?(잔치 때 반기?)

103036 #2 잔치헐 때?(잔치할 때?)

103036 #1 잔치헐 때?(잔치할 때?)

103036 @ 예.(예.)

103036 #1 잔치헐 때 반?(잔치할 때 반기?)

103036 @ 예.(예.)

103036 #1 궤깃반[124]?('궤깃반'?)

103036 @2 예.(예.)

103036 #1 으, 궤기 석 점 놩 우에 수에 놉니다.(으, 고기 석 점 놔서 위에 순대 놉니다.)

---

124) '궤깃반'은 잔칫집이나 상가에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돼지고기와 순대 등을 쟁반 따위에 담아 놓은 음식이다. 지역에 따라서 두부나 묵적 따위를 더하기도 한다. 달리 '고깃반'이라고도 한다.

103036 @ 딱 거 뿐.(딱 거 뿐.)
103036 @2 둠빈 안 놓고예?(두부는 안 놓고요?)
103036 #1 아니.(아니.)
103036 @2 아.(아.)
103036 @ 둠비는 아니?(두부는 아니?)
103036 #1 그 대신 ᄆᆞ물 헤근에 전 지진 거.(그 대신 메밀 해서 전 지진 거.)
103036 @2 예.(예.)
103036 #1 그거 하나 더픕주.(그거 하나 덮지요.)
103036 @ 아, 그.(아, 그.)
103036 #2 옛날은 그거 헤낫주만은 이젠 안 허여.(옛날은 그거 했었지만 이젠 안 해.)
103036 @ 그 전을 뭐렌 헤? 여기선.(그 전을 뭐라고 해? 여기선.)
103036 #1 그거?(그거?)
103036 @ 으.(으.)
103036 #1 전이주.(전이지.)
103036 #2 전.(전.)
103036 #1 전.(전.)
103036 @ 그냥 전?(그냥 전?)
103036 #2 으, 고기.(으, 고기.)
103036 #1 그거는 남자덜이 만들어.(그거는 남자들이 만들어.)
103036 #2 고기 우의 더프는 전.(고기 위에 덮는 전.)
103036 #1 전 지지는 건 남자가 허여.(전 지지는 건 남자가 해.)
103036 @ 아 얼마큼 크게 지어?(아, 얼마큼 크게 지져?)
103036 #1 아니, 접시 둘레 만이벳긔 안 허여.(아니, 접시 둘레 만큼밖에 안 해.)
103036 @ 아, 동글랑허게 영 고기를 더퍼?(아, 동그랗게 이렇게 고기를 덮어?)
103036 #2 후라이판 ᄒᆞ나민게 멧 개 세 개쯤.(프라이팬 하나면 몇 개 세 개쯤.)
103036 #1 접시에 고기 놩 접시 우의 탁허게 영 더펑 가는 거라. 게민 쏘곱에 하영 들어신디 족영 들어신디 모르주게.(접시에 고기 놓아서 접시 위에 탁하게 이렇게 덮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속에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모르지.)
103036 @ 아아.(아아.)
103036 @2 게난 거기에 돗, 돗궤기 석 점하곡.(그러니까 거기에 돼지, 돼지고기 석 점하고.)
103036 #1 수에.(순대.)
103036 @2 수에.(순대.)
103036 #2 수에 ᄒᆞᆫ 점 놓고 그거 앗앙.(순대 한 점 놓고 그거 가져서.)
103036 #1 그거우다게.(그겁니다.)
103036 @ 어어.(어어.)

103036 #2 고기가 하영 들엇는지 족영 들엇는지.(고기가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103036 #1 일포, 일포밧[125]듸도 경허곡 이 저 잔치밧[126]듸도 경헙니다.(일포, '일포밧'에도 그렇게 하고 이 저 '잔치밧'에도 그렇게 합니다.)

103036 @ 아, 잔치밧듸도 경허곡 일포밧듸도 경헤예. 예. 아아, 재미있다.(아, 잔칫집에도 그렇게 하고 '일포밧'에도 그렇게 해요. 예. 아아, 재미있다.)

103036 #1 영장날은 바위꼬지[127] 꿰곡.(장삿날은 '바위꼬지' 꿰고.)

103036 @ 으.(으.)

103036 #1 대고젱이에.(대꼬챙이에.)

103036 @ 바위꼬지. 무사 바위꼬지렌 헌 거우과? 건.('바위꼬지'. 왜 '바위꼬지'라고 한 겁니까? 건.)

103036 #2 고젱이 꿰난.(꼬챙이 꿰니까.)

103036 #1 고젱이 꿰난 바위꼬지주.(꼬챙이 꿰니까 '바위꼬지'지.)

103036 @ 바위는 뭐라?('바위'는 뭐라?)

103036 #1 몰르주 원. 바위꼬지난.(모르지 원. '바위꼬지'니까.)

103036 #2 바위는[128] 대.('바위는' 대.)

103036 @ 바위는 대?('바위는' 대.)

103036 #2 바위 꿰난 바위꼬지주. 무시거.('바위' 꿰니까 '바위꼬지'지. 무엇.)

103036 @ 으으, 대를 바위렌 헙니까?(으으, 대를 '바위라고' 합니까?)

103036 #2 대를 달롸가지고 깨난에게 적고지 만들앙 꿰난 바위꼬지.(대를 다뤄가지고 깨니까 적꼬치 만들어서 꿰니까 '바위꼬지'.)

103036 #1 대를 깨면은 그걸 막 칼로 훌텅 만들주게. 적고질.(대를 깨면 그걸 막 칼로 훑어서 만들지. 적꼬치를.)

103036 @ 예.(예.)

103036 #1 게난 길이가 이만은 허여.(그러니까 길이가 이만큼 해.)

103036 @ 아이고, 대개 기네.(아이고, 대개 기네.)

103036 #1 겐디.(그런데.)

103036 @ 삼십 센치도 넘으컨게, 예?(삼십 센티도 넘으겠네, 예?)

103036 #1 삼십 센티 정도. 이걸 막 얍게 달루주게.(삼십 센티 정도. 이걸 막 얇게 다루지.)

103036 @ 예.(예.)

---

125) '일포밧'은 발인 전날의 상가(喪家)를 말한다. '일포+밧' 구성으로, 일포는 발인 전날을 말하고, 발인 전날에 하는 제는 '일포제'라고 한다. '밧'은 표준어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어떤 일을 치르는 곳'을 밭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126) '잔치밧'은 잔치가 열리는 집을 말한다. '밧'은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집'을 밭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127) '바위꼬지'는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대꼬챙이다. '바위다'의 어간 '바위-'에 '꼬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로, '바위다'는 '깎다' 또는 '다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다.

128) '바위는'은 '다루는' 또는 '깎는'의 뜻으로 쓰인 것 같다.

103036 #1 웨 궤기 석 점을 꿰엇을 때에.(왜 고기 석 점을 꿰었을 때에.)
103036 @ 예.(예.)
103036 #1 영 들르민 이게 영 오그라지게.(이렇게 들면 이게 이렇게 오그라지게.)
103036 @ 음.(음.)
103036 #1 고기 힘으로 이걸 오그라지게 험으로 이 대나무를 일부러 막 얇게 까짯다고.(고기 힘으로 이걸 오그라지게 함으로 이 대나무를 일부러 막 얇게 깎았다고.)
103036 @ 으으, 옛날에 구덕허젠 허면.(으으, 옛날에 바구니 하려고 하면.)
103036 #1 영 오그라지민 야 고깃반 바위꼬지 잘 헷젠 막.(이렇게 오그라지면 야 '고깃반' '바위꼬지' 잘 했다고 아주.)
103036 @ 바위 이렇게 돌르는 바위 허는 식으로구나게 예. 얇게 헤갖고. 게믄 그거를 꼭 저 밥에 이렇게.('바위' 이렇게 도르는 '바위' 하는 식이로구나 예. 얇게 해갖고. 그러면 그거를 꼭 저 밥에 이렇게.)
10303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36 @ 꼿앙 줍니까?(꼿아서 줍니까?)
103036 #1 따로 따로.(따로 따로.)
103036 #2 아니 그냥 따로.(아니 그냥 따로.)
103036 #1 고깃반 허는 사름이 잇어.('고깃반' 하는 사람이 있어.)
103036 @ 아, 게민 그거는 이제 영장밧듸 갓을 때.(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갓집에 갔을 때.)
103036 #1 으.(으.)
103036 @ 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콩 헐 때 콩 꺼껑 헤신디다가 콩 탈곡은 도리깨질 헷잖우꽈예?(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콩 할 때 콩 꺾어서 했는데 콩 탈곡은 도리깨질 했잖습니까요?)
103036 #1 으.(으.)
103037 @ 게믄 그 콩찍?(그러면 그 콩짚?)
103037 #1 거 믈 주주.(거 말 주지.)
103037 @ 콩찍은?(콩짚은?)
103037 #1 믈.(말.)
103037 @ 믈? 쉐는 안 줘?(말? 소는 안 줘?)
103037 #1 쉐는 안 먹어.(소는 안 먹어.)
103037 @ 아아. 콩찍은 믈 주로 먹는 거예?(아아. 콩짚은 말 주로 먹는 거요?)
103037 #2 믈 신딘 믈 주곡. 믈 엇인디.(말 있는덴 말 주고. 말 없는데.)
103037 #1 믈 엇인딘.(말 없는데는.)
103037 #2 불 태와불곡.(불 태워버리고.)
103037 #2 불도 태와불곡 놈 줘불기도 허곡.(불도 태워버리고 남 줘버리기도 하

고.)

103037 @ 음, 그걸로 밥 저 뭐는 안 헤마씨?(음, 그걸로 밥 저 뭐는 안 해요?)

103037 @2 굴묵.('굴묵'.)

103037 @ 불 솜진 안헤? 밥헐 때.(불 때진 않아? 밥할 때.)

103037 #2 밥헐 때 아니.(밥할 때 아니.)

103037 @ 여기는 밥헐 때는 뭐허는 거?(여기는 밥할 때는 뭐하는 거?)

103037 #2 밥헐 땐.(밥할 땐.)

103037 #1 억새.(억새.)

103037 #2 그 전엔 보리찧. 유채낭.(그 전엔 보리짚. 유채대.)

103037 @ 예.(예.)

103037 #1 보리찍은 연기가 많이 나주게.(보리짚은 연기가 많이 나지.)

103037 @ 예.(예.)

103037 #1 게난 쫌.(그러니까 좀.)

103037 #2 억새로 억새 말고.(억새로 억새 말고.)

103037 #1 가을에 이 억새를 막 반 때 헌 게 거 옛날 이디 반검질[129]이엔 허영 걸 비여당은에 눌엇당 그거 일 년 내낭 눌엇당 걸로 밥헹 먹고.(가을에 이 억새를 아주 반 때 한 게 거 옛날 여기 '반검질'이라고 해서 걸 베어다가 가리었다가 그거 일 년 내내 가리었다가 걸로 밥해서 먹고.)

103037 #2 그 억새로 밥허는 집 아무 디나 안 허여. 억새로.(그 억새로 밥하는 집 아무 데나 안 해. 억새로.)

103037 @ 거를 반검질렌 헤마씨?(거를 '반검질'이라고 해요?)

103037 #1 반검질. 반검질 일으킨덴 허주게.('반검질'. '반검질' 일으킨다고 하지.)

103037 #2 몰랑 빈 거 반검질.(말라서 벤 거 '반검질'.)

103037 @ 예.(예.)

103037 #1 막 몰랑 비니까게.(아주 말라서 베니까.)

103037 #2 또 풀차 빈 건 풀검질[130].(또 풀째 벤 건 '풀검질'.)

103037 #1 비면서 그날 바로 무꺼도 뒈여.(베면서 그날 바로 묶어도 돼.)

103037 @ 아아.(아아.)

103037 #2 어웍이 막 익엉 빈 건 반검질.(억새가 아주 익어서 벤 건 '반검질.')

103037 #1 막 몰랑 비니까.(아주 말라서 베니까.)

103037 @ 삼춘, 다시 한 번? 익은 거는 반검질? 그 다음에?(삼촌, 다시 한 번? 익은 거는 '반검질'? 그 다음에?)

103037 #2 선 때 빈 건 풀검질.(설 때 벤 건 '풀검질'.)

103037 @ 풀검질. 그거는 꼭 저기 억새로만 헤?('풀검질'. 그거는 꼭 저기 억새

129) '반검질'은 억새 따위의 풀이 익을 때 장만하는 검불이다.
130) '풀검질'은 억새 따위의 풀이 성성할 때 장만하는 검불이다.

로만 해?)

103037 #1 예.(예.)

103037 @ 검질 그 불 솜을 거니까 검질 영헌 모양이구나예?(검불 그 불 땔 거니까 검불 이렇게 한 모양이구나?)

103037 #1 그게 이 나모 뒈기, 그 억새남이 조끔 쎄주게.(그게 이 나무 되기, 그 억새대가 조금 쎄지.)

103037 @ 예예.(예예.)

103037 #1 그게 타는 시간이 다른 검질보다 좀 오래 가.(그게 타는 시간이 다른 검불보다 좀 오래 가.)

103037 @ 아아.(아아.)

103037 @2 예, ᄆᆞ디니깐예.(예, 마디니까요.)

103037 @ 아아.(아아.)

103037 #2 거나벳긔 불 짇을 거 엇주게. 새는 안 뒈고.(거나밖에 불 땔 거 없지. 띠는 안 되고.)

103037 @ 새는 안 뒈고.(띠는 안 되고.)

103037 #2 새도 뒈주만은 새가 어웍검질만이 불 솜는 디가 좋지 아녀. 잘 안 부떠.(띠도 되지만 띠가 억새검불만큼 불 때는 데가 좋지 않아. 잘 안 붙어.)

103037 #1 불치가 많이 놀아뎅기주. 새로.(재가 많이 날아다니지. 띠로.)

103037 @ 새는 얇아노니까.(띠는 얇아놓으니까.)

103037 #2 불치도 많이 놀곡. 저 어웍검질만이 좋지 아녀, 불 솜은 디가.(재도 많이 날고. 저 억새검불만큼 좋지 않아, 불 때는 데가.)

103037 @ 으음.(으음.)

103037 #1 이 보리찍은 연기가 많이 나곡.(이 보릿짚은 연기가 많이 나고.)

103037 @ 아아 보리찍은 연기가 안 날 거 닮아도 연기가 하영 나는구나예?(아아 보릿짚은 연기가 안 날 거 같아도 연기가 많이 나는군요?)

103037 #1 여름에 그걸로 밥헤나민 눈 다 멜라진덴 허난, 연기로.(여름에 그걸로 밥해나면 눈 다 찌그러진다고 하니까, 연기로.)

103037 @ 으음. 보리찍으로. 보리는. 그 다음에 삼춘, 콩 농사는 그렇게 여기는 하영은 안 헷구나예?(으음. 보릿짚으로. 보리는. 그 다음에 삼촌, 콩 농사는 그렇게 여기는 많이는 안 했군요?)

103037 #1 벨로 하영은 안 헷주.(별로 많이는 안 했지.)

103038 @ 예, 게믄 콩 농사에 대한 뭐 경험, 추억 같은 거는 별로 어시쿠다? 이거는예?(예, 그러면 콩 농사에 대한 뭐 경험, 추억 같은 거는 별로 없겠네요? 이거는요?)

103038 #2 콩 농사 아니 져난 몰라.(콩 농사 아니 지니까 몰라.)

밭벼 농사

103039 @ 아아, 산듸는 여기 하영 갈아실 거 닮아.(아아, 밭벼는 여기 많이 갈았을 거 같아.)

103039 #2 산듸는.(밭벼는.)

103039 #1 흔 천 흔 천 평썩 가는 사름은 흔 천 평썩 갈주게.(한 천 한 천 평씩 가는 사람은 한 천 평씩 갈지.)

103039 @ 게난 하영 갈앗네.(그러니까 많이 갈았네.)

103039 #2 갈산듸 ᄀᆞ튼 건 궂은 밧듸덜 막 갈아노난.('갈산듸' 같은 건 궂은 밭에들 막 갈아놓으니까.)

103039 #1 저 그런 갈산듸, 갈산듸는 목장에 강 많이 갈주.(저 그런 '갈산듸', '갈산듸'는 목장에 가서 많이 갈지.)

103039 #2 목장밧[131]듸덜 가는 거난 허는 사름덜.('목장밭'에들 가는 거니까 하는 사람들.)

103039 #1 쌩밧[132], 쌩밧 이겨근에 처음에 뭘 가느냐 허면 필 갈아.('쌩밧', '쌩밧' 이겨서 처음에 뭘 가느냐 하면 필 갈아.)

103039 @ 예.(예.)

103039 #1 쌩밧.('쌩밧'.)

103039 @2 으.(으.)

103039 #1 쉐로 갈아근에 어펑 그 벙뎅이 영 ᄌᆞ근ᄌᆞ근 잘 노는 걸 새왓 잣암젠 허는디.(소로 갈아서 엎어서 그 볏밥 이렇게 차근차근 잘 노는 걸 띠밭 잣고 있다고 하는데.)

103039 @ 예.(예.)

103039 #1 그거 잣앙 그디 씨 삐여근에 물로 불려근에 필 헤 먹어나민 내년, 내년에는 이걸 뭘 가느냐면 적감밧엔 허영 그걸 갈앙 ᄆᆞ멀을 갈주게.(그거 자아서 거기 씨 뿌려서 말로 밟아서 필 해 먹어나면 내년, 내년에는 이걸 뭘 가느냐면 '적감밧'이라고 해서 그걸 갈아서 메밀을 갈지.)

103039 @ ᄆᆞ멀? 예.(메밀? 예.)

103039 #1 그 다음에 산듈 갈주.(그 다음에 밭벼를 갈지.)

103039 @ 아아, 화전을 딱 일궛을 때 처음 경허는 거구나예.(아아, 화전을 딱 일궜을 때 처음 그렇게 하는 거군요.)

103039 #1 경허민 거기 강 허는 게 갈산듈 갈아, 검은산듸[133].(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하는 게 '갈산듸'를 갈아, '검은산듸'.)

103039 @ 음.(음.)

103039 #2 젤 궂은 산듸.(젤 궂은 밭벼.)

103039 #1 다른 산듸는 잘 그디 강 뒈질 안허난.(다른 밭벼는 잘 거기 가서 되

131) '목장밧'은 목장을 이겨서 만든 밭을 말한다.

132) '쌩밧'은 처음 이기는 밭을 말한다. 보통 띠의 기력이 떨어져 지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농작을 하려고 이기는 띠밭을 가리킨다.

133) '검은산듸'는 색깔이 검은 밭벼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갈산듸'를 색깔에 비유해서 달리 표현한 말이다.

질 않으니까.)

103039 @ 예. 겡은에 이제 그거만 헹은에 거의 이제 산듸로 헌 거고.(예. 그래서 이제 그거만 해서 거의 이제 밭벼로 한 거고.)

103039 #1 그 다음에는 그렇게 허민 밧이 완전 숙전이 뒈 불주.(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밭이 완전 숙전(熟田)이 돼 버리지.)

103039 @ 음, 겡 그걸 숙전이렌 헤마씨? 익은 밧이난.(음, 그래서 그걸 숙전이라고 해요? 익은 밭이니까.)

103039 #1 다 쌩밧 이겨놓민 숙전뒛젠 허주.(다 '쌩밧' 이겨놓으면 숙전되었다고 하지.)

103039 @ 한 번 갈산듸까지 딱 한 번 다 돌아가면. 아까 삼춘예, 맨 처음에 이겨갖고 저기 헨 거를 뭐렌 뭐 헌다고.(한 번 '갈산듸'까지 딱 한 번 다 돌아가면. 아까 삼촌요, 맨 처음에 이겨갖고 저기 한 거를 뭐라고 뭐 한다고.)

103039 #1 이게.(이게.)

103039 @ 으.(으.)

103039 #1 쉐로 이렇게 벙뎅일 갈앙 엎어놓면은.(소로 이렇게 볏밥을 갈아서 엎어놓으면.)

103039 @ 예.(예.)

103039 #1 이 벙뎅이가 길거든.(이 볏밥이 길거든.)

103039 @ 예.(예.)

103039 #1 이걸 강 이 사람 손으로 이거 ᄌᆞ근ᄌᆞ근 영 데깍허게 놓주게.(이걸 가서 이 사람 손으로 이거 차근차근 이렇게 빽빽하게 놓지.)

103039 @ 예.(예.)

103039 #1 이걸 새왓 잣암젠 허주.(이걸 띠밭 잣고 있다고 하지.)

103039 @ 새왓 잣암저, 예.(띠밭 잣고 있다고, 예.)

103039 #1 새왓 잣암젠 허는디 이제 이걸 잣아놓면은 그 다음 이디 강 피 씨 강 삐영 물로 불리주.(띠밭 잣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자아놓으면 그 다음 여기 가서 피 씨 가서 뿌려서 말로 밟지.)

103039 @ 예. 게민 그거는 또 불리는 거 아니라예? 으.(예. 그러면 그거는 또 밟는 거 아닌가요? 으.)

103039 #1 피 씨는 불려야.(피 씨는 밟아야.)

103039 @ 피 씨 불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피 갈아난 다음에는 또 ᄆᆞ멀 헌덴 허지예. ᄆᆞ물 허는 거는 뭐렌 헤?(피 씨 밟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피 갈았던 다음에는 또 메밀 한다고 하지요. 메밀 하는 거는 뭐라고 해?)

103039 #1 ᄆᆞ멀 무신거라게. 그 적감[134], 적감밧[135]이옌 헤근에. 그 피 갈아난 다음 가는 게 적감밧이라.(메밀 무엇이야. 그 '적감', '적감밧'이라고 해서. 그 피 갈

134) '적감'은 띠밭을 이겨서 농사를 지을 때 두 번째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135) '적감밧'은 띠밭을 이겨서 두 번째 농사를 짓는 밭을 말한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서는 '쌩밧'을 이겨서 처음에 피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메밀 농사를 짓는데, 메밀 농사를 짓는 밭을 '적감밧'이라고 하였다.

았던 다음 가는 게 ‘적감밧’이야.)

103039 @ 아, 피 갈아난 다음에 ᄆᆞ멀 가는 거를 적감밧?(아, 피 갈아난 다음에 메밀 가는 거를 ‘적감밧’?)

103039 #1 으.(으.)

103039 @ 적감밧은 무슨 말이우꽈?(‘적감밧’은 무슨 말입니까?)

103039 #1 모르지, 뭐. 우리도 그자 어른덜 ᄀᆞᆯ아난 적감밧. 적감밧.(모르지, 뭐. 우리도 그저 어른들 말했던 ‘적감밧’. ‘적감밧’.)

103039 #2 새왓 갈안 피 갈아나난 적감은 두불이 뒈는 거 아니라게.(띠밭 갈아서 피 갈았었으니까 ‘적감’은 두벌이 되는 거 아닌가.)

103039 @ 예.(예.)

103039 #2 밧이 익어가는 거. 밧이 익어가는 거. 걸 말허는 거.(밭이 익어가는 거. 밭이 익어가는 거. 걸 말하는 거.)

103039 @ 아아, 겡은에 밧이 익어가는 거를 이제 두불 허는 거를 적감밧. 그 다음에 적감밧듸는 또?(아아, 그래서 밭이 익어가는 거를 이제 두벌 하는 거를 ‘적감밧’. 그 다음에 ‘적감밧’에는 또?)

103039 #2 ᄆᆞ멀 가는 거.(메밀 가는 거.)

103039 #1 ᄆᆞ멀 갈아난 다음엔 또 산듸 가는 거.(메밀 갈아난 다음엔 또 밭벼 가는 거.)

103039 @ 으, 그 세 번째를 아까 뭐렌 ᄀᆞᆯ앗수가?(으, 그 세 번째를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39 #1 무신거라게. 그거 그거 경허민 숙전뒌덴 허는 거.(무엇이야. 그거 그거 그렇게 하면 숙전된다고 하는 거.)

103040 @ 경헤영 숙전뒈는 거예. 알앗수다. (웃음). 자 게믄 으 산듸를 갈아봅주. 게믄 아까 이제 그런 데 가서 갈산듸를 허는 거고. 이 갈산듸를 좋은 밧듸 아까 녹산듸도 헷덴 헨게.(그렇게 해서 숙전되는 거요. 알았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으 밭벼를 갈아보지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데 가서 ‘갈산듸’를 하는 거고. 이 ‘갈산듸’를 좋은 밭에 아까 ‘녹산듸’도 했다고 하던데.)

103040 #1 아 녹산듸도 강 갈주.(아 ‘녹산듸’도 가서 갈지.)

103040 #2 녹산듸나 갈산듸나 ᄀᆞ뜬 종류.(‘녹산듸’나 ‘갈산듸’나 같은 종류.)

103040 #1 그건 궂인 밧듸 갈아도 뒈여.(그건 궂은 밭에 갈아도 되어.)

103040 @ 아, 거는 궂은 종네기고. 그 다음 삼춘네 그 산듸 처음 준비부떠 언제 어떻게 이제 가는 거 순서대로 한번 ᄀᆞᆯ아줍서?(아, 거는 궂은 종류고. 그 다음 삼촌네 그 밭벼 처음 준비부터 언제 어떻게 이제 가는 거 순서대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3040 #1 저거 쳉명, 쳉명 지나민 강 초불 갈주게.(저거 청명, 청명 지나면 가서 초벌 갈지.)

103040 @ 예.(예.)

103040 #1 초불 갈앗다근에 저거 망중 한 십일 전이 산딜 갈주. 게난 산듸가 보통 열이틀 만이 나는디이.(초벌 갈았다가 저거 망종 한 십일 전에 밭벼를 갈지. 그러니까 밭벼가 보통 열이틀 만에 나는데.)

103040 @ 예.(예.)

103040 #1 망종에 하이튼 날 정도로만 강 시기 맞춰 날짜 맞춰 갈주.(망종에 하여튼 날 정도로만 가서 시기 맞춰서 날짜 맞춰서 갈지.)

103040 @ 음. 게영은에 이제 갈고. 그 산, 저기 산딘 갈 때는 뭐 걸름허거나 이러지는 않고예?(음. 그래서 이제 갈고. 그 산, 저기 밭벼는 갈 때는 뭐 거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103040 #1 걸름은 엇고게.(거름은 없고.)

103040 @ 그 다음에 그 산듸씨도 그냥 삐영은에 헤는 거, 이거는.(그 다음에 그 밭벼씨도 그냥 뿌려서 하는 거, 이거는.)

103040 #1 그거는 아니라.(그거는 아니야.)

103040 @ 어떤 식?(어떤 식?)

103040 #1 초, 초불 갈아 놧당.(초, 초벌 갈아 놨다가.)

103040 @ 예.(예.)

103040 #1 산듸씨 강 혼 번 삐영.(밭벼씨 가서 한 번 뿌려서.)

103040 @ 예.(예.)

103040 #1 갈앙 또 산듸씨 삐영 그 다음 물로 불리주.(갈아서 또 밭벼씨 뿌려서 그 다음 말로 밟지.)

103040 @ 게난 산듸씨를 두 번 삐는 거라예?(그러니까 밭벼씨를 두 번 뿌리는 거네요?)

103040 #1 초불 삐고 두불 삐고.(초벌 뿌리고 두벌 뿌리고.)

103040 @ 음.(음.)

103040 #1 그거 웨냐믄 이 쉐로 장기로 갈아불민 이 사이는 비니까 두불 안 삐민 이딘 씨가 엇주.(그거 왜냐면 이 소로 쟁기로 갈아버리면 이 사이는 비니까 두벌 안 뿌리면 여긴 씨가 없지.)

103040 #2 묻어지는 디는 씨가 엇일 거난.(묻어지는 데는 씨가 없을 거니까.)

103040 #1 경허는 따문에 두불을 삐는 거.(그렇게 하는 때문에 두벌을 뿌리는 거.)

103040 @ 게난 그거를 우씨.(그러니까 그거를 '우씨'.)

103040 #1 알씨[136].('알씨'.)

103040 @ 알씨허는 거우과?('알씨'하는 겁니까?)

103040 @ 먼저 삔 씨는?(먼저 뿌린 씨는?)

103040 # 그 알씨주게.(그 '알씨'지.)

103040 @ 알씨. 두 번째 헌 거는?('알씨'. 두 번째 한 거는?)

136) '알씨'는 밭을 갈기 전에 뿌리는 씨다.

103040 #1 우씨[137].(‘우씨’)

103040 @ 우씨. 아아, 게민 이렇게 그 농사질 때 씨를 두 번 가는, 두 번 삐는 거는 산듸벳기 엇수가?(‘우씨’. 아아, 그러면 이렇게 그 농사지을 때 씨를 두 번 가는, 두 번 뿌리는 거는 밭벼밖에 없습니까?)

103040 #1 산듸벳긔 엇주.(밭벼밖에 없지.)

103043 @ 아아, 산듸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산디밧듸 검질은?(아아, 밭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밭벼밭에 김은?)

103043 #1 검질도 마찬가지라. 두 번. 목장은 두 번 메고 가름팟[138]은 세 번 메여.(김도 마찬가지야. 두 번. 목장은 두 번 매고 ‘가름팟’은 세 번 매.)

103043 #2 검질 시민 메고 엇이민.(김 있으면 매고 없으면.)

103043 #2 검질 시민 메고.(김 있으면 매고.)

103043 #1 시민 메곡 봐가멍 허는 거난.(있으면 매고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103043 @ 아아.(아아.)

103043 #1 엇이민 안 메곡. 대개 이제 저 쌩밧 한 이삼 년 뒐 때꺼지는 벨로 검질이 잘 안 나.(없으면 안 매고. 대개 이제 저 ‘쌩밧’ 한 이삼 년 될 때까지는 별로 김이 잘 안 나.)

103043 #2 ᄆᆞᆯ그루에 간 건 검질 안 나.(메밀그루에 간 건 김 안 나.)

103043 #1 검질 잘 안 나.(김 잘 안 나.)

103043 @ 아, ᄆᆞᆯ그루에는예?(아, 메밀그루에는요?)

103043 #2 새왓 갈안 ᄆᆞᆯ 갈아난 거난.(띠밭 갈아서 메밀 갈았던 거니까.)

103043 #1 새왓 갈아나니까.(띠밭 갈아나니까.)

103043 #1 ᄆᆞ멀 갈아난 다음에는 오래 잇어가야 씨가 졍 나주.(메밀 갈았던 다음에는 오래 있어가야 씨가 생겨서 나지.)

103043 @ 네, 가름팟듸는 세불을 메야 뒈예?(네, ‘가름팟’에는 세벌을 매야 되어요?)

103043 #1 두 번도 메고 세 번도 메곡. 그자 검질 엇이민 두 번만 메곡 경 아녀민 세불.(두 번도 매고 세 번도 매고. 그저 김 없으면 두 번만 매고 그렇게 않으면 세벌.)

103044 @ 산듸밧디는 어떤 검질 잇입니까? 보통.(밭벼밭에는 어떤 김 있습니까? 보통.)

103044 #1 그것도 마찬가지라. 여름에 나는 검질은 다 그거. 겨울에 나는 검질허고 틀린 거뿐이지.(그것도 마찬가지야. 여름에 나는 김은 다 그거. 겨울에 나는 김하고 다른 거뿐이지.)

103044 #2 제완지. 춤제완지[139].(바랭이. ‘춤제완지’.)

---

137) ‘우씨’는 밭을 갈아난 다음에 뿌리는 씨다. ‘우’는 표준어 ‘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38) ‘가름팟’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을 말한다. ‘가름’은 마을, ‘가름’의 ‘ㅁ’에 ‘밧’의 ‘ㅂ’이 연결될 때 거센소리인 ‘ㅍ’으로 바뀌어 ‘팟’이 되었다. ‘팟’은 표준어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39) ‘춤제완지’는 바랭이의 일종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춤제완지’는 ‘대롱제완지’에 비해 잎이 잘지만 길이는

103044 @ 예.(예.)

103044 #1 제완지도 두 가지.(바랭이도 두 가지.)

103044 #2 여름 농사는 제완지가 주로 나는 거주게.(여름 농사는 바랭이가 주로 나는 거지.)

103044 #1 대롱제완지[140] 잇곡 춤제완지 잇곡.('대롱제완지' 있고 '춤제완지' 있고.)

103044 @ 자예, 대롱제완지하고 춤제완지는 어떵 ᄐᆞ난 거?(자요, '대롱제완지'하고 '춤제완지'는 어떻게 다른 거?)

103044 #1 춤제완지는 이파리가 좀 줄곡.('춤제완지'는 이파리가 좀 잘고.)

103044 @ 예.(예.)

103044 #1 저 길이가 좀 길어.(저 길이가 좀 길어.)

103044 @ 예.(예.)

103044 #1 대롱제완지는 이파리가 ᄒᆞ꼼 줄, 저 작으면서 이파리가 쪼꼼 넓주.('대롱제완지'는 이파리가 조금 잘, 저 작으면서 이파리가 조금 넓지.)

103044 @ 아, 이파리가 더 넓어예? 요즘 여름이니까 대롱제완지영 춤제완지영 보이켜예?(아, 이파리가 더 넓다고요? 요즘 여름이니까 '대롱제완지'랑 '춤제완지'랑 보이겠네요?)

103044 #1 지금 춤제완지는 이디도 잇는디 저 대롱제완지는.(지금 '춤제완지'는 여기도 있는데 저 '대롱제완지'는.)

103044 #2 대롱제완지 아무 디나 나지 아녀.('대롱제완지' 아무 데나 나지 않아.)

103044 #1 아직 안 나서.(아직 안 났어.)

103044 @ 아.(아.)

103044 #1 그 장마 뒈사 나주.(그 장마 돼야 나지.)

103044 #2 저 목장밧[141]디레 그 대롱제완진 나주 가름팟[142]디렌 대롱제완지 안 나.(저 '목장밭'으로 그 '대롱제완지'는 나지 '가름팟'으론 '대롱제완지' 안 나.)

103044 @ 여기는.(여기는.)

103044 #1 우리 낭 아래도 춤제완지 하나썩 봐전게.(우리 나무 아래도 '춤제완지' 하나씩 보이던데.)

103044 @ 예, 나중에 어느 게 춤제완진지.(예, 나중에 어느 게 '춤제완지'인지.)

103044 #2 춤제완지 완전히 좋은, 좋은 제완지.('춤제완지' 완전히 좋은, 좋은 바랭이.)

103044 @ 음.(음.)

103044 #1 좋은 제완지.(좋은 바랭이.)

길다.

140) '대롱제완지'는 바랭이의 일종이다.

141) '목장밧'은 목장으로 사용하는 밭을 말한다.

142) '가름팟'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이다. '가름+팟' 구성으로, '가름'은 마을, '팟'은 '밧'에 앞의 'ㅁ'의 영향으로 /ㅎ/이 첨가된 형태다.

103044 @ 음.(음.)

103044 #2 대롱제완진 나쁜 거.(‘대롱제완지’는 나쁜 거.)

103044 @ 무사?(왜?)

103044 #2 막 줄 벋엉 가멍 허는 거.(마구 줄 뻗어 가면서 하는 거.)

103044 @ 아.(아.)

103044 #1 줄 벋엉 가곡 그거는 저 춤제완지는.(줄 뻗어서 가고 그거는 저 ‘춤제완지’는.)

103044 #2 드릇밧[143]디 나는 거.(‘드릇밧’에 나는 거.)

103044 #1 밧갈쉐[144] 촐엔 헤근에 옛날 제완지, 그거 촐 비영 밧갈쉐, 겨울에 밧갈쉐, 밧가는 쉐만 멕이는 거.(‘밧갈쉐’ 꼴이라고 해서 옛날 바랭이, 그거 꼴 베어서 ‘밧갈쉐’, 겨울에 ‘밧갈쉐’, 밭가는 소만 먹이는 거.)

103044 @ 춤제완지는? 아 거는 촐이구나, 완전히.(‘춤제완지’는? 아 거는 꼴이구나, 완전히.)

103044 #2 춤제완지옌 헌 게 풀 중에 젤 일등.(‘춤제완지’라고 한 게 풀 중에 젤 일등.)

103044 @ 음.(음.)

103044 #1 이 대롱제완지는 저 소도 잘 안 먹어.(이 ‘대롱제완지’는 저 소도 잘 안 먹어.)

103044 @ 아.(아.)

103044 #2 아무 디나 나지도 아녀메게.(아무 데나 나지도 않아.)

103045 @ 예, 예. 그 다음에 산뒤는 어떤 식으로 수확헤마씨?(예, 예. 그 다음에 밭벼는 어떤 식으로 수확해요?)

103045 #1 산뒨 어떵 허여. 그자.(밭벼는 어떻게 해. 그저.)

103045 #2 호미로 비영.(낫으로 베어서.)

103045 @ 으.(으.)

103045 #1 비영 ᄆᆞᆯ리왕 무껑 집의 아져당.(베어서 말려서 묶어서 집에 가져다가.)

103045 @ 응.(응.)

103045 #1 단차 놩 마주 놩 때려.(단째 놔서 마주 놔서 때려.)

103045 @ 아아.(아아.)

103045 #1 풀지 아녕.(풀지 않고.)

103045 @ 풀지 안헤예?(풀지 않는다고요?)

103045 #1 이거 소독[145] ᄀᆞ린덴 허주기. 소독 ᄀᆞ렷젠.(이거 ‘소독’ 갈긴다고 하지. 소독 갈겼다고.)

---

143) ‘드릇밧’은 ‘드르+밧’ 구성으로, ‘드르’는 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들판의 의미로 쓰였다.

144) ‘밧갈쉐’는 밭을 갈 때 이용하는 소를 말한다. 보통 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암소를 밭갈이에 이용하기도 한다.

145) ‘소독’은 벼나 억새 따위의 꽃줄기를 말한다.

103045 @ 소독 ᄀᆞ렴쩌.(‘소독’ 갈긴다.)

103045 #1 양짝으로 영 놩 떨엉 뒈싸놩 떨곡 이렇게 헤영은에 헌 다음에 이 풀엉.(양쪽으로 이렇게 놓아서 떨어서 뒤집어 놓아서 털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 풀어서.)

103045 @ 음.(음.)

103045 #1 요 가운디 시방 쏘곱에는 안 털어졋다 말여.(요 가운데 시방 속에는 안 털어졌다 말야.)

103045 @ 예.(예.)

103045 #1 게난 이걸 영 페왕 이제 페와 놩 이제 뜨리주, 또.(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펴서 이제 펴 놓아서 이제 때리지, 또.)

103045 @ 아, 게난 이거는 다른 거 허고 ᄐᆞ나게 그냥 처음에는 무껑은에.(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하고 다르게 그냥 처음에는 묶어서.)

103045 #1 으.(으.)

103045 #2 일차는 좋은 ᄋᆞ물만 털어 아상.(일차는 좋은 여물만 털어 가지고.)

103045 @ 음.(음.)

103045 #1 거 소독 ᄀᆞ린덴 허여.(거 ‘소독’ 갈긴다고 해.)

103045 #2 그 다음엔 안 털어진 거 페와낭은에.(그 다음엔 안 털어진 거 펴놓아서.)

103045 #1 소독 소독 칠 때가 산듸 떨어지는 게 여문 거만 떨어지주게.(‘소독’ ‘소독’ 칠 때가 밭벼 떨어지는 게 여문 거만 떨어지지.)

103045 @ 으음. 게난 그걸 게니까 소독 ᄀᆞ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예?(으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소독’ 갈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103045 #2 소독 때려둬근엥에.(‘소독’ 때려둬서.)

103045 @ 으. 그 다음에 소독 ᄀᆞ려뒁은에. 이것도 도께로 허는 거마씨?(으. 그 다음에 ‘소독’ 갈겨두고. 이것도 도리깨로 하는 거예요?)

103045 #1 으.(으.)

103045 @ 도께로. 산듸클로는 안 헙니까?(도리깨로. 그네로는 안 합니까?)

103045 #2 저 도께로 아년 때 클로 홀트는 거.(저 도리깨로 않을 때 기계로 홅는 거.)

103045 @ 어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주로 다 도께로 헷구나예?(어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주로 다 도리깨로 했군요?)

103045 #1 거의 이.(거의 이.)

103045 @ 예. 산듸로는 뭐헤마씨?(예. 밭벼로는 뭐했어요?)

103046 #1 으?(으?)

103046 @ 산듸로는.(밭벼로는.)

103046 #2 밥허는 거.(밥하는 거.)

103046 @ 산듸쏠로는?(밭벼쌀로는?)

103046 #2 곤밥 헤영 먹곡.(흰밥 해서 먹고.)

103046 #1 밥헹 먹주.(밥해서 먹지.)

103046 @ 으, 그게 곤밥이라예. 옛날에예. 곤밥도 허고?(으, 그게 흰밥이네요. 옛날에요. 흰밥도 하고?)

103046 #1 산듸밥[146]옌 허영은에.('산듸밥'이라고 해서.)

103046 @ 으.(으.)

103046 #1 건 제ᄉᆞ 때나 허영 먹엇주 그냥은 못 먹고.(건 제사 때나 해서 먹었지, 그냥은 못 먹고.)

103046 @ 아, 그걸 산, 곤밥이렌 안 헹 산듸밥이렌도 헷수가?(아, 그걸 산, 흰밥이라고 안 해서 '산듸밥'이라고도 했습니까?)

103046 #2 아니 곤밥엔 허곡게. 산듸쏠로 헌 거난 산듸밥.(아니 흰밥이라고 하고. 밭벼쌀로 한 거니까 '산듸밥'.)

103046 @ 어.(어.)

103046 #2 제사 때 헐 때 곤밥.(제사 때 할 때 흰밥.)

103046 @ 제사 때 허면 곤밥엔 허곡 평소에는 산듸밥 헹은에.(제사 때 하면 '흰밥'이라고도 하고 평소에는 '산듸밥' 해서.)

103046 #2 산듸밥엔 특별허게 안 헹 곤밥.('산듸밥'이라고 특별하게 안 해서 흰밥.)

103046 @ 곤밥.(흰밥.)

103046 #1 산듸, 산듸로 거 밥을 허니까 산듸밥이엔 헤실 테주.(밭벼, 밭벼로 거 밥을 하니까 '산듸밥'이라고 했을 테지.)

103046 @ 게난 어쨋든 곤밥이라예?(그러니까 어쨌든 '흰밥'이네요?)

103046 #2 하여튼 곤밥.(하여튼 흰밥.)

103046 @ 떡도 허곡. 여기도 산듸쏠로 떡 하영 헷수가?(떡도 하고. 여기도 밭벼쌀로 떡 많이 했습니까?)

103046 #2 곤떡[147] 헐 땐 산듸쏠로만 헷주.(흰떡 할 땐 밭벼쌀로만 했지.)

103046 @ 으.(으.)

103046 #1 장 난 때나 대소상 때는 그 오, 떡을 다섯 가지.(장 난 때나 대소상 때는 그 오, 떡을 다섯 가지.)

103046 @ 예.(예.)

103046 #1 그거를 거의 그 산듸쏠허고 피쏠허곡 허영 두 가지로 허영.(그거를 거의 그 밭벼쌀하고 핍쌀하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서.)

103047 @ 으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헤나면 찍?(으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해나면 짚?)

103047 #1 찍은 그 ᄆᆞᆯ 먹주게.(짚은 그 말 먹지.)

---

146) '산듸밥'은 밭벼쌀로 지은 밥이다.

147) '곤떡'은 흰쌀로 만든 떡이다.

103047 @ 산듸찍.(밭볏짚.)
103047 #2 산듸찍도 물 잘 먹어.(밭볏짚도 말 잘 먹어.)
103047 @ 아아.(아아.)
103047 #2 물 촐.(말 꼴.)
103047 #1 그게 산듸찍이 딴 풀에 비헹 쫌 질겨.(그게 밭볏짚이 딴 풀에 비해서 좀 질겨.)
103047 @ 어.(어.)
103047 #1 질기는 땜에 물은 우아래 니빨이 이시난 허는데 소는 이빨이 우알이 엇주.(질기는 땜에 말은 위아래 이빨이 있으니까 하는데 소는 이빨이 위아래가 없지.)
103047 @ 예.(예.)
103047 #1 게연 따문에 산디찍을 주면은 씹어 먹지 못허여.(그런 때문에 밭볏짚을 주면은 씹어 먹지 못해.)
103047 @ 거는 쉐는 안 먹고.(거는 소는 안 먹고.)
103047 #1 안 줘. 쉐는 아예 안 줘.(안 줘. 소는 아예 안 줘.)
103047 @ 아, 게난 물 촐로 이제 주로?(아, 그러니까 말 꼴로 이제 주로?)
103047 #1 물은 씹어 먹는디 쉐는 먹어놩 바끄멍 새기는 따문에 안 뒈.(말은 씹어 먹는데 소는 먹어놔서 뱉으면서 새기는 때문에 안 돼.)
103047 @ 으음. 게도 이제 산듸 헐 때는 아까 이제 그 보리 불릴, 아니 저 조 불릴 때처럼 맛잇는 밥헤 먹고 영 헙니까?(으음. 그래도 이제 밭벼 할 때는 아까 이제 그 보리 밟을, 아니 저 조 밟을 때처럼 맛있는 밥해 먹고 이렇게 합니까?)
103047 #1 아 그렇주게. 건 마찬가지.(아 그렇지. 건 마찬가지.)
103047 @ 마찬가지. 것도 불리는 거난예.(마찬가지. 것도 밟는 거니까요.)
103047 #1 불려야주게.(밟아야지.)
103047 @ 아, 불리는 거난 그때도 삼춘은 강은에 낭그늘에서 허영 그거 보기만 허연?(아, 밟는 거니까 그때도 삼촌은 가서 그늘나무에서 해서 그거 보기만 했어요?)
103047 #1 보기만 허주게.(보기만 하지.)
103047 @2 (웃음.)
103047 @1 (웃음). 피 농산 어떵 지엇수가? 삼촌.((웃음). 피 농산 어떻게 지었습니까? 삼촌.)
103047 #1 피?(피?)
103047 @ 예. 아까 피 같이 헷덴 헨게마는.(예. 아까 피 같이 했다고 하더니만.)
103047 #1 게난 대개 옛날은 이 새왓 갈앙 많이 헷고.(그러니까 대개 옛날은 이 띠밭 갈아서 많이 했고.)
103047 @ 예.(예.)
103047 #1 피. 경 아녀민 또 막 아주 저 산에 궂인 밧.(피. 그렇게 않으면 또 매

우 아주 저 산에 궂은 밭.)
103047 @ 음.(음.)
103047 #1 딴 농사 못험직헌 밧듸 강 피는 쪼꼼만헌 밧은 잘 크니까.(딴 농사 못할 것 같은 밭에 가서 피는 조그마한 밭은 잘 크니까.)
103047 @ 아아. 게난.(아아. 그러니까.)
103047 #1 목장에 강.(목장에 가서.)
103047 @ 피도 볼려마씨?(피도 밟아요?)
103047 #1 피도 볼리주.(피도 밟지.)
103047 @ 아, 것도 이제 볼리는 식으로 한 거고예.(아, 것도 이제 밟는 식으로 한 거고요.)

고구마 농사

103049 @ 우리 성읍에서 감저도 싱것수가?(우리 성읍에서 고구마도 심었습니까?)
103049 #1 고구마?(고구마?)
103049 @ 예.(예.)
103049 #1 어. 싱것주.(어. 심었지.)
103049 @ 하영 싱건?(많이 심었어요?)
103049 #1 고구마는 좀 많이 심어.(고구마는 좀 많이 심어.)
103049 @ 아, 게믄 감저 싱그젠 허면 어떤 준비가 필요헤마씨?(아, 그러면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103049 #1 그거?(그거?)
103049 @ 예.(예.)
103049 #1 저 보릿그르 ᄀᆞ튼 디도 많이 놓주게. 감저는.(저 보리그루 같은 데도 많이 놓지. 고구마는.)
103049 @ 예.(예.)
103049 #1 이 보릿그르 초불 갈아 놧당.(이 보리그루 초벌 갈아 놨다가.)
103049 @ 음.(음.)
103049 #1 감저꿀 키울, 감저꿀은 장, 저거 장마에 많이 커이.(고구마줄기 키울, 고구마줄기는 장, 저거 장마에 많이 커.)
103049 @ 예.(예.)
103049 #1 게민 크는 냥 짤라당 그디 강 두불 갈면 또 싱그주.(그러면 크는 대로 잘라다가 거기 가서 두벌 갈면 또 심지.)
103049 @ 게믄 그 감저꿀을 만들젠 허면 언제 그 씨를 놓는 거?(그러면 그 고구마줄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 그 씨를 놓는 거?)
103049 #1 이것은 저 봄에.(이것은 저 봄에.)
103049 @ 봄에?(봄에?)

103049 #1 하여튼 삼월 이십일 전에 심어야지.(하여튼 삼월 이십일 전에 심어야지.)

103049 @ 음력?(음력?)

103049 #1 아.(아.)

103050 @ 삼월 이십일 전에 그 한 번 그 감저씨를 묻어 봅서. 어떤 식으로 묻어신지.(삼월 이십일 전에 그 한 번 그 고구마씨를 묻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묻었는지.)

103050 #1 파니를 요만이 만들어이.(이랑을 요만큼 만들어.)

103050 @ 예.(예.)

103050 #1 경혜영 여기 여기 이렇게 싱그주게.(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심지.)

103050 @ 아.(아.)

103050 #1 경허영 이렇게 쭉허게 싱거놩 우의 비니루 더껑.(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하게 심어놓아서 위에 비닐 덮어서.)

103050 @ 비니루 더펑근에 어어.(비닐 덮어서 어어.)

103050 #1 옛날은 비니루 엇인 때는.(옛날은 비닐 없는 때는.)

103050 @ 음.(음.)

103050 #1 이딜 요 깊일 파이.(여길 요 깊일 파.)

103050 @ 예.(예.)

103050 #1 팡 쉐걸름 이디 갖당 놩.(파서 소두엄 여기 갖다가 놔서.)

103050 @ 아.(아.)

103050 #1 쉐걸름 우의 흑 더펑.(소두엄 위에 흙 덮어서.)

103050 @ 예.(예.)

103050 #1 그건 열 알로 열이 나야 빨리 난다고 헤서 거 열 내우젠 쉐걸름은 갖당 꺼는 거.(그건 열 아래로 열이 나야 빨리 난다고 해서 거 열 내려고 소두엄은 갖다가 까는 거.)

103050 @ 아아.(아아.)

103050 #2 모종 놓는 거.(모종 놓는 거.)

103050 @ 모종 놓는 거예? 경허영은에 감저씨 놩은에.(모종 놓는 거요? 그렇게 해서 고구마씨 넣어서.)

103050 #1 그때는 비니루가 없는 때.(그때는 비닐이 없는 때.)

103050 @ 예.(예.)

103050 #1 게민 이 우읜 그냥 내불민 나.(그러면 이 위에는 그냥 내버리면 나.)

103050 @ 으, 게믄 모종 헹은에 질루는 시간이 어느 정도 뒈는 거라마씨?(으, 그러면 모종 해서 기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3050 #1 저게 두어 둘, 두어 둘 이상 걸리주.(저게 두어 달, 두어 달 이상 걸리지.)

103050 @ 게믄 그 감저 가는 시기는? 아까.(그러면 그 고구마 가는 시기는? 아까.)

103050 #1 저것도 유월절[148] 뒈야 놔.(저것도 유월절 돼야 놔.)

103050 @ 아, 유월절 뒝 보리그르에 허는 거난예?(아, '유월절' 되어서 보리그루에 하는 거니까요?)

103050 #1 막 저 마지막 제일 마지막 노는 사름은 초복꼬지 놔.(매우 저 마지막 제일 마지막 놓는 사람은 초복까지 놔.)

103050 #2 건 꿀 기차당 놓는 거.(건 덩굴 끊어다가 놓는 거.)

103051 @ 꿀 기차당. 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감저밧듸도 걸름 헷수가?(덩굴 끊어다가. 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고구마밭에도 거름 했습니까?)

103051 #1 걸름은 무신 걸름 헐 게.(거름은 무슨 거름 할 게.)

103051 #2 걸름 헤사게.(거름 해야.)

103051 #1 걸름이 헐 거름 잇엇어? 아주 옛날에는 걸름 엇주게.(거름이 할 거름 있었어? 아주 옛날에는 거름 없지.)

103051 #2 꿀 기차당 싱그는 거.(덩굴 끊어다가 심는 거.)

103051 @ 예.(예.)

103051 #1 걸름이 엇주게.(거름이 없지.)

103051 @ 거는 엇고예? 게믄 꿀 기차당 밧 갈앙 그냥 싱그민 뒈여?(거는 없고요? 그러면 덩굴 끊어다가 밭 갈아서 그냥 심으면 되어?)

103051 #1 파니에 싱경.(이랑에 심어서.)

103051 #2 기냥 파니 만들앙 꾹꾹 질렁 내불민.(그냥 이랑 만들어서 꾹꾹 찔러서 내버리면.)

103051 @ 아, 그거는 잘 사는 거구나예?(아, 그거는 잘 사는 거군요?)

103051 #1 아, 감, 고구마는 잘 살아.(아, 감, 고구마는 잘 살아.)

103051 @ 아 거는.(아 거는.)

103051 #2 요만씩 짤라근에.(요만씩 잘라서.)

103051 @ 예.(예.)

103051 #2 똑똑똑 싱그민.(똑똑똑 심으면.)

103052 @ 아, 거는 꿀 기차당 이제 하믄 뒈는 거. 감저밧듸도 검질 여름에 하영 메지 안헙니까?(아, 거는 덩굴 끊어다가 이제 하면 되는 거. 고구마밭에도 김 여름에 많이 매지 않습니까?)

103052 #2 감저밧듸도 검질 시민 메여사주.(고구마밭도 김 있으면 매야지.)

103052 #1 혼 번.(한 번.)

103052 @ 혼 번? 그.(한 번? 그.)

103052 #1 안 메는 디도 잇어.(안 매는 데도 있어.)

148) '유월절'은 이십사절기 가운데 '소서'를 말한다.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음력 6월, 양력 7월 7일이나 8일경이 된다.

103052 @ 아 감저밧딘.(아 고구마밭에는.)
103052 #1 이 감저꿀이엔 헌 게.(이 고구마덩굴이라고 한 게.)
103052 @ 예.(예.)
103052 #1 이게 어우러졍 부뜨기 시작허민 이 검질 나는 게 검질이 숨을 못 쉬주.(이게 어우러져서 붙기 시작하면 이 김 나는 게 김이 숨을 못 쉬지.)
103052 @ 음.(음.)
103052 #2 그 아까 제완지엔 헌 거 그거나 나민.(그 아까 바랭이라고 한 거 그거나 나면.)
103052 #1 허카.(할까.)
103052 #2 저기 허곡 경허민 안 나.(저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나.)
103052 #1 속 같은 거는 감자 놔 놔민 속이 엇어져불어.(쑥 같은 거는 고구마 놔 놓으면 쑥이 없어져버려.)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몰, 감자에 몰령.(몰, 고구마에 몰려서.)
103052 #2 감자에 몰령.(고구마에 몰려서.)
103052 #1 엇어져.(없어져.)
103055 @ 아, 속이 엇입니까? 아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감자 수확은 언제 허는 거우과?(아, 쑥이 없습니까? 아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고구마 수확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3055 #2 감자 수확 가을에.(고구마 수확 가을에.)
103055 #1 아, 저 입동 뒈사.(아, 저 입동 돼야.)
103055 @ 입동 뒈사. 게민 감저 수확허는 거는 다른 거하고 좀 ᄐᆞ나잖아예. 어떤 식으로 헤야 뒈. 감저 수확. 줄들도 이렇게 꿀 더꺼져불고 허민?(입동 돼야. 그러면 고구마 수확하는 거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고구마 수확. 덩굴들도 이렇게 덩굴 덮어져버리고 하면?)
103055 #1 줄 걷어뒁.(덩굴 걷어두고.)
103055 #2 줄, 줄 다 걷어뒁은에.(덩굴, 덩굴 다 걷어두고.)
103055 #1 걷어내영 손으로 파는 사름도 잇고.(걷어내서 손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103055 @ 예.(예.)
103055 #1 쉐로 강 영.(소로 가서 이렇게.)
103055 #2 잠대로 허는 사름도 잇고.(쟁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3055 #1 가운디를 ᄒᆞᆫ 번 갈아놔근에 줏는 사름도 잇곡.(가운데를 한 번 갈아놓아서 줍는 사람도 있고.)
103055 @ 어, 줏는 사람도 잇곡 헹은에. 아, 게민 삼춘네 감저는 언제 적까지 갈아봔?(어, 줍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 그러면 삼촌네 고구마는 언제 적까지 갈아봤어요?)

103055 #1 우리?(우리?)
103055 @ 예.(예.)
103055 #1 감저 설러분 지가 흔 이십 년 넘엇주. 흔 이십오 년.(고구마 그만둔 지가 한 이십 년 넘었지. 한 이십오 년.)
103055 #2 잊어불만이 뒈엄주.(잊어불만큼 되고 있지.)
103055 #1 잊어불엄주.(잊어버리고 있지.)
103055 @2 (웃음.)
103055 #2 감자 놔놘 거 잊어불주.(고구마 놨던 거 잊어버리지.)
103055 @ 잊어불엄서예?(잊어버리고 있다고요?)
103055 #1 전분공장 엇어지난 설러분 거.(전분공장 없어지니까 그만둔 거.)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전분공장 헐 때ᄁᆞ진 헷는디 우리 저 서귀포ᄁᆞ지, 서귀포 전분공장ᄁᆞ지 감저 실런 풀레 가와신디.(전분공장 할 때까진 했는데 우리 저 서귀포까지, 서귀포 전분공장까지 고구마 실어서 팔러 다녀왔는데.)
103056 @ 음, 여기서 직접 혜갖고예? 예. 경허고 그 옛날에는 씨 놓젠 허면 감저들 이제 보관혜야 뒈지 안헙니까? 어떤 식으로 보관헷수과?(음, 여기서 직접 해갖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옛날에는 씨 놓으려고 하면 고구마들 이제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관했습니까?)
103056 #1 구뎅이 팡. 땅.(구덩이 파서. 땅.)
103056 @ 구뎅이, 으, 그 말 ᄀᆞᆯ아줍서?(구덩이, 으, 그 말 말해주십시오?)
103056 #1 구뎅이 파근에.(구덩이 파서.)
103056 @ 으.(으.)
103056 #1 한 일 메다 오십 깊이를 파.(한 일 미터 오십 깊이를 파.)
103056 @ 예.(예.)
103056 #1 게난 여기 둘레는 약 한 일 메다 오십 둘레로 파면은 이 정돈 뒈주게.(그러니까 여기 둘레는 약 한 일 미터 오십 둘레로 파면은 이 정돈 되지.)
103056 @ 예.(예.)
103056 #1 파근에 허면 이디가 보통 한 이십 가마 이상 들어가.(파서 하면 여기가 보통 한 이십 가마 이상 들어가.)
103056 @ 아.(아.)
103056 #1 게면은 이 가에는 뭘 세우느냐면 이 조칩이 잘 안 썩주게.(그러면 이 가에는 뭘 세우느냐면 이 조짚이 잘 안 썩지.)
103056 @ 예.(예.)
103056 #1 게난 조칩 같은 거 세왕 감저 비와놩 땅, 이 땅 수평뒐 때ᄁᆞ지는 막 그냥 비와놩.(그러니까 조짚 같은 거 세워서 고구마 부어놓아서 땅, 이 땅 수평될 때까지는 막 그냥 부어놓아서.)
103056 @ 으.(으.)

103056 #1 땅 수평뒈민은 요렇게 만들어야 뒈. 이딜.(땅 수평되면은 요렇게 만들어야 돼. 여길.)

103056 @ 경사지게.(경사지게.)

103056 #1 요렇게 만들어근에 이딘 검질 더펑 우의 흑 놩.(요렇게 만들어서 여긴 검불 덮어서 위에 흙 놓아서.)

103056 @ 무슨 검질 더퍼? 그때는.(무슨 검불 덮어? 그때는.)

103056 #1 아, 이건 아무 검질 더퍼도 뒈여.(아, 이건 아무 검불 덮어도 되어.)

103056 @ 아.(아.)

103056 #1 검질 더퍼근에 흑 검질 안 보이게 이제 놩 잘 영 불르주게.(검불 덮어서 흙 검불 안 보이게 이제 놔서 잘 이렇게 밟지.)

103056 @ 예.(예.)

103056 #1 그 저 바람 들어가지 말렌.(그 저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103056 @ 음.(음.)

103056 #1 경허영 그 다음엔 ᄂᆞ람지 새 헤영 ᄂᆞ람지 여평 둘렁.(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이엉 띠 해서 이엉 엮어서 둘러서.)

103056 @ 예.(예.)

103056 #1 경허영 우의 주지 씌우주.(그렇게 해서 위에 주저리 씌우지.)

103056 @ 주지도 씌우고. 그것도 절차가 복잡허우다예?(주저리도 씌우고.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네요?)

103056 #1 어, 복잡허주.(어, 복잡하지.)

103056 @ 게영 놔두믄 안 썩어?(그렇게 해서 놔두면 안 썩어?)

103056 #1 아 게난 것도.(아 그러니까 것도.)

103056 @ 예.(예.)

103056 #1 이렇게 또 자꾸 강 봐야 뒈.(이렇게 또 자꾸 가서 봐야 돼.)

103056 @ 예.(예.)

103056 #1 이렇게 만져 보면은 이 감저가 놔근에 한 일주일 사이는 막 열이 올라와.(이렇게 만져 보면 이 고구마가 놔서 한 일주일 사이는 아주 열이 올라와.)

103056 @ 아.(아.)

103056 #1 그때는 ᄌᆞ주 강 이 두껑이, 주젱이도 올아주곡 뭘로 허지 아녀민 이 저 열이 만헤부리민 썩어부니까.(그때는 자주 가서 이 뚜껑, 주저리도 열어주고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 이 저 열이 많아버리면 썩어버리니까.)

103056 @ 아아.(아아.)

103056 #1 게난 도수는 사름 영 손 찔러보멍 손 짐작 삼앙 맞추는 거 도수.(그러니깐 도수는 사람 이렇게 손 찔러보면서 손 짐작 삼아서 맞추는 거 도수.)

103056 @ 게영 그때는 ᄒᆞ꼼 뜻인 때고 허니까 이제.(그래서 그때는 조금 따뜻한 때고 하니까 이제.)

103056 #1 완전 겨울 틀엉 눈 오게 뒈민 안 걷어보는디 그 전이는 자꾸 걷어보

고.(완전 겨울 들어서 눈 오게 되면 안 걷어보는데 그 전에는 자꾸 걷어보고.)

103056 @ 그치룩허영은에 허면 어, 잘 관리 안 허면 씨감저 하나토 없곡 허는 거구나.(그처럼 해서 하면 어, 잘 관리 안하면 씨 고구마 하나도 없고 하는 거구나.)

103056 #1 봄 낭 씨감저 사레 뎅기는 사름이 오죽 한다고.(봄 되어서 씨 고구마 사러 다니는 사람이 오죽 많다고.)

103056 @ 어어.(어어.)

103056 #1 춤.(참.)

10305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그 감저꿀은 어떵 뭐 헷수가?(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고구마덩굴은 어떻게 뭐 했습니까?)

103058 #1 건 쉐도 멕이곡 물도 멕이고.(건 소도 먹이고 말도 먹이고.)

103058 @ 쉐도 멕이고.(소도 먹이고.)

103058 #1 밧듸서 물리왕 무꺼당.(밭에서 말려서 묶어다가.)

103058 @ 어, 그건 무끌 때는 뭘로 무꺼?(어, 그건 묶을 때는 무엇으로 묶어?)

103058 #1 무꺼? 그거는 이 새 허영 께 틀어야 뒈여.(묶어? 그거는 이 띠 해서 매끼 꼬아야 되어.)

103059 @ 아아, 께가 건 필요헌 거라예. 웨냐하면 지대로 무끌 수 엇이난 이제 하고. 감저 절간감저도 헤납디가?(아아, 매끼가 건 필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저대로 묶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고. 고구마 절간고구마도 했었습니까?)

103059 #1 절간 많이 헷주.(절간 많이 했지.)

103059 @ 예, 그 절간 헷던 얘기 한번 헤줍서.(예, 그 절간 했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103059 #1 절간은, 이 절간헐 자리를 자리를 잘 봐야뒈이.(절간은, 이 절간할 자리를 자리를 잘 봐야돼.)

103059 @ 예.(예.)

103059 #1 그 바람이 무슨 바람 불민이 바람이 잘 들어올, 통헐 딜 헤야 뒈는디 게난 ᄒᆞ꼼 되도록이면 동산.(그 바람이 무슨 바람 불면 바람이 잘 들어올, 통할 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되도록이면 동산.)

103059 @ 으.(으.)

103059 #1 이런 디 강 잔디밧 그 헤근에 허민은 그디 강 시꺼다 놩 감젓기계[149]로 디리치멍 썰어.(이런 데 가서 잔디밭 그 해서 하면 거기 가서 실어다 놓아서 '감젓기계'로 집어넣으면서 썰어.)

103059 @ 음.(음.)

103059 #1 경허영 물롸근에, 널엉 물롸.(그렇게 해서 말려서, 널어서 말려서.)

103059 @ 음.(음.)

103059 #2 게 혼 둬 번은 뒤집어 줘야 뒈이. 경허영 그거 물르민 걷어 와근에.

149) '감젓기계'는 고구마를 썰 때 사용하는 기계다. 절간고구마를 만들 때 사용한다. '감저'는 표준어 '고구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그래 한 둬 번은 뒤집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거 마르면 걷어 와서.)

103059 @ 으, 둘밤이도 강은에 걷어봅디가?(으, 달밤에도 가서 걷어 봅디까?)

103059 #1 아이고, 비왐직허민 어떵헐 거라. 갑자기 비왐직허민 밤이도 들이주.(아이고, 비올 것 같으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비올 것 같으면 밤에도 들이지.)

103059 @ 절간 헹 감저뻿데기.(절간 해서 고구마 고지.)

103059 #1 우리 셍기리[150]도 마찬가지. 셍기리 헐 때도 그렇게 허고. 밤에 비왐직허민 강 더퍼야 뒈여.(우리 무말랭이도 마찬가지. 무말랭이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밤에 비올 것 같으면 가서 덮어야 되어.)

103059 @ 성읍은 예전에 셍기리도 하영 헷구나.(성읍은 예전에 무말랭이도 많이 했구나.)

103059 #1 셍기리도 우리 절간 허당 절간 설러부난 셍기릴 헷어.(무말랭이도 우리 절간 하다가 절간 그만둬버리니까 무말랭이를 했어.)

103059 @ 아아.(아아.)

103059 #1 게난 절간 헐 때보다 셍기리 헐 때가 돈은 쪼끔 벌어신디이.(그러니까 절간 할 때보다 무말랭이 할 때가 돈은 조금 벌었는데.)

103059 @ 음.(음.)

103059 #1 나 이 집 짓은, 온 후제도 셍기릴 헤신디.(나 이 집 지은, 온 후에도 무말랭이를 했는데.)

103059 @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헹은에 이제 우리 조사 강 보민예, 이 감저 헐 때 추억 골아줍서 허민 그 둘밤이 그 뻿데기, 뻿데기 줏어난 그 얘기를 하영 헤.(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조사 가서 보면요, 이 고구마 할 때 추억 말해 주십시오 하면 그 달밤에 그 고지, 고지 주웠던 그 얘기를 많이 해.)

103059 #1 맞아. 그땐 저 글겡이.(맞아. 그땐 저 갈퀴.)

103059 @ 예.(예.)

103059 #1 글겡이를 픈는 게 엇이난 이녁냥으로 만들엉.(갈퀴를 파는 게 없으니까 이녁대로 만들어서.)

103059 @ 예.(예.)

103059 #1 만들앙벳긔 헤 볼 방법이 엇어. 글겡이로 영 모두왕 떨어진 건 손으로도 줍곡.(만들어서밖에 해 볼 방법이 없어. 갈퀴로 이렇게 모아서 떨어진 건 손으로도 줍고.)

103059 @ 아.(아.)

103059 #1 밤의도 비왐직허민 강 헷주.(밤에도 비올 것 같으면 가서 했지.)

기타 농사

103060 @ 예, 맞수다. 삼춘 여기서도 수박도 갑니까?(예, 맞습니다. 삼촌 여기서도 수박도 갑니까?)

---

150) '셍기리'는 일본어 'せん(千)+ぎり'에서 온 말이다. 무를 '천 갈래로 자른 것'에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

103060 #1 아니.(아니.)
103061 @ 이런 건 없고예. 츰웨 ᄀᆞ뜬 것들?(이런 건 없고요. 참외 같은 것들?)
103061 #1 츰웨도 아녀곡.(참외도 않고.)
103062 @ 고친 싱거시커라예?(고춘 심었겠네요?)
103062 #1 고치도 자기 먹을 거벳긔는 뭐 영업으론 아녀고.(고추도 자기 먹을 거밖에는 뭐 영업으론 않고.)
103062 @ 게난 고치는 보통 어느 계절에 갑니까?(그러니까 고추는 보통 어느 계절에 갑니까?)
103062 #1 어?(어?)
103062 @ 고치는 어느 계절에 가는 거?(고추는 어느 계절에 가는 거?)
103062 #1 봄에. 봄에.(봄에. 봄에.)
103062 #2 고치 지금 싱검주.(고추 지금 심고 있지.)
103062 #1 다 싱것주.(다 심었지.)
103062 @ 아.(아.)
103062 #2 싱그믄 지금 모종덜 다.(심으면 지금 모종들 다.)
103062 #1 모종 이디서 ᄑᆞ는 거 이시난 사당.(모종 여기서 파는 거 있으니까 사다가.)
103062 @ 예.(예.)
103062 #2 묘목 놩 ᄑᆞ난에 그 사름덜안티 강 사다근엥에 이녁 먹을 건 이녁대로 다 헙니다.(묘목 놔서 파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다가 이녁 먹을 건 이녁대로 다 합니다.)
103062 @ 옛날에는 다 씨로 싱것지예? 고치도예?(옛날에는 다 씨로 심엇지요? 고추도요?)
103062 #1 옛날은 감저 모종 놀 때 그 고치 모종도 놔야 뒈.(옛날은 고구마 모종 놓을 때 그 고추 모종도 놔야 돼.)
103062 @ 아아.(아아.)
103062 #2 고치 씨 놧당.(고추 씨 놨다가.)
103062 #1 거 놔근에 놩 모종 그 자리서 이 정도 커야 옮겨 싱것주게.(거 놔서 놔서 모종 그 자리서 이 정도 커야 옮겨 심었지.)
103062 @ 아, 씨로 바로 허는 게 아니고.(아, 씨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103062 #1 으.(으.)
103062 @ 음.(음.)
103062 #2 게난 ᄒᆞ꼼썩 이녁 먹을 것덜 싱것주, 그때는 하영 안 허여.(그러니까 조금씩 이녁 먹을 것들 심었지, 그때는 많이 안 해.)
103062 @ 예, 예, 예.(예, 예, 예.)
103062 #1 영업으론 허진 아녀고.(영업으론 하진 않고.)
103062 @ 예.(예.)

103062 #2 집의서 ᄒᆞ꼼 먹을 거벳긔.(집에서 조금 먹을 거밖에.)

103063 @ ᄂᆞ물 같은 것도 하영 갈아봣수가?(배추 같은 것도 많이 갈아봤습니까?)

103063 #2 ᄂᆞ물도 이딘 저 장사꾼덜 엇어.(배추도 여긴 저 장사꾼들 없어.)

103063 #1 자기 먹을 거.(자기 먹을 거.)

103063 #2 가는 사름덜은 잇어도 아무나 이녁 먹을 거나 허주. 장사꾼덜이 엇어.(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아무나 이녁 먹을 거나 하지. 장사꾼들이 없어.)

103063 @ 음.(음.)

103063 #1 풀지는 아녀고.(팔지는 않고.)

103064 @ 예, 삼춘, 그 놈삐도 하영 갈아봔? 이건 여자 삼춘이 놈삔 헐 거 닮아.(예, 삼촌, 그 무도 많이 갈아봤어요? 이건 여자 삼촌이 무는 할 거 같아.)

103064 #2 놈삐 여자나 남자 이젠 남자가 잘 허주. 여자가 이젠.(무 여자나 남자 이젠 남자가 잘 하지. 여자가 이젠.)

103064 #1 여자나 남자나 놈삐 가는 건 마찬가지.(여자나 남자나 무 가는 건 마찬가지.)

103064 @ 여기는 아까 셍기리 헷덴 허니까 놈삐는 하영 갈아실 거 아니?(여기는 아까 무말랭이 했다고 하니까 무는 많이 갈았을 거 아니?)

103064 #2 셍기리 이디 문 반농덜 헷주게.(무말랭이 여기 몽땅 반농들 했지.)

103064 #1 셍기리 갈 때는.(무말랭이 갈 때는.)

103064 @ 예.(예.)

103064 #1 이 소로 이렇게 파닐 멘들면.(이 소로 이렇게 이랑을 만들면.)

103064 @ 예.(예.)

103064 #1 씨를 뭘로 놓느냐 허면 사름 손으로 이렇게 놧어.(씨를 무엇으로 놓느냐 하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놨어.)

103064 @ 아, 놈삐는예? 어.(아, 무는요? 어.)

103064 #2 지금도 마찬가지.(지금도 마찬가지.)

103064 #1 지금은 기계로 허지만은.(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103064 @ 음.(음.)

103064 #1 옛날은 손으로 다 일일이 찔럿다고 씨를.(옛날은 손으로 다 일일이 찔렀다고 씨를.)

103064 @ 으음. 게믄 것도 고셍헌.(으음. 그러면 것도 고생한.)

103064 #1 아이고, 천 평 헐랴고 허면 여자 혼 네 사름 헤야뒈.(아이고, 천 평 하려고 하면 여자 한 네 사람 해야 돼.)

103064 @ 씨 허는 게 힘들겟다예? 게믄 그런 식으로 이제 헹, 그 놈삐도 종류가 ᄋᆞ라 개 잇엇덴 헙디다.(씨 하는 게 힘들겠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무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합디다.)

103064 #1 옛날은 종류가 벨로. 저 다꽝무수[151]허곡.(옛날은 종류가 별로. 저

‘다꽝무수’하고.)

103064 @ 예.(예.)

103064 #1 그 셍기리무수[152]벳긔는.(그 ‘셍기리무수’밖에는.)

103064 @ 없고.(없고.)

103064 #1 으.(으.)

103064 @ 그 다음 여름에 헤는 거는 무신거렌 헤? 이 썹 잇는 부분을 뭐렌 헤? 여기서는.(그 다음 여름에 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해? 이 잎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해? 여기서는.)

103064 #2 열무.(열무.)

103064 #1 열무. 열무.(열무. 열무.)

103064 #2 열무.(열무.)

103064 @ 열무.(열무.)

103064 #1 열무엔 허는디 이딘 뭐 먹을 사름 자기 먹을 거벳긔는.(열무라고 하는데 여긴 뭐 먹을 사람 자기 먹을 거밖에는.)

103064 @ 으.(으.)

103064 #1 장ᄉᆞ로는 안허고.(장사로는 안하고.)

103064 @ 걸 춤ᄂᆞ물엔 헙니까? 여기도.(걸 ‘춤ᄂᆞ물’이라고 합니까? 여기도.)

103064 #2 춤ᄂᆞ물. 놈삐는 춤ᄂᆞ물.(‘춤ᄂᆞ물’. 무는 ‘춤ᄂᆞ물’.)

103064 #1 놈삐보고 춤노물이렌 허주게.(무보고 ‘춤노물’이라고 하지.)

103064 @ 어, 이 밑에 놈삔 안 든 위에 거예?(어, 이 밑에 무는 안 든 위에 거요?)

103064 #2 으, 춤ᄂᆞ물.(으, ‘춤ᄂᆞ물’.)

103064 #2 춤ᄂᆞ물. 놈삐 드는 것도 춤ᄂᆞ물.(‘춤ᄂᆞ물’. 무 드는 것도 ‘춤ᄂᆞ물’.)

103064 @ 으.(으.)

103064 #2 놈삐 안 드는 것도 춤ᄂᆞ물.(무 안 드는 것도 ‘춤ᄂᆞ물’.)

103064 @ 음. 게니까 파랑헌 거 잇는 거를 춤ᄂᆞ물이렌 허는 거예?(음. 그러니까 파란 거 있는 거를 ‘춤ᄂᆞ물’이라고 하는 거요?)

103064 #2 베치 말고는 다 춤ᄂᆞ물.(배추 말고는 다 무.)

103065 @ 아. 그렇구나예. 그 다음 삼춘, 여기 지실도 싱거마씨?(아. 그렇군요. 그 다음 삼촌, 여기 감자도 심어요?)

103065 #1 어 감자?(어 감자?)

103065 @ 예.(예.)

103065 #2 막 하영 허여.(매우 많이 해.)

103065 #1 감자는 심는 사름덜은 지금도 심어.(감자는 심는 사람들은 지금도 심

151) ‘다꽝무수’는 단무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무를 말한다. 여기에서 ‘다꽝(たくあん)’은 단무지의 일본어이고, ‘무수’는 표준어 ‘무’에 대응하는 성읍1리의 말이다.

152) ‘셍기리무수’는 ‘셍기리’ 즉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무다. ‘셍기리(せんぎり)’는 무말랭이를 ‘천 갈래로 자른 건’처럼 가늘게 썬다는 데 비유해서 생긴 말이다.

어.)

103065 @ 아아.(아아.)

103065 #2 우리 성읍리도 싱그는 사름 신가?(우리 성읍리도 심는 사람 있는가?)

103065 #1 잇수다. 혼 멧 사름. 하진 안허고. 그 전에는 많이 헷는디 이젠 시세가.(있습니다. 한 몇 사람. 많진 않고. 그 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젠 시세가.)

103065 #2 지실을 여라 해 놔가난양.(감자를 여러 해 놓아가니까요.)

103065 @ 예.(예.)

103065 #2 그 감저 병이 다 걸려부난.(그 감자 병이 다 걸려버리니까.)

103065 @ 으.(으.)

103065 #2 그거 허당덜 문 망헷수다.(그거 하다가들 몽땅 망했습니다.)

103065 #1 나도 지슬 혼 멧 천 평 싱거봣는디.(나도 감자 한 몇 천 평 심어봤는데.)

103065 @ 예.(예.)

103065 #1 초담 헐 때는 병이 안 걸련게 한 삼 년 뒈가니까 벵 걸리기 시작허난 난 아년.(처음 할 때는 병이 안 걸리더니 한 삼 년 돼가니까 병 걸리기 시작하니까 난 않았어.)

103065 @2 같은 밧듸서 하면 그렇수가?(같은 밭에서 하면 그렇습니까?)

103065 #2 똑ᄀᆞ뜬 밧듸 것도양.(똑같은 밭에 것도요.)

103065 #1 같은 밧듸도 허고양 저 놈으게 씨가 하나 걸린 것만 어떵허영 들어가민은 그게 전렴이[절려미] 뭼신ᄀᆞ라양 하이 그 그 병을 잡질 못헙니다. 경헤연 나도 설러불언.(같은 밭에도 하고요 저 남의 씨가 하나 걸린 것만 어떡해서 들어가면 그게 전염 되고 있는지요 하이 그 그 병을 잡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만둬 버렸어.)

103065 @ 아.(아.)

103065 #2 옛날에 ᄒᆞ나썩 가다보민 잇언게양 이젠양 문딱 더데기병[153]이라.(옛날에 하나씩 가다보면 있더니만요 이젠요 몽땅 더뎅이병이야.)

103065 #1 ᄒᆞ나 들기 시작허민 거 잠깐 번식헙디다. 그 밧듸가 잇어나면은 그 밧듸 따시 놩은 걸리는 거.(하나 들기 시작하면 거 잠깐 번식합디다. 그 밭에가 있어나면 그 밭에 다시 놔서는 걸리는 거.)

103065 @ 게난 그치록헌 거를 아까 더덕?(그러니까 그처럼한 거를 아까 '더덕'?)

103065 #1 더더기병.(더뎅이병.)

103065 #2 더더기벵.(더뎅이병.)

103065 #1 더더기벵.(더뎅이병.)

103065 @ 아아, 더데기벵이렌 허는 거?(아아, 더뎅이병이라고 하는 거?)

103065 #2 더닥더닥허난 더데기벵.(더덕더덕하니까 더뎅이병.)

153) '더데기병'은 감자에 생기는 병 이름. 농촌에서는 이를 '더뎅이병'이라고 한다.

103065 @ 으.(으.)
103065 #1 더데기벵이엔 헴주.(더뎅이병이라고 하고 있지.)
103065 @ 게난 감저덜 멘딱허게 곤 게 아니라 트덜트덜헌 게.(그러니까 감자들 만질만질하게 고운 게 아니라 더덕더덕한 게.)
103065 #1 아아.(아아.)
103065 #2 멘짝헌 게 엇어.(만질만질한 게 없어.)
103065 @ 아아.(아아.)
103065 #2 허게 뒈민.(하게 되면.)
103065 @ 아아. 전염병.(아아. 전염병.)
103065 #2 옛날은 멘짝멘짝 고완게 원 어떵 **.(옛날은 만질만질 곱더니 원 어떻게 **.)
103065 #1 봄에 놓는 감저는 병이 안 걸려. 더데기벵이 안 걸려.(봄에 놓는 감자는 병이 안 걸려. 더뎅이병이 안 걸려.)
103065 @ 아, 겨울에 거만?(아, 겨울에 거만?)
103065 #1 가을에 거만.(가을에 거만.)
103065 @ 아아.(아아.)
103065 #2 봄에 지금 파는 거.(봄에 지금 파는 거.)
103065 @ 예.(예.)
103065 #2 지금 파는 거?(지금 파는 거?)
103065 #1 예. 지금 파는 건 병을 잘 안 걸립니다.(예. 지금 파는 건 병을 잘 안 걸립니다.)
103067 @ 삼춘, 아까 ᄆᆞᆯ 농사는 언제 허는 거우과? ᄆᆞ멀 아까 ᄆᆞ멀 헐 때는 뭐 다른 거?(삼촌, 아까 메밀 농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메밀 아까 메밀 할 때는 뭐 다른 거?)
103067 #1 팔월 십오일을 중심으로 ᄆᆞᆯ 농사를 허주.(팔월 십오일을 중심으로 메밀 농사를 하지.)
103067 @ 팔월.(팔월.)
103067 #1 십오일.(십오일.)
103067 @ 십오일예. ᄆᆞ멀 농사는 어떤 식으로 헷수가? 예전에 어저겐간 할 때 불치혜영 헌덴 허멍.(십오일요. 메밀 농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전에 어저께인가 할 때 재해서 한다고 하면서.)
103067 #1 으.(으.)
103067 @ 그걸 한번 ᄀᆞᆯ아줍서.(그걸 한번 말해 주십시오.)
103067 #1 불치허고 ᄆᆞ멀씨허고 서터근에.(재하고 메밀 씨하고 섞어서.)
103067 @ 예.(예.)
103067 #1 쉐로 골을 긋어이. 이디 골을 쳐.(소로 골을 그어. 여기 골을 쳐.)
103067 @ 예.(예.)

103067 #1 여자덜이 간 구덕에 영 놔두람서 영 접아놧주게.(여자들이 가서 바구니에 이렇게 놔두고서 이렇게 집어놨지.)
103067 @ 거는 삐는 게 아니고.(거는 뿌리는 게 아니고.)
103067 #1 어?(어?)
103067 @ 건 삐는 게 아니고.(건 뿌리는 게 아니고.)
103067 #1 아니 접아 놧어. 이 방수[154]가 게난 이것도 방수가 맞아야 뒈이.(아니 집어 놨어. 이 '방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방수'가 맞아야 돼.)
103067 @ 예.(예.)
103067 #1 비슷비슷허게.(비슷비슷하게.)
103067 @ 응.(응.)
103067 #1 영 접앙 손가락으로 영 접아 놓면은.(이렇게 집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놓으면.)
103067 @ 으.(으.)
103067 #1 그 다음에는 뭘로 헷냐면 나무로 섬피 만들엉.(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했냐면 나무로 끙게 만들어서.)
103067 @ 예.(예.)
103067 #1 끗엇어.(끌었어.)
103067 @ 예.(예.)
103067 #1 씨 묻어지게.(씨 묻어지게.)
103067 @ 아.(아.)
103067 #1 그렇게 헨 ᄆᆞ멀 농살 헨.(그렇게 해서 메밀 농살 했어.)
103067 @ 게믄 삼춘, 이 ᄆᆞ멀 헐 때 ᄒᆞᆫ 파니에다가 골을 긋이는 거?(그러면 삼촌, 이 메밀 할 때 한 이랑에다가 골을 긋는 거?)
103067 #1 으. ᄒᆞᆫ 파니, ᄒᆞᆫ 파니민 보통 세 골 나오주게.(으. 한 이랑, 한 이랑이면 보통 세 골 나오지.)
103067 @ 아아.(아아.)
103067 #1 쉐로 파니 만들엇을 때예.(소로 이랑 만들었을 때요.)
103067 @ 예.(예.)
103067 #1 ᄆᆞ멀 골 긋을 때 세 골을 나와.(메밀 골 그을 때 세 골을 나와.)
103067 @ 골 긋이는 거는 뭘로 긋어?(골 긋는 거는 무엇으로 그어?)
103067 #1 소, 소. 소 쟁기로.(소, 소. 소 쟁기로.)
103067 @ 아, 소 쟁기로 헤갖고 그냥 쭉. ᄒᆞᆫ 파니는 이 정도 뭴 거 아니우과?(아, 소 쟁기로 해갖고 그냥 쭉. 한 이랑은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03067 #1 아니, 파니.(아니, 이랑.)
103067 @ 여기는 파니가 ᄒᆞ꼼 크구나.(여기는 이랑이 조금 크구나.)
103067 #1 크주게. 요만씩 허주게.(크지. 요만씩 하지.)

154) 여기에서 '방'은 메밀 씨를 집어넣는 일정한 공간의 의미로 쓰였다.

103067 @ 게믄 거기에 또 쉐 쟁기로 헤갖고 그.(그러면 거기에 또 소 쟁기로 해 갖고 그.)

103067 #1 골 치주.(골 치지.)

103067 @ 골 치는 거예?(골 치는 거요?)

103067 @2 골벳 가졍.('골벳' 가져서.)

103067 @ 음, 거기서 골 친 다음에 불치.(음, 거기서 골 친 다음에 재.)

103067 #1 접아놔서.(집어넣어서.)

103067 @ 게난 씨를 불치에 서끄는 거우과?(그러니까 씨를 재에 섞는 겁니까?)

103067 #1 모멀컬름[155] 논덴 허주게. 모멀컬름 논덴.('모멀컬름' 논다고 하지. '모멀컬름' 논다고.)

103067 #2 불치에 씨를 다 서껑.(재에 씨를 다 섞어서.)

103067 #1 서텅.(섞어서.)

103067 @ 어.(어.)

103067 #2 서껑 놧당 골 쳐가는 냥.(섞어서 놨다가 골 쳐가는 대로.)

103067 #1 집어넣주.(집어넣지.)

103067 #2 여자덜은 구덕 뚜러메둠서 구덕에 담아둠서 헹 집어넣는 따문. 방수 쭉 벌이멍 경허민 그 우의로 그 아까 나무로 설피엔 헌 거.(여자들은 바구니 둘러매어두고 바구니에 담아두고 해서 집어넣는 때문. '방수' 쭉 벌이면서 그렇게 하면 그 위로 그 아까 나무로 끙게라고 한 거.)

103067 @2 예.(예.)

103067 #1 걸로 영 흔 번 싹 씰어불민 걸로 막아지민 끗나는 거.(걸로 이렇게 한 번 싹 쓸어버리면 걸로 막아지면 끝나는 거.)

103067 @ 음, 건데 거는 씨 그 ᄆᆞᆯ걸름 노는 게 일이구나.(음, 건데 거는 씨 그 '모멀걸름' 노는 게 일이구나.)

103067 #2 젤 중요헌 거지.(젤 중요한 거지.)

103067 #1 젤 여기.(젤 여기.)

103067 @ 예.(예.)

103067 #2 그냥 팍팍 놔불질 아녀고 꼭 이만씩 심어근에.(그냥 팍팍 놔버리질 않고 꼭 이만큼 잡아서.)

103067 #1 거 많이 놔도 안 뒈곡 족영 놔도 안 뒈고 또 이거 흔 번 딱 요만이 접기 시작허민 계속 그만이 놔야뒈.(거 많이 놔도 안 되고 적게 놔도 안 되고 또 이거 한 번 딱 요만큼 집기 시작하면 계속 그만큼 놔야돼.)

103067 #2 그만이 허영 방수를 쭉 벌영 놔 가사.(그만큼 해서 '방수'를 쭉 벌여서 놔 가야.)

103067 @ 어, 방수 벌영 나간덴 허는구나예. 게난 그 모멀씨엔 안 허영 무사 걸름이렌 헹은에.(어, '방수' 벌여서 나간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모멀씨라고 안

155) '모멀컬름'은 재에 섞은 메밀 씨를 의미하는 말이다. 메밀을 갈 때 사용하는 재여서 붙인 어휘다.

해서 왜 거름이라고 해서.)

103067 #2 ᄆᆞ멀컬름, ᄆᆞ멀컬름.(‘ᄆᆞ멀컬름’, ‘ᄆᆞ멀컬름’.)

103067 #1 ᄆᆞ멀걸름헤서 드니까 ᄆᆞ멀컬름 노레 갓덴. 옛날도 놉 빌레 가젠 허민 우리 ᄆᆞ멀컬름 놔줍서 영 허주.(‘ᄆᆞ멀걸름’해서 드니까 ‘ᄆᆞ멀컬름’ 놓으러 갔다고. 옛날도 놉 빌러 가려고 하면 우리 ‘ᄆᆞ멀컬름’ 놔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103067 @ 어, ᄆᆞ멀컬름 놔줍서. 게난 꼭 그거는 재로 허는 거우꽈? 불치로?(어, ‘ᄆᆞ멀컬름’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그거는 재로 하는 겁니까? 재로?)

103067 #2 불치로.(재로.)

103067 #1 불치로.(재로.)

103067 @ 아, 불치에예? 아, 게난 옛날부터 ᄆᆞᆯ걸름 지지 안허젠 그 무시거. 깅이도 등 고려분다 이런 말 들어봅디가? 삼춘.(아, 재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ᄆᆞᆯ걸름’ 지지 안하려고 그 무엇. 게도 등 고려버린다 이런 말 들어봅디까? 삼촌.)

103067 #1 무신거?(무엇?)

103067 @ 깅이, 깅이. 바당에 겡이.(게, 게. 바다에 게.)

103067 #1 으.(으.)

103067 @ 겡이도 ᄆᆞ멀컬름 지지 아년다고 여름에는 다리 빠진다고.(게도 ‘ᄆᆞ멀컬름’ 지지 않는다고 여름에는 다리 빠진다고.)

103067 #2 겡이라 공중이[156]주.(게야 ‘공중이’지.)

103067 #1 꽁중이, 꽁중이.(‘꽁중이’, ‘꽁중이’.)

103067 @ 아, 여기는 공중이렌 헙니까?(아, 여기는 ‘공중이’라고 합니까?)

103067 #1 여기 그 꽁중이가 있어.(여기 그 ‘꽁중이’가 있어.)

103067 @ 예.(예.)

103067 #2 저 노란꽁중이.(저 ‘노란꽁중이’.)

103067 @ 음.(음.)

103067 #1 어 그거 여름 뒈민 다리 흔 착 빠져비여.(어 그거 여름 되면 다리 한 쪽 빠져버려.)

103067 @ 음.(음.)

103067 #1 그 꽁중이가 잇어.(그 ‘꽁중이’가 있어.)

103067 #2 메뚜기꽁중이.(‘메뚜기꽁중이’.)

103067 @ 예.(예.)

103067 #2 그것가 ᄆᆞᆯ팟 헤나민 지쳥은에 다리 빠진덴 허영 ᄆᆞᆯ컬름 노레 강 보민.(그것이 메밀밭 해나면 지쳐서 다리 빠진다고 해서 ‘ᄆᆞᆯ컬름’ 놓으러 가서 보면.)

103067 #1 빠져.(빠져.)

103067 #2 박삭 잇당 다리가 다 빠졍 흔 착이라.(박삭 있다가 다리가 다 빠져서

156) ‘공중이’는 ‘귀뚜라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뒤의 구술 내용에 ‘노란 꽁중이’, ‘메뚜기공중이’라는 어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메뚜기’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어휘다. 제보자에 따라 ‘공중이’, ‘꽁중이’라고도 한다.

한 쪽이야.)

103067 @ 아아.(아아.)

103067 #2 꽁중이덜 와자자허게 돌아졍 헤도.('꽁중이'들 왁자하게 매달려서 해도.)

103067 #1 다리 빠지주.(다리 빠지지.)

103067 #2 게난 공중이가 다리 빠진덴 말이주.(그러니까 '공중이'가 다리 빠진다는 말이지.)

103067 @ 으음, 게 그 ᄆᆞᆯ 헐 때 그 말을 허는 거라예?(으음, 게 그 메밀 할 때 그 말을 하는 거네요?)

103067 #2 예.(예.)

103067 @ 무사 그 말이 나온 거라마씨?(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103067 #2 지치난 공중이.(지치니까 '공중이'.)

103067 #1 지치난 나왓주게.(지치니까 나왔지.)

103067 #2 지치난 다리 빠지지게.(지치니까 다리 빠지지.)

103067 #1 다리 빠지게 지치난.(다리 빠지게 지치니까.)

103067 #2 지치난 다리 빠진 거. 걸름 날르젠 허난 지쳔.(지치니까 다리 빠진 거. 거름 나르려고 하니까 지쳐서.)

103067 #1 숙전 뭰 밧듸는 허지만은 그 새왓 갈아근에 적감밧듸쯤 놓젠 허민 벙뎅이 이신난에 울퉁불퉁헌 디 여ᄌᆞ덜 뎅기젠 허민 뭐 진짜.(숙전 된 밭에는 하지만 그 띠밭 갈아서 '적감밧'에쯤 놓으려고 하면 흙덩이 있으니까 울퉁불퉁한 데 여자들 다니려고 하면 뭐 진짜.)

103067 #2 아무 밧듸도 걸름 날르는 사름 지쳐게.(아무 밭에도 거름 나르는 사람 지쳐.)

103067 #1 아, 걸름 날르는 사름사 지칩주게. 그 구덕 뚜러메아졍 거 날르는 거 **.(아, 거름 나르는 사람이야 지칩지요. 그 바구니 둘러매가지고 거 나르는 거 **.)

103067 #2 놓는 사름은 헌디 걸름 날라다 주는 사름 잇주게.(놓는 사람은 하는데 거름 날라다 주는 사람 있지.)

103067 @ 음.(음.)

103067 #2 또 이디 거 담아당 구덕디레 비와주는 사름. 그 사름이 지친덴 말로 걸름 날르젠 허민 다리 빠졈젠 허영.(또 여기 거 담아다가 바구니로 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친다는 말로 거름 나르려고 하면 다리 빠지고 있다고 해서.)

103067 @ 음, 공중이 다리 빼졈덴.(음, '공중이' 다리 빠지고 있다고.)

103067 #1 ᄒᆞ루 저물앙 걸어사 헐 거난 게난 뚜러메영.(하루 저물어서 걸어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둘러매서.)

103067 #2 놓는 사름은 쭉 허게 놔가노레 허민 아져당 그레 비와줘사 그 사름이 놀 거난 날르는 사름이 얼마나 지칠 거라. 담앙 왕 보민 엇곡 엇곡 허난.(놓는 사람은 쭉 하게 놔가노라고 하면 가져다가 그리로 부어줘야 그 사람이 놀 거니까

나르는 사람이 얼마나 지칠 거야. 담아서 와서 보면 없고 없고 하니까.)

103067 @2 (웃음.)

103067 @ 경허난 이제 ᄆᆞᆯ걸름 날르젠 허난.(그렇게 하니까 이제 'ᄆᆞᆯ걸름' 나르려고 하면.)

103067 #2 ᄆᆞᆯ팟듸 놔난 공중이 다리 빠졋젠.(메밀밭에 놨던 '공중이' 다리 빠졌다고.)

103067 @ 으.(으.)

103067 #2 아닌 게 아니라 강 보민 공중이가 다리가 다 빠져.(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면 '공중이'가 다리가 다 빠져.)

103067 #1 공중이가 다리가 빠지주.('공중이'가 다리가 빠지지.)

103067 @ (웃음). 게난 나중에 빌 때 영 보난 다 다리 빠져 시난 이 녀석이 ᄆᆞᆯ걸름 지단 보난 영 헷구나 그 소리가.((웃음). 그러니까 나중에 벨 때 이렇게 보니까 다 다리 빠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ᄆᆞᆯ걸름' 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 소리가.)

103067 #2 빌 때랑 ᄆᆞ멀걸름을 놀 때. ᄆᆞ멀걸름을 밧듸 앗당은에 영 싸여 놓주.(벨 때는 'ᄆᆞ멀걸름'을 놀 때. 'ᄆᆞ멀걸름'을 밭에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 놓지.)

103067 @ 예.(예.)

103067 #2 막.(마구.)

103067 #1 뒷날 아침이 강 보민 하.(뒷날 아침에 가서 보면 많아.)

103067 #2 멧 푸대식 놩 모다 놧당, 밧 갈아 가민 그걸 강 걸름 더끈 걸 걷어근 엥에 그걸 담으멍 걸름을 놉니께. 게민 노는 사름 쭉 놔 가민 담으레 오지 못허난 담아 가는 사름이 이십니다게.(몇 부대씩 놔서 모여 놨다가, 밭 갈아 가면 그걸 가서 거름 덮은 걸 걷어서 그걸 담으면서 거름을 놉니다. 그러면 놓는 사람 쭉 놔 가면 담으러 오지 못하니까 담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3067 @ 예.(예.)

103067 #2 거 담아 가는 사름이 지치덴 공중이가 다리 빠졋다.(거 담아 가는 사람이 지치다고 '공중이'가 다리 빠졌다.)

103067 @ 음, 게난 그때 공중이는 언제 그때 보여?(음, 그러니까 그때 '공중이'는 언제 그때 보여?)

103067 #1 그때 보이주.(그때 보이지.)

103067 #2 그때 보이주.(그때 보이지.)

103067 @ 아.(아.)

103067 #2 바글바글. 막 바글바글.(바글바글. 매우 바글바글.)

103067 #1 이 전날.(이 전날.)

103067 @ 예.(예.)

103067 #1 낼 ᄆᆞ멀을 농사를 헐 거라 허면은 전날.(낼 메밀을 농사를 할 거야 하면 전날.)

103067 #2 낼이나 모레.(낼이나 모레.)

103067 #1 또 전날이나 이 ᄆᆞ멀 불치를 ᄆᆞ녀 시꺼당 밧듸 강 눌주게.(또 전날이나 이 메밀 재를 먼저 실어다가 밭에 가서 가리지.)

103067 @ 예.(예.)

103067 #1 밧 가운디 강. 눌엇당 그 ᄆᆞ물 뒷날 농사헐 땐 강 ᄂᆞ람질 확허게 걷으민 이 쏘곱에.(밭 가운데 가서. 가리었다가 그 메밀 뒷날 농사할 땐 가서 이엉을 확하게 걷으면 이 속에)

103067 #2 공중이가.('공중이'가.)

103067 #1 그 꽁중이가 하.(그 '꽁중이'가 많아.)

103067 @ 아.(아.)

103067 #1 경허영 ᄂᆞ람지 걷으민 막 튀영 도망가곡 허영.(그렇게 해서 이엉 걷으면 마구 뛰어서 도망가고 해서.)

103067 @ 경 튀당 보면 다리를 빠지고 허난 그 말을 허는구나.(그렇게 튀다가 보면 다리를 빠지고 하니까 그 말을 하는구나.)

103067 #2 걷으멍 보민 발 빠진 공중이덜이 잇어.(걷으면서 보면 발 빠진 '공중이'들이 있어.)

103067 @ 예, 예.(예, 예.)

103067 #2 숨빡헷당.(가득했다가.)

103067 @ 아아, 가이네가.(아아, 걔네가.)

103067 #2 그거 모멀걸름 날르젠 허민 꽁중이 다리 다 빠진다.(그거 '모멀걸름' 나르려고 하면 '꽁중이' 다리 다 빠진다.)

103067 #1 지쳥.(지쳐서.)

103068 @ 예, 예, 예. 그 다음 삼춘, 어제 우리 담베 얘기도 헤서나신디 담베 농사도 헤봅디가? 삼촌네도.(예, 예, 예. 그 다음 삼촌, 어제 우리 담배 얘기도 했었는데 담배 농사도 해봅디까? 삼촌네도.)

103068 #1 우린 아버지네가 허는 거 봣주. 우린 허진 안허고.(우린 아버지네가 하는 거 봤지. 우린 하진 않고.)

103068 @ 어떤 식으로 언제 헙디가? 그거는.(어떤 식으로 언제 합디까? 그거는.)

103068 #1 그거 이 저 봄에.(그거 이 저 봄에.)

103068 @ 봄에 으.(봄에 으.)

103068 #1 게난 그때는 담베를 이 전매청에서 받아가낫어.(그러니까 그때는 담배를 이 전매청에서 받아갔었어.)

103068 @ 예.(예.)

103068 #1 게난 아버지가 허는 거 봐난디 마 많이는 아녀고 한 삼사백 평쯤은 담베를 심엉 허면은 아침이 강 튿아다근에이 여꺼 이디서.(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봤었는데 마 많이는 않고 한 삼사백 평쯤은 담배를 심어서 하면은 아침에 가서

따다가 엮어 여기서.)

103068 @ 예.(예.)

103068 #1 여꺼근에 어디 집안네 게난 이 대개 집안넬.(엮어서 어디 집안에 그러니까 이 대개 집안엘.)

103068 #2 그늘에.(그늘에.)

103068 #1 쉐막, 쉐막엘 강 잘 돌아멘게. 집안네 강 돌아메영. 이거 몰르면은 요만씩 헤연에 접을 짓읍디다게.(외양간, 외양간엘 가서 잘 매달았어. 집안에 가서 매달아서. 이거 마르면 요만큼씩 해서 접을 짓습디다.)

103068 @ 예.(예.)

103068 #1 접을 짓엉 이걸 열 갤 놩 흔 접엔 헤연 무끄더구만은. 경허연 헌 걸 그 전매청에 허영 그 프는 우리도 프는 걸 봣주.(접을 지어서 이걸 열 갤 놔서 한 접이라고 해서 묶더구먼. 그렇게 해서 한 걸 그 전매청에 해서 그 파는 우리도 파는 걸 봤지.)

103068 @ 으음, 게민 직접 그거 담베 헐 때도 다 그거 썰멍예.(으음, 그러면 직접 그거 담배 할 때도 다 그거 썰면서요.)

103068 #1 으.(으.)

103068 @ 다 썰멍은에 피운 거 아니라예? 또.(다 썰면서 피운 거 아닌가요? 또.)

103068 #1 아, 일허는 사름 일꾼 오민 그거 줜에 썰엉 피우렌 줫주.(아, 일하는 사람 일꾼 오면 그거 줘서 썰면서 피우라고 줬지.)

103068 @ 음.(음.)

103068 #2 피우는 사름덜 이녁냥으로 썰멍.(피우는 사람들 이녁대로 썰면서.)

103068 #1 이녁냥으로 썰멍 피왓주, 무신.(이녁대로 썰면서 피웠지, 무슨.)

103068 @ 예.(예.)

103068 #1 게난 그거는 농약도 안 들어갓지 아무 것도 안 들어갓지 담베 이파리벳긔.(그러니까 그거는 농약도 안 들어갔지 아무 것도 안 들어갔지 담배 이파리밖에.)

103068 @ 으으.(으으.)

103068 #1 지금 건 하간 세상 약이 다 들어갓주만은.(지금 건 온갖 세상 약이 다 들어갔지만.)

103068 @ 맞수다. 그치록 허영은에 이제 담베도 허고. 삼춘도 그런 담베도 피와봔?(맞습니다. 그처럼 해서 이제 담배도 하고. 삼촌도 그런 담배도 피워봤어요?)

103068 #1 피왓주.(피웠지.)

103068 @ 아, 건 무슨 담베렌 헙니까?(아, 건 무슨 담배라고 합니까?)

103068 #1 입담베, 입담베.(잎담배, 잎담배.)

103068 @ 그냥 입담베렌 옛날도.(그냥 잎담배라고 옛날도.)

103068 #1 우리 처음 열일곱 술에 담베 베와신디 담베 베울 때 그 입담베로 베

와신디.(우리 처음 열일곱 살에 담배 배웠는데 담배 배울 때 그 잎담배로 배웠는데.)

103068 #2 우리 아지방도 쩨끄만헌 때부터 담베.(우리 아주버니도 자그마할 때부터 담배.)

103068 @ (웃음.)

103068 #1 아, 우리 쩨끄만도 헷주마는양 지서 정문을 열일곱 술에 나가 지서 정문에 근무헷수게. 게난 그디 가난 이젠 다른 놈덜 다 피와가고 피우라 피우라 허난 지서 정문에 나가 열일곱 술에부터 근무허기 시작헨.(아, 우리 자그마하기도 했지만요 지서 정문을 열일곱 살에 내가 지서 정문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이젠 다른 남들 다 피워가고 피워라 피워라 하니까 지서 정문에 내가 열일곱 살에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어.)

103068 @ 으, 그때가 사삼 헐 때우과?(으, 그때가 사삼 할 땝니까?)

103068 #1 아, 사삼사건 성읍리 일차 습격은 열다섯에 들곡.(아, 사삼사건 성읍리 일차 습격은 열다섯에 들고.)

103068 @ 아.(아.)

103068 #1 지서 정문 근무는 나 열일곱 술부터 시작헨.(지서 정문 근무는 나 열일곱 살부터 시작했어.)

103068 @ 아, 알앗수다. 여기까지 허쿠다. 오늘 막 지친 거 닮고.(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지친 거 같고.)

103068 @2 오늘 많이 베웟수다. 게난 그때 공중이는 말축인가마씨?(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중이'는 메뚜기인가요?)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삼춘 그 쉐 질룰 때는 어떤 식으로 헨 질롓수가?(삼촌 그 소 기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길렀습니까?)

104001 #1 그땐 어떵헨 질롸게. 저 봄 나면은 산에 올리곡, 입동 뒈민 집에 아져당 마귀에 메영 촐 주고 또 챙명 뒈민 또 산에 올리곡 그렇게 허면서 게난 일 년은 육 개월은 산에서 살고 육 개월은 집에서 살곡.(그땐 어떡해서 길러. 저 봄 되면 산에 올리고, 입동 되면 집에 가져다가 마구간에 매서 꼴 주고 또 청명 되면 또 산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 년은 육 개월은 산에서 살고 육 개월은 집에서 살고.)

104002 @ 쉐도예, 물만이 아니라. 그 쉐 종류는 어떤 종류덜 잇어마씨?(소도요, 말만이 아니라. 그 소 종류는 어떤 종류들 있어요?)

104002 #1 옛날 토종.(옛날 토종.)

104002 @ 토종, 그 종류도 뭐 여자 쉐도 이실 거고 남자 쉐도 이실 거고예, 그 옛날 여기서 불르는 말로?(토종, 그 종류도 뭐 여자 소도 있을 거고 남자 소도 있을 거고요, 그 옛날 여기서 부르는 말로?)

104002 #1 암쉐엔 허곡 부렝이엔 허주게. 이 암놈은 여자고.(암소라고 하고 부룩소라고 하지. 이 암놈은 여자고.)

104002 @ 예.(예.)

104002 #1 부렝이엔 헌 게 수놈인디.(부룩소라고 한 게 수놈인데.)

104002 @ 예.(예.)

104002 #1 부렝이엔 헌 거는 저 집집마다 잇진 안 허여.(부룩소라고 한 거는 저 집집마다 있진 안 해.)

104002 @ 아아.(아아.)

104002 #1 게민 산에 강 봄에 강 놀 때는 대개 그 부렝이가 같이 따라가면 부렝이 하나면은 암놈을 보통 한 사십 개 정도는 교미를 시키주게.(그러면 산에 가서 봄에 가서 놓을 때는 대개 그 부룩소가 같이 따라가면 부룩소 하나면 암놈을 보통 한 사십 개 정도는 교미를 시키지.)

104002 @ 아아, 게믄 올 때는 새끼 데령 오는 것덜도 이신가마씨?(아아, 그러면 올 때는 새끼 데려서 오는 것들도 있는가요?)

104002 #1 아니, 새끼를 저것이 십 개월 뒈야 나니까.(아니, 새끼를 저것이 십 개월 돼야 낳으니까.)

104002 @ 음.(음.)

104002 #1 여름에 강 봄에 강 허면은 대개 집의 왕 나갈 때 새끼를 낭 나가. 집의서.(여름에 가서 봄에 가서 하면은 대개 집에 와서 나갈 때 새끼를 낳아서 나가. 집에서.)

104002 @ 아아, 육 개월 씩이난예? 으음, 경허고 그 털 색깔에 따라서도 불르는 일름이 ᄐᆞ나마씨?(아아, 육 개월 씩이니까요? 으음, 그렇게 하고 그 털 색깔에 따라서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104002 #1 응.(응.)

104002 @ 아.(아.)

104002 #1 황소가 잇고.(황소가 있고.)

104002 @ 예.(예.)

104002 #1 얼룩소가 잇고.(얼룩소가 있고.)

104002 @ 예.(예.)

104002 #1 까만소가 잇고. 검은쉐엔 허고.(검정소가 있고. 검정소라고 하고.)

104002 @ 검은쉐엔 허고.(검정소라고 하고.)

104002 @2 식쉐는 어떤 거우과?(칡소는 어떤 겁니까?)

104002 #1 식쉐는 노린 털에 꺼문 털 박아진 게 식쉐.(칡소는 노란 털에 검정 털 박힌 게 칡소.)

104002 @ 음.(음.)

104002 #1 이 노린 털 흔 줄 박아지곡 검은 털 흔 줄 박아지고 헙디다. 식쉐엔 헌 건.(이 노란 털 한 줄 박히고 검은 털 한 줄 박히고 합디다. 칡소라고 한 건.)

104002 @2 게난 얼룩소하고는 다른 거지예?(그러니까 얼룩소하고는 다른 거지요?)

104002 #1 예. 얼룩소는 흰 털허고 노린 걸 박아진 거를 저 식쉐. 얼룩쉐엔 허고.(예. 얼룩소는 흰 털하고 노란 걸 박힌 거를 저 칡소. 얼룩소라고 하고.)

104002 @ 음. 건 게믄 건 어럭쉐?(음. 건 그러면 건 얼룩소?)

104002 #1 어. 얼룩쉐허곡 식쉐허고는 틀려.(어. 얼룩소하고 칡소하고는 달라.)

104002 @ 틀려예, 예. 그 다음에 그 쉐도 뿔 모양에 따랑도 ᄐᆞ나지예, 삼춘?(달르지요, 예. 그 다음에 그 소도 뿔 모양에 따라서도 다르지요, 삼촌?)

104002 #1 영 영 영 박아진 놈은 잦박도리[157]엔 허곡.(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힌 놈은 '잦박도리'라고 하고.)

104002 @ 으, 잦박도리 뒤로 이렇게 박아진 거 으.(으, '잦박도리' 뒤로 이렇게 박힌 거 으.)

104002 #1 잦박도리엔 허곡. 이 앞으로 박아진 거는 잘 몰르겟네.('잦박도리'라고 하고. 이 앞으로 박힌 거는 잘 모르겠네.)

104002 @2 곧추뿔.('곧추뿔'.)

104002 #2 아이 영 영 돌아온 놈 잇주게 또.(아니 이렇게 이렇게 돌아온 놈 있지 또.)

104002 @ 예 이렇게 앞으로 영 돌아오는 거?(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104002 #1 앞으로 돌아온 거 잇고이 영 두이로 자빠진 건 이 두이로 자빠진 건 잦박도리엔 허는디 앞으로 돌아온 거는 거 잘 모르겟네.(앞으로 돌아온 거 있고 이렇게 뒤로 자빠진 건 이 뒤로 자빠진 건 '잦박도리'라고 하는데 앞으로 돌아온 거는 거 잘 모르겠네.)

104002 @ 그 다음엔 뿔 엇인 건?(그 다음엔 뿔 없는 건?)

104002 #1 뿔 엇인 거는 별로 없어.(뿔 없는 거는 별로 없어.)

104002 @ 별로 없어예?(별로 없어요?)

104002 #1 토종은 뿔 엇인 게 없주.(토종은 뿔 없는 게 없지.)

104002 @ 아, 그 다음에 이 저기 뿔 헤도 다글락허는 거 잇수가?(아, 그 다음에 이 저기 뿔 해도 '다글락하는' 거 있습니까?)

104002 #1 어?(어?)

104002 @ 뿔이 흔들리는 거?(뿔이 흔들리는 거?)

104002 #1 흔들리는 거는 그게 뭔 뿔이렌 헌다마는. 거 뿔 흔드는 쉐가 잇어.(흔들리는 거는 그게 뭔 뿔이라고 한다만. 거 뿔 흔드는 소가 있어.)

157) '잦박도리'는 소의 대가리 뒤쪽으로 잦혀지게 나온 뿔, 또는 그런 뿔을 가진 소를 말한다.

104002 @ 예.(예.)

104002 #1 건드리면은 흔들흔들허는 그게 잇어. 잇는디 일름을 모르겟네.(건드리면 흔들흔들하는 그게 있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104003 @ 낼랑 저기 노인당 강은에 그 다 흔번 튿냉은에 다 알앙 놔둡서. (웃음). 그 쉐는 보통 어디에 이용헌 거라마씨?(내일은 저기 노인당 가서 그 다 한번 생각해서 다 알아서 놔두십시오. (웃음). 그 소는 보통 어디에 이용한 거예요?)

104003 #1 어디에 이용. 그자. 저 어린 때 좀 영 봉 쓸만헌 놈은 골라근에 밧을 ᄀᆞ리치주게.(어디에 이용. 그저. 저 어릴 때 좀 이렇게 봐서 쓸만한 놈은 골라서 밭을 가르치지.)

104003 @ 음.(음.)

104003 #1 밧 ᄀᆞ리칠 땐 처음은 이 멍에를 씌와서 처음은.(밭 가르칠 땐 처음은 이 멍에를 씌워서 처음은.)

104003 @ 음.(음.)

104003 #1 돌을 끅다리에 돌아메서.(돌을 끝에 매달아서.)

104003 @ 예.(예.)

104003 @2 끗엉.(끌어서.)

104003 #1 이껑 다니멍 저 밧 가는 거 모냥으로 끗엉 다니멍 그 허주게. 경헨 혼 메칠 헤지민 그 다음은 밧 갈레 가민 처음은 익숙허지 아녀니까 사름이 혼 사름이 소를 이꺼야 뒈여.(이끌어서 다니면서 저 밭 가는 거 모양으로 끌어서 다니면서 그 하지. 그렇게 해서 한 며칠 하면 그 다음은 밭 갈러 가면 처음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소를 이끌어야 되어.)

104003 @ 예.(예.)

104003 #1 경허영 그 밧을.(그렇게 해서 그 밭을.)

104004 @ 게민 그거를 밧 ᄀᆞ리친덴 헙니까?(그러면 그거를 밭 가르친다고 합니까?)

104004 #1 밧 ᄀᆞ리치는 거.(밭 가르치는 거.)

104004 @ 예, 그 다음에 그 질, 질들이젠 허면 이 동네 영 혜영 몰앙 다닐 거 아니라예? 게믄 그 두에 아까 돌 그 돌을 무슨 돌이엔 헙니까?(예, 그 다음에 그 길, 길들이려고 하면 이 동네 이렇게 해서 몰아서 다닐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뒤에 아까 돌 그 돌을 무슨 돌이라고 합니까?)

104004 #1 그거, 이 저 팡돌[158]엔 헌 게 잇어. 돌에 영 ᄒᆞ꼼 영 납수룩헌 놈 허영은에 영 고냥 뚤랑.(그거, 이 저 '팡돌'이라고 한 게 있어. 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납작한 놈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104004 @ 예.(예.)

104004 #1 고냥 뚤랑 그디 철사로 무껑, 무끄주. 경 아녕 철사로 아니 무껑 딴 걸로 무끄민 돌에 끗엉 강 맞으민 끊어져불어.(구멍 뚫어서 거기 철사로 묶어서, 묶

158) '팡돌'은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마당 따위에 깔아놓은 납작한 돌을 말한다.

지. 그렇게 않고 철사로 아니 묶어서 딴 걸로 묶으면 돌에 끌어서 가서 맞으면 끊어져버려.)

104004 @ 으.(으.)

104004 #1 철사로 무꺼근에.(철사로 묶어서.)

104004 @ 그치룩 무끄는 돌 이름은?(그처럼 묶는 돌 이름은?)

104004 #1 그냥 팡돌엔 허여.(그냥 '팡돌'이라고 해.)

104004 @ 여기에선 팡돌엔 헤영예?(여기에선 '팡돌'이라고 해서요?)

104004 @2 다른 동넨 곰돌.(다른 동넨 '곰돌'.)

104004 #1 곰돌[159].('곰돌'.)

104004 @ 예.(예.)

104004 @2 고망 뚤라졋덴 헤영예?(구망 뚫어졌다고 해서요?)

104004 @ 예, 그 다음에 그 질들이기 전의 쉐는 뭐렌 헙니까?(예, 그 다음에 그 길들이기 전의 소는 뭐라고 합니까?)

104004 #1 질들이기 쉐엔 아무 것도 아녓주, 무신 뭐 그자.(길들이기 소라고 아무 것도 않았지, 무슨 뭐 그저.)

104004 @ 새쉐 이런 말 안 써?('새쉐' 이런 말 안 써?)

104004 #1 새쉐[160]엔 헌 건 처음 길들이기 시작허는 게 새쉐, 새쉐 ᄀᆞ리친덴 허주.('새쉐'라고 한 건 처음 길들이기 시작하는 게 '새쉐', '새쉐' 가르친다고 하지.)

104004 @2 새송에기 ᄀᆞ리친덴.('새송에기' 가르친다고.)

104004 #1 새송에기 ᄀᆞ리쳠젠.('새송에기' 가르치고 있다고.)

104005 @ 예, 새송에기 ᄀᆞ리친다 허고예. 쉐는 나이를 어떵 셉니까?(예, '새송에기' 가르친다 하고요. 소는 나이를 어떻게 셉니까?)

104005 #1 무신거?(무엇?)

104005 @ 쉐 나이?(소 나이?)

104005 @2 흔 설 두 술.(한 살 두 살.)

104005 #1 한 설은 금승.(한 살은 하릅.)

104005 @ 으. 거 세봅서.(으. 거 세보세요.)

104005 #1 두 설은 나민 다간.(두 살은 되면 이듭.)

104005 @ 으.(으.)

104005 #1 세 설을 나민 사릅 네 설부턴 나릅, 다습 영.(세 살을 되면 사릅 네 살부턴 나릅, 다습 이렇게.)

104005 @ 게영 열 설까지 세어봅서?(그렇게 해서 열 살까지 세어보세요?)

104005 #1 열 설꺼지는 세질 못허주게. 다숫꺼지벳긴.(열 살까지는 세질 못하지. 다섯까지밖에는.)

104005 @ ᄋᆞ습은?(여습은?)

---

159) '곰돌'은 구멍이 뚫려 있는 돌이다. 보통 소에게 밭을 가는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쟁기 대신에 끈을 매달아 끌 수 있게 만든 돌덩이를 말한다.

160) '새쉐'는 길들이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달리 '새송에기' 라고도 한다.

104005 #1 ᄋᆞ습은 우리 잘, 그때에 헐 때 쉐 질룰 때는 다습꺼지 헷주, 다습 넘어가민 풀아부나.(여습은 우리 잘, 그때에 할 때 소 기를 때는 다습까지 했지, 다습 넘어가면 팔아버리니.)

104005 @ 으.(으.)

104005 #1 어디 무판에 보내부난 허는 따문에. 다습 이상 뒈어가민 새끼도 잘 안 난덴 헹은에 풀아불어.(어디 무판에 보내버리니까 하는 때문에. 다습 이상 되어가면 새끼도 잘 안 난다고 해서 팔아버려.)

104005 @ 으음. 게믄 그 저기 아까 부렝이는 하영 안 헌덴 헷잖아예? 밧 가는 거는 주로 누게가 가는 거우과?(으음. 그러면 그 저기 아까 부룩소는 많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밭 가는 거는 주로 누가 가는 겁니까?)

104005 #1 소 임제가 밧 갈주.(소 임자가 밭 갈지.)

104005 @ 아니, 아니. 쉐는 어떤 쉐로 밧 갈아?(아니, 아니. 소는 어떤 소로 밭 갈아?)

104005 #1 쉐는 그냥 아까 안 ᄀᆞᆯ앗어게. 멍에 씌우멍.(소는 그냥 아까 안 말했어. 멍에 씌우면서.)

104005 @2 질들인 쉐?(길들인 소?)

104005 #1 질들인 쉐로 그걸로 갈주.(길들인 소로 그걸로 갈지.)

104005 @ 그 암쉐?(그 암소?)

104005 #1 암놈도 허곡 건 숫놈도 허곡 건 상관없고.(암놈도 하고 건 수놈도 하고 건 상관없고.)

104005 @ 게난 밧갈쉐는 무신 걸 보고 밧갈쉐?(그러니까 '밧갈쉐'는 무슨 걸 보고 '밧갈쉐'?)

104005 #1 밧갈쉐[161]엔 헌 건 부렝일 보고 밧갈쉐엔 허주.('밧갈쉐'라고 한 건 황소를 보고 '밧갈쉐'라고 하지.)

104005 @ 아아, 암쉐ᄀᆞ라는 밧갈쉐렌은 안 허는구나예?(아아 암소보고는 '밧갈쉐'라고는 안 하는군요?)

104005 #1 밧 가는 쉔 밧 가는 쉔디 숫놈은 밧갈쉐엔 허곡 암놈은 밧 가는 쉐엔만 허주 부렝이 밧갈쉐엔 말은 안 허여.(밭가는 소는 밭가는 손데 수놈은 '밧갈쉐'라고 하고 암놈은 밭 가는 소라고만 하지. 황소 '밧갈쉐'라는 말은 안 해.)

104005 @ 아, 밧갈쉐?(아, '밧갈쉐'?)

104005 #1 밧갈쉐허고 암놈허고 구별뒈는 게 그게 바로 그거.('밧갈쉐'하고 암놈하고 구별되는 게 그게 바로 그거.)

104006 @ 기구나예. 그다음에 이제 삼춘 쟁기로 옛날 밧 갈아. 여기는 쟁기를 뭐렌 헷수가?(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삼촌 쟁기로 옛날 밭 갈아. 여기는 쟁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61) '밧갈쉐'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소라는 말이다. 제보자의 구술 내용을 보면, 성읍리에서는 보통 수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음을 알 수 있다.

104006 #1 쟁기.(쟁기.)

104006 @ 쟁기.(쟁기.)

104006 #1 잠대엔 허주.('잠대'라고 하지.)

104006 @ 잠대 여기 영 허영 허면 여기 손 잇고, 영 뒈는가?(쟁기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손 있고, 이렇게 되는가?)

104006 @2 응. 앞에 쪼금 나와. 돌벵이뿔[162] 잇고, 무클.(응. 앞에 조금 나와. '돌벵이뿔' 있고, 쟁깃술.)

104006 #1 이, 이거는 성에가 뒈는 거고.(이, 이거는 성에가 되는 거고.)

104006 @ 이거는 성에가 뒈는 거고. 긴 거예?(이거는 성에가 되는 거고. 긴 거요?)

104006 #1 영 오그라진 건 몽콜이 뒈는 거고.(이렇게 오그라진 건 쟁깃술이 되는 거고.)

104006 @ 으, 이렇게 허는 거는 이렇게 뒐 거구나예.(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될 거군요.)

104006 #1 몽콜.(쟁깃술.)

104006 @ 몽콜.(쟁깃술.)

104006 @2 쭉 우의로 하나 올라가. 가운디.(쭉 위로 하나 올라가. 가운데.)

104006 #1 이거는 설칫.(이거는 한마루.)

104006 @ 가운데로 간 거는 설칫.(가운데로 간 거는 한마루.)

104006 #1 게난 이거허고 이거허고 연결시키는 게 이 설칫이라.(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이 한마루야.)

104006 @ 아, 이 몽콜하고 이 성에하고 연결헌 게 설칫. 이건 뭐우과?(아, 이 쟁깃술하고 이 성에하고 연결한 게 한마루. 이건 뭡니까?)

104006 #1 이건.(이건.)

104006 @ 손잡이?(손잡이?)

104006 #1 이거는 ᄀᆞ만 시라.(이거는 가만히 있어라.)

104006 @2 양주머리.(양지머리.)

104006 #1 아, 양주머리 맞아.(아, 양지머리 맞아.)

104006 @ 예, 양주머리. 그다음에 이 앞에로 영 허면은 이 끝에. 뭘, 밧 갈젠 허면 뭘 헤야 뒐 거우과?(예, 양지머리. 그다음에 이 앞에로 이렇게 하면은 이 끝에. 뭘, 밭 갈려고 하면 뭘 해야 될 겁니까?)

104006 #1 그디 보섭 끼우주.(거기 보습 끼우지.)

104006 @ 보섭. 보섭 밑에는?(보습. 보습 밑에는?)

104006 #1 보섭 밑에는 없어. 보섭 밑에는.(보습 밑에는 없어. 보습 밑에는.)

104006 @ 벳은 어디 허는 거우과?(벼은 어디 하는 겁니까?)

---

162) '돌벵이뿔'은 봇줄을 매기 위하여 쟁기의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모양의 나뭇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물추리막대'에 대응하는 말이다.

104006 #1 벳은 보섭 우에 허주게.(볏은 보습 위에 하지.)
104006 @ 아아.(아아.)
104006 # 요것이 보섭이면은.(요것이 보습이면은.)
104006 @ 예.(예.)
104006 #1 요 사이에 벳을 메와.(요 사이에 볏을 메워.)
104006 @ 아, 여기 위에 으. 겡은에 벳, 그다음에 벳 허면은 이 옆에 영 무신 칼 닮은 것도 잇지예?(아, 여기 위에 으. 그래서 볏, 그다음에 볏 하면은 이 옆에 이렇게 무슨 칼 같은 것도 있지요?)
104006 #1 벳칼.(볏칼.)
104006 @ 벳칼. 그다음에 또 부분 명칭 잇을 게 뭐 잇수가?(볏칼. 그다음에 또 부분 명칭 있을 게 뭐 있습니까?)
104006 #1 그거.(그거.)
104006 @ 여기 허당 보민 여기에 무신 영 고망 뚤라졍 뭐 영 끼우는 것도 잇지 아녀우과?(여기 하다가 보면 여기에 무슨 이렇게 구멍 뚫어져서 뭐 이렇게 끼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4006 #1 이디 고냥 뚤랑 끼우는 건 엇고.(여기 구멍 뚫어서 끼우는 건 없고.)
104006 @ 음, 여긴가?(음, 여긴가?)
104006 @2 설칫에 설칫에. 설칫 우에.(한마루에 한마루에. 한마루 위에.)
104006 #1 설칫 우에는 이 설칫이 우틔레 올라가지 못허게 이 설칫에 ᄀᆞ로 고냥 뚤랑 끼우주게.(한마루 위에는 이 한마루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이 한마루에 가로 구멍 뚫어서 끼우지.)
104006 @ 여기? 으. 거, 거는 무신 거렌 헤마씨?(여기? 으. 거, 거는 무슨 거라고 해요?)
104006 #1 거 무신거라. 설칫 그 저 우에 끼우는 거.(거 무엇이야. 한마루 그 저 위에 끼우는 거.)
104006 @ 뜸은 뭐우과?(‘뜸’은 뭡니까?)
104006 #1 어?(어?)
104006 @ 뜸?(‘뜸’?)
104006 #1 뜸[163]엔 헌 건 이거 설칫 구녁을 뚤르면은 이게 올랏다 ᄂᆞ렷다 못허게 영 허영 ᄀᆞ로 뜸을 주주.(‘뜸’이라고 한 건 이거 한마루 구멍을 뚫으면 이게 올랐다 내렸다 못하게 이렇게 해서 가로 ‘뜸’을 주지.)
104006 @ 아아. 거기가 여기가 게믄 뜸.(아아. 거기가 여기가 그러면 ‘뜸’.)
104006 #1 으.(으.)
104006 @ 으, 뜸이고예?(으, ‘뜸’이고요?)
104006 @2 그 우의.(그 위에.)
104006 @ 아.(아.)

163) ‘뜸’은 쟁기의 성에와 한마루 사이에 놓인 물건으로, 경심폭(耕深幅)을 조절하는 장치다.

104006 #1 게민 즉 말허민 이디 ᄀᆞ뜨민 지금 말로는 삥이라. 삥. 삥 끼우는 식이주게.(그러면 즉 말하면 여기 같으면 지금 말로는 핀이야. 핀. 핀 끼우는 식이지.)

104006 @ 예.(예.)

104006 #1 올랏다 내렷다 못허게.(올랐다 내렸다 못하게.)

104006 @2 게난 건 무신 얘기냐 허면 요 설, 요것이 밑에 돌이 잇으면 이걸 약간 위로 올려야 뭴 거 아냐. 아 돌 엇고 정말 설칫만 잇이믄 내리는 거라. 뜸 가지고.(그러니까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설, 요것이 밑에 돌이 있으면 이걸 약간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냐. 아 돌 없고 정말 한마루만 있으면 내리는 거야. '뜸' 가지고.)

104007 @ 뜸으로 헤서 이제 조정을 허는 거라예, 예? 그거는 쟁기하고 그 짐 시끄젠 허면 이렇게.('뜸'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쟁기하고 그 짐 실으려고 하면 이렇게.)

104007 #1 질메.(길마.)

104007 @ 질메가 잇잖아예. 질메도 그 부분 명칭이 잇어마씨?(길마가 있잖아요. 길마도 그 부분 명칭이 있어요?)

104007 #1 아니, 암놈 거나 숫놈 거나 ᄆᆞᆯ에 지우는 거나 질메는 똑 비슷헌디.(아니, 암놈 거나 수놈 거나 말에 지우는 거나 길마는 똑 비슷한데.)

104007 @ 예.(예.)

104007 #1 그 몸 부피에 따랑 질멧가지를 넓게 허느냐 좁게 허는 거냐 차이.(그 몸 부피에 따라서 길맛가지를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는 건가 차이.)

104007 @ 이게.(이게.)

104007 #1 ᄆᆞᆯ은 부피가 없으니까 질멧가지를 영 줄영 족게 만들곡.(말은 부피가 없으니까 길맛가지를 이렇게 줄여서 적게 만들고.)

104007 @ 예.(예.)

104007 #1 밧갈쉐 쯤은 좀 등따리가 넙으니깐 넙게 만들곡 그렇게 허는 거주.('밧갈쉐' 쯤은 좀 등때기가 넓으니깐 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104007 @ 게믄 이게 질멧가지. 질멧가지도 두 개 아니우과예?(그러면 이게 길맛가지. 길맛가지도 두 개 아닙니까요?)

104007 #1 질멧가지가 약 앞뒤가 잇주.(길맛가지가 약 앞뒤가 있지.)

104007 @ 어 앞가지 앞질메.(어 앞가지 '앞질메(?)'.)

104007 #2 앞가지허고 뒷가지허주.(앞가지하고 뒷가지하지.)

104007 @ 앞가지 뒷가지허고 이 옆에도 낭으로 영.(앞가지 뒷가지하고 이 옆에도 나무로 이렇게.)

104007 #1 거 잇어.(거 있어.)

104007 @ 건 뭐렌 헤마씨?(건 뭐라고 해요?)

104007 #1 그게 그걸 몰르겟네이.(그게 그걸 모르겠네.)

104007 @ 이 앞에도 안에 이렇게 또.(이 앞에도 안에 이렇게 또.)

104007 #1 건 도곰.(건 떰치.)

104007 @ 이건 도곰예? 도곰 이런 식으로, 여기 영허영 베 무꺼얄 거 아니?(이건 떰치요? 떰치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베 묶어야 할 거 아니?)

104007 #1 건, 건 이 질메가 쉐 우의 놧을 때에.(건, 건 이 길마가 소 위에 놨을 때에.)

104007 @ 예.(예.)

104007 #1 쉐 알, 베아뎅이 알로 헹은에 이디 오랑엔 헌 게 잇어.(소 아래, 배때기 아래로 해서 여기 뱃대끈이라고 한 게 있어.)

104007 @ 아아.(아아.)

104007 #1 그걸 무끄지 안 허민 질메가 도망가주게.(그걸 묶지 안 하면 길마가 도망가지.)

104007 @ 오랑예?(뱃대끈요?)

104007 #1 그 오랑.(그 뱃대끈.)

104007 @ 게난 그 베아뎅이에 무끄는 거를?(그러니까 그 배때기에 묶는 거를?)

104007 #1 오랑.(뱃대끈.)

104008 @ 오랑예. 그 정도면 이거는 뒈는 거네예? 그 다음에 삼춘 멍에?(뱃대끈요. 그 정도면 이거는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삼촌 멍에?)

104008 #1 멍에?(멍에?)

104008 @ 예.(예.)

104008 #1 멍에는 좀 이 나문, 나문디.(멍에는 좀 이 나문, 나문데.)

104008 @ 예.(예.)

104008 #1 영 ᄒᆞ쏠 고고롯[164] 영 오그라져, ᄒᆞ꼼.(이렇게 조금 '고고롯' 이렇게 오그라져, 조금.)

104008 @ 이렇게 헤영은에 셍기지 아녓수가예? 멍에예.(이렇게 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요? 멍에요.)

104008 #1 꼬부랑허게.(꼬부랑하게.)

104008 @ 그다음에 영 허영은에 여기 나무 잇고, 영.(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나무 있고, 이렇게.)

104008 #1 그건 멍에는 잘못 기렷주.(그건 멍에는 잘못 그렸지.)

104008 @ 잘못 그렷수가?(잘못 그렸습니까?)

104008 #1 으. 멍에 이게, 이게 멍에라고 허면은.(으. 멍에 이게, 이게 멍에라고 하면은.)

104008 @ 예.(예.)

104008 # 이게 일직선 뒈는 게 아니라.(이게 일직선 되는 게 아니라.)

104008 @ 이렇게.(이렇게.)

104008 #1 쪼끔 영.(조금 이렇게.)

104008 @ 으.(으.)

164) '고고롯'은 굽은 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104008 @2 휘여.(휘여.)
104008 #1 반달형으로.(반달형으로.)
104008 @ 반달형으로 이렇게 하고.(반달형으로 이렇게 하고.)
104008 #1 경혜영 이짝에 베 무끄곡 이짝에 베 무껑 이딜 쟁길 무끄주게.(그렇게 해서 이쪽에 베 묶고 이짝에 베 묶어서 여길 쟁길 묶지.)
104008 @ 어, 이렇게 이 베는 뭐렌 허여?(어, 이렇게 이 베는 뭐라고 해?)
104008 #1 이거 줄대[165].(이거 '줄대'.)
104008 @ 무신 대?(무슨 대?)
104008 #1 줄대.('줄대'.)
104008 @ 줄대. 줄대고 이 옆, 옆에 목에 허는 거는?('줄대'. '줄대'고 이 옆, 옆에 목에 하는 거는?)
104008 #1 그거? 어느 거?(그거? 어느 거?)
104008 @ 영 멍에 허면 이렇게 영 목으로 쉐 목에 헤얄, 뒐 거 아니우과?(이렇게 멍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목으로 소 목에 해야 할, 될 거 아닙니까?)
104008 #1 아 건 접궤 건.(아 건 목대 건.)
104008 @ 이건 접게. 이 줄은? 접게 헤갖고 이 멍에 허게 뒈면 여기 그다음에 영 잠, 잠대에 허는 거?(이건 목대. 이 줄은? 목대 해갖고 이 멍에 하게 되면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쟁, 쟁기에 하는 거?)
104008 #1 잠대에 허는 게 그게, ᄀᆞ만 시라, 거 아, 뭣이여, 자꾸 허여나신디 나도 만들어도나고 헤신디.(쟁기에 하는 게 그게, 가만히 있어라, 거 아, 뭣이여, 자꾸 했었는데 나도 만들었기도 했는데.)
104008 @ 삼춘은 잠대 잇지 안헤예?(삼촌은 쟁기 있지 않아요?)
104008 #1 우리 집의 잇는 거 관광 저저 꿀칩[166]의서 왕 ᄃᆞ렌 허난 줘볏주. 옛날은 필요 엇이난. 아 알아지겟는디 튿내질 못허겟네.(우리 집에 있는 거 관광 저저 '꿀집'에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줘버렸지. 옛날은 필요 없으니까. 아 알겠는데 생각하질 못하겠네.)
104008 @ 솜비줄은 어디우과?(봇줄은 어딥니까?)
104008 #1 어?(어?)
104008 @ 솜비줄 허는 거는?(봇줄 하는 거는?)
104008 #1 솜비줄엔 허는 거는 뭐여?('솜비줄'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104008 @1 건 이 동네 아니구나? 웃음.(건 이 동네 아니구나? 웃음.)
104008 @2 그건?(그건?)
104008 @ 저 쉐.(저 소.)
104008 @2 아니 아니야. 그 잠대하고.(아니 아니야. 그 쟁기하고.)
104008 @ 예.(예.)

165) '줄대'는 멍에에 이어진 줄을 말한다. 표준어 '봇줄'을 제보자는 '줄대'라고 한 것 같다.
166) '꿀칩'은 꿀을 얻기 위하여 벌을 기르는 집을 말한다. 표준어 '벌집'에 대응하는 말이다.

104008 @2 멍에하고 이어지는 줄이야.(멍에하고 이어지는 줄이야.)

104008 @ 음, 튿냉 놔둡서, 것도 게믄.(음, 생각해서 놔두십시오, 것도 그러면.)

104008 #1 으.(으.)

104009 @ 멍에 그림을 내가 너무 이상허게 그려졋저. 그다음에 목장예, 여기서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헨마씨?(멍에 그림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지. 그다음에 목장요, 여기서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4009 #1 목장은 접원이 잇어. 접원.(목장은 계원이 있어. 계원.)

104009 @ 접원? 어, 게믄 그건 목장 접으로 허는 거우과?(계원? 어, 그러면 그건 목장 계로 하는 겁니까?)

104009 #1 성읍리가.(성읍리가.)

104009 @ 예.(예.)

104009 #1 동쪽 목장 서쪽 목장 영 동목장[167] 서목장[168] 허주.(동쪽 목장 서쪽 목장 이렇게 '동목장' '서목장' 하지.)

104009 @ 아아, 삼춘네는 어느 목장이우과?(아아, 삼촌네는 어느 목장입니까?)

104009 #1 우린 서목장.(우린 '서목장'.)

104009 @ 게믄 서목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헨 거 골아줍서. 게민.(그러면 '서목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 거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104009 #1 서목장은 목장 조합원이 처음은 우리가 처음 목장 설립헐 땐 한 사십 명 허단에 나이 돌아가실 분 돌아가셔불고 뭘 헤가단 츠츠 허단 젤 내중엔 흔 십오 명쯤 뒈어나신디.('서목장'은 목장 조합원이 처음은 우리가 처음 목장 설립할 땐 한 사십 명 하다가 나이 돌아가실 분 돌아가셔버리고 뭘 해가다가 차차 하다가 젤 나중엔 한 십오 명쯤 되었었는데.)

104009 @ 음.(음.)

104009 #1 십오 명 뒌 때에 내가 소를, 소를 안 허게 뒈니까 나가 나도 떨어져불엇는디.(십오 명 된 때에 내가 소를, 소를 안 하게 되니까 내가 나도 떨어져버렸는데.)

104009 @ 예.(예.)

104009 #1 지금도 목장을 저 지금 하고 잇어.(지금도 목장을 저 지금 하고 있어.)

104009 @ 음, 아, 지금도예? 예.(음, 아, 지금도요? 예.)

104009 #1 지금도 동목장에는 시방 접원이 네 사름인가 잇젠 허고 서목장은 흔 열 멧 사름 잇는 걸로 내가 아는디.(지금도 '동목장'에는 시방 계원이 네 사람인가 있다고 하고 '서목장'은 한 열 몇 사람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104009 @ 아, 아직도 쉐 키우는 사름이 잇구나예?(아, 아직도 소 키우는 사람이 있군요?)

---

167) '동목장'은 마을 동쪽에 있는 목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168) '서목장'은 마을 서쪽에 있는 목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104009 #1 동목장을 어딘고 허니까 무, 영주산[169].(‘동목장’을 어딘가 하니까 무, ‘영주산’.)

104009 @ 예.(예.)

104009 @2 예, 예.(예, 예.)

104009 #1 영주산을 동목장으로 허고.(‘영주산’을 ‘동목장’으로 하고.)

104009 @ 으.(으.)

104009 #1 이 모지악[170]을 옛날은 그 모지악을 보고 무찌오름이라고 헷는디.(이 ‘모지악’을 옛날은 그 ‘모지악’을 보고 ‘무찌오름’이라고 했는데.)

104009 @2 예, 무찌오름.(예, ‘무찌오름’.)

104009 #1 그거 것이 서목장이주.(그거 것이 ‘서목장’이지.)

104009 @ 으음, 게믄 거기를 목장을 경계로 헤서 쳉명 때 내보내고.(으음, 그러면 거기를 목장을 경계로 해서 청명 때 내보내고.)

104009 #1 으.(으.)

104009 @ 입동 뒈면 디물린 거구나예. 게민 거기에서만 계속 산 거네. 물 그 게믄 그 쉐 보레도 가야 뒐 거 아니우과?(입동 되면 집어넣은 거군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계속 산 거네. 말 그 그러면 그 소 보러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4009 #1 그디 목감[171]을 정헤근에.(그디 ‘목감’을 정해서.)

104009 @ 예.(예.)

104009 #1 접에서.(계에서.)

104009 @ 으, 접에서.(으, 계에서.)

104009 #1 목감을 정헤서 목감 월급 주면서 육 개월 동안 데령 쓰주.(‘목감’을 정해서 ‘목감’ 월급 주면서 육 개월 동안 데려서 쓰지.)

104009 @ 음, 목감은 어디에서 누구를 데령 쓰는 거우과?(음, ‘목감’은 어디에서 누구를 데려서 쓰는 겁니까?)

104009 #1 그 마을에서 희망자가 나와.(그 마을에서 희망자가 나와.)

104009 @ 아아.(아아.)

104009 #1 딱 그 시기가 뒈어가민은.(딱 그 시기가 되어가면.)

104009 @ 예.(예.)

104009 #1 좀 곤란헌 사름덜 목감허켄 지원자가 나와.(좀 곤란한 사람들 ‘목감’ 하겠다고 지원자가 나와.)

104009 @ 음. 게믄 그 목감한테는 그러면 그 쉐 봐준 대가로 헤서.(음. 그러면 그 ‘목감’한테는 그러면 그 소 봐준 대가로 해서.)

104009 #1 우리가 그 사름안티 저 월급을 주는 거주.(우리가 그 사람한테 저 월급을 주는 거지.)

---

169) ‘영주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오름이다.

170) ‘모지악’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달리 ‘무찌오름’이라고도 한다.

171) ‘목감’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서 주민들이 목장에 올린 소를 책임져서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104009 @ 아, 월급으로 줍니까?(아, 월급으로 줍니까?)

104009 #1 예, 한 달에 언마씩 헤연.(예, 한 달에 얼마씩 해서.)

104009 @ 으음, 게믄 그 쉐 봐주는 사름을 목감이렌 허는 거라예? 아 게믄 목장에 가민 목감덜 사는 막도?(으음, 그러면 그 소 봐주는 사람을 '목감'이라고 하는 거네요? 아 그러면 목장에 가면 '목감'들 사는 막도?)

104009 #1 잇주.(있지.)

104009 @ 그 집을 뭐렌 헙니까?(그 집을 뭐라고 합니까?)

104009 #1 목감 사는 막이렌 헤영 지금도 시방 잇주.('목감' 사는 막이라고 해서 지금도 시방 있지.)

104010 @ 아, 목장마다 게민 그런 게 이시켜예. 여기는예. 그 다음에 혹시 쉐 치멍예, 소 쉐 질루멍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 같은 거 잇어마씨? 경험. 삼춘도 그 옛날에는 집에 쉐가 잇으면 집 목장에 몰아당 길루단 몰아단 집에 들어오는 거는 엇어마씨? 번 서거나.(아, 목장마다 그러면 그런 게 있겠네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혹시 소 치면서요, 소 소 기르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경험. 삼촌도 그 옛날에는 집에 소가 있으면 집 목장에 몰아다가 기르다가 몰아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번을 서거나.)

104010 @2 번쉐[172]?('번쉐'?)

104010 #1 그런 거는 없고, 목장에 봄에 가면은.(그런 거는 없고, 목장에 봄에 가면은.)

104010 @ 예.(예.)

104010 #1 가을 들어올 때ᄁᆞ진 그디 항시 그디 잇다가 들어오는 거뿐이지, 무신.(가을 들어올 때까진 거기 항시 거기 있다가 들어오는 거뿐이지, 무슨.)

104010 @ 따로 이제 그 당번헹 보러 가거나 이러진 아녀마씨? 목장에.(따로 이제 그 당번해서 보러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목장에.)

104010 #1 당번이 이녁이 자기 소를 보고 싶으민 강 보는 거지.(당번이 이녁이 자기 소를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거지.)

104010 @ 으.(으.)

104010 #1 누가 왕 보렌 헐 수는 없지. 목감 지정뒌 사름 이시나 그 사름이 소가 어디 촐을 안 먹엉 쫌 이 쉐가 이상허다 허민 연락이 오주.(누가 와서 보라고 할 수는 없지. '목감' 지정된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소가 어디 꼴을 안 먹어서 좀 이 소가 이상하다 하면 연락이 오지.)

104010 @ 아.(아.)

104010 #1 그거지. 그렇게 허면 소 임제 강 보는 거고 경 아녀민 이녁이 강 보고 싶은 사름이 이땅 심심허민 그냥 놀면서 강 봐.(그거지. 그렇게 하면 소 임자 가서 보는 거고 그렇게 않으면 이녁이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이따가 심심하면 그냥 놀면서 가서 봐.)

---

172) '번쉐'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를 말한다.

104010 @ 아, 그렇게 허영 보고예? 게난 별도로 목감안티 메껴불면은 동네에선 뭐 가질 안 허는구나예? 예에.(아,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목감'한테 맡겨버리면 동네에선 뭐 가질 안 하는군요? 예에.)

말 기르기

104011 @ 그 다음에 삼춘, 말도 여러 머리 질롯잖아예?(그 다음에 삼촌, 말도 여러 마리 길렀잖아요?)

104011 #1 말은?(말은?)

104011 @ 예.(예.)

104011 #1 지금은 이 제동목장[173]이 생겨서 그디 뭐 지금 대한항공이 와서 뭐 다 허는데.(지금은 이 '제동목장'이 생겨서 거기 뭐 지금 대한항공이 와서 뭐 다 하는데.)

104011 @ 으음.(으음.)

104011 #1 그 전에는 그 녹산장[174]이라고 헤서 그 사름 임제가 그때 서울 살앗일 거여. 그때 땅 임자가.(그 전에는 그 '녹산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임자가 그때 서울 살았을 거야. 그때 땅 임자가.)

104011 @ 음.(음.)

104011 #1 그때는 봄철에 여기 물을 길루다가 조팟 다 불리고 나민 물이 이젠 목장으로 올라가벼야 이 물덜이 먹던, 뜯어먹던 자리를 촐을 키와서 촐을 빌 건디.(그때는 봄철에 여기 말을 기르다가 조밭 다 밟고 나면 말이 이젠 목장으로 올라가 버려야 이 말들이 먹던, 뜯어먹던 자리를 꼴을 키워서 꼴을 벨 건데.)

104011 @ 음.(음.)

104011 #1 게면은 이 저 조팟 다 불려난 다음에는 목장으로 올려불주. 녹산장으로.(그러면 이 저 조밭 다 밟아난 다음에는 목장으로 올려버리지. '녹산장'으로.)

104011 @ 녹산장으로예?('녹산장'으로요?)

104011 #1 물 올려불민은 이 물 그 봄에 놀면서 먹어난 자리는 풀이 컹 자라민 촐 이 낫[175]으로 비주게. 강 비여당 그건 놧당 겨울에 또 소도 주곡.(말 올려버리면 이 말 그 봄에 놀면서 먹었던 자리는 풀이 커서 자라면 꼴 이 낫으로 베지. 가서 베어다가 그건 놨다가 겨울에 또 소도 주고.)

104012 @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예 종류도 하지예?(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요 종류도 많지요?)

104012 #1 물 종류가 혼 서너 네 가지 뒈주.(말 종류가 한 서너 네 가지 되지.)

104012 @ 예, 그거 골아봅서. 무신?(예, 그거 말해 보십시오. 무슨?)

104012 #1 젤 이 물 색깔을.(젤 이 말 색깔을.)

---

173) '제동목장'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목장이다.

174) '녹산장'은 목장 이름이 하나다. 조선시대 생긴 10개의 국마장 가운데 가장 큰 목장 이름이다.

175) 여기에서 '낫'은 서서 꼴 따위를 베는 날이 큰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성읍지역의 말은 '호미'다.

104012 @ 예.(예.)

104012 #1 일 가라[176]엔 헌 거는 가라ᄆᆞᆯ이 젤 센다는 거주.(일 '가라'라고 한 거는 가라말이 젤 센다는 거지.)

104012 @ 예.(예.)

104012 #1 일 가라 이 적다[177].(일 '가라' 이 절따.)

104012 @ 이 적다.(이 절따.)

104012 #1 삼 월라[178], ᄉᆞ 월라. 저 오 청충[179]. 청춘이엔 헌 ᄆᆞᆯ이 잇어.(삼 '월라', 사 '월라'. 저 오 '청총'. '청총'이라고 한 말이 있어.)

104012 @ 예.(예.)

104012 #1 똑 이 노리 색깔 모냥으로 흰 털 박아지고 검은털 박아지고, 게난 청충이[180]도 두 가지라. 먹청총이[181] 잇고. 흰청충이[182] 잇고 청충이 잇고.(똑 이 노루 색깔 모양으로 흰 털 박히고 검은 털 박히고, 그러니까 총이말도 두 가지야. '먹청총이' 있고. '흰청총이' 있고 '청총이' 있고.)

104012 @ 게믄 일 번이?(그러면 일 번이?)

104012 #1 가라.('가라'.)

104012 @ 가라.('가라'.)

104012 #1 이 적다.(이 '절따'.)

104012 @ 이 적다.(이 '절따'.)

104012 #1 삼 월라.(삼 '얼룩'.)

104012 @ 삼 월라.(삼 '얼룩'.)

104012 #1 ᄉᆞ, ᄉᆞ ᄀᆞᆺ싸 뭐옌 헷지.(사, 사 아까 뭐라고 했지.)

104012 @ 유매?(유마?)

104012 #1 아니, 일 가라 이 청총 삼 적다 ᄉᆞ 월라 아, 일 가라 이 청춘 삼 적다, ᄉᆞ 월라 오 청춘.(아니, 일 '가라' 이 '청총' 삼 '절따' 사 '얼룩' 아, 일 '가라' 이 '청총' 삼 '절따' 사 '얼룩' 오 '청총'.)

104012 @ 아까 청총이 두 번이렌?(아까 '청총이' 두 번째라고?)

104012 #1 아니.(아니.)

104012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12 #1 청충이가 ᄆᆞᆯ 색깔이 두 개엔 헌 말이주.('청총이'가 말 색깔이 두 개라고 한 말이지.)

104012 @ 으.(으.)

---

176) '가라'는 제보자가 '가라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가라'는 털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177) '적다'는 '적다말', 즉 '절따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절따말'은 몸 전체의 털색이 밤색이어서 불그스름한 말이다.

178) '월라'는 '월라ᄆᆞᆯ'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어 '얼룩말'에 대응하는 성읍1리 말이다.

179) '청충'은 '청충마' 즉, '청총마'를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180) '청충이'는 몸의 색깔이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이 섞어진 말을 말한다. 표준어 '총이말'에 대응하는 성읍 지역 말이다.

181) '먹청충이'는 흰색 털과 검은색 털 가운데 검은색 털이 더 많이 섞인 총이말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182) '흰청충이'는 흰색 털과 검은색 털 가운데 흰색 털이 더 많이 섞인 총이말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104012 #1 게난 두 개엔 헌 말인디 처음은 일 가라 이 적다 삼 삼 월라 ᄉᆞ 아, 일 가라 이 청춘.(그러니까 두 개라고 한 말인데 처음은 일 '가라' 이 '절따' 삼 삼 '얼룩' 사 아, 일 '가라' 이 '청총'.)

104012 @ 이 청총.(이 '청총'.)

104012 #1 일 가라 이 적다 삼 월라 ᄉᆞ 청춘. 에 물이 다섯 가진데. 아 일가라 이 청춘 삼.(일 '가라' 이 '절따' 삼 '얼룩' 사 '청총'. 에 말이 다섯 가진데. 아 일 '가라' 이 '청총' 삼.)

104012 @ 적다.('절따'.)

104012 #1 삼 적다. ᄉᆞ 유마엔 헌 게 잇어서.(삼 '절따'. 사 유마라고 한 게 있어서.)

104012 @ ᄉᆞ 유매? ᄉᆞ 유마.(사 유마? 사 유마.)

104012 #1 그건.(그건.)

104012 @ 오 월라.(오 '얼룩'.)

104012 #1 그건 노린 색깔도 잇고 검은 색깔 박아진 게 유마엔 허는디 그거 다섯 가지.(그건 노란 색깔도 있고 검은 색깔 박힌 게 '유마'라고 하는데 그거 다섯 가지.)

104012 @ 게니까 삼춘, 두 번째는 적다가 아니라 청총.(그러니까 삼촌, 두 번째는 '절따'가 아니라 '청총'.)

104012 #1 청춘.('청총'.)

104012 @ 청총이. 일 가라?('청총이'. 일 '가라'?)

104012 #1 이 청춘.(이 '청총'.)

104012 @ 이 청총.(이 '청총'.)

104012 #1 삼 적다.(삼 '절따'.)

104012 @ 삼 적다.(삼 '절따'.)

104012 #1 ᄉᆞ 월라.(사 '얼룩'.)

104012 @ ᄉᆞ 월라.(사 '얼룩'.)

104012 #1 그게 맞은 거 닮아.(그게 맞은 거 같아.)

104012 @ 아니, ᄉᆞ 유매?(아니, 사 유마?)

104012 #1 ᄉᆞ 유매엔 헌 건 뭐라?(사 유마라고 한 건 뭐야?)

104012 @ 유마. 오 월라.(유마. 오 '얼룩'.)

104012 #1 아니 이 월 저 거세기 유마가 막끗델 거라.(아니 이 월 저 거시기 유마가 마지막일 거야.)

104012 @ 아, 유마는 막끗데. 아무튼 알앗수다. 게믄 유마는 어떤 말마씨?(아, 유마는 마지막에.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마는 어떤 말이예요?)

104012 #1 유마는 노린 색깔에 검은 털이 박아지주게.(유마는 노란 색깔에 검은 털이 박히지.)

104012 @ 노린 색깔에 검은 털 박아진 거. 그 다음에 아까 월라는?(노란 색깔에

검은 털 박힌 거. 그 다음에 아까 '얼룩'은?)

104012 #1 월라는 흰 털에 노린 털 박아진 거.('얼룩'은 흰 털에 노란 털 박힌 거.)

104012 @ 흰 털에 노린 털 박아진 거.(흰 털에 노란 털 박힌 거.)

104012 #1 게난 대개 물 허는 사름덜이 우리도 그런 물이 엇이민 일부러 어디 강 그런 물을 사당 놔. ᄒᆞ나 일부러.(그러니까 대개 말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말이 없으면 일부러 어디 가서 그런 말을 사다가 놔. 하나 일부러.)

104012 @ 아아.(아아.)

104012 #1 웨냐면 먼 디서 봐도 그 물 색깔을 보민 저거 우리 말이란 걸 헤봣는디 표시가 나주게. 월라는. 나도 걸 헤봣는디, 이 에 물 그 녹산장에 놘 보레 뎅길 때는 먼 디서 이녁 물을 츳젠 허면은 눈으로 봥은 먼 디선 못 베리난 서울로 헨엔 쌍안경.(왜냐면 먼 데서 봐도 그 말 색깔을 보면 저거 우리 말이란 걸 해봤는데 표시가 나지. '얼룩'은. 나도 걸 해봤는데, 이 에 말 그 '녹산장'에 놔서 보러 다닐 때는 먼 데서 이녁 말을 찾으려고 하면 눈으로 봐서는 먼 데선 못 보이니까 서울로 해서 쌍안경.)

104012 @ 예.(예.)

104012 #1 쌍안경 주문 헤단에. 오름 꼭대기 강 딱 앚앙 보민 영 보민 아 우리 물은 저 저기 잇구나 헤엔 그렇게 헤연 물 츶아낫주.(쌍안경 주문 해다가. 오름 꼭대기 가서 딱 앉아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아 우리 말은 저 저기 있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말 찾았었지.)

104012 @ 예에, 그렇게 하고 그건 털 색깔이잖아예? 모양에 따랑도 ᄐᆞ나지 아녀마씨? 이런 얼굴에 뭐 점이 박아졋다든가?(예에, 그렇게 하고 그건 털 색깔이잖아요? 모양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얼굴에 뭐 점이 박히든가?)

104012 #1 얼굴에 점 헌 건 이거는 이디 흰털 박아진 게 잇어.(얼굴에 점 한 건 이거는 이디 흰털 박힌 게 있어.)

104012 @ 예. 코에.(예. 코에.)

104012 #1 코간전이[183]라고 헤서.('코간전이'라고 해서.)

104012 @ 코간전이.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랑헌 거는?('코간전이'.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거는?)

104012 #1 동글락헌 건 그건 몰르겟네, 이름. 이디 똥글락헌 점 잇는데 그걸.(동그란 건 그건 모르겠네, 이름. 여기 동그란 점 있는데 그걸.)

104012 @ 태성벡이?(태성벡이?)

104012 #1 아 맞아, 태성벡이.(아 맞아, 대성마.)

104012 @ 태성벡이예? 웃음.(대성마요? 웃음.)

104012 #1 요 긴 거는 그.(요 긴 거는 그.)

104012 @2 간전이.('간전이'.)

183) '코간전이'는 이마에서 코에 이르기까지 흰 줄이 나 있는 말을 가리킨다.

104012 #1 코간전이엔 허는디.(‘코간전이’라고 하는데.)

104013 @ 코간전이엔 허고예. 예. 그다음에 말은 어떵 사용헌 거우꽈? 말은 무사 말을 질룬 거라?(‘코간전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말은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말은 왜 말을 기른 거야?)

104013 #1 말?(말?)

104013 @ 예. 물.(예. 말.)

104013 #1 물은 옛날은 저거 웨출[184], 저거 웨국으로 수출뒌 아녓엇고. 순전히 이 저 이 밧 불릴 용이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그자 나이 들어가민 잡아먹는 것벳긔는.(말은 옛날은 저거 ‘외출’, 저거 외국으로 수출되지는 않았었고. 순전히 이 저 이 밭 밟을 용이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그저 나이 들어가면 잡아먹는 것밖에는.)

104013 @ 음. 밧 불리는 주로예.(음. 밭 밟는 주로요.)

104013 #1 허단에 언제 물이 저 일본으로 수출이 뒈는고 허니까 저게 한 오십팔년도 한 육십년도쯤에 일본으로 수출을 헷어. 저 물.(하다가 언제 말이 저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가 하니까 저게 한 오십팔년도 한 육십년도쯤에 일본으로 수출을 했어. 저 말.)

104013 @ 음.(음.)

104013 #1 일본 수출헐 때 무슨 목적으로 헷는고 허니 일본은 개 양석으로.(일본 수출할 때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 하니 일본은 개 양식으로.)

104013 @ 아.(아.)

104013 #1 일본은 그 물을 잡아서 개를 멕일라고 일본에서 막 물 완 받아가낫주.(일본은 그 말을 잡아서 개를 먹이려고 일본에서 막 말 와서 받아갔었지.)

104013 @ 음.(음.)

104013 #1 헨 나도 그때 물을 멧 개 풀아보멍 헷는디.(해서 나도 그때 말을 몇 개 팔아보면서 했는데.)

104014 @ 그런 식으로 이제 허는 거라예? 그다음에 이제 물 아까는 금 저기 쉐 세는 거고 물 나이는 어떵 세어?(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말 아까는 금 저기 소 세는 거고 말 나이는 어떻게 세어?)

104014 #1 물도 마찬가지. 금승.(말도 마찬가지. 하릅.)

104014 @ 예.(예.)

104014 #1 이수매[185] 삼수[186] 스수[187] 오수[188] 이렇게 허주게.(‘이수매’ ‘삼수’ ‘스수’ ‘오수’ 이렇게 하지.)

104014 @ 음, 겐 건 멧 설까지 세마씨?(음, 그래서 건 몇 살까지 세요?)

104014 #1 난 다섯, 다섯 술까지벳긔는 그 이상은 안 세어봣어.(난 다섯, 다섯

184) 여기에서 ‘웨출’은 제보자가 ‘외국으로 수출하다’라는 의미로 쓴 말이다.
185) ‘이수매’는 두 살 된 말을 가리킨다.
186) ‘삼수’는 말의 나이 세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187) ‘스수’는 말의 나이 네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188) ‘오수’는 말의 나이 다섯 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살까지밖에는 그 이상은 안 세어봤어.)

104015 @ 아, 삼춘은 빨리 빨리 키웟구나? 물 질루멍은에 그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 ᄀᆞ튼 거 잇수과?(아, 삼촌은 빨리 빨리 키웠구나? 말 기르면서 그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 같은 거 있습니까?)

104015 #1 추억은 여먹어베영 춪지 못헐 때.(추억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할 때.)

104015 @ 여먹엉예. 어떵.(잃어버려서요. 어떻게.)

104015 #1 솔직히 나도 물 춪앙 ᄉᆞ십 일 뎅여봣덴 허니까.(솔직히 나도 말 찾아서 사십 일 다녀봤다고 하니까.)

104015 @2 아.(아.)

104015 @ 아, 멧 머리나?(아, 몇 마리나?)

104015 #1 ᄒᆞ난디, 물이 나가 삼십 멧 두를 헷는디 목장에 강 보니까 말이 하나가 없어. 겐디 목장에 갈 때에 암놈허고 숫놈은 딱 하나를 놉주게. 숫놈이 이걸 다 몰앙 다니멍 촐도 먹곡 물도 먹곡 이렇게 허멍 사는 건디 가보니까 물이 없어. 춪다 춪다 보니까.(하난데, 말이 내가 삼십 몇 마리를 했는데 목장에 가서 보니까 말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목장에 갈 때에 암놈하고 수놈은 딱 하나를 놓지요. 수놈이 이걸 다 몰아서 다니면서 꼴도 먹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건데 가보니까 말이 없어. 찾다 찾다 보니까.)

104015 @ 음.(음.)

104015 #1 결과적으로 남 트멍에 간에 다리 접현에.(결과적으로 나무 틈에 가서 다리 끼어서.)

104015 @ 음.(음.)

104015 #1 그 녹산장에 ᄎᆞ남이 많으니까 초남밧듸 간 다니단 뒷다릴 접현에 거기서 죽은 걸 몰란 사십 일 춪아 봣어.(그 '녹산장'에 참나무가 많으니까 참나무밭에 가서 다니다가 뒷다릴 끼어서 거기서 죽은 걸 몰라서 사십 일 찾아 봤어.)

104015 @ 잊어불지 못허는 건게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물 하게 뒈면 물 부릴 때예? 지달 쓰거나 이런 것도 헤마씨?(잊어버리지 못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말 하게 되면 말 부릴 때요? 지달 싸거나 이런 것도 해요?)

104015 #1 지달은 이 담질[189] 잘허는 놈.(지달은 이 '담질' 잘하는 놈.)

104015 @ 예.(예.)

104015 #1 담 잘 넘어가는 놈을 허지. 대개 쉐는 지달을 싸봣는디 우리도 쉐는 지달을 싸봣는디 바령[190], 바령헐 적에.(담 잘 넘어가는 놈을 하지. 대개 소는 지달을 싸봤는데 우리도 소는 지달을 싸봤는데 '바령', '바령'할 적에.)

104015 @ 예.(예.)

104015 #1 바령헐 댁에 담질 잘허는 놈은 쉐를 지달을 싸봣는디 물은 별로 지달ᄀᆞ뜬 거는 안 싸주.('바령'할 적에 '담질' 잘하는 놈은 소를 지달을 싸봤는데 말은

189) '담질'은 담을 뛰어넘는 짓을 말한다.
190) '바령'은 마소의 똥과 오줌을 받아 지력을 북돋는 일을 말한다.

별로 지달같은 거는 안 싸지.)

104015 @ 음, 그런 거는 안 허고예. 여기도 ᄆᆞᆯ바레기 헤낫수가?(음,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여기도 'ᄆᆞᆯ바레기' 했었습니까?)

104015 #1 ᄆᆞᆯ바레기[191]가 나가 열일곱 술부터 ᄆᆞᆯ바레기 헷주.('말바레기'가 내가 열일곱 살부터 '말바레기' 했지.)

104015 @ 아, 그 얘기를 흔 번 헤줍서.(아, 그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104015 #1 열일곱 설에 웨냐믄 그때 당시에는 마차조합엔 헌 게 잇어이.(열일곱 살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차조합이라고 한 게 있어.)

104015 @ 예.(예.)

104015 #1 딴 부락엔 몰라도 이 성읍리는 그때 열두 사람이 헷는디 다 그래도 흔 사십 대 뒌 분인디 젤 어린 사름이 나라.(딴 부락엔 몰라도 이 성읍리는 그때 열두 사람이 했는데 다 그래도 한 사십 대 된 분인데 젤 어린 사람이 나야.)

104015 @ 음.(음.)

104015 #1 이 열일곱 설에 내 마차를 헐 때에 마차조합에 가입허렌 헨 가입헨 마차를 헨, 우리. 게난 가입헌 사름 웨에는 부락에서 나온 그때는 뭘 많이 운반헷는고 허니깐 뜸허고 짐, 짐, 김새, 짐새[192][짐쌔].(이 열일곱 살에 내 마차를 할 때에 마차조합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해서 마차를 했어, 우리.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 외에는 부락에서 나온 그때는 뭘 많이 운반했는가 하니깐 뜸하고 김, 김, '김새', '김새'.)

104015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5 #1 짐새. 그 김 헐 때 발 짜는 새. 그거를 표선이[193] 당케[194]를 실러 가는디.('김새'. 그 김 할 때 발 짜는 띠. 그거를 표선리 '당케'를 실어서 가는데.)

104015 @ 음.(음.)

104015 #1 그때에 내가 마차조합에 들언에 그 좀 거기 운반허면서 헤낫는디. 그렇게 허단에 그게 그 김새 허단에 한 이젠 세상이 쫌 이 한라산에 폭도도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뒈고 뭘 헨 허니까 한라산에 도벌목[195]을 허레 다님 시작헷주. 웨 그때는 사삼사건이니까 불 타부련 집이 없는 동네가 많앗엇주.(그때에 내가 마차조합에 들어서 그 좀 거기 운반하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그 '김새' 하다가 한 이젠 세상이 좀 이 한라산에 폭도도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되고 뭘 해서 하니까 한라산에 '도벌목'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지. 왜 그때는 사삼사건이니까 불 타버려서 집이 없는 동네가 많았었지.)

104015 @ 음.(음.)

104015 #1 그러고 새로 생기난 마을에 취락구조엔 헌 게 셍겻어. 그런 디선 나

191) '몰바레기'는 말이 이끄는 달구지를 말한다. '바레기'는 표준어 '달구지'에 대응하는 성읍1리의 말이다.
192) '짐새'는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띠를 말한다.
193) '표선이'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194) '당케'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포구의 하나다.
195) '도벌목'은 몰래 나무를 캐러 다니는 일을 말한다.

무가 엇언 집을 못 짓게 뒈난 거 헤연 우리가 그 한라산에 도벌목을 허레 뎅길 때 내가 한 스물아홉 설쯤 뒌 때부떠 다니기 시작헤연 그때 한라산에 도벌목 허레 한 십 멧 년을 다녓주.(그러고 새로 생기니까 마을에 취락구조라고 한 게 생겼어. 그런데선 나무가 없어서 집을 못 짓게 되니까 거 해서 우리가 그 한라산에 '도벌목'을 하러 다닐 때 내가 한 스물아홉 살쯤 될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 한라산에 '도벌목' 하러 한 십 몇 년을 다녔지.)

104015 @ 아 한라산에 물바레기헨예? 게난 그때 그걸 바레기렌 허는 거구나예?(아 한라산에 '말바레기'해서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바레기'라고 하는 거군요?)

104015 #1 물바레기. 옛날은 토종, 토종바레기[196]엔 헌 게 잇어.('말바레기'. 옛날은 토종, '토종바레기'라고 한 게 있어.)

104015 @ 그건 무신 말이우꽈?(그건 무슨 말입니까?)

104015 #1 토종바레기옌 헌 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만들엇덴 헌 구루마가 잇어.('토종바레기'라고 한 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만들었다고 한 달구지가 있어.)

104015 @ 예.(예.)

104015 #1 이 장통[197]도 나무로 뒌 거고 홀롱통[198]이렌 헌 것도 나무로 뒌 거고. 일본놈덜이 여기서 완 망헨 나가버리니깐 그 일본놈[199]덜 쓰던 마차를 사용헨에 우리가 저 마차를 헷주.(이 '장통'도 나무로 된 거고 '홀롱통'이라고 한 것도 나무로 된 거고. '일본놈'들이 여기서 와서 망해서 나가버리니깐 그 일본놈들 쓰던 마차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 마차를 했지.)

104015 @ 음.(음.)

104015 #1 그전이는 저 토종구루마[200]라고 헤서 저 일 개 부락에 멧 개 없엇어. 성읍리도 흔 서너네 개벳긴 엇언.(그전에는 저 '토종구루마'라고 해서 저 일 개 부락에 몇 개 없었어. 성읍리도 한 서너네 개밖엔 없었어.)

104015 @ 게난 토종바레기는 높지 아년 막 야튼 거예?(그러니까 '토종바레기'는 높지 않아서 아주 얕은 거요?)

104015 #1 야트기도 허거니와.(얕기도 하거니와.)

104015 @ 으.(으.)

104015 #1 이 쌀 박는 디가 이게 나무라.(이 쌀 박는 데가 이게 나무야.)

104015 @ 예.(예.)

104015 @2 예.(예.)

104015 #1 일본 구루마는 쌀 박아지는 디가 쒠디.(일본 달구지는 쌀 박히는 데가 쇤데.)

---

196) '토종바레기'는 제주에서 예전부터 만들어 사용한 달구지를 말한다.
197) '장통'은 달구지의 한 부분을 말한다.
198) '홀롱통'은 달구지의 한 부분을 말한다.
199) '일본놈'은 일본인을 비하해서 제보자가 쓴 말이다.
200) '토종구루마'는 제주에서 만들어 쓰던 달구지다. '구루마'는 달구지에 대응하는 일본어다.

104015 @ 예.(예.)

104015 #1 토종구루마는 이게 홀롱통이라고 헤서 저 영 요만이 솔진 나무 헤근에 여기 쌀을 돌아가멍 박안 마차를 만들아낫주게.(‘토종구루마’는 이게 ‘홀롱통’이라고 해서 저 이렇게 요만큼 살진 나무 해서 여기 쌀을 돌아가면서 박아서 마차를 만들었었지.)

104015 @ 삼춘 아까 이제 그 장통이렌도 허고 홀롱통이렌도 허는데 장통이 뭐마씨?(삼촌 아까 이제 그 ‘장통’이라고도 하고 ‘홀롱통’이라고도 하는데 ‘장통’이 뭐예요?)

104015 #1 장, 장통이엔 헌 거 그 웨정 때.(장, ‘장통’이라고 한 거 그 왜정 때.)

104015 @ 예.(예.)

104015 #1 웨정 때 구루마에는 신부[201]에 끄트머리에 장통을 씌와. 이거 웨냐면 기름을 여기 불르민 기름 물르지 말렌 허연. 웨정놈들은, 웨놈들은 그 장통을 씌와낫주.(왜정 때 달구지에는 ‘신부(?)’에 끄트머리에 ‘장통’을 씌워. 이거 왜냐면 기름을 여기 바르면 기름 마르지 말라고 해서. 왜놈들은, 왜놈들은 그 ‘장통’을 씌웠었지.)

104015 @ 아.(아.)

104015 #1 우리 국산은 장통이 엇어. 이디 삥 끼완.(우리 국산은 ‘장통’이 없어. 여기 핀 끼워서.)

104015 @ 으.(으.)

104015 #1 삥 끼완 다녓주.(핀 끼워서 다녔지.)

104015 @ 음, 그 쌀 연결하는 거기를예? 장통이 엇어.(음, 그 쌀 연결하는 거기를요? ‘장통’이 없어.)

104015 @2 바퀴 차이우과?(바퀴 차입니까?)

104015 #1 바퀴도 차이가 뒈곡. 일본놈덜 웨놈덜 쓰던 거는양, 그 장통 싹허게 떼어뒁 바쿠에다가 기름을 불르면은 장통 영 끼와버리면 한 메칠은 안 물라. 겐디 토종구루마는 매일 아침마다 쓸랴고 허면 기름을 줘야 뒈.(바퀴도 차이가 되고. 일본놈들 왜놈들 쓰던 거는요, 그 ‘장통’ 싹하게 떼어두고 바퀴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장통’ 이렇게 끼워버리면 한 며칠은 안 말라. 그런데 ‘토종구루마’는 매일 아침마다 쓰려고 하면 기름을 줘야 돼.)

104015 @ 으, 경 혜영은에 이제 바레기를 하영 헷구나예, 삼춘예? 그 쉐나 물이나 먹는 것들은 어떤 걸 먹읍니까?(으, 그렇게 해서 이제 달구지를 많이 했군요, 삼촌요? 그 소나 말이나 먹는 것들은 어떤 걸 먹습니까?)

104015 #1 촐.(꼴.)

104015 @ 촐.(꼴.)

104015 #1 팔월 이 팔월 중 뒈민은 촐을 비기 시작허주게.(팔월 이 팔월 중 되면 꼴을 베기 시작하지.)

---

201) ‘신부’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104015 @ 예.(예.)
104015 #1 내 일찍에 춤.(내 일찍이 참.)
104015 @ 꺼냉 놔뒷구나예.(꺼내서 놔뒀군요.)
104015 #1 아니 저디 촐 비어난 도구가 잇어. 내가.(아니 저기 꼴 베었던 도구가 있어. 내가.)
104015 @ 예.(예.)
104015 #1 내가 그것도 내.(내가 그것도 내.)
104015 @2 장낫[202]이우과?('장낫'입니까?)
104015 #1 예.(예.)
104015 @ 예.(예.)
104015 #1 베와드렌 허민 베와줄 것이고. 성읍리 장낫 이신 디가 나벳긔 엇일 거라. 난 지금은 산에 벌초허레 다닐 때 그걸 가져가주.(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것이고. 성읍리 '장낫' 있는 데가 나밖에 없을 거야. 난 지금은 산에 벌초하러 다닐 때 그걸 가져가지.)

먹이

104016 @ 아아, 겡은에 이제 그 쉐가 아니면 물이 잘 먹는 풀은 어떤 풀이우과?(아아, 그래서 이제 그 소가 아니면 말이 잘 먹는 풀은 어떤 풀입니까?)
104016 #1 풀?(풀?)
104016 @ 으.(으.)
104016 #1 소세[203], 소세엔 헌 게 잇어.('소세', '소세'라고 한 게 있어.)
104016 @ 소세예?('소세'요?)
104016 #1 쉐나 물이나 그거 비여당 그자 줫주.(소나 말이나 그거 베어다가 그저 줬지.)
104017 @ 게난 그 촐 허젠 허면은 언제 어떤 식으로 헹 온 거우꽈? 그.(그러니까 그 꼴 하려고 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온 겁니까? 그.)
104017 #1 게난 팔월 중 뒈기 시작허민 촐 비기 시작허여.(그러니까 팔월 중 되기 시작하면 꼴 베기 시작해.)
104017 @ 아까 무신거 일기 시작허면?(아까 무엇 일기 시작하면?)
104017 #1 팔월 중.(팔월 중.)
104017 @ 예.(예.)
104017 #1 팔월 중 뒈면은 촐을 비주.(팔월 중 되면 꼴을 베지.)
104017 @ 으.(으.)
104017 #1 게난 팔월 중 뒈면은 바람도 하늬ᄇᆞ름 불곡.(그러니까 팔월 중 되면 바람도 하늬바람 불고.)

202) 제보자 @2는 '낫'이 길어서 '장낫'이라고 표현하였다.
203) '소세'는 꼴의 한 종류다.

104017 @ 예.(예.)
104017 #1 찬바람이 불어.(찬바람이 불어.)
104017 @ 예.(예.)
104017 #1 게면은 그때부터 촐 비기 시작허주.(그러면 그때부터 꼴 베기 시작하지.)
104017 @ 여기서 하늬ᄇᆞ름은 어느 쪽으로 오는 걸 하늬?(여기서 하늬바람은 어느 쪽으로 오는 걸 하늬?)
104017 #1 북풍.(북풍.)
104017 @ 북풍을 하늬ᄇᆞ름 허는 거라예. 게민 하늬ᄇᆞ름 올라오면 이제 촐을 비는데, 촐 빌 때 노래도 부르고.(북풍을 하늬바람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하늬바람 올라오면 이제 꼴을 베는데, 꼴 벨 때 노래도 부르고.)
104017 #1 으.(으.)
104017 @ 그때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우꽈?(그때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랩니까?)
104017 #1 촐비는노래가 잇주게. 낫으로 비멍 허는 노래가 잇어.('꼴베는노래'가 있지. 낫으로 베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
104017 @ 예, 한 번 헤봅서?(예, 한 번 해보세요?)
104017 #1 건들 건들~ ᄇᆞ름이랑 불건~ 동남풍이나 허~ 불어나 오라/어야뒤야 어으~ 서너늬여어로구나/촐단이랑 비거들랑 어흐 어어~엉 즘지롱허게 헤~ 비어나 노라. 허영 그치룩허영 부르주.(건들 건들~ 바람이랑 불건~ 동남풍이나 허~ 불어나 오라/어야뒤야 어으~ 서너넷이로구나/꼴단이랑 베거들랑 어흐 어어~엉 자잘하게 해~ 베어나 놔라. 해서 그처럼해서 부르지.)
104017 @ 음. 그게 이제 촐비는노래.(음. 그게 이제 '꼴베는노래'.)
104017 #1 으.(으.)
104017 @ 걸 홍에기렌도 헙니까? 여기서?(걸 '홍에기'라고도 합니까? 여기서?)
104017 #1 아니.(아니.)
104017 @ 아, 홍에기라는 말은 안 쓰는 거?(아, '홍에기'라는 말은 안 쓰는 거?)
104017 #1 건 홍에기소린[204] ᄄᆞ로 잇주.(건 '홍에기소리'는 따로 있지.)
104017 @ 건 뭐헐 때 허는 거우꽈?(건 뭐할 때 하는 겁니까?)
104017 #1 김멜 때.(김맬 때.)
104017 @2 검질멜 때.(김맬 때.)
104017 @ 아, 검질멜 때를 여기는, 다른 덴 가면 뭐 촐홍에기 영 허는디 검질멜 때 홍에기. 사대렌 안 하고?(아, 김맬 때를 여기는, 다른 덴 가면 뭐 '촐홍에기' 이렇게 하는데 김맬 때 '홍에기'. '사대'라고는 안 하고?)
104017 #1 응?(응?)
104017 @ 사대소리엔은 안 허고.('사대소리'라고는 안 하고.)

204) '홍에기소리'는 김맬 때 부르는 소리를 표선면 성읍1리서 일컫는 말이다.

104017 #1 아니, 아니. 사대소리 아니.(아니, 아니. ‘사대소리’ 아니.)

104017 @ 아, 검질은 홍에기로예?(아, 김은 ‘홍에기’로요?)

104017 #1 검질메는 소리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잇어.(김매는 소리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

104017 @ 예.(예.)

104017 #1 저 아웨기소리[205]가 잇고 홍에기소리가 잇고.(저 ‘아웨기소리’가 있고 ‘홍에기소리’가 있고.)

104017 @ 예.(예.)

104017 #1 이 저 뭐 풍, 이 농부가엔 헌 게 잇어.(이 저 뭐 풍, 이 농부가라고 한 게 있어.)

104017 @ 예.(예.)

104017 #1 경 헨 세 가질 불르주.(그렇게 해서 세 가질 부르지.)

104017 @ 으, 아웨기허고 홍에기는 어떻게 ᄐᆞ난 거우꽈?(으, ‘아웨기’하고 ‘홍에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104017 #1 으?(으?)

104017 @ 아웨기허고 홍에기는 어떵 ᄐᆞ난 거?(‘아웨기’하고 ‘홍에기’는 어떻게 다른 거?)

104017 #1 아웨기허고 홍에기는 소리가 쫌 틀리주.(‘아웨기’하고 ‘홍에기’는 소리가 좀 다르지.)

104017 @ 소리가 ᄐᆞ난 거우꽈?(소리가 다른 겁니까?)

104017 #1 소리 자체가 좀 틀려.(소리 자체가 좀 달라.)

104017 @ 아아.(아아.)

104017 @2 게난 저쪽에서는 어 진ᄉᆞ대 ᄍᆞ른사대.(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 ‘진ᄉᆞ대’ ‘ᄍᆞ른사대’.)

104017 #1 아, 경헙니까?(아, 그렇게 합니까?)

104017 @ 예.(예.)

104017 @2 사대, 사대. 사대소리.(‘사대’, ‘사대’. ‘사대소리’.)

104017 @ 사대소리 검질메는.(‘사대소리’ 김매는.)

104017 #1 아웨기 홍에기 헙니다, 이딘.(‘아웨기’ ‘홍에기’ 합니다, 여긴.)

104019 @ 여기는예, 것도 동네마다 ᄐᆞ난 거라예. 이 아웨기허고 홍에기는 나중에 들으쿠다, 삼춘. ᄒᆞᆫ꺼번에. ᄒᆞᆫ꺼번에 헤서 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촐 운반허젠 허믄예, 어떵 허고 저장은 어떵 헤나수가?(여기는요, 것도 동네마다 다른 거네요. 이 ‘아웨기’하고 ‘홍에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삼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해서 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꼴 운반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고 저장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4019 #1 촐 비영 무끄민.(꼴 베서 묶으면.)

---

205) ‘아웨기소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서 부르는, 김매는 소리의 한 가지다.

104019 @ 예.(예.)
104019 #1 모두와놩 밧듸 눌어.(모아놓아서 밭에 가려.)
104019 @ 예.(예.)
104019 #1 눌엇당 촐 완전히 다 비어진 다음엔 가을 뒈가민 집의 시꺼당 눌주게.(가리었다가 꼴 완전히 다 베어진 다음엔 가을 돼가면 집에 실어다가 가리지.)
104019 @ 음.(음.)
104019 #1 집의 시꺼당 눌엇당 겨울엔 저 쉐막에 영 빠다 놧당 게난 ᄒᆞ를 먹을 거만씩 빠다 놔.(집에 실어다가 눌었다가 겨울엔 저 외양간에 이렇게 뽑아다 놨다가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거만씩 뽑아다 놔.)
104019 @ 아, 쉐막에예?(아, 외양간에요?)
104019 #1 쉐가 멧 개민 멧 단 먹을 걸 계산헤근에 ᄒᆞ루 먹을 걸씩 빠다 놧당 그날그날 주고 경.(소가 몇 개면 몇 단 먹을 걸 계산해서 하루 먹을 걸씩 뽑아다 놨다가 그날그날 주고 그렇게.)
104018 @ 게난 아까 촐 빌 때 헹은에 단을 졸, 졸바롱허게 졸망졸망허게.(그러니까 아까 꼴 벨 때 해서 단을 잘, 자잘하게 졸망졸망하게.)
104018 #1 이 ᄃᆞᆯ을, 단을 크게 허면은.(이 ᄃᆞᆯ(?)을, 단을 크게 하면은.)
104018 @ 예.(예.)
104018 #1 단을 이렇게 촐을 언주왕 여ᄌᆞ덜이 이렇게 다리 트망에 이렇게 모두왕 사두람서 께 틀엉 무꺼. 게난 단 크민 여자가 다리 벌겨지민 못전디주.(단을 이렇게 꼴을 그러모아서 여자들이 이렇게 다리 틈에 이렇게 모아서 서서 매끼 꼬아서 묶어. 그러니까 단 크면 여자가 다리 벌려지면 못견디지.)
104018 @2 으음.(으음.)
104018 @ 그러면 촐로 께?(그러면 꼴로 매끼?)
104018 #1 이걸로 틀어.(이걸로 꼬아.)
104018 @2 제께로?('제께'로?)
104019 @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촐눌은 어디 눌엇수가?(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꼴가리는 어디 가리었습니까?)
104019 #1 촐눌 우연에 눌주. 우연에. 쉐막, 쉐막 가까운 디.(꼴가리 터알에 가리지. 터알에. 외양간, 외양간 가까운 데.)
104020 @ 예.(예.)
104020 #1 가까운 디.(가까운 데.)
104020 @ 거기를 우연에렌 헤?(거기를 터알이라고 해?)
104020 #1 우연.(터알.)
104020 @ 우연, 저기 다른 데허고 다르게예. 그다음에 그 촐도 ᄋᆞ물도 헹 줍니까? 아 쉐도?(터알, 저기 다른 데하고 다르게요. 그다음에 그 꼴도 여물도 해서 줍니까? 아 소도?)
104020 #1 여물 허는 사름 먹을 거도 어신디 쉐죽ᄁᆞ지 줄 게 어디 셔?(여물 하

는 사람 먹을 거도 없는데 쇠죽까지 줄 게 어디 있어?)
104020 @ 웃음. 경헤도 새끼 나거나 허면은?(웃음. 그렇게 해도 새끼 나거나 하면은?)
104020 #1 사료 주기 시작헌 지가 불과 한 이십 년.(사료 주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이십 년.)
104020 @ 아, 게난 저.(아, 그러니까 저.)
104020 #1 이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엇엇고.(이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104020 @ 예.(예.)
104020 #1 이십 년 후에는.(이십 년 후에는.)
104020 @ 으.(으.)
104020 #1 사료를 줫주. 나도 사료 줘봣어.(사료를 줬지. 나도 사료 줘봤어.)
104020 @ 예, 새끼 날 때?(예, 새끼 날 때?)
104020 #1 새끼 날 땐 어떵허여? ᄀᆞ만히 내불민.(새끼 날 땐 어떻게 해? 가만히 내버리면.)
104020 @ 쉐죽이라도 쒕 줘얄 거 아니? 삼춘은 경은 안 헤봣구나.(쇠죽이라도 쒀서 줘야 할 거 아니? 삼촌은 그렇게는 안 해봤구나.)
104020 #1 성읍리는 쉐죽엔 헌 게 엇어.(성읍리는 쇠죽이라고 한 게 없어.)
104020 @ 아아. 웨냐면 일 부리젠 허여도 쉐죽 쒕 멕이고.(아아. 왜냐면 일 부리려고 해도 쇠죽 쒀서 먹이고.)
104020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20 @ 없고. 무조건 목장에 올리고 여기허고예.(없고. 무조건 목장에 올리고 여기하고요.)
104020 #1 이 이디는 밧 가는 쉐 촐을 좀 뜨로 허여.(이 여기는 밭을 가는 소 꼴을 좀 따로 해.)
104020 @ 아, 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아,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4020 #1 그거는 자골엔 헌 게 잇어이, 자골.(그거는 차풀이라고 한 게 있어, 차풀.)
104020 @ 예.(예.)
104020 @2 예.(예.)
104020 #1 자골을 봄 나면은 이 농사지어 먹는 밧듸다가 씰 뿌령 갈아.(차풀을 봄 되면은 이 농사지어 먹는 밭에다가 씰 뿌려서 갈아.)
104020 @ 예.(예.)
104020 #1 갈앗다근에 그거 이제 촐 빌 땐 거 비여당 놧당 주는디 자골촐이라고 헤여서 밧 가는 쉐벳긔 딴 쉐는 안 줘.(갈았다가 그거 이제 꼴 벨 땐 거 베어다가 놨다가 주는데 차풀꼴이라고 해서 밭가는 소밖에 딴 소는 안 줘.)
104020 @ 아아.(아아.)

104020 #1 자골촐.(차풀꼴.)

104020 @ 저 드르에 강 허는 거는 아무나 줘도.(저 들에 가서 하는 거는 아무나 줘도.)

104020 #1 으.(으.)

104021 @ 으으, 자골촐예? 예, 그다음에 그 촐 벨 때라든가 이럴 때 잊어불지 못허는 거 잇수가? 옛날 팔월멩질 끗나면 멩질 끗나자마자 촐 비레 뎅기고 헤보지 아녓수가?(으으, 차풀꼴요? 예, 그다음에 그 꼴 벨 때라든가 이럴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옛날 팔월 명절 끝나면 명절 끝나자마자 꼴 베러 다니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104021 #1 멩질 전에 빌 때도 잇주게. 팔월중[206]이 멩질 전에도 들어오곡.(명절 전에 벨 때도 있지. '팔월중'이 명절 전에도 들어오고.)

104021 @ 어.(어.)

104021 #1 멩질 지낭도 들어오는 팔월중 뒈면은 우린 멩질 헤 먹엉 강 촐 무끄레도 놉 빌언 가왓는디.(명절 지나서도 들어오는 '팔월중' 되면 우린 명절 해 먹고서 가서 꼴 묶으러도 놉 빌려서 가왔는데.)

104021 @2 아아, 먹고예.(아아, 먹고요.)

104021 #1 거 어떡헤. 이 흔이 다 뒈는디. 이 촐이엔 헌 게 너무 세여서 비면은 쉐가 잘 안 먹거든.(거 어떡해. 이 한이 다 되는데. 이 꼴이라고 한 게 너무 쇠어서 베면 쇠가 잘 안 먹거든.)

104021 @ 음.(음.)

104021 #1 좀 어린 때 비어야 뒈.(좀 어린 때 베어야 돼.)

104021 @ 아 삼춘, 팔월중 들엇덴 헌 말은 무신 날? 팔월에 중간 들엇다는 말이우꽈?(아 삼촌, '팔월중' 들었다고 한 말은 무슨 날? 팔월에 중간 들었다는 말입니까?)

104021 #1 달력에 보면 팔월중이라는 게 잇어.(달력에 보면 '팔월중'이라는 게 있어.)

104021 @ 팔월중. 게난 그 팔월절 들엇다는 말이우과?('팔월중'. 그러니까 그 팔월절 들었다는 말입니까?)

104021 #1 팔월절[207]은 백로가 팔월절인디.('팔월절'은 백로가 '팔월절'인데.)

104021 @ 으.(으.)

104021 #1 백로 지낭 한 십일 지나민 팔월중이 돌아와.(백로 지나서 한 십일 지나면 '팔월중'이 돌아와.)

104021 @ 아아.(아아.)

---

206) 제보자는 '팔월중'을 팔월의 절기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팔월중'이 정확하게 언제를 일컫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술 내용을 보면 백로 이후에 10일 정도 지난 후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 이 '팔월중'이 들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서는 꼴 베기를 시작한다고 한다.

207) '팔월절'은 24절기의 하나로 백로를 가리킨다. '백로'는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며, 음력 8월, 양력 9월 9일경을 말한다.

104021 #1 백로 지낭.(백로 지나서.)

104021 @ 백로 지낭예. 게믄 그걸 팔월중이렌 허는 거라예. 중간이란 의미가 아니라 팔월중.(백로 지나서요. 그러면 그걸 '팔월중'이라고 하는 거네요. 중간이란 의미가 아니라 '팔월중'.)

104021 #1 그게 촐, 그때부터 촐 시작을 허주.(그게 꼴, 그때부터 꼴 시작을 하지.)

104021 @ 음, 다른 데 가면 하늬ᄇᆞ름 불면 촐 헌덴 이런 말.(음, 다른 데 가면 하늬바람 불면 꼴 한다고 이런 말.)

104021 #1 게난 팔월중 뒈면은 하늬ᄇᆞ름을 분덴 허니까.(그러니까 '팔월중' 되면 하늬바람을 분다고 하니까.)

104021 @ 아아.(아아.)

104021 #1 그 절기가 딱 맞아.(그 절기가 딱 맞아.)

땔감

104022 @ 딱 맞아예? 예예. 그다음에 그 여기 짇을커들 어떤 식으로 헹은에?(딱 맞아요? 예예. 그다음에 그 여기 땔감들 어떤 식으로 해서?)

104022 #1 짇을거[지들꺼].(땔감.)

104022 @ 예.(예.)

104022 #1 검질.(검불.)

104022 @ 예, 검질.(예, 검불.)

104022 #1 검질은 아 나 어젠가 ᄀᆞᆯ아져실 건디.(검불은 아 나 어젠가 말해졌을 건데.)

104022 @ 그때 다 안 ᄀᆞ니까 으.(그때 다 안 말하니까 으.)

104022 #1 이 드르에 가민 여기는 억새가 많아.(이 들에 가면 여기는 억새가 많아.)

104022 @ 예.(예.)

104022 #1 어웍이.(억새가.)

104022 @ 어웍예.(억새요.)

104022 #1 이딘 말론 어웍인디.(여긴 말론 '어웍'인데.)

104022 @ 음.(음.)

104022 #1 어웍게 가을 뒈면은 비영 무껑 집의 시꺼당 눌엇당 그거 일 년 내낭 어떤 집읜 일 년 땔 거를 가을 뒈민 헤당 눌어. 우연에.(억새 가을 되면 베어서 묶어서 집에 실어다가 가리었다가 그거 일 년 내내 어떤 집에는 일 년 땔 거를 가을 되면 해다가 가리어. 터앝에.)

104022 @ 어웍으로 전부.(억새로 전부.)

104022 #1 일 년 땔 거를.(일 년 땔 거를.)

104023 @ 아, 그다음에 그 쉐똥허고 ᄆᆞᆯ똥도?(아, 그다음에 그 쇠똥하고 말똥

도?)

104023 #1 그건 헤당 굴묵[208] 땟주.(그건 해다가 '굴묵' 땠지.)

104024 @ 으, 쉐똥허고 물똥은 굴묵허는 거예? 예. 솔입 걷으레는 안 뎅겨봅디가?(으, 소똥하고 말똥은 '굴묵'하는 거요? 예. 솔가리 걷으러는 안 다녀봅디까?)

104024 #1 성읍린 솔입은 그런 건.(성읍린 솔가리는 그런 건.)

104024 @2 아.(아.)

104024 #1 그런 건 아녀고.(그런 건 않고.)

104024 @ 여긴 어웍으로만 거의 하는 것도. 다른 지역 가면은 솔입 글겡이 아정강은에.(여긴 억새로만 거의 하는 것도. 다른 지역 가면 솔라기 갈퀴 가져가서.)

104024 #1 성읍린 솔입 걷으레 뎅겨보진 아녀고.(성읍린 솔가리 걷으러 다녀보진 않고.)

104024 @ 아아, 소낭 꺼끄레도 안 뎅겨보고.(아아, 소낭 꺾으러도 안 다녀보고.)

104024 #1 아니, 성읍리. 그런 건 아니.(아니, 성읍리. 그런 건 아니.)

104024 @ 게믄 성읍리에서는 그 짇을거가?(그러면 성읍리에서는 그 땔감이?)

104024 #1 검질.(검불.)

104024 @ 검질? 어웍 검질?(검불? 억새 검불?)

104024 #1 어웍 검질.(억새 검불.)

104025 @ 아, 나무허레도 안 뎅기고예?(아, 나무하러도 안 다니고요?)

104025 #1 아니, 나무도 안 허고.(아니, 나무도 안 하고.)

104025 @ 여기는 그런 낭덜이 엇엉 안 간 거우꽈?(여기는 그런 나무들이 없어서 안 간 겁니까?)

104025 #1 엇기도 엇주.(없기도 없지.)

104026 @ 숫 굽는 것도?(숯 굽는 것도?)

104026 #1 숫 굽젠 허민 이 이디서 한 오 키로 이상 산에 가야뒈여.(숯 구으려고 하면 이 여기서 한 오 킬로 이상 산에 가야되어.)

104026 @ 예, 삼춘네도 숫 묻어봔마씨?(예, 삼촌네도 숯 묻어봤어요?)

104026 #1 그때 우리 사삼ᄉᆞ건 후에 보리고개 보릿고개 드니깐 숫 묻엉[209] 풀 안에 먹언 살앗주.(그때 우리 사삼사건 후에 보릿고개 보릿고개 드니깐 숯 구워서 팔아서 먹어서 살았지.)

104026 @ 아, 그 숫 묻엇던 얘기를 헤줍서.(아, 그 숯 묻었던 얘기를 해주십시오.)

104026 #1 숫 묻은 얘기.(숯 묻은 얘기.)

104026 @ 어떤 식으로 헹은에 숫 묻은 거?(어떤 식으로 해서 숯 묻은 거?)

104026 #1 지금 제석비행장[210] 헌 디가 그때 옛날은 ᄎᆞ남밧인디 그디 가근에

208)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209) '숫 묻엉'은 표준어로 '숯 묻어서'라고 대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묻다'에는 '(숯가마 속에 넣어서) 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210) '제석비행장'은 제보자가 정석비행장을 앞에처럼 발음한 것이다.

츠낭 그창.(지금 정석비행장 한 데가 그때 옛날은 참나무밭인데 거기 가서 참나무 잘라서.)

104026 @ 으.(으.)

104026 #1 거기서 숫 묻엉 아져다근에 풀곡.(거기서 숯 묻어서 가져다가 팔고.)

104026 @ 음.(음.)

104026 #1 어디 강 숫 줭 고구마도 바꽈단 먹고 경 헷주.(어디 가서 숯 줘서 고구마도 바꿔다가 먹고 그렇게 했지.)

104026 @ 게믄예? 숫 묻젠 허면.(그러면요? 숯 묻으려고 하면.)

104026 #1 으.(으.)

104026 @ 가마를 만들아야 뒈는 거 아니우과예?(가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104026 #1 가마가 아니주.(가마가 아니지.)

104026 @ 어떤 식으로 헹 숫 묻은 거 게믄?(어떤 식으로 해서 숯 묻은 거 그러면?)

104026 #1 이디는 나무를.(여기는 나무를.)

104026 @ 으.(으.)

104026 #1 요 정도로 쫄라.(요 정도로 잘라.)

104026 @ 예.(예.)

104026 #1 게난.(그러니까.)

104026 @ 츠남?(참나무?)

104026 #1 만약에 나무가 요렇게 오그라졋덴 허민 욜로 짤라불주게.(만약에 나무가 요렇게 오그라졌다고 하면 욜로 잘라버리지.)

104026 @ 예.(예.)

104026 #1 하이튼 이걸.(하여튼 이걸.)

104026 @2 곧작허게.(곧게.)

104026 #1 예. 경허영 세우면은 과짝허게 세우면은 이 사이가 빈틈이 엇어야 숫이 삭지 아녀주.(예. 그렇게 해서 세우면 곧게 세우면 이 사이가 빈틈이 없어야 숯이 삭지 않지.)

104026 @ 으.(으.)

104026 #1 이 빈틈이 공간이 셍기민 불부찌민 이 숫이 삭아불어.(이 빈틈이 공간이 생기면 불붙이면 이 숯이 삭아버려.)

104026 @ 으.(으.)

104026 #1 게난 데깍허게 세와놔.(그러니까 빽빽하게 세워놔.)

104026 @ 으.(으.)

104026 #1 여기다가 검질 꼴앙 여기에 흑을 올리주게.(여기다가 검불 깔아서 여기에 흙을 올리지.)

104026 @ 예.(예.)

104026 #1 흑을 올리면은 이 구뎅이를 구뎅이 숫구뎅이가 이렇게 똥그렇게 이시면은 이 구녁을 네 곤데를 내와.(흙을 올리면 이 구덩이를 구덩이 숯가마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구멍을 네 군데를 내워.)

104026 @ 예.(예.)

104026 #1 연통.(연통.)

104026 @ 예.(예.)

104026 #1 흔 밧듼 불부찔 디고.(한 군덴 불붙일 데고.)

104026 @ 으.(으.)

104026 #1 세 밧듸는 연통인디 그렇게 헤영 불부쪄근에 완전히 불을 부뜬 줄 알면은.(세 군데는 연통인데 그렇게 해서 불붙여서 완전히 불을 붙은 줄 알면.)

104026 @ 으.(으.)

104026 #1 불부찐 구녁은 막아불어.(불붙인 구멍은 막아버려.)

104026 @ 음.(음.)

104026 #1 건 숨통 못허게. 경헹 이 세 구녁만 내불주. 게민 이 불이, 게난 이 숫 묻으민 밤에도 즘을 못 자. 이 확실히 돌아보당 이디서 불꼿이 보이면 이걸 막아야 뒈.(건 숨통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 세 구멍만 내버리지. 그러면 이 불이, 그러니까 이 숯 묻으면 밤에도 잠을 못 자. 이 확실히 돌아보다가 여기서 불꽃이 보이면 이걸 막아야 돼.)

104026 @ 으.(으.)

104026 #1 안 막앙 내불민 막 삭아불어.(안 막아서 내버리면 막 삭아버려.)

104026 @ 음.(음.)

104026 #1 경헹 이디 이디서 불꽃 모이믄 막곡 이디 불꼿 보이민 막곡 다 이 구녁마다 불꼿 불이 보이면은 이젠 이꼬지 다 와가간 걸 알아서 막 경헤영 그 와가근에 허면은 흔 삼사일 내볏당 그 숫을 파내주.(그렇게 해서 여기 여기서 불꽃 모이면 막고 여기 불꽃 보이면 막고 다 이 구멍마다 불꽃 불이 보이면 이젠 이까지 다 와갔던 걸 알아서 막 그렇게 해서 그 왔다가서 하면 한 삼사일 내버렸다가 그 숯을 파내지.)

104026 @ 음, 게믄 이제 그 숫구덩이예, 그 구덩이를 무슨거렌 헤?(음, 그러면 이제 그 숯가마요, 그 구덩이를 무엇이라고 해?)

104026 #1 숫구뎅이주, 뭐.(숯가마지, 뭐.)

104026 @ 숫구뎅이. 게민 숫굿 파는 거우과?(숯가마. 그러면 숯가마 파는 겁니까?)

104026 #1 어?(어?)

104026 @ 숫구뎅이를 먼저 팡은에.(숯가마를 먼저 파서.)

104026 #1 아니 구뎅이를 파는 거. 평지에 허는디 여기서 팡 흑을 팡 올려, 여기서.(아니 구덩이를 파는 거. 평지에 하는데 여기서 파서 흙을 파서 올려, 여기서.)

104026 @ 아, 별도로 구뎅이를 파는 게 아니라.(아, 별도로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104026 #1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흑을 팡 올린덴.(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흙을 파서 올린다니까.)

104026 @ 평지에 낭을 이렇게 세왕?(평지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104026 #1 으.(으.)

104026 @ 예.(예.)

104026 #1 남을 이렇게 세운 다음엔 여기 검질 놓고 흑을. 검질 놓는 이유를 이 나무에 흑 닿지 못허게 검질을 노는 거.(나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엔 여기 검불 놓고 흙을. 검불 놓는 이유를 이 나무에 흙 닿지 못하게 검불을 놓는 거.)

104026 @ 아아.(아아.)

104026 #1 경허영 이디서 흑을 팡 올리주게.(그렇게 해서 여기서 흙을 파서 올리지.)

104026 @ 아아, 그러면 그 낭 세운 그 뱅 돌아가멍 검질을 놓고 그 상태에서 옆에 흑을.(아아, 그러면 그 나무 세운 그 뱅 돌아가면서 검불을 놓고 그 상태에서 옆에 흙을.)

104026 #1 으 팡 올려.(으, 파서 올려.)

104026 @ 팡 올리는 거라예? 게믄 자동적으로 구뎅이가 뒈는 거구나예?(파서 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덩이가 되는 거군요?)

104026 #1 숫구뎅이가 바로.(숯가마가 바로.)

104026 @ 경헤영 네 군데 고망을 팡.(그렇게 해서 네 군데 구멍을 파서.)

104026 #1 으.(으.)

104026 @ 그 고망은 뭐렌 허여?(그 구멍은 뭐라고 해?)

104026 #1 이거? 이거 연통 구녕이엔 허주. 이딘 이딘 불부찌는 구녁이고.(이거? 이거 연통 구멍이라고 하지. 여긴 여긴 불붙이는 구멍이고.)

104026 @ 예.(예.)

104026 #1 이 불부찌는 디 고냥은 나무를 요렇게 세와. 이디 불을 찔르게.(이 불붙이는 데 구멍은 나무를 요렇게 세워. 여기 불을 지르게.)

104026 @ 예 삼각형으로.(예 삼각형으로.)

104026 #1 이꺼지. 쫙허게 허고 이 나머지는 데깍허게 세우는디, 이디는 에 수, 수세미헐 걸 놔. 이 저 불 이디 부치면은 이 나무에 불.(이까지. 쫙하게 하고 이 나머지는 빼빽하게 세우는데, 여기는 에 수, 불쏘시개할 걸 놔. 이 저 불 여기 붙이면 이 나무에 불.)

104026 @ 불붙게.(불붙게.)

104026 #1 불부칠 수 잇는 걸 뭘 약헌 낭을 놔.(불붙일 수 있는 걸 뭘 약한 나무를 놔.)

104026 @ 예, 수세미헐 걸?(예, 불쏘시개할 걸?)

104026 #1 요것에 불부찌믄 그것에 달라부뜨주.(요것에 불붙이면 그것에 달라붙

지.)

104026 @ 으음. 경혜영 허멍 이제 그 다 탓다라는 거는 그 불씨 보멍은에 허는 구나예?(으음.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그 다 탔다는 거는 그 불씨 보면서 하는군요?)

104026 #1 이 구녁에서 나온덴 허니까. 이 구녁에서.(이 구멍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 구멍에서.)

104026 @ 그 구녁에서 보멍은에 벌겅허면은 탓구나 헤서 그 구녁 막는 거예? 그 구녁 막암덴 헌 말도 뭐렌 헙니까?(그 구멍에서 보면서 벌개면 탔구나 해서 그 구멍 막는 거요? 그 구멍 막고 있다고 한 말도 뭐라고 합니까?)

104026 #1 숫구뎅이 막암젠 허주. 무신거 다른 건?(숯가마 막는다고 하지. 무엇 다른 건?)

104026 @ 아.(아.)

104026 @2 아까 불쏘시개를 수세미마씨?(아까 불쏘시개를 '수세미'요?)

104026 #1 예 이디.(예 여기.)

104026 @ 불수세.(불쏘시개.)

104026 #1 게난 이디는 젤 뭣이 잘 타느냐 허민 저 이디 말론 벨레기엔 허는디. 벨레기낭이엔 허는디.(그러니까 여기는 젤 뭣이 잘 타느냐 하면 저 여기 말론 '벨레기'라고 하는데. '벨레기낭'이라고 하는데.)

104026 @ 벨레기낭, 예.(청미래덩굴, 예.)

104026 @2 예예예예예, 찔레.(예예예예예, 찔레.)

104026 #1 그거는양.(그거는요.)

104026 @ 아니, 청미레덩굴.(아니, 청미래덩굴.)

104026 @2 아.(아.)

104026 #1 그거는 이 우리가 한라산에 도벌목 허레 뎅길 때 그 밥 지어 먹젠 허민 비가 온 날도 성낭살 ᄒᆞ나민 이건 불을 부떠마씀? 나온 디.(그거는 이 우리가 한라산에 '도벌목' 하러 다닐 때 그 밥 지어 먹으려고 하면 비가 온 날도 성냥개비 하나면 이건 불을 붙어요? 나온 지.)

104026 @ 아아.(아아.)

104026 #1 그렇게 불이 잘 부뜹니다게. 그런 걸 헤다 놩 불을 부칩주.(그렇게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런 걸 해다가 놔서 불을 붙입지요.)

104026 @ 벨레기.(맹감.)

104026 @2 걸 수세미.(걸 쏘시개.)

104026 #1 예. 벌레기낭 헤당은에 수세미 주멍.(예. 청미래덩굴 해다가 쏘시개 주면서.)

104026 @ 으음, 그 벨레기낭 빨간 ᄋᆞ름 ᄋᆞ는 거예?(으음, 그 청미래덩굴 빨간 열매 여는 거요?)

104026 #1 예, 맞아.(예, 맞아.)

104026 @ 예예, 그거 딴딴허지 안 헙니까? 경헌디 경 불 잘 부떠?(예예, 그거 딴딴하지 안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 잘 붙어?)

104026 #1 딴딴허긴 헌디 이거 성냥쌀로 불부쪄도 부뜬덴 허난.(딴딴하긴 한데 이거 성냥개비로 불붙여도 붙는다고 하니까.)

104026 @ 아아, 연기도 잘 안 날 거고예?(아아, 연기도 잘 안 날 거고요?)

104026 #1 연기도 안 나. 건 여기서 불 솜아도 여기서 연기가 안 나, 안 돌아.(연기도 안 나. 건 여기서 불 때어도 여기서 연기가 안 나, 안 돌아.)

104026 @ 그러니까.(그러니까.)

104026 #1 폭도놈덜이 대개 폭도놈들이 그 우리 토벌 뎅기당 보민 그걸로 밥을 헹 먹넨 허니까.(폭도놈들이 대개 폭도놈들이 그 우리 토벌 다니다가 보면 그걸로 밥을 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104026 @ 경헹 밖에서 안 보이게.(그렇게 해서 밖에서 안 보이게.)

104026 #1 안 보이게. 연기도 어디 안 나가고.(안 보이게. 연기도 어디 안 나가고.)

104026 @ 으음, 게 그거 허젠 그거 허젠 허면은 막 손도 아프고 헐 건디 가시낭.(으음, 게 그거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면 아주 손도 아프고 할 건데 가시나무.)

10402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26 @ 경도 안 허여?(그렇게도 안 해?)

104026 #1 그게 벨레기나무가 나근에 혼 이삼년 뒈민 죽어비영 허민 따시 새 순 나고 새 순 나고 허난 그 죽어분 나무는 손으로 꺼꺼도 딱딱 꺼꺼져.(그게 청미래덩굴이 나서 한 이삼년 되면 죽어버려서 하면 다시 새 순 나고 새 순 나고 하니까 그 죽어버린 나무는 손으로 꺾어도 딱딱 꺾어져.)

104027 @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단단허게 보여도예, 아 그걸로 보통 수세를 허는 거라예. 수세미예. 으, 그다음에 이제 이 땔ᄀᆞ음 준비예, 아까 지들커 준비허멍은에 어, 잊어불지 못허는 건 잇수가?(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단단하게 보여도요, 아 그걸로 보통 쏘시개를 하는 거라고요. 쏘시개요. 으, 그다음에 이제 이 땔감 준비요, 아까 땔감 준비하면서 어, 잊어버리지 못하는 건 있습니까?)

104027 #1 잊어불지 못헐 게 잇어?(잊어버리지 못할 게 있어?)

104027 @ 뭐 어웍 비레 갓당 손 비엇다든가?(뭐 억새 베러 갔다가 손 베었다든가?)

104027 #1 손 빌 때도 잇주.(손 벨 때도 있지.)

104027 @ 웃음.(웃음.)

104027 #1 호미질 잘 못허는 사름은 손 비여.(호미질 잘 못하는 사람은 손 베어.)

104027 @ 으.(으.)

104027 #1 이 호미로 영영 허기 때문에.(이 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4027 @ 아, 그거는 낫[211]으로 안 헤영 호미로 헙니까? 여기에서믄 어디쯤에

강은에 그 어웍을 비여오는 거라?(아, 그거는 낫으로 안 해서 낫으로 헙니까? 여기에서면 어디쯤에 가서 그 억새를 베어오는 거야?)

104027 #1 조금 이저 그 촐 빌 때에.(조금 이저 그 꼴 벨 때에.)

104027 @ 예.(예.)

104027 #1 돌 잇는 디는 낫으로 못 비거든.(돌 있는 데는 낫으로 못 베거든.)

104027 @ 예.(예.)

104027 #1 게믄 그런 딘 내불민 어웍이가 낭 커. 게믄 그런 디 강 비는 거.(그러면 그런 덴 내버리면 억새가 나서 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베는 거.)

104027 @ 아 나중에 촐 다 비여난 다음에.(아 나중에 꼴 다 벤 다음에.)

104027 #1 그거는 가을에 겨울 들어도 비여.(그거는 가을에 겨울 들어도 베어.)

104027 @ 아, 다 끗난 다음에 이제 막 삭고 영 헐 때.(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주 삭고 이렇게 할 때.)

104027 #1 쫌 항글헐 때.(좀 한가할 때.)

104027 @ 예, 그거 일 년치 허젠 허면은 잘도 하영 헹 와야?(예, 그거 일 년 어치 하려고 하면 잘도 많이 해서 와야?)

104027 #1 그것이 어웍 검질 흔 단이믄 흔 끼 밥은 허주.(그것이 억새 검불 한 단이면 한 끼 밥은 하지.)

104027 @ 아 흔 단이민예. 음.(아 한 단이면요. 음.)

104027 #1 그렇게 그 쫌.(그렇게 그 좀.)

104027 @ 오래 불이 붙는 거구나.(오래 불이 붙는 거구나.)

사냥

104028 @ 삼춘, 사농도 헤봅디가?(삼촌, 사냥도 해봅디까?)

104028 #1 사농은 안 헤보곡.(사냥은 안 해보고.)

104029 @ 꿩 사농은?(꿩 사냥은?)

104029 #1 으, 꿩 사농도 안 헤불고.(으, 꿩 사냥도 안 해버리고.)

104029 @2 지달인?(오소리는?)

104029 #1 우린.(우린.)

104029 @ 예.(예.)

104029 #1 우리가 꿩 사농을 가니깐.(우리가 꿩 사냥을 가니깐.)

104029 @ 예.(예.)

104029 #1 나 간 날은 꿩을 잡질 못헌덴.(내 간 날은 꿩을 잡질 못한다고.)

104029 @2 웃음.(웃음.)

104029 #1 난 따시 안 가켄 헤연 안 간.(난 다시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갔어.)

104030 @ 요번에 보난 노리도 헷덴 허멍은에. 노리 사냥도 안 헤보고.(요번에 보니까 노루도 했다고 하면서. 노루 사냥도 안 해보고.)

---

211) 여기에서의 '낫'은 서서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낫이다. 자루와 날이 '호미'라 부르는 '낫'다 아주 길다.

104030 #1 노리?(노루?)

104030 @ 예.(예.)

104030 #1 사삼사건 당시에 우리 그때 총 가졍 뎅길 땐 노리 쏘으렌 뎅겨 봣는디 개 돌앙 개 가졍 노리 사냥은 안 뎅견?(사삼사건 당시에 우리 그때 총 가져서 다닐 땐 노루 쏘러는 다녀 봤는데 개 데려서 개 가져서 노루 사냥은 안 다녔어?)

104029 @ 아, 무사 그 꿩 사농도 허면 개 돌앙은에 후야야 후야야 허멍들.(아, 왜 그 꿩 사냥도 하면 개 데려서 후야야 후야야 하면서들.)

104029 #1 꿩 사농허는 사름은 개로 허주게.(꿩 사냥하는 사람은 개로 하지.)

104029 @ 에, 가보긴 헙디가?(에, 가보긴 합디까?)

104029 #1 가보긴 헌디 흔 번 간 안 뒈난 따신 안 뎅견.(가보긴 했는데 한 번 간 안 되니까 다신 안 다녔어.)

104029 @2 웃음.(웃음.)

104029 @ 게믄 꿩코 헤갖고도 안 헤봔?(그러면 '꿩코' 해갖고도 안 해봤어요?)

104029 #1 꿩코[212]도 아녀고. 이 동네 꿩코 허영 꿩 잡는 사름덜 으라 사름 잇어. 재수가 없젠 허난 우리가 논 코에는 꿩이 안 걸린덴 허니까.('꿩코'도 않고. 이 동네 '꿩코' 해서 꿩 잡는 사람들 여러 사람 있어.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놓은 올가미에는 꿩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104029 @ 아, 한 번도.(아, 한 번도.)

104029 #1 어.(어.)

104029 @ 꿩독세기 줏이렌 가봣지예?(꿩알 주으러는 가봤지요?)

104029 #1 아니.(아니.)

104029 @ 것도 안 헤보고.(것도 안 해보고.)

104029 #1 안 뎅기는디 이땅 이 쉐 보레 뎅기당 잇당 재수 좋젠 허민 꿩통[213] 걸릴 때도 잇어. 게도 우린 꿩독세길 봉가오지 안 허여.(안 다니는데 이따금 이 소 보러 다니다가 이따금 재수 좋으려고 하면 '꿩통' 걸릴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린 꿩알 주워오지 않아.)

104029 @ 거 특별히 안 봉가오는 이유가 잇어마씨?(거 특별히 안 주워오는 이유가 있어요?)

104029 #1 그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에 그 말씀헌 게 그 놀증승을 잡는 사름이 재수가 없나고 헤서 못허게 허여.(그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에 그 말씀한 게 그 날짐승을 잡는 사람이 재수가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해.)

104029 @ 아, 그래서 허니까 부러 사농도 안 가고 그냥 저 뭣도 안 헹, 줏엉 오지도 안 헷구나예.(아, 그래서 하니까 부러 사냥도 안 가고 그냥 저 뭣도 안 해서, 주워서 오지도 안 했군요.)

104029 #1 원래 이 꿩 사농 헤근에 꿩 잘 잡는 사름이 재수가 없나고 헤서.(원

212) '쿵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말한다.
213) '꿩통'은 꿩을 잡기 위해 만들어놓은 통을 말한다.

래 이 꿩 사냥 해서 꿩 잘 잡는 사람이 재수가 없다고 해서.)

104029 @ 아.(아.)

104029 #1 못허게 허여.(못하게 해.)

104029 @ 아, 그런 말씀 듣고 하니까 이제 안 헌 거구나예, 예에? 지달이는 지달이가?(아, 그런 말씀 듣고 하니까 이제 안 한 거군요, 예에? 오소리는 오소리가?)

104029 #1 지달이는 보긴 헤도 심어보진 아녀고.(오소리는 보긴 해도 잡아보진 않고.)

104031 @ 보긴 헤봣수가? 어디에 어떵 사는 거우과? 지달이는.(보긴 해봤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소리는.)

104031 #1 지달이는 땅굴을 팡 살주게.(오소리는 땅굴을 파서 살지.)

104031 @ 아.(아.)

104031 #1 땅굴을 파면은.(땅굴을 파면은.)

104031 @ 예.(예.)

104031 #1 이놈이 들어가민은 나갈 구녁을 뚫버놔.(이놈이 들어가면 나갈 구멍을 뚫어놔.)

104031 @ 아.(아.)

104031 #1 게난 지달이 잡는 사름덜 곧는 거 보니까.(그러니까 오소리 잡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104031 @ 예.(예.)

104031 #1 나, 이 들어가는 구녁엔 똥을 안 싸고.(나, 이 들어가는 구멍엔 똥을 안 싸고.)

104031 @ 으.(으.)

104031 #1 나가는 구녁엔 똥을 싸 놓거든. 게민 이걸 봥 나가는 구녁을 찾아넨 덴 허더구만. 그래서 나가는 구녁을 모녀 막아뒁.(나가는 구멍엔 똥을 싸 놓거든. 그러면 이걸 봐서 나가는 구멍을 찾아낸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가는 구멍을 먼저 막아두고.)

104031 @ 예.(예.)

104031 #1 일로.(일로.)

104031 @ 들어강은에.(들어가서.)

104031 #1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주. 일로 불을 때여.(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일로 불을 때어.)

104031 @ 아아.(아아.)

104031 #1 불을 때민 연기가 들어가민 지달이는 연기가 들어가민 꼭딱을 못 허여.(불을 때면 연기가 들어가면 오소리는 연기가 들어가면 까딱을 못 해.)

104031 @ 음.(음.)

104031 #1 게난 이 연기만 들어가민은 지달이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라.(그러니까 이 연기만 들어가면 오소리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야.)

104031 @2 윌로 못 나오니까.(위로 못 나오니까.)
104031 #1 절로 막아부니까.(절로 막아버리니까.)
104031 @ 으음.(으음.)
104031 #1 경헤연 때려잡넨 허더구만.(그렇게 해서 때려잡는다고 하더군.)
104031 @ 음, 그 지달이 허게 뒈면 뭐예 쓰는 거라마씨? 지달이는.(음, 그 오소리 하게 되면 뭐에 쓰는 거예요? 오소리는.)
104031 #1 그게 보약이주.(그게 보약이지.)
104031 @ 아.(아.)
104031 #1 보신탕보다 낫주.(보신탕보다 낫지.)
104031 @ 예에, 어느 정도 커마씨? 지달이는.(예에, 어느 정도 커요? 오소리는.)
104031 #1 지달이가 막 커봐야 뭐 흔 십오 키로.(오소리가 아주 커봐야 뭐 한 십오 킬로.)
104031 @ 요 정도. 족제비보다는 큰 거 아니라예?(요 정도. 족제비보다는 큰 거 아닌가요?)
104031 #1 족제비보다는 훨씬 크지. 막 커야 십오 키로.(족제비보다는 훨씬 크지. 아주 커야 십오 킬로.)
104031 @ 십오 키로 정도. 우리 보통 개 정도 헙니까?(십오 킬로 정도. 우리 보통 개 정도 합니까?)
104031 #1 중개, 중개 정도.(중개, 중개 정도.)
104031 @ 중개 정도. 색깔은 어떵허여?(중개 정도. 색깔은 어떡해?)
104031 #1 색깔은 검은 털에 흰 털 서꺼졍 박아져.(색깔은 검은 털에 흰 털 섞어져서 박혀.)
104031 @ 아.(아.)
104031 #1 물 청충이 모냥으로.(말 청총이 모양으로.)
104032 @ 청충이 모냥으로. 게믄 우리 너구리 비슷허게 생겻나보다예? 으음, 지달이는 굴 팡 허고, 족제비도 덧 놔봅디가?(청총이 모양으로. 그러면 우리 너구리 비슷하게 생겼나보네요? 으음, 오소리는 굴 파서 하고, 족제비도 덧 놔봅디까?)
104032 #1 족제비 우리 어린 때 학교 뎅길 때.(족제비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104032 @ 예.(예.)
104032 #1 그때는 족제비 꼴리를 사는 사름이 잇어낫어.(그때는 족제비 꼬리를 사는 사람이 있었었어.)
104032 @ 예.(예.)
104032 #1 어떵허영 삿는고 허니깐 이 족제비 꼴리를 가졍 붓을 만들엇거든.(어떡해서 샀는가 하니깐 이 족제비 꼬리를 가져서 붓을 만들었거든.)
104032 @ 으음.(으음.)
104032 #1 게니까 이거 헹은에 이 족제비 끊엉 풀젠 우리가 족제비 잡으레 뎅

겨낫주.(그러니까 이거 해서 이 족제비 끊어서 팔려고 우리가 족제비 잡으러 다녔었지.)

104032 @ 예.(예.)

104032 #1 덧 만들앙.(덧 만들어서.)

104032 @ 덧 만들앙예? 게영 족제비 덧 헹. 삼춘도 잡으레 다녀보고.(덧 만들어서요? 그래서 족제비 덧 해서. 삼촌도 잡으러 다녀보고.)

104032 #1 어, 그거는 헤보고.(어, 그거는 해보고.)

104033 @ 아, 족제비 덧 헹은에예 잡으러 뎅길 때 추억거리?(아, 족제비 덧 해서요 잡으러 다닐 때 추억거리?)

104033 #1 추억거리사 무신거라. 그 강 봥 족제비가 걸려 시민 허곡 안 걸려 시민 그자 무신 헉숙험뿐이주. 추억엔 헌 건 그자 겨울에 이 족제비가 대개 담이 이렇게 잇으면은.(추억거리야 무엇이야. 그 가서 봐서 족제비가 걸려 있으면 하고 안 걸려 있으면 그저 무슨 서운함뿐이지. 추억이라고 한 건 그저 겨울에 이 족제비가 대개 담이 이렇게 있으면.)

104033 @ 예.(예.)

104033 #1 담이 이렇게 잇이면은 담이 이렇게 잇이면은 요런 곱은데기.(담이 이렇게 있으면 담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모퉁이.)

104033 @ 예.(예.)

104033 #1 일로도 가곡 일로도 가는 이런 곱은데기에 잘 걸려.(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 이런 모퉁이에 잘 걸려.)

104033 @ 아.(아.)

104033 #1 이런 디 강 덧을 많이 놓주게.(이런 데 가서 덧을 많이 놓지.)

104033 @ 음.(음.)

104033 #1 게난 우린 저 이 목장에 가민은 잣담[214]엔 헌 게 잇어이. 벡담[215]으로 이렇게 뭰 거.(그러니까 우린 저 이 목장에 가면은 '잣담'이라고 한 게 있어. '벡담'으로 이렇게 된 거.)

104033 @ 예, 예.(예, 예.)

104033 #1 이 잣담에 족제비가 잘 살거든. 그딜 많이 노레 뎅겨봣주.(이 '잣담'에 족제비가 잘 살거든. 거길 많이 놓으러 다녀봤지.)

104033 @ 게믄 여기 아까 저기 모구리나 뭐나 허면 여기는 멧 소장이라낫수가? 옛날에.(그러면 여기 아까 저기 모구리나 뭐나 하면 여기는 몇 소장이었었습니까? 옛날에.)

104033 #1 무신거?(무엇?)

104033 @ 그 저 목장 멧 소장 멧 소장 허는 거 여기는 안 헤? 갑마장여 뭐여 허는 거?(그 저 목장 몇 소장 몇 소장 하는 거 여기는 안 해? 갑마장이야 뭐야 하

214) '잣담'은 잣처럼 두른 담, 또는 자갈을 쌓아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215) '벡담'은 돌로 벽을 쌓듯이 에둘러 놓은 담이다.

는 거?)

104033 @2 갑마장.(갑마장.)

104033 #1 갑마장[216]이엔 헌 거는 안 허고 이 성읍리는 이 저 동목장 서목장만 헤낫주.(‘갑마장’이라고 한 거는 안 하고 이 성읍리는 이 저 동목장 서목장만 했었지.)

104033 @ 아, 동목장 서목장. 여기도 잣담들도?(아, 동목장 서목장. 여기도 ‘잣담’들도?)

104033 #1 잣담 잇주.(‘잣담’ 있지.)

104033 @ 어느 쪽으로 잇어마씨?(어느 쪽으로 있어요?)

104033 #1 잣담은.(‘잣담’은.)

104033 @ 으.(으.)

104033 #1 마을과 마을 경계선.(마을과 마을 경계선.)

104033 @ 예.(예.)

104033 #1 거기.(거기.)

104033 @ 그러면 여기는 뭐 가시리하고 여기 경계 이렇게 헙니까?(그러면 여기는 뭐 가시리하고 여기 경계 이렇게 합니까?)

104033 #1 성읍리허고 가시리허고 성읍리 사이 경계선이 이 지금 대록봉.(성읍리하고 가시리하고 성읍리 사이 경계선이 이 지금 ‘대록봉’.)

104033 @ 대록산 으.(대록산 으.)

104033 #1 대록봉[217] 동쪽으로 잣담 둘러 잇는 게 그 성읍리허고 가시리허고 경계선이라.(‘대록봉’ 동쪽으로 ‘잣담’ 둘러 있는 게 그 성읍리하고 가시리하고 경계선이야.)

104033 @2 아, 게니까 따래비 바로.(아, 게니까 따래비 바로.)

104033 #1 따래비[218]. 따래비는 게난 가시리고 따래비 동쪽 잣담은 우로 위짝은 성읍리.(‘따래비’. ‘따래비’는 그러니까 가시리고 ‘따래비’ 동쪽 ‘잣담’은 위로 위짝은 성읍리.)

104033 @2 성읍리.(성읍리.)

104033 @ 거기에 그 잣담이렌 허는 거라예. 그거는 상잣 중잣 이런 말은 안 헙니까? 거기선 그냥 잣담 으.(거기에 그 ‘잣담’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상잣’ ‘중잣’ 이런 말은 안 합니까? 거기선 그냥 ‘잣담’ 으.)

104033 #1 잣담이 벡담으로 뒈어 잇주게.(‘잣담’이 ‘벡담’으로 되어 있지.)

104033 @ 으.(으.)

104033 #1 웨담으로 뒌 게 아니고 벡담.(‘외담’으로 된 게 아니고 ‘벡담’.)

---

216) ‘갑마장’은 조선시대 김만일 일가가 말을 기르던, 조선 최고의 말 육성 목장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지경에 있는 목장이다. 조선 세종 때 제주 사람 고득종이 임금께 건의하여 10개 국마장을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목장은 녹산장이었다.

217) ‘대록봉’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와 가시리 경계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218) ‘따래비’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소재한 오름 이름. 사람에 따라서는 ‘따라비’라고도 한다.

104033 @2 접담예.(겹담이요.)
104033 #1 접담.(겹담.)
104033 @ 접담으로예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잠깐만예? 내가 일단은.(겹담으로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잠깐만요? 내가 일단은.)

5. 의생활

옷감

106001 @ 삼춘, 여기서 옷감 종류들 옛날에예, 어떤 종류들이 잇어나신고예?(삼촌, 여기서 옷감 종류들 옛날에요, 어떤 종류들이 있었었나요?)
106001 #2 옛날 옷ᄀᆞ음사 다 ** 광목허고 미녕허고.(옛날 옷감이야 다 ** 광목하고 무명하고.)
106001 @ 예.(예.)
106001 #2 멩지허고.(명주하고.)
106001 @ 예.(예.)
106001 #2 베허곡.(베하고.)
106001 @ 베허곡.(베하고.)
106001 #2 삼베.(삼베.)
106001 @ 예.(예.)
106001 #2 그런 거나벳긔 무신 별다른 옷이 잇어?(그런 것밖에 무슨 별다른 옷이 있어?)

명주

106002 @ 예, 알앗수다. 혹시 여기에서 멩지씰 만드는 사람 봐봅디가?(예,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명주실 만드는 사람 봐봅디까?)
106002 #1 아, 잇어낫어.(아, 있었었어.)
106002 #2 이 성읍리선 엇수다.(이 성읍리에선 없습니다.)
106002 #1 우리 어머니도 헤난.(우리 어머니도 했었어.)
106002 @ 아, 헤낫수과? 어떤 식으로 헹은에 멩지씰 멘드는 거?(아, 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명주실 만드는 거?)
106002 #1 뭐인가 누에.(뭐인가 누에.)
106002 @ 예.(예.)
106002 #1 누에를 길뢍 그거를 가지고 허더라고. 우리 어릴 때 보니까.(누에를 길러서 그거를 가지고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106002 @ 예.(예.)
106002 #1 그 저 그게 저 요 정도 뒈게 집을 지어이.(그 저 그게 저 요 정도 되

게 집을 지어.)

106002 @ 예.(예.)

106002 #1 누에가.(누에가.)

106002 @ 예.(예.)

106002 #1 집을 지으니까 그게 그 누에는 막 딸리면서 그 멩지씰을 뽑아내더라고.(집을 지으니까 그게 그 누에는 마구 달이면서 그 명주실을 뽑아내더라고.)

106002 @ 아아.(아아.)

106002 #2 누에를 딸리멍.(누에를 달이면서.)

106002 #1 그 누에 그 집 짓은 거 잇수다게.(그 누에 그 집 지은 거 있습니다.)

106002 @2 꼬치.(고치.)

106002 #1 꼬치. 집 짓은 거.(고치. 집 지은 거.)

106003 @ 예. 그치룩헤영은에 이제 씰을 이제 뽑는 거라예. 게믄 그 멩지도 삼춘, 멩지도 종류가 잇수가?(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을 이제 뽑는 거네요. 그러면 그 명주도 삼촌, 명주도 종류가 있습니까?)

106003 #2 종류 잇주게.(종류 있지.)

106003 #3 **.(**.)

106003 @ 예.(예.)

106003 #2 종류가 여라 가지주.(종류가 여러 가지지.)

106003 @ 으.(으.)

106003 #2 육짓멩지[219]엔 헤근에 저 육지서 오는 멩지도 잇어낫어. 줌진 거.('육짓명주'라고 해서 저 육지서 오는 명주도 있었었어. 가는 거.)

106003 @ 예.(예.)

106003 #2 게고 이디서 토멩지[220]엔 허민 이디서 우리가.(그러고 여기서 '토명주'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106003 #1 여기서 만든 거.(여기서 만든 거.)

106003 #2 누에고치 만든 거 토멩지엔 허영 짜난 거 닮수다. 난 짜난 건 안 봐신디.(누에고추 만든 거 '토명주'라고 해서 짰던 거 같습니다. 난 짰던 건 안 봤는데.)

106003 @ 예.(예.)

106003 #1 그거허곡, 또 그 생멩지엔 헌 저 노이지 아녕은엥은 노인덴 허는 건 삶으는 걸 노인덴 허는 거 닮읍디다. 생멩지엔 헤영 생차로 버드락헌 멩지가 이십디다게.(그거하곡, 또 그 '생명주'라고 한 거 저 노이지 않아서 노인다고 하는 건 삶는 걸 노인다고 하는 거 같습디다. '생명주'라고 해서 생으로 뻣뻣한 명주가 있습디다.)

---

219) '육짓멩지'는 육지, 즉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명주를 말한다. 제주에서 생산한 명주에 상대하여 부르는 명주 이름이다.

220) '토멩지'는 제주에서 생산한 명주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육짓멩지'에 상대하여 부르는 제주산 명주 이름이다.

106003 @ 예.(예.)

106003 #2 그거는 몰라. 육지서사 온 건디.(그거는 몰라. 육지에서야 온 건지.)

(중략)

106003 #2 제주에 그런 거 잇어나수다.(제주에 그런 거 있었었습니다.)

106003 @ 생멩지허곡 토멩지허곡.(생명주하고 '토명주'하고.)

(중략)

106003 @ 예, 그치록허영은에 이제 토멩지하고 이제 생멩지가 이신 거고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토명주'하고 이제 생명주가 있는 거고요?)

106003 #2 예. 토멩지. 생멩지엔 헤근에 빠들락헌 바닥바닥[221]헙디다, 저 멩지가. 생멩지엔 헌 건.(예. '토명주'. 생명주라고 해서 뻣뻣한 '바닥바닥'합디다, 저 명주가. 생명주라고 한 건.)

(중략)

106003 #2 육짓멩지엔 헌 건 얇은얇은헌 건 아메도 육지서 온 거 닮아. 우리 큰 후제는.('육짓명주'라고 한 건 얇디얇은 건 아마도 육지서 온 거 같아. 우리 큰 후에는.)

106003 @ 으음.(으음.)

106003 #2 그런 거벳긴 멩지 종륜 잘 몰르컨게.(그런 거밖엔 명주 종륜 잘 모르겠는데.)

106003 @ 음, 아직 다 안 헤신가.(음, 아직 다 안 했는가.)

106003 #1 아, 나가불렌 허연.(아, 나가버리라고 해서.)

106003 @ 아, 예.(아, 예.)

106003 #1 나가부런.(나가버렸어.)

106004 @ 경허면은 삼춘, 멩지로는 주로 어떤 옷 멘들아마씨?(그러면은 삼촌, 명주로는 주로 어떤 옷 만들었어요?)

106004 #2 멩지론 제사 때에 그 큰옷.(명주론 제사 때에 그 큰옷.)

106004 @ 예.(예.)

106004 #2 그것도 신랑신부 장게갈 때.(그것도 신랑신부 장가갈 때.)

106004 @ 예.(예.)

106004 #2 옛날은 다 멩지로 우의 저고리도 허곡 바지도 허곡 두루막도 허고 다 멩지로 사용허곡. 또 호상엔 허영은에 죽으민.(옛날은 다 명주로 위에 저고리도 하고 바지도 하고 두루마기도 하고 다 명주로 사용하고. 또 수의라고 해서 죽으면.)

106004 @ 예.(예.)

106004 #2 우의 입는 그 죽은 사름덜 입지는 호상도 다 멩지로만 만들앗수다.(위에 입는 그 죽은 사람들 입히는 수의도 다 명주로만 만들었습니다.)

106004 @ 으음. 옛날에는 어떤 큰 행사나 잇거나 허면 전부 멩지?(으음. 옛날에는 어떤 큰 행사나 있거나 하면 전부 명주?)

---

221) 여기에서 '바닥바닥'은 풀기가 있어서 뻣뻣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6004 #2 큰 행사 멩지로 도폭엔 헌 거 멘들앗당.(큰 행사 명주로 도포라고 한 거 만들었다가.)

106004 @ 예.(예.)

106004 #2 이 제사허는 집의 제사 제관덜은 도폭을 우의 입엉은에 제사를 헤엿수다게.(이 제사하는 집에 제사 제관들은 도포를 위에 입어서 제사를 했습니다).

106004 #1 삼헌.(삼헌.)

106004 #2 삼한 출련.(삼헌 차려서.)

106004 #1 삼헌허고 집ᄉᆞ는 그거를 우에 입고서.(삼헌하고 집사는 그거를 위에 입고서.)

106004 @ 음.(음.)

106004 #1 거 유건 쓰곡 이렇게 헤서 제사를.(거 유건 쓰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106004 #2 장게갈 때 신랑도 그 도폭엔 헤근에 아래 바지저고리 입은 후에 그것 또 입곡.(장가갈 때 신랑도 그 도포라고 해서 아래 바지저고리 입은 후에 그것 또 입고.)

106004 @ 그 새각시들은 어떻게 그?(그 새색시들은 어떻게 그?)

106004 #2 새각신 멩지에 물들엿당은에.(새색신 명주에 물들였다가.)

106004 @ 예.(예.)

106004 #2 토멩지에 물들입디다게. 걸로 색색이 물들영 그걸로 장옷이엔 헤근에 크게 만들안 저 이 새각시 옷 안네 입은 우의 영 입곡 쓰곡 영 얼굴 감추곡 경헤근에 가메 타곡 헹 가는 게 잇어낫어.('토명주'에 물들입디다. 걸로 색색이 물들여서 그걸로 장옷이라고 해서 크게 만들어서 저 이 새색시 옷 안에 입은 위에 이렇게 입고 쓰고 이렇게 얼굴 감추고 그렇게 해서 가마 타고 해서 가는 게 있었었어.)

106004 @ 겡 삼춘도 경헤영은에 헙디가? 웃음.(그래서 삼촌도 그렇게 해서 합디까? 웃음.)

106004 #2 우리 엿날 결혼이난 다 그치룩허멍 허연.(우리 옛날 결혼이니까 다 그처럼 해서 했어.)

106004 @ 예.(예.)

106004 #2 머리 건지 엿지곡.(머리 딴머리 얹히고.)

106004 @ 아, 건지 엿지고 허영예?(아, 딴머리 얹고 해서요?)

106004 #2 쪽두리 쓰는 건 완전 고급이고 이 저 현재 난 후제.(족두리 쓰는 건 완전 고급이고 이 저 현재 난 후에.)

106004 @ 아아, 게난 그 족두리 나기 전에는 건지 엿정 간 거구나예?(아아, 그러니까 그 족두리 나기 전에는 딴머리 얹혀서 간 거군요?)

106004 #2 건지라고 헤서 이렇게 저 이 이디 머리덜 질루민 이디 머리에 굴루히[222] 그 저 머리를 엿날덜 할망덜은 문 질황은에 걸로 문 마주 봉은엥에 무껏당.

222) '굴루히'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라는 뜻의 부사다.

(딴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저 이 여기 머리들 기르면 여기 머리에 '굴루히' 그 저 머리를 옛날들 할머니들은 몽땅 길러서 걸로 몽땅 마주 놔서 묶었다가.)

106004 @ 음.(음.)

106004 #2 진진허게 헷당 그걸로 영 여꺼근엥에 그걸로 헷당 이디 오그라지게 헨에 곱닥헌 저 멩지 험벅으로 이멍거리[223] 똑 무끄곡 장옷 입곡 쓰곡 경헤연 가메 타낫수다.(길고길게 했다가 그걸로 이렇게 엮어서 그걸로 했다가 여기 오그라지게 해서 고운 저 명주 헝겊으로 '이멍거리' 똑 묶고 장옷 입고 쓰고 그렇게 해서 가마 탔었습니다.)

106004 @ 음, 삼춘, 아까 이멍거리 헷는데 이멍거리가 뭐우꽈?(음, 삼촌, 아까 '이멍거리' 했는데 '이멍거리'가 뭡니까?)

106004 #2 이디, 이디.(여기, 여기.)

106004 #1 머리띠.(머리띠.)

106004 #2 머리 허민 떨어지지 아녀게 이마띠.(머리 하면 떨어지지 않게 이마띠.)

106004 @ 이멍거리도 허곡.('이멍거리'도 하고.)

106004 #2 머리창[224]에 들여근에 그 머리창에 들영 머리 이디 영 꼬부랑허민 이레 머리창이 잘락 둥기곡 또 그 이멍거리엔 헌 거 멩지에 물들엿당은에 글로 영 무껑 머리 안 떨어지게.('머리창'에 들여서 그 '머리창'에 들여서 머리 여기 이렇게 꼬부랑하면 여기에 '머리창'이 잘락 늘어지고 또 그 '이멍거리'라고 한 거 명주에 물들였다가 글로 이렇게 묶어서 머리 안 떨어지게.)

106004 @ 예.(예.)

106004 #2 영 무끄는 거.(이렇게 묶는 거.)

106004 @ 아아.(아아.)

106004 #2 경허영 장옷 그자 머리에 뭐 쓰민 벗어지지 아녀게 허는 식으로.(그렇게 해서 장옷 그저 머리에 뭐 쓰면 벗어지지 않게 하는 식으로.)

106004 @ 음, 경허영 옛날도 삼춘이 다 경헌 거라예? 그리*.(음, 그렇게 해서 옛날도 삼촌이 다 그렇게 한 거네요? 그리*.)

106004 #2 게난 ᄒᆞ꼼허민 가메 타곡 씨집간덴 말이 그 말.(그러니까 조금하면 가마 타고 시집간다는 말이 그 말.)

106005 @ 웃음. 그거는 아까 이제 멩지를 헌 거잖아예? 그 다음에 멩지 말고 미녕. 미녕씰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웃음). 그거는 아까 이제 명주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명주 말고 무명. 무명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6005 #2 미녕은 저 막 노동헐 때 입는 옷덜.(무명은 저 막 노동할 때 입는 옷들.)

106005 @ 음.(음.)

---

223) '이멍거리'는 무당이나 시집가는 여자가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에 두르는 띠를 말한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는 '여자 심방이 굿을 할 때 머리에 두르는 붉은 머리띠'라고 주석하고 있다.

224) '머리창'은 부녀자들이 머리에 넣어 땋는, 긴 헝겊오리를 말한다.

106005 #2 감들이곡. 옛날은 저 미, 미녕에만 감 들여낫수다. 요즘은 광목덜 막 들이는디.(감들이고. 옛날은 저 무, 무명에만 감 들였었습니다. 요즘은 광목들 막 들이는데.)

106005 @ 예.(예.)

106005 #2 옛날엔 그 미녕으로만 헤영 감들영 그걸로 갈옷 멘들앙 노동복.(옛날엔 그 무명으로만 해서 감들여서 그걸로 갈옷 만들어서 노동복.)

106005 @ 예.(예.)

106005 #1 그걸로 헤낫수다.(그걸로 했었습니다.)

106005 @ 예, 그걸로예? 미녕씰은 어떻게 만드는 거우꽈?(예, 그걸로요? 무명실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6005 #2 미녕씰도 그것도 아메도 뽑아낸 거 닮수다. 멘네.(무명실도 그것도 아마도 뽑아낸 것 같습니다. 면화.)

106005 @ 아.(아.)

106005 #2 멘네.(면화.)

106005 @ 멘네.(면화.)

106005 #1 그저.(그저.)

106005 #2 멘네로 헤영 물레엔 헌 거 잇지 아녀우꽈? 지금.(면화로 해서 물레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6005 #1 그게 뭐엔 헌다마는.(그게 뭐라고 한다마는.)

106005 #2 물레, 물레.(물레, 물레.)

106005 #1 물레 말고 그게 종자가 잇수다.(물레 말고 그게 종자가 있습니다.)

106005 #2 멘네.(면화.)

106005 @ 씨불르는물레?(씨아?)

106005 #2 멘네. 멘네 갈앗당 그걸로 소게ᄀᆞ치록 복삭허게 빠내영.(면화. 면화 갈았다가 그걸로 솜처럼 폭신하게 뽑아서.)

106005 @ 으.(으.)

106005 #2 그 씨 까두곡 헤영 그걸로 씰 내난 거 닮수다.(그 씨 까두고 해서 그걸로 실 냈던 거 같습니다.)

106005 #1 그걸로 이 소게이불도 만들고.(그걸로 이 솜이불도 만들고.)

106005 @ 음.(음.)

106005 #1 그걸로 뽑아내곡.(그걸로 뽑아내고.)

106005 #2 그 소게이불 멘드는 건 그건 ᄒᆞ꼼 멘네.(그 솜이불 만드는 건 그건 조금 면화.)

106005 #1 아, 그게 종자가 목화우다. 목화.(아, 그게 종자가 목홥니다. 목화.)

106005 #2 목화가, 그 멘네가 목화 말이주.(목화가, 그 면화가 목화 말이지.)

106005 @ 예.(예.)

106005 #1 멘네가 원래 목화.(면화가 원래 목화.)

106006 @ 예, 삼춘, 그 혹시 누에허면 누에치는 것도 봐봅디가?(예, 삼촌, 그 혹시 누에하면 누에치는 것도 봐봅디까?)
106006 #1 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땐.(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땐.)
106006 #2 아, 누에 누에 길루는 건 봐낫다.(아, 누에 누에 기르는 건 봤었다.)
106006 #1 학교에서도 질롯는디.(학교에서도 길렀는데.)
106006 #2 질루는 건 봐낫어.(기르는 건 봤었어.)
106006 #1 학교에서도 질롯어.(학교에서도 길렀어.)
106006 @ 그 말을 ᄒᆞ꼼 헤봅서.(그 말을 조금 해보십시오.)
106006 #2 그 누에허민 쳇 번 무신걸로 누엘 만들아신고.(그 누에하면 첫 번 무엇으로 누엘 만들었는가.)
106006 #1 누에가 원래 씨가 잇수다. 씨가 잇어.(누에가 원래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어.)
106006 @ 으.(으.)
106006 #2 베렝이가?(벌레가?)
106006 #1 아, 베렝이 씨가 잇수다게.(아, 벌레 씨가 있습니다.)
106006 @ 으.(으.)
106006 #1 베렝이 씨가 잇는디 그 씨를 사다근에 이 누에를 뽕입을 덮어서 놔두믄 한 일주일만 뒈 가민 이만큼 올라와.(벌레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사다가 이 누에를 뽕잎을 덮어서 놔두면 한 일주일만 되어 가면 이만큼 올라와.)
106006 #2 뽕입에서 나왓구나.(뽕잎에서 나왔구나.)
106006 #2 엇수다게. 뽕입 아니우다, 건.(없습니다. 뽕잎 아닙니다, 건.)
106006 @ 씨.(씨.)
106006 #1 씨가 잇수다. 건 분명히.(씨가 있습니다. 건 분명히.)
106006 @ 게민 이만큼씩 나오믄 그다음 어떤 식으로 질롼마씨?(그러면 이만큼씩 나오면 그다음 어떤 식으로 길러요?)
106006 #1 그게 커 이만이. 이 손가락보단도 더 커. 그렇게 크주게.(그게 커 이만큼. 이 손가락보다도 더 커. 그렇게 크지.)
106006 @ 경허면?(그렇게 하면?)
106006 #1 이게 크면은.(이게 크면.)
106006 @ 으.(으.)
106006 #1 자기가 클 만이 커지면 이젠 그 둥지를 지엉 들어앉넨 허니까.(자기가 클 만큼 커지면 이젠 그 둥지를 지어서 들어앉는다고 하니까.)
106006 @ 으.(으.)
106006 #2 그 뽕입, 뽕입으로만 질롸낫주.(그 뽕잎, 뽕잎으로만 길렀었지.)
106006 #1 건 뽕입.(건 뽕잎.)
106006 @ 뽕입으로만예. 게믄 뽕입 줄 때도 그, 그 뽕입을 멧 번씩 줘, ᄒᆞ루에. 삼춘네도 키왓으니까.(뽕잎으로만요. 그러면 뽕잎 줄 때도 그, 그 뽕잎을 몇 번씩

줘, 하루에. 삼촌네도 키웠으니까.)

106006 #1 ᄒᆞ루에 세 번은 줘야주.(하루에 세 번은 줘야지.)

106006 #2 ᄒᆞ루 세 번으로 뒈카?(하루 세 번으로 될까?)

106006 #1 아침저녁 주면은.(아침저녁 주면.)

106006 #2 그거 ᄒᆞᆫ 번 주민 와상와상 먹어가민 곧 주민 다 먹어불곡 곧 주민 다 먹어불곡.(그거 한 번 주면 와삭와삭 먹어가면 곧 주면 다 먹어버리고 곧 주면 다 먹어버리고.)

106006 #1 어린 때보단 커가민 더 많이 줘야주.(어릴 때보단 커가면 더 많이 줘야지.)

106006 @ 음.(음.)

106006 #2 게난 누에 허는 사름은 계속 뽕 갈앙도 허곡. 드르에 강 ᄐᆞᆫ아당도 허곡.(그러니까 누에 하는 사람은 계속 뽕 갈아서도 하고. 들에 가서 따다가도 하고.)

106006 @ 아아.(아아.)

106006 #2 대개 갈안에 뽕 ᄐᆞᆫ안에.(대개 갈아서 뽕 따서.)

106006 #1 우리, 우리가 학교에 뎅길 때.(우리,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106006 @ 예.(예.)

106006 #1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에서 누에를 길롸낫다고.(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에서 누에를 길렀었다고.)

106006 @ 아아.(아아.)

106006 #1 게영 우리가 성읍리서 마을에서 뽕입 엇이난 그때 가시리가 사삼사건에 솔가헤연 딴 디 가버리난 그디 그디 간 뽕입을 타단에.(그래서 우리가 성읍리에서 마을에서 뽕잎 없으니까 그때 가시리가 사삼사건에 솔가(率家)해서 딴 데 가버리니까 거기 거기 가서 뽕잎을 따다가.)

106006 #2 ᄉᆞ삼사건에ᄁᆞ장 누에 잇어낫어?(사삼사건에까지 누에 있었었어?)

106006 #1 잇어나수게.(있었었습니다.)

106006 @ 으.(으.)

106006 #1 우리가 길롯수게.(우리가 길렀잖아요.)

무명

106007 @ 예, 그렇게 헤서 이제 길루고예. 그리고 아까는 미녕 종류주만, 그 이 미녕, 미녕예, 미녕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르고요. 그리고 아까는 무명 종류지만, 그 이 무명, 무명요, 무명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6007 #2 미녕 종류는 미녕 ᄒᆞᆫ 가지주, 뭐.(무명 종류는 무명 한 가지지, 뭐.)

106007 @ 뭐 그것.(뭐 그것.)

106007 #2 미녕 말고는 광목.(무명 말고는 광목.)

106007 @ 음, 미녕 말고.(음, 무명 말고.)

106007 #2 광목 아니민 미녕.(광목 아니면 무명.)

106007 #1 미녕은 흔 가지고.(무명은 한 가지고.)

106007 @ 미녕은 흔 가지고예? 막 미녕도 막 그 고운 것도 잇고 막 그냥 설렁설렁 짠 것도 잇고 허지 아녀예?(무명은 한 가지고요? 막 무명도 막 그 고운 것도 있고 막 그냥 설렁설렁 짠 것도 있고 하지 않나요?)

106007 #2 예, 경헙디다.(예, 그럽디다.)

106007 @ 아, 그걸 부르는 이름은 엇고마씨?(아, 그걸 부르는 이름은 없고요?)

106007 #2 부르는 이름 엇고 미녕.(부르는 이름 없고 무명.)

106007 @ 예, 아까 미녕.(예, 아까 무명.)

106007 #2 미녕, 광목.(무명, 광목.)

106007 @ 미녕, 광목. 으. 미녕허곡 광목은 어떵 구별헤마씨?(무명, 광목. 으. 무명하고 광목은 어떻게 구별해요?)

106007 #1 광목은 막 즘질주게.(광목은 매우 가늘지.)

106007 #2 미녕은 광목은 ᄒᆞ꼼 즘질곡.(무명은 광목은 조금 가늘고.)

106007 #1 폭도 넙고.(폭도 넓고.)

106007 #2 미녕은 요만이 폭도 좁고.(무명은 요만큼 폭도 좁고.)

106007 #1 미녕 폭은 요만큼벳긔 안 허니까.(무명 폭은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106007 #2 엉글엉글허게 짜지곡 곱질 아녀주.(엉글엉글하게 짜지고 곱질 않지.)

106007 @ 음.(음.)

106007 #2 게난 그자 **.(그러니까 그저 **.)

106007 #1 광목은 이만이 헤, 넓이가.(광목은 이만큼 해, 넓이가.)

106007 #2 게고 또 옥광목엔 헌 것이 건 육짓, 육짓광목[225]이라. 옥광목엔 헌 건 막 그때 막 헤영헌 거 난 거.(그러고 또 옥광목이라고 한 것이 건 육짓, '육짓광목'이야. 옥광목이라고 한 건 막 그때 막 하얀 거 난 거.)

106007 #1 이 광목은 대개 육지서 들어오지. 제주도서.(이 광목은 대개 육지서 들어오지. 제주도서.)

106007 #2 것ᄀᆞ란 육짓광목이주.(것보고 '육짓광목'이지.)

106007 @ 예.(예.)

106007 #2 옥광목 옥광목 헌디 육짓광목.(옥광목 옥광목 하는데 '육짓광목'.)

106007 @ 예. 옥광목이렌 헤예?(예. 옥광목이라고 해요?)

106007 #1 광목. 광목 중에도 옥광목이엔 헌 게 조금 좋앗어, 좋앗어.(광목. 광목 중에도 옥광목이라고 한 게 조금 좋았어, 좋았어.)

106007 #2 그건 옛날은 씨집가는 새각시덜 이불안허곡게. 다른 거 엇이난 이불안 광목으로 이불안 헷주.(그건 옛날은 시집가는 새색시들 이불안하고. 다른 거 없으니까 이불안 광목으로 이불안 했지.)

106007 #1 전부 헷주.(전부 했지.)

---

225) '육짓광목'은 광목 생산지가 육지여서 붙은 이름이다. 육지는 우리나라 가운데 제주 이외의 지역을 제주 사람들이 지칭하는 용어다.

106008 @ 게믄 삼촌예, 미녕으론 뭐 헤?(그러면 삼촌요, 무명으론 뭐 해?)

106008 #1 미녕은 갈옷.(무명은 갈옷.)

106008 #2 갈옷.(갈옷.)

106008 @ 갈옷?(갈옷?)

106008 #2 미녕은 이불안용도 안 뒌 거, 궂어부난.(무명은 이불안용도 안 된 거, 궂어버리니까.)

106008 @ 아.(아.)

106008 #2 폭도 적고.(폭도 작고.)

106008 @ 게문 주로 갈옷.(그러면 주로 갈옷.)

106008 #1 갈옷.(갈옷.)

106008 @ 만드는 거예? 그 다음에 아까 광목은?(만드는 거요? 그 다음에 아까 광목은?)

106008 #2 광목은 이불안도 허곡게. 아까 나 곧듯이. ᄒᆞ꼼 좁진 게 곤옷[226]으로도 중의적삼덜토 헹입곡.(광목은 이불안도 하고. 아까 나 말하듯이. 조금 가는 게 고운 옷으로도 중의적삼들도 해서 입고.)

106008 @ 예.(예.)

106008 #2 옛날은 바지저고리ᄀᆞ라 중의적삼 중의적삼헤낫주게. 게난 그런 것덜헤영 남자덜토 입곡 여자덜토 그자 곱게 입는 치메도 헹 입곡.(옛날은 바지저고리보고 중의적삼 중의적삼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남자들도 입고 여자들도 그저 곱게 입는 치마도 해서 입고.)

106008 @ 음.(음.)

106008 #2 초상나민 광목으로 상복도 헤나고.(초상나면 광목으로 상복도 했었고.)

106008 @ 아아 초상날 때.(아아 초상날 때.)

106008 #2 광목치메.(광목치마.)

106008 @ 광목으로 허는 거구나예?(광목으로 하는 거군요?)

106008 #1 아니.(아니.)

106008 #2 베로 헤낫주마는 그땐 베가.(베로 했었지만 그땐 베가.)

106008 #1 이 가까운 근족.(이 가까운 근족.)

106008 @ 예.(예.)

106008 #1 나가 망인허고 사촌 이내 사름은 베로 헷는디.(내가 망인하고 사촌 이내 사람은 베로 했는데.)

106008 @ 예.(예.)

106008 #1 쪼끔 먼친촉들은 광목.(조금 원족들은 광목.)

106008 #2 벤 비싸난에 다 헐 수가 엇이난 친족들 엇이 **.(벤 비싸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친족들 없이 **.)

226) 여기에서 '곤옷'은 '깨끗이 입는' 옷, 즉 노동복 이외의 옷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106008 #1 가까운 근족만 베로 허는 거.(가까운 근족만 베로 하는 거.)

106008 @ 아아.(아아.)

106008 #2 깝이 싸난 그걸로 허는 거, 수건도 걸로. 이 근래 나난 베수건 헷주, 옛날도 광목수건 광목치메. 복도.(값이 싸니까 그걸로 하는 거, 수건도 걸로. 이 근래 나니까 베수건 했지, 옛날도 광목수건 광목치마. 복도.)

106011 @ 복도예? 거고 삼춘, 이 그 씨집갈 때 그 홍세미녕이렌 헹도 들어봅디가?(복도요? 그러고 삼촌, 이 그 시집갈 때 그 '홍세미녕'이라고 해서도 들어봅디까?)

106011 #1 홍세.(혼서.)

106011 @ 그거는 뭐우꽈? 홍세미녕?(그거는 뭡니까? '홍세미녕'?)

106011 #1 거 광목으로 많이 놧어. 광목.(거 광목으로 많이 놨어. 광목.)

106011 @ 아, 그 용도는 뭔고예?(아, 그 용도는 뭔가요?)

106011 #1 에?(에?)

106011 @ 용도.(용도.)

106011 #1 용도는 그게 나가 셍각허기론 그렇게 허는디 이게 놧다가 새각시가 씨집가서 자식이 나면은.(용도는 그게 내가 생각하기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놨다가 새색시가 시집가서 자식이 나오면.)

106011 @ 예.(예.)

106011 #1 자식 그 삿바 같은 걸 그걸 짤라서 허라고 헤서 거 논 걸로 셍각허는디.(자식 그 기저귀 같은 걸 그걸 잘라서 하라고 해서 거 놓은 걸로 생각하는데.)

106011 @ 음.(음.)

106011 #2 그거 맞아.(그거 맞아.)

106011 @ 맞아마씨? 삼춘도 경 헹은에 헹 갓수가?(맞아요? 삼촌도 그렇게 해서 해서 갔습니까?)

106011 #2 우리도 아이덜안티 믄 미녕 광목으로 헨 삿바도 헨.(우리도 아이들한테 몽땅 무명 광목으로 해서 기저귀도 했어.)

106011 #1 그걸로벳긔 헐 게 엇어.(그것으로밖에 할 게 없어.)

106011 #2 삿바. 애기덜 삿바. 게곡 그 홍세[227] 놓는 거 그 미녕도 놓곡 광목도 잘 사는 집의 광목도 놓고 못 사는 집읜 미녕 놓곡 허민 애기 낳민 그 삿바 만들렌 그거 놓는 거.(기저귀. 아기들 기저귀. 그러고 그 '홍세' 넣는 거 그 무명도 넣고 광목도 잘사는 집에 광목도 넣고 못사는 집에는 무명 넣고 하면 아기 낳으면 그 기저귀 만들라고 그거 넣는 거.)

106011 @ 음.(음.)

106011 #2 겐디 막 잘 사는 사름덜은 그, 그 시절로 ᄒᆞ꼼 이펜디레 와가난에 멩지로덜토 놔낫어.(그런데 매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그 시절로 조금 이편으로 와가니까 명주로들도 놨었어.)

227) 여기에서 '홍세'는 함에 넣는 물품이 무명 따위의 천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

106011 #1 멩지로 놓단 그 다음은 이젠 돈으로 놓기 시작헨.(명주로 넣다가 그 다음은 이젠 돈으로 넣기 시작했어.)

106011 @ 아.(아.)

106011 #1 멩지로 허단 돈으로 놓기 시작허단 또 이젠 완전히 그게 이젠 엇어젼.(명주로 하다가 돈으로 넣기 시작하다가 또 이젠 완전히 그게 이젠 없어졌어.)

106011 #2 너미 복잡허연 간단헌 걸로 돈.(너무 복잡해서 간단한 걸로 돈.)

106011 #1 이젠 결혼식 헐 땐 이젠 홍세엔 헌 거 없어.(이젠 결혼식 할 땐 이젠 '홍세'라고 한 거 없어.)

106011 @ 아, 이젠 엇어마씨?(아, 이젠 없어요?)

106011 #1 촌에도 없어.(촌에도 없어.)

106011 #2 이젠 엿날은 홍세 헤근에 영 하꼬[228] 헤근엥에 홍세함에 헹은에 그디 여장 써놓곡 그 애기 지성기 헐 거 담아 놓곡 헹 아져가나신디 이제는 돈만 놓는 거 닮안게이.(이젠 옛날은 '홍세' 해서 이렇게 상자 해서 함에 해서 거기 예장 써놓고 그 아기 기저귀 할 거 담아 넣고 해서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돈만 넣는 거 같던데.)

106011 #1 예.(예.)

106011 @ 음.(음.)

106011 #2 하꼬도 아니 허영.(상자도 아니 해서.)

106011 #1 이젠, 이젠 돈도 안 헴수다.(이젠, 이젠 돈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6011 #2 이제 무신 와이싸쓰 담아난 하꼬 ᄀᆞ뜬 거나 헹 그것에 놩 **.(이제 무슨 와이셔츠 담았던 상자 같은 거나 해서 그것에 놔서 **.)

106011 #1 우리도 결혼헐 때에.(우리도 결혼할 때에.)

106011 @ 예.(예.)

106011 #1 옛날은 홍세함 졍 가는 사름이 잇엇어.(옛날은 함 져 가는 사람이 있었어.)

106011 @ 아.(아.)

106011 #1 홍세함 그거는 누가 허느냐 허면.(함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106011 #2 하인.(하인.)

106011 #1 마을 일 보는 사람.(마을 일 보는 사람.)

106011 @ 음.(음.)

106011 #1 마을 유ᄉᆞ라고 허는디 그 사람이.(마을 유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106011 #2 ᄆᆞᆯ 타곡 허영.(말 타고 해서.)

106011 #1 그 여자가 ᄆᆞ녀 ᄆᆞᆯ 탕 홍세함 졍 신랑신부보다 ᄆᆞ녀 가.(그 여자가 먼저 말 타서 함 져서 신랑신부보다 먼저 가.)

106011 @ 음.(음.)

106011 #1 신부칩의 ᄆᆞ녀 강 딱 디리면은 그 여장을 딱 이 대문에 갖당 디리면

228) '하꼬(はこ)'는 일본어로, 한국어 '상자'라는 의미다.

은 상객이 두 사름이 가는데.(신부 집에 먼저 가서 딱 드리면 그 예장을 딱 이 대문에 갖다가 드리면 상객이 두 사람이 가는데.)

106011 @ 예.(예.)

106011 #1 상객이 두 사름이 가는데, 이제 그 원래 신랑 쪽에서 한 사람, 또 신부 쪽에서 한 사람 헤서. 츰 저 어머니 쪽에서 한 사람 아버지 쪽에서 흔 사람 헤서 두 사람이.(상객이 두 사람이 가는데, 이제 그 원래 신랑 쪽에서 한 사람, 또 신부 쪽에서 한 사람 해서. 참 저 어머니 쪽에서 한 사람 아버지 쪽에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106011 #2 건 우시, 우시.(건 위요, 위요.)

106011 #1 게메, 가는디. 가면은.(글쎄, 가는데. 가면.)

106011 #2 지금도 그런 거 잇지이.(지금도 그런 거 있지.)

106011 #1 홍세함[229] 익을 때 여기서 익는데 그 사름네가 탁 저기 강 바로 부동자세로 탁 사.('홍세함' 읽을 때 여기서 읽는데 그 사람네가 턱 저기 가서 바로 부동자세로 턱 서.)

106011 @ 음.(음.)

106011 #2 홍세함[230]을 여기서 꺼내영 익어봐서 만약 글쩨가 틀린 게 잇다고 허면은 상객보고 상당히 호령을 허주게.(혼서를 여기서 꺼내어서 읽어봐서 만약 글자가 틀린 게 있다고 하면은 상객보고 상당히 호령을 하지.)

106011 @ 예.(예.)

106011 #1 이거 잘못뭿다. 그렇게 허는디 이 상, 이상이 엇이면 이제 여기서가 신부 쪽에서가 아 이젠 통과뒈엇다고 들어오라고 허면은 그때는 신랑이 들어오는 거.(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 상, 이상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가 신부 쪽에서가 아 이젠 통과되었다고 들어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신랑이 들어오는 거.)

106011 @ 음.(음.)

106011 #1 겐디 워낙 또 신랑이 쫌 유식헌 사름이 잇어이. 옛날 그 저 쫌 한문 서당에 뎅기면서 한문을 익은 사람.(그런데 워낙 또 신랑이 좀 유식한 사람이 있어. 옛날 그 저 좀 한문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읽은 사람.)

106011 @ 예.(예.)

106011 #1 이런 사름은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헤여.(이런 사람은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해.)

106011 @ 음.(음.)

106011 #1 예장 쓸 적에.(예장 쓸 적에.)

106011 @ 예.(예.)

106011 #1 하나 아니민 두 개 쯤은 딱 틀리게 써. 글자를. 틀리게 썽 가면은 거기서 봐서 아 글자가 틀렷다. 이젠 신랑 못 받아들이켄 막 허여. 허면은 신랑이 물

229) 여기에서 '홍세함'은 혼서함에 넣은 예장을 가리킨다.
230) 여기에서 '혼서함'은 함에 넣은 '혼서'의 의미로 쓰였다.

우의 앚아두람서.(하나 아니면 두 개 쯤은 딱 틀리게 써. 글자를. 틀리게 써서 가면은 거기서 봐서 아 글자가 틀렸다. 이젠 신랑 못 받아들이겠다고 마구 해. 하면은 신랑이 말 위에 앉아두고서.)

106011 @ 예.(예.)

106011 #1 먹허고 저 붓허곡 그 가져오라고.(먹하고 저 붓하고 그 가져오라고.)

106011 @ 음.(음.)

106011 #1 헤영 딱 고쪙 들이민 신랑 읏망진 사름이라고 헤서 막 그 신부 쪽에서 칭찬허곡 허주게.(해서 딱 고쳐서 들이면 신랑 야무진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그 신부 쪽에서 칭찬하고 하지.)

106011 @ 아, 일부러예? 예.(아, 일부러요? 예.)

106011 #1 성읍리 사름도 저 의귀리 장가를 갓는디 일부러 틀리게.(성읍리 사람도 저 의귀리[231] 장가를 갔는데 일부러 틀리게.)

106011 #2 누게?(누구?)

106011 #1 인준이마씨.(인준이요.)

106011 @ (웃음).

106011 #2 일부러 틀리게 헹 가낫어.(일부러 틀리게 해서 갔었어.)

106011 #1 예. 글자를 일부러. 자기가 예장을 썻는디 자기대로 예장을 썬 가는디 글자를 일부러 두 개를 틀리게 헹 가니까.(예. 글자를 일부러. 자기가 예장을 썼는데 자기대로 예장을 써서 가는데 글자를 일부러 두 개를 틀리게 해서 가니까.)

106011 #2 게난 인준이가 썻어?(그러니까 인준이가 썼어?)

106011 #1 아, 물 우의 앚아두람서 먹 저 붓 아져오렌 허영 물 우의서 고찌난 커 그 놈 여망진 놈이라고.(아, 말 위에 앉아두고서 먹 저 붓 가져오라고 해서 말 위에서 고치니까 커 그 놈 야무진 놈이라고.)

106011 @ (웃음). 삼춘, 근데 여기 홍세함 그 싸는 포따리, 어떤, 어떤 걸로 싸낫수가? 여기.((웃음). 삼촌, 근데 여기 '홍세함' 그 싸는 보자기, 어떤, 어떤 걸로 쌌었습니까? 여기.)

106011 #1 대개.(대개.)

106011 #2 노란 거.(노란 거.)

106011 #1 아 ᄒᆞ꼼 쪼끔 노리룽헌 거.(아 조금 조금 노르스름한 거.)

106011 #2 노란포따리.(노란보자기.)

106011 @ 노랑포따리예? 기지예?(노랑보자기요? 그렇지요?)

106011 #2 홍세 싸는 건 노란포따리.(혼서 싸는 건 노란보자기.)

106011 @2 우리 동네선 빨간 건디예?(우리 동네선 빨간 건데요?)

106011 #1 아 요런 색깔을 주로 많이 써.(아 요런 색깔을 주로 많이 써.)

106011 @ 이게.(이게.)

106011 #1 아니, 아니, 자부동[232] 색깔.(아니, 아니, 방석 색깔.)

231) '의귀리'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행정마을의 하나다.

106011 @ 이렇게예? 예에. 지난번에.(이렇게요? 예에. 지난번에.)
106011 #2 여기선 완전히 노란 거.(여기선 완전히 노란 거.)
106011 @ 노란 거만예? 알앗수다.(노란 거만요? 예. 알았습니다.)
106011 #2 선생님넨 어디우꽝?(선생님넨 어딥니까?)
106011 @2 삼양[233]마씨.(삼양이요.)
106011 #2 삼양.(삼양.)
106011 @2 제주시.(제주시.)
106011 #2 삼양허고 이디도 그 틀리는구나.(삼양하고 여기도 그 다르구나.)
106011 #1 틀립니다.(다릅니다.)
106011 @ 여기.(여기.)
106011 @2 빨간 걸로.(빨간 걸로.)
106011 @ 여기는 양반 동네라부난.(여기는 양반 동네여서.)
106011 #2 (웃음).
106011 #1 모슬포[234] 가니까 모슬포 말허고 틀려.(모슬포 가니까 모슬포 말하고 달라.)
106012 @ 예, 맞수다. 삼춘 혹시 멘네도 갈아봅디가? 직접.(예, 맞습니다. 삼촌 혹시 면화도 갈아봅디까? 직접.)
106012 #2 우리 그런 거 아녀봔.(우리 그런 거 안 해봤어.)
106012 @ 아, 여기는 멘네덜 안 갑니까?(아, 여기는 면화들 안 갑니까?)
106012 #1 아니, 우리 어머니 산 때는 갈안.(아니,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는 갈았어.)
106012 #2 우리 어머니는 어디 분이냐 허면은 저 서쪽 분이주. 가시리[235].(우리 어머니는 어디 분이냐 하면은 저 서쪽 분이지. 가시리.)
106012 @ 아아.(아아.)
106012 #2 옷귀[236]냐?('옷귀'냐?)
106012 #1 가시리마씨.(가시리요.)
106012 @ 아.(아.)
106012 #2 그디난에 우리허고는 틀린 ᄆᆞ슬이주.(거기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마을이지.)
106012 #1 어머니, 어머니는 여기서 그 목화를 갈아서 우리보고 강 그 가을 뒝이게 벨라지면 헤영헌 소게 솜이 나와.(어머니, 어머니는 여기서 그 목화를 갈아서 우리보고 가서 그 가을 되어서 이게 벌어지면 하얀 솜 솜이 나와.)
106012 @ 음.(음.)

232) '자부동(ざぶとん)'은 방석의 일본어다.
233) '삼양'은 제주시 삼양동을 가리킨다.
234) '모슬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235)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행정마을의 하나다.
236) '옷귀'는 서귀포시 남원면 의귀리의 옛 이름이다.

106012 #1 게민 그런 걸로만 강 따오렌 허영 난 따오주게.(그러면 그런 걸로만 가서 따오라고 해서 난 따오지.)

106012 @ 예.(예.)

106012 #2 그걸 따오라사 그거게 까근엥에 솜을 만들 거 아니라.(그걸 따와야 그거 까서 솜을 만들 거 아닌가.)

106012 @ 음.(음.)

106012 #1 씨 볼라두곡 헤서.(씨 발라두고 해서.)

106012 @ 씨 볼라뒁예?(씨 발라두고요?)

106012 #2 난 그런 거 허는 것도 보도 아녀고 헤나도 아녀고.(난 그런 거 하는 것도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106012 @ 게믄 옛날에는 이 성읍리에서는 그런 멘네 같은 거는?(그러면 옛날에는 이 성읍리에서는 그런 면화 같은 거는?)

106012 #2 주로 하영 안 허여.(주로 많이 안 해.)

106012 #1 주로 많이는 아녀고.(주로 많이는 않고.)

106012 #2 이땅 가다금 어떤 집의는 헷주.(이따금 가다가 어떤 집에는 했지.)

106012 @ 게믄 다 소게들은 다 사당 쓴 거라마씨?(그러면 다 솜들은 다 사다가 쓴 거라고요?)

106012 #2 사당.(사다가.)

106012 #1 거의 사당 썻주.(거의 사다가 썼지.)

106012 @ 아아, 여기는 땅이 안 좋은 편이우꽈?(아아, 여기는 땅이 안 좋은 편입니까?)

106012 #2 어떵사 헤신디 멘네 농사를 경 많이 안 져.(어떻게야 했는지 면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져.)

106012 #1 땅은 나쁘긴 나빠도.(땅은 나쁘긴 나빠도.)

모시

106013 @ 알앗수다. 혹시예, 모시도 허는 거 봐봅디가?(알았습니다. 혹시요, 모시도 하는 거 봐봅디까?)

106013 #1 모시?(모시?)

106013 @ 예.(예.)

106013 #1 모시는 갈지는 안 허고.(모시는 갈지는 안 하고.)

106013 @ 예.(예.)

106013 #1 여긴 드르에 가민 모시가 많아.(여긴 들에 가면 모시가 많아.)

106013 @ 아아.(아아.)

106013 #1 그게 헤근에 그 모시, 모시적삼엔 헤근에 그걸로 짱.(그게 해서 그 모시, 모시적삼이라고 해서 그걸로 짜서.)

106013 #2 겐디 그 모시를.(그런데 그 모시를.)

106013 @ 으.(으.)

106013 #2 모시 질레에 비여나신가? 갈아나지 아녀신가. 갈아낫지.(모시 질에 베었는가? 갈았었지 않았는가. 갈았었지.)

106013 #1 벨로 우린 밧데 가는 건 못 봣는디.(별로 우린 밭에 가는 건 못 봤는데.)

106013 #2 모시가양 무시건고 허난에 찐 닮은 거란게.(모시가요 무엇인가 하니까 왕모시 같은 거던데.)

106013 @ 예.(예.)

106013 #1 예.(예.)

106013 #2 찐 닮은 건디 모시 비여단 그 나 대막뎅이 영 헨에 요치록 놘에 쏙쏙허게시리 홅으난에 그 겁질이 벳겨집디다게.(왕모시 같은 건데 모시 베어다가 그 나 대막대기 이렇게 해서 요처럼 놔서 쏙쏙하게끔 홅으니까 그 껍질이 벗겨집디다.)

106013 @ 예.(예.)

106013 #1 원래.(원래.)

106013 #2 게난 그거 ᄏᆞ칭허게 헤근에 그거 믄 쓺아. 마께로 두드리멍 뿔아.(그러니까 그거 나란하게 해서 그거 몽땅 삶아.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빨아.)

106013 @ 음.(음.)

106013 #2 게여가난 헤영케 뒈연게. 경허난 그 다음엔 어디 아졍간 기계 신디 강 짜나 어떵 헌 거 닮읍디다.(그렇게 해가니까 하얗게 되던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엔 어디 가져가서 기계 있는 데 가서 짜나 어떻게 한 거 같습디다.)

106013 @ 음.(음.)

106013 #1 모시, 모시가양.(모시, 모시가요.)

106013 #3 그거ᄁᆞ장은 알아지는디 그루후제 어떵 만드는 건 몰라.(그거까지는 알아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만드는 건 몰라.)

106013 #1 * 가메에 놩 벳겨근에 뿔아가민 헤영.(* 가마에 넣어서 벗겨서 빨아가면 하양.)

106013 #2 솟에 놩 담아놩 쓺아.(솥에 넣어서 담아놔서 삶아.)

106013 #1 헤영.(해서.)

106013 @ 그걸로도 씰 빠는 것도 봐봔마씨? 혹시.(그거로도 실 뽑는 것도 봐봤어요? 혹시.)

106013 #1 이건 손톱으로 갈라야 뒈여.(이건 손톱으로 갈라야 되어.)

106013 @ 아아.(아아.)

106013 #2 씰 빠는 거ᄁᆞ장은 우린.(실 뽑는 거까지는 우린.)

106013 #1 씰은 빠는 게 아니고.(실은 뽑는 게 아니고.)

106013 @ 예.(예.)

106013 #1 일일이 손톱으로 씰을 갈라내야 뒈여.(일일이 손톱으로 실을 갈라내야 되어.)

106013 @ 아, 모시 그 대에서?(아, 모시 그 대에서?)

106013 #1 아니, 저 껍데기 깐 걸로.(아니, 저 껍데기 깐 걸로.)

106013 @ 껍데기 깐 걸로예? 아.(껍데기 깐 걸로요? 아.)

106013 #2 거 그 모시 짜는 디 들어가 놔사 갈르는가. **.(거 그 모시 짜는 데 들어가 놔야 가르는가. **.)

106013 #1 모시나 이 저 삼베 헤영 베 짜는 거나 전부 건 손으로 갈라야 뒈여.(모시나 이 저 삼베 해서 베 짜는 거나 전부 건 손으로 갈라야 되어.)

106013 #2 옛날 할망덜 다리에 놘 영 영 어지렁허는 게.(옛날 할머니들 다리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게.)

106013 @ 아.(아.)

106013 #1 그거 연결시키는 거.(그거 연결시키는 거.)

106013 #2 그거 씰 연결을 요렇게 놘 요런 디서 영 영 허더라고 **.(그거 실 연결을 요렇게 놔서 요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

106013 #1 그거 비비는 게 씰 연결시키는 거.(그거 비비는 게 실 연결시키는 거.)

106013 #2 겐디 그 헤난 그 다음부턴 몰르쿠다. 뭣사 만들어나신디.(그런데 그 했던 그 다음부턴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야 만들었는지.)

106013 @ 음 씰 하는 거는 보고예?(음 실 하는 거는 보고요?)

106013 #1 그거허영 베도 짜보곡. 모시 허민 모시적삼허곡 벤 짜민 베적삼허곡 그 종류가 모시허고 베허고 틀린 게 바로.(그거해서 베도 짜보고. 모시 하면 모시적삼하고 벤 짜면 배적삼하고 그 종류가 모시하고 베하고 다른 게 바로.)

106014 @ 게난 모시로는 그냥 모시적삼만 허는 거 삼춘?(그러니까 모시로는 그냥 모시적삼만 하는 거 삼촌?)

106014 #2 모시덜.(모시들.)

106014 #1 중의도 허곡.(중의도 하고.)

106014 #2 모시덜게 여름 뒈민 이불안도 허곡.(모시들 여름 되면 이불안도 하고.)

106014 #1 이 잘 사는 사름도 걸로 호상도 만들아.(이 잘 사는 사람도 걸로 수의도 만들어.)

106014 @ 음.(음.)

106014 #2 호상은 모시 안 헌덴 허는디.(수의는 모시 안 한다고 하는데.)

106014 #1 모시가 잘 사는 집.(모시가 잘 사는 집.)

106014 @ 아니.(아니.)

106014 #2 모시 안 들어.(모시 안 들어.)

106014 @ 골아봅서.(말해 보십시오.)

106014 #2 모시 안 든다고. 지금도 모시 아녀. 모시 허민 저 무신 머리 데가리 흰 자손 난덴 허곡. (웃음). 모시 죽어도 모시옷 아녑니다.(모시 안 든다고. 지금도

모시 않아. 모시 하면 저 무슨 머리 대가리 흰 자손 난다고 하고. (웃음). 모시 죽어도 모시옷 않습니다.)

106014 @ 예.(예.)

106014 #2 지금도.(지금도.)

106014 @ 예. 게난 그 제주도 안 헌덴 얘기 잇어.(예. 그러니까 그 제주도 안 한다는 얘기 있어.)

106014 #1 베로만 헷구나. 베론 헤연.(베로만 했구나. 베론 했어.)

106014 @ 베는 허곡.(베는 하고.)

106014 #2 베로만 허영 모시는 일절 아져뎅기지 아녀.(베로만 해서 모시는 일절 가져다니지 않아.)

106014 #1 베는 이디도 옛날 그 그게 삼이엔 헤나신디, 이름보고 그 저 베 짜는 걸 이름보고 저 삼이엔 헷어, 삼.(베는 여기도 옛날 그 그게 삼이라고 했었는데, 이름보고 그 저 베 짜는 걸 이름보고 저 삼이라고 했어, 삼.)

106014 @ 삼예?(삼요?)

106014 #1 삼이엔 헨 우리 아버지네도 갈아나신디.(삼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네도 갈았었는데.)

106015 @ 아아, 게믄 그 모시도 직접 갈고마씨?(아아, 그러면 그 모시도 직접 갈고요?)

106015 #1 모시 가는 건?(모시 가는 건?)

106015 #2 모시 아녀.(모시 않아.)

106015 @ 삼 가는 거는?(삼 가는 건?)

106015 #2 우리 벳기는 거 본 건 질레에 거 헤당 벳기는 거만 봐낫주.(우리 벗기는 거 본 건 길에 거 해다가 벗기는 거만 봤었지.)

106015 #1 삼은 갈아나고.(삼은 갈았었고.)

삼

106018 @ 삼 갈앗던 얘기 쫌 헤줘봅서? 삼춘.(삼 갈았던 얘기 좀 해줘 보십시오? 삼촌.)

106018 #1 무신거 삼 갈아?(무엇 삼 갈아?)

106018 @ 삼 갈앗덴 허멍. 어떤 식으로 갑디가?(삼 갈았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갑디까?)

106018 #1 삼 갈민 저 골 쳥 갈아 골.(삼 갈면 저 골 쳐서 갈아 골.)

106018 @ 으.(으.)

106018 #1 골 쳥 이렇게 이디 씨 뿌려뒁은에 덮어두민 나면은 강 비여오는 거주.(골 쳐서 이렇게 여기 씨 뿌려둬서 덮어두면 나면 가서 베어오는 거지.)

106018 @ 음.(음.)

106018 #1 게영 이거 우리 키보다 더 커.(그래서 이거 우리 키보다 더 커.)

106018 @ 아 삼이.(아 삼이.)

106018 #1 으.(으.)

106018 @ 게민 그걸로 헤영 삼베 만드는 것도 봐난마씨?(그러면 그걸로 해서 삼베 만드는 것도 봤어요?)

106018 #1 아니. 삼베 게난 우리 어머니 산 때에 이디 놩 자꾸 비빌 때 영 보니까 그게 연결시키는 걸로 나가 알아지는디.(아니. 삼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에 여기 놔서 자꾸 비빌 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연결시키는 걸로 내가 알아지는데.)

106018 #2 건 베 짤 때 비비는 거.(건 베 짤 때 비비는 거.)

106018 #1 베. 게메, 삼으론 베, 베를 짜니까.(베. 글쎄, 삼으론 베, 베를 짜니까.)

106018 @ 예.(예.)

106018 #2 그거 영 연결시켱 무신 꼬리 영 영 감앙은에게 일로 밀력 일로 밀력 베틀 헨에 영 헷다 영 헷다 허난 탁탁 허난 거 베 짜지대.(그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무슨 꼬리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리로 밀려서 이리로 밀려서 베틀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탁탁 하니까 거 베 짜지대.)

106018 @ 예.(예.)

106018 #1 겐디 그런 거 허는 거. 난산리 사름덜 쪼꼼 허는 거 봐나신디 우리 확씰히는 몰라.(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난산리 사람들 조금 하는 거 봤었는데 우리 확실히는 몰라.)

106018 @ 여기 사람들은 거의 안 하는구나.(여기 사람들은 거의 안 하는구나.)

106018 #1 여기는 이 저.(여기는 이 저.)

106018 #2 우리 마을은 그런 거 허는 디 엇엇수다.(우리 마을은 그런 거 하는 데 없었습니다.)

106018 #1 어디 베 짜는 디서 온 사름은 몰라도 원래 성읍리서 태어난 사름은 그런 거 헐 줄 아는 사람이 엇어.(어디 베 짜는 데서 온 사람은 몰라도 원래 성읍리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106018 @ 아.(아.)

106018 #2 베 짜는 사름이 오라도 그걸 직접 헤나진 아녀난.(베 짜는 사람이 와도 그걸 직접 했었지는 않으니까.)

106016 @ 옷은 직접 멘들고 다 헤도예?(옷은 직접 만들고 다 해도요?)

106016 #1 예.(예.)

106016 @ 예, 그 다음.(예, 그 다음.)

106016 #1 베틀엔 허잖아, 베틀.(베틀이라고 하잖아, 베틀.)

106017 @ 예, 예. 베틀. 음, 그 다음에 그 베로는 어떤 옷 만들아마씨?(예, 예. 베틀. 음, 그 다음에 그 베로는 어떤 옷 만들어요?)

106017 #2 베옷게, 베 상복덜.(베옷, 베 상복들.)

106017 #1 베옷.(베옷.)
106017 @ 상복허고.(상복하고.)
106017 #1 상복도 허고 이 남자들.(상복도 하고 이 남자들.)
106017 #2 여름에 입는 것도 허고.(여름에 입는 것도 하고.)
106017 #1 여름에 만들엉 입엉 놀레도 다니곡 헤여.(여름에 만들어서 입어서 놀러도 다니고 해.)
106017 @ 아.(아.)
106017 #1 어른덜.(어른들.)
106017 @ 어른덜예, 씨원하게.(어른들요, 시원하게.)
106017 #2 지금, 지금이난 헴주. 옛날덜은 다 막 베옷 모시옷 그런 거 입엉덜 살앗수게. 모시옷은 모시옷은 산 사름은 입곡 죽은 사름은 안 입넨 허영은에 이제다.(지금, 지금이니까 하고 있지. 옛날들은 다 아주 베옷 모시옷 그런 거 입어서들 살았습니다. 모시옷은 모시옷은 산 사람은 입고 죽은 사람은 안 입는다고 해서 이제다.)
106017 @ 음.(음.)
106017 #2 산 사름덜은 막 그 모시 헤영헌 모시덜 곱게덜 헤영 입어낫주마는 죽은 사름안티는 일절 모시 놓지 말렌 허니까.(산 사람들은 막 그 모시 하얀 모시들 곱게들 해서 입었었지만 죽은 사람한테는 일절 모시 넣지 말라고 하니까.)
106017 #1 게난 그 잘사는 사름덜 헷주, 못 사는 사름덜은 그거 입엉 앚앙 헐 시간이 잇엇수가?(그러니까 그 잘사는 사람들 했지,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거 입어서 앉아서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106017 @ 맞수다.(맞습니다.)
106017 #2 모실 경 여라 사름 헷수가? 허지도 아녀수다.(모실 그렇게 여러 사람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106017 #1 쫌 잘사는 사름덜 헷주.(조금 잘사는 사람들 했지.)

도구

106019 @ 예, 삼춘, 게믄 그 아까 이제 씨 불르는 것도 안 헤보고. 멘네 씨 불르는 것도 안 헤봣어예?(예, 삼촌,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씨 바르는 것도 안 해보고. 면화 씨 바르는 것도 안 해봤다고요?)
106019 #2 그런 것도 나 일절 아녀봔.(그런 것도 나 일절 안 해봤어.)
106020 @ 아까 물레 골안게마는 물레는 뭐 허는 게 물레우꽈?(아까 물레 말하더니만 물레는 뭐 하는 게 물렙니까?)
106020 #2 물레 베 짜는 거.(물레 베 짜는 거.)
106020 #1 영 영.(이렇게 이렇게.)
106020 #2 아니, 아니, 씰 감는 거.(아니, 아니, 실 감는 거.)
106020 #1 씰 감는 거 이거 돌령.(실 감는 거 이거 돌려서.)

106020 @ 으.(으.)

106020 #2 거 무신거 이만인헌 저 무신.(거 무엇 이만한 저 무슨.)

106020 #1 영 ᄃᆞᆼ겨당 이거 ᄃᆞᆼ겨 가멍 영 ᄃᆞᆼ겨당 영 허민 촉허게 들어가곡 허더라고. 거 허는 거 보니까.(이렇게 당겨다가 이거 당겨 가면서 이렇게 당겨다가 이렇게 하면 촉하게 들어가고 하더라고. 거 하는 거 보니까.)

106020 @ 웃음.(웃음.)

106020 #2 것ᄀᆞ라 꼬리 감는 거엔 헤신가.(것보고 실톳 감는 거라고 했는가.)

106020 #1 몰르쿠다. 뭣산디. 이건 뭐 이름은 모른디 나도 허는 걸 봣는디.(모르겟습니다. 무엇인지. 이건 뭐 이름은 모르는데 나도 하는 걸 봤는데.)

106020 #2 꼬리엔 헌 게 그 베 짜는 씰 감아진 게 꼬리렌 헙디다게.(실톳이라고 한 게 그 베 짜는 실 감아진 게 실톳이라고 합디다.)

106020 @ 예.(예.)

106020 #2 그것에 감을 때 영 영 영 허멍 이거 영 심어둠서 감안게.(그것에 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잡아두고서 감던데.)

106020 @ 아.(아.)

106020 #2 게난 감는 거ᄁᆡ진 봣는디 짜는 거는 안 봔.(그러니까 감는 거까진 봤는데 짜는 거는 안 봤어.)

106020 @ 음, 거는 이제 꼬리 감는덴 이제 허는 거라예?(음, 거는 이제 실톳 감는다고 이제 하는 거네요?)

106020 #2 예.(예.)

106021 @ 아까 베틀 얘기헨게마는 베틀은 알아지쿠과? 어떤 식으로 허는 건지.(아까 베틀 얘기하더니만 베틀은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106021 #1 베틀 봐나긴 봐낫는디이.(베틀 봤었긴 봤었는데.)

106021 @ 예.(예.)

106021 #1 분명히.(분명히.)

106021 @ 으.(으.)

106021 #1 봐나긴 봐낫는디. 봐나긴 봐낫는디 이게 한 짝 손에 한 짝 발에 뭐 신발 신언 이디 끈 무껀에 영 ᄃᆞᆼ겻당 늦췻당 허면서 허더라고.(봤었긴 봤었는데. 봤었긴 봤었는데 이게 한쪽 손에 한쪽 발에 뭐 신발 신어서 여기 끈 묶어서 이렇게 당겼다가 늦췄다가 하면서 하더라고.)

106021 @ 예.(예.)

106021 #1 그건 봐나긴 봐나신디 뭐.(그건 봤었긴 봤었는데 뭐.)

106021 @ 그건 모르고. 우리 여자 삼촌도?(그건 모르고. 우리 여자 삼촌도?)

106021 #2 나도 짜는 것도 안 봐난 몰라.(나도 짜는 것도 안 봤었으니까 몰라.)

106021 @ 예.(예.)

106021 #2 난 소소히 일허레 뎅기멍 살아나지 아녀나부난 대개 ᄀᆞᆫ는 거 들엇주, 직접 보진 안 허연.(난 소소히 일하러 다니면서 살았었지 않아버리니까 대개 말하는

거 들었지, 직접 보진 안 했어.)

106021 @ 삼춘은 게민 무시거 허멍 살앗수가? 이제까지.(삼촌은 그러면 무엇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106021 #2 난 우리 어멍네 부제칩이라노난 아무 것도 안 허영 그디서 밥이나 얻어먹으멍 살아부난.(난 우리 어머니네 부잣집이었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해서 거기서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살아버리니까.)

106021 @ 아아. 웃음.(아아. 웃음.)

106021 #4 웃음.(웃음.)

106021 #2 일허는 것에 대헹은 하나 아무 것도 몰라.(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아무 것도 몰라.)

바느질

106022 @ 알앗수다. 바농질은 하영 헷지예?(알았습니다. 바느질은 많이 했지요?)

106022 #2 예.(예.)

106022 @ 예, 바농질 허젠 허면 어떤 도구들이 필요허우꽈?(예, 바느질 하려고 하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합니까?)

106022 #2 바농질 미싱[237]에 헐 땐 미싱허곡.(바느질 재봉틀에 할 땐 재봉틀하고.)

106022 @ 손으로 헐 땐?(손으로 헐 땐?)

106022 #2 손으로 헐 땐 바농허곡 ᄀᆞ세허곡.(손으로 할 땐 바늘하고 가위하고.)

106022 #1 자.(자.)

106022 #2 자허곡 그거민 뭴 거주.(자하고 그거면 될 거지.)

106022 #1 잣대가 대나무, 나무로 만든 대 자가 잇어.(잣대가 대나무, 나무로 만든 대 자가 있어.)

106022 #2 자엔 헌 것이 무신거니?(자라고 한 것이 무엇이니?)

106022 @ 예.(예.)

106022 #1 자 하나가 열 치.(자 하나가 열 치.)

106022 @ 예.(예.)

106022 #2 한 치 두 치 십 센치가 혼 치우다[238].(한 치 두 치 십 센티가 한 칩니다.)

106022 @ 음.(음.)

106022 #2 십 센치가 혼 치. 게난 혼 자 허젠 허민 그것이.(십 센티가 한 치. 그러니까 한 자 하려고 하면 그것이.)

---

237) '미싱'은 재봉틀의 일본어 '미싱(ミシン)'에서 온 말이다. '미싱'은 영어 '머신(machine)'을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238) '십 센치가 혼 치우다'는 '십 센티가 한 칩니다'로 대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보자는 한 치를 십 센티로 구술했는데, 한 치는 약 3,03센티를 가리킨다.

106022 @ 오십 센치.(오십 센티.)
106022 #2 십 센치짜리 열 개.(십 센티짜리 열 개.)
10602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22 #2 열 개.(열 개.)
106022 @ 열 개 오십 센치.(열 개 오십 센티.)
106022 #2 다섯 개가 오십 센치.(다섯 개가 오십 센티.)
106022 @ 예.(예.)
106022 #2 열 개가 저.(열 개가 저.)
106022 @2 일 메타.(일 미터.)
106022 #2 십 센치.(십 센티.)
106022 #1 화곽살 끼레기 하나가 한 치우다게.(성냥개비 길이 하나가 한 칩니다.)
106022 #2 그걸로.(그걸로.)
106022 @ 예, 예, 예.(예, 예, 예.)
106022 #2 짐작허멍 헙니다.(짐작하면서 합니다.)
106022 #1 화곽살 기레기 딱 그걸 계산허민 뭐 거 맞아마씸.(성냥개비 길이가 딱 그걸 계산하면 뭐 거 맞아요.)
106022 @ 경 허영은에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106022 #4 자 이거 아니우과?(자 이거 아닙니까?)
106022 #1 자 이거 아냐, 춤.(자 이거 아닌가, 참.)
106022 @ 이거 이땅 사진 다 찍엉 가야켜.(이거 이따가 사진 다 찍어서 가야겠다.)
106022 #1 어느 거?(어느 거?)
106022 @ 이거.(이거.)
106022 #1 아 이거 빌려주지 안 허커라. 귀헌 건디 어디.(아 이거 빌려주지 않겠어. 귀한 건데 어디.)
106022 #4 사진 찍엉 가켄 헴수게. 무사 거 ᄃᆞ렌 헴수가?(사진 찍어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거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106022 #1 이거, 화곽. 아니 사진 찍는 것도 어디 그저. (웃음). *** 꺼꺼분다이. 이거, 이거.(이거, 성냥. 아니 사진 찍는 것도 어디 그저. (웃음). *** 꺾어버린다. 이거, 이거.)
106022 @ 예, 예, 예.(예, 예, 예.)
106022 #2 그거 ᄒᆞᆫ 치.(그거 한 치.)
106022 #4 무신 골동품으로 찍을 거우과?(무슨 골동품으로 찍을 겁니까?)
106022 @ 것도 골동품으로 찍을 거.(것도 골동품으로 찍을 거.)
106022 #3 웃음.(웃음.)
106022 @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 도구허면, 그 바느질 도구 그 노는 그릇도 잇

일 거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 도구하면, 그 바느질 도구 그 넣는 그릇도 있을 거 아니?)
106022 #1 바농상지.(반짇고리.)
106022 #2 바농상지는 요만인헌 저 대막대기.(반짇고리는 요만한 저 대막대기.)
106022 #1 건 나 베와주카?(건 나 베워줄까?)
106022 #4 에에.(에에.)
106022 @ 예, 예. 바농상지하고.(예, 예. 반짇고리하고.)
106022 #1 이거게, 이거.(이거야, 이거.)
106022 @ 이 집에 골동품도 하신게게.(이 집에 골동품도 많은데.)
106022 #1 어느 거?(어느 거?)
106022 @ 이거 다 골동품.(이거 다 골동품.)
106022 #1 나 죽으민 이거 빗나게 풀 거.(나 죽으면 이거 비싸게 팔 거.)
106022 #4 에에, 죽음이랑 마랑 거 나 처녀인 때 쓰단 거.(에에, 죽음이랑 마랑 거 나 처녀일 때 쓰던 거.)
106022 @ 그러니까.(그러니까.)
106022 #2 주컨 줘게, 아졍가게.(주겠으면 줘, 가져가게.)
106022 #4 웃음.(웃음.)
106022 @ 바농상지하고예. 그 다음에 그 바농들 꼽는 거? 바농들 영 꼿이는 건 이름 뭐렌 헤?(반짇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늘들 꼿는 거? 바늘들 이렇게 꼿는 건 이름 뭐라고 해?)
106022 #2 이디 실 거라.(여기 있을 거야.)
106022 @ 게메.(글쎄.)
106022 #2 것ᄀᆞ라 무신거.(것보고 무엇.)
106022 @ 게난.(그러니까.)
106022 #1 이거 이거.(이거 이거.)
106022 #2 뭐엔 헌다마는 잊어볏저.(뭐라고 한다만 잊어버렸다.)
106022 @ 이것도 직접 만들어신게.(이것도 직접 만들었는데.)
106022 #2 거 무신거니? 일름?(거 무엇이니? 이름?)
106022 #1 거에 바농 뀌영 나둬.(거에 바늘 뀌어서 나둬.)
106022 @ 뭐렌 헙니까? 일름.(뭐라고 합니까? 이름.)
106022 #1 몰라. 뭐, 이름은 몰르고.(몰라. 뭐, 이름은 모르고.)
106022 @ 으.(으.)
106022 #2 나도 일름 잊어볏쩌.(나도 이름 잊어버렸다.)
106022 #4 웃음.(웃음.)
106022 @ 바농졸레는 뭐?(바늘겨레는 뭐?)
106022 #2 아, 씰꼬레긴[239]가? 씰꼬레긴 저.(아, '씰꼬레긴'가? '씰꼬레긴' 저.)

239) 여기에서 '씰ᄁᆞ레기'는 제보자 #2 이미생이 '씰도레기'를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씰도레기'는 실을 감

106022 #1 씰도레기 틀리우다.(‘씰도레기’ 다릅니다.)
106022 #2 이것가 씰꼬레기고.(이것이 실패고.)
106022 #1 으.(으.)
106022 @ 이건 무시거마씨?(이건 무엇이요?)
106022 #1 거 씰도레기.(거 실패.)
106022 #2 그런 거 나무로 뭰 거 헤낫주.(그런 거 나무로 된 거 했었지.)
106022 #1 옛날은 이거 나무로 만들어낫주게. 이만이 넙게 헤근에.(옛날은 이거 나무로 만들었었지. 이만큼 넓게 해서.)
106022 @ 예.(예.)
106022 #1 이렇게 건 씰도레기엔 헤낫어.(이렇게 건 ‘씰도레기’라고 했었어.)
106022 #2 씰꼬레기. 씰꼬레기.(실패. 실패.)
106022 @ 씰꼬레기. 아 씰 꼬는 씰꼬레기.(‘씰꼬레기’. 아 실 꼬는 실패.)
106022 #2 씰 감는 거.(실 감는 거.)
106022 @ 예, 또 무시거 이신고? 여기.(예, 또 무엇 있는가? 여기.)
106022 #1 뭐 잇어? 아무 것도 엇주.(뭐 있어? 아무 것도 없지.)
106022 #4 그디 아무 것도 엇어.(거기 아무 것도 없어.)
106022 @ 바농은, 바농은 뭐에 쌉니까?(바늘은, 바늘은 뭐에 쌉니까?)
106022 #2 바농 이거게.(바늘 이거.)
106022 #1 이것에 찔렁 놔둬.(이것에 찔러서 놔둬.)
106022 @ 아 그냥 찔렁 놔두는 거?(아 그냥 찔러서 놔두는 거?)
106022 #2 씰 꿰영 이것에 꼭꼭 찔럿당은에.(실 꿰어서 이것에 꼭꼭 찔렀다가.)
106022 @ 게믄 바농 헐 때 웨 흔 쏨 두 쏨 허잖아예? 바농 흔 쏨이민?(그러면 바늘 할 때 왜 한 쌈 두 쌈 하잖아요? 바늘 한 쌈이면?)
106022 #2 바농 흔 쏨 열 개.(바늘 한 쌈 열 개.)
106022 #1 열두 개.(열두 개.)
106022 #2 열 개.(열 개.)
106022 #1 열두 개 아니우꽈? 바농.(열두 개 아닙니까? 바늘.)
106022 #2 열두 개게? 열 개주게.(열두 개? 열 개지.)
106022 @ 웃음.(웃음.)
106022 #1 난 열 갠 중 아는디 흔 쏨[240]이.(난 열 갠 줄 아는데 한 쌈이.)
106022 #2 거 여자가 알주, 남자가 바농 알아?(거 여자가 알지, 남자가 바늘 알아?)
106022 @ 맞수다. 게믄 삼촌 헌 건 ᄒᆞ꼼 족은 바농인 거 닮다.(맞습니다. 그러면 삼촌 한 건 조금 작은 바늘인 거 같다.)

아두는 물건으로, 표준어 ‘실감개’ 또는 ‘실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40) ‘쏨’은 바늘을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를 말한다. 표준어 ‘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고 되어 있다. 성읍리에서는 제보자에 따라서 ‘열 개’ 또는 ‘열두 개’라고 응답해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서 한 쌈의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022 #1 아니, 아니. 나가 바농 사레 뎅겨낫주게. 어머니가 어머니가 바농질허당 바농 상 오라 허민 점방에 바농 사레 뎅겨나난.(아니, 아니. 내가 바늘 사러 다녔었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바느질하다가 바늘 사서 와라 하면 점방에 바늘 사러 다녔었으니까.)

106022 @ 어쨌든 이제 여자가 알아예. 열 개. 바농 열 개.(어쨌든 이제 여자가 안다고요. 열 개. 바늘 열 개.)

106022 #2 혼 쏨 열 개.(한 쌈 열 개.)

106023 @ 혼 쏨 열 개렌 헴수다. 게문 우리가 바농질헐 때 천에 하잖아예? 게문 이 바농허는 방법도 틋나잖아예. 옷이 그자 듬성듬성 짜는 거.(한 쌈 열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느질할 때 천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느질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옷이 그저 듬성듬성 짜는 거.)

106023 #2 듬성듬성 줍는 거. 또 영 이 저 뎅침엔 헤근에 영 헤근에 또 뒷바농질[241] 요레 꿰여 강 욜로 주곡 요레 꿰여 강 욜로 호곡.(듬성듬성 기우는 거. 또 이렇게 이 저 박음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뒷바농질' 요리로 꿰어 가서 요리로 기우고 요리로 꿰어서 가서 요리로 호고.)

106023 @ 음.(음.)

106023 #2 줌질게 허젠 허믄 그치룩 허는 거.(자잘하게 하려고 하면 그처럼 하는 거.)

106023 @ 건 뎅침.(건 박음질.)

106023 #2 음, 뎅침허는 거.(음, 박음질하는 거.)

106023 @ 그 다음엔 듬성듬성허는 거?(그 다음엔 듬성듬성하는 거?)

106023 #2 건 호는 거.(건 호는 거.)

106023 #1 그거 상복 만들 때 듬성듬성허게 허주게. 빨리 허젠.(그거 상복 만들 때 듬성듬성하게 하지. 빨리 하려고.)

106023 @ 그 다음에 이 단 풀어지지 못허게 허는 거는?(그 다음에 이 단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는?)

106023 #1 감추는 거. 건 감추는 거.(감치는 거. 건 감치는 거.)

106023 #2 건 건 거 그건 단 감춘덴도 허곡.(건 건 거 그건 단 감친다고도 하고.)

106023 #1 감추는 거.(감치는 거.)

106023 #2 그냥 저 듬상듬상 호앙 허는 것도 싯곡 그건 뭐.(그냥 저 듬상듬상 호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뭐.)

106023 @ 그냥.(그냥.)

106023 #1 단 감춘덴.(단 감친다고.)

106023 #2 감춘덴 허는 건 영 저 꼬부려놩 영 영 풀어지지 아녀게 허는 거곡.

241) '뒷바농질'은 바늘이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하는 바느질을 말한다. 박음질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감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저 꼬부려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하는 거고.)

106023 #1 풀어지지 말게 허영 감추는 거.(풀어지지 말게 해서 감치는 거.)

106023 #2 호으는 것도 영 꼬부려놩 그자 듬상듬상 주는 것ᄀᆞ라 호으는 거옌 허곡.(호는 것도 이렇게 꼬부려놓아서 그저 듬상듬상 기우는 것보고 호는 거라고 하고.)

106023 @ 그냥 이제 이불 ᄀᆞ튼 거 꼬맬 때는 게민 호으는 거우과?(그냥 이제 이불 같은 거 꿰맬 때는 그러면 호는 겁니까?)

106023 #2 이불 ᄀᆞ튼 거 꼬매는 거 듬상듬상 허는 거게.(이불 같은 거 꿰매는 거 듬성듬성 하는 거.)

106023 @ 아, 듬상듬상 허는 거예. 게난 주로 바농질허는 게 아까 뎅침?(아, 듬성듬성 하는 거요. 그러니까 주로 바느질하는 게 아까 박음질?)

106023 #2 좀질게 허는 거, 좀질게 허는 거 홁으게 허는 거 뎅침허는 거 세 가지.(자잘하게 하는 거, 자잘하게 하는 거 굵게 하는 거 박음질하는 거 세 가지.)

106023 @ 으, 좀질게 허는 거는 듬상하니까 그 그거는.(으, 자잘하게 하는 거는 듬성하니까 그 그거는.)

106023 #2 좀진좀진허게 그냥 저 호는 거로 좀질게 허고.(자잘자잘하게 그냥 저 호는 거로 자잘하게 하고.)

106023 @ 호는 거라도 좀질허게 허는 거 세 가지로예? 그다음에 감추고. 아, 알앗수다.(호는 거라도 자잘하게 하는 거 세 가지로요? 그다음에 감치고. 아, 알겠습니다.)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은 그 종류가 어떤 거 잇인고예? 남자덜 입는 거 속옷부터 한번 ᄀᆞᆯ아봅서. 남자덜 입는 옷?(남자 옷은 그 종류가 어떤 거 있을까요? 남자들 입는 거 속옷부터 한번 말해보십시오. 남자들 입는 옷?)

106024 #2 남자 입는 옷 ᄀᆞᆯ아봐?(남자 입는 옷 말해봐?)

106024 #1 남자 옷 무신거라게.(남자 옷 무엇이야.)

106024 @ 웃음. 게도 만드는 건 여자가 만들어시난.(웃음. 그래도 만드는 건 여자가 만들었으니까.)

106024 #1 아니, 여자가 만들어도 빤스허고 바지벳긘 더 잇어. 남자.(아니, 여자가 만들어도 팬티하고 바지밖에는 더 있어. 남자.)

106024 @ 아니 옛날엔 빤스는 안 헷주게.(아니 옛날엔 팬티는 안 했지.)

106024 #1 갈중의[242]. 갈중의.('갈중의'. '갈중의'.)

106024 #2 아니 빤스가 속바지라, 속바지.(아니 팬티가 속바지야, 속바지.)

106024 @ 예.(예.)

242) '갈중의'는 감물을 들여서 만든 중의를 말한다.

106024 #1 갈중의. 갈중의.(‘갈중의’. ‘갈중의’.)

106024 @ 예.(예.)

106024 #2 속중의.(‘속중의’.)

106024 #1 갈중의 농부덜 입는 거.(‘갈중의’ 농부들 입는 거.)

106024 #2 갈중읜 감 들영 허는 것가 갈중의고, 속중의[243].(‘갈중의’는 감물 들여서 허는 것이 ‘갈중의’고, ‘속중의’.)

106024 @ 속중의허고.(‘속중의’하고.)

106024 #2 빤스는 그 쩨그만헌 그 지금 입는 빤스.(팬티는 그 자그마한 그 지금 입는 팬티.)

106024 #1 속중의는 여자가 입는 거고.(‘속중의’는 여자가 입는 거고.)

106024 #2 겨곡 또 속중의 남자도 무사 저 중의바지 입을 때 속중의 안 입어?(그러고 또 ‘속중의’ 남자도 왜 저 중의바지 입을 때 ‘속중의’ 안 입어?)

106024 #3 양, 이거는 이제사 나온 거우과?(여기요, 이거는 이제야 나온 겁니까?)

106024 #2 속중의.(‘속중의’.)

106024 #4 이건 으덥 개우다.(이건 여덟 갭니다.)

106024 @ 예. 이거는 이제야 나온 거고. 옛날에는 영 싸진 거예? 으.(예. 이거는 이제야 나온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싸진 거요? 으.)

106024 @2 까만 종이예.(까만 종이요.)

106024 #2 옛날은 저런 거 아니.(옛날은 저런 거 아니.)

106024 #1 이건 무신거냐 미승바늘이난 이건 틀리다 말여.(이건 무엇이냐 재봉바늘이니까 이건 다르다 말이야.)

106024 #4 아, 게메 바농 찔러난 디사 미승바농 논 거우다마는 건 으덟 개우다게. 바농 찔르는 게 으덥 개라.(아, 글쎄 바늘 찔렀던 데야 재봉바늘 놓은 겁니다만 건 여덟 개입니다. 바늘 찌르는 게 여덟 개야.)

106024 @ 예.(예.)

106024 #2 그냥 혼 쏨이 열 개.(그냥 한 쌈이 열 개.)

106024 @ 알앗수다. 삼춘 이젤랑 남자 옷 골아?(알았습니다. 삼촌 이젤랑 남자 옷 말해?)

106024 #2 안에는 속중의.(안에는 ‘속중의’.)

106024 @ 예.(예.)

106024 #2 또 속중의 입어나민 밑에 소곱에 빤스 입어나민 속중의 입어나민 우의는 그자 것옷. 것중의[244] 입을 거 아니라.(또 ‘속중의’ 입어나면 밑에 속에 팬티 입어나면 ‘속중의’ 입어나면 위에는 그저 겉옷. ‘겉중의’ 입을 거 아닌가.)

106024 @ 예.(예.)

---

243) ‘속중의’는 속에 입는 중의다.

244) ‘것중의’는 겉에 입는 중의. ‘속중의’에 대응하여 생긴 반의어다.

106024 #2 그거주.(그거지.)
106024 @ 것중의 입고 우에 옷은?('겉중의' 입고 우에 옷은?)
106024 #2 우의 건.(위에 건.)
106024 #1 우에는 여름철이난.(위에는 여름철이니까.)
106024 #2 우의 건 저고리 쪼께.(위에 건 저고리 조끼.)
106024 @ 쪼께?(조끼?)
106024 #1 거뿐.(거뿐.)
106024 #2 그거 보통으로 저고리 쪼께 입곡 속내의 안네 난닝굴 입어도 입엄실 거고.(그거 보통으로 저고리 조끼 입고 속내의 안에 러닝을 입어도 입고 있을 거고.)
106024 @ 예.(예.)
106024 #2 그거허고 두루막.(그거하고 두루마기.)
106024 @ 두루막허고.(두루마기하고.)
106024 #2 그것뿐.(그것뿐.)
106025 @ 으, 그다음에 여자 옷은 어떤 거 잇어?(으, 그다음에 여자 옷은 어떤 거 있어?)
106025 #2 여자 옷은 중의, 속중의, 바껏듸 입는 중의.(여자 옷은 중의, '속중의', 바깥에 입는 중의.)
106025 @ 예.(예.)
106025 #2 또 속치마.(또 속치마.)
106025 @ 예.(예.)
106025 #2 것치마.(겉치마.)
106025 @ 예.(예.)
106025 #2 그거 입는 거.(그거 입는 거.)
106025 @ 우에는?(위에는?)
106025 #2 우의는 소곱에 적삼.(위에는 속에 적삼.)
106025 @ 예.(예.)
106025 #2 그다음 저고리.(그다음 저고리.)
106025 @ 예.(예.)
106025 #2 입는 사름은 저 마고제 허영 입곡. 옛날 마고제 ᄀᆞ튼 거 엇어낫어.(입는 사람은 저 마고자 해서 입고. 옛날 마고자 같은 거 없었었어.)
106025 @ 아, 옛날은 없고예? 게믄 아까 그 속에 입는 적삼을 속적삼이렌도 헤마씨?(아, 옛날은 없고요? 그러면 아까 그 속에 입는 적삼을 속적삼이라고도 해요?)
106025 #2 속적삼.(속적삼.)
106025 @ 아, 적삼허고 저고리하고 ᄐᆞ난 거는 뭐가 ᄐᆞ난 거우꽈?(아, 적삼하고 저고리하고 다른 거는 뭐가 다른 겁니까?)
106025 #2 저고린 안안팟 끼와진 거.(저고린 안팎 끼워진 거.)

106025 @ 예.(예.)

106025 #2 적삼은 홑 거.(적삼은 홑 거.)

106025 #1 홀로 뭰 거.(홀로 된 거.)

106025 @ 아, 홑것을 적삼이렌 허는 거라예. 아아, 겅허고 이제 남자들도 보면 여름에 입는 옷하고 저을에 입는 거하고 ᄐᆞ나지 않헤예?(아, 홑것을 적삼이라고 하는 거네요. 아아, 그렇게 하고 이제 남자들도 보면 여름에 입는 옷하고 겨울에 입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106025 #1 틀리주.(다르지.)

106025 #2 게난 다 겨울에 입는 것도 남자는게 저 바지도 속[쏭] 놩 허는 거.(그러니까 다 겨울에 입는 것도 남자는 저 바지도 속도 넣어서 하는 거.)

106025 @ 으.(으.)

106025 #2 안팟 끼왕 허는 거.(안팎 끼워서 하는 거.)

106025 #1 잘허는 딘 이 사이에 소게도 놔.(잘하는 덴 이 사이에 솜도 넣어.)

106025 #2 또 여름에 입는 건 홑바지.(또 여름에 입는 건 홑바지.)

106025 @ 홑바지. 게믄 이렇게 그 길이가 쫌 쫄븐 거는 뭐렌 헙니까? 여기서는 이름?(홑바지. 그러면 이렇게 그 길이가 좀 짧은 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이름?)

106025 #2 쫄른 게 쫄른 건 쫄른 바지.(짧은 게 짧은 건 짧은 바지.)

106025 @ 쫄른 바지. 뭐 정벵이 이런 말은 안 써?(짧은 바지. 뭐 잠방이 이런 말은 안 써?)

106025 #2 정벵이.(잠방이.)

106025 @ 정벵이가 그거우꽈?(잠방이가 그겁니까?)

106025 #1 정벵이가 맞을 거라.(잠방이가 맞을 거야.)

106025 #2 정벵이. 정벵인 ᄒᆞ끔 쫄르 게 허는 거. 여름에 입는 게 정벵이.(잠방이. 잠방인 조금 짧게 하는 거. 여름에 입는 게 잠방이.)

106025 @ 여름에예, 아.(여름에요, 아.)

106025 #2 속정벵이 ᄒᆞ꼼 긴 정벵이, 정벵이.(속잠방이 조금 긴 잠방이, 잠방이.)

106025 @ 음, 그다음에 그 여자들 쏙 저기 치마 소곱에 입는 중의는 또 ᄯᅳ로 불르는 이름 엇수가? 영 주름도 막 헤놓고.(음 그다음에 그 여자들 속 저기 치마 속에 입는 중의는 또 따로 부르는 이름 없습니까? 이렇게 주름도 마구 해놓고.)

106025 #2 굴중의[245].('굴중의'.)

106025 @ 어, 그거는, 그거에 대헹 ᄀᆞᆯ아줘봅서. 굴중읜 어떤 건지?(어, 그거는, 그거에 대헹 ᄀᆞᆯ아줘봅서. 굴중읜 어떤 건지?)

106025 #2 굴중의.('굴중의'.)

106025 #1 굴중이엔 ᄀᆞ니까.('굴중의'라고 말하니까.)

106025 #2 굴중읜 아까 ᄀᆞᆯ아신디.('굴중의'는 아까 말했는데.)

245) '굴중의'는 허리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106025 @ 음.(음.)

106025 #2 굴, 여자는 치메만 안 입엉 굴중읠 입어사 치멜 입엇주. 아래 펄락허게 허여근엥에 저 우읜 그냥 주름 앚졍 무끄곡.(굴, 여자는 치마만 안 입어서 '굴중의'를 입어야 치말 입었지. 아래 펄락하게 해서 저 위에는 그냥 주름 앉혀서 묶고.)

106025 @ 으, 주름 앚졍은에 무끄고예?(으, 주름 앉혀서 묶고요?)

106025 #2 그거 입어낭은에 속치마 입곡.(그거 입어나서 속치마 입고.)

106025 @ 겉치메 또 입고?(겉치마 또 입고?)

106025 #2 바꼇듸 어디 갈 때는 베꼇듸 치메 입엉 가곡 경 아녀민 속치메만 입엉 뎅기곡.(바깥에 어디 갈 때는 바깥에 치마 입어서 가곡 그렇게 않으면 속치마만 입어서 다니고.)

106025 @ 아아.(아아.)

106025 #2 중의허곡 치마허곡.(중의하고 치마하고.)

106025 @ 예.(예.)

106025 #2 집의 신 땐.(집에 있을 땐.)

106026 @ 집의 신 땐예. 아이덜 옷은 어떤 옷덜 잇어신고예? 애기덜 옷은?(집에 있을 땐요. 아이들 옷은 어떤 옷들 있었을까요? 아기들 옷은?)

106026 #2 아이덜 옷도 ᄉᆞ나인 남자 옷 만들앙 입지곡 여자아인 여자 옷 만들앙 입지곡 경헷주.(아이들 옷도 사낸 남자 옷 만들어서 입히고 여자아인 여자 옷 만들어서 입히고 그렇게 했지.)

106026 @ 특별하게 애기덜만 특별하게 입히는 옷은 엇어마씨?(특별하게 아기들만 특별하게 입히는 옷은 없어요?)

106026 #2 특별하게 애기덜만 입지는 옷 엇주. 엇어.(특별하게 아기들만 입히는 옷 없지. 없어.)

106026 @ 애기 때?(아기 때?)

106026 #2 애긴 때도.(아긴 때도.)

106026 #1 애기 때도 옛날은.(아기 때도 옛날은.)

106026 @ 맨 태어나면? 태어낭 입지는 옷.(맨 태어나면? 태어나서 입히는 옷.)

106026 #2 곧 태어나민.(곧 태어나면.)

106026 #1 건.(건.)

106026 #2 건 봇뎃적, 봇뎃옷[246]엔 헤영 봇데적삼[247].(건 '봇뎃적', '봇뎃옷'이라고 해서 '봇데적삼' 건.)

106026 #1 봇적삼. 봇적삼.('봇적삼'. '봇적삼'.)

106026 @ 으.(으.)

106026 #2 곧 입는 거.(곧 입는 거.)

---

246) '봇뎃옷'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입히는 옷을 말한다.

247) '봇데적삼'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다. 보통 베로 만들어 입히나 광목을 이용해 만들기도 한다. '봇+ 데+ 적삼' 구성으로, 여기에서 '봇'은 태(胎)를 말한다. 제보자들은 '봇뎃적삼'을 달리 '봇데적삼', '봇뎃옷', '봇적삼', '봇듸적삼'이라고도 하였다.

106026 #1 건 건 베로 만들어.(건 건 베로 만들어.)

106026 @ 아.(아.)

106026 #2 베로도 만들곡 광목으로도 만들곡 헤낫주마는.(베로도 만들고 광목으로도 만들고 했었지만.)

106026 #1 좀 살그랑헌[248] 거 헤야 어린아이덜 그 자꾸 궁글면서.(좀 '살그랑한' 거 해야 어린아이들 그 자꾸 구르면서.)

106026 #2 곧 태어낭 베로 허는 건 봇뎃적삼.(곧 태어나서 베로 하는 건 '봇뎃적삼'.)

106026 #1 예, 봇데적삼. 처음 낭은에 입지는 게.(예, '봇데적삼'. 처음 나서 입히는 게.)

106026 #2 처음 낭은에 이삼일 전에 입는 거.(처음 나서 이삼일 전에 입는 거.)

106026 @ 예.(예.)

106026 #2 이삼일 넘으민 벳겨뒁은에 안안팟 이신 거 입져.(이삼일 넘으면 벗겨 두고 안팎 있는 거 입혀.)

106026 @ 음. 그렇게.(음. 그렇게.)

106026 #2 그건 무사넨 허민 애기가 처음 난 때에 그 베적삼을 입져사 등어리가 안 ᄀᆞ룹넨 전설이 잇엇주.(그건 왜냐고 하면 아기가 처음 난 때에 그 베적삼을 입혀야 등어리가 안 가렵다는 전설이 있었지.)

106026 @ 예.(예.)

106026 #1 베가 좀 살그랑허니깐 등어리 긁어진덴 헹 그걸 입져.(베가 좀 '살그랑하니깐' 등어리 긁어진다고 해서 그걸 입혀.)

106026 #2 게난 그거 일주일 동안 입졋당은에 일주일 넘으민 아 사흘 입점신가? 사흘 몸 ᄀᆞᆷ지민 그 안 신 거 입점쭈.(그러니까 그거 일주일 동안 입혔다가 일주일 넘으면 아 사흘 입히고 있는가? 사흘 몸 감기면 그 안 있는 거 입히고 있지.)

106026 @ 음.(음.)

106026 #2 애기어멍이 사흘 뒈민 몸을 ᄀᆞᆷ으난.(아기어머니가 사흘 되면 몸을 감으니까.)

106026 @ 게난 애기도 그때 몸 ᄀᆞᆷ고예? 아.(그러니까 아기도 그때 몸 감고요? 아.)

106026 #2 게난 그거 ᄀᆞᆷ지민 복삭헌 거 입져주는 거.(그러니까 그거 감기면 폭신한 거 입혀주는 거.)

106026 @ 게믄 그거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지는 거우과?(그러면 그거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히는 겁니까?)

106026 #1 예.(예.)

106026 #2 그 태어나자마자 허는 거는 이 ᄉᆞ미도 안 줍곡 그자 펄락허게 줍는 베로 허는 거. 봇데적삼.(그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는 이 소매도 안 기우고 그저 펄

248) '살그랑헌'은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럽지 않고 껄끄러운'의 의미다.

럭하게 기우는 베로 하는 거. '봇데적삼'.)

106026 #1 봇듸적삼인가 거 입고.('봇듸적삼'인가 거 입고.)

106027 @ 예, 예. 그 삼춘 옷 혼 번 이제 만들어봅주. 이제 저고리 멘들젠 허면 그 마름질은 어떤 식으로 행은에?(예, 예. 그 삼촌 옷 한 번 이제 만들어보지요. 이제 저고리 만들려고 하면 그 마름질은 어떤 식으로 해서?)

106027 #2 저고리 만들젠 허민 우선 저 이 폼.(저고리 만들려고 하면 우선 저 이 품.)

106027 @ 예.(예.)

106027 #2 멘들앙 짤라놩.(만들어서 잘라놔서.)

106027 @ 으.(으.)

106027 #2 또 그다음 ᄉᆞ미 부찔 거 그차놩. 그다음에는 앞섭이여 짓이여 따로 따로 그치멍 부치멍 허는 거.(또 그다음 소매 붙일 거 끊어놔서. 그다음에는 앞섶이다 깃이다 따로 따로 끊으면서 붙이면서 하는 거.)

106027 @ 경 허영은에 제일 먼저는 어디로부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는 어디로부터 *?)

106027 #2 젤 문저는 이 저 앞뒤를 문저 멘드는 거.(젤 먼저는 이 저 앞뒤를 먼저 만드는 거.)

106027 @ 아.(아.)

106027 #1 앞에 허고 두이 허고.(앞에 하고 뒤에 하고.)

106027 #2 앞뒤 헐 거난에 영 허민 이거 영 맞이민 이거 가운디 영 목고디 헐 디 짤라둥 가운딜로 벌렁 이디 등어리 허는 딘 아니 그치곡.(앞뒤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맞으면 이거 가운데 이렇게 깃고대 할 데 잘라두고 가운데로 잘라서 여기 등때기 하는 덴 아니 끊고.)

106027 @ 예.(예.)

106027 #2 앞의 헐 때는 두 개로 갈르곡.(앞에 할 때는 두 개로 가르고.)

106027 @ 예.(예.)

106027 #2 갈랑 또 옆이는 ᄉᆞ미 부찌곡, ᄉᆞ미 부쩡 다 줘난 다음에는 이거 두 개 부찐 거난에 짓 부찌곡.(갈라서 또 옆에는 소매 붙이고, 소매 붙여서 다 기운 다음에는 이거 두 개 붙인 거니까 깃 붙이고.)

106027 @ 짓 부찌곡.(깃 붙이고.)

106027 #2 이디 앞섭이엔 헌 거 따로 부찌고.(여기 앞섶이라고 한 거 따로 붙이고.)

106027 @ 그 다음에 옆에 또 무끄젠 허면은?(그 다음에 옆에 또 묶으려고 하면?)

106027 #2 아 묶, 적삼이사 무꺼게?(아 묶, 적삼이야 묶어?)

106027 @ 아, 적삼은 안 하고. 저고리는?(아, 적삼은 안 하고. 저고리는?)

106027 #2 그다음 짓 돌아불민 단추나 무시거 고름이나 둘 거.(그다음 깃 달아

버리면 단추나 무엇 고름이나 달 거.)

106029 @ 아, 단추나 고름이나예. 옛날은 단추는 어떤 단추덜 헤낫수가?(아, 단추나 고름이나요. 옛날은 단추는 어떤 단추들 했었습니까?)

106029 #2 단추 손으로 묻인 거.(단추 손으로 맺은 거.)

106029 @ 어, 그건 무신 단추렌 골아? 그런 것ᄀᆞ라.(어, 그건 무슨 단추라고 말해? 그런 것보고.)

106029 #2 걸로 묻인 거.(걸로 맺은 거.)

106029 #1 험벅단치.(헝겊단추.)

106029 #2 험벅단추 묻인 거.(헝겊단추 맺은 거.)

106029 @ 아, 험벅단추예?(아, 헝겊단추요?)

106029 #1 험벅으로.(헝겊으로.)

106029 #2 그거 묻는 사름은 그거 묻앙 둘곡 경 아녀는 사름은 단추 사당 기자 보통 단추 사당 둘고.(그거 맺는 사람은 그거 맺어서 달고 그렇게 않는 사람은 단추 사다가 그저 보통 단추 사다가 달고.)

106028 @ 음, 음. 그 경허고 삼춘 이제 옷 허면 이렇게 바지들이 이렇게 잇잖아예? 영헤영 바지 뭴 거 아니우꽈예? 게믄 이 부분은 뭐렌 헤?(음, 음. 그 그렇게 하고 삼촌 이제 옷 하면 이렇게 바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지 될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해?)

106028 #2 허리.(허리.)

106028 @ 허리. 이런, 이런 부분은?(허리. 이런, 이런 부분은?)

106028 #2 그건 저 영 바지폭.(그건 저 이렇게 바지폭.)

106028 @ 폭. 폭도 큰 거 잇고 족은 거 잇어예? 게문 큰 거는 무신 폭 헙니까?(폭. 폭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지요? 큰 거는 무슨 폭 합니까?)

106028 #2 큰폭 족은폭.(큰사폭 작은사폭.)

106028 @ 아, 큰폭 족은폭예?(아, 큰사폭 작은사폭이요?)

106028 #2 으, 상복 족은복.(으, 마루폭 작은사폭.)

106028 @ 아, 상복이렌 헤? 큰폭을.(아, 마루폭이라고 해? 큰사폭을.)

106028 #2 큰폭은 상복.(큰사폭은 마루폭.)

106028 @ 으, 상복. 족은복하고.(으, 마루폭. 작은사폭하고.)

106028 #2 상복 부찌곡 족은복 부찌곡.(마루폭 붙이고 작은사폭 붙이고.)

106028 @ 예.(예.)

106028 #2 경 골아낫주.(그렇게 말했었지.)

106028 @ 그다음 이 밑에는?(그다음 이 밑에는?)

106028 #2 밑에는 무신거 엇주게.(밑에는 무엇 없지.)

106028 @ 아 건 엇인 거고, 여기는 뭐렌 헙니까?(아 건 없는 거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2 거긴 무시거라?(거긴 무엇이야?)

106028 @ 다리.(다리.)
106028 #2 밑에.(밑에.)
106028 @ 으.(으.)
106028 #2 남자 옷인디.(남자 옷인데.)
106028 @ 예.(예.)
106028 #2 영 허민 이거 복 부쪄불민 이거 이디 아무 것도 엇인 거 아니?(이렇게 하면 이거 폭 붙여버리면 이거 여기 아무 것도 없을 거 아니?)
106028 @ 게민 젤 밑에. 이 발 나오는 디?(그러면 젤 밑에. 이 발 나오는 데?)
106028 #2 발 나오는 디 무신거 아무 것도 아니주기.(발 나오는 데 무엇 아무 것도 아니지.)
106028 @ 이름 뭐렌 안 골아? 으, 게믄 이제 상복허고 족은폭만 허는 거구나.(이름 뭐라고 안 말해? 으, 그러면 이제 마루폭하고 족은사폭만 하는 거구나.)
106028 #2 상복 부찌곡 족은폭 부치민 이치룩 단 허여불민 바지가 뒈는 거주.(마루폭 붙이고 작은사폭 붙이면 이처럼 단 해버리면 바지가 되는 거지.)
106028 @ 여기는 단이구나? 게민예. 옛날에는.(여기는 단이구나? 그러면요. 옛날에는.)
106028 #2 우의는 허리 돌앙은엥에 허리 무꺼불곡.(위에는 허리 달아서 허리 묶어 버리고.)
106028 @ 여기는 허리 돌아불곡. 허리 ᄃᆞ는 무끄는 거를 뭐렌 허여?(여기는 허리 달아버리고. 허리 다는 묶는 거를 뭐라고 해?)
106028 #2 허리띠.(허리띠.)
106028 @ 허리띠렌 허고. 으음. 게믄 이제 여자 거는 이렇게 뒐 거 아니우과? 치마면예?(허리띠라고 하고. 으음. 그러면 이제 여자 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치마면요?)
106028 #2 치마는 무끌 게 엇주게.(치마는 묶을 게 없지.)
106028 @ 으, 여기는 뭐렌 헤? 우에를.(으, 여기는 뭐라고 해? 위에를.)
106028 #2 치맛허리[치맏터리].(치마허리.)
106028 @ 이건 치맛허리.(이건 치마허리.)
106028 #2 치맛허리는 따로 허여근엥에 영 저 허리를 따로 주름 앚져근에.(치마허리는 따로 해서 이렇게 저 허리를 따로 주름 앉혀서.)
106028 @ 예.(예.)
106028 #2 주름 잡앙 허리 돌아근엥에 곰 돌앙 무끄민.(주름 잡아서 허리 달아서 고름 달아서 묶으면.)
106028 @ 어, 건 치맛허리? 이런 건 뭐렌 헤? 여기 옆에.(어, 건 치마허리? 이런 건 뭐라고 해? 여기 옆에.)
106028 #2 건 아무 것도 아니. 치마폭은 저 두 폭짜리 잇고 네 폭짜리 잇고. 베는 ᄋᆞ섯 폭 헤사 치마가 뒈는 거.(건 아무 것도 아니. 치마폭은 저 두 폭짜리 있고

네 폭짜리 있고. 베는 여섯 폭 해야 치마가 되는 거.)

106028 @ 예.(예.)

106028 #2 광목은 두 폭으로 홀 수가 잇고.(광목은 두 폭으로 할 수가 있고.)

106028 @ 음.(음.)

106028 #2 그 미녕도 허젠 허민 으섯 폭 헤살 거.(그 무명도 하려고 하면 여섯 폭 해얄 거.)

106028 @ 으섯 폭예? 그 다음에 그 치마허리 허는데 삼춘, 통으로 뤤 치마도 잇고 그다음.(여섯 폭요? 그 다음에 그 치마허리 하는데 삼촌, 통으로 된 치마도 있고 그다음.)

106028 #2 통으로 헌 치마도게. 건 저.(통으로 한 치마도. 건 저.)

106028 @ 무슨 치마 헙니까? 거는.(무슨 치마 합니까? 거는.)

106028 #2 그건 허리치마.(그건 허리치마.)

106028 @ 허리치마. 이러, 이렇게 뤤 거는?(허리치마. 이러, 이렇게 된 거는?)

106028 #2 그것가 허리치마[249].(그것이 '허리치마'.)

106028 @ 어.(어.)

106028 #2 우리 그냥 입는 건 폭치마.(우리 그냥 입는 건 풀치마.)

106028 @ 폭치마. 어. 영 통으로 뤤 거는 허리치마렌 허고. 그게 깍치마우꽈?(풀치마. 어. 이렇게 통으로 된 거는 '허리치마'라고 하고. 그게 풀치마입니까?)

106028 #2 깍치마가 영 저 허리 둘앙 주름 앚졍 허리 둘앙 곰 메영은에 영 감는 것이 깍치마.(풀치마가 이렇게 저 허리 달아서 주름 앉혀서 허리 달아서 고름 매서 이렇게 감는 것이 풀치마.)

106028 @ 아, 그게 깍치마고.(아, 그게 풀치마고.)

106028 #2 이건 이제사 난 치마. 허리만 둘앙 입는 건 이 신식으로 난 치마.(이건 이제야 난 치마. 허리만 달아서 입는 건 이 신식으로 난 치마.)

106028 @ 신식으로고, 옛날은 이 위로 헤갖고예. 게믄 이 위로 허는 데도 위로 무끄는 딘 뭐렌 해?(신식으로고, 옛날은 이 위로 해갖고요. 그러면 이 위로 하는 데도 위로 묶는 덴 뭐라고 해?)

106028 #2 위로 무끌 거라게. 저 허리치멜 허민.(위로 묶을 거야. 저 '허리치마'를 하면.)

106028 @ 어.(어.)

106028 #2 허리 이젠 우리 할망덜 ᄀᆞ트민 이런 딜로 무끄지마는 처녀덜 ᄀᆞ튼 사름덜은 요런 디로 영 무꺼근에 저고리 우틔레 톡허게 입어불주게.(허리 이젠 우리 할머니들 같으면 이런 데로 묶지만 처녀들 같은 사람들은 요런 데로 이렇게 묶어서 저고리 위로 톡하게 입어버리지.)

106028 @ 으음.(으음.)

106028 #2 경 허리 나오지 아녀게 허영.(그렇게 허리 나오지 않게 해서.)

249) '허리치마'는 허리를 달아 만든 한복치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106028 @ 허리 나오게 안 허영.(허리 나오게 안 해서.)
106028 #2 그 치메나 그 치메나 ᄀᆞ튼 거.(그 치마나 그 치마나 같은 거.)
106028 @ 옛날은 다 깍치마라예?(옛날은 다 풀치마지요?)
106028 #2 깍치마.(풀치마.)
106028 @ 아, 요즘에나 통치마 허영 허리치마 나오는 거예?(아, 요즘에나 통치마 해서 '허리치마' 나오는 거요?)
106028 #2 옛날이사 ᄒᆞ꼬만 헌 디 가젠 허민 허리 저 깍치마 입엉 둘렁 뎅겻주. 지금ᄀᆞ치록 빌락빌락[250] 뎅겨나지 아녀수다.(옛날이야 조금만 한 데 가려고 하면 허리 저 풀치마 입어서 둘러서 다녔지. 지금처럼 '빌락빌락' 다녔었지 않았습니다.)
106028 @ 그치, 다예. 저고리 같은 경우에 하면 삼춘 이렇게?(그렇지, 다요. 저고리 같은 경우에 하면 삼촌 이렇게?)
106028 #2 저고린 모양 똑ᄀᆞ치 헐 거.(저고린 모양 똑같이 할 거.)
106028 @ 이렇게 뒈잖아예?(이렇게 되잖아요?)
106028 #2 으.(으.)
106028 @ 게믄 이름이 여기는 뭐렌 허는 거? 여기는.(그러면 이름이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 여기는.)
106028 #2 여기는 압섭.(여기는 앞섶.)
106028 @ 이게 이렇게 헌 여기가 앞섭예?(이게 이렇게 한 여기가 앞섶이요?)
106028 #2 으.(으.)
106028 @ 앞섭. 이 옆에는?(앞섶. 이 옆에는?)
106028 #2 건 저 ᄉᆞ매.(건 저 소매.)
106028 @ 이게 ᄉᆞ매. 이 이 여기 끝에는 뭐렌 헙니까?(이게 소매. 이 이 여기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2 ᄉᆞ밋부리.(소맷부리.)
106028 @ 이거는 ᄉᆞ밋부리.(이거는 소맷부리.)
106028 #2 옷 ᄉᆞ밋부리.(옷 소맷부리.)
106028 @ 으, 옷 ᄉᆞ밋부리예, 그다음 이 뒤에는? 여기 영 허영은에 뭐 부찌지 아념니까? 두에.(으, 옷 소맷부리요, 그다음 이 뒤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뭐 붙이지 않습니까? 뒤에.)
106028 #2 뒤에 무신거 잇어? 영 짓 돌아불민 말 거주.(뒤에 무엇 있어? 이렇게 깃 달아버리면 말 거지.)
106028 @ 아, 그냥 짓.(아, 그냥 깃.)
106028 #2 앞섭 우에 짓.(앞섶 위의 깃.)
106028 @ 앞섭 우에는 다 짓예? 그다음에 이 여기는 뭐렌 헙니까? 여기 이렇게 뒌 데. 여기 ᄉᆞ매 영 헌 디.(앞섶 위에는 다 깃요? 그다음에 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렇게 된 데. 여기 소매 이렇게 한 데.)

250) 여기에서 '빌락빌락'은 '아무렇게나 마구'의 의미로 쓰인 첩어다.

106028 #2 이것가 ᄉᆞ매.(이것이 소매.)

106028 @ 으, 소매 밑에를.(으, 소매 밑에를.)

106028 #2 아, ᄀᆞ뜬 거.(아, 같은 거.)

106028 @ 아, ᄀᆞ튼 거. 진동 이런 말은 안 헤?(아, 같은 거. 진동 이런 말은 안 해?)

106028 #2 진동은 요런 디 영 줍으는 디가 진동. 저고리 ᄉᆞ미 부찌젠 허민 요디 영.(진동은 요런 데 이렇게 집는 데가 진동. 저고리 소매 붙이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106028 @ 아, 이거, 여기가 진동? 여기가.(아, 이거, 여기가 진동? 여기가.)

106028 #2 예, 지금 적삼은 여기 민짝허게 헤불주마는 저고리 소매 부찌젠 허민 진동 앗넨 허는 말이 요디 줍는 거.(예, 지금 적삼은 여기 밋밋하게 해버리지만 저고리 소매 붙이려고 하면 진동 가진다고 하는 말이 여기 기우는 거.)

106028 @ 아아, 거기 진. 이 아래도 뭐렌 헙니까? 이런 저고리 밑에도.(아아, 거기 진. 이 아래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저고리 밑에도.)

106028 #2 아니, 아래 도련.(아니, 아래 도련.)

106028 @ 도련.(도련.)

106028 #2 그 여자 옷은 알 도련을 곱게 줍아사 뽄이 나는 거.(그 여자 옷은 아래 도련을 곱게 집어야 모양이 나는 거.)

106028 @ 음, 알 도련이렌 헤예? 그다음에 삼춘 영 허면, 제대로 뒈나. 이렇게 해서 보선.(음, 아래 도련이라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삼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나. 이렇게 해서 버선.)

106028 #2 보선.(버선.)

106028 @ 으, 보선 헐 때는? 여기도 이제.(으, 버선 할 때는? 여기도 이제.)

106028 #2 뒤치기.(뒤축.)

106028 @ 여기는 뒤치기?(여기는 뒤축?)

106028 #2 으, 앞의 건 앞치기.(으, 앞에 건 앞볼.)

106028 @ 여기가 앞치기?(여기가 앞볼?)

106028 #2 으. 거 곧짝허게 여자들 거 곧짝허게 나오는 건 보선코.(으. 거 곧게 여자들 거 곧게 나오는 건 버선코.)

106028 @ 요거는 여기는 보선코. 요, 요거는?(요거는 여기는 버선코. 요, 요거는?)

106028 #2 그건 뒤치기.(그건 뒤축.)

106028 @ 여기가 뒤치기. 이 앞에는?(여기가 뒤축. 이 앞에는?)

106028 #2 앞, 앞치긴, 앞치긴 기자 보선코 압.(앞, 앞볼은, 앞볼은 그저 버선코 앞.)

106028 @ 앞에예.(앞에요.)

106028 #2 보선 압.(버선 앞.)

106028 @ 이 우에는? 팔 허면 이렇게 허는 데.(이 위에는? 팔 하면 이렇게 하는데.)

106028 #2 거 보선 영 허민 이치룩 뒈난 거 다 ᄀᆞ치 들어가는 거 아니?(거 버선 이렇게 하면 이처럼 되니까 거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

106028 @ 수눅은 어디우과?(수눅은 어딥니까?)

106028 #2 목.(목.)

106028 @ 여기는 보선목.(여기는 버선목.)

106028 #2 목이 수눅이주. 목 수눅.(목이 수눅이지. 목 수눅.)

106028 @ 여기, 여기가, 게믄 이거 영 허면 옆으로 이렇게 뒈게끔예?(여기, 여기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렇게 되게끔요?)

106028 #2 우리 발ᄀᆞ치록게 보선 허민 요딘 목허곡게 영 허민 요디 앞코지 날 거 요긴 뒤치기 뒐 거.(우리 발처럼 버선 하면 요긴 목하고 이렇게 하면 요기 앞코 날 거 여긴 뒤축 될 거.)

106028 @ 으.(으.)

106028 #2 또 요디 ᄒᆞ꼼 가운디 ᄒᆞ꼼 줄이는 거 뭣산디 몰라.(또 요기 조금 가운데 조금 줄이는 거 무엇인지 몰라.)

106028 @ 어 여기도 뭐렌 헌.(어 여기도 뭐라고 한.)

106028 #1 여길 ᄒᆞ꼼 줄여사 보선뽄이 뒈주기.(여길 조금 줄여야 버선본이 되지.)

106028 #1 이딘 경 뽄 만들어신게.(여긴 그런게 본 만들었는데.)

106028 @ 경 허니까? 게난 그 이름이 뭔지 몰라 갖고.(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뭔지 몰라 갖고.)

106028 #2 것도 나도 몰르켜, 줄이는 건.(것도 나도 모르겠다, 줄이는 건.)

106029 @ 예, 알앗수다. 단추 종류는 어떤 단추덜 잇수가?(예, 알았습니다. 단추 종류는 어떤 단추들 있습니까?)

106029 #2 단추 종류 사기단추[251]도 잇고게.(단추 종류 사기단추도 있고.)

106029 @ 으.(으.)

106029 #2 험벅단추도 잇고 종류가 무신 그것뿐이주 뭐. 쒜단추도 잇고.(헝겊단추도 있고 종류가 무슨 그것뿐이지 뭐. 쇠단추도 있고.)

106029 @ 으.(으.)

106029 #1 이디 주로 옛날은 험벅단추를 많이 헷주.(여기 주로 옛날은 헝겊단추를 많이 했지.)

106029 @ 험벅단추를 여기서 불르는 이름은 엇어?(헝겊단추를 여기서 부르는 이름은 없어?)

106029 #2 험벅단추. 부르는 이름은 없곡, 아이 여자덜 입는 거 ᄒᆞᆫ 가지 떨어졋저.(헝겊단추. 부르는 이름은 없고, 아니 여자들 입는 거 한 가지 떨어졌다.)

---

251) '사기단추'는 사기로 만든 단추를 말한다.

106029 @ 예.(예.)
106029 #2 쏙에[쏘게].(속에.)
106029 @ 예.(예.)
106029 #2 소중의[252]엔 헌 거가 잇어.('소중의'라고 한 것이 있어.)
106029 @ 아. 소중의 으. 소중의는 어떤 거?(아. '소중의' 으. '소중의'는 어떤 거?)
106029 #2 지금 좀수덜 저 물옷 입는 거. 것ᄀᆞ라 소중의.(지금 잠수들 저 물옷 입는 거. 것보고 '소중의'.)
106029 @ 소중의. 그게 젤 안에 입는 옷, 여자들예, 예. 그 소중의를 입은 다음에 또 속바지도 입곡.('소중의'. 그게 젤 안에 입는 옷, 여자들요, 예. 그 '소중의'를 입은 다음에 또 속바지도 입고.)
106029 #2 바지 입곡.(바지 입고.)
106029 @2 굴중의 입곡.('굴중의' 입고.)
106029 #2 우의 중의 입곡 치메 입곡.(위에 중의 입고 치마 입고.)
106029 @ 어, 게난 얼마나 옷 입은 게 하서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어, 그러니까 얼마나 옷 입은 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재단과 염색

106030 @ 삼춘, 예전에 이제 옷 허젠 허면 옷감 그 손질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멩, 미녕으로 옷허젠 허민 미녕 차곡 고대로 옷을 못 멘들잖아예? 어떤 식으로 헤연 그 옷을?(삼촌, 예전에 이제 옷 하려고 하면 옷감 그 손질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 무명으로 옷 하려고 하면 무명 짜고 그대로 옷을 못 만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옷을?)
106030 #2 영 미녕 뿔아근엥에 문 풀허곡 헤영 잘 손봐놔사 옷 만들기가 좋주. 광목이나 무신거라도.(이렇게 무명 빨아서 몽땅 풀하고 해서 잘 손봐놔야 옷 만들기가 좋지. 광목이나 무엇이라도.)
106030 @ 게난 그 옷감 손질허는 거 한번 ᄀᆞᆯ아줘봅서. 어떤 식으로 손질헤신지.(그러니까 그 옷감 손질하는 거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손질했는지.)
106030 #2 그 미녕 헤당 뿔아근에.(그 무명 해다가 빨아서.)
106030 @ 예.(예.)
106030 #1 뿔앙. 뿔민 ᄆᆞ리왕.(빨아서. 빨면 말려서.)
106030 @ 응.(응.)
106030 #2 풀헤영.(풀해서.)
106030 @ 예.(예.)
106030 #2 밀풀이나 옛날은 저 밀 ᄀᆞᆯ앙은엥에 봣당 그거 짜근엥에 풀헤낫주기.(밀풀이나 옛날은 저 밀 갈아서 놨다가 그거 짜서 풀했었지.)

252) '소중의'는 여자들이 맨 안에 입는 속옷을 말한다.

106030 @ 밀풀예? 어.(밀풀이요? 어.)

106030 #2 그 밀 물 컹 놔두민 거가 문작허민 그걸 막 주물라근에 풀을 허민 밀풀이 거 젤 좋덴 헤낫주.(그 밀 물 타서 놔두면 그것이 무르면 그걸 마구 주물러서 풀을 하면 밀풀이 거 젤 좋다고 했었지.)

106030 @ 아, 거 솖거나 이러진 안 허여.(아, 거 삶거나 이러진 안 해.)

106030 #2 솜지 안 허여.(삶지 안 해.)

106030 @ 밀풀은?(밀풀은?)

106030 #2 그냥 쒕.(그냥 쒀서.)

106030 @ 쒕은에.(쒀서.)

106030 #2 풀 내왕 쒕.(풀 내서 쒀서.)

106030 @ 예.(예.)

106030 #2 경헤나신디 지금은 밀ᄀᆞ르풀[253] 헹은에 뭐 풀 탁 칠허민 얼마든지.(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밀가루풀' 해서 뭐 풀 탁 칠하면 얼마든지.)

106030 @ 그렇게 헤서 이제 다 옷 다 다린 다음에 옷을 멘들아?(그렇게 해서 이제 다 옷 다 다린 다음에 옷을 만들어?)

106030 #2 다려도 좋곡 그자 영 막 ᄆᆞᆯ라불지 아년 때 개어놔근에 끈끈 발로 ᄇᆞᆯ라도.(다려도 좋고 그저 이렇게 아주 말라버리지 않을 때 개어놔서 꾹꾹 발로 밟아도.)

106030 #1 손보주. ᄆᆞᆯ를 때.(손보지. 마를 때.)

106030 #2 ᄆᆞᆯ라도 바짝허민 그 ᄆᆞ들ᄆᆞ들헌[254] 거 풀어지민 옷ᄀᆞ슴 뒈는 거난게.(말라도 뻣뻣하면 그 'ᄆᆞ들ᄆᆞ들한' 거 풀어지면 옷감 되는 거니까.)

106030 @ 음.(음.)

106030 #2 손 그 발로 ᄇᆞᆯ랑근엥 헤도 것ᄀᆞ라 손봄엔 허주. 손봄.(손 그 발로 밟아서 해도 것보고 손보기라고 하지. 손보기.)

106030 @ 손봄예?(손보기요?)

106030 #2 손봐근엥에 그걸로 옷ᄀᆞ음을 저 시작헐 거.(손봐서 그걸로 옷감을 저 시작할 거.)

106031 @ 으, 게난 옷ᄀᆞ슴 손본덴 영 ᄀᆞᆫ는 거라예? 삼춘, 염색도 헤봅디가?(으, 그러니까 옷감 손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삼촌, 염색도 해봅디까?)

106031 #2 염색 헤보진 아녓주마는 놈덜 허는 거 봣주.(염색 해보진 않았지만 남들 하는 거 봤지.)

106031 @ 어, 어떤 식으로 헤? 염색은.(어, 어떤 식으로 해? 염색은.)

106031 #2 어떤 식. 물ᄀᆞ음 사당은에.(어떤 식. 물감 사다가.)

106031 @ 예.(예.)

106031 #1 물 캉.(물 타서.)

---

253) '밀ᄀᆞ르풀'은 밀가루로 쑨 풀을 말한다. 제보자는 위의 '밀풀'과 '밀ᄀᆞ르풀'이 쑤는 방법이 달라서 구분하고 있다.

254) 여기에서 'ᄆᆞ들ᄆᆞ들헌'은 뒤의 '풀어지면'이 온 걸 보면 '구불구불한'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06031 @ 예.(예.)
106031 #2 그것에 옷 적경 그거.(그것에 옷 적셔서 그거.)
106031 @ 으.(으.)
106031 #1 솟듸 놩 솖앙.(솥에 놔서 삶아서.)
106031 #2 솟듸 놩 그거 솖음을 오래 솖아야.(솥에 넣어서 그거 삶기를 오래 삶아야.)
106031 @ 아, 솖기도 허는 거구나.(아, 삶기도 하는 거구나.)
106031 #2 쏢음을 막 오래 오래 솖아사 물이 안 짜지주. 경 아녀민 문 벗어져 불 거. 경헤연 요새 염색덜 허는 사름덜 경 헤고.(삶음을 아주 오래 오래 삶아야 물이 안 짜지지. 그렇게 않으면 몽땅 벗겨져 버릴 거. 그렇게 해서 요새 염색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던데.)
106031 @ 여기 옛날에는 갈옷덜 하영 입엇잖아예? 갈옷 염색허는 순서 골아줍서? 어떤 식으로 갈옷은 이제 멘드는 거?(여기 옛날에는 갈옷들 많이 입었잖아요? 갈옷 염색하는 순서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갈옷은 이제 만드는 거?)
106031 #2 갈옷도 저 지금 사름덜 허는 거 보난에 그 염색혜놘 감옷[255]을 들연게.(갈옷도 저 지금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염색해놓아서 '감옷'을 들이던데.)
106031 @ 음.(음.)
106031 #2 감을 문저 허지 안 허영.(감을 먼저 하지 안 해서.)
106031 #1 게난 그걸랑 옛날 말로만 골읍서. 시방 허는 걸랑 곧지 말고.(그러니까 그걸랑 옛날 말로만 말하십시오. 시방 하는 걸랑 말하지 말고.)
106031 @ 예. (웃음).(예. (웃음).)
106031 #1 감으로만 옛날은 허난에.(감으로만 옛날은 하니까.)
106031 @ 예, 그렇지.(예, 그렇지.)
106031 #2 들으니까 골암주. 그 전엔 저 우리 염색허여 보진 안 허연.(들으니까 말하고 있지. 그 전엔 저 우리 염색해 보진 안 했어.)
106031 @ 예. 감, 아 감옷 들이는 거?(예. 감, 아 '감옷' 들이는 거?)
106031 #2 감물 들이는 거?(감물 들이는 거?)
106031 @ 어, 감물 들이는 거.(어, 감물 들이는 거.)
106031 #2 감 타당.(감 따다가.)
106031 @ 예.(예.)
106031 #2 도고리에서.(함지박에서.)
106031 @ 예.(예.)
106031 #1 뿟앙.(빻아서.)
106031 #2 마께로 뭇앙.(방망이로 마서.)
106031 @ 으.(으.)
106031 #2 물 짱.(물 짜서.)

255) '감옷'은 감물을 들인 옷이다. 달리 '갈옷'이라고도 한다.

106031 @ 예.(예.)

106031 #2 그거 허영 옷 허영은에 주물주물 뭉크려근에.(그거 해서 옷 해서 주물럭주물럭 움켜쥐어서.)

106031 @ 으.(으.)

106031 #2 판칙 그 주셍이 안 부뜨게 탁탁 털엉 판칙 헤둥은에 바닥에 놩 빠짝허게시리 손봐놩.(깨끗하게 그 찌꺼기 안 붙게 탁탁 떨어서 깨끗이 해둬서 바닥에 놔서 뺏뺏하게끔 손봐놔서.)

106031 @ 으.(으.)

106031 #2 경 허영 넘 시작허민 것가 바라가는냥 물 적지멍 널곡 널곡 허민 감물 들이는 거.(그렇게 해서 널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래가는대로 물 적시면서 널고 널고 하면 감물 들이는 거.)

106031 @ 게믄 그 물 적지멍 너는 거는 어느 정도 허면은 그 색깔이 돌아오는 거마씨?(그러면 그 물 적시면서 너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그 색깔이 돌아오는 거예요?)

106031 #2 허당허당 보민 헴시민 뻘경허여가주게. 막 빨강헐 때ᄁᆞ지 적졋당 널곡 적졋당 널곡.(하다하다 보면 하고 있으면 뻘개가지. 아주 빨갈 때까지 적셨다가 널고 적셨다가 널고.)

106031 @ 으.(으.)

106031 #1 ᄒᆞ루 ᄒᆞᆫ 번은 적지주.(하루 한 번은 적시지.)

106031 @ ᄒᆞ루.(하루.)

106031 #2 이슬, 이슬에도 밤이 비 아니 온 때 이슬에도 적지곡.(이슬, 이슬에도 밤에 비 아니 올 때 이슬에도 적시고.)

106031 @ 예.(예.)

106031 #2 널엉 내불민 이슬도 맞곡 경 아년 땐 자꾸 적졍 널어사 감옷[256]은 곱주.(널어서 내버리면 이슬도 맞고 그렇게 않은 땐 자꾸 적셔서 널어야 '감옷'은 곱지.)

106031 @ 어, 웨 옛날, 요즘은 천으로 헤갖고 미리 다 헌 다음에 옷을 멘들잖아예? 옛날 어른들도 그치룩헤신가마씨? 아니면.(어, 왜 옛날, 요즘은 천으로 해갖고 미리 다 한 다음에 옷을 만들잖아요? 옛날 어른들도 그처럼했는가요? 아니면.)

106031 #2 옛날에 감[257] 들여놧당 옷덜 만들앗주.(옛날에 감 들여놨다가 옷들 만들었지.)

106031 @ 아, 미리 옛날도마씨?(아, 미리 옛날도요?)

106031 #2 감 들영 놧단덜 옷 멘들아.(감 들여서 놨다가들 옷 만들어.)

106031 #1 들영, 들영 놔두주게.(들여서, 들여서 놔두지.)

106031 @ 아, 천을 미리 감 들영 놔두는 거라예. 게문 그걸 헹 미리 들영 놔,

256) '감옷'은 감물을 들인 옷이다. 달리 '갈옷'이라고도 한다.
257) 여기에서 '감'은 '감물'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여름에는 들영 놧당 겨울에 이제 옷들 멘들엇구나. 그 일 안 헐 때예?(아, 천을 미리 감 들여서 놔두는 거네요. 그러면 그걸 해서 미리 들여서 놔, 여름에는 들여서 놨다가 겨울에 이제 옷들 만들었구나. 그 일 안 할 때요?)

106031 #1 겨울에도 허곡 봄에도 허곡.(겨울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106031 #2 경도 허곡 옷 멘들아도 멘들앙도 들이곡.(그렇게도 하고 옷 만들어도 만들어서도 들이고.)

106031 #1 멘들앙도 놔두고.(만들어서도 놔두고.)

106031 @ 음.(음.)

106031 #2 옛날은 멘들앙덜 하영 들엿주. 감 들이는 거.(옛날은 만들어서들 많이 들였지. 감 들이는 거.)

106031 @ 음.(음.)

106031 #2 하영 안 허난게.(많이 안 하니까.)

106031 @ 예, 예.(예, 예.)

106031 #2 지금ᄀᆞ찌 하영 아녀난. 이녁 입을 거 ᄒᆞ나 두불 허는 것사 감 타당 곧 들여근에 그 헤놔근에 옷 멘들아놩 들이민 더 곱주.(지금같이 많이 않으니까. 이녁 입을 거 하나 두벌 하는 것이야 감 따다가 곧 들여서 그 해놓아서 옷 만들아놔서 들이면 더 곱지.)

106031 @ 아, 천으로 허는 것보단 멘들아놩 들이는 게 고웁니까?(아, 천으로 하는 것보단 만들어놔서 들이는 게 고웁니까?)

106031 #2 멘들아놩 들여사 씰밥도 안 나고 아무 씰이나 멘, 들여놩 허젠 허민 감씰[258]도 사살 거.(만들어놔서 들여야 실밥도 안 나고 아무 실이나 만, 들여놔서 하려고 하면 '감씰'도 사얄 거.)

106031 @ 아아.(아아.)

106031 #2 그 흰 씰로 허민 흰 씰 베려지곡.(그 흰 실로 하면 흰 실 보이고.)

106031 #1 또 씰이 감씰이 엇주게. 지금은 나오는디.(또 실이 '감씰'이 없지. 지금은 나오는데.)

106031 #2 옛날은 그자 그 감물 들여근엥에 혼듸 헤불민 씰밥도 안 나곡 씰도 안 나곡 제색 뒈여근에.(옛날은 그저 그 감물 들여서 함께 해버리면 실밥도 안 나고 실도 안 나고 본색 되어서.)

106031 @ 제색 뒈갖고. 아아.(본색 돼갖고. 아아.)

106031 #2 경허연 하영 들엿주. 지금은 막 천덜 허영 하영 장ᄉᆞ로 허여노난 저치록 천에 들염주.(그렇게 해서 많이 들였지. 지금은 막 천들 해서 많이 장사로 해놓으니까 저처럼 천에 들이고 있지.)

106031 @ 으음.(으음.)

106031 #2 옛날은 그자 갈적삼[259], 굴(?)적삼 만들엇당 톡 허게 들엿당덜.(옛날

258) '감씰'은 감물을 들인 실을 말한다.
259)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을 말한다.

은 그저 갈적삼, 굴(?)적삼 만들었다가 톡 하게 들였다가들.)

106031 @ 예, 그러면 그 감옷은 계절 없이 옛날덜은 입엇수가?(예, 그러면 그 '감옷'은 계절 없이 옛날들은 입었습니까?)

106031 #2 게?(게?)

106031 @ 계절 없이? 봄여름가을겨울.(계절 없이? 봄여름가을겨울.)

106031 #2 계절 없이 엇인 사름은 동천 몰르게.(계절 없이 없는 사람은 동천(冬天) 모르게.)

106031 #1 농부는 봄에 입기 시작허민 겨울까지 뭐 거의 입엇주.(농부는 봄에 입기 시작하면 겨울까지 뭐 거의 입었지.)

106031 #2 농부도 엿날은 엇인 사름이.(농부도 옛날은 없는 사람이.)

106031 #1 겨울에도 입엉 사는 사름 잇어.(겨울에도 입어서 사는 사람 있어.)

106031 #2 옷이 철철이 엇이난 겨울에도 그 감옷 입엉 하영 살앗주.(옷이 철철이 없으니까 겨울에도 그 '감옷' 입어서 많이 살았지.)

106031 @ 아아.(아아.)

106031 #2 엇인 사름은.(없는 사람은.)

106031 @ 엇인 사름덜은예?(없는 사람들은요?)

106031 #1 여름에는 이 땀이 딴 옷허고 땀이 덜 차.(여름에는 이 땀이 딴 옷하고 땀이 덜 차.)

106031 @ 으.(으.)

106031 #1 땀이 잘 안 나.(땀이 잘 안 나.)

106031 #2 이 감옷은 입으민.(이 '감옷'은 입으면.)

106031 #1 그 때문도 들여.(그 때문에도 들여.)

106031 #2 씨원헌 기가 시난에 저 여름에만 입으렌 헌 거주만은 엇인 사름덜은 겨울에덜토 입어구나.(시원한 기가 잇으니까 저 여름에만 입으라고 한 거지만 없는 사람들은 겨울에들도 입었어.)

106031 @ 음.(음.)

106031 #1 겨울에 입고말고. 다 입엇주.(겨울에 입고말고. 다 입었지.)

106031 #2 다 입언게.(다 입던데.)

106031 @ 누비 허진 않고? 으.(누비 하진 않고? 으.)

106031 #2 갈옷 누비진 아녀고.(갈옷 누비진 않고.)

106031 @ 아, 갈옷 누비진 안 헤마씨? 그냥 일반 미녕 헤영은에 거기 소게 헹. 여기도 누비옷덜도 헷지예?(아, 갈옷 누비진 안 해요? 그냥 일반 무명 해서 거기 솜 해서. 여기도 누비옷들도 했지요?)

106031 #2 누비옷덜 잘 아녑니다, 이딘.(누비옷들 잘 않습니다, 여긴.)

106031 @ 아아.(아아.)

106031 #2 입지덜토 아녀곡.(입지들도 않고.)

106031 #1 성읍리선 안 헨.(성읍리선 안 했어.)

106031 @ 아, 옛날도 안 헤낫수가? 소게바지는 뭐에 소게바지 멘드는 거?(아, 옛날도 안 했었습니까? 솜바지는 뭐에 솜바지 만드는 거?)

106031 #2 소게바지는 저 광목 아까도 광목 말 ᄀᆞᆯ앗주마는 광목에 헹 바지 멘들앙근엥에 그 저 바지가 안안팟 시난게.(솜바지는 저 광목 아까도 광목 말 말했지만 광목에 해서 바지 만들어서 그 저 바지가 안팎 있으니까.)

106031 @ 예.(예.)

106031 #2 꺼푸레기나 안네나 그 소게를 끼와놩 또 ᄒᆞ나 끼와근에 줘불민 속바지가 뒈는, 소게바지가 뒈는 거주. 그 완전 늙은 사름덜이나 입주, 안 입어.(껍데기나 안에나 그 솜을 끼워놓고 또 하나 끼워서 기워버리면 속바지가 되는, 솜바지가 되는 거지. 그 완전 늙은 사람들이나 입지, 안 입어.)

106031 #1 늙신네덜 겨울에.(늙으신네들 겨울에.)

106031 @ 음.(음.)

106031 #2 소게바지 잘 안 입어.(솜바지 잘 안 입어.)

106031 @ 게난 소게바지렌 헤영은에 이렇게 노비이불 만드는 건 노비옷 만드는 건 아니구나예?(그러니까 솜바지라고 해서 이렇게 누비이불 만드는 건 누비옷 만드는 건 아니군요?)

106031 #2 아니.(아니.)

신발

106032 @ 아아, 삼춘, 신은 여자가 멘듭니까? 남자가 멘드는 거우과?(아아, 삼촌, 신은 여자가 만듭니까? 남자가 만드는 겁니까?)

106032 #2 무신 신?(무슨 신?)

106032 @2 초신.(짚신.)

106032 @ 뭐 초신이든 뭐.(뭐 짚신이든 뭐.)

106032 #1 초신이주게, 뭐.(짚신이지, 뭐.)

106032 #2 초신 남자가 만들주, 무신.(짚신 남자가 만들지, 무슨.)

106032 @ 신 종류는 어떤 거 잇엇수가? 옛날에.(신 종류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옛날에.)

106032 #1 옛날?(옛날?)

106032 @ 으.(으.)

106032 #1 옛날 초신벳긔 엇엇어.(옛날 짚신밖에 없었어.)

106032 #2 초신.(짚신.)

106032 @ 응.(응.)

106032 #2 나막신.(나막신.)

106032 @ 응.(응.)

106032 #1 나막신엔 헌 건 겨울에 그 남으로 만든 거.(나막신이라고 한 건 겨울에 그 나무로 만든 거.)

106032 @ 음.(음.)
106032 #2 고무신.(고무신.)
106032 @ 음.(음.)
106032 #2 그것벳긔 더 잇어?(그것밖에 더 있어?)
106033 @ 가죽신은 엇언?(가죽신은 없었어?)
106033 #1 가죽, 가죽신은 잇엇고.(가죽, 가죽신은 있었고.)
106033 #2 가죽신은 가죽으로 만드는 거니까.(가죽신은 가죽으로 만드는 거니까.)
106033 #1 가죽으로만 만든 거 잇엇어.(가죽으로만 만든 거 있었어.)
106033 @ 으.(으.)
106033 #2 그건, 그건 저 어디 저.(그건, 그건 저 어디 저.)
106033 #1 산에 갓당.(산에 갔다가.)
106033 #2 사농 뎅기는 사름.(사냥 다니는 사람.)
106033 #1 사름덜.(사람들.)
106033 @ 아, 사농 뎅기는 사름들은 가죽신 헤?(아, 사냥 다니는 사람들은 가죽신 해?)
106033 #2 그 어디 저 화전에 뎅기는 사름덜이나벳긔.(그 어디 저 화전에 다니는 사람들밖에.)
106033 #1 화전에 저 숫 묻으레 뎅이는 사름덜.(화전에 저 숯 묻으러 다니는 사람들.)
106033 @ 예.(예.)
106033 #2 숫, 숫 묻으레나게 노리 사농 뎅이는 옛날 화전에 사는 사름덜 잇어나지 아녀서게?(숯, 숯 묻으러나 노루 사냥 다니는 옛날 화전에 사는 사람들 있었었지 않았어?)
106033 #1 그런 사름덜.(그런 사람들.)
106033 #2 화전에 사는 사름덜 가름에 아니.(화전에 사는 사람들 마을에 아니.)
106033 #1 가죽보선[260]엔 헤여, 가죽보선.('가죽보선'이라고 해, '가죽보선'.)
106033 #1 가죽보선.('가죽보선'.)
106033 #2 드르에 사는 사름덜.(들에 사는 사람들.)
106033 @ 아, 가죽보선. 삼춘, 씨집갈 때는 무신 신 신엉 간?(아, '가죽보선'. 삼촌, 시집갈 때는 무슨 신 신어서 갔어요?)
106033 #2 우리는 가막창신[261] 신엉 갓다고.(우리는 '가막창신' 신어서 갔다고.)
106033 @ 으, 그건 어떵 거우과? 가막창신은?(으, 그건 어떤 겁니까? '가막창신'은?)

260) '가죽보선'은 '가죽+보선' 구성으로, 여기에서 '보선'은 버선으로 모양으로 만든 가죽신이다. 표준어 '목화(木靴)'와 비슷한 신발을 말한다.
261) '가막창신'은 검정가죽신을 말한다. 보통 '창신'은 가죽으로 만드는데 제보자는 우단으로 만든 신이었다고 구술했다.

106033 #2 가막창신.(‘가막창신’.)
106033 @ 으.(으.)
106033 #2 우단으로 뭰 건디.(우단으로 된 건데.)
106033 @ 으.(으.)
106033 #2 그거 우리 어머니가 씨집올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어디.(그거 우리 어머니가 시집올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어디.)
106033 #1 난산리[262].(난산리.)
106033 #2 난산리. 저 성산읍 할망이주게.(난산리. 저 성산읍 할머니지.)
106033 @ 예에.(예에.)
106033 #2 게난 우리 어머니가 그 가막창신을 신엉 왕 놧단에 씨집갈 때 나를 신져 주더라고.(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가막창신’을 신어서 와서 놨다가 시집갈 때 나를 신겨 주더라고.)
106033 @ 아아, 게난 난산리도 막 부자라낫구나? 삼촌네는.(아아, 그러니까 난산리도 아주 부자였었구나? 삼촌네는.)
106033 #2 우리네 어멍네가 ᄒᆞ꼼 부제로 잘 살아난 셍이라.(우리네 어머니네가 조금 부자로 잘 살았던 모양이야.)
106033 @ 아, 그 어머니네가 그 정도 신엇을 정도니까.(아, 그 어머니네가 그 정도 신었을 정도니까.)
106033 #2 게난 어머니가 헤신디 우리 어머니도 이디 오난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어부난 할망 혼자 살아신디 우리 어멍도 막 부제로 살앗수다게. 막 곡석도 하영 허고, 사름덜토 하영 부리멍 곡석 하영 허멍 나도 저 쏠 엇엉 헤보지 안 헷수다.(그러니까 어머니가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할머니 혼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곡식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부리면서 곡식 많이 하면서 나도 저 쌀 없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106033 @ 음.(음.)
106033 #2 어멍네 부제난. 씨집간 후제도.(어머니네 부자니까. 시집간 후에도.)
106033 @ 음.(음.)
106033 #2 놈덜은 엇어근에 막 놈의 집의 쏠 사레 뎅기곡 무신거 헤도 그런 거도 허레도 혀뜩헌 일[263]도 허레 안 뎅겨봔.(남들은 없어서 막 남의 집에 쌀 사러 다니고 무엇 해도 그런 거도 하러도 보잘 것 없는 일도 하러 안 다녀봤어.)
106033 @ 웃음.(웃음.)
106033 #1 겐디 우리 결혼헐 때만 헤도 남자는 ᄆᆞᆯ을 타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헤서 씨집갓는디.(그런데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는 말을 타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해서 시집갔는데.)

262) ‘난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행정마을의 하나다.
263) 여기에서 ‘혀뜩헌 일’은 ‘보잘 것 없는 일’의 의미로 쓰였다.

106033 @ 예.(예.)
106033 #2 대개 그 가막창신엔 헌 게.(대개 그 '가막창신'이라고 한 게.)
106033 @ 예.(예.)
106033 #1 가마에 붙어 잇다고.(가마에 붙어 있다고.)
106033 @ 아.(아.)
106033 #2 남자 거주.(남자 거지.)
106033 #1 여자 것도 잇수다.(여자 것도 있습니다.)
106033 @ 어.(어.)
106033 #1 그게 웨냐믄 그때 당시에는 동네나.(그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동네나.)
106033 @ 마을에.(마을에.)
106033 #1 동네마다 접이 가맛접[264]이엔 헌 게 잇어. 접꾼. 동네에서 멧 사름씩 동아리헤서.(동네마다 계가 '가맛접'이라고 한 게 있어. 계원. 동네에서 몇 사람씩 동아리해서.)
106033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6033 #1 그때 접꾼에서만 사용허는 그거, 그게 잇어낫어.(그때 계원에서만 사용하는 그거, 그게 있었었어.)
106033 @ 게영 이제 남자 신은 무신 신 헤?(그래서 이제 남자 신은 무슨 신 해?)
106033 #1 남자는 가막창신이엔 헌 게 잇어, 또.(남자는 '가막창신'이라고 한 게 있어, 또.)
106033 @ 남자 것도?(남자 것도?)
106033 #1 이 보선 모냥으로 생긴 건디.(이 목화 모양으로 생긴 건데.)
106033 @ 예.(예.)
106033 #1 이 아래 쒜 박곡 헤근에 다 가막창신이엔 헌 게 잇어.(이 아래 쇠 박고 해서 다 '가막창신'이라고 한 게 있어.)
106033 @ 아.(아.)
106033 #2 큰큰헌 거.(크나큰 거.)
106033 @ 큰큰헌 거. 것도 가막창신이렌 허고예? 아. 게영.(크나큰 거. 것도 '가막창신'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서.)
106033 #2 우린 우리 어머니 신어난 거난 여자 신 곱딱헌 거 까망헌 거 놧단에 줜게.(우린 우리 어머니 신었던 거니까 여자 신 고운 거 까만 거 놨다가 줬어.)
106033 #1 여자덜은 이 고무신 식으로 뒌 건디 남자는 이꼬지 올라와. 장화.(여자들은 이 고무신 식으로 된 건데 남자는 이까지 올라와. 장화.)
106033 @ 보선예?(목화요?)
106033 #1 신발이 장화 모냥으로.(신발이 장화 모양으로.)

264) '가맛접'은 가마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계를 말한다.

106034 @ 음, 경허고, 그 신예, 나막신, 여기선 나막신을 무신 신이렌 헷수가?(음, 그렇게 하고, 그 신요, 나막신, 여기선 나막신을 무슨 신이라고 했습니까?)

106034 #2 남신.(나막신.)

106034 #1 나막신. 나무로 파니까 나막신엔 헌 거주.(나막신. 나무로 파니까 나막신이라고 한 거지.)

106034 #2 나무로 판 거.(나무로 판 거.)

106034 @ 삼춘, 아까 무신 신?(삼촌, 아까 무슨 신?)

106034 #2 나무로 판 거.(나무로 판 거.)

106034 @ 무슨 신?(무슨 신?)

106034 #2 나막신.(나막신.)

106034 @ 남신이렌은 안 골아?('남신'이라고는 안 말해?)

106034 #1 남신이엔도 골아.('남신'이라고도 말해.)

106034 #2 맞아게. 남신이 나막신이주게.(맞아. '남신'이 나막신이지.)

106034 @ 남신. 남신 파는 것도 봐봅디가?(나막신. 나막신 파는 것도 봐봅디까?)

106034 #1 으.(으.)

106034 @ 어떤 식으로 건?(어떤 식으로 건?)

106034 #2 이, 이 지금 미깡낭 싱거진 디.(이, 이 지금 귤나무 심어진 데.)

106034 @ 예.(예.)

106034 #1 살던 하르버지가 나막신 파당 돌아가신 분이라.(살던 할아버지가 나막신 파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106034 #2 목시, 목시.(목수, 목수.)

106034 @ 아아.(아아.)

106034 #2 목수허는 하르방.(목수하는 할아버지.)

106034 #1 건 아무나 못 헤여. 건.(건 아무나 못 해. 건.)

106034 @ 예.(예.)

106034 #1 그디 강 게민 그거 ᄒᆞ나 맞추젠 허민 미릿 강 맞춰 놓지 않으민 그 자기 찍시 **.(거기 가서 그러면 그거 하나 맞추려고 하면 미리 가서 맞춰 놓지 않으면 그 자기 몫 **.)

106034 #2 그 남신 파는.(그 나막신 파는.)

106034 #1 하르방이 잇엇주.(할아버지가 있었지.)

106034 #2 그것ᄀᆞ라 ᄀᆞᆨ쒜엔 헷일 거라. ᄀᆞᆨ쒜.(그것보고 호비칼이라고 했을 거야. 호비칼.)

106034 @ ᄀᆞᆨ쒜? 예.(호비칼? 예.)

106034 #1 예, ᄀᆞᆨ쒜.(예, 호비칼.)

106034 #2 그 쒜가 잇언게.(그 쇠가 있던데.)

106034 @ 예.(예.)

106034 #2 영 안네 속속속속속속속속 파는.(이렇게 안에 속속속속속속속속 파는.)

106034 #1 영 오그라진 거 잇어. 오그라진 거 영허영 이거로만 긁어내주게.(이렇게 오그라진 거 있어. 오그라진 거 이렇게 해서 이거로만 긁어내지.)

106034 #2 그 쒜로만 파는 거.(그 쇠로만 파는 거.)

106034 @ 으.(으.)

106034 #2 곧 만들어놩 그걸로만 허는 ᄀᆨ쒜.(곧 만들어놓아서 그것으로만 하는 호비칼.)

106034 @ ᄀᆨ쒜. ᄀᆨ쒜로 팡, 그 남신은 언제 주로 신는 거?(호비칼. 호비칼로 파서, 그 나막신은 언제 주로 신는 거?)

106034 #1 겨울에, 눈 올 때.(겨울에, 눈 올 때.)

106034 #2 아무 때라도.(아무 때라도.)

106034 @ 아, 눈 올 때?(아, 눈 올 때?)

106034 #1 비 올 때.(비 올 때.)

106034 #2 비 올 때.(비 올 때.)

106034 @ 으.(으.)

106034 #2 날 존 날만 안 신는 거.(날 좋은 날만 안 신는 거.)

106034 @ 삼춘네도 남신을 신어본 거?(삼촌네도 나막신을 신어본 거?)

106034 #1 신어 봔.(신어 봤어.)

106034 #2 신어 봔.(신어 봤어.)

106034 @ 아, 힘들지 아녀마씨? 신으면.(아, 힘들지 않아요? 신으면.)

106034 #1 아니, 힘들지는 아년디.(아니, 힘들지는 않은데.)

106034 @ 아, 경 헙니까?(아, 그렇게 합니까?)

106034 #2 그거 곧 헌 때 무겁주만은 팡 놔두민 ᄆᆞᆯ르민 남이 ᄆᆞᆯ르민 안 무거워.(그거 곧 할 때 무겁지만 파서 놔두면 마르면 나무가 마르면 안 무거워.)

106034 #1 거붑주.(가볍지.)

106034 @ 아. 우리가 딱 보게 뒈면 이만큼 허니까.(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이만큼 하니까.)

106034 #1 예.(예.)

106034 @ 막 무거울 거 닮은디 그렇지 않구나.(아주 무거울 거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106034 #2 남이 ᄆᆞᆯ르민 안 무거와.(나무가 마르면 안 무거워.)

106034 #1 그 나무 자체가 게부운 낭이라.(그 나무 자체가 가벼운 나무야.)

106034 @ 아.(아.)

106034 #1 그 낭 아니민 파지 못허주게. 부드러운 낭이라야 뒈여.(그 나무 아니면 파지 못하지. 부드러운 나무라야 돼.)

106034 @2 거 무신 낭이우과?(거 무슨 나뭅니까?)

106034 #1 거 종낭이라고.(거 때죽나무라고.)
106034 @ 종낭? 종낭으로 남신 하영 팟구나.(때죽나무? 때죽나무로 나막신 많이 팠구나.)
106034 #1 종낭.(때죽나무.)
106034 #2 종낭. 또 무시거니?(때죽나무. 또 무엇이니?)
106034 #1 마, 마주목[265]으로도 파낫수다.(마, '마주목'으로도 팠었습니다.)
106034 #2 믈쿠시낭.(먹구슬나무.)
106034 @ 예, 믈쿠실.(예, 먹구슬나무.)
106034 #1 그게 마주목.(그게 '마주목'.)
106034 @ 예.(예.)
106034 #1 믈쿠시낭이옌 헌 게 마주목.(먹구슬나무라고 한 게 '마주목'.)
106034 @ 믈쿠실낭허고 이제 종낭으로예? 아아, 경허고 가죽신 멘드는 건 안 봐낫지예? 예 건 안 봐봐실 거고? 초신.(먹구슬나무하고 이제 때죽나무로요? 아아, 그렇게 하고 가죽신 만드는 건 안 봤었지요? 예. 건 안 봐봤을 거고? 짚신.)
106034 #2 초신은 우리 아지방도.(짚신은 우리 아주버니도.)
106034 #1 초신은 나도 삼아. 나도 만들어봐신디.(짚신은 나도 삼아. 나도 만들어봤는데.)
106035 @ 게믄 초신 삼는 거 골아봅서?(그러면 짚신 삼는 거 말해보십시오?)
106035 #1 초신.(짚신.)
106035 @ 예.(예.)
106035 #1 초신 놀이 잇어이.(짚신 날이 있어.)
106035 @ 예.(예.)
106035 #2 놀을 뭘로 만드느냐 허민은 억새가 저게 에 팔월 구물엉 구월 초승 나민은 저 그디 미비젱이[266]렌 헌 게 나오주게.(날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억새가 저게 에 팔월 그물어서 구월 초승 되면 저 거기 '미비젱이'라고 한 게 나오지.)
106035 @ 예.(예.)
106035 #1 그 저 꼿 필, 그게 나와. 그걸 뽑아당 그거를 믈령 그걸로 저 새끼를 꼬주게.(그 저 꽃 필, 그게 나와. 그걸 뽑아다가 그거를 말려서 그걸로 저 새끼를 꼬지.)
106035 @ 예.(예.)
106035 #2 신놀 헐 걸.(신날 할 걸.)
106035 @ 으.(으.)
106035 #1 신놀을 네 개를 허는데.(신날을 네 개를 하는데.)
106035 @ 예.(예.)
106035 #1 ᄒᆞ나 딱 ᄒᆞᆫ 발 발앙 쩨여근에 영 꼬부리민 네 개가 뒈여. 그렇게 허

265) '마주목'은 먹구슬나무의 이칭이다.
266) '미비젱이'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억새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 신은 삼주게.(하나 딱 한 발 밟아서 짜개서 이렇게 꼬부리면 네 개가 되어. 그렇게 해서 신은 삼지.)

106035 @ 으음. 그거는 깍을 멘드는 거고.(으음. 그거는 총을 만드는 거고.)

106035 #2 산듸찝으로도 하영 허주.(밭볏짚으로도 많이 하지.)

106035 #1 산듸찍으론 저는 거. 깍, 깍 비비는 것도 산듸찍으로 허곡.(밭볏짚으론 겯는 거. 총, 총 비비는 것도 밭볏짚으로 하고.)

106035 @ 예. 게믄 삼춘 이제 이 찍신 허민 이렇게 뒈잖아, 예? 이렇게 헤서.(예. 그러면 삼촌 이제 이 짚신 하면 이렇게 되잖아, 예? 이렇게 해서.)

106035 #1 신 모양으로 뒈주.(신 모양으로 되지.)

106035 @ 으, 신 모양으로 이렇게 뒈면 이 가운데 이렇게 노는 거 잇잖우과? 이렇게.(으, 신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 이렇게 놓는 거 있잖습니까? 이렇게.)

106035 #1 그디는 없고.(거기는 없고.)

106035 @ 으.(으.)

106035 #1 이게 원래면은.(이게 원래면.)

106035 @ 예.(예.)

106035 #1 이게 이렇게 뒈면은?(이게 이렇게 되면?)

106035 @ 예. 그, 그려 봅서.(예. 그, 그려 보십시오.)

106035 #1 놀이 이렇게 네 개, 네 개가 뒈여이.(날이 이렇게 네 개, 네 개가 되어.)

106035 @ 예.(예.)

106035 #1 네 개가 뒈민 이디는 요렇게 뒈여. 요렇게 뒈민은 요디서 끈으로 여기다 무끄고 앞에는 신클엔 헌 게 잇어. 신 짜는.(네 개가 되면 여기는 요렇게 돼. 요렇게 되면 여기서 끈으로 여기다 묶고 앞에는 신틀이라고 한 게 있어. 신 짜는.)

106035 @ 아, 신클도 잇수과?(아, 신틀도 있습니까?)

106035 #1 요게, 요게 끼와근에 영 앚앙 짜기만 허믄 뒈는디이.(요게, 요게 끼워서 이렇게 앉아서 짜기만 하면 되는데.)

106035 @ 예.(예.)

106035 #1 여기서부터 짜주게. 게민 요기는 코지가 이렇게 나와이. 게민 이딘 안 허곡 욜로부터 깍을 부쪄가기 시작허여. 욜로부떠.(여기서부터 짜지. 그러면 여기는 코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긴 안 하고 욜로부터 총을 붙여가기 시작해. 욜로부터.)

106035 @ 예. 여기 영 영 헌 거를 깍이렌 헌 거예?(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총이라고 한 거요?)

106035 #1 깍.(총.)

106035 @ 예, 깍.(예, 총.)

106035 #1 신깍이라고 헤서.(신총이라고 해서.)

106035 @ 으.(으.)
106035 #1 걸 부쪄가주게.(걸 붙여가지.)
106035 @ 으.(으.)
106035 #1 경 헤영 여기서 보통 요꺼지 오면은 안 부쪄.(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통 요까지 오면 안 붙여.)
106035 @ 예.(예.)
106035 #1 경허영 글로 윗새는 욜로 윗샌 그대로 짱 욜로 가면은 이게 신 모양이 발 모양으로 이딘 이렇게 뱔아지게 짜주게. 쫄아지게 요렇게 졸아지게.(그렇게 해서 글로 위 사이는 욜로 위 사인 그대로 짜서 욜로 가면은 이게 신 모양 이 발 모양으로 여긴 이렇게 빨아지게 짜지. 졸아지게 요렇게 졸아지게.)
106035 @ 예.(예.)
106035 #1 그렇게 짜근에.(그렇게 짜서.)
106035 @ 예.(예.)
106035 #1 이거를 요렇게 꼬부려당 이딜 연결시키주게. 요거를 마주막엔.(이거를 요렇게 꼬부려다가 여길 연결시키지. 요거를 마지막엔.)
106035 @ 음. 이렇게 여기로 연결허는 거우과?(음. 이렇게 여기로 연결하는 겁니까?)
106035 #1 경허영 요걸 영 꼬부려당.(그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꼬부려다가.)
106035 @ 음.(음.)
106035 #1 연결시켜놩 요건 또 욜로 깨영 깍을 일부러 탁 깨주게.(연결시켜놔서 요건 또 욜로 깨서 총을 일부러 탁 깨지.)
106035 @ 예.(예.)
106035 #1 그 이게 한 짝에 한 이십 개 이상 부치니까.(그 이게 한 쪽에 한 이십 개 이상 붙이니까.)
106035 @ 아, 신깍을.(아, 신총을.)
106035 #1 으.(으.)
106035 @ 으.(으.)
106035 #1 한 이십 개 이상 부치니까 그걸 요렇게 깨영 요레 요레 앗당 연결시키주게.(한 이십 개 이상 붙이니까 그걸 요렇게 깨서 요리 요리 갖다가 연결시키지.)
106035 @ 으음.(으음.)
106035 #1 경허영 신엉 다녀.(그렇게 해서 신고 다녀.)
106035 @ 음.(음.)
106035 #1 멕신[267] 허는 것도 잇어.('멕신' 하는 것도 있어.)
106036 @ 멕신은 뭐우과?('멕신'은 뭡니까?)
106036 #1 멕신은.('멕신'은.)

267) '멕신'은 멱서리 짜는 것처럼 해서 만든 신을 말한다.

106035 @ 으.(으.)
106035 #1 산듸찍으로 절긴 절앗는디.(밭볏짚으로 겯긴 결었는데.)
106035 @ 예.(예.)
106035 #1 우리가 그거는 사삼사건 후에.(우리가 그거는 사삼사건 후에.)
106036 @ 예.(예.)
106036 #1 후에 그 겨울에.(후에 그 겨울에.)
106035 @ 으.(으.)
106035 #1 그거를 짱 신엉 뎅기면 이꼬지 장화 모냥으로 올라오게 허영 짱 신엉 뎅이면은.(그거를 짜서 신어서 다니면 이까지 장화 모양으로 올라오게 해서 짜서 신어 다니면.)
106035 @ 예.(예.)
106035 #1 겨울에 뎅겨도 발도 벨로 안 실렵고게.(겨울에 다녀도 발도 별로 안 시리고.)
106035 @ 멕신은? 어어.('멕신'은? 어어.)
106035 #1 그거 허영 신어나낫주.(그거 해서 신었었지.)
106035 @ 멕신 허게 뒈면 그 우리 저 멕 짜는 거처럼 헤갖고 그런 식으로 짜는 거 아니면 초신 삼.('멕신' 하게 되면 그 우리 저 멱서리 짜는 거처럼 해갖고 그런 식으로 짜는 거 아니면 짚신 삼.)
106035 #1 멕 짜는 식으로 짜.(멱서리 짜는 식으로 짜.)
106036 @ 아, 멕 짜는 식으로 헹은에 멕신이렌 헌 거라예? 경허고 삼춘, 이 초신도 초신도 이제 곱게 삼는 것도 잇고.(아, 멱서리 짜는 식으로 해서 '멕신'이라고 한 거네요? 그렇게 하고 삼촌, 이 짚신도 짚신도 이제 곱게 삼는 것도 있고.)
106036 #1 으.(으.)
106036 @ 그 다음에 이제 대충대충 헤갖고.(그 다음에 이제 대충대충 해갖고.)
106036 #1 그 대충허는 거는.(그 대충하는 거는.)
106036 @ 으.(으.)
106036 #1 이 드르에 다닐 때.(이 들에 다닐 때.)
106036 @ 예.(예.)
106036 #2 그거 헐랴고 헤연 짯고. 이 곱게 짜는 거는 옛날은 새각시도 이 초신을 신엉 씨집가낫다고.(그거 하려고 해서 짰고. 이 곱게 짜는 거는 옛날은 새색시도 이 짚신을 신어서 시집갔었다고.)
106036 @ 음.(음.)
106036 #1 아주 옛날엔.(아주 옛날엔.)
106036 @ 예.(예.)
106036 #1 고무신 나오기 전엔.(고무신 나오기 전엔.)
106036 @ 으.(으.)
106036 #2 건 완전히 오래 뒌 거.(건 완전히 오래 된 거.)

106036 #1 게난 노래에도 잇잖아. 초신을 신엉 씨집가랴 허는 말이.(그러니까 노래에도 있잖아. 짚신을 신어서 시집가랴 하는 말이.)

106036 @ 으.(으.)

106036 #1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인디 초신 신언 씨집간 사름덜토 잇다고.(그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짚신 신어서 시집간 사람들도 있다고.)

106036 @ 예, 그런 식으로.(예, 그런 식으로.)

106036 @2 깍을 어 그 미삐쟁이[268]로 안 헤여근에.(총을 어 그 억새꽃으로 안 해서.)

106036 #1 아, 아닙니다. 그 깍은 산듸찍이양, 산듸찝도.(아, 아닙니다. 그 총은 밭볏짚이요, 밭볏짚도.)

106036 @ 소독.('소독'.)

106036 #1 소독[269] 필랴고 허면은 소독 나오는 게 잇수다게.('소독' 피려고 하면 '소독' 나오는 게 있습니다.)

106036 @2 예.(예.)

106036 #1 글로 짤라근에 요걸로 요걸 가졍 비빕주게. 그거 허던지 아니면 끅. 끅 걷어다근에양 이것도 거풀 벳경 거풀 벳겨근에 막 두드리멍 빨멍 빨면은 이게 헤영헤마씀.(글로 잘라서 요걸로 요걸 가져서 비집지요. 그거 하든지 아니면 칡. 칡 걷어다가요 이것도 껍질 벗겨서 껍질 벗겨서 막 두들기면서 빨면서 빨면 이게 하얘요.)

106036 @ 으.(으.)

106036 #1 헤영허민 그걸로 영 깍 부병 또 허곡.(하야면 그걸로 이렇게 총 비벼서 또 하고.)

106036 @2 으.(으.)

106036 @ 게난 깍은 이 신발 앞에 헨에 영 그 요런 식으로 영 허영 짜는 걸 얘기허는 거지예? 깍은예, 이 앞에.(그러니까 총은 이 신발 앞에 해서 이렇게 그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짜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총은요, 이 앞에.)

106036 #1 욜로 영허영 욜로 영 요디는 처음은 요만이 요만이 부쳇당.(욜로 이렇게 욜로 이렇게 여기는 처음은 요만큼 요만큼 붙였다가.)

106036 @ 예.(예.)

106036 #1 츠츠츠차 쪼끔씩 길게 부쳐가이. 쪼끔씩 쪼끔씩.(차차차차 조끔씩 길게 붙여가. 조끔씩 조끔씩.)

106036 @ 게난 이런 식으로 영 영 영 영 뒈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106036 #1 으.(으.)

106036 @ 예, 예.(예, 예.)

---

268) 여기에서 '미삐쟁이'은 억새꽃을 싼 것 껍데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69) '소독'은 이삭이 나오는 속 줄기를 말한다.

106036 #1 게난 이 여기보단 추추추차 길게 헤 강 요디 가면 마주막 갈 때는 또 짤르게 부쪄. 경헤영.(그러니까 이 여기보단 차차차차 길게 해 가서 여기 가면 마지막 갈 때는 또 짧게 붙여. 그렇게 해서.)

106036 @ 예.(예.)

106036 #1 신을 삼아낫주.(신을 삼았었지.)

106036 @ 예, 나중에 한 번. 여기 초신 잇수가?(예, 나중에 한 번. 여기 짚신 있습니까?)

106036 #2 겐디 요새덜은 어디.(그런데 요새들은 어디.)

106036 #1 초신은 이딘 없는디.(짚신은 여긴 없는데.)

106036 #2 행사라도 가젠 허민 초신 신엉 갈 땐양, 거 기자 영, 영 멘들아가멍 깍 만들어가멍 만들어가멍 깍 만들어근엥에.(행사라도 가려고 하면 짚신 신어서 갈 땐요, 거 그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총 만들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총 만들어서.)

106036 #1 육지서 여기서도.(육지서 여기서도.)

106036 #2 웃음.(웃음.)

106036 @ 예.(예.)

106036 #1 저.(저.)

106036 #2 경헤영 신엉 가메.(그렇게 해서 신어서 가.)

106036 #1 장ᄉᆞ가 낫을 때.(장사가 났을 때.)

106036 @ 예.(예.)

106036 #2 상제신[270]엔 헌 게 잇어.('상제신'이라고 한 게 있어.)

106036 @ 예, 그 이름은 뭐? 상제신은.(예, 그 이름은 뭐? '상제신'은.)

106036 #1 것이 저 오, 오각[271]엔 헌 건 이 깍을 다섯 개벳긘 안 부찌주게. 혼 짝에.(것이 저 오, '오각'이라고 한 건 이 총을 다섯 개밖에 안 붙이지. 한 쪽에.)

106036 @ 예, 예.(예, 예.)

106036 #1 혼 짝에 다섯 개씩 부쪄근에 신은 신을 상제가 신는 신이 잇어낫어, 그렇게.(한 쪽에 다섯 개씩 붙여서 신은 신을 상제가 신는 신이 있었었어, 그렇게.)

106036 @ 그게 세 개만 허영 삼갑신 헷던 게 그건가?(그게 세 개만 해서 '삼갑신' 했던 게 그건가?)

106036 #2 삼갑신[272]엔 헌 게 그거주게.('삼갑신'엔 한 게 그거지.)

106036 @ 아.(아.)

106036 #2 영장 난 때.(장사 날 때.)

106036 #1 영장 난 때 신는 신이 따로 잇어낫수다.(장사 날 때 신는 신이 따로 있었었습니다.)

106036 @ 으, 삼춘 삼갑신이렌 말 들어봔?(으, 삼촌 '삼갑신'이라는 말 들어봤어

270) '상제신'은 상제가 신는 신을 말한다.
271) '오각'은 '총이 다섯'이라는 의미다.
272) '삼갑신'은 깍이 세 개인 짚신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세깍신'이라고도 한다.

요?)
106036 #2 우리 느량 신어낫주. 상 만난 때에.(우리 늘 신었었지. 상 만난 때에.)
106036 @ 아.(아.)
106036 #1 영장 난 땐 옛날.(장사 날 땐 옛날.)
106036 @ 게, 그 이름을 여기서는 뭐렌 불러?(게, 그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
106036 #2 삼갑신이 맞아.('삼갑신'이 맞아.)
106036 @ 삼갑신이 맞아. 아, 영장 나면은?('삼갑신'이 맞아. 아, 장사 나면?)
106036 #2 상제 신는 거 삼갑신.(상제 신는 거 '삼갑신'.)
106036 @ 삼갑신예?('삼갑신'요?)
106036 #1 장이 나면은 장밧듸서 돌아가신 후에.(장이 나면 장지에서 돌아가신 후에.)
106036 @ 예.(예.)
106036 #1 만듭니다게. 동네 사름덜이 놀레 와서.(만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러 와서.)
106036 @ 아.(아.)
106036 #2 장의사덜토 만들앙 오렌 허민 거 짱 오고.(장의사들도 만들어서 오라고 하면 거 짜서 오고.)
106036 #1 장의사도 만들엉 오렌 허민 만들어오는디 옛날은 동네 사름이 거의 모다들언 뭐 헷주.(장의사도 만들어서 오라고 하면 만들어오는데 옛날은 동네 사람이 거의 모여들어서 뭐 했지.)
106036 @ 게난 이제 상복 멘들고 헐 때.(그러니까 이제 상복 만들고 할 때.)
106036 #2 삼각신 헐 때 그 저 무시거, 깍 내는 걸 여라 개 안 부쩡 혼 멧 개 부쪄근에 허는 거난 삼각신이라고.('삼각신' 할 때 그 저 무엇, 총 내는 걸 여러 개 안 붙여서 한 몇 개 붙여서 하는 거니까 '삼각신'이라고.)
106036 @ 예에, 게난 영장 때는 이제 줴인이니까 좋은 신을 못 신은 거구나예?(예, 그러니까 장사 때는 이제 죄인이니까 좋은 신을 못 신은 거군요?)
106036 #1 으.(으.)
106036 @ 아아 게영 삼갑신.(아아 그래서 '삼갑신'.)
106036 @2 급하기도 허고.(급하기도 하고.)
106036 @ 으.(으.)
106036 #1 삼갑신엔 헌 거는 저건 깍을 미리 비녀논 게 아니고.('삼갑신'이라고 한 거는 저건 총을 미리 비녀놓은 게 아니고.)
106036 @ 으.(으.)
106036 #1 절아가면서 비빕니다게.(결어가면서 비빕니다.)
106036 @ 예.(예.)
106036 #1 절아가면서 비벼.(결어가면서 비벼.)

106036 @ 게믄 그런 신을 뭐 붙깍신 이런 말도 헙니까?(그러면 그런 신을 뭐 제총박이 이런 말도 합니까?)

106036 #1 붙깍신.(제총박이.)

106036 @ 직접 하나로 헤갖고. 다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직접 하나로 해갖고. 다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106036 #1 붙깍신이옌 말은 원.(제총박이라는 말은 전혀.)

106036 #2 붙깍신. 붙깍.(제총박이. 제총.)

106036 @ 붙깍신.(제총박이.)

106036 #1 만들어가멍. 맞아. 붙깍신. 줄아가멍 만드는 거 붙깍신.(만들어가면서. 맞아. 제총박이. 결어가면서 만드는 거 제총박이.)

106036 #1 요새 그 저.(요새 그 저.)

106036 @ 으.(으.)

106036 #1 육지에서 ** 행사 때 신으렌 나오는 신이 그거 아니우꽈? 그거 절아가면서 그 깍 내는 거.(육지에서 ** 행사 때 신으라고 나오는 신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결어가면서 그 총 내는 거.)

106036 #2 게메, 그것이 붙깍신.(글세, 그것이 제총박이.)

106036 #1 그것이 붙깍신이주.(그것이 제총박이지.)

106036 #2 겐디 상제덜 신는 것도 붙깍신이 그 깍을 여라 개 안 부쪙은에 흔 멧 개 부쪙 허는 것이 붙깍신.(그런데 상제들 신는 것도 제총박이가 그 총을 여러 개 안 붙여서 한 몇 개 붙여서 하는 것이 제총박이.)

106036 @ 예, 경허난 이제 또 삼갑신이렌 허는 거고예? 아, 게난 옛날도 이제 초신 하나도 종류가 으라 개.(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삼갑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옛날도 이제 짚신 하나도 종류가 여러 개.)

106036 #2 으라 가지.(여러 가지.)

106036 @ 멘든 거라예? 게난 신발 초신이 고운 거는 깍을 곱게 내면은?(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신발 짚신이 고운 거는 총을 곱게 내면?)

106036 #1 예, 예, 예.(예, 예, 예.)

106036 @ 고급.(고급.)

106036 #1 깍도 곱게 나곡 절.(총도 곱게 나고 결.)

106036 @ 아까 쓰무 개 정도 들 정도면은.(아까 스무 개 정도 들 정도면.)

106036 #1 절기도 고양 접니다.(결기도 고이 겹니다.)

106036 @ 음. 게믄.(음. 그러면.)

106036 #2 저 막 놀 때도.(저 막 놀 때도.)

106036 #1 놀 때, 그거 놀레 뎅길 때 **.(놀 때, 그거 놀러 다닐 때 **.)

106036 #2 여름에 신는.(여름에 신는.)

106036 #1 옛날은 고무신 엇이난 그거 주로 그자 그걸 신엉 다니난에게.(옛날은 고무신 없으니까 그거 주로 그저 그걸 신어서 다니니까.)

106036 @ 음.(음.)
106036 #1 곱게 절앙 놧당 신주.(곱게 결어서 놨다가 신지.)

모자 등

106037 @ 삼춘, 아까 우리 모자도 봐신디, 모자 종류는 어떤 모자덜이 잇어나수가? 옛날에.(삼촌, 아까 우리 모자도 봤는데, 모자 종류는 어떤 모자들이 있었었습니까? 옛날에.)
106037 #2 옛날 모ᄌᆞ 무시거 모자 종류가 무신 베랑 잇어?(옛날 모자 무엇 모자 종류가 무슨 별로 있어?)
106037 #1 옛날은 밀집페렝이렌 헌 건 자기대로 절앙 쓰는 거고.(옛날은 밀짚모자라고 한 건 자기대로 결어서 쓰는 거고.)
106037 @ 음.(음.)
106037 #1 여긴 옛날도 밀을 좀 많이 갈아십주.(여긴 옛날도 밀을 좀 많이 갈았습지요.)
106037 @ 음.(음.)
106037 #1 밀허곡 저 맥주맥 그 피는 꼭대기 짤랑 그걸로 접니다.(밀하고 저 맥주보리 그 피는 꼭대기 잘라서 그걸로 겹니다.)
106037 #2 예를 들면 이런 거주게. 모자엔 헌 거.(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모자라고 한 거.)
106037 #1 우리도 그걸.(우리도 그걸.)
106037 @ 예.(예.)
106037 #1 그걸 절안에.(그걸 결어서.)
106037 @ 으.(으.)
106037 #1 이거 모줄 이녁냥으로 만들안 써십주.(이거 모잘 이녁대로 만들어서 썼습지요.)
106037 @ 예.(예.)
106037 #2 이런 걸 우리가 만들안 써나신디.(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썼었는데.)
106037 @ 으.(으.)
106037 #1 자기대로 만들안.(자기대로 만들어서.)
106037 #2 이젠 이디 만드는 사름도 ᄒᆞ나도 엇곡 허젠도 아녀고. ᄀᆞ슴도 엇곡.(이젠 여기 만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려고도 않고. 감도 없고.)
106037 #1 만들젠 헷자 재료도 엇어.(만들려고 했자 재료도 없어.)
106037 #2 ᄀᆞ슴도 없고 허난. 뭐 ᄑᆞ는 거 이런 거.(감도 없고 하니까. 뭐 파는 거 이런 거.)
106037 @ 그건 이름 뭐렌 헷수가?(그건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106037 #1 페렝이.(패랭이.)

106037 #2 이거 밀집페렝이.(이거 밀짚패랭이.)
106037 #1 밀집페렝이.(밀짚패랭이.)
106037 @ 밀집페렝이. 으 밀집페렝이 이제 하고.(밀짚패랭이. 으 밀짚패랭이 이제 하고.)
106037 #2 밀집페렝이.(밀짚패랭이.)
106037 @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일헐 때 쓰는 거고. 아까 삿갓도 헷대메?(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일할 때 쓰는 거고. 아까 삿갓도 했다며?)
106037 #1 삿갓은 일헐 때.(삿갓은 일할 때.)
106037 #2 삿갓은 대로.(삿갓은 대로.)
106037 #1 여자덜. 대나무로 만든 거.(여자들. 대나무로 만든 거.)
106037 #2 대로 멘든 거.(대로 만든 거.)
106037 @ 아, 이 동네도 대로 만든 삿갓 저는 사름 잇어난마씨?(아, 이 동네도 대로 만든 삿갓 겯는 사람 있었었어요?)
106037 #1 아, 잇어낫주.(아, 있었었지.)
106037 #2 아, 잇어낫어.(아, 있었었어.)
106037 @ 으.(으.)
106037 #2 잇어, 잇어낫주.(있어, 있었었지.)
106037 #1 문택이 문택이 아방.(문택이, 문택이 아버지.)
106037 #2 삿갓 곱게 절아낫어.(삿갓 곱게 결었었어.)
106037 #1 이 절아난디 삿갓도 두 가지 종류라이.(이 결었었는데 삿갓도 두 가지 종류야.)
106037 @ 예.(예.)
106037 #1 서대삿갓 싯고 일반 삿갓이 잇는디.(세대삿갓 있고 일반 삿갓이 있는데.)
106037 #2 하르방 곱게 줄멍 헤난디.(할아버지 곱게 결으면서 했었는데.)
106037 #1 이 대나무를 까끄면은.(이 대나무를 깎으면.)
106037 @ 으.(으.)
106037 #1 이, 이거를 두 개로 까까내여이.(이, 이거를 두 개로 깎아내어.)
106037 @ 예.(예.)
106037 #1 그러면 이 껍데기 부찐 거는 껍데기 부찐 삿갓은.(그러면 이 껍데기 붙인 거는 껍데기 붙인 삿갓은.)
106037 #2 서대.(세대.)
106037 #1 서대삿갓이엔 허곡.(세대삿갓이라고 하고.)
106037 @ 음.(음.)
106037 #1 요 쏙베설[273]로만 전 거는 삿갓이엔만 허는디.(요 속대로만 겯 거는 삿갓이라고만 하는데.)

273) 여기에서 '쏙베설'은 속대를 말한다.

106037 @ 예.(예.)
106037 #1 이게 요거 두 개 깝을 줘야 사.(이게 요거 두 개 값을 줘야 사.)
106037 @ 아, 서대삿갓은?(아, 세대삿갓은?)
106037 #1 서대삿갓은.(세대삿갓은.)
106037 #2 서대삿갓은 막 비싸곡.(세대삿갓은 매우 비싸고.)
106037 #1 질기기도 허주게. 오래 가기도 헤여.(질기기도 하지. 오래 가기도 해.)
106037 @ 예, 삿갓도 이제 두 가지 잇는 거고? 그 다음.(예, 삿갓도 이제 두 가지 있는 거고? 그 다음.)
106037 #1 삿갓도 보켄 어디 강 아져당 베와주커라.(삿갓도 보겠다고 어디 가서 가져다가 보여주겠어.)
106037 @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106037 #1 크진 아녀도 어디 마직헌 거 잇인 디가 잇어.(크진 않아도 어디 맞춤한 거 있는 데가 있어.)
106037 @ 예, 사진 다 찍엉 놔둬야지 이제.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남자들이 그 두루마기 입고 여기 유생들도 하낫지 않우꽈?(예, 사진 다 찍어서 놔둬야지 이제.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남자들이 그 두루마기 입고 여기 유생들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106037 #1 무시거?(무엇?)
106037 @ 유생들, 여기.(유생들, 여기.)
106037 #1 기생, 기생?(기생, 기생?)
106037 @ 유생, 유생.(유생, 유생.)
106037 #2 유생, 유생 저 저 이 저 향교?(유생, 유생 저 저 이 저 향교?)
106037 #1 아아.(아아.)
106037 @ 그런 사름덜 쓰는 모자들은 어떤 모자 써?(그런 사람들 쓰는 모자들은 어떤 모자 써?)
106037 #1 거 유건.(거 유건.)
106037 @ 유건.(유건.)
106037 #2 두건.(두건.)
106037 #1 두건 비스름헌 건디.(두건 비슷한 건데.)
106037 @ 음.(음.)
106037 #1 이디 저 꼭데기가 흔 멧 개 뒈여.(여기 저 꼭대기가 한 몇 개 되어.)
106037 @ 음.(음.)
106037 #1 두건은 ᄒᆞ난디.(두건은 하난데.)
106037 @ 예.(예.)
106037 #1 그 유건은 멧 개 뒈여.(그 유건은 몇 개 되어.)
106037 #2 앞두, 앞두이로 뒌 거.(앞뒤, 앞뒤로 된 거.)
106037 @ 아, 유건도 잇고. 여기는 갓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엇엇수가?(아, 유

건도 있고. 여기는 갓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었습니까?)

106037 #1 갓 쓴 사름덜은.(갓 쓴 사람들은.)

106037 #2 갓 무사 옛날은 써낫주게.(갓 왜 옛날은 썼었지.)

106037 #1 잘사는 사람들은 좀 쓰긴 썻주마는 베랑.(잘사는 사람들은 좀 쓰긴 썼지만 별로.)

106037 @ 쓰긴 허고예?(쓰긴 하고요?)

106037 #2 갓 쓴 양반덜.(갓 쓴 양반들.)

106037 #1 갓 쓰멍 사는 사름이 멧 사름 엇어낫어.(갓 쓰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었어.)

106039 @ 예, 겨울 모자는 어떤 걸 썻수가?(예, 겨울 모자는 어떤 걸 썼습니까?)

106039 #2 겨울 모자는 무시거게, 저런 나까오리[274]도 쓰곡 저런 모자도 쓰곡 무신.(겨울 모자는 무엇, 저런 중절모도 쓰고 저런 모자도 쓰고 무슨.)

106039 @ 어.(어.)

106039 #2 지금 모ᄌᆞ덜 잘 썸서?(지금 모자들 잘 쓰고 있어?)

106039 @ 옛날 그 화전 헌 사름덜 이제 노리 사냥 가거나 헐 때 모자 쓰는 거는?(옛날 그 화전 한 사람들 이제 노루 사냥 가거나 할 때 모자 쓰는 거는?)

106039 #1 그거는 가죽감티고.(그거는 가죽감투고.)

106039 #2 가죽감티.(가죽감투.)

106039 #1 가죽으로 만들어.(가죽으로 만들어.)

106039 @ 아.(아.)

106039 #1 개가죽이든 노리가죽이든 헤서 껍데기 벳겨당 물령 놧당 그걸로 모ᄌᆞ 만들엉 써. 이 저 사냥 다니는 사름덜.(개가죽이든 노루가죽이든 해서 껍데기 벗겨다가 말려서 놨다가 그걸로 모자 만들어서 써. 이 저 사냥 다니는 사람들.)

106039 @ 음, 아까 벙것 같은 거는 그런 여기 뭐 쉐털이나 이런 걸로는 모자 안 만들엇수가?(음, 아까 벙거지 같은 거는 그런 여기 뭐 소털이나 이런 걸로는 모자 안 만들었습니까?)

106039 #1 그건 아니.(그건 아니.)

106039 @ 그건 안 봐보고예?(그건 안 봐보고요?)

106039 #1 이 가죽, 가죽옷도 잇어.(이 가죽, 가죽옷도 있어.)

106039 @ 으.(으.)

106039 #1 이 겨울에 사냥 다니는 사름덜은 가죽옷 헨에 만들언 입언 뎅겨낫주.(이 겨울에 사냥 다니는 사람들은 가죽옷 해서 만들어서 입어서 다녔었지.)

106040 @ 예. 그다음에 여기도 양태도 줄아신가마씨? 양태.(예. 그다음에 여기도 양태도 결었는가요? 양태.)

106040 #1 무신거?(무엇?)

---

274) '나까오리'는 일본어 '나까오리(なかおり, 중간에서 접는)'에서 온 말로, '중절모'에 대응하는 뜻으로 쓰인다.

106040 @ 양태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양태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까?)
106040 #1 양태?(양태?)
106040 @ 예.(예.)
106040 #2 건 뭐허는 건데?(건 뭐하는 건데?)
106040 @2 갓.(갓.)
106040 @ 갓에 이렇게 뒈는 거.(갓에 이렇게 되는 거.)
106040 @2 똥글락헌 거마씨.(동그란 거요.)
106040 @ 갓 여기서는 즈는 건 없지예? 아 엇고. 탕건이나 망건 ᄀᆞ튼 건?(갓 여기서는 곁는 건 없지요? 아 없고. 탕건이나 망건 같은 건?)
106040 #1 탕근도 저 김녕[275]서 헷주, 여기선?(탕건도 저 김녕에서 했지, 여기선?)
106040 @ 예.(예.)
106040 #2 탕근 망건도 이.(탕건 망건도 이.)
106040 #1 김녕서.(김녕에서.)
106040 #2 우리 고단에선 안 짜보고.(우리 지경에선 안 짜보고.)
106040 #1 김녕서 헷수다. 시방도 그디 기능보유자가 잇일 건디.(김녕에서 했습니다. 시방도 그디 기능보유자가 있을 건데.)
106040 @ 예, 김녕 아니고 저 조천 쪽에.(예, 김녕 아니고 저 조천 쪽에.)
106040 #2 조천[276] 쪽에.(조천 쪽에.)
106040 @ 예, 예, 화북[277]이나 이런 데.(예, 예, 화북이나 이런 데.)
106040 #1 전읜 김녕에서 헷는디.(전에는 김녕에서 했는데.)
106044 @ 아, 김녕도 헷구나. 그다음에예 삼춘, 여기는 그 비 올 때 그 삼춘도 이제 밧듸 가거나 이제 ᄆᆞᆯ 부리고 헐 때 비 올 때.(아, 김녕도 했구나. 그다음에요 삼촌, 여기는 그 비 올 때 그 삼촌도 이제 밭에 가거나 이제 말 부리고 할 때 비 올 때.)
106044 #2 우장.(도롱이.)
106044 #1 우장.(도롱이.)
106044 @ 으, 우장. 우장도 직접 짜 봅디가?(으, 도롱이. 도롱이도 직접 짜 봅디까?)
106044 #1 우리도 헐 중을 알주.(우리도 할 줄을 알지.)
106044 @ 헐 중은 알고 입어보기도 허고.(할 줄은 알고 입어보기도 하고.)
106044 #1 아, 우리.(아, 우리.)
106044 #2 ᄆᆞ쉬 ᄀᆞ꿀 땐 죽장 썻주.(마소 가꿀 땐 늘 썼지.)
106044 #1 쭉장 입엇주. 우리 흔 열다섯 뒈난 ᄆᆞ쉬 ᄀᆞ꾸레만 뎅겨신디. 뭐 국민학교 졸업허난에 ᄆᆞ쉬 ᄀᆞ꾸레만 뎅이곡. 밤읜 밧듸 ᄆᆞ쉬 들여근에 직허민 바령[278]

275)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276) '조천'은 제주시 조천면 조천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277) '화북'은 제주시 화북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직험이엔 허영 밧듸 담에염에 그거 써근에 즘자곡 그렇게 혜연에 살아신디.(늘 입었지. 우리 한 열다섯 되니까 마소 가꾸러만 다녔는데. 뭐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마소 가꾸러만 다니고. 밤엔 밭에 마소 들여서 지키면 '바령' 지킴이라고 해서 밭에 담가에 그거 써서 잠자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106044 @ 바령허는 것도 지키고.('바령하는' 것도 지키고.)

106044 #1 으.(으.)

106044 @ 으.(으.)

106044 #1 밤의 즘자당 하르버지허곡 바령 직허레 가면 꼭 ᄒᆞ루 ᄌᆞ냑 세 번을 일려.(밤에 잠자다가 할아버지하고 '바령' 지키러 가면 꼭 하루 저녁 세 번을 일으켜.)

106044 @ 으.(으.)

106044 #2 일어낭 쉐 즘자는 거 일려, 일려 세우렌. 일려 세와야 똥을 싸지 쉐는 ᄒᆞᆫ 번 누민은 안 일려 세우민 붉도록 똥을 안 싸.(일어나서 소 잠자는 거 일으켜, 일으켜 세우라고. 일으켜 세워야 똥을 싸지 소는 한 번 누면 안 일으켜 세우면 밝도록 똥을 안 싸.)

106044 @ 아.(아.)

106044 @2 아.(아.)

106044 #1 일려 세와야 똥도 싸곡 오줌도 싸지. 게민 일령 세왕 이레 저* 이레 저레 몰렌 허영은에 이레도 몰앗닥 저레도 몰앗닥 ᄒᆞ루 ᄌᆞ냑 꼭 세 번은 허주.(일으켜 세워야 똥도 싸고 오줌도 싸지. 그러면 일으켜 세워서 이리 저* 이리 저리 몰라고 해서 이리도 몰았다가 저리도 몰았다가 하루 저녁 꼭 세 번은 하지.)

106044 @ 예. 게난 그런 식으로 헐 때. 그 저기 우장도 긴 거 잇고 쫄른 거 잇고 영 헙니까?(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 저기 도롱이도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이렇게 합니까?)

106044 #1 으으, 건 그건 뭐, 용도에 따랑 줄게.(으으, 건 그건 뭐, 용도에 따라서 잘게.)

106044 #2 크게 줄민 큰 우장 족게 줄민 족은 우장.(크게 결면 큰 도롱이 적게 결면 작은 도롱이.)

106044 #1 거의 저 우장은 거의 이 무릅 밑으로 내려오게.(거의 저 도롱이는 거의 이 무릎 밑으로 내려오게.)

106044 @ 예.(예.)

106044 #2 크게 짱.(크게 짜서.)

106044 @ 걸 이름이 ᄐᆞ나진 않고.(걸 이름이 다르진 않고.)

10604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44 @ 아, 안 하고예. 게믄 우장 허게 뒈면 우장 우에는 뭘 써? 머리에.(아, 안 하고요. 그러면 도롱이 하게 되면 우장 위에는 뭘 써? 머리에.)

278) '바령'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나 말이 똥이나 오줌을 누는 것'을 말한다.

106044 #1 우에는 밀집페렝이벳기 더 쓸 게 잇어? 여기는.(위에는 밀짚패랭이밖에 더 쓸 게 있어? 여기는.)

106044 @ 아, 여기에서는?(아, 여기에서는?)

106044 #1 벙것이 엇이난. 벙것 잇는 사름은 벙것 쓰는 게 좋은디.(벙거지가 없으니까. 벙거지 있는 사람은 벙거지 쓰는 게 좋은데.)

106044 @ 예.(예.)

106044 #1 밀찝페렝이 쓰주게.(밀짚패랭이 쓰지.)

106044 @ 아.(아.)

106044 #1 경허영 이 비옷은 쓰, 입으민 습기도 차곡 물도 수머들지마는 우장은 쓰민은 우장은 쓰민은 온종일 살아도 습기도 안 차곡 옷도 안 젖어.(그렇게 해서 이 비옷은 쓰, 입으면 습기도 차고 물도 스며들지만 도롱이는 쓰면 도롱이는 쓰면 온종일 살아도 습기도 안 차고 옷도 안 젖어.)

106044 @ 아, 그 자락.(아, 그 정도.)

106044 #2 새로 영 짜진 거난 새로 영 더퍼진 거난 물 들지 안 헐 거지게.(띠로 이렇게 짜진 거니까 띠로 이렇게 덮어진 거니까 물이 들지 않을 거지.)

106044 @ 으.(으.)

106044 #2 새 곱게 다듬아근에 그걸로 짠 거난에.(띠 곱게 다듬어서 그걸로 짠 거니까.)

106044 @ 음.(음.)

106044 #2 물 들어 갈 리가 엇주.(물이 들어 갈 리가 없지.)

106044 @ 예, 알앗수다. 잠깐만 이제 우리 여자 삼춘 쉬쿠다예.(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이제 우리 여자 삼촌 쉬겠습니다.)

106044 #2 예.(예.)

6.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예전에예, 그 식생활, 게니까 밥들, 여기 밥 종류는 성읍에서는 어떤 밥덜 헹 먹어신고예?(예전에요, 그 식생활, 게니까 밥들, 여기 밥 종류는 성읍에서는 어떤 밥들 해서 먹었는가요?)

107001 #3 옛날에?(옛날에?)

107001 @ 옛날이영 지금이영.(옛날이랑 지금이랑.)

107001 #3 옛날에야 보리밥 여름은 나민 보리밥이고 그 가을은 들민 조팝이고 무신 경허영 먹엉 살앗주, 무신. 벨다른 쏠밥 먹엉 살아졋수과게? 어렵게 사난.(옛날에야 보리밥 여름은 되면 보리밥이고 그 가을은 들면 조밥이고 무슨 그렇게 해서 먹어서 살았지, 무슨. 별다른 쌀밥 먹어서 살아졌습니까? 어렵게 사니까.)

107001 @ 예.(예.)
107001 #3 고구마, 감저[279].(고구마, 고구마.)
107001 @ 으.(으.)
107001 #3 요즘은 고구마라도 그땐 감저라양.(요즘은 고구마라도 그땐 '감저'예요.)
107001 @ 예.(예.)
107001 #3 감저 파당 썰어놓곡.(고구마 파다가 썰어넣고.)
107001 @ 예.(예.)
107001 #3 좁썰 놓곡.(좁쌀 넣고.)
107001 @ 예.(예.)
107001 #3 그렇게 헤서 밥을 저먹고.(그렇게 헤서 밥을 지어먹고.)
107001 @ 으.(으.)
107001 #3 울타리 가근에 ᄂᆞ물 뜯어당은 뭰장 풀어놩 국 끌영 경허멍 살앗주, 무신. 고기반찬도 잘 못 먹엇수다.(울타리 가서 배추 뜯어다가 된장 풀어놔서 국 끓여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무슨. 고기반찬도 잘 못 먹었습니다.)
107001 @ 예, 고기반찬도 잘 못 먹고예?(예, 고기반찬도 잘 못 먹고요?)
107001 #3 잘 못 먹엇수다. 고기반찬 이젠 싯수과?(잘 못 먹었습니다. 고기반찬 이젠 있습니까?)
107001 @ 아, 게난 예전에 주로 먹엇던 게 보리밥.(아, 그러니까 예전에 주로 먹었던 게 보리밥.)
107001 #3 예.(예.)
107001 @ 조팝?(조밥?)
107001 #3 예.(예.)
107001 @ 예, 다른 그거 말고는 밥 먹는 거는?(예, 다른 그거 말고는 밥 먹는 거는?)
107001 #3 그거 말고는 밥 종류는.(그거 말고는 밥 종류는.)
107001 #1 피, 피쏠.(피, 핍쌀.)
107001 #3 엿날에 웨정 때 우리 어린 때는 뭐 ᄑᆞ레밥도 먹고.(옛날에 왜정 때 우리 어릴 때는 뭐 파래밥도 먹고.)
107001 #1 피쏠 잇엇어. 피쏠.(핍쌀 있었어. 핍쌀.)
107001 @ 피쏠.(핍쌀.)
107001 #3 피쏠도 먹. 그건 막 고급이야.(핍쌀도 먹. 그건 아주 고급이야.)
107001 #1 ᄀᆞ랑좁썰[280]이렌 헌 거 잇고.('ᄀᆞ랑좁썰'이라고 한 거 있고.)
107001 @ ᄀᆞ랑좁썰밥도 잇고.('ᄀᆞ랑좁썰밥'도 있고.)
107001 #3 ᄀᆞ랑좁썰에 무거리피쏠[281]은 그것은 완전 고급이고양.('ᄀᆞ랑좁썰'에

279) 여기에서 '감저'는 고구마를 일컫는 말이다.
280) 'ᄀᆞ랑좁쏠'은 쌀알이 자잘한 좁쌀을 말한다.
281) '무거리피쏠'은 핍쌀 가운데 쌀알이 굵은 핍쌀을 말한다.

‘무거리피쏠’은 그것은 완전 고급이고요.)

107001 @ 예.(예.)

107001 #3 옛날 숭년에 완전 숭년에는 ᄑᆞ레밥. ᄑᆞ레 알아집니까?(옛날 흉년에 완전 흉년에는 파래밥. 파래 알아집니까?)

107001 @ 예.(예.)

107001 #3 ᄑᆞ레밥[282].(‘파래밥’.)

107001 @ 예.(예.)

107001 #3 ᄑᆞ레밥 헤다가 ᄑᆞ레도 저 성산[283] 강 그거 바우로 강 그거 걷어당 막 발레근에 헤영케 발래영 막 썰어놩 보릿ᄀᆞ르 무쳐가지고 보리쏠 놩 바글바글 퀘민 우티레 놔근에 이젠 뿔리믄 틈제와가지고 젓엉 먹어나수다게.(‘파래밥’ 해다가 파래도 저 성산 가서 그거 가장자리로 가서 그거 걷어다가 막 발래서 하얗게 발래서 막 썰어놔서 보릿가루 묻혀가지고 보리살 넣어서 바글바글 끓으면 위로 놔서 이젠 잦히면 뜸들여가지고 저어서 먹었었습니다.)

107001 @ 아아, 여기서도 성읍에서도?(아아, 여기서도 성읍에서도?)

107001 #3 우리 난산리[284]서 경헨 먹고.(우리 난산리에서 그렇게 해서 먹고.)

107001 @ 아, 난산리서, 예.(아, 난산리서, 예.)

107001 #3 성읍리 오란은 그건 안 먹어보고.(성읍리 와서는 그건 안 먹어보고.)

107001 @ 예.(예.)

107001 #3 성읍린 역안 오난 해방 뒌 후제 역안 씨집을 오난게.(성읍린 커서 오니까 해방 된 후에 커서 시집을 오니까.)

107001 @ 예, 예, 예.(예, 예, 예.)

107001 #3 해방 전의 그런 고셍을 헤영 살앗어.(해방 전에 그런 고생을 해서 살았어.)

107001 @ 예.(예.)

107001 #3 콩입 밧듸 강 콩입 뜯어당 저 울타리에도 콩도 안 싱거. 밧듸 강 콩입 뜯어당 썰어놩 또 그것도 보리쏠에 놩 썰어놩 밥헤 먹고 옛날에.(콩잎 밭에 가서 콩잎 뜯어다가 저 울타리에도 콩도 안 심어. 밭에 가서 콩잎 뜯어다가 썰어놔서 또 그것도 보리쌀에 놔서 썰어놔서 밥해 먹고 옛날에.)

107001 @2 아, 콩입을 썰어놩마씨?(아, 콩잎을 썰어놔서요?)

107001 #3 예.(예.)

107001 @ 아.(아.)

107001 #3 얼마나 어렵게 살앗수가? 워낙 베고프민 바다에 가서 ᄀᆞ메기.(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워낙 배고프면 바다에 가서 개울타리고둥.)

107001 @ 으.

107001 #3 ᄀᆞ메기 아녀우꽈?(개울타리고둥 있지 않습니까?)

---

282) ‘ᄑᆞ레밥’은 보리쌀 등에 파래를 넣고 지은 밥이다.
283)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성산리 바닷가’를 가리키고 있다.
284) ‘난산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를 말한다.

107001 @ 예.(예.)

107001 #3 ᄀᆞ메기 잡아당 쏢아가지고 그거 열아 먹고 물 먹으민 또 베도 차고.(개울타리고둥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그거 열어 먹고 물 먹으면 또 배도 차고.)

107001 @ 아.(아.)

107001 #3 옛날에 우리 물릇. 물릇 알아집니까?(옛날에 우리 무릇. 무릇 알아집니까?)

107001 @ 예.(예.)

107001 #3 물릇 밧듸 강 물릇 줏어다근에 그거 이제 ᄆᆞᆫ 다듬앙.(무릇 밭에 가서 무릇 주어다가 그거 이제 몽땅 다듬어서.)

107001 @ 음.(음.)

107001 #3 물에 강 발로 밀멍 시쳐당 바다에 강 페라고 잇수다. 페.(물에 가서 발로 밀면 씻어다가 바다에 가서 패라고 있습니다. 패.)

107001 @ 예.(예.)

107001 #3 페 메여다가 그거에 뿔앙 거기서 뿔앙 오랑 더펑 그거 놩 물릇 궝 그것도 먹곡.(패 매다가 그거에 빨아서 거기서 빨아서 와서 덮어서 그거 넣어서 무릇 구워서 그것도 먹고.)

107001 @ 음.(음.)

107001 #3 걸로 이제 그 보리 보깡 개역 헤근에 버무렁도 먹고.(걸로 이제 그 보리 볶아서 미숫가루 해서 버무려서도 먹고.)

107001 @ 아.(아.)

107001 #3 아이고, 옛날 살아난 거 말도 못허여. 경허난 해방을 뒐 거 아니우과?(아이고, 옛날 살았던 거 말도 못해. 그렇게 하니까 해방을 될 거 아닙니까?)

107001 @ 예.(예.)

107001 #3 해방을 뒈난 좀 살아질 건가 허단 보난 그만 ᄉᆞ삼ᄉᆞ건이 왕창 일엇수게.(해방을 되니까 좀 살아질 건가 하다 보니까 그만 사삼사건이 왕창 일었습니다.)

107001 @ 예.(예.)

107001 #3 독립 만세 불러놘에 막 ᄉᆞ삼을 일어놓난 우리 곱안만 살앗수다게.(독립 만세 불러놔서 막 사삼을 일어놓으니까 우리 숨어서만 살았습니다.)

107001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잡담)

107003 @ 경허영 이제 허고.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허영 허는 거우과?(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107003 #3 보리밥은양.(보리밥은요.)

107003 @ 예.(예.)

107003 #3 보리를 저기 저 밧듸 보리 갈지 아녕니까?(보리를 저기 저 밭에 보리 갈지 않습니까?)

107003 @ 예.(예.)

107003 #3 그것 강 호미로 비여다가, 무꺼당.(그것 가서 낫으로 베어다가, 묶어다가.)

107003 @ 예.(예.)

107003 #3 탈곡기로 털어가지고 그건 물류와. 물뱅이 뭐 엿날에는 기계도 엇엇어양.(탈곡기로 떨어가지고 그건 말려. 연자매 뭐 옛날에는 기계도 없었어요.)

107003 @ 예.(예.)

107003 #3 물뱅이에서.(연자매에서.)

107003 @ 예.(예.)

107003 #3 물뱅이에서 그거 새벽이 일어낭 가근에 어머니가 일어낭 강 소 몰렌 허민 가근 물뱅이에 소를 메와.(연자매에서 그거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어머니가 일어나서 가서 소 몰라고 하면 가서 연자매에서 소를 메워.)

107003 @ 예.(예.)

107003 #3 소 메우민 소를 뗑기곡 몰곡 사공질 허곡 경허영 글아단 벳듸 널엉 물류왕 따시 이젠 그거 이제 다까가지고 또 강 물뱅이에 강 다까다가 또 ᄀᆞ레 이영 맞ᄀᆞ레[285]로 검펴가지고.(소 메우면 소를 당기고 몰고 '사공짓' 하고 그렇게 해서 갈아다가 볕에 널어서 말려서 다시 이젠 그거 이제 깎아가지고 또 가서 연자매에 가서 깎아다가 또 맷돌 이 이렇게 '맞ᄀᆞ레'로 거피해가지고.)

107003 @ 예.(예.)

107003 #3 체로 쳥. 쌀은 삶앙 보리밥으로 헤먹고. ᄉᆞ레기는 또 좀ᄊᆞ레기라고 그건 죽도 쒕 먹고. 또 ᄀᆞ를은 아까 말헌 물릇 ᄀᆞ르 물릇 국물에 ᄀᆞ르 타 먹엇어양. 경 허멍 살앗수다, 우린 느량.(체로 쳐서. 쌀은 삶아서 보리밥으로 해먹고. 싸라기는 또 '좀ᄊᆞ레기'라고 그건 죽도 쒀서 먹고. 또 가루는 아까 말한 무릇 가루 무릇 국물에 가루 타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린 늘.)

107003 @ 예, 게난 그 보리밥 허는 그 순서를 흔번 골아줍서? 보리밥 옛날에는 한 번에 끗나지 안 허영 중간에 뜸도, 예, 뜸도?(예, 그러니까 그 보리밥 하는 그 순서를 한번 말해주십시오? 보리밥 옛날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안 해서 중간에 뜸도, 예, 뜸도?)

107003 #3 예. 보리밥을 바글바글 궬 거 아니우과? 나 아까 ᄀᆞᆫ듯.(예. 보리밥을 바글바글 끓을 거 아닙니까? 나 아까 말하듯.)

107003 @ 예.(예.)

107003 #3 바글바글 궤면은 막 그것이 뭴 거 아니우과? 게민 그때는 이 초식을 놩 먹을랴고 허면은 뭐 ᄑᆞ렐 놓던가 콩입을 놓던가 무, 무 무말렝이를 놓던가 경허민 거기 놩 뜸 들면은 뜸들이면은게 좀 풀어집니다게.(바글바글 끓으면 아주 그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초식을 넣어서 먹으려고 하면 뭐 파래를 넣든가 콩잎을 넣든가 무, 무 무말랭이를 넣든가 그렇게 하면 거기 넣어서 뜸 들면 뜸 들

285) '맞ᄀᆞ레'는 두 명 이상이 마주 앉아서 함께 돌려서 가는 맷돌을 말한다.

이면 좀 풀어집니다.)

107003 @ 예.(예.)

107003 #3 그걸 젓어가지고 퍼 놔근에 그자 먹는 거.(그걸 저어가지고 떠 놔서 그저 먹는 거.)

107003 @ 예, 거기에 보리밥에 무물렝이도 놧어예?(예, 거기에 보리밥에 무말랭이도 놨지요?)

107003 #3 무물렝이도 놩 먹곡 그 보리쏠은 아무 것에라도 다 어울립니다.(무말랭이도 넣어서 먹고 그 보리쌀은 아무 것에라도 다 어울립니다.)

107003 @ 아.(아.)

107003 #3 건 웨정시대에 옛날에 경 헹 살앗수다. 옛날에.(건 왜정시대에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107003 @ 예, 옛날에예, 그 보리밥에 무물렝이 논 밥을 무신 밥이렌 골아?(예, 옛날에요, 그 보리밥에 무말랭이 넣은 밥을 무슨 밥이라고 말해?)

107003 #3 것도 보리밥입주게. 보리밥.(것도 보리밥입지요. 보리밥.)

107003 @ 것도 보리밥, 예.(것도 보리밥, 예.)

107003 #3 보리밥.(보리밥.)

107004 @ 그다음에 여기 삼춘 반지기밥이렌도.(그다음에 여기 삼촌 '반지기밥'이라고도.)

107004 #3 반지기밥[286]은 곤쏠 보리쏠 반.('반지기밥'은 흰쌀 보리쌀 반.)

107004 @ 예.(예.)

107004 #3 곤쏠 반 놓민 반지기밥.(흰쌀 반 넣으면 '반지기밥'.)

107004 @ 예에.(예에.)

107004 #3 또 피쏠에도 또 보리쏠에 피쏠 서꺼도 그것도 막 양반덜 먹는 고급 밥이라양.(또 핍쌀에도 또 보리쌀에 핍쌀 섞어도 그것도 아주 양반들 먹는 고급 밥이어요.)

107004 @ 예.(예.)

107004 #3 밧을 불릴라고 허면은 뭐 농ᄉᆞ철에 테우리[287] 빌엉 밧 불리젠 허민은 테우리 나시 곤밥을 헤야 뒙주.(밭을 밟으려고 하면 뭐 농사철에 '테우리' 빌려서 밭 밟으려고 하면 '테우리' 몫 흰밥을 해야 됩지요.)

107004 @ 예.(예.)

107004 #3 건 곤밥. 곤쏠만 놩 허는 거. (웃음). 또 이녁 먹는 거 또 이제 기냥 그 뭇밥을 허영 먹읍니다게.(건 흰밥. 흰쌀만 넣어서 하는 거. (웃음). 또 이녁 먹는 거 또 이제 그냥 그 무밥을 해서 먹습니다.)

107004 @ 예.(예.)

107004 #3 경허곡 또 반찬은 뭐 테우리 밥은 뭐 허느냐 허민 고기 ᄒᆞ나 구워아

286)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넣어서 짓거나, 보리쌀에 좁쌀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287) '테우리'는 말을 전문적으로 많이 키우는 사람을 말한다.

지곡 계란 멧 개 지져아지곡 계란이 젤 고급 반찬이랏수다.(그렇게 하고 또 반찬은 뭐 '테우리' 밥은 뭐 하느냐 하면 고기 하나 구워가지고 계란 몇 개 지져가지고 계란이 젤 고급 반찬이었습니다.)

107004 @ 예.(예.)

107004 #3 계란 멧 개 지져아지곡 이제 저 국 끌여아지곡 메역 놩 국 끓여아지곡 헤근에.(계란 몇 개 지져가지고 이제 저 국 끓여가지고 미역 넣어서 국 끓여가지고 해서.)

107004 @ 예.(예.)

107004 #3 건 테우리 밥을 헤가고.(건 '테우리' 밥을 해가고.)

107004 @ 예.(예.)

107004 #3 그디 가민 테우리만 드리주 우린 다 ᄀᆞ찌 못 먹어양. ᄯᅳ로 헤영 강 우리는 식구덜은 영 영 먹고. 경허멍 살앗수다.(거기 가면 '테우리'만 드리지 우린 다 같이 못 먹어요. 따로 해서 가서 우리는 식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7010 @ 아까 뭇밥은 무신거우꽈?(아까 무밥은 무엇입니까?)

107010 #3 무밥은게 서끈 밥. 보리쏠에.(무밥은 섞은 밥. 보리쌀에.)

107010 #1 무 썰어놩 허민 뭇밥이주.(무 썰어넣어서 하면 무밥이지.)

107010 #3 이걸 놓나 저걸 놓나 허영 헤근에 영 황당허게 헹 먹는 거고. 테우리 밥은 막 대접으로 그건 경 허는 거.(이걸 넣으나 저걸 넣으나 해서 해서 이렇게 황당하게 해서 먹는 거고. '테우리' 밥은 아주 대접으로 그건 그렇게 하는 거.)

107010 @ 아, 게난 무우 썰어 놓든 다른 거 썰어놔도 뭇밥이렌 헤마씨?(아, 그러니까 무 썰어 넣든 다른 거 썰어 놔도 무밥이라고 해요?)

107010 #3 예게, 아니.(예, 아니.)

107010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10 @ 무수 썰어 놓은 것만?(무 썰어 넣은 것만?)

107010 #3 무수 썰어 놓은 거는 무수 논 밥이고.(무 썰어 넣은 거는 무 넣은 밥이고.)

107010 @ 예.(예.)

107010 #3 ᄑᆞ레 논 건 ᄑᆞ레 논 밥이고.(파래 넣은 건 파래 넣은 밥이고.)

10701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10 #3 또.(또.)

107010 #1 고구마 놓민 고구마밥이고.(고구마 넣으면 '고구마밥'이고.)

107010 #3 고구마 놓민은 감저밥[288]이고.(고구마 넣으면 '고구마밥'이고.)

107010 @ 예.(예.)

107010 #3 고구마가 아니고 감저.(고구마가 아니고 '감저'.)

107010 @ 예.(예.)

288) '감저밥'은 쌀에 고구마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감저'는 표준어 '고구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7010 #3 감저밥이고 경 헹 먹엉 살아수다게.(고구마밥이고 그렇게 해서 먹어서 살았습니다요.)

107005 @ 예. 그다음에 곤밥 헷덴 헷잖아예?(예. 그다음에 흰밥 했다고 했잖아요?)

107005 #3 곤밥은 곤쏠만 놩 허는 거.(흰밥은 흰쌀만 넣어서 하는 거.)

107005 @ 그 곤쏠은 어떤 쏠을 곤쏠로?(그 흰쌀은 어떤 쌀을 흰쌀로?)

107005 #3 산듸쏠.(밭벼쌀.)

107005 @ 산듸쏠.(밭벼쌀.)

107005 #3 여기는 논나룩은 엇으난에 저딘 목장에 가근에 그 강답에 가는 산듸 헤근에 골아오민은 그거를 다깡 놧당 막 귀헌 쏠로 제ᄉᆞ 때에나 그런 밧 빌어근에 놉 저 밧 볼릴 테우리 밥이나 그런 것벳긘 소님이나 오나.(여기는 논벼는 없으니까 저긴 목장에 가서 그 강답에 가는 밭벼 해서 갈아오면 그거를 깎아서 놨다가 아주 귀한 쌀로 제사 때에나 그런 밭 빌려서 놉 저 밭 밟을 '테우리' 밥이나 그런 것밖에는 손님이나 오나.)

107005 @ 예.(예.)

107005 #3 경헤사 그런 쏠을 아져 뎅이주 아무상엇이 곤쏠은 못 아져 뎅겻수다게.(그렇게 해야 그런 쌀을 가져 다니지 아무 일 없이 흰쌀은 못 가져 다녔습니다.)

107005 @ 삼춘, 아까 그 무거리렌도 헷어예? 피쏠.(삼촌, 아까 그 '무거리'라고 했어요? 핍쌀.)

107005 #3 무거리피쏠[289].('무거리피쏠')

107005 @ 으, 무거리피쏠은 무신거우꽈?(으, '무거리피쏠'은 무엇입니까?)

107005 #3 피라고양?(피라고요?)

107005 @ 예.(예.)

107005 #3 저 조도 아니 피도 아니 그 잇수다. 피 알걸.(저 조도 아니 피도 아니 그 있습니다. 피 알걸.)

107005 @ 예.(예.)

107005 #3 육지도 그 논에 보민 피가 이십니다게.(육지도 그 논에 보면 피가 있습니다.)

107005 @ 예.(예.)

107005 #3 그것을 헤서 밧듸 막 갑니다. 갈앗당 비여당 장만허영 그거 ᄆᆞᆯ리왕.(그것을 해서 밭에 막 갑니다. 갈았다가 베어다가 장만해서 그거 말려서.)

107005 @ 예.(예.)

107005 #3 테작허영 ᄆᆞᆯ류와근에 ᄆᆞᆯ방에 강 졍 골앗다 골앗다 허민 막 골으멍 이건 치멍.(타작해서 말려서 연자매 가서 찧어서 갈았다 갈았다 하면 막 갈면서 이건 치면서.)

107005 @ 음.(음.)

289) '무거리피쏠'은 핍쌀 가운데 쌀알이 굵은 쌀을 말한다.

107005 #3 체로 치멍.(체로 치면서.)
107005 @ 예.(예.)
107005 #3 ᄉᆞ레기 치곡 개역[290] 치곡 문딱 허당 보민 젤 우의 것가 무거리피쏠.(싸라기 치고 '개역' 치고 몽땅 하다가 보면 젤 위의 것이 '무거리피쏠'.)
107005 @ 음, 무거리피쏠?(음, '무거리피쏠'?)
107005 #3 또 그 우의 그 아래 거는 중간 쏠은 또 헌 거. 그 아랜 ᄉᆞ레기.(또 그 위에 그 아래 거는 중간 쌀은 또 한 거. 그 아랜 싸라기.)
107005 @ 예.(예.)
107005 #3 ᄉᆞ레긴 죽 쒕 먹곡.(싸라긴 죽 쒀서 먹고.)
107005 @ 게믄 중간에 쏠은 뭐렌 헤여?(그러면 중간에 쌀은 뭐라고 해?)
107005 #3 그것도 그자 건 피쏠.(그것도 그저 건 핍쌀.)
107005 @ 피쏠.(핍쌀.)
107005 #3 무거리피쏠 아니고 피쏠 그자.('무거리피쏠' 아니고 핍쌀 그저.)
107005 @ 예, 위에 거는?(예, 위에 거는?)
107005 #3 무거리피쏠.('무거리피쏠'.)
107005 @ 아시피쏠엔 말은?('아시피쏠'이란 말은?)
107005 #3 아시피쏠은 없고.('아시피쏠'은 없고.)
107005 @ 아, 없고예?(아, 없고요?)
107005 #3 아시 성은 엇고.(아우 형은 없고.)
107005 @ 아시 성은 엇고.(아우 형은 없고.)
107005 #3 ᄉᆞ레기. (웃음).(싸라기. (웃음).)
107005 @ 웃음. 예. ᄉᆞ레기허고.(웃음. 예. 싸라기하고.)
107005 #3 ᄉᆞ레기는 좀진 거는 ᄉᆞ레기라고 허고양 건 죽 쒕 먹곡, 중간 쏠은 보통 밥헤 먹고.(싸라기는 자잘한 거는 싸라기라고 하고요 건 죽 쒀서 먹고, 중간 쌀은 보통 밥해 먹고.)
107005 @ 예, 젤 좋은 거는 무거리고.(예, 젤 좋은 거는 '무거리'고.)
107005 #3 젤 존 거는 무거리쏠. 소님이나 올 때에 그거 놓고 ᄆᆞ물썰 우틔레 ᄆᆞ멀 메밀 알지양.(젤 좋은 거는 '무거리쏠'. 손님이나 올 때에 그거 넣고 메밀쌀 위로 메밀 메밀 알지요.)
107005 @ 예, 예.(예, 예.)
107005 #3 ᄆᆞ물쏠 놩 밥을 허민 그렇게 맛이 좁니다게. 경 허영 소님 대접허곡 경.(메밀쌀 넣어서 밥을 하면 그렇게 맛이 좁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 대접하고 그렇게.)
107005 @ 아, 모물쏠에 허고 무거리허고 ᄀᆞ치 놩 밥을 허는 거라예?(아, 메밀쌀에 하고 '무거리'하고 같이 넣어서 밥을 하는 거라고요?)
107005 #3 예.(예.)

290) '개역'은 미숫가루를 의미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핍쌀을 찧는 과정에서 나온 쌀가루를 말한다.

107005 @ 아아.(아아.)

107005 #3 경허민 그게 고급 밥이라.(그렇게 하면 그게 고급 밥이야.)

107005 @ 예. 게믄 삼춘 여기서 픗밥들도 헹 먹지 안 허우까?(예. 그러면 삼촌 여기서 팥밥들도 해서 먹지 안 합니까?)

107005 #3 픗밥은 그건 헹 먹주마는 거 아무상엇이 못 먹엇주. 것도 잔치나 허젠 허면은.(팥밥은 그건 해서 먹지만 거 아무 일 없이 못 먹었지. 것도 잔치나 하려고 하면.)

107005 #1 잔치나 영장 때.(잔치나 장사 때.)

107005 #3 보리쏠에 놩 픗에 놩 숢아가지고.(보리쌀에 넣어서 팥에 넣어서 삶아가지고.)

107005 @ 예.(예.)

107005 #3 보리쏠 반 쏠 반 놩 밥을 허면은 그것이 픗밥이라.(보리쌀 반 쌀 반 넣어서 밥을 하면 그것이 팥밥이야.)

107005 @ 아.(아.)

107005 #3 영장 때에나 잔치 때에나.(장사 때에나 잔치 때에나.)

107005 @ 잔치 때나예. 예. 그다음에 그 아까 피밥 허는 거는 무거리쏠 피밥만 아니면은 다른 피밥도 헤마씨?(잔치 때나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피밥 하는 거는 '무거리쏠' 피밥만 아니면 다른 피밥도 해요?)

107005 #3 다른 피밥은게 그냥 그 일반 피밥으로 헤근에.(다른 피밥은 그냥 그 일반 피밥으로 해서.)

107005 @ 예.(예.)

107005 #3 보리쏠에도 서껑 먹곡 그냥 또 ᄆᆞᆯ쏠도 서껑 먹곡 경헤낫수다게.(보리쌀에도 섞어서 먹고 그냥 또 메밀쌀도 섞어서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05 @ 아, 피쏠로만은 밥을 안 헤마씨?(아, 핍쌀로만은 밥을 안 해요?)

107005 #3 피쏠로만 밥을 허민 맛이 좀 덜어.(핍쌀로만 밥을 하면 맛이 좀 덜어.)

107005 @ 예.(예.)

107005 #3 건 ᄒᆞ꼼 고급시럽게 살아갈 때.(건 조금 고급스럽게 살아갈 때.)

107005 @ 예, 예.(예, 예.)

107005 #3 아주 어려울 땐 풀국[291]을 끌영 살아난디 쪼끔쪼끔 쪼끔쪼끔 올라와가단보난 ᄉᆞ삼이 탁 일어분 거라양.(아주 어려울 땐 풀국을 끓여서 살았었는데 조금조금 조금조금 올라와가다가 보니까 사삼이 탁 일어버린 거예요.)

107005 @ 음.(음.)

107005 #3 웃음. ᄉᆞ삼 일언 살단 보난 육이오 터져불고.(웃음. 사삼 일어서 살다가 보니까 육이오 터져버리고.)

107005 @ 맞아.(맞아.)

291) '풀국'은 푸성귀에 가루를 섞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107005 #3 경허단 보난에 영 뒛수다게.(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07009 @ 예, 그다음에 삼춘, 아까 이제 감저밥 헌덴 헷잖아예?(예, 그다음에 삼촌, 아까 이제 고구마밥 한다고 했잖아요?)

107009 #2 예.(예.)

107009 @ 감저밥은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고구마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107009 #3 감저밥은 어떵? 감저 썰어 놩.(고구마밥은 어떻게? 고구마 썰어 넣어서.)

107009 @ 으.(으.)

107009 #3 그냥 솟듸 놩 막 숢주기게.(그냥 솥에 넣어서 막 삶지.)

107009 @ 2 뭐에 놉니까?(뭐에 놉니까?)

107009 #1 보리쏠에 놩.(보리쌀에 넣어서.)

107009 #3 보리쏠에 놩 숢다가 이제 그 보리쏠 좁쏠 엇인 때엔 보리쏠에만 감저 놩 숢당 보면은 감저도 흐랑허게 익고 보리쏠도 익으민 뜸 들민은 젓으민은 감저밥인가 범벅밥인가 그자 경 먹언 살앗수다. 웃음.(보리쌀에 넣어서 삶다가 이제 그 보리쌀 좁쌀 없을 때엔 보리쌀에만 고구마 넣어서 삶다가 보면 고구마도 물렁하게 익고 보리쌀도 익으면 뜸 들면 저으면 고구마밥인가 '범벅밥'인가 그저 그렇게 먹어서 살았습니다. 웃음.)

107009 @ 음, 게난 좁쏠에도 ᄀᆞ치 놩 헤마씨?(음, 그러니ᄁᆞ 좁쌀에도 같이 넣어서 해요?)

107009 #3 좁쏠에도 ᄀᆞ치 놩 허민양 그건 또 ᄆᆞ믈느젱이라고 ᄆᆞ믈 ᄀᆞᆯ아나민 ᄀᆞ르가 잇입니다게.(좁쌀에도 같이 넣어서 하면요 그건 또 메밀나깨라고 메밀 갈아나면 가루가 있습니다.)

107009 @ 예.(예.)

107009 #3 그거 좀 서끄민은 좀 좀 그게 낫은 거.(그거 좀 섞으면 좀 좀 그게 나은 거.)

107011 @ 어, 그게 낫은 거예, 예? 그다음에 여기 아까 혹시 톨밥도 먹어난?(어, 그게 나은 거요, 예? 그다음에 여기 아까 혹시 '톳밥'도 먹었었요?)

107011 #3 톨밥[292]도 헤낫수다.('톳밥'도 했었습니다.)

107011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 톨?(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톳?)

107011 #3 톨밥도 바당에 강 톨 옛날은 지금은 톨이 막 귀헌 거라도 그때는 흔헌 건 톨이라. 메역은 금허곡 톨은 안 금허곡 무때로[293] 톨 비여당 숢앙. 걸로 막 그냥 반찬도 헤 먹고 밥도 헤 먹고 지붕에 놩 발레민양 하영헙니다게.('톳밥'도 바다에 가서 톳 옛날은 지금은 톳이 아주 귀한 거라도 그때는 흔한 건 톳이야. 미역은 금하고 톳은 안 금하고 '무때로' 톳 베어다가 삶아서. 걸로 막 그냥 반찬도 해

292) '톨밥'은 톳을 넣어 지은 밥을 말한다.
293) '무때로'는 아무 때나 의미로 쓰였다.

먹고 밥도 해 먹고 지붕에 놔서 바래면요 하얍니다.)

107011 @ 아, 톨도 발렙니까?(아, 톳도 바랩니까?)

107011 #3 예, 예. 발레민 헤영허곡. 그냥 물리왓다가 이제 물에 줄라근에[294] 그거를 뻘겅헌 물 울려와비뒁 그걸 보리쏠에 놩 밥을 허민 바로 풋밥 뒈여, 이건 벌겅허여.(예, 예. 바래면 하얗고. 그냥 말렸다가 이제 물에 '줄라근에' 그거를 뻘건 물 우려내어버려서 그걸 보리쌀에 넣어서 밥을 하면 바로 팥밥 되어, 이건 벌개.)

107011 @ 아.(아.)

107011 #3 풋밥이나 마찬가지. 뭉클뭉클 톨밥이 제일 먹긴 좁니다.(팥밥이나 마찬가지. 뭉클뭉클 '톳밥'이 제일 먹긴 좋읍니다.)

107011 @ 아.(아.)

107011 #3 우리 많이 먹어봔.(우리 많이 먹어봤어.)

107011 @ 아, 많이 먹어봔마씨?(아, 많이 먹어봤어요?)

107011 #3 많이 먹어봔. 걸로 크난.(많이 먹어봤어. 걸로 크니까.)

107011 @ 음, 게민 그 바당에서 발린 거는 하양헌 거?(음, 그러면 그 바다에서 바랜 거는 하얀 거?)

107011 #3 바당에서 발린 ** 집의서 발렌 거.(바다에서 바랜 ** 집에서 바랜 거.)

107011 @ 집의서 집에서 허영헌 거를 그대로.(집에서 집에서 허연 거를 그대로.)

107011 #3 아니 밥에 허는 건 안 발렙니다. 그냥 물리왓당 물에 둥강 그냥 먹는 거.(아니 밥에 하는 건 안 바랩니다. 그냥 말렸다가 물에 담가서 그냥 먹는 거.)

107011 @ 발렌 건 어떤 식으로 먹어?(바랜 건 어떤 식으로 먹어?)

107011 #3 발렌 건 그냥 쌩으로 먹어.(바랜 건 그냥 생으로 먹어.)

107011 @ 음.(음.)

107011 #3 달래 잇지 아녀우과? 달래.(달래 있지 않습니까? 달래.)

107011 @ 예.(예.)

107011 #3 봄 나민 달래 강 캐당 요거 헤영 뱅뱅 감앙 뒌장에 먹엉 경 맛십니다.(봄 되면 달래 가서 캐다가 요거 해서 뱅뱅 감아서 된장에 먹어서 그렇게 맛있습니다.)

107011 @ 음. 여기서 달래를 뭐렌 헤수가? 이 동네는?(음. 여기서 달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네는?)

107011 #3 아니 옛날은.(아니 옛날은.)

107011 #1 풀마농.('풀마농'.)

107011 #3 풀마농.('풀마농'.)

107011 @ 풀마농?(달래?)

107011 #3 우리 아이 땐 커 가민 커올 때 일이 그거난. 친구덜이 오라, 마농[295]

294) 여기에서 '줄라근에'는 물에 오래 담가두었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캐레 가게.(우리 아이 땐 커 가면 커올 때 일이 그거니까. 친구들이 오라, 달래 캐러 가게.)

107011 @ 으, 마농.(으, 달래.)

107011 #3 오라 마농 캐레 허영 마농 캐레 가곡. 오라 고사리 꺼끄레 가게 헤영 고사리 꺼끄레 가곡.(오라 달래 캐러 해서 달래 캐러 가고. 오라 고사리 꺾으러 가게 해서 고사리 꺾으러 가고.)

107011 @ 음.(음.)

107011 #3 경허멍 살앗수게.(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107011 @ 그냥 풀마농. 꿩마농도 안 허고?(그냥 '풀마농'. '꿩마농'도 안 하고?)

107011 #3 꿩마농은 건 막 큰 거보고 꿩마농이엔 허주. 그자 보통은 풀마농이랏수다.('꿩마농'은 건 아주 큰 거보고 '꿩마농'이라고 하지. 그저 보통은 '풀마농'이었습니다.)

107011 @ 풀마농이라고예?('풀마농'이라고요?)

107011 #1 풀마농은 줄주.('풀마농'은 잘지.)

107011 @ 줄아예? 어, 게난 이 제주도가 널러마씨.(잘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넓어요.)

107011 #1 널러.(넓어.)

107011 @ 이 달래를 풀마농이렌 헌 말은 처음 들엇수다. 여기서.(이 달래를 '풀마농'이라고 한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107011 #3 처음 들엄수게양.(처음 듣고 있지요.)

107011 @ 예.(예.)

107011 #3 나난 알앙 골암주, 다른 사름덜은.(나니까 알아서 말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107011 @ 웃음.(웃음.)

107011 #1 꿩마농엔 허는 사름도 잇주.('꿩마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107011 #3 꿩마농은 건 요새사 난 꿩마농이주, 옛날엔 풀마농.('꿩마농'은 건 요새야 나서 '꿩마농'이지, 옛날엔 '풀마농'.)

107011 @ 예. 풀마농.(예. '풀마농'.)

107011 #2 경 헹 마농 캐레 강 보민 막 큰 게 잇어.(그렇게 해서 달래 캐러 가서 보면 아주 큰 게 있어.)

107011 @ 예.(예.)

107011 #3 막 술지고 이만큼 술진 거 잇이민 아이고야 저기 꿩마농 잇저야, 저거 나가 캣켜 허영 막 뛰여강 캐곡.(아주 살지고 이만큼 살진 거 있으민 아이고야 저기 '꿩마농' 있어야, 저거 내가 캐겠다 해서 막 뛰어가서 캐고.)

107011 @ 큰 거는 꿩마농이렌 허고 젠젠헌 거는 풀마농이렌 허고?(큰 거는 '꿩

295) '마농'은 마늘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는 달래를 '마농' 또는 '풀마농'이라고 하였다. 알이 큰 달래는 달리 '꿩마농'이라고 하였다.

마농'이라고 하고 자잘한 거는 '풀마농'이라고 하고?)

107011 #3 경 헤낫수다.(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12 @ 그다음에 삼춘, 아까 페엔 헨게마는 페밥도 헤낫수가?(그다음에 삼촌, 아까 패라고 하더니만 '패밥'도 했었습니까?)

107012 #3 페밥[296]은 아니 헤보고. 페에는 물릇 굴 때.('패밥'은 아니 해보고. 패에는 무릇 구울 때.)

107012 @ 으, 물릇 굴 때만예?(으, 무릇 구울 때만요?)

107012 #3 물릇 굴 때 페를 그거 물릇 우의 페를 더퍼.(무릇 구울 때 패를 그거 무릇 위에 패를 덮어.)

107012 @ 으.(으.)

107012 #3 영 구민 그 페가 익으민 물릇이 반은 익은 거.(이렇게 구우면 그 패가 익으면 무릇이 반은 익은 거.)

107012 @ 으.(으.)

107012 #3 이거 혼 번 걷어베뒁 또 놩 또 쌩펠[297] 놔근에 다 익으면은 이거 물릇 완전 궈진 거.(이거 한 번 걷어두고 또 넣어서 또 '날패'를 넣어서 다 익으면 이거 무릇 완전 구워진 거.)

107012 @ 으.(으.)

107012 #3 물릇은 탁허게 구워지곡 페도 맛잇고 물릇도 맛잇고, 국물은 이렇게 국물엔 보릿ᄀᆞ르 타근에 먹으면은 옛날에 애기가 심읏이 궂이면은 더운 국물 혼 사발도 못 얻어먹넨 헤낫수다.(무릇은 탁하게 구워지고 패도 맛있고 무릇도 맛있고, 국물은 이렇게 국물엔 보릿가루 타서 먹으면 옛날에 아기가 심술이 궂이면 더운 국물 한 사발도 못 얻어먹는다고 했었습니다.)

107012 @ 으.(으.)

107012 #3 이 국물도 경 귀헤낫수다.(이 국물도 그렇게 귀했었습니다.)

107012 @ 아.(아.)

107012 #3 애기 심읏궂으민 아이고 야인 느네 어멍 더운 뭇 국물도 못 얻엉 먹으키여 경헤낫수다.(아기 심술궂으면 아이고 얘는 너의 어머니 더운 무릇 국물도 못 얻어서 먹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12 @ 애기 심읏궂으민양?(아기 심술궂으면요?)

107012 #3 경허멍 살안.(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7012 @ 게난 그 페, 물릇 구웡은에 먹을 때 이걸 잘 물 안 허민 막 목도 아픈덴 허멍예?(그러니까 그 패, 무릇 구워서 먹을 때 이걸 잘 물 안 하면 막 목도 아픈다고 하면서요?)

107012 #3 물을 많이 놔얍니께게.(물을 많이 놔야합니다.)

107012 @ 아.(아.)

---

296) '페밥'은 패에 쌀을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297) '쌩펠'은 '생패를'의 의미다. 여기에서 '생패(生-)'는 익히지 않은 날 패를 말한다.

107012 #3 건 알아맞촹 궈야 뒈는 거.(건 알아맞혀서 구워야 되는 거.)
107012 @ 음.(음.)
107012 #1 잘 굽지 아녀민 못 먹어.(잘 굽지 않으면 못 먹어.)
107012 #3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잘 헤낫수다.(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잘 했었습니다.)
107012 @ 아.(아.)
107012 #3 할마니가 고성 할마닌디 성산읍 고성 할마닌디 그런 걸 잘 헤여.(할머니가 고성 할머닌데 성산읍 고성 할머니인데 그런 걸 잘 해.)
107012 @ 으.(으.)
107012 #3 게민 난 그자 준비헤 오민 할머니는 집의서 그거허곡 경허멍 우리 먹으멍 살안. 난산리서.(그러면 난 그저 준비해 오면 할머니는 집에서 그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먹으면서 살았어. 난산리서.)
107012 @ 예, 예 예.(예, 예, 예.)
107012 #3 성읍린 오란 안 헤보고.(성읍린 와서는 안 해보고.)
107013 @ 예, 예, 예. 경허고 삼춘, 이제는 지금까지는 밥에 대헌 얘기헷어예? 이제 국은 어떤 것덜 헤영 먹어신고예?(예, 예, 예. 그러고 삼촌, 이제는 지금까지는 밥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제 국은 어떤 것들 해서 먹었는가요?)
107013 #3 국은게 아까 말곧듯이 뭐 베추에 뒌장국도 끓여 먹고, 여름은 나민 또 오이 봇다가 오이냉국도 헤 먹고.(국은 아까 말하듯이 뭐 배추에 된장국도 끓여 먹고, 여름은 되면 또 오이 봤다가 오이냉국도 해 먹고.)
107013 @ 으.(으.)
107013 #3 보통 그거라십주. 고기국은 경 쉽지 아녀난 또 만약에 고기나 헤영 제ᄉᆞ 때 허젠 허민 저 메역 잇인 땐 메역도 끌리곡.(보통 그거였습지요. 고깃국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또 만약에 고기나 해서 제사 때 하려고 하면 저 미역 있을 땐 미역도 끓이고.)
107013 @ 예.(예.)
107013 #3 없으면은 또 제ᄉᆞ 때에도 무 썰어 놔근에 고기에 무 놩 갱거리[298]라고 경 헹 헙니다.(없으면 또 제사 때에도 무 썰어 넣어서 고기에 무 넣어서 '갱거리'라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107014 @ 예. 게믄예, 베추 놩은에 끓인 국을 무슨 국 헷수가?(예. 그러면요, 배추 넣어서 끓인 국을 무슨 국 했습니까?)
107014 #3 뒌장게 베추ᄂᆞ물국게 뒌장쿡게.(된장 배춧국 된장국.)
107014 @ ᄂᆞᄆᆞᆯ국?(배춧국?)
107014 #3 예, ᄂᆞᄆᆞᆯ국. 뒌장ᄂᆞᄆᆞᆯ쿡.(예, 배춧국. 된장배춧국.)
107014 @ 뒌장ᄂᆞᄆᆞᆯ국예. 뒌장 놩 끌리난 그 뒌장ᄂᆞᄆᆞᆯ국은 어떤 식으로 끓연마씨?(된장배춧국요. 된장 넣어서 끓이니까 그 된장배춧국은 어떤 식으로 끓였어요?)

298) '갱거리'는 제사에 올리는 국을 끓일 재료를 뜻한다.

107014 #3 어떵 헙니까? 물 놔놩 뒌장 풀어놔근에 팔팔 끌이민 무지려노민 간단히 먹언 살앗주. 무지려노민 또 익으면은 그냥 거려놩 먹엇수게.(어떻게 합니까? 물 넣어놔서 된장 풀어놔서 팔팔 끓이면 무질어넣으면 간단히 먹어서 살았지. 무질러넣으면 또 익으면 그냥 떠놓아서 먹었습니다.)

107014 @ 음, 기냥 뒌장만 끌영은에.(음, 그냥 된장만 끓여서.)

107014 #3 예, 예.(예, 예.)

107014 @ ᄂᆞᆯ 익으믄?(배추 익으면?)

107014 #3 무신 다시달[299] 놀 거우꽈? 뭐 뭣을 놀 거우꽈? 싱거왕 그땐 소금도 잘, 기자 장이나 담주 아녕 딱 장으로만 간 맞촨 먹엉 살앗수다.(무슨 '다시다'를 넣을 겁니까? 뭐 뭣을 넣을 겁니까? 싱거워서 그땐 소금도 잘, 그저 장이나 담그지 않아서 딱 장으로만 간 맞춰서 먹어서 살았습니다.)

107014 @ 예, 다 장으로예. 게난?(예, 다 장으로요. 그러니까?)

107014 #3 딴 거 안 뭐 안 헤영 장으로만 간 맞춰도 경 맛이 서.(딴 거 안 뭐 안 해서 장으로만 간 맞춰도 그렇게 맛이 있어.)

107015 @ 예전에 콩ᄂᆞ물을 여기서 뭐렌 헷수가?(예전에 콩나물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107015 #3 콩ᄂᆞ물 무신거 콩주름이주.(콩나물 무엇 콩기름이지.)

107015 @ 콩주름?(콩기름?)

107015 #3 콩주름.(콩기름.)

107015 @ 콩주름으로도 국 헷수가?(콩기름으로도 국 했습니까?)

107015 #3 예.(예.)

107015 @ 아, 건 어떵 끌여?(아, 건 어떻게 끓여?)

107015 #3 그것도 메역에 콩지름 놩 끌리민 그 맛이 좋아. 건 저 뒌장에는 벨로 맛엇읍네다. 게난 물장 놩.(그것도 미역에 콩기름 넣어서 끓이면 그 맛이 좋아. 건저 된장에는 별로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장 넣어서.)

107015 @ 물장 놩?(간장 넣어서?)

107015 #3 예, 콩ᄂᆞ물 놓곡 메역 놓곡 허영 끌이민 그건 소님이나 올 때 경헹 끓이주.(예, 콩나물 넣고 미역 넣고 해서 끓이면 그건 손님이나 올 때 그렇게 해서 끓이지.)

107015 @ 예, 예.(예, 예.)

107015 #3 아무상없이 것도 못 먹음니까?(아무 일 없이 것도 못 먹습니까?)

107015 @ 그건 무신 국 헙니까?(그건 무슨 국 합니까?)

107015 #3 콩ᄂᆞ물국이주.(콩나물국이지.)

107015 @ 아, 콩ᄂᆞ물국. 콩주름국. 게믄 콩주름허고 메역을 ᄀᆞ치 놩 국을 끌리는 거라예, 물장 놩 아.(아, 콩나물국. 콩기름국. 그러면 콩기름하고 미역을 같이 넣어서 국을 끓이는 거네요, 간장 넣어서 아.)

---

299) '다시달'은 '다시다를'의 준말이다. 여기에서 '다시다'는 향미증진제라는 의미로, ○○○ 회사의 상표명이다.

107015 #3 콩지름만 놩은 국이 잘 안 뒙니다게. 메역을 서꺼야 맛이 나.(콩기름만 넣어서는 국이 잘 안 됩니다. 미역을 섞어야 맛이 나.)

107015 @ 아아.(아아.)

107015 #3 소님이나 온 때 경 끌리주. 무신 무테로 먹는 거 기자 아까와ᄀᆞ찌 뒌장에 ᄂᆞ물 풀어놩 끌이는 거.(손님이나 올 때 그렇게 끓이지. 무슨 아무 때나 먹는 거 그저 아까같이 된장에 배추 풀어놔서 끓이는 거.)

107016 @ 으음. 콩주름하고 메역 놩예? 그다음에는 놈삐로도 국허고?(으음. 콩기름하고 미역 넣어서요? 그다음에는 무로도 국하고?)

107016 #3 놈삐로도, 놈삐는게 저 뒌장 풀어놩 놈삐국 끌리주.(무로도, 무는 저 된장 풀어 넣어서 뭇국 끓이지.)

107016 @ 음, 거는 놈삐도 헤영예. 게난 놈삐도 삼춘, 이 뿌리에 잇는 거하고 썹허고 ᄐᆞ나잖읍니까?(음, 거는 무도 해서요. 그러니까 무도 삼촌, 이 뿌리에 있는 거하고 잎하고 다르잖습니까?)

107016 #3 예.(예.)

107016 @ 건 어떤 식으로?(건 어떤 식으로?)

107016 #3 그건 놈삐만 먹구정허민 놈삐만 썰어놓곡 뿌리 쪼끔 영 솔진 부분 썰어놓고 경 아녀민은 또 놈삐만 놩 저 입사귄 쏢아.(그건 무만 먹고자하면 무만 썰어 넣고 뿌리 조금 이렇게 살진 부분 썰어 넣고 그렇게 않으면 또 무만 넣어서 저 이파리는 삶아.)

107016 @ 음.(음.)

107016 #3 뒌장에.(된장에.)

107016 @ 음.(음.)

107016 #3 ᄌᆞ촤 먹고 채소로.(찍어 먹고 채소로.)

107016 @ 뒌장에 ᄌᆞ촹 먹는 거라예? 게믄 그 입사귀 부분을 여기서는 뭐렌 불럿수가?(된장에 찍어서 먹는 거네요? 그러면 그 잎파리 부분을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107016 #3 썹젱이.(이파리.)

107016 @ 썹젱이. 춤ᄂᆞ물은 뭐우꽈?(이파리. '춤ᄂᆞ물'은 뭡니까?)

107016 #3 춤ᄂᆞ물 썹젱이.(무 이파리.)

107016 #1 춤ᄂᆞ물이 그거라.(무 이파리가 그거야.)

107016 @ 아.(아.)

107016 #1 무수.(무.)

107016 #3 춤ᄂᆞ물. 춤ᄂᆞ물, 아이구야 저 춤ᄂᆞ물 썹젱이 놔근에 솖앙 먹게.(무 이파리. 무 이파리, 아이구야 저 무 이파리 넣어서 삶아서 먹자.)

107016 @ 아, 춤ᄂᆞ물 썹젱이.(아, 무 이파리.)

107016 #3 웃음. 옛날은 완전 엿날 사투리우다 옛날 사투리.(웃음. 옛날은 완전 옛날 사투리입니다 옛날 사투리.)

107016 @ 예.(예.)

107016 #3 요새 그런 말 곧는 사름 어디 잇수과?(요새 그런 말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7016 @ 게믄 춤ᄂᆞ물은 뿌리 들기 전에 춤ᄂᆞ물이옌 헙니까? 아니면은 우에 거 뿌리 잇어도?(그러면 '춤ᄂᆞ물'은 뿌리 들기 전에 '춤ᄂᆞ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위에 거 뿌리 있어도?)

107016 #3 놈삐는 하여튼 무수는 춤ᄂᆞ물이주게.(무는 하여튼 무는 '춤ᄂᆞ물'이지.)

107016 @ 예에.(예에.)

107016 #3 요새 산에 무신 춤ᄂᆞ물 잇넨 헤도 여기 보통 쓰는 건 그자 무수가 춤ᄂᆞ물.(요새 산에 무슨 참나물 있다고 해도 여기 보통 쓰는 건 그저 무가 '춤ᄂᆞ물'.)

107016 @ 예.(예.)

107016 #3 놈삐 춤ᄂᆞ물 그자.('놈삐' '춤ᄂᆞ물' 그저.)

107016 @ 춤ᄂᆞ물예. 예, 알앗수다. 콩국은?(무요. 예, 알았습니다. 콩국은?)

107017 #3 콩ᄆᆞ르 맞ᄆᆞ레[300]에 골앙.(콩가루 '맞ᄆᆞ레'에 갈아서.)

107017 @ 음.(음.)

107017 #3 맞ᄆᆞ레에 골아근에 그걸 밋밋 곱니다게. 골민 ᄆᆞ르가 나오주. 게민 체로 쳐. 치민 그 껍질, 껍질은 올라오라불곡 ᄆᆞ르만 나오민 그거 헤근에 그 ᄂᆞ물 놓고 무에 끌려도 좋고 베추에 끌려도 좋고 무우 이파리에 끌려도 좋고.('맞ᄆᆞ레'에 갈아서 그걸 밋밋 갑니다. 갈면 가루가 나오지. 그러면 체로 쳐. 치면 그 껍질, 껍질은 올라와버리고 가루만 나오면 그거 해서 그 배추 넣고 무에 끓여도 좋고 배추에 끓여도 좋고 무 이파리에 끓여도 좋고.)

107017 @ 으음.(으음.)

107017 #3 이 콩국은 아무 거에 끌려도 다 맞아, 양반이라. 아무 것에 끌려도 다 맞아.(이 콩국은 아무 거에 끓여도 다 맞아, 양반이야. 아무 것에 끓여도 다 맞아.)

107017 @ 콩은 양반? 아까 삼춘 말 곧던 중에 말ᄆᆞ르엔 헨게마는 그건 무슨 말마씨?(콩은 양반? 아까 삼촌 말 말하던 중에 '말ᄆᆞ르'라고 하더니만 그건 무슨 말이예요?)

107017 #3 말ᄆᆞ르?('말ᄆᆞ르'?)

107017 @ 으.(으.)

107017 #3 나 말ᄆᆞ르엔 안 헤신디.(내 '말ᄆᆞ르'라고 안 했는데.)

107017 @ ᄆᆞ레?(맷돌?)

107017 #3 맞ᄆᆞ레.('맞ᄆᆞ레'.)

107017 #1 ᄆᆞ레.(맷돌.)

107017 @ 말ᄆᆞ레[301].('말ᄆᆞ레'.)

---

300) '맞ᄆᆞ레'는 둘이 마주 앉아서 함께 돌려서 가는 맷돌이다.

107017 #1 ᄆᆞ레, ᄆᆞ레.(맷돌, 맷돌.)
107017 #3 정ᄆᆞ레. 이거.(풀맷돌. 이거.)
107017 #1 정ᄆᆞ레.(풀맷돌.)
107017 #3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ᄆᆞ라 맞ᄆᆞ레라고 허여. 맞ᄆᆞ레.(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보고 '맞ᄆᆞ레'라고 해. '맞ᄆᆞ레'.)
107017 #3 둘리 앚앙 ᄆᆞ니까. 두 사름이 앚앙 허니까.(둘이 앉아서 가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하니까.)
107017 @ 아아, 맞ᄆᆞ레?(아아, '맞ᄆᆞ레'?)
107017 #3 노래 불르멍.(노래 부르면서.)
107017 @ 예.(예.)
107017 #1 둘리가 앚앙 허니까게.(둘이가 앉아서 하니까.)
107017 #3 이디허고 나허고 노래 불르멍 ᄀᆞᆯ민은 이것이 맞ᄆᆞ레라.(여기하고 나하고 노래 부르면서 갈면 이것이 '맞ᄆᆞ레'야.)
107017 #1 둘리 두 사름도 허고 세 사름도 허주게.(둘이 두 사람도 하고 세 사람도 하지.)
107017 @ 예.(예.)
107017 #1 ᄆᆞ레.(맷돌.)
107017 @ 예에. 그걸 걸 말ᄆᆞ레[302]엔?(예에. 그걸 걸 '말ᄆᆞ레'라고?)
107017 #3 맞ᄆᆞ레, 맞ᄆᆞ레.('맞ᄆᆞ레', '맞ᄆᆞ레'.)
107017 @ 맞ᄆᆞ레예?('맞ᄆᆞ레'요?)
107017 #3 마주 앚앙 ᄆᆞ는 거 맞ᄆᆞ레.(마주 앉아서 가는 거 '맞ᄆᆞ레'.)
107017 @ 말ᄆᆞ레가 아니고 맞ᄆᆞ레.('말ᄆᆞ레'가 아니고 '맞ᄆᆞ레'.)
107017 #3 말ᄆᆞ레가 아니고 맞ᄆᆞ레.('말ᄆᆞ레'가 아니고 '맞ᄆᆞ레'.)
107017 @ 예, 맞ᄆᆞ레예. 아.(예, '맞ᄆᆞ레'요. 아.)
107017 #3 둘리가 허는 거.(둘이가 하는 거.)
107017 @ 둘이 허니까 맞ᄆᆞ레.(둘이 하니까 '맞ᄆᆞ레'.)
107017 #3 말도 이율 알아야 뒈는 거.(말도 이율 알아야 되는 거.)
107017 @ 예.(예.)
107017 #3 맞ᄆᆞ레. 말ᄆᆞ레와 맞ᄆᆞ렌 글자가 따르주게.('맞ᄆᆞ레'. '말ᄆᆞ레'와 '맞ᄆᆞ렌' 글자가 다르지.)
107017 @ 그러니까. 예, 예.(그러니까. 예, 예.)
107017 @2 웃음.(웃음.)
107017 @ 맞ᄆᆞ레. 마주 앚앙 허니까. 아, 건 혼자도 헐 수 잇는 거잖아예?('맞ᄆᆞ레'. 마주 앉아서 하니까. 아, 건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7017 #1 어, 혼자도 허여.(어, 혼자도 해.)

301) '말ᄆᆞ레'는 조사자가 '맞ᄆᆞ레'를 '말ᄆᆞ레'로 잘못 인식하여 대답한 말이다.
302) '말ᄆᆞ레'는 조사자가 '맞ᄆᆞ레'를 '말ᄆᆞ레'로 잘못 인식하여 대답한 말이다.

107017 #3 혼자도 허는디.(혼자도 하는데.)
107017 #1 무겁주.(무겁지.)
107017 #3 무거와.(무거워.)
107017 #1 무거와.(무거워.)
107017 #3 무거웁기 따문에 이것은 마주 ᄀᆞ는 거난 맞ᄀᆞ레.(무겁기 때문에 이것은 마주 가는 거니까 '맞ᄀᆞ레'.)
107017 @ 아.(아.)
107017 #1 보통 둘리 아니믄 서이주.(보통 둘이 아니면 셋이지.)
107017 @2 게난 그 ᄀᆞ렛ᄌᆞ룩이 쫌.(그러니까 그 맷손이 좀.)
107017 #1 길주게.(길지.)
107017 @2 길게 올라왓구나.(길게 올라왔구나.)
107017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7017 #1 요 정돈 허주게.(요 정돈 하지.)
107017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17 @ 예, 게난 그건.(예, 그러니까 그건.)
107017 #3 이거 노래 불르멍 ᄀᆞ를 막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좁니다.(이거 노래 부르면서 가루를 막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107017 @ 예, 삼춘 노래도 잘 불르지예?(예, 삼촌 노래도 잘 부르지요?)
107017 #3 노래 나 헐 중은 몰르주게. ᄀᆞ레놀렌 헤나도.(노래 내 할 줄은 모르지. 맷돌노래는 했어도.)
107017 @ 으, ᄀᆞ레놀레.(으, 맷돌노래.)
107017 #1 ᄀᆞ레놀레 말이주게.(맷돌노래 말이지.)
107017 @ 게난.(그러니까.)
107017 #3 ᄀᆞ레놀레 이제 헤지커라게, 나 **.(맷돌노래 이제 해지겠어, 나 **.)
107017 @ 영 젓엉은에.(이렇게 저어서.)
107017 #3 이거 어떵허여.(이거 어떡해.)
107017 @ 해봅서.(해보십시오.)
107017 #3 에, 못허켜. 웃음.(에, 못하겠어. 웃음.)
107017 @ 아, 게난 맞ᄀᆞ레 헤갖고 여기 그 여기 성읍축제헐 때 보난 꼭 둘리서 이렇게 허더라고예?(아, 그러니까 '맞ᄀᆞ레' 해갖고 여기 그 여기 성읍축제할 때 보니까 꼭 둘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107017 #3 저 삼반[303]에서 헐 때 이거 허주게. 이여 이여 이여동 ᄒᆞ라. 그거게.(저 삼반에서 할 때 이거 하지. 이여 이여 이여동 하라. 그거.)
107017 @ 삼춘 노래 잘 불르겠다, 목소리가.(삼촌 노래 잘 부르겠다, 목소리가.)
107017 #1 젊을 땐 잘헤낫주.(젊을 땐 잘했었지.)
107017 @ 기지예? 목소리가 딱 보난 튀엿네.(그렇지요? 목소리가 딱 보니까 트

303) '삼반'은 성읍리 주민을 반으로 나눴을 때 '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였네.)

107017 #3 아니, 나 이거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막 목청이 좋앙 이걸 잘헤낫 주게. 어머니광 이 방에 지는 것도.(아니, 나 이거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아주 목청이 좋아서 이걸 잘했었지. 어머니와 이 방아 찧는 것도.)

107017 @ 예.(예.)

107017 #3 이것도 막 저나고 이것도 헤나난 헐 중은 아는디 이젠 나이 들어불고 요새 몸 아프고 허지 못허난 거주 이거 친구만 잇엉 마주허민은 홀 수는 잇어.(이것도 막 찧었었고 이것도 했었으니까 할 줄은 아는데 이젠 나이 들어버리고 요새 몸 아프고 하지 못하니까 거지 이거 친구만 있어서 마주하면 할 수는 있어.)

107017 @ 음.(음.)

107017 #3 혼자는 못허컨게. 웃음.(혼자는 못하겠어. 웃음.)

107017 @ 아, 둘이 허는 거니까.(아, 둘이 하는 거니까.)

107017 #3 봉자 아방 ᄀᆞ레 아졍 오주, ᄀᆞ치 골으멍 소리 허게. 이 사름 소리 잘 허난.(봉자 아버지 맷돌 가져 오지, 같이 갈면서 소리 하게. 이 사람 소리 잘 하니까.)

107017 @ 아.(아.)

107017 #1 ᄀᆞ레가 시문 허주만은.(맷돌이 있으면 하지만.)

107018 @ 게난 그걸 맞ᄀᆞ레 허고예. 그다음에 삼춘, 어, 호박입국. 여름에 호박입국 하영 헹 먹읍디가?(그러니까 그걸 '맞ᄀᆞ레' 하고요. 그다음에 삼촌, 어, 호박잎국. 여름에 호박잎국 많이 해서 먹었습니까?)

107018 #1 가을.(가을.)

107018 #3 가을에. 지금.(가을에. 지금.)

107018 @ 아, 지금 헤먹는 거우과? 호박입국은?(아, 지금 해먹는 겁니까? 호박잎국은?)

107018 #1 지금, 지금이 맛잇어.(지금, 지금이 맛있어.)

107018 #3 지금이 젤 맛실 때.(지금이 젤 맛있을 때.)

107018 @ 아, 우리는 여름에나 허는 건줄.(아, 우리는 여름에나 하는 건줄.)

107018 #3 여름에는 맛이 없곡.(여름에는 맛이 없고.)

107018 #1 맛이 엇어.(맛이 없어.)

107018 @ 아, 호박입이.(아, 호박잎이.)

107018 #1 이 백로가 뒈야.(이 백로가 되어야.)

107018 @ 아.(아.)

107018 #3 가을 호박입이.(가을 호박잎이.)

107018 #1 가을 호박입이라고 헤서.(가을 호박잎이라고 해서.)

107018 #3 어떻게 맛 좋느냐 허믄.(어떻게 맛 좋으냐 하면.)

107018 #1 젤 알아주주게.(젤 알아주지.)

107018 #3 호박 가을 호박 종자 요만큼씩 묫아이.(호박 가을 호박 종자 요만큼

씩 맺어.)

107018 @ 예.(예.)

107018 #3 몾이면은 호박입도 잇고 요거를 ᄒᆞ나 똑 따다가 이것 벳겨놓고 깨끗이 시쳐두고 이것도 시쳐두고 허영 썰어놩 ᄀᆞ치 팔팔 끌영 익은 다음에 저 뭐 마늘이라도 좀 놓고.(맺으면 호박잎도 있고 요거를 하나 똑 따다가 이것 벗겨놓고 깨끗이 씻어두고 이것도 씻어두고 해서 썰어넣어서 같이 팔팔 끓여서 익은 다음에 저 뭐 마늘이라도 좀 넣고.)

107018 #1 가르.(가루.)

107018 #3 요즘은 막 그자 세상 양념 세상이주마는 옛날에는.(요즘은 아주 그저 세상 양념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107018 @ 예.(예.)

107018 #3 게도 마늘 ᄀᆞ뜬 거는 쪽파 ᄀᆞ튼 거는 좀 놘 먹엇어이. 그 ᄀᆞ르.(그래도 마늘 같은 거는 쪽파 같은 거는 좀 넣어서 먹었어. 그 가루.)

107018 @ 음.(음.)

107018 #3 엿날에는 밀ᄀᆞ르도 흔허지 아녓어. 메밀ᄀᆞ르. 메밀ᄀᆞ르 좀 서꺼민은 그렇게 맛잇어. 고기국보단 더 맛잇어.(옛날에는 밀가루도 흔하지 않았어. 메밀가루. 메밀가루 좀 섞으면 그렇게 맛있어. 고깃국보단 더 맛있어.)

107018 #1 맛잇어.(맛있어.)

107018 @ 으음.(으음.)

107018 @2 아, 나는 여름이면 많이 먹엇던 거 같은데.(아, 나는 여름이면 많이 먹었던 거 같은데.)

107018 #1 아니우다. 지금이라야.(아닙니다. 지금이어야.)

107018 #3 여름에는 호박입국 맛엇입니다. 여름에는 오이냉국. 웨냉국.(여름에는 호박잎국 맛없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냉국. 외냉국.)

107018 #1 맛엇입네다.(맛없습니다.)

107018 @ 아, 웨냉국 먹곡. 가을에는?(아, 외냉국 먹고. 가을에는?)

107018 #1 것도 철에 따랑 먹어야 맛잇주.(것도 철에 따라서 먹어야 맛있지.)

107018 #3 철에 따랑 먹는 거.(철에 따라서 먹는 거.)

107018 @2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18 @ 아니, 우리는 여름에 먹는 건줄 알아신디 아니구나.(아니, 우리는 여름에 먹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107018 #3 여름에 오이냉국.(여름에 오이냉국.)

107018 @ 여름에 오이냉국예?(여름에 오이냉국요?)

107018 @2 물웨냉국.(물외냉국.)

107018 #3 예.(예.)

107018 @ 어, 가을에 호박입국. 음.(어, 가을에 호박잎국. 음.)

107018 @2 게믄 호박입 쳥 먹는 것도 가을이다예?(그러면 호박잎 쪄서 먹는 것

도 가을이네요?)
107018 #1 예, 예.(예, 예.)
107018 #3 호박입도 지금 호박입 찌민 꿀거찌 맛십니다. 혼번 쪄 먹어봅서.(호박잎도 지금 호박잎 찌면 꿀같이 맛있습니다. 한번 쪄 먹어보십시오.)
107018 @2 지금 새지 아녀수가?(지금 쇠지 않았습니까?)
107018 #3 아니우다.(아닙니다.)
10701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18 #3 요즘 비오라나고 허난 맛 좋아.(요즘 비와 나고 하니까 맛 좋아.)
107018 @ 어디 강 호박입을 튿앙 가코? 웃음.(어디 가서 호박잎을 따서 갈까? 웃음.)
107018 #3 저 요디 가당 보민 동산집의 호박입 잇수다. 가당 ᄒᆞ쏠 튿앙 갑서.(저 요기 가다가 보면 동산집에 호박잎 있습니다. 가다가 조금 따서 가십시오.)
107018 @ 놈의 집 거 튿앙 가집니까?(남의 집 거 따서 가집니까?)
107018 #1 이 어른네 집.(이 어른네 집.)
107018 @ 아아, 기구나. 웃음. 아, 삼춘네 갈 땐 튿앙 가야켜, 진짜. 그다음에 삼춘, 그 여기는 몸쿡은 성읍은 안 허지예?(아아, 그렇구나. 웃음. 아, 삼촌네 갈 땐 따서 가야겠다, 진짜. 그다음에 삼촌, 그 여기는 모자반국은 성읍은 안 하지요?)
107019 #3 ᄆᆞ음국.(모자반국.)
107019 @ 으. 몰망.(으. 모자반.)
107019 #3 몰망쿡. 건 ᄆᆞ음국이라고 건 아무 때나 허는 거 아니. 잔치 때에.(모자반국. 건 'ᄆᆞ음국'이라고 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 잔치 때에.)
107019 #1 잔치 때.(잔치 때.)
107019 @ 아.(아.)
107019 #3 귀허주게.(귀하지.)
107019 #1 고기 솖아난 국물에.(고기 삶았던 국물에.)
107019 @ 예.(예.)
107019 #1 그것에 놩 끌리주.(그것에 넣어서 끓이지.)
107019 #3 귀허주게. ᄆᆞ음이 여기는 웃드르라부니까 헤변이 아니난.(귀하지. 모자반이 여기는 윗마을이니까 해변이 아니니까.)
107019 #1 장에 강 사와야.(장에 가서 사와야.)
107019 #3 요즘은 헤변도 저 무시거 허주마는. 그거는 잔치 때에. 잔치 때에 고기 솖아나민 그 고기 솖아난 국물에 그 ᄆᆞ음을 썰어놓고 무 썰어놓곡 허영 국을 끌이면은 그렇게 맛 좋곡. 가문, 가문 알지? 가문.(요즘은 해변도 저 무엇 하지만. 그거는 잔치 때에. 잔치 때에 고기 삶아나면 그 고기 삶았던 국물에 그 모자반을 썰어넣고 무 썰어넣고 해서 국을 끓이면 그렇게 맛 좋고. 가문, 가문 알지? 가문.)
107019 @ 예.(예.)
107019 #3 집안 가문잔칫날[304]. 전전윈, 요즘은 당일 잔치라도 삼일 잔칠 허주

게.(집안 '가문잔칫날'. 전전에는, 요즘은 당일 잔치여도 삼일 잔칠 하지.)

107019 @ 예.(예.)

107019 #3 가문잔칫날에는 그거 허영 국 끌영 먹곡 가문반[305]이라고 또 고기 숢아나민 무신거 끄트머리덜 무신거 조끔씩 허영 반도 허곡 경 헤영 살앗수다게.('가문잔칫날'에는 그거 해서 국 끓여서 먹고 '가문반'이라고 또 고기 삶아나면 무엇 끄트머리들 무엇 조끔씩 해서 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07019 @ 음.(음.)

107019 #1 ᄆᆞ음국 경.(모자반국 그렇게.)

107019 @ 그거를 ᄆᆞ음국이렌 헤예?(그거를 'ᄆᆞ음국'이라고 한다고요?)

107019 #3 ᄆᆞ음국.('ᄆᆞ음국'.)

107019 @ 음.(음.)

107019 #3 게난 식당 ᄀᆞ튼 디도 ᄆᆞ음국 허영 풀주, 지금도.(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도 모자반국 해서 팔지, 지금도.)

107019 @ 예, 옛날에는 ᄆᆞᆯ망 놓곡 무썹을 ᄀᆞ치 놩은에 헷어마씨?(예, 옛날에는 모자반 넣고 무청을 같이 넣어서 했어요?)

107019 #1 무썹을 놔야 맛잇어.(무청을 놔야 맛있어.)

107019 #3 무썹 놔도 좋고, 무우, 무 짤라놔도 좋고 무썹 놔도 좋고 그건 아무거 놔도 다.(무청 넣어도 좋고, 무, 무 잘라 넣어도 좋고 무청 넣어도 좋고 그건 아무 거 넣어도 다.)

107019 #1 무썹이 췌고로 좋아.(무청이 최고로 좋아.)

107019 #3 궁합이 맞은 거, 그건.(궁합이 맞은 거, 그건.)

107019 @ 아, 무썹이.(아, 무청이.)

107019 #1 무썹도 이 단지나물[306].(무청도 이 '단지나물'.)

107019 @ 예.(예.)

107019 #1 단지ᄂᆞᆷ삐[307] 무썹을 헤야 더 맛잇어.('단지ᄂᆞᆷ삐' 무청을 해야 더 맛있어.)

107019 #3 궁합이 맞은 거. 그건.(궁합이 맞은 거. 그건.)

107019 @ 시에는 이 ᄆᆞᆷ, ᄆᆞᆷ국 헐 때 ᄆᆞᆷ만 놩은에 허는데.(제주시에는 이 모자반, 모자반국 할 때 모자반만 넣어서 하는데.)

107019 #1 에. 장ᄉᆞ허는 사름덜 그걸 몰랑 그렇다고.(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 몰라서 그렇다고.)

107019 #3 그걸 몰르난 거주. 그거를 들어가민은 맛이 훨씬 더 나.(그걸 모르니까 거지. 그거를 들어가면 맛이 훨씬 더 나.)

107019 #1 틀려.(달라.)

---

304) '가문잔칫날'은 혼사 전날 가문끼리 모여서 잔치 치르는 것을 의논하는 행사를 말한다.
305) '가문반'은 '가문잔칫날' 모인 친척들에게 주는 고기 등을 넣은 반기를 말한다.
306) '단지나물'은 무의 한 종류인 '단지ᄂᆞᆷ삐'의 무청을 말한다.
307) '단지ᄂᆞᆷ삐'는 무의 한 종류다. 뿌리가 단지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07019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7019 #3 게영 ᄀᆞ르나 쪼끔 놓면은 더 맛이 난다고.(그래서 가루나 조금 넣으면 더 맛이 난다고.)
107019 @ 으, 그때 ᄀᆞ르는 무신 ᄀᆞ르 놉니까?(으, 그때 가루는 무슨 가루 넣읍니까?)
107019 #3 그때나 지금ᄀᆞ치.(그때나 지금같이.)
107019 #1 ᄆᆞᆯᄏᆞ르.(메밀가루.)
107019 #3 그때는 무조건 밀ᄀᆞ르가 엇으니까 그땐 메밀ᄀᆞ르벳긔 엇엇주게.(그때는 무조건 밀가루가 없으니까 그땐 메밀가루밖에 없었지.)
107019 @ 예.(예.)
107019 #1 ᄆᆞᆯᄏᆞ르벳기 엇엇주게.(메밀가루밖에 없었지.)
107019 @ 예.(예.)
107019 #1 ᄀᆞ르엔 헌 게.(가루라고 한 게.)
107019 @ 예.(예.)
107019 #3 다 재배허멍 먹엉 사난 산 먹진 아녓주게. 이녁대로 못헌 건.(다 재배하면서 먹어서 사니까 사서 먹진 않았지. 이녁대로 못한 건.)
107019 #1 이녁 농사진 거.(이녁 농사지은 거.)
107019 #3 굶어낫어.(굶었었어.)
107020 @ 예, 예, 예. 경허고 삼춘, 여기는 그 생선국? 솔, 솔레기?(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삼촌, 여기는 그 옥돔국? 솔, '솔레기'?)
107020 #1 솔레기.(옥돔)
107020 @ 음, 그 국도 허지예?(음, 그 국도 하지요?)
107020 #3 그 국도 보통으론 못 먹주.(그 국도 보통으론 못 먹지.)
107020 #1 제ᄉᆞ 때에.(제사 때에.)
107020 #3 제ᄉᆞ 때에.(제사 때에.)
107020 @ 예.(예.)
107020 #3 멩질 때에.(명절 때에.)
107020 @ 으.(으.)
107020 #3 건 꼭 끌려야주.(건 꼭 끓여야지.)
107020 @ 그 국은 무신 국 헙니까?(그 국은 무슨 국 합니까?)
107020 #1 겡국.(갱.)
107020 #3 겡국이라고.(갱이라고.)
107020 @ 음.(음.)
107020 #3 건 메역 놓고 끌리는 거.(건 미역 넣고 끓이는 거.)
107020 @ 아, 게믄 간은 뭘로 헤마씨? 솔레기국?(아, 그러면 간은 무엇으로 해요? 옥돔국?)
107020 #3 간도 솔레기국도 간장으로.(간도 옥돔국도 간장으로.)

107020 @ 것도 간장, 물장 놩은에?(것도 간장, 간장 넣어서?)

107020 #3 예.(예.)

107020 @ 으.(으.)

107020 #3 요즘은 소금이여 무신 무시거여 허주마는 조미료도 잘 안 쓰주마는 다시다여 헤도 그때는 그자 장, 장 넘은[308] 건 아무 것도 엇어.(요즘은 소금이다 무엇이다 하지만 조미료도 잘 안 쓰지만 '다시다'다 해도 그때는 그저 장, 장 '위의' 건 아무것도 없어.)

107020 @ 음.(음.)

107020 #3 간장으로 간장은 그렇게 맛잇게 둠앙 막 막 그걸로만 먹엉 사난게.(간장으로 간장은 그렇게 맛있게 담가서 막 막 그것으로만 먹어서 사니까.)

10702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20 #3 콩장[309].('콩장'.)

107021 @ 예. 메역국은 어떻게 끌이는 거우과?(예.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107021 #3 메역국도 아까나ᄀᆞ치게 간장, 간장 놩 끌리주. 무신거 놩 끌려. 뭰장에 메역 끌리믄 맛이 엇어.(미역국도 아까처럼 간장, 간장 넣어서 끓이지. 무엇 넣어서 끓여. 된장에 미역 끓이면 맛이 없어.)

107021 @ 뭰장은 맛엇고?(된장은 맛없고?)

107021 #3 간장에 끌려야 맛잇주.(간장에 끓여야 맛있지.)

107021 @ 거는 메역만 놩 허는 거?(거는 미역만 넣어서 하는 거?)

107021 #3 메역만. 콩ᄂᆞ물 서끄믄 더 맛좋주게.(미역만. 콩나물 섞으면 더 맛좋지.)

107021 @ 아, 콩ᄂᆞ물 서끄민 더 맛 좋고예?(아, 콩나물 섞으면 더 맛 좋고요?)

107021 #3 그건 고급이라사 콩ᄂᆞ물 서끄는 거주. 무쭈건 메역에 콩ᄂᆞ물도 콩ᄂᆞ물 요샌 놩 풀아도 그때는 이녁이 길롼 먹으난에게.(그건 고급이어야 콩나물 섞는 거지. 무조건 미역에 콩나물도 콩나물 요샌 넣어서 팔아도 그때는 이녁이 길러서 먹으니까.)

107021 @ 음.(음.)

107021 #3 팔월멩질엔 콩ᄂᆞ물도 못 써낫수다. 나질 안 허여.(팔월명절엔 콩나물도 못 썼었습니다. 나질 안 해.)

107021 @ 아.(아.)

107021 #3 돌 받을 땐[310] 이젠 콩ᄂᆞ물 안 난덴 허멍 못 놉니다게. 경허난 돌이 안 발라야만이 이 콩ᄂᆞ물이 큰덴 허멍 어른덜 팔월멩질엔 콩ᄂᆞ물을 못 써낫수다.(달 받을 땐 이젠 콩나물 안 난다고 하면서 못 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달이 안 발라야만이 이 콩나물이 큰다고 하면서 어른들 팔월명절엔 콩나물을 못 썼었습니다.)

---

308) '넘은'은 '이외, 위의'의 의미로 쓰였다.

309) '콩장'은 콩으로 담근 장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어로 올라 있다.

310) 여기서 '돌 받을 땐'는 '큰 달이 떴을 때'를 말한다.

107021 @ 음.(음.)
107021 #3 고사리허곡 이 양엣근[311].(고사리하고 이 '양엣근'.)
107021 @ 예.(예.)
107021 #3 양엣근 알지예? 양엣근허곡 그거 허곡 다른 채소 무시거 허여근에.('양엣근' 알지요? '양엣근'하고 그거 하고 다른 채소 무엇 해서.)
107021 @ 아아, 그러면 돌 발른 때는?(아아, 그러면 달 바른 때는?)
107021 #3 콩ᄂᆞ물을 못 키와.(콩나물을 못 키워.)
107021 @ 못 키우는 거예?(못 키우는 거요?)
107021 #3 방안네서 헤영 그거 막 딧으게 허곡. 여름에도 썩어병 못 키워게. 겨울 제ᄉᆞ에나벳기 잘 못헷수다. 나가 종가칩이서 제ᄉᆞ만 제ᄉᆞ만 허멍 산 사름이난.(방안에서 해서 그거 막 다습게 하고. 여름에도 썩어버려서 못 키워. 겨울 제사에나 밖에 잘 못했습니다. 내가 종갓집에서 제사만 제사만 하면서 산 사람이니까.)
107021 @ 아, 종가칩이우꽈?(아, 종갓집입니까?)
107021 #3 종가칩이 우리.(종갓집이 우리.)
107021 @ 아.(아.)
107021 #3 제사만 많이.(제사만 많이.)
107023 @ 그다음에 삼춘, 그 셍선국도 아까 이제 솔레깃국도 잇지만 다른 셍선으로도 국 허는 거 잇수가?(그다음에 삼촌, 그 옥돔국도 아까 이제 옥돔국도 있지만 다른 생선으로도 국 하는 거 있습니까?)
107023 #3 다른 셍선 갈치도 끌리곡.(다른 생선 갈치도 끓이고.)
107023 @ 으.(으.)
107023 #3 갈친 호박에 궁합이 맞주.(갈친 호박에 궁합이 맞지.)
107023 @ 으, 갈치에 홍합. 아니.(으, 갈치에 홍합. 아니.)
107023 #3 호박.(호박.)
107023 @ 호박. 늙은호박?(호박. 청둥호박?)
107023 #3 늙은호박이고 젊은 호박이고 갈치는 호박게.(청둥호박이고 젊은 호박이고 갈치는 호박.)
107023 @ 웃음.(웃음.)
107023 #1 늙은호박이 아메도 맛싯주.(청둥호박이 아마도 맛있지.)
107023 @ 그 갈칫국 끌려 봅서. 어떤 식으로 끌이는지?(그 갈칫국 끓여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끓이는지?)
107023 #3 갈칫국도게 갈치 물 놩 삭삭 끌이면은.(갈칫국도 갈치 물 넣어서 팔팔 끓이면.)
107023 @ 예.(예.)
107023 #3 그냥 물 안 끌린 거는 비린내 나주게.(그냥 물 안 끓인 거는 비린내 나지.)

311) '양엣근'은 양하의 꽃 이삭을 말한다.

107023 @ 예.(예.)

107023 #3 게난 물 삭삭 끌이민 갈치 놓주. 놩 삭삭 또 끌일 거 아니? 게민 호박을 놔.(그러니까 물 팔팔 끓이면 갈치 넣지. 넣어서 팔팔 또 끓을 거 아니? 그러면 호박을 넣어.)

107023 @ 으.(으.)

107023 #3 게민 그거 호박을 끌이면은 국이 다 뒈는 거. 간은 간장으로 맞추와근에 싱거우민 또 간장 또 조금씩 조금씩 놓고. 요즘은 싱거우민 소금 놓곡 뭐 다시다 놓고 이렇게 맛을 맞촤서. 엿날에는 간장으로만 맛을 맞촨 살앗다 허는 말이주. 나 말은.(그러면 그거 호박을 끓이면 국이 다 되는 거. 간은 간장으로 맞춰서 싱거우면 또 간장 또 조금씩 조금씩 넣고. 요즘은 싱거우면 소금 넣고 뭐 '다시다' 넣고 이렇게 맛을 맞춰서. 옛날에는 간장으로만 맛을 맞춰서 살았다 하는 말이지. 내 말은.)

107023 @ 게도 옛날 게 더 맛 좋아예?(그래도 옛날 게 더 맛 좋지요?)

107023 #3 옛날 게 맛잇어.(옛날 게 맛있어.)

107023 @ 으.(으.)

107023 #3 요즘은 맛이 엇어 다.(요즘은 맛이 없어 다.)

107023 @ 다, 예. 맞아. 생선들도 너무 빨리 커불엄신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른 셍선으로 국 끌리는 거 잇어마씨?(다, 예. 맞아. 생선들도 너무 빨리 커버리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다른 생선으로 국 끓이는 거 있어요?)

107023 #3 다른 셍선도 거 고기에 따라.(다른 생선도 거 고기에 따라.)

107023 @ 으.(으.)

107023 #1 고등어도 끌령 먹곡. 각제기도 끌령 먹고.(고등어도 끓여서 먹고. 전갱이도 끓여서 먹고.)

107023 #3 각제기 ᄀᆞ튼 건 베추에 끌리민 맛이 좋고.(전갱이 같은 건 배추에 끓이면 맛이 좋고.)

107023 @ 고등엔?(고등어는?)

107023 #3 고등어도 베추가 좋주.(고등어도 배추가 좋지.)

107023 @ 아, 고등어도 베추가 좋고?(아, 고등어도 배추가 좋고?)

107023 #3 고등언 잘 안 끌련 먹어보난.(고등언 잘 안 끓어서 먹어보니까.)

107023 @ 아.(아.)

107023 #1 각제기도.(전갱이도.)

107023 #3 졸영이나 먹곡 고등언 반찬으로 허주. 저 흔읏이 옛날에도 고등언 무신 국이나 끌령 먹어보진 못허고.(졸여서나 먹고 고등언 반찬으로 하지. 저 한없이 옛날에도 고등언 무슨 국이나 끓여서 먹어보진 못하고.)

107022 @ 아.(아.)

107022 #3 각제기는 끌리믄 맛이 잇어.(전갱이는 끓이면 맛이 있어.)

107023 @ 으음, 거는 무수 놩?(으음, 거는 무 넣어서?)

107023 #3 으, 아니 무수보단.(으, 아니 무보다는.)
107022 @2 ᄂᆞ물.(배추.)
107023 #3 베추가 좋아. 베추가.(배추가 좋아. 배추가.)
107022 @ 베추가 좋아마씨? 각제기는? 그다음 삼춘 아까 이제 냉국 헤먹엇덴 헷잖아예?(배추가 좋아요? 전갱이는? 그다음 삼촌 아까 이제 냉국 해먹었다고 했잖아요?)
107022 #3 냉국은 오이냉국.(냉국은 오이냉국.)
107022 @ 으.(으.)
107022 #3 ᄂᆞ물냉국도 뒈여.(배추냉국도 돼.)
107022 @ 어.(어.)
107022 #3 ᄂᆞ물 베추 헤다가 데쳐가지고.(배추 배추 해다가 데쳐가지고.)
107022 @ 아, 데쳥?(아, 데쳐서?)
107022 #3 썰어놩 뒌장 좀 풀어놩 게민 물 비와놓민 그것가 국이주게.(썰어넣어서 된장 좀 풀어넣어서 그러면 물 부어놓으면 그것이 국이지.)
107022 @ 예. ᄂᆞᄆᆞᆯ냉국?(예. 배추냉국?)
107022 #3 ᄂᆞᄆᆞᆯ냉국?(배추냉국?)
107022 @ 그다음 웨냉국은 어떤 거?(그다음 오이냉국은 어떤 거?)
107022 #3 웨냉국도게 마찬가지.(오이냉국도게 마찬가지.)
107022 @ 으.(으.)
107022 #3 뒌장 풀어놩 웨냉국도 뒌장 풀어놩 허민 맛이 잇어.(된장 풀어넣어서 외냉국도 된장 풀어넣어서 하면 맛이 있어.)
107022 @ 요즘은 오이 허주마는 옛날에는 오이가.(요즘은 오이 하지만 옛날에는 오이가.)
107022 #3 웨.(외.)
107022 @ 웨예, 물웨로 헷어예?(외요, 물외로 했지요?)
107022 #3 물웨. 옛날은 오이가 어디 서? 물웨, 물웨.(물외. 옛날은 오이가 어디 있어? 물외, 물외.)
107022 @ 으.(으.)
107022 #3 물웨 막 우잣에 많이 심엉 막 그거 따 먹곡 밧듸 촐 비레 갈 때도 그거 땅 가곡.(물외 막 터앝에 많이 심어서 막 그거 따 먹고 밭에 꼴 베러 갈 때도 그거 따서 가고.)
107022 @ 음, 뒌장에 찍엉 먹어도 맛 좋고.(음, 된장에 찍어서 먹어도 맛 좋고.)
107022 #3 뒌장에 찍어도 맛잇곡. 또 국 헤도 맛잇고 오이는 장 안 찍어도 또 베고플 땐 그냥도 맛이 잇어.(된장에 찍어도 맛있고. 또 국 해도 맛있고 오이는 장 안 찍어도 또 배고플 땐 그냥도 맛이 있어.)
107022 @ 예.(예.)
107022 #3 물웨는.(물외는.)

107022 @ 물웨는예, 맞수다.(물외는요, 맞습니다.)

107022 #3 허기 파질 땐 그걸로 허기 때우멍 살아시난게.(허기 파질 땐 그걸로 허기 때우면서 살았으니까.)

107023 @ 그다음에 이제 바당에 여기는 뭐 바당 머니까 헤도. 성게를 이 동네는 뭐렌 헤낫수가?(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여기는 뭐 바다 머니까 해도. 성게를 이 동네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107023 #3 귀.(성게.)

107023 #1 귀.(성게.)

107023 #3 귀, 귀.(성게, 성게.)

107023 @ 귀이? 어, 귀로도 국 헤마씨?(성게요? 어, 성게로도 국 해요?)

107023 #3 엿날에 우리는 귀국은 못헤 먹어봐신디.(옛날에 우리는 성게국은 못해 먹어봤는데.)

107023 @ 음.(음.)

107023 #1 헤변 사름벳긔.(해변 사람밖에.)

107023 #3 가면은 바당에 가근에 우린 난 난산리난 바당이 ᄇᆞ디여, 신산리.(가면 바다에 가서 우린 난 난산리니까 바다가 가까워, 신산리.)

107023 @ 예.(예.)

107023 #3 가근에 파가지고 거를 ᄀᆞᆯ겡이로 찍어가지고 빠먹기 뭐허고 솜. 솜이라고 잇주.(가서 파가지고 거를 호미로 찍어가지고 뽑아먹기 뭐하고 말똥성게. 말똥성게라고 있지.)

107023 @ 예.(예.)

107023 @2 솜예?(말똥성게요?)

107023 #3 거 헤당 그거는 ᄲᆞᆺ아가지고 물 걸러서 국을 끌련 먹어봣주.(거 해다가 그거는 빻아가지고 물 걸러서 국을 끓여서 먹어봤지.)

107023 @ 음, 솜으로예? 아, 그 아까 ᄀᆞ메기로도 국 헤 먹어마씨?(음, 말똥성게로요? 아, 그 아까 개울타리고둥으로도 국 해 먹어요?)

107023 #3 ᄀᆞ메기는 국은 못헨 먹어봐도 그 보말국[312]도 끌려 먹어보고.(개울타리고둥은 국은 못해서 먹어봐도 그 '보말국'도 끓여 먹어보고.)

107023 @ 아, 보말국 끌련 먹언마씨?(아, '보말국' 끓여서 먹었어요?)

107023 #3 보말국도 끌련 먹어보고.('보말국'도 끓여서 먹어보고.)

107023 @ 삼춘, ᄀᆞ메기허고 보말허고 ᄐᆞ난 거우과?(삼촌, 개울타리하고 '보말'하고 다른 겁니까?)

107023 #3 차이가 잇주.(차이가 있지.)

107023 @ 아, 어떻게 ᄯᅳ난 거?(아, 어떻게 다른 거?)

107023 #3 ᄀᆞ메기는 젠젠헌 거 웬ᄀᆞ메기[313]라고 잇고.(개울타리고둥은 자잘한

312) '보말국'은 고둥을 넣어서 끓인 국이다.
313) '웬ᄀᆞ메기'는 고둥의 일종이다.

거 ‘웬ᄀᆞ메기’라고 있고.)

107023 @ 예.(예.)

107023 #3 보말은 홁은홁은헌 게 잇어. 게민 그 보말국은 보말은 막 솔 알도 많고.(‘보말’은 굵디굵은 게 있어. 그러면 그 보말국은 ‘보말’은 아주 살 알도 많고.)

107023 @ 예.(예.)

107023 #3 ᄀᆞ메기는 쪼끔 알도 조끔벳긘 아녀주게.(개울타리고둥은 조금 알도 조금밖엔 않지.)

107023 @ 아.(아.)

107023 #3 게난 끌련 먹고 말고 헐 나위가 없주. 그냥 열아 먹엉 베고픈 때 열아 먹엉 물 먹으민 베 ᄀᆞ득는 거.(그러니까 끓여서 먹고 말고 할 나위가 없지. 그냥 열어 먹어서 배고플 때 열어 먹어서 물 먹으면 배 가득하는 거.)

107023 @ 으음. 그러면 ᄀᆞ메기는 그 껍데기. 그 껍데기가 막 얄룬얄룬헌 게 ᄀᆞ메기우과?(으음. 그러면 개울타리고둥은 그 껍데기. 그 껍데기가 아주 얇디얇은 게 개울타리고둥입니까?)

107023 #3 얄룬얄룬헌 거.(얇디얇은 거.)

107023 @ 으.(으.)

107023 @2 영 영 잘 튼아지는 거예?(이렇게 이렇게 잘 타지는 거요?)

107023 #3 예, 예.(예, 예.)

107023 @ 예에. 게민 수두리 이런 거는 보말이고?(예에. 그러면 팽이고둥 이런 거는 ‘보말’이고?)

107023 #3 수두리는 그건 수두리보말.(팽이고둥은 그건 ‘수두리보말’.)

107023 @ 예.(예.)

107023 #3 또 그자 먹보말이라고 보말도 두 가지라.(또 그저 밤고둥이라고 고둥도 두 가지야.)

107023 @ 예.(예.)

107023 #3 수두리보말 먹보말.(팽이고둥 밤고둥.)

107023 @ 으음. 그다음에 넙페로도 국 헤 먹어봣수가?(으음. 그다음에 넓패로도 국 해 먹어봤습니까?)

107023 #3 넙페국 맛잇주.(넓패국 맛있지.)

107023 @ 아. 건 어떵 허는 거?(아. 건 어떻게 하는 거?)

107023 #3 넙페 바당에 강 뽑아근에 막 거기서 밀어근에 영 시쳥 오랑.(넓패 바다에 가서 뽑아서 막 거기서 밀어서 이렇게 씻어서 와서.)

107023 @ 예.(예.)

107023 #3 집의 와서 거기서 깨끗허게 헹 오랑은에 안 시쳐. 그 짠물에 씻어야 맛잇어. 그냥 쏢아.(집에 와서 거기서 깨끗하게 해서 와서 안 씻어. 그 짠물에 씻어야 맛있어. 그냥 삶아.)

107023 @ 으.(으.)

107023 #3 솟듸서 쏢아근에 그거 거려 놓곡 물 놓고 허영 국을 끌리면은 그레 또 간장 비와 놓주. 게영 끌령 ᄀᆞ르 쫌 ᄆᆞ멀ᄏᆞ르, ᄆᆞ멀ᄏᆞ르.(솥에서 삶아서 그거 떠 넣고 물 넣고 해서 국을 끓이면 그리로 또 간장 부어 넣지. 그래서 끓여서 가루 좀 메밀가루, 메밀가루.)

107023 @ 예.(예.)

107023 #2 뜨거울 때 허끄민 그렇게 맛잇어.(뜨거울 때 흩으면 그렇게 맛있어.)

107023 @ 아, 옛날에는 국 헐 때 이런 ᄆᆞ멀ᄏᆞ르를 하영 썻다예?(아, 옛날에는 국 할 때 이런 메밀가루를 많이 썼네요?)

107023 #3 밀ᄀᆞ르가 엇이니까.(밀가루가 없으니까.)

107023 #1 밀ᄀᆞ르벳긔 엇주게.(밀가루밖에 없지.)

107023 @ 예.(예.)

107023 #3 ᄆᆞᆯᄀᆞ르게 원 그거. 당연히 쓰는 거. 제ᄉᆞ에도 ᄆᆞ멀ᄏᆞ르. 묵도 ᄆᆞ멀ᄏᆞ르 뭐 떡도 빙떡도 ᄆᆞᆯ로 무신거 ᄆᆞ멀로 못허는 게 원 엇어.(메밀가루 전혀 그거. 당연히 쓰는 거. 제사에도 메밀가루. 묵도 메밀가루 뭐 떡도 빙떡도 메밀로 무엇 메밀로 못하는 게 전혀 없어.)

107023 @ 으.(으.)

107023 #3 밥도 ᄆᆞ멀. 뭐 ᄆᆞ멀은 뭐 아무 것에도 그냥 탄약에 감추라.(밥도 메밀. 뭐 메밀은 뭐 아무 것에도 그냥 탕약에 감초야.)

107023 #1 약방에 감초주기.(약방에 감초지.)

107023 @ 탄약에 감초? 웃음.(탕약에 감초? 웃음.)

107023 #3 탄약에 감추.(탕약에 감초.)

107023 @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가시리로도 국 헤봣수가?(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풀가사리로도 국 해봤습니까?)

107023 #3 가시리국은 맛엇어.(풀가사리국은 맛없어.)

107023 @ 아, 건 맛엇어? 으.(아, 건 맛없어? 으.)

107023 #3 우리 할머니 살 때가 우리 할마니가 요 고성 어른이니까 그런 걸 잘 허는디 게난 국 끌령 먹으민 좋넨 허영 끌리난 우리 아인 때 맛엇언 못 먹언게.(우리 할머니 살 때가 우리 할머니가 요 고성 어른이니까 그런 걸 잘하는데 그러니까 국 끓여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끓이니까 우리 아일 때 맛없어서 못 먹던데.)

107023 @ 음, 가시리는예. 그다음에 ᄑᆞ렛국은?(음, 풀가사리는요. 그다음에 파랫국은?)

107023 #3 ᄑᆞ렌 국 안 끌려봔.(파래는 국 안 끓여봤어.)

107023 @ 아, 건 안 끌려보고?(아, 건 안 끓여보고?)

107023 #3 ᄑᆞ렌 안 끌리는 거. 밥을 밥에나 헤 먹주.(파래는 안 끓이는 거. 밥을 밥에나 해 먹지.)

107023 @ 으.(으.)

107023 #3 그 어려울 땐 밥에나 먹엇주, ᄑᆞ렌 홈불로 못 먹는 거. 건.(그 어려울

땐 밥에나 먹었지, 파랜 함부로 못 먹는 거. 건.)

107023 @ 아, 건 홈불로 못 먹는 거예? 물훼 ᄀᆞ튼 건 뭘로 헤낫수가?(아, 건 함부로 못 먹는 거요? 물회 같은 건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107023 #3 물훼?(물회?)

107023 @ 예.(예.)

107023 #3 물웨게. 물웨라고?(물외. 물외라고?)

107023 @2 자리물훼 허는?(자리물회 하는?)

107023 #3 아, 아, 자리물훼[314]?(아, 아, 자리물회?)

107023 @ 으, 그런 거?(으, 그런 거?)

107023 #3 자리물휀 자리 사다근에 비늘 거시려뒁 짤라놓고 뭐 식촌 아무 때도 식촌 잇으니까 식초 놓고 고칫ᄀᆞ르 좀 놓고. 게, 고칫ᄀᆞ르도 많이 못 먹엇어.(자리물회는 자리돔 사다가 비늘 거슬러두고 잘라넣고 뭐 식촌 아무 때도 식촌 있으니까 식초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게, 고춧가루도 많이 못 먹었어.)

107023 @ 음.(음.)

107023 #3 조끔씩 기자 이녁 재배헹 먹으니까 쪼끔 놓고 꿧ᄀᆞ르 꿰는 이녁 농ᄉᆞ지난 꿧ᄀᆞ르 놓고 그렇게 허민 맛이 잇주게. 아무 거 안 놓아도 맛이 좋아.(조금씩 그저 이녁 재배해서 먹으니까 조금 넣고 깨소금 참깨는 이녁 농사지으니까 깨소금 넣고 그렇게 하면 맛이 있지. 아무 거 안 넣어도 맛이 좋아.)

107023 @ 그치록 물훼 췟국 헤갖고 허는 거는 자리만 헨마씨? 아니면 다른 걸로도 허는 거 잇어?(그처럼 물회 촛국 해갖고 하는 거는 자리돔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걸로도 하는 거 있어?)

107023 #3 다른 거 베량 허는 게 엇엇주. 우린 헤 먹어 보질 못허난에.(다른 거 별로 하는 게 없었지. 우린 해 먹어 보질 못하니까.)

107023 @ 음. 물훼는예?(음. 물회는요?)

107023 #3 바로 헤변 살아시민 몰르주마는 난산리서 컨에 나가 이 성읍리 오란 이거 오십 년 넘언 흔 오십오 년 살앗주마는 못헤 먹어봔.(바로 해변 살았으면 모르지만 난산리서 커서 내가 이 성읍리 와서 이거 오십 년 넘게 한 오십오 년 살았지만 못해 먹어봤어.)

107023 @ 예. 물훼는예? 알앗수다.(예. 물회는요? 알았습니다.)

죽류

107024 @ 죽 같은 거는 어떤 걸 헤 먹어신고예?(죽 같은 거는 어떤 걸 해 먹었는가요?)

107024 #3 죽은 뭐 풋죽도 쒀 먹고 콩죽도 쒀 먹고 녹두죽도 쒀 먹고 그냥 쏠에 메밀쏠도 놩 쒀 먹고.(죽은 뭐 팥죽도 쒀 먹고 콩죽도 쒀 먹고 녹두죽도 쒀 먹고 그냥 쌀에 메밀쌀도 넣어서 쒀 먹고.)

---

314) '자리물훼'는 자리돔을 잘게 썬 것에 채소 따위를 넣어서 식초를 곁들여 만든 냉국이다.

107024 @ 음.(음.)

107024 #3 죽도 으라 가지. 피쏠에도 또 메밀쏠도 놩 쒀 먹고.(죽도 여러 가지. 핍쌀에도 또 메밀쌀도 넣어서 쒀 먹고.)

107024 @ 아, 피쏠허고 메밀쏠 ᄀᆞ치?(아, 핍쌀하고 메밀쌀 같이?)

107024 #3 좁쏠에 ᄆᆞᆯ쏠도 놩 쒕 먹고 죽도 여라 가지.(좁쌀에 메밀쌀도 넣어서 쒀서 먹고 죽도 여러 가지.)

107025 @ 예, 그러면 하나씩? 곤죽?(예, 그러면 하나씩? 흰죽?)

107025 #3 곤죽은 곤쏠만 놩 쑨 게 곤죽.(흰죽은 흰쌀만 넣어서 쑨 게 흰죽.)

107025 @ 예, 그거는 이제 산듸쏠 놩 허는 거고?(예, 그거는 이제 밭벼쌀 넣어서 하는 거고?)

107026 #3 산듸쏠 놩 허는 거.(밭벼쌀 넣어서 하는 거.)

107026 @ 예, 그다음에 조축도 헤먹엇수가?(예, 그다음에 조죽도 해먹었습니까?)

107026 #3 좁썰죽은 또 ᄆᆞ멀쏠 서끄곡 좁쏠 놩 쑤믄 조축.(좁쌀죽은 또 메밀쌀 섞고 좁쌀 넣어서 쑤면 조죽.)

107026 @ 아, 거난 조, 좁쏠만 허지 아녕 ᄆᆞ멀쏠을?(아, 그러니까 조, 좁쌀만 하지 않아서 메밀쌀을?)

107026 #3 ᄆᆞ멀쏠 놩 허주, 좁쏠만 놩은 미음. 죽어 가는 사름 미음이나 좁쏠만 놩 딸령 멕이주.(메밀쌀 넣어서 하지, 좁쌀만 넣어서는 미음. 죽어 가는 사람 미음이나 좁쌀만 넣어서 달여서 먹이지.)

107026 #1 가르륵[315]허주게.('가르륵'하지.)

107026 @ 으, 가르륵. 여기는 모힌좁쏠들이어서.(으, '가르륵'. 여기는 메좁쌀들이어서.)

107026 #3 메밀쏠을, 흐린좁쏠도 더 가르륵허주게. 게난 ᄆᆞ멀쏠을 좀 놔사만 폴폴[316]헌 게 죽이 먹어지주.(메밀쌀을, 차좁쌀도 더 '가르륵'하지. 그러니까 메밀쌀을 좀 넣어야만 풀풀한 게 죽이 먹어지지.)

107026 @ 음.(음.)

107026 #3 이 죽어가는 환자는 가르륵허게 뭐 못 ᄂᆞ려우난에 그걸 거려놔도 그냥 보통 사름 먹는 건 좀 풀풀. 폴폴헌 거 알아집니까?(이 죽어가는 환자는 '가르륵'하게 뭐 못 내리니까 그걸 떠놔도 그냥 보통 사람 먹는 건 좀 폴폴. 폴폴한 거 알아집니까?)

107026 @ 예, 폴폴?(예, 폴폴?)

107026 #3 폴폴헤사 먹주. 폴폴 아녀민 못 먹주.(폴폴해야 먹지. 폴폴 않으면 못 먹지.)

107027 @ 아, 그러면은 픗죽은 어떵 쑤는 거?(아, 그러면 팥죽은 어떻게 쑤는

315) '가르륵'은 풀기가 없이 물러서 주르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316) '폴폴'은 풀기가 있는 모양의 말이다.

거?)

107027 #3 픗죽은 픗 솖앙.(팥죽은 팥 삶아서.)

107027 @ 예.(예.)

107027 #3 픗 솖아근에 요즘은 막 짜고 뭐허고 허주마는 옛날은 그런 거 엇어. 사돈칩이도 사돈님이 돌아가시면은 픗죽을 우리가 막 허베기로 져가주게.(팥 삶아서 요즘은 막 짜고 뭐하고 하지만 옛날은 그런 거 없어. 사돈집에도 사돈님이 돌아가시면 팥죽을 우리가 막 동이로 져가지.)

107027 @ 예.(예.)

107027 #3 허베기 허민 그 픗, 픗 두 관뒈 놓곡 쏠 두 관뒈 흔 솟 두말떼기[317]로 하나 쑤민은 딱 한 허벅 허여.(동이 하면 그 팥, 팥 두 관되 넣고 쌀 두 관되 한 솥 '두말떼기'로 하나 쑤면 딱 한 동이 해.)

107027 @ 아, 두 관뒈씩?(아, 두 관되씩?)

107027 #3 예, 우리는 사돈님이 많으난 나 픗죽 많이 쒓어.(예, 우리는 사돈님이 많으니까 내 팥죽 많이 쒔어.)

107027 @ 아아.(아아.)

107027 @2 으.(으.)

107027 #3 이거 그냥 막 문대여 놩은에 픗 솖앙 좀 뜸 들영 허면은 거멍허곡.(이거 그냥 막 뭉개어 놔서 팥 삶아서 좀 뜸 들여서 하면 거멓고.)

107027 @ 예.(예.)

107027 #3 기냥 헤불민 거멍허질 아녕 허영헤불주.(그냥 해버리면 거멓지를 않아서 하얘버리지.)

107027 @ 거멍헤야 맛싯어예?(거매야 맛있죠?)

107027 #3 거멍해야 픗죽이라니.(거매야 팥죽이라니.)

107027 @ 으.(으.)

107027 #3 경허영 뜸 들여근에 쑤엉 사돈칩이 산듸쏠만 놩 쒀가면은 ᄆᆞᆯ쏠에 쪼금 서껑 쒀가면은 그렇게 맛 좋민 아이고야, 아무 디 사둔 죽 잘 쒀왓어라야. 거무신 죽이니 춤 맛잇어라. 영 헨 들으멍 살아난.(그렇게 해서 뜸 들여서 쒀서 사돈집에 밭벼쌀만 넣어서 쒀가면 메밀쌀에 조금 섞어서 쒀가면 그렇게 맛 좋으면 아이고야, 아무 데 사돈 죽 잘 쒀왔더라. 거 무슨 죽이니 참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살았었어.)

107028 @ 음, 경헤영 픗죽도 쑤고. 삼춘 콩죽도 쒀 먹어봔마씨?(음, 그렇게 해서 팥죽도 쑤고. 삼촌 콩죽도 쒀 먹어봤어요?)

107028 #3 콩죽[318]도 쒀 먹주게. 아까 ᄀᆞᆫ듯이게 콩ᄀᆞ르게 ᄀᆞᆯ아근에.(콩죽도 쒀 먹지. 아까 말하듯이 콩가루 갈아서.)

107028 @ 음.(음.)

317) '두말떼기'는 두 말들이의 솥을 말한다.

318) 콩죽은 콩가루에 쌀을 넣어서 쑨 죽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콩죽'은 불린 콩에 쌀을 넣어서 쑨 죽으로 되어 있다.

107028 #3 콩 맞ᄀᆞ레에서 ᄀᆞᆯ아근에 요즘은 기계나 남주마는 그 시절엔 ᄀᆞ레에서 ᄀᆞᆯ아근에 그거 체로 안 치면은 이것가 갈르지 못허여.(콩 '맞ᄀᆞ레'에서 갈아서 요즘은 기계나 나고 있지만 그 시절엔 맷돌에서 갈아서 그거 체로 아니 치면 이것이 가르지 못해.)

107028 @ 예.(예.)

107028 #3 *** 겁질 갈라두고 그거 놔근에 막 그냥 보리쏠 숢앙.(*** 껍질 갈라두고 그거 넣어서 막 그냥 보리쌀 삶아서.)

107028 @ 예.(예.)

107028 #3 보리쏠에 놩 콩ᄀᆞ를 놩 죽을 쑤민 그렇게 맛이 좋아.(보리쌀에 넣어서 콩가루를 넣어서 죽을 쑤면 그렇게 맛이 좋아.)

107028 @ 아, 콩에 보리쏠 놩 허는 거.(아, 콩에 보리쌀 넣어서 하는 거.)

107028 #3 보리쏠에 놩 죽을 쑤면은 거 보리쏠 놔근에 거저 숢아져 가민 이 콩 ᄀᆞᆯ은 거 콩은 ᄆᆞ녀 놓면은 부꺼불주.(보리쌀에 넣어서 죽을 쑤면 거 보리쌀 넣어서 거의 삶아져 가면 이 콩 간 거 콩은 먼저 넣으면 끓어 넘쳐버리지.)

107028 @ 예.(예.)

107028 #3 부꺼부는 따문에 좀 영 체로 쳥 ᄒᆞ쏠 홁은 거는 미리 놩 ᄀᆞ찌 보리쏠에 숨고, 좀 알러레 간 거 ᄀᆞ를은 놧다가 거저 쒀져가민 그거를 삭 허꺼놓면은 부깍[319] 올라와.(끓어 넘쳐버리는 때문에 좀 이렇게 체로 쳐서 조금 굵은 거는 미리 넣어서 같이 보리쌀에 삶고, 좀 아래로 간 거 가루는 놔뒀다가 거의 쒀지면 그거를 삭 흩어놓으면 '부깍' 올라와.)

107028 @ 음.(음.)

107028 #3 올라오면 간, 간으로 소금을 영 허끄면은 그 간수 끓이듯 경허면은 좀 들어가주게.(올라오면 간, 간으로 소금을 이렇게 섞으면 그 간물 끓이듯 그렇게 하면 좀 들어가지.)

107028 @ 예.(예.)

107028 #3 들어가민 또 끓이다 또 올라오민 허곡 젓으멍 경허당 보민 죽이 뒈민 보리쏠에 그 콩죽을 쑤민 그렇게 맛이 좋앙 잘 먹어낫주.(들어가면 또 끓이다 또 올라오면 하고 저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이 되면 보리쌀에 그 콩죽을 쑤면 그렇게 맛이 좋아서 잘 먹었었지.)

107028 @ 음.(음.)

107028 #3 옛날에 숭년에 경허멍 살안.(옛날에 흉년에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7028 @ 아, 콩으로예?(아, 콩으로요?)

107028 #3 콩으로 폿으로 그자 이녁이 재배허멍 먹언 재배 못허민 못 먹언게 굶으난게 살 디가 잇어? 누게가 돈을 줘? 벌어야 먹으멍 사는 거.(콩으로 팥으로 그저 이녁이 재배하면서 먹어서 재배 못하면 못 먹어서 굶으니까 살 데가 있어? 누가 돈을 줘? 벌어야 먹으면서 사는 거.)

319) '부깍'은 끓어서 부풀어오른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다.

107028 @ 맞수다. 벌엉은에.(맞습니다. 벌어서.)

107028 #3 게난 놈의 집의 강 쏠 읏이민 놈의 집의 강 ᄒᆞ르 검질메여사 쏠이 관뒈로 하나. 관뒈 뒈싱 혼 뒈.(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쌀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하루 김매야 쌀이 관되로 하나. 관되 되 한 되.)

107028 @ 예.(예.)

107028 #3 혼 뒈 받아오민 그 식구 한 딘 메틀 먹어. ᄒᆞ르도 못 먹주.(한 되 받아오면 그 식구 많은 덴 며칠 먹어. 하루도 못 먹지.)

107028 @ 웃음.(웃음.)

107028 #3 경허멍 살안.(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7029 @ 예, 맞수다. 그다음에 우리 성읍축제헐 때도 먹어신디 ᄆᆞ멀죽?(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읍축제할 때도 먹었는데 '메밀죽'?)

107029 #3 ᄆᆞ멀죽[320]은게 ᄆᆞ멀 그냥 검피엉.('메밀죽'은 메밀 그냥 거피해서.)

107029 @ 예.(예.)

107029 #3 체로 쳐근에 ᄉᆞ레기 빼두곡 우의 거 헤두곡 헹게 곤 걸로 헤근에 저 물 끌이민 놓민 또 끌이민 죽이라, 그거.(체로 쳐서 싸라기 빼두고 위에 거 해두고 해서 깨끗한 걸로 해서 저 물 끓이면 놓으면 또 끓이면 죽이야, 그거.)

107029 @ 음, 건.(음, 건.)

107029 #3 건 간단헌 거.(건 간단한 거.)

107029 @ 아, ᄆᆞ멀죽은 간단헌 거우과?(아, '메밀죽'은 간단한 겁니까?)

107029 #3 간단허고 쉬운 거.(간단하고 쉬운 거.)

107029 @ 아, 거 맛 좋든데.(아, 거 맛 좋던데.)

107029 #3 아니 이제 상가축제[321]헐 때 오랑 먹어봐.(아니 이제 '상가축제'할 때 와서 먹어봐.)

107029 @ 예, 그때 와근에 먹언, 두 번 먹어봔마씨. 웃음.(예, 그때 와서 먹어서, 두 번 먹어봤어요. 웃음.)

107029 #3 거 하찮은 거. 사당 집의서 간단히 헤 먹는 거, 그건.(거 하찮은 거. 사다가 집에서 간단히 해 먹는 거, 그건.)

107029 @ 음.(음.)

107029 #3 이 입 실픈 때 젤 그거 쉬운 거.(이 입 싫을 때 젤 그거 쉬운 거.)

107029 @ 입 실플 때?(입 싫을 때?)

107029 #3 으, 사당 쏠 혼 뒈 사다놧당 밥 먹기 실프민 그 물 놓민 그자 렌지에서 조끔 가스렌지에서 헤가민 보글보글허민 놓민 혼머리 궤민 그게 죽이난에게. 벨게 죽이라게.(으, 사다가 쌀 한 되 사다놨다가 밥 먹기 싫으면 그 물 넣으면 그저 레인지에서 조금 가스레인지에서 해가면 보글보글하면 넣으면 한소끔 끓으면 그게 죽이니까. 별 게 죽인가.)

---

320) 'ᄆᆞ멀죽'은 메밀쌀을 넣어서 끓인 죽을 말한다.

321) '상가축제'는 성읍리 지역의 상가들이 모여 치르는 축제. 성읍민속축제를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107029 @ 음.(음.)

107029 #3 죽 간단헌 거.(죽 간단한 거.)

107029 @ 혼머리 궤영은에 또 혼머리 허면은, 음?(한소끔 끓어서 또 한소끔 하면, 음?)

107029 #3 우린 아방[322]이 저 위궤양으로 그만 위 터젼 위 혼착 짤라뒨에 그때 십년 산덴 헌 하르방[323] 삼십 년 넘언 돌아가신디 죽만 죽만 쑤멍 나가 살앗주게. 소고기죽 뭐 아니 쒀 본 죽이 엇어.(우린 아버지가 저 위궤양으로 그만 위 터져서 위 한쪽 잘라둬서 그때 십년 산다고 한 할아버지 삼십 년 넘게 돌아갔는데 죽만 죽만 쑤면서 내가 살았지. 소고기죽 뭐 아니 쒀 본 죽이 없어.)

107029 @ 음.(음.)

107029 #3 이거 저거 뭐. 셍성죽, 소고기죽, 그자 개만 안 잡아봣주. 나 아녀본 것이 엇인 사름. 웃음.(이거 저거 뭐. 옥돔죽, 소고기죽, 그저 개만 안 잡아봤지. 나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 웃음.)

107031 @ 웃음. 아, 게믄 독죽은 어떵 쒀야 맛 좁니까?(웃음. 아, 그러면 닭죽은 어떻게 쒀야 맛 좋습니까?)

107031 #3 독죽은 어떵허여. 독은 요새 쑤듯 허민 요새는 독 잡앙근에 막 그디서 뭐 오갈피니 뭐 마눌이니 대추니 잇엉 놔근에 허주만은 옛날엔 그런 것도 엇엇주게.(닭죽은 어떻게 해. 닭은 요새 쑤듯 하면 요새는 닭 잡아서 막 거기서 뭐 오갈피니 뭐 마늘이니 대추니 있어서 놔서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지.)

107032 @ 예.(예.)

107032 #3 엇이민 그자 독 잡앙 깨끗이 시쳐둬근에 춤 아까 곧는 물 놩 물 삭삭 끌이민 독 비아놩 독 앗아놔근에 그레 놩 그 솖아 가민 거저 익어 가민 요즘은 독 건져두고 죽을 쒄 우린 쒄 먹어도 그때는 그자 그 독 이신 채 쏠 비와놔근에 쑤민은 독에 죽에 막 버무려지민 건졍 고기도 갈랑 먹고 식구 으라이 혼 명씩 갈랑 먹곡 죽도 혼 사발씩 먹곡 경허멍 살안.(없으면 그저 닭 잡아서 깨끗이 씻어두고서 참 아까 말하는 물 넣어서 물 팔팔 끓으면 닭 부어놓아서 닭 갖다넣어서 그리 넣어서 그 삶아 가면 거의 익어 가면 요즘은 닭 건져두고 죽을 쒀서 우린 쒀서 먹어도 그때는 그저 그 닭 있는 채 쌀 부어놔서 쑤면 닭에 죽에 막 버무려지면 건져서 고기도 갈라서 먹고 식구 여럿이 한 명씩 갈라서 먹고 죽도 한 사발씩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7032 @ 경허멍 살안예, 맞수다. 그다음에 삼춘, 예전에 그 아까 ᄂᆞᄆᆞᆯ이랑 헹은에 죽 쑤잖아예? 그걸 뭐 국죽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그렇게 하면서 살았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삼촌, 예전에 그 아까 배추랑 해서 죽 쑤잖아요? 그걸 뭐 갱죽 이런 말도 들어봅디까?)

107032 #3 국죽, 게메.(갱죽, 글쎄.)

---

322) 여기에서 '아방'은 아이 아버지, 즉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323) '하르방'은 표준어 '할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썼다.

107032 #1 그게 국죽이라. ᄂᆞᄆᆞᆯ 썰어놩.(그게 갱죽이야. 배추 썰어넣어서.)

107032 #3 ᄂᆞᄆᆞᆯ 놩 그건 국죽 쑤는 건 그것도 나 ᄀᆞᆺ사 ᄀᆞᆮ듯 * 장 놩 쑤는 거, 장물 놩.(배추 넣어서 그건 갱죽 쑤는 건 그것도 내 아까 말하듯 * 장 넣어서 쑤는 거, 간장 넣어서.)

107032 @ 아아, 장물 놩 쑤는 그.(아아, 간장 넣어서 쑤는 그.)

107032 #3 장물 놘 쑤난 국죽이라.(간장 넣어서 쑤니까 갱죽이야.)

107032 @ 아, 국처럼.(아, 국처럼.)

107032 #3 으, 국죽.(으, 갱죽.)

107032 @ 게난 그 국죽을 한 번 쒀봅서? 어떤 식으로 헤신디.(그러니까 그 갱죽을 한 번 쒀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는지.)

107032 #3 국죽도 어떵 말이라. 국죽, 그, 국죽도 그 죽이주이게.(갱죽도 어떻게 말이야. 갱죽, 그, 갱죽도 그 죽이지.)

107032 @ 으.(으.)

107032 #3 그자 쏠 놓곡.(그저 쌀 넣고.)

107032 @ 예.(예.)

107032 #3 식은밥 시민 식은밥에 물 끌여당 놔근에 그 풀어져 가민은 또 ᄂᆞ물 짤라놔근에 쒀 강 익어. 게민 다 익어갈 거 아니게. 경허민 간 맞촤근에 먹는 게 그게 국죽이고 국죽 벨다른 거 아니?(찬밥 있으면 찬밥에 물 끓여다가 넣어서 그 풀어져 가면 또 배출 잘라넣어서 쒀 가서 익어. 그러면 다 익어갈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간 맞춰서 먹는 게 그게 갱죽이고 갱죽 별다른 거 아니?)

107032 @ 으.(으.)

107032 #3 쏠이민 쏠 대로 또 쌩차 그 쏠, 쏠 시친 버릇이 엇엇어. 좁쏠이나 곤쏠이나 싯엇주, 뭐 좁쏠 ᄀᆞ튼 건 안 싯언 먹으난게.(쌀이면 쌀 대로 또 날짜 그 쌀, 쌀 씻은 버릇이 없었어. 좁쌀이나 흰쌀이나 씻었지, 뭐 좁쌀 같은 건 안 씻어서 먹으니까.)

107032 @ 음.(음.)

107032 #3 좁쏠도 죽을 쒕 먹곡 보리쏠도 죽 쒕 먹곡 죽 안 쑤는 건 원 엇어.(좁쌀도 죽을 쒀서 먹고 보리쌀도 죽 쒀서 먹고 죽 안 쑤는 건 전혀 없어.)

107032 @ 음.(음.)

107032 #3 ᄆᆞ물쏠도 죽 쒕 먹곡. 게민 그자 물 끓여가민 쏠 놔근에 또 끌여가민 그게 죽이 뒈는 거. ᄂᆞ물 놓젠 허민 국죽을 놓젠 허민 ᄂᆞ물 무지려놩 ᄂᆞ물 익으민 쏠도 익으민 ᄂᆞ물도 익으민 그게 죽 뭰 거. 간 맞촹 먹으민 뒈는 거.(메밀쌀도 죽 쒀서 먹고. 그러면 그저 물 끓여 가면 쌀 넣어서 또 끓여 가면 그게 죽이 되는 거. 배추 넣으려고 하면 갱죽을 넣으려고 하면 배추 무질러 넣어서 배추 익으면 쌀도 익으면 배추도 익으면 그게 죽 된 거. 간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

107032 @ 게난 옛날에는 그런 국죽을 하영 헹 먹엇어예?(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갱죽을 많이 해서 먹었지요?)

107032 #3 그런 죽을 많이 먹엇어. 엇인 사름은 그렇게 허멍 살앗어.(그런 죽을 많이 먹었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7032 #1 그 식량을 늘리기 위헤서 허는 거.(그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107032 @ 예.(예.)

107032 #1 식량 늘리기 위헤서.(식량 늘리기 위해서.)

107032 #3 예, 옛날에 흔, 흔 밧 풀지 말고 흔 입 덜렌 헷주. 흉년에.(예, 옛날에 한, 한 밭 팔지 말고 한 입 덜라고 했지. 흉년에.)

107032 @ 아아.(아아.)

107032 #3 흔 밧 풀지 말고 흔 입 덜라고. 밧 ᄒᆞ나 ᄑᆞ는 돈이 얼마 가진 안 허난 흔 사름 안 먹는 게 젤 유익허다는 말로 그 말 ᄀᆞᆫ는 거. 쉬정 한 딘 잘도 곤란헨 살앗수다게.(한 밭 팔지 말고 한 입 덜라고. 밭 하나 파는 돈이 얼마 가진 안 하니까 한 사람 안 먹는 게 젤 유익하다는 말로 그 말 말하는 거. 숫자 많은 덴 잘도 곤란해서 살았습니다.)

107032 @ 흔 밧 풀지 말고 흔 밧, 흔 입 덜라.(한 밭 팔지 말고 한 밭, 한 입 덜어라.)

107032 #3 흔 입을 덜라.(한 입을 덜어라.)

107032 @ 음.(음.)

107032 #3 그게 다 의미 잇는 말 아니우꽈? 이 베운.(그게 다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이 배운.)

107032 @ 예.(예.)

107032 #3 어른덜이난 셍각헤 봅서.(어른들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7032 @ 예.(예.)

107032 #3 우리도 어른덜안티 베운 말.(우리도 어른들한테 배운 말.)

107032 @ 음, 게난 얼마나 이 먹는 입이예?(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먹는 입이요?)

107032 #3 먹는 게 경 어려운 거.(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107032 @ 예.(예.)

107032 #3 오죽 헤서 도둑질 허곡 ᄂᆞᆷ의 거 좁아 먹엉 매 맞고 징역 가고 헙니까? 이 허기는 파지민 츰지 못허는 게 그게 그렇게.(오죽 해서 도둑질 하고 남의 거 집어 먹어서 매 맞고 징역 가고 합니까? 이 허기는 파지면 참지 못하는 게 그게 그렇게.)

107032 @2 옛날 들은 말 중에는 어, 노름 뒤는 대어도, 노름 뒤는 대어도.(옛날 들은 말 중에는 어, 노름 뒤는 대어도, 노름 뒤는 대어도.)

107032 #3 예, 예.(예, 예.)

107032 @2 먹는 놈 뒤는 대지 말라고.(먹는 놈 뒤는 대지 말라고.)

107032 #1 예, 술값은 대지 말렌 헙주.(예, 술값은 대지 말라고 합지요.)

107032 @ 예.(예.)

107032 #3 그거는 웨냐허면은 노름 뒤는 게도 잇는 놈이 노름은 협주양. 없는 놈은 돈도 주지 아녕 노름을 못협니다게.(그거는 왜냐하면 노름 뒤는 그래도 있는 놈이 노름은 합지요. 없는 놈은 돈도 주지 않아서 노름을 못합니다.)

107032 @ 예.(예.)

107032 #3 겨고 잇는 놈이 술은 먹엉 망창거려도 술값은 웨상 줘 놩 받질 못협니다게.(그러고 있는 놈이 술은 먹어서 흥청거려도 술값은 외상 줘 놓아서 받질 못합니다.)

107032 @ 음.(음.)

107032 #3 게고 노름 뒤는 당허면은 밧이고 집이고 다 들러 앗입니다.(그러고 노름 뒤는 당하면 밭이고 집이고 다 들어 갖습니다.)

107032 @ 음.(음.)

107032 #3 우리도 영감 경허멍 이 사름 알다시피 우리 완전, 완전 이 섯동네서 부자라나수다. 아방이 노름헤영 올딱 망혜변 시방 남은 거 집 ᄒᆞ나.(우리도 영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알다시피 우리 완전, 완전 이 '섯동네'서 부자였었습니다. 아버지(남편)가 노름해서 쫄딱 망해버려서 시방 남은 거 집 하나.)

107032 @ 웃음.(웃음.)

107032 #3 나도 정역[324] 하영 헷수다. 웃음.(나도 징역살이 많이 했습니다. 웃음.)

107032 @ 게난 노름 뒤 대단 보난 다 끗나불언.(그러니까 노름 뒤 대단 보니까 다 끝나버렸어.)

107032 #3 노름 뒤 다 허연 노름허단 보난 다 망혜불엇주.(노름 뒤 다 해서 노름하다가 보니까 다 망해버렸지.)

(잡음)

107032 @ ᄒᆞᆫ 밧 풀지 마랑 ᄒᆞᆫ 입 덜라.(한 밭 팔지 말고 한 입 덜어라.)

107032 #3 ᄒᆞᆫ 밧 풀지 마랑 ᄒᆞᆫ 입 덜라. 우리도 아인 땐 그 말을 몰란. 우리 할머니가 막 그런 유식헌 말을 잘 골아낫어. 게난 할머니 거 말 무신 말? 아이고, 속솜허라, 느 이제 들어도 잊어분다. 살아가민 알아진다, 알아진다. 살아가난 구짝 알아져.(한 밭 팔지 말고 한 입 덜어라. 우리도 아일 땐 그 말을 몰라서. 우리 할머니가 아주 그런 유식한 말을 잘 말했었어. 그러니까 할머니 거 말 무슨 말? 아이고, 조용해라, 느 이제 들어도 잊어버린다. 살아가면 알아진다, 알아진다. 살아가니까 곧게 알아져.)

107033 @ 살아가난 구짝 알아젼. 웃음. 예, 그런 식으로 허고. 여기는 산간이니까 꿩죽 같은 것도 헹 먹어시커라예?(살아가니까 곧게 알아졌어. 웃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산간이니까 '꿩죽' 같은 것도 해서 먹었겠네요?)

---

324) '정역'은 '징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남편 뒷바라지를 '징역살이'에 비유하여 '정역'이라고 쓴 것 같다.

107033 #1 꿩죽도.(‘꿩죽’도.)
107033 #3 꿩죽 나 많이 쒓주.(‘꿩죽’ 내 많이 쒔지.)
107033 @ 어.(어.)
107033 #1 이디가 아방 산 때 꿩을.(여기가 아버지(남편) 산 때 꿩을.)
107033 @ 어떵 헨에 꿩죽.(어떻게 해서 ‘꿩죽’.)
107033 #1 잘 잡주.(잘 잡지.)
107033 @ 아아.(아아.)
107033 #3 꿩을 죽을 쑤는디 꿩죽도 여라 가지주게. 그걸 끌여가지고 뜯어 놩 쑤면은 고기도 죽이고 뭐 쏠도 죽이고 다 뒈고. 경 아년 그대로 그자 쏠에 그 꿩만 놩 솖앙 그것이 쏠 익으민 죽이 뒈는디, 게민 고긴 고기대로 죽은 죽대로 먹는 거.(꿩을 죽을 쑤는데 ‘꿩죽’도 여러 가지지. 그걸 끓여가지고 뜯어 넣어서 쑤면 고기도 죽이고 뭐 쌀도 죽이고 다 되고. 그렇게 않아서 그대로 그저 쌀에 그 꿩만 넣어서 삶아서 그것이 쌀 익으면 죽이 되는데, 그러면 고긴 고기대로 죽은 죽대로 먹는 거.)
107033 @ 음.(음.)
107033 #3 것도 경 뒈는 거.(것도 그렇게 되는 거.)
107033 @ 그거 말앙 다른 죽도 쒀 봐신가마씨?(그거 말고 다른 죽도 쒀 봤는가요?)
107033 #3 다른 죽 무신 죽?(다른 죽 무슨 죽?)
107033 @ 뭐 겡이죽이여 이런 것들도.(뭐 ‘게죽’이다 이런 것들도.)
107033 #3 겡이죽[325]도 쒀봣주.(‘게죽’도 쒀봤지.)
107033 @ 으.(으.)
107033 #3 겡이는 바당에 강 겡일 잡아당 우린 사 먹어보진 못허난 잡아다근에 가믄 많이 잇어. 돌 일르민. 방에로 영 져. 절구로 져.(게는 바다에 가서 게를 잡아다가 우린 사 먹어보진 못하니까 잡아다가 가면 많이 있어. 돌 일으키면. 방아로 이렇게 찧어. 절구로 찧어.)
107033 @ 예.(예.)
107033 #3 져근에 또 물 짜근에.(찧어서 또 물 짜서.)
107033 @ 음.(음.)
107033 #3 그 물 또 끌여근에 쏠 놩 죽 쑤민은 그것이 그 겡이죽에도 기름이 들어가야주. 꿩죽에도 독죽에도 참기름 안 들엉은 맛이 없곡.(그 물 또 끓여서 쌀 넣어서 죽 쑤면 그것이 그 ‘게죽’에도 기름이 들어가야지. ‘꿩죽’에도 닭죽에도 참기름 안 들어서는 맛이 없고.)
107033 @ 아.(아.)
107033 #3 참기름 안 든 것은 맛이 없어. 아무것에도.(참기름 안 든 것은 맛이 없어. 아무것에도.)

325) ‘겡이죽’은 게를 으깨서 얻은 육수에 쌀을 넣어서 끓인 죽을 말한다.

107033 @ 아무것도. 으, 전복죽도?(아무것도. 으, 전복죽도?)

107033 #3 아, 국죽 ᄀᆞ튼, 전복죽도, 문어죽도.(아, 갱죽 같은, 전복죽도, 문어죽도.)

107033 @ 음.(음.)

107033 #3 나가 죽대장[326]이주. 죽을 많이 쒀봣어.(내가 '죽대장'이지. 죽을 많이 쒀봤어.)

107033 @ 예, 삼춘 쒀 본 죽 골아봅서? 어떤 거 쒀봐신지?(예, 삼촌 쒀 본 죽 말해보십시오? 어떤 거 쒀봤는데?)

107033 #3 소고기죽.(소고기죽.)

107033 @ 으.(으.)

107033 #3 셍선죽 문어죽 전복죽 꿩죽 독죽. 아이고 다 못 세켜.(옥돔죽 문어죽 전복죽 꿩죽 닭죽. 아이고, 다 못 세겠다.)

107033 @ 웃음.(웃음.)

107033 #3 웃음. 장어죽게. 영감이 그 위 수술 헤부난에 위 혼짝 짤라부난 죽벳긴 못 먹으난 삼십년 넘언 죽으로만 사난에 죽을 들꿰죽 허여 꿰죽도 쒀 뭐 콩죽도 쒀 풋죽도 쒀 죽엔 헌 건 다 쒀봐시난.(웃음. 장어죽. 영감이 그 위 수술 해버리니까 위 한쪽 잘라버리니까 죽밖에 못 먹으니까 삼십년 넘어서 죽으로만 사니까 죽을 들깨죽 해 참깨죽도 쒀 뭐 콩죽도 쒀 팥죽도 쒀 죽이라고 한 건 다 쒀봤으니까.)

107033 @ 죽대장 맞인게마씨?('죽대장' 맞는데요?)

107033 #3 죽대장이라 죽대장.('죽대장'이야 '죽대장'.)

107033 @2 삼십 년마씨?(삼십 년요?)

107033 @ 예.(예.)

107033 #3 죽대장. 겐디 이 하르방이 그냥 죽도 못헷어. 사고 난 경운기 사고 난. 유공잔디 풀 혼짝 짤라젼. 경운기 사고 난 그만 장 파열뒈연 죽어불언.('죽대장'.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죽도 못했어. 사고 나서 경운기 사고 났어. 유공잔데 팔 한쪽 잘라져서. 경운기 사고 나서 그만 장 파열되어서 죽어버렸어.)

107033 @ 아.(아.)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아이쿠, 그다음엔예? 옛날 범벅은 어떤 것덜?(아이쿠, 그다음에는요? 옛날 범벅은 어떤 것들?)

107034 #3 범벅은 무신거 범벅이주. ᄒᆞ쏠허멍 범벅ᄀᆞ치, 멍청헌 게 범벅 아니?(범벅은 무엇 범벅이지. 조금하면서 범벅같이, 멍청한 게 범벅 아니?)

107034 @ 멍청헌 게 범벅이우꽈? 웃음.(멍청한 게 범벅입니까? 웃음.)

107034 #3 범벅은 식은밥도 먹당 남으면은.(범벅은 찬밥도 먹다가 남으면.)

107034 @ 으.(으.)

326) '죽대장'은 죽을 많이 쑨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07034 #3 그 물에 놩 끌여근에 ᄆᆞ멀ᄏᆞ르 놩 젓으면은 소금 놓곡 그건 소금 놩.(그 물에 넣어서 끓여서 메밀가루 넣어서 저으면 소금 넣고 그건 소금 넣어서.)

107034 @ 으.(으.)

107034 #3 젓으민 범벅.(저으면 범벅.)

107034 @ 예.(예.)

107034 #3 그거주게, 무시거게.(그거지, 무엇.)

107034 #1 고구마도 허곡.(고구마도 하고.)

107034 #3 고구마도 또 이제 범벅 헤먹젠 허민 고구마 썰어놔근에 솟듸서 숨다근에 고구마 익어 가민 ᄀᆞ를 ᄆᆞ멀ᄏᆞ른 간단히 익주게.(고구마도 또 이제 범벅 해먹으려고 하면 고구마 썰어놔서 솥에서 삶다가 고구마 익어 가면 가루 메밀가루 간단히 익지.)

107034 @ 예.(예.)

107034 #3 놩 ᄀᆞ르 익으민 젓으면은 소금 놓곡 젓으면은 그것도 범벅.(넣어서 가루 익으면 저으면 소금 넣고 저으면 그것도 범벅.)

107034 @ 건 감저범벅이고.(건 고구마범벅이고.)

107034 #3 놈삐범벅도 어떵 허느냐 허민 새 비레 갈 때.(무범벅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띠 베러 갈 때.)

107034 @ 예.(예.)

107034 #3 새 알아집니까?(띠 알아집니까?)

107034 @ 예.(예.)

107034 #3 새 비레 갈 때는 겨울에 춥주.(띠 베러 갈 때는 겨울에 춥지.)

107034 @ 으.(으.)

107034 #3 추우면은 그 무수허여근에 ᄆᆞᄆᆞᄏᆞ르 범벅을 헤영 가얍니다게. 뚯뚯허게 요샌 무신 옛날에 아이스박스가 무시거 잇엇어. 요샌 아이스박스. 경허민 그 ᄆᆞᄆᆞᄏᆞ르 헤근에 무수 썰어놔근에 범벅을 헤여. 똘똘 쌍 가근에 놧다근에 또 새 빌 땐 거 정심으로 먹엉 오곡 경헤낫수다.(추우면 그 무해서 메밀가루 범벅을 해서 가얍니다. 따뜻하게 요샌 무슨 옛날에 아이스박스가 무엇 있었어. 요샌 아이스박스. 그렇게 하면 그 메밀가루 해서 무 썰어놔서 범벅을 해. 똘똘 싸서 가서 놨다가 또 띠 벨 땐 거 점심으로 먹어서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34 @2 뭐, 뭐에 쌍 갑니까?(뭐, 뭐에 싸서 갑니까?)

107034 #1 옷, 옷입주. 대개 이 저 보따리.(옷, 옷이지요. 대개 이 저 보따리.)

107034 #3 그땐 비니루도 엇고양.(그땐 비닐도 없고요.)

107034 #1 보따리, 보따리, 보따리.(보따리, 보따리, 보따리.)

107034 #3 대차반이[327] 잇지 안 허우꽈? 대차반이 요만큼 헌 거 잇어.('대차반이' 있지 아니 합니까? 대차반이 요만큼 한 거 있어.)

107034 @ 예.(예.)

327) '대차반이'는 대나무오리로 결은 채롱을 말한다.

107034 #3 이시민 그 차반이에 범벅을 퍼놩. 그레 이제 옷으로 톨톨 쌍.(있으면 그 '차반지'에 범벅을 퍼놓아서. 그리로 이제 옷으로 톨톨 싸서.)

107034 @ 음.(음.)

107034 #3 또 쌍 또 쌍 또 쌍 많이 쌍은에 구덕에 딱 담앙.(또 싸서 또 싸서 또 싸서 많이 싸서 바구니에 딱 담아서.)

107034 @ 아.(아.)

107034 #3 졍 강 김치 쪼가리나 무신 춤ᄂᆞ물 헤영 김치나 쪼끔 허영 아지곡 헹강 내놩 그거 먹곡 요기 달렌 일헨 왓수다게.(져서 가서 김치 쪼가리나 무슨 무청 해서 김치나 조금 해서 가지고 해서 가서 내놓아서 그거 먹고 요기 달래서 일해서 왔습니다.)

107034 @ 아, 점심으로 그 범벅을 아져가는 거라예?(아, 점심으로 그 범벅을 가져가는 거네요?)

107034 #3 또 무시거 아져왐시니, 이거?(또 무엇 가져오고 있니, 이거?)

107034 #4 아니 꿀차 먹어도 원 맛이 엇어.(아니 꿀차 먹어도 전혀 맛이 없어.)

107034 #3 게난 또 무시거? 무신 차라 이건? 마차라?(그러니까 또 무엇? 무슨 차야, 이건? '마차'야?)

107034 #1 아, 이거 이거 흔 잔씩 먹엉 헙서.(아, 이거 이거 한 잔씩 먹어서 하십시오.)

107034 @2 쪼끔 쉬엇다 허자.(조금 쉬었다 하자.)

107034 #1 쪼금 쉬여.(조금 쉬어.)

107034 @ 예.(예.)

107034 #1 ᄀᆞ르만 틀린 거주.(가루만 다른 거지.)

107034 @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범벅 종류는 아까 무신 범벅 무신 범벅 헌 거?(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범벅 종류는 아까 무슨 범벅 무슨 범벅 한 거?)

107034 #3 모멀펌벅.(메밀범벅.)

107034 @ 예.(예.)

107034 #1 느젱이범벅.(나깨범벅.)

107034 #3 느젱이범벅.(나깨범벅.)

107034 @ 예.(예.)

107034 #3 그 말앙 무신 범벅? 또.(그 말고 무슨 범벅? 또.)

107034 #1 범벅이엔 헌 건 종류가 별로.(범벅이라고 한 건 종류가 별로.)

107034 @ 감저범벅.(고구마범벅.)

107034 #1 감저 놓민 감저.(고구마 넣으면 고구마.)

107034 #3 감저범벅이 느젱이범벅이 무수 놩 허곡 감저 이건 원.(고구마범벅이 나깨범벅이 무 넣어서 하고 고구마 이건 원.)

107034 #1 감저도 놩 허곡.(고구마도 넣어서 하고.)

107034 #3 놓고 싶은 냥 허는 거난. 감저 놔도 뒈는 거 무수 놔도 뒈는 거. 배

추 놩은 못허는 거 범벅.(넣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고구마 넣어도 되는 거. 무 넣어도 되는 거 배추 넣어서는 못하는 거 범벅.)

107034 @ 음.(음.)

107034 #3 경허는 거고. 느젱이에도 감저 놩 범벅헤도 좋고 또 그 기냥 그 곤ᄆᆞᆯᄏᆞ르[328]에 그 감저 놩 허면 더 맛잇고 무수 놩 헤도 맛이 싯고 그거는. 곤ᄆᆞᆯ코르에.(그렇게 하는 거고. 나깨도 고구마 넣어서 범벅해도 좋고 또 그 그냥 그 '곤ᄆᆞᆯᄏᆞ르'에 그 고구마 넣어서 하면 더 맛있고 무 넣어서 해도 맛이 있고 그거는. '곤ᄆᆞᆯ코르'에.)

107034 @ 음.(음.)

107034 #3 경허곡 밀ᄀᆞ르에도 범벅을 헐 수가 잇주. 밀ᄀᆞ르에도 감저 ᄀᆞ뜬 거도 좋고 지슬도 좋고. 뭐 아무 거라도 놩 헤도 뒈주게. 범벅은 다 ᄀᆞ튼 거.(그렇게 하고 밀가루에도 범벅을 할 수가 있지. 밀가루에도 고구마 같은 거도 좋고 감자도 좋고. 뭐 아무 거라도 넣어서 해도 되지. 범벅은 다 같은 거.)

107034 @ 게난 범벅은 이런 감저나 ᄀᆞ르나 영 서꺼근에 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범벅은 이런 고구마나 가루나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군요?)

107034 #3 소금 놓곡 그자 허민 범벅.(소금 넣고 그저 하면 범벅.)

107035 @ 여기는 저 ᄌᆞ베기헙니까? 저베기헙니까?(여기는 저 'ᄌᆞ베기'합니까? '저베기'합니까?)

107035 #3 저베기[329]. 궁둥저베기[330]. 궁둥저베기는 ᄆᆞ멀ᄏᆞ르 카가지고 뜨박뜨박[331] 숟까락으로 거려놔근에 허는 거가 궁둥저베기고.('저베기'. '궁둥저베기'. '궁둥저베기'는 메밀가루 타가지고 '뜨박뜨박' 숟가락으로 떠 넣어서 하는 것이 '궁둥저베기'고.)

107035 @ 예.(예.)

107035 #3 또 ᄆᆞ멀ᄏᆞ르로 밀어가지고 칼로 썰민은.(또 메밀가루로 밀어가지고 칼로 썰면.)

107035 #1 칼국수.(칼국수.)

107035 #3 아주 칼국수 헌 건 거 국수엔 허는 거.(아주 칼국수 한 건 거 국수라고 하는 거.)

107035 @ 예.(예.)

107035 #3 ᄆᆞ멀국수.(메밀국수.)

107035 @ ᄆᆞ멀국수. 그 다음에 저베기도 반죽허영 손으로 끊어 논 것도 잇일 거 아니예?(메밀국수. 그 다음에 수제비도 반죽해서 손으로 끊어 넣은 것도 있을 거

328) '곤ᄆᆞᆯ코르'는 깨끗한 메밀가루라는 뜻이다. 메밀나깨에 대비하여 깨끗한 가루라는 의미로, '곤ᄆᆞᆯᄏᆞ르'라고 하였다. '곤-+ᄆᆞᆯ+ᄀᆞ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어로, 'ᄆᆞᆯ'에 'ᄀᆞ르'가 결합하면서 'ㅎ'이 첨가된 어형이다.

329) '저베기'는 수제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지역에 따라서 'ᄌᆞ베기'라고도 한다.

330) '궁둥저베기'는 메밀가루 따위에 물을 넣어서 얇게 반죽해서 물이 끓으면 숟가락으로 대강 떠 놓아서 끓인 수제비다. 기호에 따라서 배추 등을 넣어서 끓이기도 한다.

331) '뜨박뜨박'은 수제비 따위를 떠놓은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아닌가요?)

107035 #3 뜯어놓는 건. ᄆᆞᆯᄀᆞ르는 거 뜯어 놩 아녀주. 밀ᄀᆞ루벳긔.(뜯어놓는 건. 메밀가루는 거 뜯어 넣어서 않지. 밀가루밖에.)

107035 #1 밀ᄀᆞ르 놩.(밀가루 넣어서.)

107035 @ 아, 밀ᄀᆞ르벳긔 아아.(아, 밀가루밖에 아아.)

107035 #3 밀ᄀᆞ르는 뜯어놩 허주.(밀가루는 뜯어 넣어서 하지.)

107035 @ 게믄 궁둥ᄌᆞ베기는 물로만 영 캉 헤놓는 거구나예?(그러면 '궁둥ᄌᆞ베기'는 물로만 이렇게 타서 해놓는 거군요?)

107035 #1 보통 이 해산헌 여자덜.(보통 이 해산한 여자들.)

107035 #3 거 간단허게 쉬어.(건 간단하게 쉬워.)

107035 #1 해산헌 여자덜 즉시 건 헤당 주주.(해산한 여자들 즉시 건 해다가 주지.)

107035 @ 아, 해산헐 때?(아, 해산할 때?)

107035 #3 솟듸 불 솜앙 물 끌여가가멍 이거 확확 헤가곡 허여가곡 거려놔가멍 허여놩은에 ᄂᆞ물[332]이라도 그디 확 무지려 놓곡 간장 놓곡 간 맞춰근에 기자 확 먹는 거.(솥에 불 때서 물 끓여가면서 이거 확확 해가고 해가고 떠놓아가면서 해놓아서 나물이라도 거기 확 무질러서 넣고 간장 넣고 간 맞춰서 그저 확 먹는 거.)

107035 @ 으음.(으음.)

107035 #1 대개 그 해산헌 여자덜만.(대개 그 해산한 여자들만.)

107036 @ 예, 애기 났을 때 궁둥ᄌᆞ베기 헹 먹고예. 그 다음에 칼국수 혼번 밀어봅서. 어떤 식으로?(예, 아기 낳았을 때 '궁둥ᄌᆞ베기' 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 한번 밀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107036 #3 칼국수도게 ᄀᆞ르 ᄀᆞᆯ앙근에게 꼭꼭 달롸근에 방멩이로 밀엉.(칼국수도 가루 갈아서 꼭꼭 달라서 방망이로 밀어서.)

107036 @ 예.(예.)

107036 #3 칼로 짤랑.(칼로 짤라서.)

107036 @ 으.(으.)

107036 #3 똑똑 썰엉은에. 물 삭삭 끓이민 그레 들이쳥.(똑똑 썰어서. 물 펄펄 끓으면 그리 집어넣어서.)

107036 @ 음.(음.)

107036 #3 끓이민 국수주, 무시거. 간장 놓곡.(끓이면 국수지, 무엇. 간장 넣고.)

107036 @ 칼국수는?(칼국수는?)

107036 #2 거기도 계란에 풀어 놓곡 기름이라도 쪼끔 더 맛싯게. 야튼 쪽판 들어가야 뒈여. 꿰허곡.(거기도 계란에 풀어 넣고 기름이라도 조금 더 맛있게. 하여튼 쪽파는 들어가야 되어. 참깨하고.)

107036 @ 음, 칼국수는.(음, 칼국수는.)

---

332) 'ᄂᆞ물'은 표준어 '나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배추의 의미로 쓰인 건 같다.

107036 #3 꿰 놔야 맛이 잇어.(참깨 넣어야 맛이 있어.)

107036 @ 예전에 꿩도 놩 칼국수 헹 먹엇수가? 여기서.(예전에 꿩도 넣어서 칼국수 해서 먹었습니까? 여기서.)

107036 #1 꿩 좋주. 췌고주.(꿩 좋지. 최고지.)

107036 #3 꿩사 좋주게.(꿩이야 좋지.)

107036 #1 췌고주.(최고지.)

107036 #3 꿩도 그거. 꿩은 뜯어놔근에.(꿩도 그거. 꿩은 뜯어놔서.)

107036 @ 거는 꿩칼국수?(거는 꿩칼국수?)

107036 #3 찍어 놩도. 쌩으로 찍어 놩 끓이다근에 그 국수 꿩 끓여지면은 그 ᄆᆞᆯᄀᆞ르 놀 거 썰어논 거 놩 끌려도 국수주만은 그 대충은 솖아 놔근에 뜯어 놩 헌 게 꽝 뻬다귀도 안 들고 좋주게.(찍어 넣어서도. 생으로 찍어 넣어서 끓이다가 그 국수 꿩 끓여지면 그 메밀가루 날 거 썰어놓은 거 넣어서 끓여도 국수지만 그 대충은 삶아 넣어서 뜯어 넣어서 한 게 뼈 뼈다귀도 안 들고 좋지.)

107036 @ 예. 뜯어놩은에 헌 거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예. 뜯어놔서 한 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김치

107037 @ 삼춘, 여기서는 짐치 ᄀᆞ튼 거는 어떤 걸로 헤먹엇수가?(삼촌, 여기서는 김치 같은 거는 어떤 걸로 해먹었습니까?)

107037 #3 짐치 베추도 허고 무도 허고.(김치 배추도 하고 무도 하고.)

107037 @ 그 두 가지. 짐치는?(그 두 가지. 김치는?)

107037 #3 김친 베추 베추 무벳귄 더 헐 게 잇어?(김친 배추 배추 무밖엔 더 할 게 있어?)

107037 @ 아, 아까 저기 파 쪽파는?(아, 아까 저기 파 쪽파는?)

107037 #3 쪽파는 쪽파김치는 아무나 못허주게, 것도. 그건 기자 쪽파는 이녁이 조그만이 싱것다가 양념이나 먹고.(쪽파는 쪽파김치는 아무나 못하지, 것도. 그건 그저 쪽파는 이녁이 조그맣게 심었다가 양념이나 먹고.)

107037 @ 으.(으.)

107037 #3 뭐허고. 기자 마늘은 대산이 그 성읍리 잘 안 뒈난에. 저레만 대산이 잘 뒈주게.(뭐하고. 그자 마늘은 '대산(大蒜)'이 그 성읍리 잘 안 되니까. 저리로만 마늘은 잘 되지.)

107037 #1 그 풀마농, 풀마농지시 많이 헷주.(그 달래, 달래장아찌 많이 했지.)

107037 #3 풀마농지시. 그 풀마농.(달래장아찌. 그 달래.)

107037 @ 풀마농지시로.(달래장아찌.)

107037 #3 달래. 그거 헤단 많이 옛날에 헤연 먹어낫주.(달래. 그거 해다가 많이 옛날에 해서 먹었었지.)

107037 @ 음.(음.)

107037 #3 그거 동[333] 사민은 동이 꾸질꾸질[334] 사. 게민 잘도 맛잇어. 헤당.(그거 '동' 서면 줄기가 '꾸질꾸질' 서. 그러면 잘도 맛있어. 해다가.)

107037 #1 건 뭰장에 헤근에.(건 된장에 해서.)

107037 #3 소금에, 소금에 죽이면서.(소금에, 소금에 죽이면서.)

107037 @ 게민 동 산 걸로도 지시.(그러면 '동' 선 걸로도 장아찌.)

107037 #3 동 산 걸로 지시 허민 경 맛이 좋아.('동' 선 걸로 장아찌 하면 그렇게 맛이 좋아.)

107037 @ 거 얼마 뒈지도 안찮읍니까? 요만큼 헌 거.(거 얼마 되지도 아니 하잖습니까? 요만큼 한 거.)

107037 #1 아니 막 뿌리차 캐주게.(아니 막 뿌리째 캐지.)

107037 @ 아아.(아아.)

107037 #3 아, 요즘은 약을 많이 하영 허니까 밧듸 별로 안 나주게.(아, 요즘은 약을 많이 많이 하니까 밭에 별로 안 나지.)

107037 #1 전인 많이 나낫주.(전에는 많이 났었지.)

107037 #3 근삼이[335] 치곡 요즘 제초제 헤부난 안 나도 그 전에는 약이란 게 전혀 없으니까 전부 아주 이거는 원원 친환경농법이라, 바로.('근삼이' 치고 요즘 제초제 해버리니까 안 나도 그 전에는 약이란 게 전혀 없으니까 전부 아주 이거는 원원 친환경농법이야, 바로.)

107037 @ 예.(예.)

107037 #3 아무것도 아니 헤영 그자.(아무것도 아니 해서 그저.)

107037 @ 으.(으.)

107037 #3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난 막 잘뒈주게. 그게.(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주 잘되지. 그게.)

107037 @ 으, 게믄 동 삿덴 헌 게 이 마농 그 뿌리를 동삿덴 헌 거?(으, 그러면 '동' 섰다고 한 게 이 달래 그 뿌리를 '동' 섰다고 한 거?)

107037 #3 불휘가 이거 영 조꼼씩 봉오지 나올 때.(뿌리가 이거 이렇게 조금씩 봉오리 나올 때.)

107037 @ 예.(예.)

107037 #3 그때 캐다근에 그 드릇마농 헤당 드릇마농이엔 허여.(그때 캐다가 그 달래 해다가 '드릇마농'이라고 해.)

107037 @ 예.(예.)

107037 #3 풀마농 헤당은에.(달래 해다가.)

107037 #1 오월달 뒈민 동 사.(오월 되면 '동' 서.)

107037 #3 허민은 지시를 허민은 그렇게 맛. 아이고, 보리밥에 거 먹으민 잘도 맛 좋아. 벌겅허게 익어.(하면 장아찌를 하면 그렇게 맛. 아이고, 보리밥에 거 먹으

333) '동'은 달래 따위의 속 줄기를 말한다.
334) '꾸질꾸질'은 속 줄기가 위로 뻗어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35) '근삼이'는 제초제의 이름이다.

면 잘도 맛 좋아. 벌겋게 익어.)

107037 @ 음.(음.)

107037 #3 헹 놔두민 봄이 헹 놔두민 보리 ᄀᆞ슬 들엉 보리를 장만허영 그거 밥헹 먹을 때 먹으민 맛이 좋주게.(해서 놔두면 봄에 해서 놔두면 보리 가을 들어서 보리를 장만해서 그거 밥해서 먹을 때 먹으면 맛이 좋지.)

107037 @ 게믄 그게 이렇게 그 뿔리 똥글락헌 걸로 지시를?(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 뿌리 동그란 걸로 장아찌를?)

107037 #3 똥글락헌 거는 아니고.(동그란 거는 아니고.)

107037 #1 똥글랑헌 거 아녀고.(동그란 거 않고.)

107037 #3 거는 놔둬야 다시 나주.(거는 놔둬야 다시 나지.)

107037 @ 음.(음.)

107037 #3 그냥 캐다가.(그냥 캐다가.)

107037 #1 바로 우로 캐주게.(바로 위로 캐지.)

107037 @ 음.(음.)

107037 #3 캐당. 그 뿌리가 빠불민 따시 날 거 없는디. 웃음. 옛날 어른덜도 머리 쓰멍 살앗주게.(캐다가. 그 뿌리가 뽑아버리면 다시 날 거 없는데. 웃음. 옛날 어른들도 머리 쓰면서 살았지.)

107037 @ 게난 잠깐예? 다시, 동 삿덴 헌 말은 무엇 동 삿덴 허는 거우꽈? 동?(그러니까 잠깐요? 다시, '동' 섰다고 한 말은 무엇 '동' 섰다고 하는 겁니까? '동'?)

107037 #1 이 대.(이 대.)

107037 #3 대 올라오지.(대 올라오지.)

107037 @2 줄기.(줄기.)

107037 #1 대 올라오주게.(대 올라오지.)

107037 @ 아아.(아아.)

107037 #1 쫑. 쫑.(장다리, 장다리.)

107037 #3 쫑, 쫑.(장다리, 장다리.)

107037 @ 쫑.(장다리.)

107037 #1 쫑이 올라온덴 허니까.(장다리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107037 @ 그 쫑을 동 삿덴 허는 거우꽈?(그 장다리를 '동' 섰다고 하는 겁니까?)

107037 #3 쫑이라고 헌 게 옛날 어른덜 말은 동이라. 동.(장다리라고 한 게 옛날 어른들 말은 '동'이야. '동'.)

107037 @ 예에.(예에.)

107037 #3 요즘은 쫑인디 옛날은 동. 아이고야, 풀마농 동 삼쩌. 우리 마농 캐레 가게. 강 캐당 지시 허게. 우리 경허멍 뎅겨난.(요즘은 '쫑'인데 옛날은 '동'. 아이고야, 달래 '동' 서고 있다. 우리 달래 캐러 가자. 가서 캐다가 장아찌 하자. 우리 그렇게 하면서 다녔었어.)

107037 @2 게민 멍덕[336]허고, 멍덕 비슷헙니까? 게민.(그러면 '멍덕'하고, '멍덕' 비슷합니까? 그러면.)

107037 #1 멍석?(멍석?)

107037 @2 멍덕. 저 아까 대산이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 이만큼 큰 거 잇잖우꽈?('멍덕'. 저 아까 마늘이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 이만큼 큰 거 있잖습니까?)

107037 #1 예, 그런 것도 잇어요. 그게 씨주게, 씨.(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씨지, 씨.)

107037 @ 건 씨.(건 씨.)

107037 #1 씨.(씨.)

107037 @ 여기서는 멍덕이렌은 안 곧는 거구나예?(여기서는 '멍덕'이라고는 안 말하는 거군요?)

107037 #1 아니.(아니.)

107037 @ 게난 그 쫑 그 동 산 걸로 지시를 담은 거구나. 요즘은 동 사믄 캐지도 안 허는디예?(그러니까 그 장다리 그 '동' 선 걸로 장아찌를 담근 거구나. 요즘은 '동' 서면 캐지도 안 하는데요?)

107037 #1 패마농, 저, 저 풀마농은 쪼금 동 사야 양도 좀 많아지고.(쪽파, 저, 저 쪽파는 조금 '동' 서야 양도 좀 많아지고.)

107037 #3 풀마농 동 안 사민은.(달래 '동' 안 서면은.)

107037 @ 예.(예.)

107037 #3 지시.(장아찌.)

107037 #1 양도 얼마 안 허주게.(양도 얼마 안 하지.)

107037 #3 지시 허여도 양도 족고 지시가 맛이 없어.(장아찌 해도 양도 적고 장아찌가 맛이 없어.)

107037 #1 맛도 엇고.(맛도 없고.)

107037 @ 아아.(아아.)

107037 #3 그 쫑이 나와야 맛잇주.(그 장다리가 나와야 맛있지.)

107037 #1 어릴 때는 그냥 데펴 먹는 거벳긴.(어릴 때는 그냥 데워 먹는 거밖에는.)

107037 @ 그거를 이제예, 동 상은에 게믄 영 짤랑 왕은에.(그거를 이제요, '동' 서서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와서.)

107037 @2 지금 픈 거 보면 그 알멩이 뿌리에 똥글락헌 거. 것까지 다 메영 오는디마씨?(지금 판 거 보면 그 알맹이 뿌리에 동그란 거. 것까지 다 매어서 오는데요?)

107037 #3 건 재배허는 거.(건 재배하는 거.)

107037 #1 건 재배허는 거 아니우까?(건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107037 @2 아.(아.)

336) '멍덕'은 마늘이나 달래의 속 줄기에서 생긴 열매를 일컫는 말이다.

107037 #1 건 씨로 재배헙니다. 씨로.(건 씨로 재배합니다. 씨로.)
107037 #1 건 재배허는 거 아니우꽈?(건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107037 #1 그거는 매해에 뿌리차 파불어.(그거는 매해에 뿌리째 파버려.)
107037 @2 으음.(으음.)
107037 #1 경헤낭 내년엔 또 씨로 파종허곡.(그렇게 해두고 내년엔 또 씨로 파종하고.)
107037 @ 게난 옛날 헐 때는 그 뿔리는 놔두고 위로.(그러니까 옛날 할 때는 그 뿌리는 놔두고 위로.)
107037 #1 음 경헤야 뒷헤[뒤테] 나주게.(음 그렇게 해야 이듬해 나지.)
107037 @ 예, 영 짤랑예?(예, 이렇게 잘라서요?)
107037 #3 옛날은 밧듸서 자연, 지대로 자체로 나오는 거난 허고 요즘은 재배허는 거난 상관엇인 거.(옛날은 밭에서 자연, 저대로 자체로 나오는 거니까 하고 요즘은 재배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107038 @ 예, 알앗수다. 그다음 삼춘 그 ᄂᆞᄆᆞᆯ짐치, 옛날도 하영 헷잖아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삼촌 그 배추김치, 옛날도 많이 했잖아요?)
107038 #3 예.(예.)
107038 @ ᄂᆞᄆᆞᆯ짐치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배추김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38 #3 어떤 식으로 허여 뭐. 엿날식이나 지금 식이나 기자 대산이 엿날은게 그자 벨 거 놀 건 엇언 그자 젓갈이나 좀 놓곡 멜첫.(어떤 식으로 해 뭐. 옛날식이나 지금 식이나 그저 마늘 옛날은 그저 별 거 놓을 건 없어서 그저 젓갈이나 좀 넣고 멸치젓.)
107038 @ 음.(음.)
107038 #3 그거나 놓주. 새우젓 그런 것도 엇고 그냥. 멜젓은 이젠 바당에서 나니깐 그거 놓곡. 뭐 마늘, 꿰, 고추. 그것만 놩 그자 아무것도 딴 거 안 놔.(그거나 놓지. 새우젓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멸치젓은 이젠 바다에서 나니깐 그거 넣고. 뭐 마늘, 참깨, 고추. 그것만 넣어서 그저 아무것도 딴 거 안 놔.)
107038 @ 음, 김장도 그런 식으로예?(음, 김장도 그런 식으로요?)
107038 #3 김장김치 경 허영.(김장김치 그렇게 해서.)
107038 @ 으.(으.)
107038 #3 게민 맛이 더 좋아, 요즘보다 더 맛이 좋아.(그러면 맛이 더 좋아, 요즘보다 더 맛이 좋아.)
107038 @ 예, 삼춘네는 제사도 하영 허니까 김장도 하영 헤실 거라예?(예, 삼촌네는 제사도 많이 하니까 김장도 많이 했을 거네요?)
107038 #3 아이고, 우린 김장도 식구도 많이 살아나고 많이 헤낫수다.(아이고, 우린 김장도 식구도 많이 살았었고 많이 했었습니다.)
107038 @ 음, 그 김장허는 ᄂᆞᄆᆞᆯ은 김장ᄂᆞᄆᆞᆯ엔 헙니까?(음, 그 김장하는 배추는

김장배추라고 합니까?)
107038 #1 베추, 베추.(배추, 배추.)
107038 @ 베추.(배추.)
107038 #3 베추. 속앚는베치.(배추. 결구배추.)
107038 #1 그건 갈앙 이제도 갈지.(그건 갈아서 이제도 갈지.)
107038 @ 예, 속앚는베치예. 속앚는베치.(예, 결구배추요. 결구배추.)
107038 #3 우린 갈안에.(우린 갈아서.)
107038 #1 이녁냥으로 재배허주.(이녁대로 재배하지.)
107038 #3 저 나 원 우스운 말 ᄀᆞᆫ주. 스물닷 말, 스물닷 말 드는 거엔 허민 대승, 대승 스물닷 말이민 소두로 스무닷 말이민 대두로 멧 말이라.(저 나 원 우스운 말 말하지. 스물다섯 말, 스물다섯 말 드는 거라고 하면 대승, 대승 스물다섯 말이면 소두로 스물다섯 말이면 대두로 몇 말이야.)
107038 #1 열 갭주게.(열 갭지요.)
107038 #3 열 갠가?(열 갠가?)
107038 #1 대두가 두 말가웃짜리 아니우꽈?(대두가 두 말가웃짜리 아니우꽈?)
107038 #3 그만 그 항으로 ᄒᆞ나 짐치 하나 담안에 문지레기 먹어낫수다. 우리 식구가 많으난.(그만 그 항으로 하나 김치 하나 담가서 모조리 먹었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107038 @ 으.(으.)
107038 #3 장도 많이 담아낫수다. 그런 항으로 장 두 개썩 담앙 놔두민 또 아방 먹엉 오랑 왕 광질헤영 탁 부수와불민 또 새로 담고.(장도 많이 담갔었습니다. 그런 항아리로 장 두 개씩 담가서 놔두면 또 아버지(남편) 먹어서 와서 와서 광질 해서 탁 부숴버리면 또 새로 담그고.)
107038 @ 웃음.(웃음.)
107038 #1 장은 식구 ᄒᆞᆫ 사름당 콩 ᄒᆞᆫ 말을 계산허주.(장은 식구 한 사람당 콩 한 말을 계산하지.)
107038 @ 어, 일인당 ᄒᆞᆫ 말씩예?(어, 일인당 한 말씩이요?)
107038 #1 예.(예.)
107038 @ 아아.(아아.)
107038 #1 그 정도로 장을 담아야 뒈여.(그 정도로 장을 담가야 되어.)
107038 #3 장을 많이 안 담으면은.(장을 많이 안 담그면.)
107038 #1 장으로벳긘 먹을 게 엇이난.(장으로밖엔 먹을 게 없으니까.)
107038 #3 겐디 옛날은 요즘은 가게에 사레 가주마는 옛날은 장 살 디도 엇어.(그런데 옛날은 요즘은 가게에 사러 가지만 옛날은 장 살 데도 없어.)
107038 @ 예.(예.)
107038 #3 살 디도 엇어.(살 데도 없어.)
107038 @ 맞아예?(맞아요?)

107038 #3 나 거라사만, 나 거사라만.(내 거여야만, 내 거여야만.)
107038 @ 음, 음. 여기는 짐치를 뭐렌 헤낫수가? 여기에서 옛날에.(음, 음. 여기는 김치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기에서 옛날에.)
107038 #3 아, 김친 김치주, 무신.(아, 김친 김치지, 무슨.)
107038 @ 뭐 징뀌 이런 말도 헤?(뭐 '징뀌' 이런 말도 해?)
107038 #3 짐끼.(김치.)
107038 #1 짐끼. 짐끼.(김치. 김치.)
107038 @ 짐끼.(김치.)
107038 #3 징뀌.(김치.)
107038 #1 옛날 할망덜은 징뀌엔 헤낫어.(옛날 할머니들은 '징뀌'라고 했었어.)
107038 #3 옛날 할망덜은 우린 짐끼 말은 별로 안 골아보고 그자 김치 김치헨 살아와신디.(옛날 할머니들은 우린 '짐끼' 말은 별로 안 말해보고 그저 김치 김치해서 살아왔는데.)
107038 #1 김치엔 허주.(김치라고 하지.)
107038 @ 짐끼, 옛날은예?('짐끼', 옛날은요?)
107038 #1 우리 어린 땐 할망덜 김끼헤낫어.(우리 어릴 땐 할머니들 '김끼'했었어.)
107038 @ 예, 김끼예.(예, '김끼'요.)
107038 #3 이제도 짐끼엔 허는 할망 잇어. 성읍 노인당에도.(이제도 '짐끼'라고 하는 할머니 있어. 성읍 노인당에도.)
107038 #1 막 할망덜.(막 할머니들.)
107038 #3 징뀌엔 허는 할망 잇어.('징뀌'라고 하는 할머니 있어.)
107038 @ 징뀌예.('징뀌'요.)
107038 #3 아, 징뀐 무신 징뀌라게. 웃음.(아, '징뀌'는 무슨 '징뀌'야. 웃음.)
107038 @ 웃음. 어, 징뀌렌도 허메예? 예.(웃음. 어, '징뀌'라고도 한다고요? 예.)
107038 #3 징뀌엔 헙니다. 우리 세계.('징뀌'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
107039 @ 그다음에 삼춘 그 요즘은 열무짐치 허지만은 옛날은 춤ᄂᆞ물짐치? 춤ᄂᆞ물로도 짐치 헤먹엇수가?(그다음에 삼촌 그 요즘은 열무김치 하지만 옛날은 '춤ᄂᆞ물짐치'? 무청으로도 김치 해먹었습니까?)
107039 #1 열무, 열무엔 헌 게 엇엇주, 옛날은.(열무, 열무라고 한 게 없었지, 옛날은.)
107039 #3 옛날은 열무가 엇엇주.(옛날은 열무가 없었지.)
107039 #1 무우허고 베추벳긔는 종자가 없어.(무하고 배추밖에는 종자가 없어.)
107039 #3 여름 나민 김치가 엇어, 엿날엔.(여름 되면 김치가 없어, 옛날엔.)
107039 @ 아아.(아아.)
107039 #3 겨울에 죽어불민.(겨울에 죽어버리면.)
107039 #1 옛날 여름엔 대산이지시.(옛날 여름엔 마늘장아찌.)

107039 @2 예.(예.)
107039 #3 대산이지시, 풀마농지시 그거.(마늘장아찌, 달래장아찌 그거.)
107039 #1 그거벳긘 엇주게.(그거밖엔 없지.)
107039 @ 그거만 헤영 이제 허고예. 그, 게난 예전에는 안헷지만 요즘은 경헤도 그 춤ᄂᆞ물짐치 허잖아예?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그거만 해서 이제 하고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도 그 무청김치 하잖아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39 #1 춤ᄂᆞ물짐치 지금 잘 안허주.(무청김치 지금 잘 안하지.)
107039 #3 춤ᄂᆞ물짐치도 총각짐치.(무청김치도 총각김치.)
107039 @ 썹으로예?(잎으로요?)
107039 #3 총각짐치, 총각짐치도 그자 그 식으로 헤영 먹주게, 그자 뭐.(총각김치, 총각김치도 그저 그 식으로 해서 먹지, 그저 뭐.)
107040 @ 물짐치도 헷수가?(물김치도 했습니까?)
107040 #1 물짐치도 좋주게.(물김치도 좋지.)
107040 @ 물짐치는 뭘로 허는 거?(물김치는 무엇으로 하는 거?)
107040 #3 물짐치는 무.(물김치는 무.)
107040 @ 으.(으.)
107040 #3 무 까까불곡 얇게 썰어가지고 또 배나 하나 서끄곡 요즘 옛날엔 그런 것도 엇어신디 요즘은 물짐치 경 헤영 먹주게.(무 깎아버리고 얇게 썰어가지고 또 배나 하나 섞고 요즘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물김치 그렇게 해서 먹지.)
107040 @ 어, 옛날에 뭐 잔치 때 물짐치 여기 안 헤낫수가?(어, 옛날에 뭐 잔치 때 물김치 여기 안 했었습니까?)
107040 #1 아니.(아니.)
107040 @ 안헨?(안 했어?)
107040 #3 저 옛날엔 안 허영 중간엔 좀 잇주.(저 옛날엔 안 해서 중간엔 좀 있지.)
107041 @ 으, 중간엔 허고예? 동지ᄂᆞ물로도 짐치.(으, 중간엔 하고요? 봄동으로도 김치.)
107041 #3 동지ᄂᆞᄆᆞᆯ짐친[337] 더 맛 좋고.('동지ᄂᆞᄆᆞᆯ짐치'는 더 맛 좋고.)
107041 #1 동짐치[338]. 동짐치.('동짐치'. '동짐치'.)
107041 #3 동짐치.('동짐치'.)
107041 @ 동지짐치?('동지짐치'?)
107041 #1 으, 동.(으, '동'.)
107041 @ 아, 동짐치?(아, '동짐치'?)

337) '동지ᄂᆞᄆᆞᆯ짐치'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338) '동짐치'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는 '동지ᄂᆞᄆᆞᆯ짐치'를 '동짐치'라고 하였다.

107041 #3 동짐치. 동ᄂᆞᆯ짐치.(‘동짐치’. ‘동ᄂᆞᆯ짐치’.)

107041 @ 으, 으, 으, 으.(으, 으, 으, 으.)

107041 #3 봄 나민 동 거꺼가지고.(봄 되면 ‘동’ 꺾어가지고.)

107041 #1 그게 동짐치.(그게 ‘동짐치’.)

107041 #3 소금에 죽엿당 것도 그 양념 그 식으로 헹은에 거 맛십니다. 그거. 맛십니다. 그거.(소금에 죽였다가 것도 그 양념 그 식으로 해서 거 맛있습니다. 그거. 맛있습니다. 그거.)

107041 @ 으음.(으음.)

107041 #3 그 늦도록 먹는 거.(그 늦도록 먹는 거.)

107041 @ 겨니까 베추 올라온 걸로 헤근에예.(그러니까 배추 올라온 걸로 해서요.)

107041 #3 베추 올라온 걸로.(배추 올라온 걸로.)

107041 @ 으음.(으음.)

107041 #1 무숫동[339]도 헤영 허여. 무숫동[무수똥].(‘뭇동’도 해서 해. ‘뭇동’.)

107041 @ 무수동으로?(‘뭇동’으로?)

107041 #1 무수도 동이 올라오주게.(무도 ‘동’이 올라오지.)

107041 @ 예.(예.)

107041 #1 그걸로도 헤여.(그것으로도 해.)

107041 @ 그거 아, 그 짐치는 어떤 식으로 헤야 맛 좋아마씨?(그거 아, 그 김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맛 좋아요?)

107041 #3 원 그 식 기자. 짐치 식은 그 식.(원 그 식 그저. 김치 식은 그 식.)

107041 @ 아, 물 여기에서는 그 소금에 절여얄 거 아니우꽈예? 어떤 식으로 절여낫수가? 여기는?(아, 물 여기에서는 그 소금에 절여야 할 거 아닙니까요? 어떤 식으로 절였었습니까? 여기는?)

107041 #3 소금물 카근에게.(소금물 타서.)

107041 @ 예.(예.)

107041 #3 ᄂᆞ물 듬북듬북 적정 동은 적져근에 그냥 놧다가 누르떵 놧다가 또 뒈쌍 누르뜨고 뒈쌍 누르뜨곡 헤근에 죽으민 뒈는 거고. 이 퍼기 짐치는 듬북듬북 적정 영 벨라가지고 소금 산산 허껑 톡톡허게시리 가리쳥 놧당 꽉 눌렁 놧당은에 또 거 죽주게.(배추 담북담북 적셔서 ‘동’은 적셔서 그냥 놨다가 눌러서 놨다가 또 뒤집어서 누르고 뒤집어서 누르고 해서 죽으면 되는 거고. 이 포기 김치는 담북담북 적셔서 이렇게 벌여가지고 소금 산산 흩어서 톡톡하게끔 뒤집어서 놨다가 꽉 눌러서 놨다가 또 거 죽지.)

107041 @ 예.(예.)

107041 #3 죽으민 또 뒤집어. 뒤집으민 잘 죽을 거 아니? 덜 죽은 거 허민은 김치 맛이 엇어.(죽으면 또 뒤집어. 뒤집으면 잘 죽을 거 아니? 덜 죽은 거 하면 김치

339) ‘무숫동’은 무의 연한 장다리를 말한다.

맛이 없어.)

107041 @ 아.(아.)

107041 #3 잘 허싹[340] 죽으면은 활활 헤왕 건져가지고 물 빠지믄 버무리믄 뒈는 거.(잘 '허싹' 죽으면 활활 헹궈서 건져가지고 물 빠지면 버무리면 되는 거.)

107042 @ 게난 이제 봄에는 그 동짐치가 맛 좋은 거예? 건데 그게 ᄂᆞ물동이나 아까 놈삐 그 뭇동이나 이제 썽 하고. 그다음에 놈삐짐치는 어떤 식으로 담읍니까?(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그 '동짐치'가 맛 좋은 거네요? 그런데 그게 '배춧동'이나 아까 무 그 '뭇동'이나 이제 써서 하고. 그다음에 무김치는 어떤 식으로 담급니까?)

107042 #3 놈삐짐친 뭐 깍두기도 헤 먹곡. 그자 또 굵게 썰엉.(무김치는 뭐 깍두기도 해 먹고. 그저 또 굵게 썰어서.)

107042 @ 으.(으.)

107042 #3 그것이 더 맛은 좋아. 뜨박뜨박 썰엉은에 그자 것ᄀᆞ라 놈삐짐치옌 허여. 놈삐짐치.(그것이 더 맛은 좋아. 뜨박뜨박 썰어서 그저 것보고 무김치라고 해. 무김치.)

107042 @ 예, 놈삐짐치.(예, 무김치.)

107042 #3 것도 양념이 그 식.(것도 양념이 그 식.)

107042 @ 똑ᄀᆞ타. 게난 것도 놈삐짐치도 소금에 절입니까?(똑같아. 그러니까 것도 무김치도 소금에 절입니까?)

107042 #3 아니, 그건 소금 쫌 헤사주게.(아니, 그건 소금 좀 해야지.)

107042 @ 으.(으.)

107042 #3 소금 쪼끔 헤야만 놈삐가 그거 무시거 물을 좀 빠져벼야 그 김치 맛이 나주. 경 아녀민 무 맛으로만은 무가 좋은 건 맛이 좋아도 궂인 건 맛이 엇어게.(소금 조금 해야만 무가 그거 무엇 물을 좀 빠져버려야 그 김치 맛이 나지. 그렇게 않으면 무 맛으로만 무가 좋은 건 맛이 좋아도 궂은 건 맛이 없어.)

107042 @ 음.(음.)

107042 #3 게난 소금 헹 놔두민 무우에 물이 나와.(그러니까 소금 해서 놔두면 무에 물이 나와.)

107042 @ 음.(음.)

107042 #3 게민 확 건져가지고 그거 버무리민 뒈는 거.(그러면 확 건져가지고 그거 버무리면 되는 거.)

107042 @ 으음. 놈삐는 깍데기보다는 뚜껍게 헌 게 맛 좋아예?(으음. 무는 깍두기보다는 두껍게 한 게 맛 좋아요?)

107042 #3 뚜꺼운 게 맛이 잇어.(두꺼운 게 맛이 있어.)

107042 @ 음.(음.)

107042 #3 뜨박뜨박 짤라먹는 게. 젊은 사름덜 얼마나 맛잇게.(뜨박뜨박 잘라먹는 게.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맛있게.)

---

340) '허싹'은 '알맞게 잘'의 의미로 쓰였다.

107042 @ 예.(예.)
107042 #3 우리 아이덜은 그런 거 잘 먹어나신디.(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먹었었는데.)
107043 @ 으, 그러면 아까 파짐치 쪽파짐치는 안 혜?(으, 그러면 아까 파김치 쪽파김치는 안 해?)
107043 #3 쪽파짐치는 벨로. 무사 허긴 헤도 건 젓갈에 헤야 맛싯주.(쪽파김치는 별로. 왜 하긴 해도 건 젓갈에 해야 맛있지.)
107043 @ 으.(으.)
107043 #3 그 다른 양념에 허민 맛이 엇어.(그 다른 양념에 하면 맛이 없어.)
107043 @ 음.(음.)
107043 #3 주로 멜젓이 많이 들어가야.(주로 멸치젓이 많이 들어가야.)
107043 @ 멜젓에예? 아까 그러면은 그 풀ᄂᆞ물은 지만 혜먹고 짐치는 안 혜마씨?(멸치젓이요? 아까 그러면 그 풋나물은 장아찌만 해먹고 김치는 안 해요?)
107043 #3 짐치.(김치.)
107043 #1 풀ᄂᆞ물은 짐치는 안 허고.(풋나물은 김치는 안 하고.)
107043 #3 맛엇어.(맛없어.)
107043 @ 아, 맛엇어예?(아, 맛없어요?)
107043 #1 그자 국이나 끌렁 먹곡 데쳥이나 먹곡 허주.(그저 국이나 끓여서 먹고 데쳐서나 먹고 하지.)
107044 @ 그러면은 풀ᄂᆞ물 그 지 헐 때는 어떤 식으로 지 허는 거우꽈? 그거는?(그러면 풋나물 그 장아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장아찌 하는 겁니까? 그거는?)
107044 #3 풀ᄂᆞ물지 안 혜봣는디.(풋나물장아찌 안 해봤는데.)
107044 @2 저.(저.)
107044 @ 아니 풀ᄂᆞ물이 아니고 풀.(아니 풋나물이 아니고 풀.)
107044 @2 아, 풀마농.(아, 달래.)
107044 @ 풀마농.(달래.)
107044 #3 아아 풀마농.(아아 달래.)
107044 @ 으.(으.)
107044 #3 풀마농지는 풀마농 데쳥 데평 무쳐도 먹곡 풀마농 젤 맛 좋은 거.(달래장아찌는 달래 데쳐서 데쳐서 무쳐도 먹고 달래 젤 맛 좋은 거.)
107044 @ 어.(어.)
107044 #3 그거는.(그거는.)
107044 @ 게난?(그러니까?)
107044 #3 저 지시 헐 때는 아까 말 아녀게? 저 쫑 올라오라가민.(저 장아찌 할 때는 아까 말 안했어? 저 장다리 올라와가면.)
107044 @ 어.(어.)
107044 #3 캐다근에 그것을 기냥 허지 아녕 ᄌᆞ져, ᄌᆞ져.(캐다가 그것을 그냥 하

지 않고 맺어, 맺어.)
107044 @ 예.(예.)
107044 #3 즈져근에 이 소금물에 꼭꼭 허영 적지멍 허영 꼭 누르떠근에 돌 딱 지둘뢍 놔두면은 그것이 익으민 누렁케 맛이 좋아. 아무것도 안 놔도.(맺어서 이 소금물에 꼭꼭 해서 적시면서 해서 꼭 누르면 돌 딱 지질러서 놔두면 그것이 익으면 누렇게 맛이 좋아. 아무것도 안 넣어도.)
107044 @ 거는 소금물에?(거는 소금물에?)
107044 #3 소금물에.(소금물에.)
107044 @ 아, 소금물에 그거만 담앙은에 익으믄?(아, 소금물에 그거만 담가서 익으면?)
107044 #3 익으면 맛이 영 좋아.(익으면 맛이 이렇게 좋아.)
107044 @ 거 풀마농지시 뒈는 거.(거 달래장아찌 되는 거.)
107044 #3 그건 지 맛으로 먹는 거.(그건 장아찌 맛으로 먹는 거.)
107045 @ 아아, 지시 그거예. 그다음에 여기도 갓. 갓을 여기서 뭐렌 헤낫수가?(아아, 장아찌 그거요. 그다음에 여기도 갓. 갓을 여기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107045 #1 삿갓.(삿갓.)
107045 @ 아니, 삿갓 말고 짐치 허는?(아니, 삿갓 말고 김치 하는?)
107045 @2 저 갓김치 허는.(저 갓김치 하는.)
107045 #1 갓 썻젠. 갓 썻젠. 아 갓 썻젠.(갓 썼다고. 갓 썼다고. 아 갓 썼다고.)
107045 #3 여기 갓짐친 안 헤봔?(여기 갓김친 안 해봤어요?)
107045 #1 갓김친 안 헤여.(갓김친 안 해.)
107045 @ 갯ᄂᆞ물 으.(갓 으.)
107045 @2 갯ᄂᆞ물.(갓.)
107045 #1 갯ᄂᆞ물 거 이디 안 헤여.(갓 거 여기 안 해.)
107045 #3 갯ᄂᆞ물짐치는 그거.(갓김치는 그거.)
107045 #1 이디 잘 아녀.(여기 잘 않아.)
107045 #3 베랑 허는 사름 엇주. 김치 헐 때 그 양념에.(별로 하는 사람 없지. 김치 할 때 그 양념에.)
107045 #1 양념엔 좀 놓주마는.(양념엔 좀 놓지마는.)
107045 #3 양념에 그 서껀 허난에 것도 궨차년 건디 으라 번 헤가진 좋아 베지 아년 우리도 서껀 헤보지 아년.(양념에 그 섞어서 하니까 것도 괜찮은 건데 여러 번 해가진 좋아 보이지 않아서 우리도 섞어서 해보지 않았어.)
107046 @ 제주도 사름은 서껑 잘 안 헤예? 그다음에 세우리도 짐치헤낫수가?(제주도 사람은 섞어서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부추도 김치 했었습니까?)
107046 #3 것도 맛 좋아.(것도 맛 좋아.)
107046 @ 아.(아.)
107046 #3 것도 젓갈로 헤야 맛이 좋아.(것도 젓갈로 해야 맛이 좋아.)

107046 @ 아, 세우리는 젓갈로 이제 허면 뒈는 거고예? 그다음에 으 뭐 ᄂᆞᆯ짐치나 무짐치는 다 그 계절은 언제 헤갖고 허는 거?(아, 부추는 젓갈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으 뭐 배추김치나 무김치는 다 그 계절은 언제 해갖고 하는 거?)

107046 #3 계절?(계절?)

107047 @ 예, 어느 계절에 ᄂᆞ, 저기 ᄂᆞᆯ짐치 허는 거우과?(예, 어느 계절에 배, 저기 배추김치 하는 겁니까?)

107047 #3 ᄂᆞᆯ짐친 하여튼 동지 전이 헤야주.(배추김친 하여튼 동지 전에 해야지.)

107047 @ 동지 전의.(동지 전에.)

107047 #3 동지.(동지.)

107047 @ ᄂᆞᆷ삐는?(무는?)

107047 #3 ᄂᆞᆷ삐는 동지 넘어도 궨차녀고.(무는 동지 넘어도 괜찮고.)

107047 @ 음.(음.)

107047 #3 옛날에는 요즘은 속앚는ᄂᆞᆯ이난 궨찮아도 옛날에는 동지 전이 아녀민 그 ᄂᆞᆯ이 좀 쏙이 잘 안 앚이난.(옛날에는 요즘은 결구배추니까 괜찮아도 옛날에는 동지 전에 않으면 그 배추가 좀 속이 잘 안 앉으니까.)

107047 @ 음.(음.)

107047 #3 퍼렁헌 것이 벌겅허질 아년덴 헤도 동지 전의 헤도 요즘은 그자 동지 지나도 그자 십이월들에만 허민 뒈는 거.(퍼런 것이 벌겋질 않는다고 해도 동지 전에 해도 요즘은 그저 동지 지나도 그저 십이월에만 하면 되는 거.)

107047 @ 음, 게난 예전 같은 경우는 짐치 헐 때 보면 바당 동네는, 예, 바당에 강은에.(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김치 할 때 보면 바다 동네는, 예, 바다에 가서.)

107047 #3 그게 더 좋은 거.(그게 더 좋은 거.)

107047 @ 어.(어.)

107047 #3 우리도 경헤난. 난산리 막 가까우난.(우리도 그렇게 했었어. 난산리 막 가까우니까.)

107047 #1 소금이 덜 들주게.(소금이 덜 들지.)

107047 #3 ᄂᆞᆯ 혼 짐 잔뜩 졍가근에 그 동글랑통[341]이라 잇주기.(배추 한 짐 잔뜩 져가서 그 '동글랑통'이라 있지.)

107047 @ 예.(예.)

107047 #3 그디 강 들이쳐근에 막 돌 지둘놧다근에 혼 이틀 잇당 강 죽으민 강 건져당은에 거기서 싯엉 오랑 김치헤낫주게.(거기 가서 집어넣어서 막 돌 지질러두었다가 한 이틀 있다가 가서 죽으면 가서 건져다가 거기서 씻어서 와서 김치를 했

341) '동글랑통'은 난산리 지경의 바닷물이 고이는 통이다. 이 통을 이용하여 난산리 사람들은 겨울에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였었다.

었지.)

107047 @ 으.(으.)

107047 #3 소금 안 드는 거.(소금 안 드는 거.)

107047 @ 소금 안 드는 거.(소금 안 드는 거.)

107047 #1 소금 덜 들주.(소금 덜 들지.)

107047 #3 김치 더 맛잇고.(김치 더 맛있고.)

107047 @ 예.(예.)

107047 #3 나 것도 헤봔. 우리 난산리 살멍.(나 것도 해봤어. 우리 난산리 살면서.)

107047 @ 게난 그 김장할 때 그냥 좀 맛 좋게 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 담앙 먹엇수가?(그러니까 그 김장할 때 그냥 좀 맛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담가서 먹었습니까?)

107047 #3 맛 좋게 허젠 허민게 요즘 닮으민 뭐 이것저것 뭐 새우젓도 놓곡 뭐 무신 액젓도 놓고 무신거도 놓고 막 메리치도 딸령 뭐 다시다에 뭐 무시거여 그럭저럭 허민 맛이 좋주게.(맛 좋게 하려고 하면 요즘 같으면 뭐 이것저것 뭐 새우젓도 넣고 뭐 무슨 액젓도 넣고 무엇도 넣고 막 멸치도 달여서 뭐 '다시다'에 뭐 무엇이 다 그럭저럭 하면 맛이 좋지.)

107047 @ 옛날에는 그런 거는 안 헤봇수가?(옛날에는 그런 거는 안 해봤습니까?)

107047 #3 옛날엔 그런 거 엇어.(옛날엔 그런 거 없어.)

107047 #1 그런 거 어디 셔?(그런 거 어디 있어?)

107047 @ 아, 안 허고예?(아, 안 하고요?)

107047 #3 제맛에 먹언 살안. 제맛에.('제맛'에 먹어서 살았어. '제맛'에.)

107047 @2 웃음. 제맛에. 웃음.(웃음. '제맛'에. 웃음.)

107047 @ 제맛에. 게난 * 속앚인ᄂᆞ물도 허고 속앚지 않은 ᄂᆞ물은 무슨 ᄂᆞ물 헙니까?('제맛'에. 그러니까 * 결구배추도 하고 속 앉지 않은 배추는 무슨 배추 합니까?)

107047 #1 퍼데기[342].('퍼데기'.)

107047 #3 퍼데기ᄂᆞ물[343]이주마는 속앚인ᄂᆞ물은 짐치도 봄 나사 맛잇주, 겨울엔 맛엇어. 퍼렁허연.('퍼데기ᄂᆞ물'이지마는 결구배추는 김치도 봄 되어야 맛있지, 겨울엔 맛없어. 퍼래서.)

107048 @ 아, 퍼데기는?(아, '퍼데기'는?)

107048 #3 봄 나사 익엉 맛잇주.(봄 되어야 익어서 맛있지.)

젓갈

342) '퍼데기'는 속이 차지 않는 배추를 말한다.

343) '퍼데기ᄂᆞ물'은 속이 차지 않는 배추를 말한다. 줄여서 '퍼데기'라고도 한다.

107048 @ 음, 그런 식으로 허고. 우리 제주도는 젓갈도 하영 담앗잖아예?(음,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제주도는 젓갈도 많이 담갔잖아요?)

107048 #3 젓갈 허주게.(젓갈 하지.)

107048 @ 어떤 젓갈 담아봇수가?(어떤 젓갈 담가봤습니까?)

107048 #3 제ᄉᆞ 때에.(제사 때에.)

107048 @2 아니우다.(아닙니다.)

107048 @ 아니. 바당에.(아니. 바다에.)

107048 @2 자리젓 멜첫.(자리젓 멸치젓.)

107048 #3 아, 자리젓 멜첫 거벳긘 아녀봔.(아, 자리젓 멸치젓 것밖에는 안 해봤어.)

107049 @ 아, 두 개? 자리젓은 어떤 식으로 허고 멜첫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 골아줍서?(아, 두 개? 자리젓은 어떤 식으로 하고 멸치젓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말해주십시오?)

107049 #3 자리젓은 어떤 식으로 이녁 뭐 자리젓은 자리에 맞게 소금도 놓곡.(자리젓은 어떤 식으로 이녁 뭐 자리젓은 자리에 맞게 소금도 넣고.)

107049 @ 게난 자리 ᄒᆞᆫ 말이면?(그러니까 자리돔 한 말이면?)

107049 #1 자리 일 키로에 소금 일 키로.(자리 일 킬로에 소금 일 킬로.)

107049 @ 아아.(아아.)

107049 @2 일 대 일.(일 대 일.)

107049 #1 음.(음.)

107049 #3 게민 좀 짜.(그러면 좀 짜.)

107049 @ 게민 짜고. 삼춘은 어떤 식으로 헤?(그러면 짜고. 삼촌은 어떤 식으로 해?)

107049 #3 일 키로에 일 키로 놓민 짠디.(일 킬로에 일 킬로 넣으면 짠데.)

107049 @ 예.(예.)

107049 #3 그자 자리가 삼 키로민 소금 이 키로만 놓민 맞아.(그저 자리돔이 삼 킬로면 소금 이 킬로만 넣으면 맞아.)

107049 @ 이 키로? 으, 게민 옛날에는 항아리에 담앗지 아녓수가예? 얼마씩 담아봇수가? 하영 담아봔?(이 킬로? 으, 그러면 옛날에는 항아리에 담그지 않았습니까? 얼마씩 담가봤습니까? 많이 담가봤어요?)

107049 #3 경 많이 못 담아봔.(그렇게 많이 못 담가봤어.)

107049 @ 아, 자리젓은 하영 안 담앗수가?(아, 자리젓은 많이 안 담갔습니까?)

107049 #3 아니 자리젓을 많이 담아야 할 필요 없고 장사 아니**. 먹을 만큼 기자.(아니 자리젓을 많이 담가야 할 필요 없고 장사 아니**. 먹을 만큼 그저.)

107049 #1 이녁 먹는 건 그렇게 많이 허질 아녀주게.(이녁 먹는 건 그렇게 많이 하질 않지.)

107049 #3 ᄒᆞᆫ 십 킬로. ᄒᆞᆫ 십 킬로 이십 킬론 담아보고.(한 십 킬로. 한 십 킬로

이십 킬론 담가보고.)
107049 @ 음, 것도 하영 담은 겁주게.(음, 것도 많이 담근 겁지요.)
107049 #3 아니, 그땐 우리 식귀 많이 살 땐 경 자리젓이 맛 좋게 허연 먹어신디 요즘은 아녀봔.(아니, 그땐 우리 식구 많이 살 땐 그렇게 자리젓이 맛 좋게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안 해봤어.)
107049 @ 요즘은 안 하고예?(요즘은 안 하고요?)
107049 @2 그때 머리는 어떵 헙니까? 머리는 뭇임, 뭇입니까?(그때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마, 맙니까?)
107049 #3 머리가 맛이 잇어.(머리가 맛이 있어.)
107049 @ 머리를 뭇앙 헙니까?(머리를 마아서 합니까?)
107049 #1 아니 그냥 그대로.(아니 그냥 그대로.)
107049 #3 아니 그냥.(아니 그냥.)
107049 @2 아니 그냥.(아니 그냥.)
107049 @ 음.(음.)
107049 #3 그냥 헷다가 이건 익으면은 양념 헐 때는 찍어 먹구정허민 찍엉 양념 헤영 먹고 그냥 먹구정허민 기냥 먹곡 경허는 거.(그냥 했다가 이건 익으면 양념할 때는 찍어서 먹고자하면 찍어서 양념 해서 먹고 그냥 먹고자하면 그냥 먹고 그렇게 하는 거.)
107049 @ 으, 경헤도 머리가 맛잇어예?(으, 그렇게 해도 머리가 맛있죠?)
107049 #3 자리는 머리가 맛잇어.(자리돔은 머리가 맛있어.)
107049 @2 게난 베는 어떵 헙니까?(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합니까?)
107049 #1 멜도 마찬가진디.(멸치도 마찬가진데.)
107049 @2 어느 동넨 가니까 머리도 뭇고 그다음 요 베설도 좁아근에예.(어느 동넨 가니까 머리도 마고 그다음 요 창자도 집어서요.)
107049 #3 안 좁아도양 경 아녀도 이 젓 허는 식이 잇입니다. 자리를 사근에 장수 오민 살 거 아니우꽈? 상 소금 딱 버무령 놔두면은 그 그릇에 아시 담지 말고 나둬 두껑 더껑 뭐 맞인 뚜껑 다라라도 더껑 놔두면은 그 자리가 녹으, 저 까지곡 물이 시커멍헌 물이 막 납니다게.(안 집어도요 그렇게 않아도 이 젓 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리돔을 사서 장사 오면 살 거 아닙니까? 사서 소금 딱 버무려서 놔두면 그 그릇에 미리 담지 말고 나둬서 뚜껑 덮어서 뭐 맞는 뚜껑 대야라도 덮어서 놔두면 그 자리가 녹으, 저 깨지고 물이 시커먼 물이 막 납니다.)
107049 @2 음, 음.(음, 음.)
107049 @ 으음.(으음.)
107049 #3 경허민 그거를 활활 헤왕 자리를 원에 담아가지고 그레 그 국물 쪼끔 뚤라 놓곡 아젱이 나쁜 건 버려베두곡 영 보민 알아져. 소금 작고 아닌 건양. 게믄 그것에 맞게 헤근에 싹 허껑 놔두민 돌 지둘렁 놔두민 간이 맞아베여.(그렇게 하면 그거를 활활 헹궈서 자리돔을 원에 담아가지고 그리로 그 국물 조금 따라 넣고

찌꺼기 나쁜 건 버려두고 이렇게 보면 알아져. 소금 적고 아닌 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해서 싹 섞어서 놔두면 돌 지질러서 놔두면 간이 맞아.)

107049 @ 으음, 돌을 딱 지둘렁 놔두는 거?(으음, 돌을 딱 지질러 놔두는 거?)

107049 @2 한 번, 한 번 헹궈야 뒈는구나.(한 번, 한 번 헹궈야 되는구나.)

107049 #3 게난 우리가 헤나난 그 식으로만 허멍 살아오난에 틀리질 아녕 산 거.(그러니까 우리가 했었던 그 식으로만 하면서 살아오니까 틀리질 않아서 산 거.)

107049 @ 게난 그 헹굴 때는 그 물에 헹구는 거지예?(그러니까 그 헹굴 때는 그 물에 헹구는 거지요?)

107049 #3 그 물에 그냥 헹광게. 다른 물에 헹구민 안 뒈주게.(그 물에 그냥 헹궈서. 다른 물에 헹구면 안 되지.)

107049 @ 그러니까.(그러니까.)

107049 #3 그것이 막 시커멍헌 물이 막 나와.(그것이 아주 시커먼 물이 막 나와.)

107049 @ 음.(음.)

107049 #3 게난 옛날엔 경 아년딘 요즘 자린 경허여게.(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않았는데 요즘 자리돔은 그렇게 해.)

107049 @ 음.(음.)

107049 #3 게민 그거 영 허여근에 경 건져근에 꼭꼭 담아나민 이제 국물이 많이 남주. 게민 저 곤 걸로만 쪼로록 뚤라불곡 아젱인 버려불곡.(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건져서 꼭꼭 담가나면 이제 국물이 많이 남지. 그러면 저 고운 걸로만 쪼로록 따라버리고 찌꺼긴 버려버리고.)

107049 @ 음, 음.(음, 음.)

107049 #3 또 영 봉 소금 족암직허고 소금 쪼끔 허꺼근에 돌 조끔 지둘롱 놔두민 간이 딱 맞아.(또 이렇게 봐서 소금 적을 듯하고 소금 조금 섞어서 돌 조금 지질러서 놔두면 간이 딱 맞아.)

107049 @ 눈으로만 봐도 간을 다 알아져예?(눈으로만 봐도 간을 다 알아지죠?)

107049 #3 눈으로만 봐도.(눈으로만 봐도.)

107049 @ 예.(예.)

107049 #3 아, 간 맞추는 거야 그 음식 헐 때 영허민 아 요거민 맞일 거다 허민 딱 맞아불지, 무신.(아, 간 맞추는 거야 그 음식 할 때 이렇게 하면 아 요거면 맞을 거다 하면 딱 맞아버리지, 무슨.)

107049 @ 그게 종가칩에서 오래 살아온?(그게 종갓집에서 오래 살아온?)

107049 #3 아니, 종가집 아니라도 음식 허는 사름은 보통 경 뒈는 거.(아니, 종갓집 아니어도 음식 하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되는 거.)

107050 @ 예, 그 다음엔 이제 멜젓은 어떵 담아수가?(예, 그 다음엔 이제 멸치젓은 어떻게 담갔습니까?)

107050 #3 멜젓은 좀 자리보단 멜이 저 소금이 좀 작게 들주.(멸치젓은 좀 자리

보단 멸치가 저 소금이 좀 적게 들지.)
107050 @ 아, 자리보단 으.(아, 자리돔보단 으.)
107050 #3 멜젓은 많이 안 담아나난 ᄌᆞ세히 무시거 허젠.(멸치젓은 많이 안 담갔었으니까 자세히 무엇 하려고.)
107050 @ 멜젓은 하영 안 담아봅디가?(멸치젓은 많이 안 담가봤습니까?)
107050 #3 그자 십 키로 정도 담앙 그자 ** 흔 오 킬로도 담고 헤나난에(그저 십 킬로 정도 담가서 그저 ** 한 오 킬로도 담그고 했었으니까.)
107050 @ 으.(으.)
107050 #3 건 간단히 헤나난.(건 간단히 했었으니까.)
107050 @ 게난 그 하영 먹는 거는 자리젓에 먹고 멜젓은 뭐 김치 헐 때나 쓰고.(그러니까 그 많이 먹는 거는 자리젓에 먹고 멸치젓은 뭐 김치 할 때나 쓰고.)
107050 #3 김치 헐 때나 먹고 저 여름에 콩입.(김치 할 때나 먹고 저 여름에 콩잎.)
107050 @ 아, 콩입에?(아, 콩잎에?)
107050 #3 콩입에 젤 맛잇어. 풀고추 콩입에 멜젓.(콩잎에 젤 맛있어. 풋고추 콩잎에 멸치젓.)
107050 @ 어.(어.)
107050 @2 콩입은 멜첫.(콩잎은 멸치젓.)
107050 #3 웃음.(웃음.)
107050 #1 예, 멜첫이 제일 좁니다.(예, 멸치젓이 제일 좁니다.)
107051 @ 삼춘, 그 아감젓도 들어봅디가?(삼촌, 그 아감젓도 들어봅디까?)
107051 #3 그런 건 아녀봔.(그런 건 안 해봤어.)
107051 @ 알게미젓.(아감젓.)
107051 #3 알게미젓 아녀봔.(아감젓 안 해봤어.)
107051 #1 먹어보긴 헷주.(먹어보긴 했지.)
107051 @ 으, 알게미젓은?(으, 아감젓은?)
107051 #1 많이 헤영 ᄑᆞ니까?(많이 해서 파니까?)
107051 @ 예, 무신 젓을 보통 허는고예? 알게미로는.(예, 무슨 젓을 보통 하는가요? 아가미로는.)
107051 #3 알게미젓엔 헌 게 그 갈치 아금지 헤영 허는 게 아니?(아감젓이라고 한 게 그 갈치 아가미 해서 하는 게 아니?)
107051 #1 갈치만 허는 게 아니라 고기 내장은 전부 젓갈, 젓갈 헙니다.(갈치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내장은 전부 젓갈, 젓갈 합니다.)
107051 #3 난 먹어보지도 안 허고.(난 먹어보지도 안 하고.)
107051 @ 아금지렌 헙니까?(아가미라고 합니까?)
107051 #3 그 알게미젓이라고 잇어. 그런 거.(그 아감젓이라고 있어. 그런 거.)
107051 @ 으.(으.)

107051 #3 먹어보진 아년.(먹어보진 않았어.)

107052 @ 예, 깅이로도 젓 헤나신가마씨? 옛날? 겡이?(예, 게로도 젓 했었는가요? 옛날? 게?)

107052 #3 겡이젓?(게젓?)

107052 @ 으.(으.)

107052 #3 겡이젓 허민 좋주마는 겡이젓은 경 쉽게 헤져? 죽은 쒀봐도 겡이젓은 아녀보고?(게젓 하면 좋지만 게젓은 그렇게 쉽게 해져? 죽은 쒀봐도 게젓은 안 해보고?)

107054 @ 죽은 쒀보고, 예. 그다음에 옛날에 출레렌 헌 말은 막 하영 헤낫어예? 어른덜이 출레?(죽은 쒀보고, 예. 그다음에 옛날에 '출레'라고 한 말은 아주 많이 했었지요? 어른들이 '출레'?)

107054 #1 장보고 출레[344]엔 허주.(장보고 '출레'라고 하지.)

107054 #3 출레는 장. 웃음.('출레'는 장. 웃음.)

107054 @ 으.(으.)

107054 #1 장보고.(장보고.)

107054 #3 출레엔 헌 건 자리젓ᄀᆞ라도 출레엔 허고.('출레'라고 한 건 자리젓보고도 '출레'라고 하고.)

107054 @ 예.(예.)

107054 #3 멜젓ᄀᆞ라도 출레엔 허고 장ᄀᆞ라도 출레엔 허는 거. 출레 짜다 헌 거.(멸치젓보고도 '출레'라고 하고 장보고도 '출레'라고 하는 거. '출레' 짜다 한 거.)

107054 @ 짠 거는 다 출레예?(짠 거는 다 '출레'요?)

107054 #3 짠 게엔 헌 게 출레.(짠 게라고 한 게 '출레'.)

107054 @2 예, 저희들 어떵헷냐 허면 그 밧듸 가면예, 거펑.(예, 저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밭에 가면요, 전복갑.)

107054 #3 예.(예.)

107054 @2 저 전복껍데기.(저 전복껍데기.)

107054 #3 예.(예.)

107054 @2 거기 고망 막아근에 자리젓을.(거기 구멍 막아서 자리젓을.)

107054 #3 예, 예.(예, 예.)

107054 @2 부글부글헙주.(부글부글합지요.)

107054 #3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54 @2 게민 더 짜. 그거면 반찬 하나면 그거민 뒈. 걸 출레 아까.(그러면 더 짜. 그거면 반찬 하나면 그거면 돼. 걸 '출레' 아까.)

107054 #3 맞수다. 출레.(맞습니다. '출레'.)

107054 @2 짠 거, 짠 거.(짠 거, 짠 거.)

---

344) '출레'는 짠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반찬'으로 풀이하지만, 장이나 멸치젓, 자리돔처럼 짠 음식을 가리키는 어휘다.

107054 #3 우리 웨갓집의가, 웨할머니가 물대왓디 살단 돌아가셔신디 가면은 우리 웨할마니가 그렇게 헤낫수다게. 게민 할머니 거, 거 무시거우과? 우리 무시거우꽈 허민, 출레 헤염저. 내놓는 거 보민 그거라.(우리 외갓집에가, 외할머니가 '물대왓'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거, 거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입니까 하면, '출레' 하고 있다. 내놓는 거 보면 그거야.)

107054 @ 으, 전복껍데기에?(으, 전복껍데기에?)

107054 #3 으 자리젓 헤근에 또 밥 뿔어가민 밥솟듸 놔근에 영 뭐헹 먹고.(으 자리젓 해서 또 밥 잦혀가면 밥솥에 넣어서 이렇게 뭐해서 먹고.)

107054 @ 음.(음.)

107054 #3 옛날 어른덜 경헹 먹언.(옛날 어른들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54 @ 밥솟듸 쳥예?(밥솥에 쪄서요?)

107054 #3 밥 우의서 쪙.(밥 위에서 쪄서.)

107054 @ 예.(예.)

107054 #3 찝니다게.(찝니다.)

107054 @ 으.(으.)

107054 #3 찌민 오곳허게 쪄지주게.(찌면 고스란히 쪄지지.)

장아찌와 회

107055 @ 예. 그다음에 삼춘, 아까 지시 담근 거는 지시 담은 거예?(예. 그다음에 삼촌, 아까 장아찌 담근 거는 장아찌 담근 거요?)

107055 #3 예.(예.)

107055 @ 아까 풀마농지시 담으고 또 무신 지시 담앗수가?(아까 달래장아찌 담그고 또 무슨 장아찌 담갔습니까?)

107055 #3 대산이지시.(마늘장아찌.)

107055 @ 대산이지시.(마늘장아찌.)

107055 #3 풀마농지시 그거벳긔 더 잇어.(달래장아찌 그거밖에 더 있어.)

107055 @ 풀마농하고 유도 지시 헷수가?(달래하고 들깨도 장아찌 했습니까?)

107055 #1 유?(들깨?)

107055 @ 으.(으.)

107055 #1 유는 아니.(들깨는 아니.)

107055 @ 유치시?(들깨장아찌?)

107055 #3 아니 건 베랑 아녀봔.(아니 건 별로 안해봤어.)

107055 @ 유는 안 헤보고. 그다음에 양에는? 양엣근.(들깨는 안 해보고. 그다음에 양하는? '양엣근'.)

107055 #3 양엣근[345]은 그자 헤먹주. 지신?('양엣근'은 그저 해먹지. 장아찌는?)

345) '양엣근'은 양하의 꽃이삭을 말한다.

107055 #1 아, 아튼 것도.(아, 하여튼 것도.)
107055 @ 것도 안 허연.(것도 안 했어.)
107055 #3 허민 맛이 잇는디 지시 허게 양엣근이 많질 안 허난 안 헤봔.(하면 맛이 있는데 장아찌 하게 '양엣근'이 많질 안 하니까 안 해봤어.)
107055 @ 아, 반치?(아, 파초?)
107055 #3 반치지는 뒌장에 묻는 거.(파초장아찌는 된장에 묻는 거.)
107055 @ 아, 반치지는 헤먹고예? 그다음에.(아, 파초장아찌는 해먹고요? 그다음에.)
107055 #3 옛날에 헤 먹어난 거.(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
107055 @ 몸은?(모자반은?)
107055 #3 으.(으.)
107055 @ 몰망.(모자반.)
107055 #1 몰망은.(모자반은.)
107055 #3 몰망은 무시거 거 헤당.(모자반은 무엇 거 해다가.)
107055 #1 국이나.(국이나.)
107055 #3 국이나 끌령 먹고 또 쌩으로도 먹주게.(국이나 끓여서 먹고 또 생으로도 먹지.)
107055 #1 쌩으로 무청이나 먹곡 그자.(생으로 무쳐서나 먹고 그저.)
107056 @ 아, 그러면 아까 이제 대산이지시는 어떵 헷수가? 대산이지시는?(아, 그러면 아까 이제 마늘장아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늘장아찌는?)
107056 #3 대산이지신 대산이 때 뒈면은 거 짤라근 좀 옛날엔 옛날 옛날 할망덜은.(마늘장아찐 마늘 때 되면 거 잘라서 좀 옛날엔 옛날 옛날 할머니들은.)
107056 @ 으.(으.)
107056 #3 소금물에 죽엿다가.(소금물에 죽였다가.)
107056 @ 예.(예.)
107056 #3 그거를 소금물 헤와둬근에 장물 꿰완 놔신디 요즘은 기자 소금 안 허영.(그거를 소금물 헹궈두고 간장 끓여서 넣었는데 요즘은 그저 소금 안 해서.)
107056 @ 으.(으.)
107056 #1 아시에 장물.(전에 간장.)
107056 #3 아시에 저 간장 끌영 뭐 마트에 강 뭐 상 일 대 일 헤근에 끌령 놓민.(전에 저 간장 끓여서 뭐 마트에 가서 뭐 사서 일 대 일 해서 끓여서 넣으면.)
107056 @ 아, 예전에는 먼저 소금에 헨 다음에 장물 놩은에 헷어예?(아, 예전에는 먼저 소금에 해서 다음에 간장 넣어서 했어요?)
107056 #1 그건 장물을 좀 덜 들일라고 그런.(그건 간장을 좀 덜 들이려고 그런.)
107056 #3 그거는 에낌으로.(그거는 아낌으로.)
107056 @ 에낌으로.(아낌으로.)

107056 #3 에낌으로 경 헌 거.(아낌으로 경 헌 거.)

107056 @ 으.(으.)

107056 #3 요즘은 에끼는 것이 맛만 싯게 허난에 경 뒈는 거.(요즘은 아끼는 것이 맛만 있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107056 @ 예, 경헹 대산이지시 하고. 아까 반치는 어떤 식으로?(예, 그렇게 해서 마늘장아찌 하고. 아까 파초는 어떤 식으로?)

107056 #3 반치는 나가 그 우리 할머니 살 때 허는 거 봣는디 난 헤보진 안 허고. 반치가 막 좋주게.(파초는 내가 그 우리 할머니 살 때 하는 거 봤는데 난 해보진 안 하고. 파초가 아주 좋지.)

107056 @ 예.(예.)

107056 #3 딱딱 굽으로 짤라근에 벳겨두곡 깨끗허게 싯어뒁 따박따박 ᄀᆞ로세로 막 썰어가지고 뒌장 헤근에 걸 딱 묻엉 놔두면 그게 익으면 여름 나면은 밥반찬.(딱딱 밑으로 잘라서 벗겨두고 깨끗하게 씻어두고 따박따박 가로세로 막 썰어가지고 된장 해서 걸 딱 묻어서 놔두면 그게 익으면 여름 되면 밥반찬.)

107056 @ 으.(으.)

107056 #3 밧듸 검질메레 갈 때 그거 흔 토막만 가졍 가민 검질 정심 반찬 헹 오주.(밭에 김매러 갈 때 그거 한 토막만 가져서 가면 김 점심 반찬 해서 오지.)

107056 @ 으.(으.)

107056 #3 웨나 물웨나 둬 개 아지곡 뒌장이나 흔 두어 숟갈 아졍 가민 걸로 반찬허영 먹엉 밥 먹엉 와.(외나 물외나 둬 개 가지고 된장이나 한 두어 숟갈 가져서 가면 걸로 반찬해서 먹어서 밥 먹어서 와.)

107056 @ 반치지시로예?(파초장아찌로요?)

107056 #3 옛날에 건. 옛날에 경 헨 살아난 거.(옛날에 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

107056 @ 요즘은 이제?(요즘은 이제?)

107056 #3 요즘 요샌 그런 거 엇고 반치도 없고 요새.(요즘 요샌 그런 거 없고 파초도 없고 요새.)

107056 @ 예.(예.)

107056 #1 반치 잇는 디가 엇주, 이제. 다 씨 져부런.(파초 있는 데가 없지, 이제. 다 씨 져버려서.)

107057 @ 여기는 이제 성읍이니까 훼 같은 거 바당에 훼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어시켜예?(여기는 이제 성읍이니까 회 같은 거 바다에 회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었겠네요?)

107057 #1 아 그런 건.(아 그런 건.)

107057 @ 뭐 자리훼여 새끼훼여. 새끼훼는 먹어시켜.(뭐 자리회다 '새끼회'다. '새끼회'는 먹었겠다.)

107057 #1 으 새끼훼[346]는 먹어신디 촌에서.(으 '새끼회'는 먹었는데 촌에서.)

107057 #3 새끼훼사 먹주마는 그거.(‘새끼회’야 먹지만 그거.)

107057 @ 예.(예.)

107057 #3 저 먹는 사름덜은 당캐[347] 강 먹어옵니다마는.(저 먹는 사람들은 ‘당캐’ 가서 먹어옵니다마는.)

107057 #1 아, 지금이난 먹으레 감주, 어디 옛날에사 어디 당캐 자리훼가 잇엇수가? 엇엇주.(아, 지금이니까 먹으러 가고 있지, 어디 옛날에야 어디 ‘당캐’ 자리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107057 @ 그 옛날 새끼훼는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먹엇던 거우과?(그 옛날 ‘새끼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먹었던 겁니까?)

107057 #3 새끼훼도 무시거게, 우리 집의 아방 그런 건 잘 먹으난 헤나신디 기자 거 새끼 도세기 요만씩 헌 거게 잡으민 잇주게.(‘새끼회’도 무엇, 우리 집의 아버지 그런 건 잘 먹으니까 했었는데 그저 거 새끼 돼지 요만씩 한 거 잡으면 있지.)

107057 @ 예, 예.(예, 예.)

107057 #3 허민 그거 칼로 꾹 찔르민 그 물이 짝 나와. 게민 물 빼여둬근에 새끼 빠내곡 봇 칼로 즘질게 썰곡 또 이제 그 새끼도 그거 막 그냥 뒈야지주게.(하면 그거 칼로 꾹 찌르면 그 물이 쫙 나와. 그러면 물 빼두고 새끼 꺼내고 태 칼로 자잘하게 썰고 또 이제 그 새끼도 그거 막 그냥 돼지지.)

107057 @ 예.(예.)

107057 #3 거 찍어놓곡 허민 그 물에 그거 허민 물이 훼가 뒈는 거 아니. 그레 양념만 허민 뒈는 거.(거 찍어넣고 하면 그 물에 그거 하면 물이 회가 되는 거 아니. 거기에 양념만 하면 되는 거.)

107057 @ 으.(으.)

107057 #3 식초 놓곡 저기 저.(식초 넣고 저기 저.)

107057 @ 새우리 놓고.(부추 넣고.)

107057 #3 간장 쪼끔 놓곡.(간장 조금 넣고.)

107057 @ 으.(으.)

107057 #3 마늘 쪼끔 놓곡 그자 고칫ᄀᆞ르 놓곡. 게민 훌훌허게 허민 시큼ᄃᆞᆯ큼허게.(마늘 조금 넣고 그저 고춧가루 넣고. 그러면 훌훌하게 하면 새콤달콤하게.)

107057 @ 음, 옛날에는.(음, 옛날에는.)

107057 #3 요새는 든 걸 안 먹어도 그때는 단 것가 없엇어게.(요새는 단 걸 안 먹어도 그때는 단 것이 없었어.)

107057 @ 예.(예.)

107057 #3 안 썻어. 제맛에 먹언 살안.(안 썼어. 제맛에 먹어서 살았어.)

107057 @ 다 제맛에예?(다 제맛에요?)

107057 #3 다 제맛에.(다 제맛에.)

---

346) ‘새끼훼’는 돼지 뱃속의 새끼를 잘게 찢어서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촛국이다.

347) ‘당캐’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포구의 하나다.

107057 @ 게난 그거 영양식이지. 요즘 말로는.(그러니까 그거 영양식이지. 요즘 말로는.)

107057 #3 제맛에 먹언.(제맛에 먹었어.)

107058 @ 그다음에 이제 영 반찬으로예. 계절에 따라서 밥반찬 헤먹엇던 거. 봄에는 주로 어떤 반찬 헤먹고 여름에는 어떤 거?(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찬으로요. 계절에 따라서 밥반찬 해먹었던 거. 봄에는 주로 어떤 반찬 해먹고 여름에는 어떤 거?)

107058 #3 벨 반찬 못 먹엇주게.(별 반찬 못 먹었지.)

107058 @ 예, 봄에 먹은 건 어떤 거, 뭐 닮수가?(예, 봄에 먹은 건 어떤 거, 뭐 같습니까?)

107058 #3 봄에도 무시거 그자 풀마농 캐당 먹고, 옛날에는. 요 엿날 풀마농 엇어진 후제도 그자 그럭저럭 무신거 마늘도 데왕 먹곡 대산이.(봄에도 무엇 그저 달래 캐다가 먹고, 옛날에는. 요 옛날 달래 없어진 후에도 그저 그럭저럭 무엇 마늘도 데쳐서 먹고 마늘.)

107058 @ 예.(예.)

107058 #3 것도 데왕 먹고게 쪽파도 허영 먹곡. 그자 ᄂᆞ물동지 거껑 솖앙 무쳥 먹곡. 쌩으로 먹는 사름 쌩으로도 먹고. 뒌장 주로 그자 목적은 장이랏주. 장.(것도 데쳐서 먹고 쪽파도 해서 먹고. 그저 배추 장다리 꺾어서 삶아서 무쳐서 먹고. 생으로 먹는 사람 생으로도 먹고. 된장 주로 그저 목적은 장이었지. 장.)

107058 @ 장이 반찬이라예?(장이 반찬이라고요?)

107058 #3 장이 반찬.(장이 반찬.)

107058 @ 여름은?(여름은?)

107058 #3 여름은게 웨냉국 허고 그자.(여름은 외냉국 하고 그저.)

107058 @ 으, 웨냉국.(으, 외냉국.)

107058 #3 여름은 그거.(여름은 그거.)

107058 @ 웨냉국. 우리 보니까 막 저기 하영 꺼꺼 먹엇선게.(외냉국. 우리 보니까 막 저기 많이 꺾어 먹었던데.)

107058 #3 콩입?(콩잎?)

107058 @ 예.(예.)

107058 #3 콩입은 거 먹는 사름 먹주 아무나 못 먹어게. 난 콩입은 잘 못 먹으난에.(콩잎은 거 먹는 사람 먹지 아무나 못 먹어. 난 콩잎은 잘 못 먹으니까.)

107058 @ 아.(아.)

107058 #3 이디 어멍 콩입 잘 먹으난 저기 다 꺼껀.(여기 어머니 콩잎 잘 먹으니까 저기 다 꺾어서.)

107058 #1 콩입을 먹어나민 버릇 낭 먹젠만 헙니다.(콩잎을 먹어나면 버릇 되어서 먹으려고만 합니다.)

107058 @ 웃음.(웃음.)

107058 #1 아, 진짜.(아, 진짜.)

107058 @ 여름에는 콩입 하영 먹고?(여름에는 콩잎 많이 먹고?)

107058 #1 예.(예.)

107058 #3 물웨 콩입 주장이주게.(물외 콩잎 주장이지.)

107058 @ 예, 가을에는?(예, 가을에는?)

107058 #3 가을에는 뭐 이것저것 먹주게. 그 가을에사 또 ᄂᆞ물도 나민 데왕 먹곡 짐치도 헹 먹곡, 거. 가을 짐치가 맛 좋아. 무신거 츰ᄂᆞ물 ᄀᆞ튼 거 나가민 뽑아근에 허민 그거 총각짐치도 허민 맛잇곡게. 그럭저럭 먹언 살앗주게.(가을에는 뭐 이것저것 먹지. 그 가을에야 또 배추도 나면 데쳐서 먹고 김치도 해서 먹고, 거. 가을 김치가 맛 좋아. 무엇 무청 같은 거 나가면 뽑아서 하면 그거 총각짐치도 하면 맛잇고. 그럭저럭 먹어서 살았지.)

107058 @ 옛날에는 고사리도 하영 꺼꺼당 먹어실 거고?(옛날에는 고사리도 많이 꺾어다가 먹었을 거고?)

107058 #3 고사리 반찬은 베랑 못 먹어보고. 꺼끔을 꺼꺼도.(고사리 반찬은 별로 못 먹어보고. 꺾음을 꺾어도.)

107058 @ 아.(아.)

107058 #1 돈 날 거난 풀앗주게.(돈 날 거니까 팔았지.)

107058 #3 풀지도 못허고 난 종가칩이난에 먹을일[348]이 워낙 하부난에 아이덜이 믄 공부 시키젠 허난 애기 오 남매 공부 시켱 내놓젠 허난 차비가 그렇게 어려와. 아방은 노름만 허레 뎅기곡. 경허난에 이제 오늘 강 꺼끈, 놀고사리 꺼꺼당 놀차 풀아야.(팔지도 못하고 난 종갓집이니까 '먹을일'이 워낙 많아버리니까 아이들이 몽땅 공부 시키려고 하니까 아기 오 남매 공부 시켜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차비가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는 노름만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가서 꺾은, 날고사리 꺾어다가 날짜 팔아야.)

107058 @ 예.(예.)

107058 #3 낼은 학생덜 표선초등학교 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보내엇어. 차비.(낼은 학생들 표선초등학교 참 중학교 고등학교 또 보내었어. 차비.)

107058 @ 음.(음.)

107058 #3 허다보민 또 중학교 졸업허난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허난 제주시레 나가가난 더 어려와 갈 거 아니게.(하다 보면 또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제주시로 나가가니까 더 어려워 갈 거 아니.)

107058 @ 음.(음.)

107058 #3 게난 고사리 풀 정신이 엇이 살안.(그러니까 고사리 팔 정신이 없이 살았어.)

107058 @ 음.(음.)

107058 #3 꺼끄지도 못허고 제우 꺼꺼오민 그자 그럭저럭허고. 헤 먹을 일만 허

348) '먹을일'은 혼사, 장사 따위의 대소사를 돌아보는 일을 말한다.

멍 살안.(꺾지도 못하고 겨우 꺾어오면 그저 그럭저럭하고. 해 먹을 일만 하면서 살았어.)

107058 @ 예에, 옛날엔 탕쉬허는 것도 호박으로도 하영 헷지 안 허우과?(예에, 옛날엔 '탕쉬'하는 것도 호박으로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107058 #3 호박도 좋주게.(호박도 좋지.)

107058 @ 예.(예.)

107058 #3 호박으로 적도 허여, 적.(호박으로 적도 허여, 적.)

107058 #1 지금도 허주.(지금도 하지.)

107058 @ 지금도 허여마씨?(지금도 해요?)

107058 #3 호박적[349].('호박적'.)

107058 @ 아, 호박적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아, '호박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58 #3 호박적게 뜨박뜨박 썰어근에 점으로 허여근에 꿰여근에.('호박적' 뜨박뜨박 썰어서 점으로 해서 꿰어서.)

107058 @2 아.(아.)

107058 #3 궝, 숫불에 궝. 그거 허곡. 묵도 메밀묵 헤근에 또.(궈서, 숯불에 궈서. 그거 하고. 묵도 메밀묵 해서 또.)

107058 #1 썰엉 놓고.(썰어서 넣고.)

107058 #3 요새는 청묵[350]이주만은.(요새는 '청묵'이지만.)

107058 @ 예.(예.)

107058 #3 옛날은 ᄀᆞ르묵[351] 헤근에 쒀근에 또.(옛날은 '가루묵' 해서 쒀서 또.)

107058 #1 고젱이 꿰영.(꼬치 꿰어서.)

107058 #3 고젱이 꿰영 숫불에 굽곡.(꼬치 꿰어서 숯불에 굽고.)

107058 @2 예, 구웡예.(예, 구워서요.)

107058 #3 또 뒈야지고기 헤영 적갈 허영 숫불에 굽고.(또 돼지고기 해서 적을 해서 숯불에 굽고.)

107058 @ 음.(음.)

107058 #3 그자 경헤도 아멩 어려와도 아멩 못 살아도 세 가지 적을 헤사난.(그저 그렇게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못 살아도 세 가지 적을 해야 하니까.)

107058 @ 예.(예.)

107058 #3 뒈야지고기허곡 호박적허고 이제.(돼지고기하고 '호박적'하고 이제.)

107058 @2 묵적.('묵적'.)

107058 #3 저 묵적허곡. 묵적은 묵적대로 허고.(저 '묵적'하고. 묵적은 묵적대로 하고.)

107058 @ 건 따로 허고.(건 따로 하고.)

---

349) '호박적'은 호박을 나풀나풀하게 썰어서 산적처럼 구운 음식을 말한다.
350) '청묵'은 메밀쌀을 불려서 나온 앙금으로 쑨 묵이다.
351) 'ᄀᆞ르묵'은 가루로 쑨 묵이다.

107058 #3 이 적만 세 가지 허젠 허민 바닷고기 가근에 무시거 아무 거라도.(이 적만 세 가지 하려고 하면 바닷고기 가서 무엇 아무 거라도.)
107058 #1 바닷고기 사당 허는 사름 잇곡.(바닷고기 사다가 하는 사람 있고.)
107058 @ 상에예?(상어요?)
107058 #1 잘사는 사름은 소고기로 허주만은 못사는 사름은.(잘사는 사람은 소고기로 하지만 못사는 사람은.)
107058 #3 소고기ᄁᆞ장은.(소고기까지는.)
107058 #1 소고기 셍각은 못허주.(소고기 생각은 못하지.)
107058 #3 소고긴 어렵고 저 상어.(소고긴 어렵고 저 상어.)
107058 @ 상어예?(상어요?)
107058 #3 상어 사당 적 허민 맛 좋아.(상어 사다가 적 하면 맛 좋아.)
107058 @ 음, 이 동네는 옛날 마농적도 헤낫젠 헙디다.(음, 이 동네는 옛날 '마농적'도 했었다고 합디다.)
107058 #1 마농적[352] 헤낫주 대산이로.('마농적' 했었지, 마늘로.)
107058 @ 마농적.('마농적'.)
107058 #1 대산이로.(마늘로.)
107058 @ 대산이로.(마늘로.)
107058 #1 봄에, 건 봄에.(봄에, 건 봄에.)
107058 @ 건 봄에예?(건 봄에요?)
107058 #3 우린 아녀보고.(우린 안 해보고.)
107058 #1 남뎅이만 쫄랑은에.(줄기만 잘라.)
107058 @ 예.(예.)
107058 @2 예, 예.(예, 예.)
107058 #1 남뎅이만 꿰영은에 굽주. 것도 헤낫어.(줄기만 꿰어서 굽지. 것도 했었어.)
107058 @ 쪽파로도 영?(쪽파로도 이렇게?)
107058 #3 쪽파적은 우리 씨어머님 살 땐, 우리 족은씨어머님 살 때 쪽파적은 잘 헤낫어. 난 그런 건 안 헤난.(쪽파적은 우리 시어머님 살 땐, 우리 작은시어머님 살 때 쪽파적은 잘 했었어. 난 그런 건 안 했었어.)
107058 @ 쪽파적도 헌덴 헙디다.(쪽파적도 한다고 합디다.)
107058 #3 쪽파적도 허여.(쪽파적도 해.)

장 담그기

107059 그다음 삼춘 아까, 장이랑 하영 담앗덴 헨게마는 장은 언제 담는 거우꽈?(그다음 삼촌 아까, 장이랑 많이 담갔다고 하더니만 장은 언제 담그는 겁니까?)
107059 #3 섣ᄃᆞᆯ구뭄날.(섣달그믐날.)

352) '마농적'은 풋마늘 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구워낸 음식을 말한다.

107059 @ 섣돌구뭄날 담아?(섣달그믐날 담가?)
107059 #1 으, 그 날불림[353]이 없주.(으, 그 '날불림'이 없지.)
107059 #3 날불림 없이 섣돌구뭄날.('날불림' 없이 섣달그믐날.)
107059 #1 섣돌구뭄날 마지막 날.(섣달그믐날 마지막 날.)
107059 @ 아, 마지막 날 장 담는 거라마씨?(아, 마지막 날 장 담그는 거예요?)
107059 #1 그날 담앙은 탈이 없주.(그날 담가서는 탈이 없지.)
107059 @ 으음. 게믄 그 쌂앙 이거 준비허는 거는 언제 허는 거. 메주 쑮는 거는?(으음. 그러면 그 삶아서 이거 준비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 메주 삶는 거는?)
107059 #3 콩 나민.(콩 나면.)
107059 #1 겨울에 허주, 동지. 동지 뒈영.(겨울에 하지, 동지. 동지 되어서.)
107059 #3 콩 나민 어가라 솖앙.(콩 나면 지체 없이 삶아서.)
107059 @ 예.(예.)
107059 #3 가을, 가을 끗데 솖앙 돌아멩 띄우는 사름 담아놩 띄우는 사름 허주게. 경허민 물류와근에 그걸 잘헤영 놧다근에 깨끗허게 헤영 놧당은에 섣돌구뭄 아시날은 문딱 그거 시정[시졍], 물 빠정.(가을, 가을 끝에 삶아서 매달아서 띄우는 사람 담아놔서 띄우는 사람 하지. 그렇게 하면 말려서 그걸 잘해서 놨다가 깨끗하게 해서 놨다가 섣달그믐 전날은 몽땅 그거 씻어서, 물 빠져서.)
107059 @ 예.(예.)
107059 #3 뒷날은 그자 물러레 톡톡 장황디레 디리쳐불민 그게 장.(뒷날은 그저 물에 톡톡 장황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장.)
107062 @ 아아, 그 메주 솖으는 거는 날 봥 허잖아예?(아아, 그 메주 삶는 거는 날 봐서 하잖아요?)
107062 #3 그거는.(그거는.)
107062 #1 개날.(개날.)
107062 @ 개날에?(개날에?)
107062 #3 개헤치 신 사름은 개날에 못허고.(개띠 있는 사람은 개날에 못하고.)
107062 @ 예.(예.)
107062 #3 본명일 잇어부난. 또 득날에도 좋고게. 이녁 본명일 엇인 때 개날이나 득날이나 토끼날이나 허민 좋은 날.(본명일 있어버리니까. 또 닭날에도 좋고. 이녁 본명일 없을 때 개날이나 닭날이나 토끼날이나 하면 좋은 날.)
107062 @ 음, 게영 본명일만 엇이민.(음, 그래서 본명일만 없으면.)
107062 #3 쉐날 베염날 뒈야지날엔.(소날 뱀날 돼지날엔.)
107062 #1 베염날 허민은 메주가 뜨질 안 허여.(뱀날 하면 메주가 뜨질 안 해.)
107062 @ 아.(아.)
107062 #3 안 뒈는 거.(안 되는 거.)
107062 #1 진사일[354]에 허면은.('진사일'에 하면은.)

353) '날불림'은 날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의미다.

107062 @ 진사일에 허면 용날도 안 뒈고? 으.('진사일'에 하면 용날도 안 되고? 으.)

107062 #3 진일은 ᄉᆞ일보다는 낫아도.(진일은 사일보다는 나아도.)

107062 @ 예.(예.)

107062 #3 하이튼 이 날 중에 젤 ᄉᆞ일허곡 그 무시거.(하여튼 이 날 중에 젤 사일하고 그 무엇.)

107062 @ 쉐?(소?)

107062 #3 원숭이날.(원숭이날.)

107062 @ 으.(으.)

107062 #1 하여간.(하여간.)

107062 @2 신일.(신일.)

107062 #1 털 잇는 날.(털 있는 날.)

107062 #3 원숭이날.(원숭이날.)

107062 #1 털 없는 날은 잘 뜨질 안 허여.(털 없는 날은 잘 뜨질 안 해.)

107062 #3 메주보단도 이.(메주보다도. 이.)

107062 #1 다른 날도?(다른 날도?)

107062 #3 원숭이날은 좋은 날엔 허곡이.(원숭이날은 좋은 날이라고 하고.)

107062 @ 예, 아 원숭이날은 존 날이우꽈?(예, 아 원숭이날은 좋은 날입니까?)

107062 #3 좋은 날이라고 허고 저 범날은 잉일이라고 건 사름날이엔 허곡.(좋은 날이라고 하고 저 범날은 인일(寅日)이라고 건 '사람날'이라고 하고.)

107062 @ 음.(음.)

107062 #3 범, 잉일, 잉일에 이제 오널 제ᄉᆞ가 잉일이면은.(범, 인일, 인일에 이제 오늘 제사가 인일이면은.)

107062 @ 으.(으.)

107062 #3 이 제삿날이 잉일이면은 낼 ᄃᆞᆼ겨근에 좀 늦게 허곡.(이 제삿날이 인일이면은 낼 당겨서 좀 늦게 하고.)

107062 @ 예.(예.)

107062 #3 명일 ᄃᆞᆼ경 늦게 허곡. 또 이제 요 날이 잉일이면은 ᄒᆞ쏠.(명일 당겨서 늦게 하고. 또 이제 요 날이 인일이면은 조금.)

107062 #1 열두 시 전에 허고.(열두 시 전에 하고.)

107062 #3 ᄇᆞ디게 ᄃᆞᆼ경 헤불곡 경허는 거.(가깝게 당겨서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107062 #1 열ᄒᆞᆫ 시 반쯤에 뒈민 **.(열한 시 반쯤에 되면 **.)

107062 #3 잉일에 사름이 죽으민 손도 못 보는 거.(인일에 사람이 죽으면 손도 못 보는 거.)

107062 @ 음.(음.)

354) '진사일'은 용날과 뱀날을 동시에 부르는 말이다.

107062 #1 거찌지 못허주.(건들지 못하지.)

107062 @ 거시지 못허는 거예? 예.(건들지 못하는 거요? 예.)

107062 #3 거찌지 못허는 거.(건들지 못하는 거.)

107062 @ 아, 거난 장은 어 본명일 하고 저기 자기 헤치 있으면 담앗당. 게면 그 메주 솖앙은에 얼마만이 이시믄 걸 싯어마씨? 싯는 것은?(아, 그러니까 장은 어 본명일 하고 저기 자기 띠 있으면 담갔다가. 그러면 그 메주 삶아서 얼마만큼 있으면 걸 씻어요? 씻는 것은?)

107062 #3 아니 그거는 물리왕 잘 물리곡 헤영 그건 헤당 때에 따라근에 잘 물르곡 띄왕 잘 물라사 장이 ᄃᆞ는 거.(아니 그거는 말려서 잘 말리고 해서 그건 해다가 때에 따라서 잘 마르고 띄워서 잘 말라야 장이 다는 거.)

107062 @ 예.(예.)

107062 #3 안 뜨민 장 안 돌아.(안 뜨면 장 안 달아.)

107062 #1 하여튼 곰셍이가 허옇게 필 정도로 띄와야주게.(하여튼 곰팡이가 허옇게 필 정도로 띄워야지.)

107060 @ 경 헤영은에 놔뒀당 이제 전날예, 장 둠는 전날 시쳥은에 허는 거? 그다음에 장은 어떤 장 어떤 장 잇엇수가? 여기서는.(그렇게 해서 놔뒀다가 이제 전날요, 장 담그는 전날 씻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장은 어떤 장 어떤 장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107060 #3 장은 원 그 장이 콩장이주, 무신 장 잇어.(장은 원 그 장이 콩장이지, 무슨 장 있어.)

107060 @ 콩장. 으.(콩장. 으.)

107060 #3 콩장 허영 원 안 헙니다게.(콩장 해서 전혀 안 합니다.)

107060 @ 콩장만 허영은에 허는 거라예? 게믄 이제 뭰장 잇고 물장 잇곡.(콩장만 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된장 있고 간장 있고.)

107060 #1 그게 흔 백일 지나면은 메주를 건지주게.(그게 한 백일 지나면 메주를 건지지.)

107060 @ 예.(예.)

107060 #1 메주를 건지면은 물장이 뒈는 거고.(메주를 건지면 간장이 되는 거고.)

107060 @ 예.(예.)

107060 #1 메주는 또 따로 허여근에 담아놓민 뭰장이 뒈는 거고.(메주는 또 따로 해서 담가 놓으면 된장이 되는 거고.)

107060 @ 벡날 정도 잇당은에 헤? 그 장 갈르는 날도 봥은에 헙니까? 날 봥 허여?(백날 정도 있다가 해? 그 장 가르는 날도 봐서 합니까? 날 봐서 해?)

107060 #1 아니.(아니.)

107060 #3 하이튼 섣돌에 ᄃᆞᆼ그민.(하여튼 섣달에 담그면.)

107060 #1 봄 나민 허주.(봄 되면 하지.)

107060#3 정월 이월 삼월.(정월 이월 삼월.)

107060 #1 하이튼 백일만 지나민.(하여튼 백일만 지나면.)

107060 #3 삼월 그물어가민 그 장을 갈랑.(삼월 그물어가면 그 장을 나눠서.)

107060 @ 음.(음.)

107060 #3 뒌장을 또 뀌어 놩 그거를 문드데겨 놔근에 뭐 좀 놔사 좋아.(된장을 또 이겨 놓아서 그거를 짓이겨 놔서 뭐 좀 놔야 좋아.)

107060 @ 뭐 놔, 뭐 놉니까? 거기.(뭐 놔, 뭐 놉니까? 거기.)

107060 #3 콩이라도 이시민 솖아근에 또 그레 서껑 놓던가.(콩이라도 있으면 삶아서 또 그리로 섞어서 놓든가.)

107060 @ 예.(예.)

107060 #3 아니민 밀이라도 띄와근에 그 방앗간에 못 가면은 그냥 요즘은 그런 게 엇어도 옛날엔 농술 막 지엉 사난 밀 띄와근에 그릇이 저 솖아근에 그릇에 담앙 놔두민 그것이 문닥허게 막 궤여.(아니면 밀이라도 띄워서 그 방앗간에 못 가면 그냥 요즘은 그런 게 없어도 옛날엔 농사를 많이 지어서 사니까 밀 띄워서 그릇이 저 삶아서 그릇에 담가서 놔두면 그것이 반드럽게 막 괴어.)

107060 @ 음.(음.)

107060 #3 게믄 그거 서껑 놔두민 장이 경 맛 좋아.(그러면 그거 섞어서 놔두면 장이 그렇게 맛 좋아.)

107060 @ 으음, 밀을예? 아아, 게민 그거는 이제 뒌장?(으음, 밀을요? 아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된장?)

107060 #3 뒌장.(된장.)

107060 @ 삼춘, 고치장도 담아봔마씨? 고치장.(삼촌, 고추장도 담가봤어요? 고추장.)

107060 #3 고추장도 담아봣주. 고추장도 담아봣주마는 원 그건 경 자주 허지 못허여. 고칫ᄀᆞ를 헤사는 때문에. 춥쏠에 허민 좋아, 그건. 춥쏠에.(고추장도 담가봤지. 고추장도 담가봤지만 원 그건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 고춧가룰 해야 하는 때문에. 찹쌀에 하면 좋아, 그건. 찹쌀에.)

107060 @ 춥쏠허고 저기만.(찹쌀하고 저기만.)

107060 #3 춥쏠ᄀᆞ를 춥쏠ᄀᆞ르 골아당게.(찹쌀가루 찹쌀가루 갈아다가.)

107060 @ 예.(예.)

107060 #3 아니 옛날엔 춥쌀 농술 우린 많이 져나난.(아니 옛날엔 찹쌀 농사를 우린 많이 지었으니까.)

107060 @ 아.(아.)

107060 #3 찹쏠ᄀᆞ르 골아당 저기 뭐 끌영. 장물이 끓이민 그것이 죽 뒈주게.(찹쌀가루 갈아다가 저기 뭐 끓여서. 간장이 끓으면 그것이 죽 되지.)

107060 @ 예.(예.)

107060 #3 죽 뒈민 고칫ᄀᆞ르 서끄민 고치장이주, 무신거. 그레 또 조끔 무시거

든 거나 쪼끔 옛날엔 엇엇주마는 중간엔 ***.(죽 되면 고춧가루 섞으면 고추장이지, 무엇. 그리로 또 조금 무엇 단 거나 조금 옛날엔 없었지만 중간엔 ***.)

107060 #1 지금은 물엿덜 많이 노는 모양이란게.(지금은 물엿들 많이 넣는 모양이던데.)

107060 @ 음.(음.)

107060 #3 아니 물엿도 안 놔도 뒈여.(아니 물엿도 안 놔도 되어.)

107060 @ 음.(음.)

107060 #1 아, 지금 고치장 헹 프는 거 다 그 물엿.(아, 지금 고추장 해서 파는 거 다 그 물엿.)

107060 #3 고치장 나난.(고추장 나니까.)

107060 @ 경ᄒᆞ난 ᄃᆞᆯ안예?(그렇게 하니까 달아요?)

107060 #3 이젠 고치장도 아녀고.(이젠 고추장도 않고.)

107060 @ 예.(예.)

107060 #1 찹쏠, 찹쏠로 고추장 으라 번 헹 먹어봣주.(찹쌀, 찹쌀로 고추장 여러 번 해서 먹어봤지.)

107060 @ 음.(음.)

107060 #3 맛 좋아. 그거.(맛 좋아. 그거.)

107063 @ 그리고 장 담을 때는 뭐 허지 말라 허는 이런 금기허는 거 잇수가?(그리고 장 담글 때는 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금기하는 거 있습니까?)

107063 #3 그런 건 벨로. 영장밧듸 강오랑은 못헙니다.(그런 건 별로. 장지에 다녀와서는 못합니다.)

107063 @ 아.(아.)

107063 #1 부정 타.(부정 타.)

107063 @ 부정 타갖고. 장 담을 때.(부정 타갖고. 장 담글 때.)

107063 #3 메주, 메주도 영장밧듸 강오민 안 뒈고.(메주, 메주도 장지에 다녀오면 안 되고.)

107063 @ 음. 장 담을 때도 영장밧듸. 모든 게 영장밧듸 강.(음. 장 담글 때도 장지에. 모든 게 장지에 가서.)

107063 #3 부정, 부정이 그, 그거.(부정, 부정이 그, 그거.)

107063 @ 아, 부정이 그거라예?(아, 부정이 그거라고요?)

107063 @2 게난 몸에거 올 때도 궨찮읍니까?(그러니까 몸엣것 올 때도 괜찮습니까?)

107063 #3 그것사게.(그것이야.)

107063 @ 그것사 안 뒈는 겁주게.(그것이야 안 되는 겁지요.)

107063 #3 나 그거 헤도 천지에 멥니다게. 건.(내 그거 해도 천지에 맵니다. 건.)

107063 @ 아.(아.)

107063 #3 몸에거 와도.(몸엣것 와도.)

107063 @ 아.(아.)

107063 #3 건 홀 수 엇는 일이우다. 그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107063 @ 어, 사름이니까 웃음.(어, 사람이니까 웃음.)

107063 #3 심방덜토 놈의 집 다 큰굿 마쳇당 그거 오민 어떵 아니 가집니까. 게도 다 큰굿 헙니다.(심방들도 놈의 집 다 큰굿 맞춰다가 그거 오면 어떻게 아니 가집니까. 그래도 다 큰굿 합니다.)

107063 @ 음.(음.)

107063 #3 우리 집의서 큰굿도 ᄋᆞ라 번 헤보고 나도 ᄋᆞ라 번 굿 허는 거 봔. 어떵 헙니까?(우리 집에서 큰굿도 여러 번 해보고 나도 여러 번 굿 하는 거 봤어. 어떻게 합니까?)

107063 @2 으음.(으음.)

107063 #3 건 홀 수 없는 거 이건.(건 할 수 없는 거 이건.)

떡류

107064 @ 그다음에 삼춘, 떡. 떡은 어떤 떡들을 헤봣수가? 식게떡?(그다음에 삼촌, 떡. 떡은 어떤 떡들을 해봤습니까? 제사떡?)

107064 #3 식게떡은 무시거 허여 뭐. 저 정월멩질엔 친떡허고 솔벤[355] 절벤[356]. 솔벤 알아집니까?(제사떡은 무엇 해 뭐. 저 정월명절엔 시루떡하고 '솔편' 절편. '솔편' 알아집니까?)

107064 @ 예.(예.)

107064 #3 절벤.(절편.)

107064 @ 으.(으.)

107064 #3 인절미[357].(인절미.)

107064 @ 예.(예.)

107064 #3 우지시.(웃기떡.)

107064 @ 우지시.(웃기떡.)

107064 #3 경허곡. 또 팔월멩질엔 송펜. 경 헤연 헷수다, 우리.(그렇게 하고. 또 팔월명절엔 송편.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

107064 @ 으, 팔월멩질엔 송편만 헤?(으, 팔월명절엔 송편만 해?)

107064 #3 송편만 헤영 올리주. 무신거 허영 과질이나 그자. 과질.(송편만 해서 올리지. 무엇 해서 과줄이나 그저. 과줄.)

107064 @ 으, 과질.(으, 과줄.)

107064 #3 또 정월멩질엔 과질 또 사다근에 그 또 열굿떡[358]에 우지시라고 그

355) '솔벤'은 쌀가루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떡을 말한다.

356) '절벤'은 쌀가루로 둥그렇게 만들어 삶아낸 다음에 둥그렇게 만든 떡 두 개를 붙여서 떡살로 찍어낸 떡을 말한다.

357) '인절미'는 쌀가루 따위로 네모나게 만들어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358) '열굿떡'은 떡을 괴는 종류가 열 가지라는 떡으로, 소상 등 큰 제의 때에 예의를 갖춰 올리는 떡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굿'은 구덩이를 말하는데, 제보자는 떡을 한 층 한 층 쌓아올리는 것을 '굿'이라고 표현하

작굿[359]을 헤가민 과질이 따라가는 거.(또 정월명절엔 과줄 또 사다가 그 또 '열굿떡'에 웃기떡이라고 그 '작굿'을 해가면 과줄이 따라가는 거.)

107064 @ 음.(음.)

107064 #1 그거 사당 올리곡 경허멍 헨 헤낫수다.(그거 사다가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했었습니다.)

107064 @ 아까, 삼춘, 작굿은 뭐우꽈?(아까, 삼촌, '작굿'은 뭡니까?)

107064 #3 작굿엔 헌 건 여라 가지 떡.('작굿'이라고 한 건 여러 가지 떡.)

107064 @ 어.(어.)

107064 #3 솔, 친떡.(솔, 시루떡.)

107064 @ 예.(예.)

107064 #3 솔벤. 친떡 다음은 인절미양.('솔편'. 시루떡 다음은 인절미요.)

107064 @ 예, 네모나게예?(예, 네모나게요?)

107064 #3 그 우티레 놩. 그 우틔레 따시 동글락떡은 절벤. 그 우틔레 따신 솔벤 영 마주 놩 그건 솔벤. 그 우티렌 또 동글랑동글랑 놓는 건 벨떡[360] 그거.(그 위로 놔서. 그 위로 다시 '동그란 떡'은 절편. 그 위로 다신 '솔편' 이렇게 마주 놔서 그건 '솔편'. 그 위론 또 동글동글 놓는 건 기름떡 그거.)

107064 @ 예.(예.)

107064 #3 열굿떡에 우지시라고 벨떡은 거.('열굿떡'에 웃기떡이라고 기름떡은 거.)

107064 @ 열굿떡?('열굿떡'?)

107064 #3 열굿떡에 우지시라고 이것가 젤 우의가 우지시 젤로.('열굿떡'에 웃기떡이라고 이것이 젤 위가 웃기떡 젤로.)

107064 @ 예.(예.)

107064 #1 별은 하늘을 의미허는 거니까.(별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니까.)

107064 #3 벨 하늘에 별 잇지.(별 하늘에 별 있지.)

107064 @ 예.(예.)

107064 #1 밑에 제펜[361]은 땅을.(밑에 '제편'은 땅을.)

107064 @2 으음.(으음.)

107064 #1 의미허는 거고.(의미하는 거고.)

107064 @2 맨 밑에예.(맨 밑에요.)

107064 #1 그렇게 헤서.(그렇게 해서.)

107064 #3 벨떡엔 헙니다. 벨떡.(기름떡이라고 합니다. 기름떡.)

107064 @ 열굿떡에 우지시.('열굿떡'에 웃기떡.)

107064 #3 우지시. 그거를 가가면은 과질은 따라야 뒌다.(웃기떡. 그거를 가가면

였다.

359) '작굿'은 여러 가지 떡을 쌓는 것을 말한다.

360) '벨떡'은 별 모양으로 생긴 떡이다. 보통 기름에 지져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떡'이라고도 한다.

361) '제펜'은 제에 쓰는 편이라는 말로, 보통 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과줄은 따라야 된다.)

107064 @ 아.(아.)

107064 #3 과질은 이레 부터야 헌다.(과줄은 이리로 붙어야 한다.)

107064 @ 열굿은 무사 열굿이렌만 허는 거우꽈?('열굿'은 왜 '열굿'이라고만 하는 겁니까?)

107064 #3 게메, 모르쿠다. 어른덜 경 골으난. 무사 열굿산디 난 그것ᄁᆞ장은 몰라.(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그렇게 말하니까. 왜 '열굿'인지 난 그것까지는 몰라.)

107064 @ 경헤도.(그렇게 해도.)

107064 #3 아메도 열굿 뒈진 안 헌디양. 세어봐도양. 친떡 인절미 절벤 솔벤 우지시 거 다섯 굿벳긔 안 뒌디 열 굿엔 허난 건 어떤.(아마도 '열굿' 되지는 안 한데요. 세어봐도요. 시루떡 인절미 절편 '솔편' 웃기떡 거 다섯 '굿'밖에 안 되는데 '열굿'이라고 하니까 건 어떤.)

107064 @ 중계, 약궤.(중계, 약과.)

107064 #1 중계 약궤.(중계 약과.)

107064 #3 중계 약궤 강정 요웨[362] 다 헤야 열 굿이주.(중계 약과 강정 '요웨' 다 해야 열 '굿'이지.)

107064 @ 으, 강정 요웨 다 허니까.(으, 강정 '요웨' 다 하니까.)

107064 @2 웃음.(웃음.)

107064 #3 강정 요웨 알아집니까?(강정 '요웨' 알아집니까?)

107064 @ 들어보긴 헤신디 요웨는 어떤 거?(들어보긴 했는데 '요웨'는 어떤 거?)

107064 #3 예?(예?)

107064 @ 중계는 어떤 거고?(중계는 어떤 거고?)

107064 #1 중계는 어떤 것이 네귀난 것에 고망 뚤른 것이 중계.(중계는 어떤 것이 네모난 것에 구멍 뚫은 것이 중계.)

107064 @ 약궤는?(약과는?)

107064 #3 약궤는 영 소랑소랑헌 거 튀긴 것가 약궤.(약과는 이렇게 기름기름한 거 튀긴 것이 약과.)

107064 @ 예.(예.)

107064 #3 또시 저 강정 요웨엔 헌 건 이 몽클락 또 요치록 몽클락몽클락헙니다.(또 저 강정 '요웨'라고 한 건 이 몽클 또 요처럼 몽클몽클합니다.)

107064 @ 예.(예.)

107064 #3 몽클락몽클락헌 거 ᄒᆞ쏠 소롬헌 거 ᄒᆞ나에 영 몽클락헌 거 ᄒᆞ나에 경헤근에 요건 강정 요웨.(몽클몽클한 거 조금 기름한 거 하나에 이렇게 몽클한 거 하나에 그렇게 해서 요건 강정 '요웨'.)

362) '요웨'는 지진 떡의 일종이다.

107064 @ 예.(예.)
107064 #3 과질.(과줄.)
107064 @ 게난 강정하고 요웨는 따로 따로 아니면?(그러니까 강정하고 '요웨'는 따로 따로 아니면?)
107064 #3 아니 ᄀᆞ치 다 쓰는 거 이.(아니 같이 다 쓰는 거 이.)
107064 @ 두 개 ᄀᆞ치.(두 개 같이.)
107064 #3 ᄀᆞ치 쓰는 거. 흔 정반에 올리는 거.(같이 쓰는 거. 한 쟁반에 올리는 거.)
107064 @ 어.(어.)
107064 #3 중궤 약궤도 흔 정반에 올리는 거.(중계 약과도 한 쟁반에 올리는 거.)
107064 @ 예.(예.)
107064 #3 요디 벨떡은 다섯.(요기 기름떡은 다섯.)
107064 @ 다섯굿?(다섯 '굿'?)
107064 #3 다섯 가지 올리는 거.(다섯 가지 올리는 거.)
107064 @ 어.(어.)
107064 #3 과질은 과질대로 올리는 거.(과줄은 과줄대로 올리는 거.)
107064 @ 예.(예.)
107064 #3 경헙니다.(그렇게 합니다.)
107064 @ 게민 중궤 약궨 또 따로 올리곡 강정 요웨는 따로 올리곡.(그러면 중계 약과 또 따로 올리고 강정 '요웨'는 따로 올리고.)
107064 #3 예 그것도 흔 젭시 놓곡.(예 그것도 한 접시 놓고.)
107064 @ 으.(으.)
107064 #3 과질도 흔 접시 놓곡, 중계 약궤도 흔 접시 놓곡 요것은 다섯 가지 떡은 흔 정반 요건 큰, 큰 펜틀에 수랑헌 펜틀에 놓는 거. 요것은 정반에 놔도 뒈는 거.(과줄도 한 접시 놓고, 중계 약과도 한 접시 놓고 요것은 다섯 가지 떡은 한 쟁반 요건 큰, 큰 편틀에 기름한 편틀에 놓는 거. 요것은 쟁반에 놔도 되는 거.)
107064 @ 예, 게믄 강정은 뭘로 멘드는 거우꽈?(예, 그러면 강정은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107064 #3 다 밀ᄀᆞ르로.(다 밀가루로.)
107064 @ 으.(으.)
107064 #3 옛날에 밀ᄀᆞ르로 헙니다. 밀ᄀᆞ르레 헤근에양 그거 이 저 옛날은 기지라고 순다리[363].(옛날에 밀가루로 합니다. 밀가루에 해서요 그거 이 저 옛날은 기주라고 '순다리'.)
107064 @ 예.(예.)
107064 #3 순다리 놩 ᄆᆞᆯ아근에 그거 나중에 피여게. 피민 그걸로 막 헤근에 동

363) '순다리'는 쉰듯한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이다.

글동글 만들아근 영 꼭꼭 누르뜨곡 경 헙디다. 어른덜 허는 거 보난. 경 혜영 소상 땐 그런 건 꼭 허영 올려.('순다리' 놔서 반죽해서 그거 나중에 부풀어. 부풀면 그걸로 막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이렇게 꼭꼭 누르고 그렇게 합디다.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상 땐 그런 건 꼭 해서 올려.)

107064 @ 으음.(으음.)

107064 #3 우리도 씨어머님 씨아바님 소상 때 그런 거 허영 올려나신디 경혜영 그거 헤근에 문 튀겨. 튀겨.(우리도 시어머님 시아버님 소상 때 그런 거 해서 올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몽땅 튀겨. 튀겨.)

107064 @ 음.(음.)

107064 #3 튀겨 놔근에 그걸 올려. 엿 버무리고 경 올리는 거.(튀겨 놔서 그걸 올려. 엿 버무리고 그렇게 올리는 거.)

107064 @ 강정에도 엿 버무리고. 강정에도 엿 버무리고. 게믄 손가락 그뭇을 이렇게 내우는 거라예?(강정에도 엿 버무리고. 강정에도 엿 버무리고. 그러면 손가락 금을 이렇게 내는 거네요?)

107064 #3 영 쪼꼼씩.(이렇게 조금씩.)

107064 #1 요만씩 길주게, 그건 소람허여.(요만씩 길주, 그건 기름해.)

107064 @ 어, 소람헤영 강정 헤영은에 가운데 이렇게 눌렁은에예, 요웨는?(어, 기름해서 강정 해서 가운데 이렇게 눌러서요, '요웨'는?)

107064 #3 어느 거?(어느 거?)

107064 @ 강정 요웨 허는 요웨는 뭐우꽈?(강정 '요웨' 하는 '요웨'는 뭡니까?)

107064 #3 요웨는 동글락헌 거게.('요웨'는 동글한 거.)

107064 @ 응, 동글랑헹?(응, 동그래서)

107064 #3 동글락헌 것에 소랑헌 거 영 ᄒᆞ쏠 트멍 난 것에 경허영 그거 ᄒᆞᆫ 정반 헹 올리고.(동그란 것에 기름한 거 이렇게 조금 틈 난 것에 그렇게 해서 그거 한 쟁반 해서 올리고.)

107064 @ 음.(음.)

107064 #3 중계 약궤 납작헌 것에 소랑헌 것에 ᄒᆞᆫ 정반 올리곡 과질 ᄒᆞᆫ 정반 헤영 올리곡. 경허민 세 정반 아니우꽈?(중계 약과 납작한 것에 기름한 것에 한 쟁반 올리고 과줄 한 쟁반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면 세 쟁반 아닙니까?)

107064 @ 예.(예.)

107064 #3 요거 ᄒᆞᆫ 정반 허민 네 정반 헤근에 올리곡 과일도 못 올려도 삼관 올려사 뒈여.(요거 한 쟁반 하면 네 쟁반 해서 올리고 과일도 못 올려도 삼관 올려야 되어.)

107064 @ 으음.(으음.)

107064 #3 배허고 사과허곡 저 미깡이라도. 요새 젤 촌의 제ᄉᆞ엔 경 무신 하간 대추여 밤이여 아넘니다게.(배하고 사과하고 저 밀감이라도. 요새 젤 촌의 제사엔 그렇게 무슨 온갖 대추다 밤이다 않습니다.)

107064 @ 예.(예.)
107064 #1 성읍리는 대추 밤은 안 허고.(성읍리는 대추 밤은 안 하고.)
107064 @ 아.(아.)
107064 #3 삼과, 삼과, 저레는.(삼과, 삼과, 저리로는.)
107064 #1 저 뭐, 뭐이니 거?(저 뭐, 뭣이니 거?)
107064 #3 한숨.(한숨.)
107064 @ 비자?(비자?)
107064 #1 비자도 안 허고. 그런 거 안 허여.(비자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
107064 @ 게믄 그 요웨 허는 거는 뭘로 멘드는 거?(그러면 그 '요웨' 하는 거는 무엇으로 만드는 거?)
107064 #3 그 밀ᄀᆞ르로 **.(그 밀가루로 **.)
107064 @ 것도 밀ᄀᆞ르로 멘드는 거. 건 동그스름허게 멘들앙 것도 떡 무쳥.(것도 밀가루로 만드는 거. 건 동그스름하게 만들어서 것도 떡 묻혀서.)
107064 #3 상웨떡ᄀᆞ치, 상웨떡 알아집니까?(상화같이, 상화 알아집니까?)
107064 @ 예.(예.)
107064 #3 상웨떡ᄀᆞ찌 헌 걸로 만드는 거, 그게.(상화같이 한 걸로 만드는 거, 그게.)
107064 @ 어, 것도 튀겨마씨?(어, 것도 튀겨요?)
107064 #3 예게.(예.)
107064 @ 아, 강정이나 요웨는 다 튀기고?(아, 강정이나 '요웨'는 다 튀기고?)
107064 #3 중계나 약궤나 거 다 튀기는 거.(중계나 약과나 거 다 튀기는 거.)
107064 @ 중계도 튀기고 약궤도 튀기고예?(중계도 튀기고 약과도 튀기고요?)
107064 #3 그 떡을 만약 헹 놔두민 좀 피주게.(그 떡을 만약 해서 놔두면 좀 부풀지.)
107064 @ 예.(예.)
107064 #3 핀 다음 찔 거 아니우과? 찌영 내놓민 ᄃᆞ시 익으민 으쓱으쓱 튀기민은 그것이 중계도 뒈고 약궤도 되고 강정 요웨도 뒈고 요거는 과질은 또 과질대로 집의서 못허민 사당허는 거고. 집의서 헤지민 집의서 허고. 다 이건 튀기는 거.(부푼 다음 찔 거 아닙니까? 쪄서 내놓으면 다시 익으면 으쓱으쓱 튀기면 그것이 중계도 되고 약과도 되고 강정 '요웨'도 되고 요거는 과줄은 또 과줄대로 집에서 못하면 사다가하는 거고. 집에서 해지면 집에서 하고. 다 이건 튀기는 거.)
107064 @ 으, 게믄 이 떡 펜틀에 올린 것만 안 튀기고 나머지는 다 기름에 튀기는 거예? 아 중계가 사각형?(으, 그러면 이 떡 편틀에 올린 것만 안 튀기고 나머지는 다 기름에 튀기는 거요? 아, 중계가 사각형?)
107064 #1 펜틀에 올리는 것도 저.(편틀에 올리는 것도 저.)
107064 #3 사각형은.(사각형은.)
107064 #1 별로 별로 뭰 거는 튀겨.(별로 별로 된 거는 튀겨.)

107064 @ 아 별은?(아 별은?)

107064 #3 사각형은 사각형인디 이거는 영 소롬헌 거고 약궤는 요렇게 납작헌 거엔 허난.(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기름한 거고 약과는 요렇게 납작한 거라고 하니까.)

107064 @ 아 약궤는 네모난 거.(아 약과는 네모난 거.)

107064 #3 네모난 거에 궁길 뚤라, 이레. 네 고망에.(네모난 거에 구멍을 뚫어, 이리로. 네 구멍에.)

107064 @ 네 고망에.(네 구멍에.)

107064 #3 궁길 뚤라.(구멍을 뚫어.)

107064 @ 아 중계는?(아 중계는?)

107064 #3 이 중계는 고망 안 뚤르고.(이 중계는 구멍 안 뚫고.)

107064 @ 안 뚤르고 그냥 소롬허고예. 게니까 열굿이네.(안 뚫고 그냥 기름하고요. 그러니까 '열굿'이네.)

107064 #3 열굿 맞아?('열굿' 맞아?)

107064 @ 예. 열굿떡에 웃지시. 웃지시가 아까 저 뭐.(예. '열굿떡'에 웃기떡. 웃기떡이 아까 저 뭐.)

107064 #3 우지시가 별떡.(웃기떡이 기름떡.)

107064 @ 별떡예. 것도 기름에 튀기고.(기름떡요. 것도 기름에 튀기고.)

107064 #1 벨떡은 튀겨.(기름떡은 튀겨.)

107064 #3 주인공, 그게 주인공이주. 열굿떡에 우지시.(주인공, 그게 주인공이지. '열굿떡'에 웃기떡.)

107064 @ 예.(예.)

107064 #1 젤 내중에 올리주. 젤 우에.(젤 나중에 올리지. 젤 위에.)

107064 @ 예.(예.)

107064 @2 게난 건 어느 것에 올립니까? 다섯 종류에.(그러니까 건 어느 것에 올립니까? 다섯 종류에.)

107064 #1 예, 예. 다섯 가지 종류에 올립니다.(예, 예. 다섯 가지 종류에 올립니다.)

107064 @2 떡 우에예?(떡 위에요?)

107064 @ 예.(예.)

107064 #3 이 떡도 올릴 중 몰른 사름 못 올립니다게.(이 떡도 올릴 줄 모른 사람 못 올립니다.)

107064 @ 예.(예.)

107064 #1 순서가 잇으니까.(순서가 있으니까.)

107064 #3 순서가 잇어.(순서가 있어.)

107064 @ 그니까 그걸 전부 헌 거를 작구떡이렌 헤?(그러니까 그걸 전부 한 거를 '작굿떡'이라고 해?)

107064 #1 준떡이엔 허주 준떡[364].(‘잔떡’이라고 하지, ‘잔떡’.)

107064 #3 작굿떡.(‘작굿떡’.)

107064 @ 으 작굿떡.(으 ‘작굿떡’.)

107064 #3 작굿 여러 가지 헌 거 작굿떡.(‘작굿’ 여러 가지 한 거 ‘작굿떡’.)

107065 @ 작굿떡예. 작굿떡. 전부 헌 게 작굿떡. 그러면 이제 떡 종류 그렇게 이해하고예? 옛날 시루떡을 여기서는 뭐렌 헙니까? 친떡?(‘작굿떡’요. ‘작굿떡’. 전부 한 게 ‘작굿떡’. 그러면 이제 떡 종류 그렇게 이해하고요? 옛날 시루떡을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친떡’?)

107065 #3 친떡이주. 무시거게.(‘친떡’이지. 무엇.)

107065 @ 친떡도 제에 올리는 거하고 틋날 거 아니우꽈? 친떡은 어떤 식으로 멘들엇수가? 집에서 멘들 때?(시루떡도 제에 올리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시루떡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집에서 만들 때?)

107065 #3 친떡은 시리에서 찌는 거난 무신 뚜나멍말멍 시리떡 허는디 뭐 그거는 재료에 따랑 허주.(시루떡은 시루에서 찌는 거니까 무슨 다르며말며 시루떡 하는데 뭐 그거는 재료에 따라서 하지.)

107065 @ 음.(음.)

107065 #3 잇이민 쏠만 허영 곤떡으로 문친떡[365]으로도 칠 수 잇고. 제ᄉᆞ에는 풋떡 아니 올려.(있으면 쌀만 해서 흰떡으로 ‘문친떡’으로도 찔 수 있고. 제사에는 팥떡 아니 올려.)

107065 @2 예, 예, 예.(예, 예, 예.)

107065 #3 제ᄉᆞ에는 풋떡 안 올리난 설귀떡으로 흰떡 쪙 올리곡. 그냥 먹는 거는 저 춤 친떡이라고 문친떡이라고 무 썰어놓곡 헤영 시리에서 찌민 맛 좋게 헤영 먹곡.(제사에는 팥떡 안 올리니까 백설귀로 흰떡 쪄서 올리고. 그냥 먹는 거는 저 참 시루떡이라고 ‘문친떡’이라고 무 썰어 넣고 해서 시루에서 찌면 맛 좋게 해서 먹고.)

107065 @ 음.(음.)

107065 #3 겐디 맛 좋게 헤영 먹는 거는 헤도 구신은 풋은.(그런데 맛 좋게 해서 먹는 거는 해도 귀신은 팥은.)

107065 #1 안 뒙주게.(안 됩지요.)

107065 #3 안 뒈주게. 반대라부난에.(안 되지. 반대이니까.)

107065 #1 구신을 쫓겨부는 거난.(귀신을 쫓아버리는 거니까.)

107065 #3 반대라부난에 풋은 웨 안 올리느냐 허민 상에는 귀신을 방지허는 거라부난 풋은 못 올린다 허는 거.(반대이니까 팥은 왜 안 올리느냐 하면 상에는 귀신을 방지하는 거여서 팥은 못 올린다고 하는 거.)

107065 @ 으으.(으으.)

---

364) ‘준떡’은 ‘솔편, 절편, 인절미’ 등의 자잘한 떡을 통칭하는 말이다.

365) ‘문친떡’은 쌀가루에 무나 고구마 따위를 넣고 팥고물을 묻혀서 시루에서 쪄낸 떡을 말한다.

107065 #3 경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107065 @ 게믄 삼춘, 아까 문친떡은?(그러면 삼촌, 아까 '문친떡'은?)

107065 #3 예.(예.)

107065 @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를 문친떡이렌 허는 거마씨?(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를 '문친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107065 #3 아니 어떵. 시리에 담아놩 풋 놓멍게. 혼 징 혼 징 혼 징 헤근에 소빡허게 청 비와놓면은 그것이 이젠 그 칼로 짤를 거 아니우꽈?(아니 어떻게. 시루에 담아놔서 팥 넣으면서. 한 켜 한 켜 한 켜 해서 가득하게 쪄서 부어놓으면 그것이 이젠 그 칼로 자를 거 아닙니까?)

107065 @2 예. 혼 빗[366].(예. 한 '빗'.)

107065 #1 혼 빗.(한 '빗'.)

107065 #3 혼 빗 혼 빗 헤근에 허민 그것이 친떡이주. 무시거.(한 '빗' 한 '빗' 해서 하면 그것이 시루떡이지. 무엇.)

107065 @ 음, 걸.(음, 걸.)

107065 #3 옆빗[367]은 그자 먹어불곡 쓰는 거는 궂인 걸로 헤근에 막 어렵게 써 낫수게게. 거 막 어렵게.('옆빗'은 그저 먹어버리고 쓰는 거는 온전한 걸로 해서 아주 어렵게 썼었습니다. 거 아주 어렵게.)

107065 @ 예.(예.)

107065 #3 초상나민 막 저물떡[368]이라고 걸 어렵게 헤낫수다.(초상나면 막 '저물떡'이라고 걸 어렵게 했었습니다.)

107065 @ 무슨 떡마씨?(무슨 떡요?)

107065 #3 초상나민은 집이 누구가 돌아가민은 사돈이 뒈든 사돈님이 돌아가던가 집의 또시 이제 부모가 돌아가던가 허민 건 저물떡이라고.(초상나면 집에 누가 돌아가면 사돈이 됐든 사돈님이 돌아가든가 집에 또 이제 부모가 돌아가든가 하면 건 '저물떡'이라고.)

107065 @ 저물떡?('저물떡'?)

107065 #3 으.(으.)

107065 @2 제물떡?('제물떡'?)

107065 #3 으. 옛날에 공정[369]이 잇어낫어.(으. 옛날에 '공정'이 있었었어.)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3 공정은, 공정은 뭐냐 허면 요즘의 장의사 낫주마는 돌아가시면은 부모 들아당 매장[370]헌 어른, 이제.('공정'은, '공정'은 뭐냐 하면 요즘의 장의사 났지

366)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말이다.
367) '옆빗'은 둥그런 시루떡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낼 때 가장자리 쪽의 둥근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368) '저물떡'은 초상 등이 큰일이 있을 때 제물로 해가는 떡을 말한다.
369)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역사(役事)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이나 고기 따위의 음식을 말한다.
370) '매장'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오그라들지 못하도록 베 따위로 묶는 일을 말한다. 달리 '매치'라고도 한다.

만 돌아가시면 부모 데려다가 ‘매장’한 어른, 이제.)
107065 @2 손 본 사람?(손 본 사람?)
107065 #3 손 봐난, 손 봐난 사름.(손 봤던, 손 봤던 사람.)
107065 #1 손톱은[371](?) 사름.(‘손톱은’?) 사람.)
107065 #3 또시 이제.(또 이제.)
107065 #1 정시.(지관.)
107065 #3 정시.(지관.)
107065 @2 관 찬 사름.(관 짠 사람.)
107065 #3 관 찬 사름.(관 찬 사람.)
107065 #1 어.(어.)
107065 #3 그게 제물떡을 그때 쓰는 거라. 공정이라고.(그게 ‘제물떡’을 그때 쓰는 거야. ‘공정’이라고.)
107065 @ 으, 삼춘 아까 손 톱은(?) 사람?(으, 삼촌 아까 손 톱은(?) 사람?)
107065 #1 어?(어?)
107065 @ 손톱은 사름은 무슨 말?(‘손톱은’ 사람은 무슨 말?)
107065 #1 무시거?(무엇?)
107065 @ 손톱은 사름이렌 헷수가? 아까.(‘손톱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107065 #3 손 본 사름.(손 본 사람.)
107065 #1 손 본 사람.(손 본 사람.)
107065 @ 으.(으.)
107065 #1 그.(그.)
107065 #3 매장헌 사름.(‘매장’한 사람.)
107065 #1 그 매치[372]헌, 매치라고 허주. 걸.(그 ‘매치’한, ‘매치’라고 하지. 걸.)
107065 @ 매치?(‘매치’?)
107065 #3 대소렴헌 사름. 대소렴.(소렴한 사람. 소렴.)
107065 @ 대소렴헌 사름을 매치헷덴 헤? 어.(소렴한 사람을 ‘매치’했다고 해? 어.)
107065 #3 대소렴 헤나야 혼 불르는 거 아니우과?(소렴 해나야 혼 부르는 거 아닙니까?)
107065 @ 예, 예, 예. 경 헹 이제 친떡을 허는 거고.(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루떡을 하는 거고.)
107065 @2 그게 저물떡마씨?(그게 ‘저물떡’요?)
107065 #1 예.(예.)
107065 #3 저물떡엔 헙니다. 저물떡.(‘저물떡’이라고 합니다. ‘저물떡’.)

371) ‘손톱은’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지관이나 도감 따위의 궂은일을 맡아준 사람을 꼽아서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372) ‘매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오그라들지 못하도록 베 따위로 묶는 일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매장’이라고도 하였다.

107065 @2 저 공정.(저 ‘공정’.)
107065 #3 공정 허여 가는 것이.(‘공정’ 해 가는 것이.)
107065 #1 그거를 자식덜이양.(그거를 자식들이요.)
107065 #3 상제 저물떡 아졍 오라. 이 공정 설르, 공정 출리게 영.(상제 ‘저물떡’ 가져와라. 이 ‘공정’ 설르(?), ‘공정’ 차리게 이렇게.)
107065 #1 일가 가까운 일가나.(일가 가까운 일가나.)
107065 @ 제물이 아니라 저물떡.(제물이 아니라 ‘저물떡’.)
107065 #1 자식, 자식덜은 저물떡을 헤갑니께게.(자식, 자식들은 ‘저물떡’을 해갑니다.)
107065 #3 다 혼 시리썩은 쪄가야만 공정이 경 하노난 옛날에. 떡이 경 어려우난.(다 한 시루씩은 쪄가야만 ‘공정’이 그렇게 많으니까 옛날에. 떡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107065 @ 으.(으.)
107065 #3 게난 막 그거 목시칩이여 뭐 손 본 집이여 이제 혼 불른 사름이여 문딱 신 삼은 사름이여.(그러니까 막 그거 목수집이다 뭐 손 본 집이다 이제 혼 부른 사람이다 몽땅 신 삼은 사람이다.)
107065 #1 상복, 상복 만든 디도 헙니다.(상복, 상복 만든 데도 합니다.)
107065 @2 아.(아.)
107065 @ 음.(음.)
107065 #3 신 삼은 사름이여게 다 공정 줍니다게.(신 삼은 사름이다 다 ‘공정’ 줍니다.)
107065 #1 뒈야지고기는 저 정시안티는 전각을 보내고.(돼지고기는 저 지관한테는 전각을 보내고.)
107065 @ 으.(으.)
107065 #3 목시안티는 후각을 보내곡 이렇게 허주.(목수한테는 후각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107065 @ 게난 옛날엔 공정 허젠 헤도 정말 하영 헤야 뒈는 거예?(그러니까 옛날엔 ‘공정’ 하려고 해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107065 #1 예.(예.)
107065 @ 그 저물떡은. 완전 멧, 멧 시리를 쳐야컨게 거기도.(그 ‘저물떡’은. 완전 몇, 몇 시루를 쪄야겠는데 거기도.)
107065 #3 아니 게난 그걸 상제가.(아니 그러니까 그걸 상제가.)
107065 #1 상제마다 헤가주게.(상제마다 해가지.)
107065 #3 상제가 많으민 하영 헤 오는 거.(상제가 많으면 많이 해 오는 거.)
107065 @ 아, 헹 왕은에 그걸 모든 걸로예.(아, 해서 와서 그걸 모든 걸로요.)
107065 #3 게난 요 상제가 혼 빗 저 상제가 혼 빗 허멍 쓰는 거주게.(그러니까 요 상제가 한 ‘빗’ 저 상제가 한 ‘빗’ 하면서 쓰는 거지.)

107065 #1 일가, 일가덜토 헤낫어. 일가덜토.(일가, 일가들도 했었어. 일가들도.)

107065 @ 일가들도 헹 오곡예. 옛날치록 허렌 헴시민 요즘 사름덜 다 도망갈 걸.(일가들도 해서 오고요. 옛날처럼 하라고 하고 있으면 요즘 사람들 다 도망갈 걸.)

107065 #1 겐디 그 일찍에 골앗주마는 그 저.(그런데 그 일찍 말했지만 그 저.)

107065 #3 다 도망가주, 옛날에.(다 도망가지, 옛날에.)

107065 #1 옛날에 저 젯상에 올리는 그 떡 다섯 가지 맨 밑에 궤는 떡.(옛날에 저 제상에 올리는 그 떡 다섯 가지 맨 밑에 괴는 떡.)

107065 @ 예.(예.)

107065 #1 이거는 쉬를 안 놩 허주게.(이거는 고물을 안 넣어서 하지.)

107065 @2 예, 시리떡에.(예, 시루떡에.)

107065 #1 그 사이를 뭘로 헤영 대이파리.(그 사이를 무엇으로 해서 댓잎.)

107065 @ 어, 대이파리.(어, 댓잎.)

107065 #1 대이파리 헤서 중간 중간 놓면서 징을 만들엇어.(댓잎 해서 중간 중간 넣으면서 켜를 만들었어.)

107065 @ 음.(음.)

107065 @2 아.(아.)

107065 #3 그거 제펜인게 제펜.(그거 '제편'이네, '제편'.)

107065 @ 제펜.('제편'.)

107065 @2 제펜예.('제편'요.)

107065 @ 제에 허니까 제펜예?(제에 하니까 '제편'요?)

107065 #3 제에 쓰니까 제펜이라.(제에 쓰니까 '제편'이야.)

107065 @ 예, 예. 그치록 하고. 옛날에 삼춘, 그 팔월멩질에는 송펜 헤? 송편은 여기선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우꽈?(예, 예. 그처럼 하고. 옛날에 삼촌, 그 팔월명절에는 송편 해? 송편은 여기선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107065 #3 어떤 식으로 만들아. 송펜은 옛날엔 막 조개송펜이라고 나불나불허게 헤도 요즘은 동글락허게 접으민 송편인디.(어떤 식으로 만들어. 송편은 옛날엔 아주 '조개송편'이라고 나불나불하게 해도 요즘은 동그랗게 집으면 송편인데.)

107065 @ 전 헤갖고.(전 해갖고.)

107065 #3 솔입. 솔입.(솔잎, 솔잎.)

107065 @ 예.(예.)

107065 #3 솔입 헤당 찌면은 나 검질메당 옛날엔 막 조팟 검질메여나민 막 솔입을 잘 벗어져.(솔잎 해다가 찌면 나 김매다가 옛날엔 막 조밭 김매어나면 막 솔잎을 잘 벗겨져.)

107065 @ 음.(음.)

107065 #3 뽑아다근에 그디에 물 싹싹 끌영은에 그걸 헹 시쳥 물리엉 놧당 멩질 때 떡 헐 때는 그 솔입 깨끗이 싯어당 그 떡을 만들앙 그 솔입 놓멍 솟듸 놩 거

쪙.(뽑아다가 거기에 물 싹싹 끓여서 그걸 해서 씻어서 말리어서 놔두었다가 명절 때 떡 할 때는 그 솔잎 깨끗이 씻어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그 솔잎 넣으면서 솥에 놔서 거 쪄서.)

107065 @ 으음.(으음.)

107065 #3 경헤근에 뜨시 이제 깨끗허게 헤근에 지름 불라근에 올렁 경 제술 어렵게 헷다고. 요새ᄀᆞ치 아녕. 가근에 사다근에 정반에 사단 허질 안 허고. 부모 죽은 후젠 그날 탈상헤불고 무신 물 흔 직 아녀도 다 다 살지 아넘서게. 옛날에 우린 경허멍 어렵게 살안. 웃음.(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해서 기름 발라서 올려서 그렇게 제살 어렵게 했다고. 요새같이 않아서. 가서 사다가 쟁반에 사다가 하질 안 하고. 부모 죽은 후에는 그날 탈상해버리고 무슨 물 한 모금 않아도 다 다 살지 않고 있는가. 옛날에 우린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았어. 웃음.)

107066 @ 맞아예? 게난 예전에는 여기도 조개솔벤 헷구나예? 으, 조개솔벤 헤갖고 이렇게 생긴 거.(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도 '조개솔편' 했군요? 으, '조개솔편'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107066 #1 어 조개.(어 조개.)

107066 @ 조개 모냥으로예?(조개 모양으로요?)

107066 #1 이 저 반들식으로 요렇게 셍긴.(이 저 반달식으로 요렇게 생긴.)

107066 #3 반달식으로 허는 디도 잇주만.(반달식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107066 #1 똥글락허게도 헤나고.(동그랗게도 했었고.)

107066 #3 요즘은 반달식이 베랑 엇어. 동글랑허고.(요즘은 반달식이 별로 없어. 동그랗고.)

107066 #1 동글락허게.(동그랗게.)

107066 @ 이제는 동글랑헤불언예?(이제는 동그래버렸지요.)

107066 #3 송편이라. 동글락 식이.(송편이야. 동그란 식이.)

107067 @ 예, 여기 정기떡?(예, 여기 '정기떡'?)

107067 #3 정기떡[373]은 빙떡이고.('정기떡'은 '빙떡'이고.)

107067 @ 빙떡예. 정기떡.('빙떡'요. '정기떡'.)

107067 #3 요센 빙떡이주 옛날엔 정기떡.(요샌 '빙떡'이지 옛날엔 '정기떡'.)

107067 #1 빙떡허고 만뒤떡[374]엔 헌 게 잇어, 또.('빙떡'하고 '만뒤떡'이라고 한 게 있어, 또.)

107067 @2 예.(예.)

107067 #1 만뒤떡.('만뒤떡'.)

107067 @ 정기, 정기떡은 어떵 헤야 맛 좁니까?('정기', '정기떡'은 어떻게 해야 맛 좋습니까?)

---

373) '정기떡'은 메밀가루로 얇게 지져낸 후에 그 안에 무채를 삶아서 깨소금 등을 넣어서 양념한 소를 넣어서 만 떡이다. 지역에 따라서 '빈떡', '빙떡', '영빈', '멍석떡' 등으로 부른다.

374) '만뒤떡'은 메밀가루로 반달 모양으로 접어서 안에 양념한 무채를 넣고 삶아낸 후에 위에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107067 #3 정기떡은 뭐 어떵 ᄆᆞᆯᄀᆞ르 캉 정기 후라이팬에 지지민 정기떡이난 맛 좋주.(‘정기떡’은 뭐 어떻게 메밀가루 타서 전기 프라이팬에 지지면 ‘정기떡’이니까 맛 좋지.)

107067 @ 으, 그 쏘곱에는 뭐 놔?(으, 그 속에는 뭐 넣어?)

107067 #3 무 담아.(무 담아.)

107067 @ 무 담앙예.(무 담아서요.)

107067 #3 쪽파 썰어 놓곡 꿧ᄀᆞ르 무치곡 허영 소금 서꺼근에 양념 맞게 헤여근에 무 놓멍 ᄆᆞᆯ면은 그것이 정기떡.(쪽파 썰어 넣고 깨소름 묻히고 해서 소금 섞어서 양념 맞게 해서 무 넣으면서 말면 그것이 ‘정기떡’.)

107067 @ 으, 그다음 아까 만뒤?(으, 그다음 아까 ‘만두’?)

107067 #3 만뒤는 뭐 ᄆᆞᆯᄀᆞ르 헤영 또 빚어가지고 이제 픗 솖앙 미치고 소곱에 무 담곡 이젠 그건 만뒤떡.(‘만두’는 뭐 메밀가루 해서 또 빚어가지고 이제 팥 삶아서 묻히고 속에 무 담고 이젠 그건 ‘만뒤떡’.)

107067 @ 만뒤떡이고.(‘만뒤떡’이고.)

107067 #3 겐디 만두떡은 먹젠이나 허주 제ᄉᆞ엔 안 쓰는 거.(그런데 ‘만두떡’은 먹으려고나 하지 제사엔 안 쓰는 거.)

107067 @ 아, 건 제에는 안 쓰고예?(아, 건 제에는 안 쓰고요?)

107067 #1 거 만뒤떡 허면은 픗 솖앙 뿟앙 그걸 무쳐버리주게.(거 ‘만뒤떡’ 하면은 팥 삶아서 빻아서 그걸 묻혀버리지.)

107067 @ 예.(예.)

107067 @2 예.(예.)

107067 #1 경허는 때문에 상엔 안 올려.(그렇게 하는 때문에 상엔 안 올려.)

107067 #3 제사에 안 써.(제사에 안 써.)

107067 @ 예. 그다음에 상웨떡?(예. 그다음에 상화?)

107067 #3 상웨떡은 또게 또 쉰다리 헹 놧당은에 거 ᄆᆞᆯ아근에 팔월멩질은 주로 그 송편만 헤영 올리질 안 허고 상웨떡을 헹 빗떡[375] 헤근에 친떡 모냥으로 헤영 우린 경 헤나신디 걸 헹 놔두민 막 이렇게 잘 피여. 걸 쪄근에 또 그거 우터레 그거 정반에 놔놩 펜틀 잇잖아이. 펜틀에.(상화는 또 또 ‘쉰다리’ 해서 놨다가 거 이겨서 팔월명절은 주로 그 송편만 해서 올리질 안 하고 상화를 해서 ‘빗떡’ 해서 시루떡 모양으로 해서 우린 그렇게 했었는데 걸 해서 놔두면 막 이렇게 잘 부풀어. 걸쪄서 또 그거 위로 그거 쟁반에 놔놓고 편틀 있잖아. 편틀에.)

107067 @2 예.(예.)

107067 #3 놔놩은에 그 우터레 송편 ᄌᆞ근ᄌᆞ근 석 줄 놔근에 또 그다음에 두 줄 놔근에 그다음에 흔 줄로 ᄆᆞ까근에 이거 궤는 식도 다 잇어.(놔놓아서 그 위로 송편 차근차근 석 줄 놔서 또 그다음에 두 줄 놔서 그다음에 한 줄로 마무리해서 이거

375) ‘빗떡’은 편틀에 올리기 좋게 직사각형으로 잘라낸 떡이다. 여기에서는 상화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빗떡’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괴는 식도 다 있어.)

107067 @ 음.(음.)

107067 #3 아무나 몰라 이거 헤나사.(아무나 몰라 이거 해나야.)

107067 #1 순서가 잇는 따문에?(순서가 있는 때문에?)

107067 @ 예, 게난 맨 밑에는 아까 이제.(예, 그러니까 맨 밑에는 아까 이제.)

107067 #3 친떡.(시루떡.)

107067 @ 상웨.(상화.)

107067 #1 상웨떡을 거 친떡 대신 놓는 거주.(상화를 거 시루떡 대신 놓는 거지.)

107067 @ 그, 그렇게 친떡 식으로 멘들어진 상웨떡 이름 뭐렌 헙니까?(그, 그렇게 시루떡 식으로 만들어진 상화 이름 뭐라고 합니까?)

107067 #1 빗상웨[376].('빗상웨'.)

107067 #3 빗상웨.('빗상웨'.)

107067 @2 빗상웨.('빗상웨'.)

107067 @ 빗상웨. 어, 나 여기 옛날에 여기 왕은에 빗상웨 조사헤난 거.('빗상웨'. 어, 나 여기 옛날에 여기 와서 '빗상웨' 조사했던 거.)

107067 #1 그게 웨냐허면 이 가루 이 쌀가루로 만든 음식보단 변허기를 쫌 덜 시간이 오래 가주게.(그게 왜냐하면 이 가루 이 쌀가루로 만든 음식보단 변하기를 좀 덜 시간이 오래 가지.)

107067 @ 예.(예.)

107067 #1 상웨떡이. 그 때문에 그.(상화가. 그 때문에 그.)

107067 @ 여름에는.(여름에는.)

107067 #1 여름에는 그걸 많이 허주.(여름에는 그걸 많이 하지.)

107067 #3 경헌디 저 요즘은 막 쏠이 흔허난 뭐든지 쏠 헤도 엿날은 쏠이 엇는 따문에 주로 밀.(그런데 저 요즘은 아주 쌀이 흔하니까 뭐든지 쌀 해도 옛날은 쌀이 없는 때문에 주로 밀.)

107067 @ 예.(예.)

107067 #3 밀 보리로 주장을 헤영 사난게. 또 밀 엇인 사름은 보리도 서끄곡 헷주.(밀 보리로 주장을 해서 사니까. 또 밀 없는 사람은 보리도 섞고 했지.)

107067 @ 밀로 멘든 밀상웨.(밀로 만든 '밀상웨'.)

107067 #3 밀상웨[377]가 경 맛이 좋아.('밀상웨'가 그렇게 맛이 좋아.)

107067 @ 보리 허믄?(보리 하면?)

107067 #3 보릿ᄀᆞ르 서끄민 맛은 덜어도 엇이믄 또 서끄곡.(보릿가루 섞으면 맛은 덜어도 없으면 또 섞고.)

107067 #1 엇이난 홀 수 엇주게.(없으니까 할 수 없지.)

---

376) '빗상웨'는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기주에 부풀려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쪄낸 떡. '제편'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름철에 시루떡 대신 제상에 올린다.

377) '밀상웨'는 밀가루로 만든 상화를 말한다.

107067 @ 보리상웨도 헷잖아예. 옛날에.('보리상웨'도 했잖아요. 옛날에.)
107067 #3 서껑. 서껑. 것만은 못허여.(섞어서. 섞어서. 것만은 못해.)
107067 @ 아 서껑. 밀허고 서껑.(아 섞어서. 밀하고 섞어서.)
107067 #3 꺼멍허고 맛이 엇는디 서끄민 좀 괜찮아. 어려우난게 어떵 헐 말이라.(꺼멓고 맛이 없는데 섞으면 좀 괜찮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말이야.)
107067 @ 맛수다.(맞습니다.)
107067 @2 웃음.(웃음.)
107067 @ 게난 그 상웨도 동글랑헌 거 잇고. 요렇게 네모나게도 만들고.(그러니까 그 상화도 동그란 거 있고. 요렇게 네모나게도 만들고.)
107067 #3 건 약궤.(건 약과.)
107067 @ 아, 상웨치록 피와도 약궤렌 헤마씨?(아, 상화처럼 부풀어도 약과라고 해요?)
107067 #3 약궤, 약궤로 만들 수가 잇는 거, 그건.(약과, 약과로 만들 수가 있는 거, 그건.)
107067 @ 상웨를예? 게난 상웨 약궤만 고망 늬 고냥 뚤리는 거 잖아예. 구멍예.(상화를요? 그러니까 상화 약과만 구멍 네 구멍 뚫는 거 잖아요. 구멍요.)
107067 #3 그거는 소상 때에나 경허주게. 그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중계 약궤는 안 쓰는 거난게.(그거는 소상 때에나 그렇게 하지. 그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중계 약과는 안 쓰는 거니까.)
107067 @ 아아, 거는 식게 때는 안 헤마씨?(아아, 거는 제사 때는 안 해요?)
107067 #1 식게 때는 안 허여.(제사 때는 안 해.)
107067 @ 아, 큰일 헐 때에.(아, 큰일 할 때에.)
107067 #3 소상 때에.(소상 때에.)
107067 @ 소상 때에.(소상 때에.)
107067 #3 대상 때에 영장 때에 그런 때나 쓰주. 안 써. 요새는 아무것도 안 써도 그때는 경헷주게.(대상 때에 장사 때에 그런 때나 쓰지. 안 써. 요새는 아무것도 안 써도 그때는 그렇게 했지.)
107067 @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식게 때 허는 거는 오, 다섯 개.(예,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사 때 하는 거는 오, 다섯 개.)
107067 @2 오펜.(오편)
107067 @ 오펜 올리는 거. 오편예?(오편 올리는 거. 오편요?)
107067 #3 웃음.(웃음.)
107067 @ 으, 식게 때는?(으, 제사 때는?)
107067 #3 예, 예. 다섯 개.(예, 예. 다섯 개.)
107067 @ 다섯 개.(다섯 개.)
107067 #1 다섯 가지 떡 허는 사름은 쫌 생각헤영 쫌 여유 잇는 사람.(다섯 가지 떡 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

107067 #3 다섯 가지 허는디 게메 거에 과질은 따라가야 좋다 허는 말이주.(다섯 가지 하는데 글쎄 거에 과줄은 따라가야 좋다 하는 말이지.)
107067 @ 식게 때도 과질 올립니까?(제사 때도 과줄 올립니까?)
107067 #3 과질 올립니다.(과줄 올립니다.)
107067 #1 과질 올리는 거주.(과줄 올리는 거지.)
107067 #3 올리고말고.(올리고말고.)
107067 @ 요즘도 올려?(요즘도 올려?)
107067 #3 요즘도 올리주게.(요즘도 올리지.)
107067 @ 아, 과질 허는 거 저 서쪽에는 안 헙니다.(아, 과줄 하는 거 저 서쪽에는 안 합니다.)
107067 #3 떡방에에 막 폽니께.(떡방아에 막 팝니다.)
107067 @ 으, 으.(으, 으.)
107067 #3 마트에도 풀아.(마트에도 팔아.)
107067 #1 마트에도 풀주.(마트에도 팔지.)
107067 @ 경허영은에 과질 올리고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례 떡 헐 때는 이제 열굿떡에 웃지시 헌 거 열 개.(그렇게 해서 과줄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례 떡 할 때는 이제 '열굿떡'에 웃기떡 한 거 열 개.)
107067 #3 건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 소상 때.(건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 소상 때.)
107067 #1 대소상 때도 허주.(대소상 때도 하지.)
107067 @ 예, 그다음에 삼춘, 그 설귀떡. 여기는 설귀떡은 뭐렌 헙니까?(예, 그다음에 삼촌, 그 백설기. 여기는 백설기는 뭐라고 합니까?)
107067 #3 문친떡?('문친떡'?)
107067 @2 예에.(예에.)
107067 @ 설귀떡. 문친떡은 폿 무친 거고.(백설기. '문친떡'은 팥 묻힌 거고.)
107067 #3 으.(으.)
107067 @ 설귀떡이렌 헌 말은 안 헤?(백설기라고 한 말은 안 해?)
107067 #3 설귀떡이엔 헌 게 그 제펜[378]이.(백설기라고 한 게 그 '제편'이.)
107067 #1 제펜보고 설귀떡.('제편'보고 백설기.)
107067 #3 그게 그거주. 그게 그거.(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107067 @ 제펜예? 여기에서는 설귀라는 말은 안 쓰는 거라예?('제편'요? 여기에서는 설기라는 말은 안 쓰는 거네요?)
107067 #1 안 써.(안 써.)
107067 @ 제펜예.('제편'요.)
107067 #3 이딘 제펜.(여긴 '제편'.)
107067 @ 예, 제펜헤근에 쓰고. 솔벤 만들어난 거 골아줍서?(예, '제편' 해서 쓰

378) '제펜'은 제에 쓰는 시루떡이라는 말이다.

고. ‘솔편’ 만들었던 거 말해주십시오?)
107067 #3 솔벤 만드는 거 곤쌀로 헤영 가르 빠앙게 그거. 반죽 만들엉 끌여내영.(솔편 만드는 거 흰쌀로 해서 가루 빻아서 그거. 반죽 만들어서 끓여내서.)
107067 @ 예.(예.)
107067 #3 그 저 절벤은 솖앙 이거 만들곡.(그 저 ‘절편’은 삶아서 이거 만들고.)
107067 @ 예.(예.)
107067 #3 솔벤은 그자 똣똣한 물에 물앙 싹싹 끌인 물에 물아근에 그냥 그거 밀엉.(‘솔편’은 그저 따뜻한 물에 이겨서 싹싹 끓인 물에 이겨서 그냥 그거 밀어서.)
107067 @ 예.(예.)
107067 #3 본이 잇어, 뜨는 본이.(본이 있어, 뜨는 본이.)
107067 #1 그것도 저 뭘 놩 헤여. 솔입.(그것도 저 뭘 놔서 해. 솔잎.)
107067 @ 솔입 놩.(솔입 넣어서.)
107067 #3 본 엇이면은 뭐 접시라도 어퍼 놩 딱 떵 발리면은 그 반돌이난.(본 없으면 뭐 접시라도 엎어 놔서 딱 떠서 벌리면 그 반달이니까.)
107067 @ 예.(예.)
107067 #3 경헤영 그것도 헤근에 솔입 놓고 찌는 거.(그렇게 해서 그것도 해서 솔잎 넣고 찌는 거.)
107067 @ 어, 아, 솖으는 게 아녀고 찝니까?(어, 아, 삶는 게 아니고 찝니까?)
107067 #1 건 쪄.(건 쪄.)
107067 @ 건 찌는 거예?(건 찌는 거요?)
107067 #3 솖을 수가 엇는 거.(삶을 수가 없는 거.)
107067 @ 이렇게 헤서 뭐 놩은에 바드렝이 놩.(이렇게 해서 뭐 놔서 경그레 놔서.)
107067 #1 으.(으.)
107073 @ 으, 경허영은에 허는 게 허고. 그 다음에 절벤은 어떻게 하는 거?(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하고. 그 다음에 절편은 어떻게 하는 거?)
107073 #3 절벤은게 솖아내여근에.(절편은 삶아내어서.)
107073 @ 예.(예.)
107073 #3 막 달롸.(막 이겨.)
107073 @ 으.(으.)
107073 #3 게민 이렇게 동그려. 두 개 마주 부쪙.(그러면 이렇게 동그래. 두 개 마주 붙여서.)
107073 @ 으.(으.)
107073 #3 이 본이 잇어, 놩.(이 본이 있어, 놔서.)
107073 #1 눌리는 거.(누르는 거.)
107073 #3 꼭 눌리면은 글자도 나오곡 그게.(꼭 누르면 글자도 나오고 그게.)
107073 #1 꼿도 나오곡 허주.(꽃도 나오고 하지.)

107073 @ 으.(으.)
107073 #3 동글락허게.(동그랗게.)
107073 #1 절벤본이 잇주.(절편본이 있지.)
107073 @ 절벤본이 잇어예? 요즘도 절벤본 헹은에 헙니까?(절편본이 있다고요? 요즘도 절편본 해서 합니까?)
107073 #1 아 그거 지금.(아 그거 지금.)
107073 #3 아 떡방에 잇어.(아 떡방아에 있어.)
107073 #1 떡방에 잇어.(떡방아에 있어.)
107073 @ 어, 삼춘네 집엔 엇고?(어, 삼촌네 집엔 없고?)
107073 #1 개인 집이 거는 거의 엇어져벼실 거라.(개인 집의 거는 거의 없어져 버렸을 거야.)
107073 #3 우리도 제ᄉᆞ헐 땐 잇엇단에 제ᄉᆞ가 아덜네 모셔가버려부난 치와비연 읏어.(우리도 제사할 땐 있었다가 제사가 아들네 모셔가버리니까 치워버려서 없어.)
107073 @ 으, 종손칩이난 잇일 거 닮은디?(으, 종손집이니까 있을 거 같은데?)
107073 #3 아니, 잇엇단에 아덜네가 제ᄉᆞ 모셔가부난에 엇** 거 헹 뭐헤?(아니, 있었다가 아들네가 제사 모셔가버리니까 없** 거 해서 뭐해?)
107073 #1 필요허게 놔둔 사름은 놔둬실 거라.(필요하게 놔둔 사람은 놔뒀을 거야.)
107073 @ 게난 놔둬시민 나가 사진 찍어 갈 건디.(그러니까 놔뒀으면 내가 사진 찍어 갈 건데.)
107073 #3 나 버려변.(나 버려버렸어.)
107075 @ 버려불엇수강? 으, 그다음에 그 아까 웃지시 헷잖아예? 웃지시.(버려버렸습니까? 으, 그다음에 그 아까 웃기떡 했잖아요? 웃기떡.)
107075 #3 우지시?(웃기떡?)
107075 @ 으.(으.)
107075 #3 우지시는 그 손으로도 접을 수 잇는 거. 또 본도 잇어, 그거. 동글락헌 거 튿아진 거.(웃기떡은 그 손으로도 집을 수 있는 거. 또 본도 있어, 그거. 동그란 거 터진 거.)
107075 #1 이젠 그런 거 풀암주.(이젠 그런 거 팔고 있지.)
107075 #3 지름떡 허는 거게.(기름떡 하는 거.)
107075 @ 예, 예.(예, 예.)
107075 @2 양철로 헤.(양철로 해.)
107075 #1 본이 잇어.(본이 있어.)
107075 @ 걸로 헹 허고. 옛날엔 손으로 영 줍아실 거라예?(걸로 해서 하고. 옛날엔 손으로 이렇게 집었을 거네요?)
107075 #1 손으로 헷어.(손으로 했어.)
107075 #3 손으로 밀어놩 똑똑허게 떠근에.(손으로 밀어놔서 똑똑하게 떠서.)

107075 @ 음, 떵은에 웃지시로 이제 하는 거고. 게난 웃지시는 그 벨떡예? 으. 여기도 벨떡이렌도.(음, 떠서 웃기떡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웃기떡은 그 기름떡요? 으. 여기도 '별떡'이라고도.)

107075 #3 벨떡게. 벨떡.('별떡'. '별떡'.)

107076 @ 벨떡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삼춘도 당에 가봅디가?('별떡'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촌도 당에 가봅디까?)

107076 #3 당에 뎅, 다녀나긴 다녀나도 요즘은 안 다니주.(당에 다, 다녀나긴 다녔어도 요즘은 안 다니지.)

107076 @ 으, 옛날 당에 뎅길 때는 무신 떡 헤영 가?(으, 옛날 당에 다닐 때는 무슨 떡 해서 가?)

107076 #3 돌레떡.(도래떡.)

107076 @ 돌레떡은 뭘로 헙니까?(도래떡은 무엇으로 합니까?)

107076 #3 쌀로. ᄆᆞ밀쏠이나.(쌀로. 메밀쌀이나.)

107076 #1 ᄆᆞ믈.(메밀.)

107076 #3 쏠이나.(쌀이나.)

107076 #1 메밀쏠, 메밀쏠을 많이 허주.(메밀쌀, 메밀쌀을 많이 하지.)

107076 @ 이렇게.(이렇게.)

107076 #3 당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주.(당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지.)

107076 @ 예.(예.)

107076 #3 유월ᄃᆞᆯ 나민 유월 초일레, 열일뤠, 쓰무일뤠.(유월달 나면 유월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107076 @ 으.(으.)

107076 #3 동짓ᄃᆞᆯ 나민 동짓ᄃᆞᆯ 초일뤠 열일뤠 쓰무일레 영 가는 거주.(동짓달 되면 동짓달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이렇게 가는 거지.)

107076 @ 일뤳당이구나.('일뤳당'이구나.)

107076 #3 일뤳당[379].('일뤳당'.)

107076 #1 건 자니ᄆᆞ루당[380].(건 '자니ᄆᆞ루당'.)

107076 #3 경헌디 그디 갈 때는 동글락떡 헤영은에 그 돌레떡이라고 잇어.(그런데 거기 갈 때는 동그란 떡 해서 그 도래떡이라고 있어.)

107076 @ 으, 몃 개 가졍가마씨? 거기는.(으, 몇 개 가져가요? 거기는.)

107076 #3 아, 그거는 많이 가졍 가야주.(아, 그거는 많이 가져서 가야지.)

107076 @ 음.(음.)

107076 #3 어느 정도 헤영 가야주. 너미 너미 작게 허영 가민 건 비참시러왕 안 뒈여. 경헌 디 가는 건 이건 좀 ᄆᆞ음 먹엉 가야주.(어느 정도 해서 가야지. 너무 너무 적게 해서 가면 건 비참해서 안 되어. 그런 데 가는 건 이건 좀 마음 먹어서 가

379) '일뤳당'은 7일이 든 날짜에 다니는 당이다. 7일, 17일, 27일에 다닌다.
380) '자니ᄆᆞ루당'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경의 '자니ᄆᆞ루'에 있는 당이어서 붙은 명칭이다.

야지.)

107076 @ 음.(음.)

107076 #3 밥 메.(밥 메.)

107076 @ 예.(예.)

107076 #3 메 헤영 떠놓고.(메 해서 떠놓고.)

107076 @2 요만큼헌 보시?(요만한 보시기?)

107076 @ 시리에 헤갖고.(시루에 해갖고.)

107076 @2 보시 닮은 거예?(보시기 같은 거요?)

107076 #3 보시 닮은 것에 굿헐 때나 보시 닮은 것에 떡 허주, 아녑니다.(보시기 같은 것에 굿할 때나 보시기 같은 것에 떡 하지, 않습니다.)

107076 @2 아, 당에 갈 때 안 헙니까?(아, 당에 갈 때 안 합니까?)

107076 @ 당에는 무조건?(당에는 무조건?)

107076 #3 당에 갈 땐 사발에 밥 거리곡 떡은 만들앙 가곡 관청할망[381] 성읍리 본향이 관청할망이라.(당에 갈 땐 사발에 밥 뜨고 떡은 만들어서 가고 '관청할망' 성읍리 본향이 '관청할망'이야.)

107076 @ 안할망예?('안할망'요?)

107076 #3 관청할망안티 갈 때는 밥도 세 그릇. 낭푼이에 ᄒᆞ나 잔도 요짝에 세 개 요짝에도 세 개. 또 떡도 허면은 그자 요짝에 양펜이 올려삽니다게. 숟가락도 ᄋᆞ섯 개.('관청할망'한테 갈 때는 밥도 세 그릇. 양푼에 하나 잔도 요쪽에 세 개 요쪽에도 세 개. 또 떡도 하면 그저 요쪽에 양편에 올려야 합니다. 숟가락도 여섯 개.)

107076 @2 으.(으.)

107076 #3 잔도 ᄋᆞ섯 개 경 가졍 가사 헙니다.(잔도 여섯 개 그렇게 가져서 가야 합니다.)

107076 @ 음.(음.)

107076 #3 나 관청할망신디도 많이 다닙니다. 이 애기덜 다 공부시키져 출세시키젠 허난에 노력 하영 헷수다.(내 '관청할망'한테도 많이 다닙니다. 이 아기들 다 공부시키자 출세시키려고 하니까 노력 많이 했습니다.)

107076 @ 게난 안할망 관청할망안티 뎅기니까 서울 강 기업은행도 뎅기고.(그러니까 '안할망' '관청할망'한테 다니니까 서울 가서 기업은행도 다니고.)

107076 #3 어떵사 헤연디. 그거 지네 운명이주.(어떻게야 했는지. 그거 저들 운명이지.)

107076 #1 많이덜 다녀. 이 저.(많이들 다녀. 이 저.)

107076 #3 지네덜 운명이주마는.(저들 운명이지만.)

107076 #1 학생덜 시험 보레 갈 때도 많이 다니고.(학생들 시험 보러 갈 때도 많이 다니고.)

---

381) '관청할망'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민들이 자주 자니는 '안할망당'의 주신인 '안할망'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107076 #3 학생 그것덜 믄 중학교부떠 중학교부떠 고등학교 대학 또 직장 또 손주도 경허단 보난 손주가 더 난. 우리 큰손지가 이제 쓰물다섯 군대 갓단.(학생 그것들 몽땅 중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 또 직장 또 손자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손주가 더 낳았어. 우리 큰손자가 이제 스물다섯 군대 갔다가.)

107076 @ 예.(예.)

107076 #3 대학교 이제 올히 삼 학년 내년 사 학년이고. 또 족은손진 큰아덜에 족은손진 군대 갓다완에 올히 일 학년 반 헨에 저 이 학년 못혜연 갓단에 올히 복학허난 이제 이 학년으로 들어가곡. 그것도 믄딱 군인 갈 때도 무시거 헐 때도 이 저 할망이 게나제나 더프진 못혜도 그자 노력혜연.(대학교 이제 올해 삼 학년 내년 사 학년이고. 또 작은손자는 큰아들에 작은손자는 군대 다녀와서 올해 일 학년 반 해서 저 이 학년 못해서 갔다가 올해 복학하니까 이제 이 학년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몽땅 군대 갈 때도 무엇 할 때도 이 저 '할망'이 그러나저러나 덮진 못해도 그저 노력해서.)

107076 @ 예, 이제도 뎅겸구나예?(예, 이제도 다니고 있군요?)

107076 #3 곱게 간오난 곱게 간오난 학교 잘 다녀.(곱게 다녀오니까 곱게 다녀오니까 학교 잘 다녀.)

107076 @ 예. 게난 건 관청할망안티 요즘도 감구나예?(예. 그러니까 건 '관청할망'한테 요즘도 가고 있군요?)

107076 #3 요즘도 가살 건디 요새는 요새는 안 가고 이제 또 갈 때가 잇수다. 이제 또 손지 공무원 시험 봐살 거라부난.(요즘도 가얄 건데 요새는 요새는 안 가고 이제 또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또 손자 공무원 시험 봐얄 거여서.)

107076 @ 웃음.(웃음.)

107076 #3 연급 준 할망신디 가사 어떵 수덕을 얻주.(연급 준 '할망'한테 가야 어떻게 수덕을 얻지.)

107076 @ 으으, 수덕 얻는덴 헙니까?(으으, 수덕 얻는다고 합니까?)

107076 #3 예, 수덕 얻넨. 그거 복 받으레 가는 거 아니우꽈게?(예, 수덕 얻는다고. 그거 복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107076 @ 예.(예.)

107076 #3 부처님 앞의 가민 ᄆᆞ음이 착혜사 복 받는 거고양. 관청할망신디도 가젠 허민 ᄆᆞ음 착허게 헹 가사 수덕 보는 거우다. 수덕엔 헙니다, 수덕.(부처님 앞에 가면 마음이 착해야 복 받는 거고요. '관청할망'한테도 가려고 하면 마음 착하게 해서 가야 수덕 보는 겁니다. 수덕이라고 합니다, 수덕.)

107077 @ 수덕예? 수덕 본다. 그다음에 이제 굿떡예? 아까 이제 저기 심방덜 굿헐 때 어떤 떡덜을 허엿수가? 그때는.(수덕이요? 수덕 본다. 그다음에 이제 '굿떡'요? 아까 이제 저기 심방들 굿할 때 어떤 떡들을 했습니까? 그때는.)

107077 #3 심방 굿도 굿에 ᄯᅡ랑 떡 헙니다. 그 그냥 큰굿 헐 때는 여라 가지 헙니다. 시루떡도 허고.(심방 굿도 굿에 따라서 떡 합니다. 그 그냥 큰굿 할 때는 여

러 가지 합니다. 시루떡도 하고.)

107077 @ 음.(음.)

107077 #3 또 이 동글락떡[382]도 허고. ᄌᆞ매떡[383]이라고 영 동글동글허게 꼭 누르떠근에 ᄌᆞ매떡도 허고 보시떡[384]도 허고. 떡도 여라 가지. 것도 굿에 따랑 떡 허주, ᄀᆞ뜨지 안 헙니다.(또 이 동그란 떡도 하고. ‘ᄌᆞ매떡’이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꼭 눌러서 ‘ᄌᆞ매떡’도 하고 ‘보시떡’도 하고. 떡도 여러 가지. 것도 굿에 따라서 떡 하지, 같지 안 합니다.)

107077 @ 아까 동글락헌 떡은?(아까 동그란 떡은?)

107077 #3 돌레떡.(도래떡.)

107077 @ 돌레떡. 그다음에 보시떡은?(도래떡. 그다음에 ‘보시떡’은?)

107077 #3 보시떡은 그건 이 할망 마지나 찌젠 헤야 보시떡 허는 거.(‘보시떡’은 그건 이 할머니 마지나 찌려고 해야 ‘보시떡’ 하는 거.)

107077 @ 예.(예.)

107077 #3 그거는 할마님상[385]에 올리젠 허민 보시떡으로 올령 청. 마제도 그 산메[386]라고양.(그거는 할머님상에 올리려고 하면 ‘보시떡’으로 올려서 쪄서. 마지도 그 ‘산메’라고요.)

107077 @ 예.(예.)

107077 #3 그냥 사발에서. 사발에서 찝니다, 그건.(그냥 사발에서. 사발에서 찝니다, 그건.)

107077 @2 예, 맞수다. 예, 예.(예, 맞습니다. 예, 예.)

107077 #3 사발에서 쪄근에 그 할망상에 영 세 사발 헤영 올리곡. 떡도 경헹 올리곡. 그때 이제 또 동글랑떡도 헤영 올리곡 ᄌᆞ메떡이라고 영 꾹 접아진 거 헤영 올리곡 경 헙니다.(사발에서 쪄서 그 ‘할망상’에 이렇게 세 사발 해서 올리고. 떡도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때 이제 또 도래떡도 해서 올리고 ‘ᄌᆞ메떡’이라고 이렇게 꾹 집어진 거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107077 @2 ᄃᆞ메떡?(‘ᄃᆞ메떡’?)

107077 @ 줌메떡.(‘줌메떡’.)

107077 #3 ᄌᆞ메떡 ᄌᆞ메떡.(‘ᄌᆞ메떡’ ‘ᄌᆞ메떡’.)

107077 @2 줌메.(‘줌메’.)

107077 @ ᄌᆞ메.(‘ᄌᆞ메’.)

107077 #3 줌메, 줌메, 줌메.(‘줌메’, ‘줌메’, ‘줌메’.)

107077 @ 줌메 허잖아예, 게니까 ᄌᆞ메떡 ᄌᆞ메떡 허는데 그거는 손으로 영 꼭 잡앙은에.(‘줌메’ 하잖아요, 그러니까 ‘ᄌᆞ메떡’ ‘ᄌᆞ메떡’ 하는데 그거는 손으로 이렇

382) 여기에서 ‘동글락떡’은 도래떡을 가리키는 말이다.
383) ‘ᄌᆞ매떡’은 굿을 할 때 올리는 떡의 일종이다. 동그랗게 만든 후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만든다.
384) ‘보시떡’은 보시기에 쌀가루를 넣어서 시루에서 쪄낸 떡이다. ‘보시’는 보시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385) ‘할마님상’은 아기를 돌봐준다는 ‘삼승할망’을 위해 차린 상을 말한다.
386) ‘산메’는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그릇에 쌀을 넣어서 솥에 넣어 찌는 밥을 말한다. 밥이 잘되면 운수가 좋고, 밥이 잘되지 않으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게 꼭 집어서.)

107077 #3 아니, 동글동글허게 헤여근에 영 소롬허게 누르떠 놩 영 꼭 누르뜨민 이게 즈매떡이 뒈는 거라.(아니,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기름하게 눌러 놔서 이렇게 꼭 누르면 이게 '즈매떡'이 되는 거야.)

107077 @ 영 뒌 거우꽈?(이렇게 된 겁니까?)

107077 #3 오무룩허게.(오목하게.)

107077 @ 이런 식으로 헤영은에. 가운데.(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107077 #3 예. 오무룩허게. 경 뒈는 거.(예. 오목하게. 그렇게 되는 거.)

107077 @ 요렇게 헤갖고 여기 영 눌러진 거 아니라예?(요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눌러진 거 아닌가요?)

107077 #3 여기 눌러지면 즈메떡이 뒈는 거.(여기 눌러지면 '즈메떡'이 되는 거.)

107077 @ 좀메떡예, 그 조메떡도 이제 올리고. 아까 마제렌 헷는데 마제가 뭐?('좀메떡'요, 그 '즈메떡'도 이제 올리고. 아까 마지라고 했는데 마지가 뭐?)

107077 #3 마제는 할망굿[387]. 이 애기덜 막 저들롸근에 잘 키우지 못허나.(마지는 '할망굿'. 이 아기들 막 걱정시켜서 잘 키우지 못하나.)

107077 @ 어.(어.)

107077 #3 애길 못 나근에 이제 어디 공들여사 낳겐 허민 삼승굿[388] 허렌 허민 마제 치는 거.(아길 못 나서 이제 어디 공들여야 낳는다고 하면 '삼승굿' 하라고 하면 마지 찌는 거.)

107077 @ 아. 걸 마제 치는.(아. 걸 마지 찌는.)

107077 #3 삼승할망안티 불도할망[389]안티 마제 치는 거.('삼승할머니'한테 '불도할망'한테 마지 찌는 거.)

107077 @ 아, 걸 마제굿이렌 허고.(아, 걸 '마제굿'이라고 하고.)

107077 #3 그거 마제굿[390]이라고 허는 거.(그거 '마제굿'이라고 하는 거.)

107077 @ 큰굿은?(큰굿은?)

107077 #3 큰굿은 대신 막 노프게 세우곡 대왕청[391]이라고 막 허지 안 헙니까게.(큰굿은 대신 막 높게 세우고 '대왕청'이라고 막 하지 안 합니까.)

107077 @ 예.(예.)

107077 #3 대 돌아메영 크게 헤근에 그것가 큰굿.(대 매달아서 크게 해서 그것이 큰굿.)

107077 @ 본향굿은 뭐?(본향굿은 뭐?)

107077 #3 본향굿[392]은 본향굿은 여긴 아녑니다. 성읍린 본향이 엇으니까.('본향굿'은 '본향굿'은 여긴 안 합니다. 성읍린 본향이 없으니까.)

---

387) '할망굿'은 아기를 돌봐주는 '삼승할머니'를 위한 굿을 말한다.
388) '삼승굿'은 '삼승할머니'를 위한 굿이다. 제보자는 달리 '할망굿'이라고도 하였다.
389) '불도할망'은 아기를 점지해주는 산육신을 말한다. 달리 '삼승할망'이라고도 한다.
390) '마제굿'은 마지, 즉 '마짓밥'을 해서 올리는 '불도맞이굿'의 다른 이름이다.
391) '대왕청'은 큰굿을 할 때 큰 대를 세워서 굿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92) '본향굿'은 본향당에서 치르는 굿을 말한다.

107077 @ 아.(아.)

107077 #3 관청할망신디만 뎅기고.(‘관청할망’한테만 다니고.)

107077 @ 그냥 큰굿 허고.(그냥 큰굿 하고.)

107077 #3 큰굿 헐 때 이 본향 드는 게 잇어. 대에 돌아멧당 들여올 때 그것가 본향이라고 헙니다.(큰굿 할 때 이 본향 드는 게 있어. 대에 매달았다가 들여올 때 그것이 본향이라고 합니다.)

107077 @ 으.(으.)

107077 #3 막 그땐 심방 감장돌멍 저디 돌아멧당 ᄆᆞᆫ꼬젠 허민 모셔다놔근에 막 들럭퀴멍 이 풀어내멍 허는 거.(막 그땐 심방 매암돌면서 저기 매달았다가 마무리하려고 하면 모셔다놓아서 막 날뛰면서 이 풀어내면서 하는 거.)

107078 @ 음, 거믄 그냥 큰굿이렌 허는 거라예? 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헤 먹는 떡, 속떡도 잇엇일 거고 뭐 이런 거.(음, 그러면 그냥 큰굿이라고 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해 먹는 떡, 쑥떡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거.)

107078 #3 숙떡은 뭐 먹구정허민 헤먹는 거 안 먹으민 실프민 말고. 쑥버무리도 헹 먹는 거. 건 실프민 마는 거 헤먹구정허민 헤먹는 거.(쑥떡은 뭐 먹고자하면 해먹는 거 안 먹으면 싫으면 말고. 쑥버무리도 해서 먹는 거. 건 싫으면 마는 거 해먹고자하면 해먹는 거.)

107078 @2 웃음.(웃음.)

107078 @ 음.(음.)

107078 #3 건 똑 벡여진 거 아니.(건 똑 박힌 거 아니.)

107078 @ 옛날 쥐기떡 같은 것도 헤실 건디?(옛날 ‘쥐기떡’ 같은 것도 했을 건데?)

107078 #3 쥐기떡은양 건 어려운 때에.(‘쥐기떡’은요 건 어려운 때에.)

107078 @ 예.(예.)

107078 #3 밀을 그걸 ᄆᆞᆯ ᄀᆞ레에 강 ᄀᆞᆯ앙.(밀을 그걸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107078 @ 음.(음.)

107078 #3 방에에서 쩡.(방아에서 찧어서.)

107078 @ 음.(음.)

107078 #3 쳇 **으민 막 정ᄀᆞ레든 맞ᄀᆞ레이든 ᄀᆞᆯ앙. 그걸 쪄근에 ᄀᆞ르 쳐근에 곤ᄀᆞ르[393] 빠 앗아, 두 번차 홁은체로 헌 거는 순다리 걸러놩 헌 것에 중상웨[394]. 세 번차 체 우의 거는 쥐기떡.(첫 **으면 막 맷돌이든 ‘맞ᄀᆞ레’이든 갈아서. 그걸 찧어서 가루 쳐서 고운 가루 빠 가지고, 두 번째 굵은체로 한 거는 ‘순다리’ 걸러놔서 한 것에 ‘중상웨’. 세 번째 체 위에 거는 ‘쥐기떡’.)

107078 @ 음.(음.)

393) ‘곤ᄀᆞ르’는 아주 부드럽게 간 가루를 말한다.

394) ‘중상웨’는 굵은 가루에 기주를 넣어서 부풀려 쪄낸 상화를 말한다.

107078 #3 쭤기떡은 뭘로 만드느냐 허면은 그 순다리 걸러난 것에 놩 뀌여놩 쭤기떡을 만들고.(‘쭤기떡’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그 ‘순다리’ 걸렀던 것에 넣어서 반죽해놓아서 ‘쭤기떡’을 만들고.)

107078 @ 으, 중상웨는?(으, ‘중상웨’는?)

107078 #1 또 곤떡[395]에는 뭣을 허냐 허민 그 얇은 그 물로 헤근에 곤떡 만들곡 중상웨엔 헌 건 또 홁은ᄀᆞ르 헤근에 거 허곡. 경허는 것가 쭤기떡 중상웨 곤상웨[396].(또 ‘곤떡’에는 뭣을 하느냐 하면 그 얇은 그 물로 해서 ‘곤떡’ 만들고 ‘중상웨’라고 한 건 또 굵은 가루 해서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쭤기떡’ ‘중상웨’ ‘곤상웨’.)

107078 @ 음.(음.)

107078 #3 세 가지.(세 가지.)

107078 @ 세 가지예? 예, 예.(세 가지요? 예, 예.)

107078 #3 나안티 너무 듣는 거 아니우꽈? 그만 ᄀᆞᆫ게. 웃음.(나한테 너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만 말하자. 웃음.)

107078 @ 경허니까 삼춘을, 우리 삼춘이 삼춘을 모셩 왓수게. 웃음.(그렇게 하니까 삼촌을, 우리 삼촌이 삼촌을 모셔서 왔습니다. 웃음.)

107078 #3 아이고, 춤. 멧 시간고?(아이고, 참. 몇 시간이니?)

107078 @ ᄒᆞ꼼만 더 헤영은에예.(조금만 더 해서요.)

107078 #1 할망 오래 앚앙 헤나민 집의 가지 못허여.(할머니 오래 앉아서 해나면 집에 가지 못해.)

107078 @2 음.(음.)

107078 #3 아니 못 가는 것보담도.(아니 못 가는 것보다도.)

107078 @ ᄀᆞ상웨예.(‘ᄀᆞ상웨’요.)

소와 고물

107079 @ 그다음엔 이젠 떡 허젠 허니까 떡 소곱에 노는 거? 떡 이제 상웨 허면 안에 뭐 놓지 아넘니까예?(그다음엔 이젠 떡 하려고 하니까 떡 속에 넣는 거? 떡 이제 상화 하면 안에 뭐 넣지 않습니까요?)

107079 #3 상웬 무시거 안 놘 헷수다.(상화는 무엇 안 놔서 했습니다.)

107079 @ 아, 상웨 여기는 안 놔마씨?(아, 상화 여기는 안 넣어요?)

107079 @2 송펜에는마씨?(송편에는요?)

107079 #3 송편에는 당허는 대로 놓주게.(송편에는 당하는 대로 넣지.)

107079 @ 그 안에 놓는 거를 뭐렌 헙니까? 여기서는.(그 안에 넣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107079 #1 쉬. 쉬.(소. 소.)

---

395) 여기에서 ‘곤떡’은 고운 가루로 만든 상화를 말한다.

396) ‘곤상웨’는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상화를 말한다. 제보자는 ‘곤상웨’를 ‘곤떡’이라고도 하였다.

107079 @ 쉬? 순메?(‘쉬’? ‘순메’?)
107079 #3 쉬라고 허주게.(‘쉬’라고 하지.)
107079 @ 쉬.(소.)
107079 #3 송펜, 송펜 쉬는 뭣을 허느냐 허면은 이 저 제ᄉᆞ에 헐 때는 꿰.(송편, 송편 소는 뭣을 하느냐 하면 이 저 제사에 할 때는 참깨.)
107079 @ 예.(예.)
107079 #3 꿰나, 꿰나 녹두나 그런 거엔 폿은 안 담읍네다.(참깨나, 참깨나 녹두나 그런 거엔 팥은 안 담습니다.)
107079 @ 아, 여기는 정말로 팟은 다 안 헴다예?(아, 여기는 정말로 팥은 다 안 하네요?)
107079 #1 제사 때에.(제사 때에.)
107079 @ 다른 데는 제사 때도 뭐 폿도 다 놩은에 허는데.(다른 데는 제사 때도 뭐 팥도 다 넣어서 하는데.)
107079 #3 아니 우리가 이.(아니 우리가 이.)
107079 @2 예, 감춰지니까.(예, 감춰지니까.)
107079 #2 이 떡방에 강 떡을 사와도게 이 웬두콩이나 무시거 놩 허주, 폿.(이 떡방아 가서 떡을 사와도 이 완두콩이나 무엇 넣어서 하지, 팥.)
107079 #1 아녀메.(않아.)
107079 @ 쏘곱에ᄁᆞ장.(속에까지.)
107079 #1 제사에 쓸 건 안 헤.(제사에 쓸 건 안 해.)
107079 #3 폿 소곱에 송편 소곱엔 안 담읍네다.(팥 속에 송편 속엔 안 담습니다.)
107079 @ 우리는 폿 헌 시루떡도 다 그냥 허는디. 웃음.(우리는 팥 한 시루떡도 다 그냥 하는데. 웃음.)
107079 #1 제사 때엔 안 헤.(제사 때엔 안 해.)
107079 #3 아니 모르민 약이고 알민 벵이라부난.(아니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어 버리니까.)
107079 @ 예, 맞아. 경 헤영은에 이제 깨를 많이 허는구나예?(예,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깨를 많이 하는군요?)
107079 #3 꿰 많이 갈아낫주기. 꿰 많이 갑니다. 그 주로 꿰 거 허민 좋아. 우리 느량 경허멍 헤난난에.(참깨 많이 갈았었지. 참깨 많이 갑니다. 그 주로 참깨 거 하면 좋아. 우리 늘 그렇게 하면서 했었으니까.)
107080 @ 예, 그다음에 그 소곱에 거는 쉬렌 허잖아예. 그다음에 징 허는 디 이렇게 노는 거는 뭐렌 골아? 웨 그 문친떡.(예, 그다음에 그 속에 거는 소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켜 하는 데 이렇게 넣는 거는 뭐라고 말해? 왜 그 ‘문친떡’.)
107080 #3 징 놓는 거, 징 놓는 거.(켜 넣는 거, 켜 넣는 거.)
107080 @ 으, 문친떡 헐 때 쉬 징?(으, ‘문친떡’ 할 때 소 켜?)

107080 #3 문친떡 헐 때 풋쉬 놩.(‘문친떡’ 할 때 팥소 넣어서.)
107080 @ 것도 쉬.(것도 소.)
107080 @2 쉬.(소.)
107080 @ 건데 징 논덴 허는구나예? 그거는예? 예.(그런데 켜 논다고 하는군요? 그거는요? 예.)
107080 #1 혼 징 혼 징 놀 거난.(한 켜 한 켜 넣을 거니까.)
107080 @ 으, 그때 징 놓는 거는 뭘로 놔? 풋허고?(으, 그때 켜 넣는 거는 무엇으로 놔? 팥하고?)
107080 #3 풋, 풋만 놓민 뒈주, 무시거.(팥, 팥만 넣으면 되지, 무엇.)
107080 @ 주로 풋으로. 어, 아까 경 안 허면 댓입.(주로 팥으로. 어, 아까 그렇게 안 하면 댓잎.)
107080 #1 댓입은 제펜 헐 때.(댓잎은 ‘제편’ 할 때.)
107080 #3 댓입은 제펜 헐 때 제ᄉᆞ에 쓸 거.(댓잎은 ‘제편’ 할 때 제사에 쓸 거.)
107080 @ 제ᄉᆞ에 쓸 거만.(제사에 쓸 거만.)
107080 #3 제ᄉᆞ에 쓸 때나 그 댓입 놩 허주, 경 아녑디다.(제사에 쓸 때나 그 댓잎 넣어서 하지, 그렇지 않습디다.)
107080 #1 먹을 거 헐 때는 댓잎 안 놔.(먹을 거 할 때는 댓잎 안 넣어.)
107080 #3 제펜이 맛이 덜 가. 아멩 헤도.(‘제편’이 맛이 덜 가. 아무리 해도.)
107080 @2 으, 으.(으, 으.)
107080 @ 예, 그것만 허니까예?(예, 그것만 하니까요?)
107080 #3 초상 나신 올려도.(조상 몫은 올려도.)
107080 @ 삼춘, 옛날에 떡 허젠 허면 막 금기허는 거 하서예? 뭐 떡 치는 디 뎅기지 말라 뭐허라 허멍.(삼촌, 옛날에 떡 하려고 하면 막 금기하는 거 많지요? 뭐 떡 찌는 데 다니지 마라 뭐하라 하면서.)
107081 #1 시리떡 헐 때.(시루떡 할 때.)
107081 #3 짐 아니 올를 때.(김 아니 오를 때.)
107081 @ 건 뭐렌 굽니까?(건 뭐라고 말합니까?)
107081 #1 부정 탄. 부정 탄.(부정 탔어. 부정 탔어.)
107081 #3 여자가 새물이라고. 떡 시리 앚정 들어오면은 떡이 안 익나 허는 거고. 또 아니 오라사 짐은 잘 올른덴 허고. 만약에 또 떡을 헤근에 짐이 아니 올르면은 둘뤄당도 앚지곡 큰굿을 허젠 허민 그 대시시리[397]라고 쳐 엿날에. 대시시리 치민 그치룩 혜영 앚져근에 허민. 이 펜안허젠 허민 이 떡이 잘 익고 아녀젠 허민 떡이 안 익어.(여자가 사물(邪物)이라고. 떡 시루 앉혀서 들어오면 떡이 안 익나 하는 거고. 또 아니 와야 김은 잘 오른다고 하고. 만약에 또 떡을 해서 김이 아니 오르면 뒤집어서도 앉히고 큰굿을 하려고 하면 그 ‘대시시리’라고 쪄 옛날에. ‘대시시리’ 찌면 그처럼 해서 앉혀서 하면. 이 편안 하려고 하면 이 떡이 잘 익고 않으려고 하면

397) ‘대시시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떡이 안 익어.)

107081 @ 음.(음.)

107081 #3 게민 감상기[398][감상끼]라고 심방덜이 그.(그러면 감상기라고 심방들이 그.)

107081 @2 예, 감상기예.(예, 감상기요.)

107081 #3 알암신게. 감상기라고 그 감상기 앚당은에 꼽아근에 그 떡을 쪄낫수다. 나가 큰굿을 세 번 헤나수다게.(알고 있네. '감상기'라고 그 '감상기' 가져다가 꽂아서 그 떡을 쪘었습니다. 내가 큰굿을 세 번 했었습니다.)

107081 @2 아.(아.)

107081 #3 게난 잘 아는 거. 아녀나민 몰라.(그러니까 잘 아는 거. 안 해나면 몰라.)

107081 @ 게난 떡 칠 때 감상기 헹도 쳐봔예?(그러니까 떡 찔 때 감상기 해서도 쪄봤다고요?)

107081 #3 게난 익읍디다.(그러니까 익습디다.)

107081 @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안 익엉 막 밖으로 막 이제 짐 나불곡 허잖아예?(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안 익어서 막 밖으로 막 이제 김 나버리고 하잖아요?)

107081 #3 예.(예.)

107081 @ 시릿고망 글로 헹은에.(시루 구멍 그리로 해서.)

107081 #3 게난 여자 들어오지 말렌 허여. 오라가민 저레 손 영 영.(그러니까 여자 들어오지 말라고 해. 와가면 저리로 손 이렇게 이렇게.)

107081 #1 부정 탄덴 허여.(부정 탄다고 해.)

107081 @ 어.(어.)

107081 #3 새물이라고.(사물이라고.)

107081 @ 새물. 게니까, 새물, 새물은 뭐마씨?(사물. 그러니까, 사물, 사물은 뭐예요?)

107081 #3 여자가 부정허다 허는 거. 여자가. 여자가 다니, 남자는 궨찮은디 여자는 오민은 부정허다 허는 거. 아침이 딱.(여자가 부정하다 하는 거. 여자가. 여자가 다니,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오면 부정하다 하는 거. 아침에 딱.)

107081 @ 다 물건이라.(다 물건이야.)

107081 #3 어디 나가젠 헐 때에양.(어디 나가려고 할 때요.)

107081 @ 예.(예.)

107081 #3 건 딱 기분이예. 탁 나도 오도바만 걷지 못허난 탕 뎅견. 오도바를 탁 탕아졍 올레 딱 나사민 우린 바로 길이 올렌디 남자가 탁 넘어가민 그날은 재수가 좋아. ᄉᆞ망. 아니 어디 강 무신 돈은 봉가오는 거 아니라도 뎅기는 디 편안허고 여자가 싹 질 칼르민 기분이 안 좁니다게. 진짜 여자가.(건 딱 기분이요. 탁 나도 오토바이만 걷지 못하니까 타서 다녔어. 오토바이를 탁 타가지고 오래 딱 나서면

398) '감상기'는 심방이 신을 맞아들일 때 들고 춤추는 기를 말한다.

우린 바로 길이 오랜데 남자가 탁 넘어가면 그날은 재수가 좋아. 사망. 아니 어디 가서 무슨 돈은 주워오는 거 아니어도 다니는 데 편안하고 여자가 싹 길 가로지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진짜 여자가.)

107081 @ 나가 여잔디도.(내가 여잔데도.)

107081 #3 나도 여잔디.(나도 여잔데.)

107081 #1 아, 게난 여기는 이 아침에 여즈 남의 집에 함부로 못가주.(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침에 여자 남의 집에 함부로 못가지.)

107081 @ 아.(아.)

107081 #3 남자 이신 집의 홈불로 안 갑니다.(남자 있는 집에 함부로 안 갑니다.)

107081 @ 아.(아.)

107081 #1 차가 잇거나.(차가 있거나.)

107081 @ 예.(예.)

107081 #1 뭐헌 집이는 특히나 더 안 가.(뭐한 집에는 특히나 더 안 가.)

107081 @ 지금도예?(지금도요?)

107081 #1 조심헤.(조심해.)

107081 @ 아, 아침에 나 오지 말아야켜양.(아, 아침에 나 오지 말아야겠네요.)

107081 #1 아침에 오지 마라.(아침에 오지 마라.)

107081 #3 아니 아침 세벡이.(아니 아침 새벽에.)

107081 #1 우리 집인 차 엇어.(우리 집엔 차 없어.)

107081 @2 게난 두 시 넘엉 오람수게.(그러니까 두 시 넘어서 오고 있어요.)

107081 #3 아침 세벽이 올 일이 시랴마는 이 동네도 그런 사름이 잇어.(아침 새벽에 올 일이 있으랴만 이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

107081 @ 재수 없는 사름들이 잇덴 허여.(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107081 #3 재수 엇다는 사름이 잇어.(재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

107081 #1 그런 사름이 가끔 잇어.(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107081 @2 게믄 떡을 칠 때에 한번 그 익지 않으면 걸 또 헤도 안 익는다고 헙디다예.(그러면 떡을 찔 때에 한번 그 익지 않으면 걸 또 해도 안 익는다고 합디다요.)

107081 @ 예, 예, 예.(예, 예, 예.)

107081 #3 이거는 비왕 비왕 고쪄 놓을 순 없으나 둘러 앚집니다.(이거는 부어서 부어서 고쳐 놓을 순 없으나 뒤집어 앉힙니다.)

107081 @2 예.(예.)

107081 #3 둘러 앚져근에 아니 익으믄 홀 수 엇는 거.(뒤집어 앉혀서 아니 익으면 할 수 없는 거.)

107081 @2 건 안 익는다고 헙디다게.(건 안 익는다고 합디다.)

107081 #1 떡 시리 안 익어 가믄 침주렌 헤영양.(떡 시루 안 익어 가면 '침'주라

고 해서요.)
107081 @2 예.(예.)
107081 #1 그.(그.)
107081 @ 침주렌.(‘침’주라고.)
107081 #1 젓가락으로.(젓가락으로.)
107081 @ 예.(예.)
107081 #1 젓가락으로 그 안, 짐 아녀는 손 혼짝으로 막 침주고 이렇게 헙디다.(젓가락으로 그 안, 김 않는 손 한쪽으로 막 침주고 이렇게 합디다.)
107081 #3 게도 안 올라와.(그래도 안 올라와.)
107081 @ 어.(어.)
107081 #3 게도 안 올라와. 나 옛말 골으쿠다양. 나 잘 만낫수다. 옛말 하영 들언.(그래도 안 올라와. 내 옛말 말하겠습니다. 내 잘 만났습니다. 옛말 많이 들어서.)
107081 @ 예.(예.)
107081 #3 ᄉᆞ삼사건 일기 전의.(사삼사건 일기 전에.)
107081 @ 예.(예.)
107081 #3 우리가 옛날에는 이 방에에서 막 떡ᄀᆞ를 뿟아근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헤낫수다게. 경헨 보름떡[399]이라고 정월 보름떡을 쪄.(우리가 옛날에는 이 방아에서 막 떡가루를 빻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떡’이라고 정월 ‘보름떡’을 쪄.)
107081 @ 예.(예.)
107081 #3 찌는디 정월 보름날 찌는 게 아니고 열나흘 날 찝디다게. 열나흘 저냑 찌는디 이 방에에서 이 막 떡ᄀᆞ르 뿟안에 게난이 우리가 떡을 쪄보는 거. 그거 재수보기.(찌는데 정월 보름날 찌는 게 아니고 열나흘 날 찝디다. 열나흘 저녁 찌는데 이 방아에서 이 막 떡가루 빻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쪄보는 거. 그거 재수보기.)
107081 @2 으으음 예.(으으음 예.)
107081 #3 보름떡 보름떡 헙니다게.(‘보름떡’ ‘보름떡’ 합니다.)
107081 @ 보름떡.(‘보름떡’.)
107081 @2 방시리떡.(‘방시리떡’.)
107081 #3 재수보기로 찌는디 혼 징 혼 징 이름 쓰멍 놉니다게.(재수보기로 찌는데 한 켜 한 켜 이름 쓰면서 놉니다.)
107081 @2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81 #3 이름 쓰멍 놘에 이젠 떡을 헨에 혼 시리 딱 친 거 아니우꽈? 친디 다 익언. 우알로 다 익은디 원 가운디 떡이 안 익어십디다게.(이름 쓰면서 놔서 이젠 떡을 해서 한 시루 딱 찐 거 아닙니까? 쳤는데 다 익었어. 위아래로 다 익었는

399) ‘보름떡’은 정월 대보름날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보고 한 해 운수를 점치기 위해 찌는 떡이다.

데 원 가운데 떡이 안 익었습디다.)

107081 @ 으.(으.)

107081 #3 그게 바로 우리 언니라양. ᄉᆞ삼사건에 스물싯에 죽엇수다.(그게 바로 우리 언니예요. 사삼사건에 스물셋에 죽었습니다.)

107081 @ 으음.(으음.)

107081 #3 정월에 아시해 그 섣둘, 츰 그해 낭 정월 열나흘날 저냑 떡 치멍 경 헨게 그해 우상우상허단에[400] 그만 동 ᄉᆞ삼사건이 활딱 이난에 오꼿 심어단에 성산포 간 죽여볏수다게.(정월에 전해 그 섣달, 참 그해 되어서 정월 열나흘 날 저녁 떡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해 '우상우상하다가' 그만 둬서 사삼사건이 활딱 이니까 그만 잡아다가 성산포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107081 @ 음.(음.)

107081 #3 아이고, 아이고, 어떵헌 일이니? 어떵헌 일이니? 허단에 게건 우리가 산메[401] 쳐보겐. 이 산메도 알아집니다. 산메 쳐보겐 헨에 이젠 쏠 싯언에 솟듸 사발에 놘 이름 쓰곡 헨에 산멜 치난 다른 사름 건 다 좋곡 우리 언니 것만 막 쏠 부꺼불멍 물 파지멍 경 메도 안 뒙디다게.(아이고, 아이고, 어떡한 일이니? 어떡한 일이니?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산메' 쪄보자고. 이 '산메'도 알아집니다. '산메' 쪄보자고 해서 이젠 쌀 씻어서 솥에 사발에 넣어서 이름 쓰고 해서 '산메'를 찌니까 다른 사람 건 다 좋고 우리 언니 것만 막 쌀 끓어버리며 물 파지면서 그렇게 메도 안 됩디다.)

107081 @ 게난 보름 헤도 안 뒈고.(그러니까 보름 해도 안 되고.)

107081 #3 아니 게난 열나흘 날 저냑 그날 저냑에 경헹 헤보난 경 안 뒈난에.(아니 그러니까 열나흘 날 저녁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107081 @ 다시 한 번 쳐본 거구나예.(다시 한 번 쪄본 거네요.)

107081 #3 다시 흔 번 산메를 쪄보자 헤연에 쏠로 헤연 헤보난 그게 안 익어, 또. 안 익어. 다른 사름 건 다 뒈고. 이 쏠방울 돌아지멍도 떨어지지 아녕 잘 뒙니다.(다시 한 번 '산메'를 쪄보자 해서 쌀로 해서 해보니까 그게 안 익어, 또. 안 익어. 다른 사람 건 다 되고. 이 쌀알 매달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잘 됩니다.)

107081 @2 음.(음.)

107081 #3 겐디 이거는 파지멍 그냥 물 골르멍 쏠 넘엉 부꺼불멍 안 뒈여. 경헨게. 정월 그해 그물언 저 뒷해 정월 초사흘날은 아시해 심어단은 가두왓단에 정월 초사흘날은 성산포 시방 일출봉 아는 디 그디 문 개발뒌에 막 집덜 짓고 막 헷어렌. 요작이 ᄌᆞ냑 테레비에 나온 거 보난. 그디서 죽여볏수다.(그런데 이거는 파지면서 그냥 물 고이면서 쌀 넘어서 넘쳐버리면서 안 되어. 그러던데. 정월 그해 그물어서 저 이듬해 정월 초사흗날은 전해 잡아다가는 가두었다가 정월 초사흗날은 성산

400) '우상우상허단에'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가다가'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401) '산메'는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그릇에 쌀을 넣어서 솥에 넣어 찌는 밥을 말한다. 밥이 잘되면 운수가 좋고, 밥이 잘되지 않으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포 시방 일출봉 아는 데 거기 몽땅 개발되어서 막 집들 짓고 막 했더라고. 요전에 저녁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107081 @ 으.(으.)

107081 #3 죽여부난에 스물셋에 죽여분 우리 성님 난 아덜이 그때 세 설이주. 세 설인디 안 죽어시난에 그 의원덜 묻으렌 갓단에 저 아이는 *** 높은 총에도 안 죽으난 누게 봉가당 질룰 사름 잇건 질루렌 헨에 게난 성산 그 믿는 사름인디 자이 봉가가도 좋수겐 허여 봉가단 질루렌 허연 봉간 가난 ᄉᆞ뭇 귀여 무시거여 죽은 어멍 우의 둘아젼 젓 먹엄시난 봉가단 그걸 질롼에.(죽여버리니까 스물셋에 죽여버린 우리 형님 낳은 아들이 그때 세 살이지. 세 살인데 안 죽었으니까 그 의원들 묻으라고 갔다가 저 아이는 *** 높은 총에도 안 죽으니까 누구 주워다가 기를 사람 있건 기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산 그 믿는 사람인데 쟤 주워가도 좋습니까라고 해서 주워다가 기르라고 해서 주워서 가니까 사뭇 귀다 무엇이다 죽은 어머니 위에 매달려서 젖 먹고 있으니까 주워다가 그걸 길러서.)

107081 @ 음.(음.)

107081 #3 시쳔 믄 헨에 이젠 그 경찰서에 성산포가 그땐 경찰서라낫수다. 아 둘안가난에 게도 소고기도 ᄒᆞ쏠 주곡 무시거 주고 헨 오란 헨 멕이고 무시거 허고 허연에 딱 막아졋단에 이젠 사삼에 막앗단에 터지난 둘아가렌 헨 간 둘아온 건 보난에 아이가 죽게 뒛어. 게도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거 살련 시방 그 아덜이 살아난에 가이가 예순아홉인가 뒛수다.(씻어서 몽땅 해서 이젠 그 경찰서에 성산포가 그땐 경찰서였습니다. 아 데려가니까 그래도 소고기도 조금 주고 무엇 주고 해서 와서 해서 먹이고 무엇 하고 해서 딱 막아졌다가 이젠 사삼에 막았다가 터지니까 데려가라고 해서 가서 데려온 건 보니까 아이가 죽게 됐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거 살려서 시방 그 아들이 살아나서 걔가 예순아홉인가 됐습니다.)

107081 @ 음, 경 뭴 거주마씨, 지금.(음, 그렇게 될 거지요, 지금.)

107081 #3 아덜 성제 난에 장게보낸 손지 보고 헷수다. 이거 춤 신기헌 일 아니우꽈?(아들 형제 나서 장가보내서 손주 보고 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107081 @ 게난 살 사름은 사는 거라예?(그러니까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107081 #3 살 사름은 사는 거.(살 사람은 사는 거.)

107081 @2 게난 그때 떡을 보롬떡 헙니까?(그러니까 그때 떡을 '보롬떡' 합니까?)

107081 @ 산메.('산메'.)

107081 #3 그때 열나흘 날 찌는 걸 보롬떡이라고 헙니다.(그때 열나흘 날 찌는 걸 '보롬떡'이라고 합니다.)

107081 @2 음.(음.)

107081 #3 겐디 그때 헤보난 그르후젠 안 헤봐신디 요거 춤 신기허는 거라.(그런데 그때 해보니까 그 이후엔 안 해봤는데 요거 참 신기한 거야.)

107081 #1 여기도 산메 치는 사름은 보름날 산메 쳐보는 사름덜토 십니다.(여기도 '산메' 찌는 사람은 보름날 '산메' 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7081 @2 게난 다른 쪽에선 걸 뭐라고 허느냐 허면 방시리떡[402] 방.(그러니까 다른 쪽에선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시리떡' 방.)

107081 #1 방실.('방실'.)

107081 @ 그거는 입춘 날.(그거는 입춘 날.)

107081 @2 입춘 날이야.(입춘 날이야.)

107081 @ 예.(예.)

107081 @2 거기처럼 아까처럼 다 이름도 썽 헤갖고 헤?(거기처럼 아까처럼 다 이름도 써서 해갖고 해?)

107081 @ 거기는 보름떡. 보름떡인데.(거기는 보름떡. 보름떡인데.)

107081 #3 건 입춘 날 허는 거는 아니고.(건 입춘 날 하는 거는 아니고.)

107081 @ 여기는 정월 보름에 허는 거.(여기는 정월 보름에 하는 거.)

107081 #3 정월 보름.(정월 보름.)

107081 @ 예.(예.)

107081 #3 낼 보름이민 오널 찌는 거. 오널.(낼 보름이면 오늘 찌는 거. 오늘.)

107081 @ 예, 오늘 찌는 거예. 예.(예, 오늘 찌는 거요. 예.)

107081 @2 건 입춘 날이야?(건 입춘 날이야?)

107081 @ 입춘.(입춘.)

107081 @2 방시리떡은?('방시리떡'은?)

107081 @ 예. 그다음에 산메는 뭐마씨?(예. 그다음에 '산메'는 뭐예요?)

107081 #3 산메가 그거.('산메'가 그거.)

107081 #1 사발에.(사발에.)

107081 #3 사발에 쑤는 게 산메.(사발에 쑤는 게 '산메'.)

107081 #1 쌀 놓곡 물 놓곡 허영 솟듸 놩.(쌀 넣고 물 넣고 해서 솥에 넣어서.)

107081 #3 나 아까 말허지 아녓어게.(나 아까 말하지 않았어.)

107081 @ 예, 예.(예, 예.)

107081 #3 좋젠은 허민은 그 할망굿 헐 때도 막 그거 복을 받젠 허민은 그 산메가 막 잘 내려. 쏠이 곧짝 올라사근에 허곡. 스망 엇젠 허민 산메도 잘 안 뒈고.(좋으려고 하면 그 '할망굿' 할 때도 아주 그거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산메'가 아주 잘 내려. 쌀이 곧게 올라서서 하고. 사망 없으려고 하면 '산메'도 잘 안 되고.)

107081 @ 게난 보름떡은 떡을 찌는 거고, 예. 이렇게 헤갖고 시리에 이름 썽은에 허는 거고, 산메는 밥을 쏠 헹은에 밥을 허는 거라예. 어, 건 산메.(그러니까 '보름떡'은 떡을 찌는 거고, 예. 이렇게 해갖고 시루에 이름 써서 하는 거고, '산메'는 밥을 쌀 해서 밥을 하는 거네요. 어, 건 '산메'.)

107081 #1 게난.(그러니까.)

---

402) '방시리떡'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입춘 날 한 해 길흉을 점쳐보기 위해서 찌는 시루떡을 말한다.

107081 #3 게난 그날 저냑 떡 쪄보고.(그러니까 그날 저녁 떡 쪄보고.)
107081 #1 대개 성읍리도 큰제사 무슨 포제던지 토신젠지 이런 거 헐 때는 산메를 협주.(대개 성읍리도 큰제사 무슨 포제든지 토신제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산메'를 하지요.)
107081 #3 경 헴실거라게.(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107081 @2 으음.(으음.)
107081 #1 솟듸서 안 헹.(솥에서 안 해서.)
107081 @2 으으.(으으.)
107081 #1 건 사발에 사발에 직접 쌀 놔근에 솟듸.(건 사발에 사발에 직접 쌀 넣어서 솥에.)
107081 @2 안쪙.(안쳐서)
107081 @ 중간.(중간.)
107081 #1 앚졍 불 때영.(안쳐서 불 때서.)
107081 @ 게난 그때는 밑에 저기 바드렝이 놩 헙니까? 아니면.(그러니까 그때는 밑에 저기 겅그레 넣어서 합니까? 아니면.)
107081 #3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81 @ 그대로.(그대로.)
107081 #3 물에 사발 놔도 어떵 안 허여.(물에 사발 놔도 어떻게 안 해.)
107081 @ 아, 그대로.(아, 그대로.)
107081 #1 물 사발을 이렇게 놓민 물을 절반쯤 뜨게 물 놩 허면은 밥 뒈여.(물 사발을 이렇게 놓으면 물을 절반쯤 뜨게 물 넣어서 하면은 밥 되어.)
107081 @ 아, 그런 거를 산메렌 허는 거라예?(아, 그런 거를 '산메'라고 하는 거네요?)
107081 #3 좋젠 허민 이녁이 복 받젠 허민 막 그거가 잘 뒈여.(좋으려고 하면 이녁이 복 받으려고 하면 아주 그것이 잘 되어.)
107081 @ 예.(예.)
107081 #3 겡 궂젠은 허민은 아멩 머리를 써 봐도 안 뒈여.(그래서 궂으려고 하면 아무리 머리를 써 봐도 안 되어.)
107081 @ 음.(음.)
107081 #3 게난 또 풀어사.(그러니까 또 풀어야.)
107081 @2 아 풀어사.(아 풀어야.)
107081 #3 또 풀어사 또 풀어사.(또 풀어야 또 풀어야.)
107081 @ 또 풀어사예. 아, 오늘 특이헌 말 하영 들엄수다.(또 풀어야요. 아, 오늘 특이한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107081 #1 웃음.(웃음.)
107081 @2 아, 나 게난 솔직이 말씀 드려서 작굿떡은 들어봐십주게. 그 뜻을 몰랏는데 오늘에야 확실히 알앗수다. 열굿떡에 작굿떡.(아, 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작굿떡’은 들어봤습지요. 그 뜻을 몰랐는데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열굿떡’에 ‘작굿떡’.)

107081 #3 나안티 나안티 배웁디가? 게난.(나한테 나한테 배웁디까? 그러니까.)

107081 @ 예.(예.)

107081 @2 예. 작굿떡은 들어봐십주게.(예. ‘작굿떡’은 들어봤습지요.)

107081 #3 오래 살만헌 거여.(오래 살만한 거다.)

107081 @2 작굿떡.(‘작굿떡’.)

107081 @ 작굿떡.(‘작굿떡’.)

107081 #3 나 살암시난 인터뷰를 헤 감서. ᄀᆞ자.(나 살고 있으니까 인터뷰를 해 가고 있어. 지금껏.)

107081 @2 겐디.(그런데.)

107081 @ 예.(예.)

107081 @2 작굿떡, 잘 몰라.(‘작굿떡’, 잘 몰라.)

107081 #3 작굿떡에 열굿떡에 우지시.(‘작굿떡’에 ‘열굿떡’에 웃기떡.)

107081 @ 우지시.(웃기떡.)

107081 @2 예, 열굿떡에 웃지시.(예, ‘열굿떡’에 웃기떡.)

107081 @ 예.(예.)

107081 #3 이젤랑 베왓당 그거 씁서게.(이젤랑 배웠다가 그거 쓰십시오.)

107081 @2 예, 예. 오널 당장 가서.(예, 예. 오늘 당장 가서.)

107081 @ 이제 이거 다 책에.(이제 이거 다 책에.)

107081 @2 원고를 헤야 뒈마씨. 잊어불기 전에.(원고를 해야 돼요. 잊어버리기 전에.)

107081 @ 예.(예.)

107081 @2 아, 거 확실히 이제는 알앗어.(아, 거 확실히 이제는 알았어.)

107081 @ 예.(예.)

107081 @2 작굿떡.(‘작굿떡’.)

107081 @ 게난 지난번에 곶인떡예. 다, 다 갖춰야 뒈는 거잖아예?(그러니까 지난번에 ‘갖춘떡’요. 다, 다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107081 @2 어, 곶인떡.(어, ‘갖춘떡’.)

107081 @ 그때 내가 갖춘떡 얘기를.(그때 내가 ‘갖춘떡’ 얘기를.)

107081 #3 갖춘떡이 아니라 그 작굿떡.(‘갖춘떡’이 아니라 그 ‘작굿떡’.)

107081 @ 작굿떡.(‘작굿떡’.)

107081 #3 작굿떡. 열굿떡에 우지시. 간단허게 거 썽 놔두민 바렴도 쉽고게 앎도 쉬울 거 아니우꽈?(‘작굿떡’. ‘열굿떡’에 웃기떡. 간단하게 거 써서 놔두면 보기도 쉽고 앎도 쉬울 거 아닙니까?)

107081 @ 예.(예.)

107081 #3 무신거우꽈게?(무엇입니까?)

107081 @ 열굿떡에 웃지시 작굿떡.(‘열굿떡’에 웃기떡 ‘작굿떡’.)
107081 #3 우지시. 작굿떡.(웃기떡. ‘작굿떡’.)
107081 @ 예.(예.)
107081 #3 열굿떡에 우지시. 세어보난 열 가지 아니랍디가게.(‘열굿떡’에 웃기떡. 세어보니까 열 가지 아닙디까?)

별식

107082 @ 예. 그다음 삼춘예, 별식. 여기도 순대를 하영 헷수가?(예. 그다음 삼촌요, 별식. 여기도 순대를 많이 했습니까?)
107082 #3 순대?(순대?)
107082 @ 예.(예.)
107082 #3 도새기 순대?(돼지 순대?)
107082 @2 수에, 수에.(순대, 순대.)
107082 @ 예, 수에 옛날.(예, 순대 옛날.)
107082 #3 거 이 사름ᄀᆞ라 들어봐. 이 사름 잘 담아나난.(거 이 사람보고 들어봐. 이 사람 잘 담아나니까.)
107082 #1 수에는 저 옛날은 헷주.(순대는 저 옛날은 했지.)
107082 @ 예, 수에 어떵 헤수가?(예, 순대 어떻게 했습니까?)
107082 #1 옛날은.(옛날은.)
107082 @ 으.(으.)
107082 #1 순대는 뒈지베설 큰 것에만 담는디 요샌 작은 것에도 담아.(순대는 돼지 창자 큰 것에만 담는데 요샌 작은 것에도 담아.)
107082 @ 음.(음.)
107082 #3 겐디 그 ᄆᆞᆯᄏᆞ르 헤근에. 지금은 밀ᄏᆞ르주만은 옛날은 ᄆᆞᆯᄏᆞ르 허곡 거기.(그런데 그 메밀가루 해서. 지금은 밀가루지만 옛날은 메밀가루 하고 거기.)
107082 #3 지금도 ᄆᆞ멀ᄏᆞ르라.(지금도 메밀가루야.)
107082 @ 으.(으.)
107082 #1 지, ᄆᆞᆯᄏᆞ르로 헌 게 밀ᄏᆞ르로 헌 거 보단 맛이 더 좋아.(지, 메밀가루로 한 게 밀가루로 한 거 보단 맛이 더 좋아.)
107082 @ 예.(예.)
107082 #1 그게 전부 양념 헤놔근에. 지금은 안 놓는 양념이 없주. 옛날은 그렇게 엇엇는디 양념 전부 헤놩 기름도 놔. 요샌 참기름.(그게 전부 양념 해놔서. 지금은 안 넣는 양념이 없지. 옛날은 그렇게 없었는데 양념 전부 해놓아서 기름도 놔. 요샌 참기름.)
107082 @ 예. 예.(예. 예.)
107082 #1 참기름도 놓곡 헤근에 담주.(참기름도 넣고 해서 담지.)
107082 @ 음. 게영 그 수에예? 게영 그 수에는 언제 먹는 거마씨?(음. 그래서

그 순대요? 그래서 그 순대는 언제 먹는 거예요?)

107082 #1 아, 게난 옛날은 잔치 때에 고기 석 점 놩 수에 흔 점 놔.(아, 그러니까 옛날은 잔치 때에 고기 석 점 놔서 순대 한 점 놔.)

107082 @ 으.(으.)

107082 #1 그 우의 전엔 헌 게 잇어. ᄆᆞᆯ전 요만씩 지진 거. 그 전 영 ᄒᆞ나 더 퍼. 그것이 반이라.(그 위에 전이라고 한 게 있어. 메밀전 요만큼씩 지진 거. 그 전 이렇게 하나 덮어. 그것이 반기야.)

107082 @ 삼춘도 도감도 헤봅디가?(삼촌도 도감도 해봅디까?)

107082 #3 헤봣주게.(해봤지.)

107082 #1 나? 헤봐져신가.(나? 해봐졌는가.)

107082 #3 아녀본 거 엇어.(안 해 본 거 없어.)

107082 @ 아.(아.)

107082 #3 소리도 잘 허곡.(소리도 잘 하고.)

107082 @2 예, 예, 예.(예, 예, 예.)

107082 #3 일도 잘허곡.(일도 잘하고.)

107082 @ 으.(으.)

107082 @2 놈보다 두 시간 먼저 간 ** **.(남보다 두 시간 먼저 가서 ** **.)

107083 @ 삼춘, 저기 둠비?(삼촌, 저기 두부?)

107083 #3 나 둠비 그건 아녀봔.(내 두부 그건 안 해봤어.)

107083 @ 아, 둠빈 아녀봔마씨?(아, 두부는 안 해봤어요?)

107083 #3 여긴 그런 거 아녀.(여긴 그런 거 안 해.)

107083 @ 아아, 성읍은 둠비 안 합니까? 으, 여기 콩을 옛날에 하영 안 갈앗구나예?(아아, 성읍은 두부 안 합니까? 으, 여기 콩을 옛날에 많이 안 갈았군요?)

107083 #3 콩은 그자 이녁.(콩은 그저 이녁.)

107083 #1 이녁 장이나 헐 거 갈앗주.(이녁 장이나 할 거 갈았지.)

107083 #3 돈 살 거 갈앗주마는 장 헐 거. 두부는 허젠 허민 출려사 허주. 거 아무상엇이 못허는 거.(돈 살 거 갈았지만 장 할 거. 두부는 하려고 하면 차려야 하지. 거 아무 일 없이 못하는 거.)

107083 #1 성읍린 두부엔 헌 건 엇주.(성읍린 두부하고 한 건 없지.)

107084 @ ᄆᆞ멀묵?(메밀묵.)

107084 #3 ᄆᆞ멀묵은 ᄀᆞ르로 헤영 쑤는 거게.(메밀묵은 가루로 해서 쑤는 거.)

107084 #1 건 쑤는 거.(건 쑤는 거.)

107084 @ ᄆᆞ멀묵은 그 쒀 봅서, 한 번?(메밀묵은 그 쒀 보십시오, 한 번?)

107084 #3 쒀 봐. ᄀᆞ르도 엇고 물도 엇고 어떵 쒀?(쒀 봐. 가루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쒀?)

107084 @ 말로.(말로.)

107084 @2 말로. 웃음.(말로. 웃음.)

107084 #3 말로 어떵허여게. ᄆᆞᆯᄅᆞ 헤당은에 카근에.(말로 어떡해. 메밀가루 해다가 타서.)

107084 @ 예.(예.)

107084 #3 막 젓어근에 그걸 카놔근에 어느 정도 빙떡 정도만 뒈민은 영 영 허민 빙떡 정도 카진 거 알아져게.(막 저어서 그걸 타놓아서 어느 정도 '빙떡' 정도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빙떡' 정도 타진 거 알아져.)

107084 @ 음.(음.)

107084 #3 우리 자꾸 헤나난. 경 헤가민 이제 불 솜아근에 젓어가멍 솜아가멍 막 저르가 지주. 그건 허젠 허민 막 애가 쓰게 젓어가믄.(우리 자꾸 해나니까. 그렇게 해가면 이제 불 때서 저어가면서 때어가면서 막 겨를이 지지. 그건 하려고 하면 아주 애가 쓰게 저어가면.)

107084 @ 으.(으.)

107084 #3 그것이 간이 딱 맞으면은 너미 물이 많으민 흐랑흐랑허고 너미 물이 작으민 딱딱허고 맞게 허젠 허민 것도 힘들어. 경 헹 막 힘들게 허영 쑤민 잘 쒀지민 그 막 칠칠헙니다게. 게민 묵이 토랑토랑 잘 뒈여. 게민 긁어근에 다라에 영영 잘 메쪄근에 놔두면은 딱 식주게. 식으민 따시 또 이제 칼로 짤앙 썰엉 꿰민 그것이 묵. 경헤근에 또 궝 숫불 살랑 구면, 지름 지름장 볼랑 구면은 맛신 묵 뒈는 거.(그것이 간이 딱 맞으면 너무 물이 많으면 '흐랑흐랑'하고 너무 물이 적으면 딱딱하고 맞게 하려고 하면 것도 힘들어. 그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해서 쑤면 잘 쒀지면 그 막 칠칠합니다. 그러면 묵이 토랑토랑 잘 되어. 그러면 긁어서 대야에 이렇게 이렇게 잘 만져서 놔두면 딱 식지. 식으면 다시 또 이제 칼로 잘라서 썰어서 꿰면 그것이 묵. 그렇게 해서 또 궈서 숯불 살라서 구우면, 기름 기름장 발라서 구우면 맛있는 묵 되는 거.)

107084 @ 음.(음.)

107084 #3 경헹 초상 나시 올릴 거.(그렇게 해서 조상 몫 올릴 거.)

107085 @ 청묵도 헤마씨?('청묵'도 해요?)

107085 #3 청묵은 그냥 또 짜근에.('청묵'은 그냥 또 짜서.)

107085 @2 놀령.(놀려서.)

107085 #3 그냥 놀령 짜근에 그냥 막 막 젓이멍 쒀.(그냥 놀려서 짜서 그냥 막 막 저으면서 쒀.)

107085 @ 으.(으.)

107085 #3 쑤민 이것도 간이 맞아야. 여름에는 좀 뒈게 쒀야 뒈고.(쑤면 이것도 간이 맞아야. 여름에는 좀 되게 쒀야 되고.)

107085 @ 예.(예.)

107085 #3 겨울에는 쪼금 얄롸야 뒈곡 봄에는 어느 정도 헤야. 이것이 너미 물이 많아도 안 뒈고 작아도 안 뒈고 난 헤나난.(겨울에는 조금 묽어야 되고 봄에는 어느 정도 해야. 이것이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난 했었으니까.)

107085 @ 으.(으.)

107085 #3 그것만 허멍 살아나난게. 경 헤근에 잘 쒀야 하여튼 무주건 잘 쒀야 뒈여. 잘 쒀야만 ᄀᆞ르가 잘 익어야만 맛이 잇주, 토랑토랑[403]허게.(그것만 하면서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쒀야 하여튼 무조건 잘 쒀야 되어. 잘 쒀야만 가루가 잘 익어야만 맛이 있지, '토랑토랑'하게.)

107085 @ 으.(으.)

107085 #3 경 헤영 또 얼리면은 그거 허영 그냥 청묵은 꿰젱은 허민 어지럽주게. 게난 기자 톡톡 잘라근에 올렷당 다섯 점썩 올렷당 또 내려와근에 또 이제 제관덜끼리 갈라 먹젠 허민 똑똑 짤라근에 그릇에 놩 지름장에 헤근에 거려놓민 막 제관덜 잘 먹어.(그렇게 해서 또 얼리면 그거 해서 그냥 '청묵'은 꿰려고 하면 어지럽지. 그러니까 그저 톡톡 잘라서 올렸다가 다섯 점씩 올렸다가 또 내려서 또 이제 제관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하면 똑똑 잘라서 그릇에 넣어서 기름장에 해서 떠놓으면 막 제관들 잘 먹어.)

107085 @ 으, 거는 지름장에 허영 먹는 거라예?(으, 거는 기름장에 해서 먹는 거네요?)

107085 #3 지름장에 헤여 먹주, 경 아녀민 맛이 엇어.(기름장에 해서 먹지, 그렇게 않으면 맛이 없어.)

107085 @ 지름장은 지름허고 장 서끈 거?(기름장은 기름하고 장 섞은 거?)

107085 #1 으.(으.)

107085 #3 게, 춤지름허고 장물허고게.(게,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107085 @ 으, 묵은 그렇게 헤영 먹어야 맛 좋아예?(으, 묵은 그렇게 해서 먹어야 맛 좋지요?)

107085 #3 묵은 그렇게 헤야 맛싯는 거.(묵은 그렇게 해야 맛있는 거.)

107086 @ 삼춘, 개역도.(삼촌, 미숫가루도.)

107086 #3 개역은 보리 보깡 골민 개역이주. 무신거라.(미숫가루는 보리 볶아서 갈면 미숫가루지. 무엇이야.)

107086 @ 예.(예.)

107086 @2 웃음.(웃음.)

107086 @ 옛날은 어느 때 개역을 허는 거라낫수과?(옛날은 어느 때 미숫가루를 하는 거였습니까?)

107086 #3 보리ᄀᆞ슬 나가민게 새 보리 나민게.(보리가을 되어 가면 새 보리 나오면.)

107086 @ 으.(으.)

107086 #3 새 보리 나민게 그거 또 이제 장마 지지 아녀게. 장마 지민 장마 때 출출헌 때 또 보리 보까근에게 탁탁탁 치는 거 허영은에 ᄀᆞ레에서 골앙은에 체로 쳐근에 ᄀᆞ르도 캉 먹고.(새 보리 나오면 그거 또 이제 장마 지지 않는가. 장마 지면

403) '토랑토랑'은 묵같은 것이 단단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장마 때 촐촐할 때 또 보리 볶아서 탁탁탁 치는 거 해서 맷돌에서 갈아서 체로 쳐서 가루도 타서 먹고.)

107086 @2 밥에도 비병 먹고.(밥에도 비벼서 먹고.)

107086 #3 웃음.(웃음.)

107086 @ 웃음.(웃음.)

107086 #1 밥에도 많이 비병 먹엇주.(밥에도 많이 비벼서 먹었지.)

107086 #3 밥에도 비병 먹곡 개역ᄉᆞ레기[404]도 먹곡 벨짓을 다허멍 사난에게.(밥에도 비벼서 먹고 '개역ᄉᆞ레기'도 먹고 별짓을 다하면서 사니까.)

107086 @ 삼춘, 개역ᄉᆞ레기는 뭐우꽈?(삼촌, '개역ᄉᆞ레기'는 뭡니까?)

107086 #1 그 체 우의 거.(그 체 위에 거.)

107086 #3 체 쳐나민 체 우의 거 ᄉᆞ레기.(체 쳐나면 체 위에 거 싸라기.)

107086 @ 아.(아.)

107086 #1 체 우의 건 개역ᄉᆞ레기렌 허주.(체 위의 건 '개역ᄉᆞ레기'라고 하지.)

107086 @ 개역ᄉᆞ레기로도 먹언예?('개역ᄉᆞ레기'로도 먹었다고요?)

107086 #1 밑에 간 거는 개역이고.(밑에 간 거는 미숫가루이고.)

107086 @ 옛날에는 다 이걸로 저기 허난예. 맞ᄀᆞ레로 ᄀᆞ니까 그게.(옛날에는 다 이걸로 저기 하니까요. '맞ᄀᆞ레'로 가니까 그게.)

107086 #3 옛날은 ᄀᆞ레로만 영 허난.(옛날은 맷돌로만 이렇게 하니까.)

107086 @ 아.(아.)

107086 #3 기곗방도 안 나고게.(정미소도 안 나오고.)

107086 @ 그래서 개역ᄉᆞ레기가 나오는 거구나.(그래서 '개역ᄉᆞ레기'가 나오는 거구나.)

107086 #3 기곗방, 기곗방 헌 후에는 강 기곗방에 강 ᄀᆞᆯ아오민 기자 카 먹엇주마는. 요즘은 사 먹어도게.(정미소, 정미소 한 후에는 가서 정미소에 가서 갈아오면 그저 타 먹었지만. 요즘은 사 먹어도.)

107086 @ 으.(으.)

107086 @2 게난 개역ᄉᆞ레기는 어떵 먹읍니까?(그러니까 '개역ᄉᆞ레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107086 #3 개역ᄉᆞ레긴 그냥도 먹고 또양 무시거 그것도.('개역ᄉᆞ레기'는 그냥도 먹고 또요 무엇 그것도.)

107086 #1 대개 지대로 숟가락으로 많이 그냥 먹어.(대개 지대로 숟가락으로 많이 그냥 먹어.)

107086 #3 숟가락으로 거려도 먹곡 뭐에 무쳐도 무쳥 먹어도 좋읍니다.(숟가락으로 떠도 먹고 뭐에 무쳐도 무쳐서도 먹어도 좋습니다.)

107086 @ 으.(으.)

107086 @2 건 ᄀᆞ끼지 안 헤마씸?(건 갑시지 안 해요?)

---

404) '개역ᄉᆞ레기'는 미숫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에 갈다가 생긴 볶은 보리 싸라기를 말한다.

107086 #1 아니 경 별로 ᄀᆞ끼지 아녀.(아니 그렇게 별로 갑시지 않아.)

107086 #3 아니 ᄉᆞ레긴 ᄀᆞ끼지 아녑니다. 개역 먹어사.(아니 싸라긴 갑시지 않습니다. 미숫가루 먹어야.)

107086 #1 개역은 ᄀᆞ끼는디.(미숫가루는 갑시는데.)

107086 #3 다슴애기[405] ᄆᆞ른 개역 준덴 헙니다.('다슴애기' 마른 미숫가루 준다고 합니다.)

107086 @2 웃음.(웃음.)

107086 @ 으.(으.)

107086 #3 ᄒᆞ쏠 허민 다슴애기 ᄆᆞ른 개역 준덴. ᄆᆞ른 개역 먹어사 ᄀᆞ끼주 ᄉᆞ레긴 안 ᄀᆞ껴.(조금 하면 '다슴애기' 마른 미숫가루 준다고. 마른 미숫가루 먹어야 갑시지 싸라긴 안 갑시어.)

107086 #1 ᄉᆞ레긴 어떵 안 헙니다.(싸라긴 어떻게 안 합니다.)

107087 @ 다슴애기 ᄆᆞ른 개역 준다, 예. 지짐이는 어떤 거 허영 먹엇수가? 여기서는. 아까 식게. 저기 반 헐 때도 이렇게 헹은에.('다슴애기' 마른 미숫가루 준다, 예. 지짐이는 어떤 거 해서 먹었습니까? 여기서는. 아까 제사. 저기 반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107087 #1 전 부치는 거.(전 부치는 거.)

107087 #3 건 잔치 때 전이고.(건 잔치 때 전이고.)

107087 @ 으, 집에서 지짐이 헹 먹는?(으, 집에서 지짐이 해서 먹는?)

107087 #3 지짐이는 옛날엔 벨로 안 헤도. 요즘은 그 부침개라고 제ᄉᆞ 지내지 동태도 까까당 부치곡 초기도 헤당 부치곡 계란에게 그것저것 험으로 허여도 우리 제ᄉᆞ헐 땐.(지짐이는 옛날엔 별로 안 해도. 요즘은 그 부침개라고 제사 지내지 동태도 깎아다가 부치고 버섯도 해다가 부치고 계란에 그것저것 함으로 해도 우리 제사 할 땐.)

107087 #1 그런 게 엇엇주.(그런 게 없었지.)

107087 #3 오래 헤나부난에 어느 정도 허단에 아덜네 맡아가건 디가 이십 년도 넘어부난에.(오래 했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아들네 맡아간 지가 이십 년도 넘어버리니까.)

107087 @ 으.(으.)

107087 #3 그전에 나가 경허멍 춥쏠 허영 도나스도 만들고 춥쏠떡도 허곡 막 헤낫주게. 우리 춥쏠 농사 많이 지난.(그전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찹쌀 해서 도넛도 만들고 찹쌀떡도 하고 막 했었지. 우리 찹쌀 농사 많이 지으니까.)

107087 @ 으.(으.)

107087 #3 경헤신디 아덜네 맡아가건 디가 막 오래뒷주, 춤.(그렇게 했는데 아들네 맡아간 지가 막 오래됐지, 참.)

107088 @ 삼춘, 여긴 술 고장 아니우꽈예? 오메기술도 직접 하영 허연?(삼촌,

405) '다슴애기'는 개가하여 온 집의 전처의 자식이나 또는 후실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식을 이르는 말이다.

여긴 술 고장 아닙니까? ‘오메기술’도 직접 많이 해서?)

107088 #3 오메기술[406]은 우리 헤나신디.(‘오메기술’은 우리 했었는데.)

107088 @ 으.(으.)

107088 #3 이제 오메기술 허젠 허민 조가 어디 서?(이제 ‘오메기술’ 하려고 하면 조가 어디 있어?)

107088 @ 으.(으.)

107088 #3 게고 아덜 풀 때 족은아덜 풀 때 읍멘 직원덜 막 오메기술만 먹켄 헴젠 헤연에 저 스물닷 말 드는 항으로 큰항으로 ᄒᆞ나 오메기술을 헨에 그 저.(그러고 아들 팔 때 작은아들 팔 때 읍면 직원들 막 ‘오메기술’만 먹겠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저 스물닷 말 드는 항아리로 큰항아리로 하나 ‘오메기술’을 해서 그 저.)

107088 @2 직원들.(직원들.)

107088 #3 막걸리 헨 막 직원들 멕이고 남으난 또 이제 또 인심도 쓰고 직원덜 질어도 주고 경허고. 게난 또 막둥이뚤은 시방 교육청에 간 교육청 시험 봔에 시방 이 학교 서무과장으로 다니단에 이젠 교육청에 시방 교육 그 위원 ᄉᆞ무실에 간 근무헴수다.(막걸리 해서 막 직원들 먹이고 남으니까 또 이제 또 인심도 쓰고 직원들 길어도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막내딸은 시방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 시험 봐서 시방 이 학교 서무과장으로 다니다가 이젠 교육청에 시방 교육 그 위원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7088 @2 으.(으.)

107088 @ 으.(으.)

107088 #3 하 이거 또 교육청 직원덜이 하도 막걸리만 먹켄 헴수다. 어머니 이거 오빠 풀 때ᄁᆞ지 술만 헤여줍센 허연에 그땐 셍이가 아니 먹언 이 밧디 조 불리난 조가 잘 뒈난 그때도 또 그 항으로 술 ᄒᆞ나 헤연 막 맛 좋게덜 잘 먹언 질어주고 경은 헤낫수다마는 풀아보진 못허고.(하 이거 또 교육청 직원들이 하도 막걸리만 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오빠 팔 때까지 술만 해 주십사고 해서 그땐 새가 아니 먹어서 이 밭에 조 밟으니까 조가 잘 되니까 그때도 또 그 항아리로 술 하나 해서 아주 맛 좋게들 잘 먹어서 길어주고 그렇게는 했었습니다만 팔아보진 못하고.)

107088 @ 으, 게믄 오메기술은 어떵 만드는 거우꽈?(으, 그러면 ‘오메기술’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88 #3 오메기술은 어떵 허여게. ᄀᆞ르 강 그 좁쌀 가근에 ᄀᆞᆯ아단 방에 가 쪄당 그거 이제.(‘오메기술’은 어떻게 해. 가루 가서 그 좁쌀 가서 갈아다가 방아 가서 찧어다가 그거 이제.)

107088 #1 떡 만들앙.(떡 만들어서.)

107088 #3 떡 만들앙 이젠 솖앙.(떡 만들어서 이젠 삶아서.)

406) ‘오메기술’은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다.

107088 @ 으.(으.)

107088 #3 건져내영 식으면은 또 막 이것을 뀌여.(건져내서 식으면 또 막 이것을 반죽해.)

107088 @ 으.(으.)

107088 #3 그 물에 문달문달헤여근에 누룩에 서껑 항에 담앙 그것이 막 흔 오 일만 뒈민 부각부각부각 궤여가주게. 막 궤여근에 흔, 흔 열흘은 넘어가민은 또 먹을 때 맞촹은에 두 불을 헤 놔야 뒈는 거. 두 불 헤 놔근에 허면은 그 청주.(그 물에 는적는적해서 누룩에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이 아주 한 오 일만 되면 부각부각부각 괴어가지. 막 괴어서 한, 한 열흘은 넘어가면 또 먹을 때 맞춰서 두 벌을 해 놓아야 되는 거. 두 벌 해 놓아서 하면은 그 청주.)

107088 @ 예.(예.)

107088 #3 청주라고 이십니다. 막 노랑케 골라앚아. 게민 두 불 헤놓민 청주 골라앚이민 거 어느 정도 쓸 거 거려둬근에 그자 확 서껑 그자 거르민.(청주라고 있습니다. 막 노랗게 가라앉아. 그러면 두 벌 해놓으면 청주 가라앉으면 거 어느 정도 쓸 거 떠두고 그저 확 섞어서 그저 거르면.)

107088 #3 막걸리.(막걸리.)

107088 @2 오메기술.(‘오메기술’.)

107088 #3 완전히 오메기술 맛 존 거.(완전히 ‘오메기술’ 맛 좋은 거.)

107088 @ 으.(으.)

107088 #3 춤 맛 존 오메기술 나 두 번 헤봣수다. 잔치헐 때.(참 맛 좋은 ‘오메기술’ 나 두 번 해봤습니다. 잔치할 때.)

107088 @ 음, 게믄 그때 그 떡은 무슨 떡 헙니까?(음, 그러면 그때 그 떡은 무슨 떡 합니까?)

107088 #3 찹쏠로게. 흐린좁쏠.(찹쌀로. 차좁쌀.)

107088 @ 흐린좁쏠로. 게 그 흐린좁쏠 떡 일름은 뭐?(차좁쌀로. 게 그 차좁쌀 떡 이름은 뭐?)

107088 #3 오메기떡[407]게.(‘오메기떡’.)

107088 #1 오메기.(‘오메기’.)

107088 @ 그게 오메기떡 으.(그게 ‘오메기떡’ 으.)

107088 #3 그게 오메기떡.(그게 ‘오메기떡’.)

107088 @ 요즘은 오메기떡 헹은에 풋 담앙은에.(요즘은 ‘오메기떡’ 해서 팥 담아서.)

107088 #1 어, 풋 헤영 미쳥 풀아.(어, 팥 해서 묻혀서 팔아.)

107088 #3 그거는 오메기가 아니고 그건 이젠 찹쏠떡 헹은에 풋 미쳥 오메기떡이주, 그건 오메기떡이우꽈? 좁쏠떡이우꽈? 아이고.(그거는 ‘오메기’가 아니고 그건

407) ‘오메기떡’은 차좁쌀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구멍을 뚫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이젠 찹쌀떡 해서 팥 묻혀서 ‘오메기떡’이지, 그건 ‘오메기떡’입니까? 좁쌀떡입니까? 아이고.)

107088 @ 원래는 좁쏠로예?(원래는 좁쌀로요?)

107088 #3 원래 좁쏠로.(원래 좁쌀로.)

107088 @ 예.(예.)

107088 #3 우린 요 밧듸 조 갈안 원래 좁쏠로 경 헤난 거.(우린 요 밭에 조 갈아서 원래 좁쌀로 그렇게 했던 거.)

107088 @ 음.(음.)

107088 #3 나가 직접 헤난 거.(내가 직접 했던 거.)

107089 @ 옛날에는 쉰다리 같은 것도 하영 헤 먹잖아?(옛날에는 ‘쉰다리’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먹잖아?)

107089 #3 순다리[408]는 밥 식으민게 누룩 놓민 순다리.(‘순다리’는 밥 식으면 누룩 넣으면 ‘순다리’.)

107089 @ 순다리?(‘순다리’?)

107089 #1 밥, 밥 먹당 남으민 그런 거.(밥, 밥 먹다가 남으면 그런 거.)

107089 @ 밥 쉬영은에 허면 누룩 놩은에 이제 순다리 헤영.(밥 쉬어서 하면 누룩 넣어서 이제 ‘순다리’ 해서.)

107089 #3 밧듸 갓당 밥은 옛날에 드릇 카온 뒌장 상뒤 가온 비바리. 요샌 상뒤, 상뒤 알아집네까?(밭에 갔다가 밥은 옛날에 들에 가온 된장 향도(鄕徒) 가온 비바리. 요샌 향도(鄕徒), 향도(鄕徒) 알아집니까?)

107089 @2 예.(예.)

107089 #3 상뒤에 못 가온 비바리가 못 쓰주마는 옛날엔 상뒤 가온 비바리가 쓸모가 엇엇어양.(향도(鄕徒)에 못 가온 비바리가 못 쓰지만 옛날엔 향도(鄕徒) 가온 비바리가 쓸모가 없었어요.)

107089 @ 예.(예.)

107089 #3 게난 상뒤에 가온 비바리 드릇 카온 뒌장 이거 쓸모엇덴 헙니다게. 밥 남은 거.(그러니까 향도(鄕徒)에 가온 비바리 들에 가온 된장 이거 쓸모없다고 합니다. 밥 남은 거.)

107089 @ 음.(음.)

107089 #3 게난 밥 남은 건 순다리 헹 먹곡 뒌장은. (웃음). 뒌장은 버려불곡 비바린 풀지 못허고 어떵.(그러니까 밥 남은 건 ‘순다리’ 해서 먹고 된장은. (웃음). 된장은 버려버리고 비바린 팔지 못하고 어떻게.)

107089 @ 으.(으.)

107089 @2 아, 게난 드릇 카온 뒌장은 집의 안 가졍 옵니까?(아, 그러니까 들에 가온 된장은 집에 안 가져서 옵니까?)

107089 #1 아니, 가졍 옵니다.(아니, 가져서 옵니다.)

---

408)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쉰다리’라고도 한다.

107089 #3 가졍 와도 맛이 엇다 허는 말이주.(가져서 와도 맛이 없다 하는 말이지.)

107089 @ 게난 드릇 카온 거는 먹지 아녕 다 데껴부는구나.(그러니까 들에 가온 거는 먹지 않아서 다 던져버리는구나.)

107089 #3 아니 데껴불진 아녀주마는.(아니 던져버리진 않지만.)

107089 #1 맛이 엇덴 헌 소리.(맛이 없다고 한 소리.)

107089 #3 국이라도 끌렁 먹긴 먹어도 맛이 없다 허는 말.(국이라도 끓여서 먹긴 먹어도 맛이 없다 하는 말.)

107089 @ 음.(음.)

107089 #3 비바리가 너미 뛔양지민 못 써낫주기. 요샌 황당헌 게 못 썸주마는.(비바리가 너무 되알지면 못 썼었지. 요샌 황당한 게 못 쓰고 있지만.)

107089 @ 뒈양진다고예.(되알지다고요.)

107089 #3 뒈양진다 허는 말.(되알지다 하는 말.)

107090 @ 상뒤 가온 비바리 쓸모없다고. 그 누룩은 어떵 만들아마씨?(향도 가온 비바리 쓸모없다고. 그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90 #3 누룩은 저 보리나 밀이나.(누룩은 저 보리나 밀이나.)

107090 @ 예.(예.)

107090 #3 골앙.(갈아서.)

107090 @ 으.(으.)

107090 #3 것도 물 너미 찬물에 *민 뚯뚯허게 허영은에 떡 만들앙 놔두면은 그것이 그 동글동글허게 허영 놔두민 잘 뜹니다게.(것도 물 너무 찬물에 *민 따뜻하게 해서 떡 만들어서 놔두면 그것이 그 동글동글하게 해서 놔두면 잘 뜹니다.)

107090 @ 음.(음.)

107090 #3 노랑케 뜨면은 그 누룩이 잘뭰 거. 거멍허민 안 뜬 거. 게난 그것가 누룩. 경헤근에 잘 뜨민은 물류민 누룩 아니우꽈? 벨 거 누룩 벨 거 아니.(노랗게 뜨면 그 누룩이 잘된 거. 거메면 안 뜬 거. 그러니까 그것이 누룩. 그렇게 해서 잘 뜨면 말리면 누룩 아닙니까? 별 거 누룩 별 거 아니.)

107090 @ 음.(음.)

107090 #3 간단헌 거. ᄒᆞ민. 아녀난 허주.(간단한 거. 하면. 안 하니까 하지.)

107090 #1 메주 만드는 식이주.(메주 만드는 식이지.)

107090 @ 예. 경헤도 요즘은 못허켄덜 헹은에. 웃음.(예. 그렇게 해도 요즘은 못하겠다고들 해서. 웃음.)

107090 #1 못험은 아녀나난 못허주.(못하기는 안 했었으니까 못하지.)

107090 @ 예, 맞아예?(예, 맞아요?)

107090 #3 아녀나난 못허고 실프난 마는 거게. ᄒᆞ젠 허민 것사 못헙니까?(안 해나니까 못하고 싫으니까 마는 거. 하려고 하면 것이야 못합니까?)

107090 #1 아녀나난 몰름도 헴실 거라.(안 했었으니까 모르기도 하고 있을 거

야.)

107091 @ 삼춘, 엿도 직접 헤봅디가?(삼촌, 엿도 직접 해봅디까?)

107091 #3 아이고, 엿 ᄒᆞ단도 버쳣주.(아이고, 엿 하다가도 부쳤지.)

107091 #1 꿩엿, 돜엿.(꿩엿, 닭엿.)

107091 @ 어, 엿도 멘들아봅서.(어, 엿도 만들어보십시오.)

107091 #3 엿은 우리는 종가칩이난 춤 그 설 멩질 때는 꼭 나가 감지엿을 헷주게.(엿은 우리는 종갓집이니까 참 그 설 명절 때는 꼭 내가 감주를 했지.)

107091 @ 음.(음.)

107091 #3 해년마다. 제관덜 믄딱 뎅기당 오라근에 우리 집의 오랑 마지막으로 정심 먹고 그 의논허곡 헹 가젠 허민 ᄒᆞᆫ 열두 시가 넘읍니다게.(해년마다. 제관들 몽땅 다니다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점심 먹고 그 의논하고 해서 가려고 하면 한 열두 시가 넘습니다.)

107091 @ 음.(음.)

107091 #3 게민 제ᄉᆞ에 출린 것도 많이 잡수고 가지. 경허난에 그거 감쥐엿도 많이 헤나고 엿도게 무시거게 엿은 엿도 누룩 들어사 엿 허는 거.(그러면 제사에 차린 것도 많이 잡수고 가지. 그렇게 하니까 그거 감주도 많이 했었고 엿도 무엇 엿은 엿도 누룩 들어야 엿 하는 거.)

107091 @ 음, 골.(음, 엿기름.)

107091 #1 골. 골.(엿기름. 엿기름.)

107091 #3 골인가 누룩인가.(엿기름인가 누룩인가.)

107091 @ 으.(으.)

107091 #3 그것을.(그것을.)

107091 @2 골.(엿기름.)

107091 #3 밀콜[409]도 좋고 보리골[410]도 좋은디 이 보통 약 허는 거는 보리골이 좋고 감쥐 허는 거는 밀콜이 존디 요샌 밀콜이 엇어, 보리골이주 다.(‘밀콜’도 좋고 ‘보리골’도 좋은데 이 보통 약 하는 거는 ‘보리골’이 좋고 감주 하는 거는 ‘밀콜’이 좋은데 요샌 ‘밀콜’이 없어, ‘보리골’이지 다.)

107091 @ 게난 밀콜도 놔놧구나예?(그러니까 ‘밀콜’도 놨었군요?)

107091 #1 밀콜 놔낫주.(‘밀콜’ 놨었지.)

107091 #3 우리냥으로.(우리대로)

7. 주생활

구조

409) ‘밀콜’을 밀을 틔워서 말린 것. 엿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410) ‘보리골’은 보리를 틔어서 말린 것. 엿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108001 @ 자 집 지엇던 거에 대헹 물어보쿠다예.(자 집 지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8001 #1 예.(예.)

108001 @ 삼춘 이제까지 그냥 간단하게예, 집 지엇던 경험, 어떤 집 지어나신디 이제 간단허게 얘기를 좀 헤주십서.(삼촌 이제까지 그냥 간단하게요, 집 지었던 경험, 어떤 집 지었었는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108001 #1 성읍리는.(성읍리는.)

108001 @ 예.(예.)

108001 #1 초가 사칸에서 삼칸, 이칸. 이렇게 해서 삼 단계로 집을 짓주.(초가 사간에서 삼간, 이간. 이렇게 해서 삼 단계로 집을 짓지.)

108001 @ 예.(예.)

108001 #1 게민 사칸집은 네 칸을 말하는 거고, 삼칸은 세 칸을 말허는 거고, 이칸은 두 칸을 말하는 것이 초가집이라.(그러면 사간집은 네 칸을 말하는 거고, 삼간은 세 칸을 말하는 거고, 이간은 두 칸을 말하는 것이 초가집이야.)

108001 @ 예. 게민 지금까지 혼 멧 채나 짓어봅디가?(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채나 지어봅디까?)

108001 #1 나?(나?)

108001 @ 예.(예.)

108001 #1 아멩헤도 열일곱 술부터 헤시난에 몰라, 멧 년사 헤여져신디 원. 혼 육십 년은 더 헷주.(아무래도 열일곱 살부터 했으니까 몰라, 몇 년이야 했는지 원. 한 육십 년은 더 했지.)

108001 @ 아, 게믄 멧 거리나 지언마씨?(아, 그러면 몇 채나 지었어요?)

108001 #1 지은 거 숫자로는 혼이 엇주. 우리가, 지금은 초가집을 경 벨로 하영을 안 짓는디, 에, 한 팔년 전이부터는 나가 이 저 문화재 그 저 지정 가옥을 많이 수리허레 뎅기난에 그땐 일 년에 혼 이십 거리도 허곡, 삼십 거리도 허곡. 그자 경 허연 허주.(지은 거 숫자로는 한이 없지. 우리가, 지금은 초가집을 그렇게 별로 많이를 안 짓는데, 에, 한 팔년 전에부터는 내가 이 저 문화재 그 저 지정 가옥을 많이 수리하러 다니니까 그땐 일 년에 한 이십 채도 하고, 삼십 채도 하고. 그저 그렇게 해서 하지.)

108002 @ 알앗수다. 집 종류도예, 초집 말고도 으라 가지 잇잖아예, 초집 잇고 헤갖고 집 종류를, 삼간집 이간집 말고 어떤 집들이 이 성읍리에 잇수과?(알았습니다. 집 종류도요, 초가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초가 있고 해갖고 집 종류를, 삼간집 이간집 말고 어떤 집들이 이 성읍리에 있습니까?)

108002 #1 초집은 이간집 삼간집 아니고는 집이 잇어? 경 아녀민 그루후젠 불칫막[411]엔 헌 건 영 담 당 그자 영 담 당 그자 혼 칸으로 뒌 거.(초가는 이간집 삼

411) '불칫막'은 재를 모아두기 위하여 지은 막을 말한다. '불칫막'은 '불치+-ㅅ-+막(幕)' 구성으로, 여기에서 '불치'는 표준어 '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간집 아니고는 집이 있어? 그렇게 않으면 그 이후엔 '불칫막'이라고 한 건 이렇게 담 쌓아서 그저 이렇게 담 쌓아서 그저 한 칸으로 된 거.)

108002 @ 예.(예.)

108002 #1 그거 그게 불칫막.(그거 그게 '불칫막'.)

108002 @ 그리고 여기 일관헌이영 잇어난 거는 무신 집 헙니까? 그런 거는?(그리고 여기 '일관헌'이랑 있었던 거는 무슨 집 합니까? 그런 거는?)

108002 #1 어디 거?(어디 거?)

108002 @ 여기 일관헌. 일관헌 그 집은?(여기 '일관헌'. '일관헌' 그 집은?)

108002 #2 일관헌[412] 쓰레트집이주.('일관헌' 슬레이트집이지.)

108002 #1 일관헌이엔 헌 게.('일관헌'이라고 한 게.)

108002 @ 지에집.(기와집.)

108002 #1 지와집은 우리 지으레 뎅기레 뎅겨보지 아녀난.(기와집은 우리 지으러 다니러 다녀보지 않으니까.)

108002 @ 지으레는 안 뎅겻지만 지에집. 지와집 잇고, 흑, 흑 허영도 집 지엇수가? 흑집엔 헙니까?(지으러는 안 다녔지만 기와집. 기와집 있고, 흙, 흙 해서도 집 지었습니까? 흙집이라고 합니까?)

108002 #1 건.(건.)

108002 #2 초가집이주.(초가집이지.)

108002 #1 옛날에 나가 그 이 우리 그 할아버지가.(옛날에 내가 그 이 우리 그 할아버지가.)

108002 @ 예.(예.)

108002 #1 이 장사 때나 이 저 옛날도 흑질헐 때는 큰 셍교, 이 대성전 같은 디 수리헐 때는.(이 장사 때나 이 저 옛날도 흙질할 때는 큰 향교, 이 대성전 같은 데 수리할 때는.)

108002 @ 예.(예.)

108002 #1 달구로 이 저 흑을 뀌주.(달구로 이 저 흙을 이기지.)

108002 @ 음.(음.)

108002 #1 나무로 지어서 떡방아 지듯이.(나무로 찧어서 떡방아 찧듯이.)

108002 @ 예.(예.)

108002 #1 그때에 우리 그 하르버지가 선소리를 잘허주.(그때에 우리 그 할아버지가 선소리를 잘하지.)

108002 @ 아, 하르버지 성함은 어떵 뒈마씨?(아, 할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돼요?)

108002 #1 윤 자 후 자.(윤 자 후 자.)

108002 @ 아, 송 윤 자 후 자 어르신, 아.(아, 송 윤 자 후 자 어르신, 아.)

412) '일관헌'은 예전에 현감이 집무를 보던 관청 이름이다. 현재는 '일관헌' 대신에 2012년 동헌(東軒)의 '근민헌'으로 이름을 바꿨다.

108002 #1 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때는 나가 막 어린 때고.(그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때는 내가 매우 어릴 때고.)

108002 @ 예.(예.)

108002 #1 그분이 많이 헤낫젠 말만 들엇주.(그분이 많이 했었다는 말만 들었지.)

108002 @ 음.(음.)

108002 #1 그 다음엔 아버지가 헷는디, 아버지가 우리가 어린 때 한 열네 술 초등학교 졸업헤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우린 초등학교 졸업허니깐 돈도 읏고 아무것도 엇이난 아버지가 늘랑 일만 허라 일만 허라 허연 일만 허당 보난에 아 이렇게 신세가 뒈어부럿는디.(그 다음엔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어릴 때 한 열네 살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보면 그때는 우린 초등학교 졸업하니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는 일만 하라 일만 하라 해서 일만 하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108002 #2 그때사 다 일헤영 살앗주게. 누구라도 다.(그때야 다 일해서 살았지. 누구라도 다.)

108002 #1 아버지가 어디 동네 장이 나가면은 강 노랠 강. 우린 그땐 어린 때난에 일허레 가는 목적이 아이라.(아버지가 어디 동네 장사(葬事)가 나가면 가서 노랠 가서. 우린 그땐 어릴 때니까 일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야.)

108002 @ 예.(예.)

108002 #1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갓단 말야.(얻어먹기 위해서 따라갔단 말이야.)

108002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8002 #1 얻어먹기 위헤서 따라갓는디 아버지가 노래허는 거 들으면은 거 자꾸 옆이서 들으면서 아 요렇게 허는 거구나, 요렇게 허는 거구나 자꾸 들어온 것이나도 노래를 배우게 뒈엇고 알게 뒛는디.(얻어먹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노래하는 거 들으면 거 자꾸 옆에서 들으면서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렇게 하는 거구나 자꾸 들어온 것이 나도 노래를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됐는데.)

108002 @ 예.(예.)

108002 #1 그래서 지금까지 춤 노래를 허고 잇주게.(그래서 지금까지 참 노래를 하고 있지.)

108002 @ 예. 아버지 존함은 어떵 뒈마씨?(예. 아버지 존함은 어떻게 돼요?)

108002 #1 으.(으.)

108002 @ 아버지 존함은?(아버지 존함은?)

108002 #1 남 자 혁 자.(남 자 혁 자.)

108002 @ 남 자 혁 자. 그것도 다 기록헤 드리쿠다.(남 자 혁 자. 그것도 다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108002 #1 이 책자, 책에도 나왓주.(이 책자, 책에도 나왔지.)

108002 @ 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여기는 흑집헐 때 돌집도 지엇수가?(예, 알

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흙집 할 때 돌집도 지었습니까?)

108002 #1 돌?(돌?)

108002 @ 예.(예.)

108002 #1 돌집은 옛날부터. 옛날부터 원.(돌집은 옛날부터. 옛날부터 원.)

108002 #4 초집 허젠 허민 돌집이주게.(초가 하려고 하면 돌집이지.)

108002 #1 좀좀허여.(잠잠해.)

108002 @ (웃음). 돌.((웃음). 돌.)

108002 #1 녹음 뒈메.(녹음 되어.)

108003 @ 돌집예? 알앗수다. 그러면 삼춘, 우리 집 채 허면 우리 집 거리가 잇일 거 아니우과예? 뭐 안거리여 밧거리여 허는 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젼마씸?(돌집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촌, 우리 집 채 하면 우리 집 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안채다 바깥채다 하는 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108003 #1 이게 만약 이게 남향집이라고, 우리가 시방 우리가 앚아 잇는 게 남향집인데.(이게 만약 이게 남향집이라고, 우리가 시방 우리가 앉아 있는 게 남향집인데.)

108003 @ 예.(예.)

108003 #1 동짝은 동모커리[413].(동쪽은 '동곁채'.)

108003 @ 무슨 커리마씨?(무슨 채요?)

108003 #1 동모커리.('동곁채'.)

108003 @ 아, 동모커리, 예.(아, '동곁채', 예.)

108003 #1 서짝은 서모커리[414].(서쪽은 '서곁채'.)

108003 @ 예.(예.)

108003 #1 이렇게 헤서 집을 삼 채를 짓어.(이렇게 해서 집을 세 채를 지어.)

108003 @ 예, 게믄 모커리예. 그다음 맞은편은?(예, 그러면 곁채요. 그다음 맞은편은?)

108003 #1 맞은편은 안 짓지.(맞은편은 안 짓지.)

108003 @ 남쪽이니까 으.(남쪽이니까 으.)

108003 #1 짓어부리민 집안이 어두어부리니까 안 짓어.(지어버리면 집안이 어두워버리니까 안 지어.)

108003 @ 게믄 만약에 안거리 밧거리는 어떤 거?(그러면 만약에 안채 바깥채는 어떤 거?)

108003 #1 안거리?(안채?)

108003 @ 예.(예.)

108003 #1 만약 이디 소막, 소오양간을 허게 뒈민은 옛날은 부억을 뚜로 허니까.(만약 여기 외양간, 소외양간을 하게 되면 옛날은 부엌을 따로 하니까.)

---

413) '동모커리'는 동쪽으로 난 곁채를 말한다.

414) '서모커리'는 서쪽으로 난 곁채를 말한다.

108003 @ 예.(예.)
108003 #1 저착은 부억.(저쪽은 부엌.)
108003 @ 예.(예.)
108003 #4 벡에 직산헙서.(벽에 기대십시오.)
108003 @ 동모커리 서모커리 헷잖아예? 그.('동곁채' '서곁채' 했잖아요? 그.)
108003 #1 으. 대개 서모커리를 부억을 헤요. 동모커리, 서모커리는 소막을 아녀거든. 웨.(으. 대개 '서곁채'를 부엌을 해요. '동곁채', '서곁채'는 소외양간을 않거든. 왜.)
108003 @ 예.(예.)
108003 #1 이 올레 출입이, 소 모커리, 쉐가 이 드나드는 디가 쉐가 이디가 가까우니까.(이 오래 출입이, 소 곁채, 소가 이 드나드는 데가 소가 여기가 가까우니까.)
108003 @ 음. 우리 집 허단 보민 밧거리도 잇지 아녑니까? 여기는 안이어도 밧거리는 어떤 디 밧거리 지읍니까?(음. 우리 집 하다가 보면 바깥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이어도 바깥채는 어떤 데 바깥채 짓습니까?)
108003 #1 밧거리.(바깥채.)
108003 @ 예, 안거리 밧거리 허는 거?(예, 안채 바깥채 하는 거?)
108003 #1 안거리 밧거리 헐 때, 동모커리 서모커리가 이게 밧거리라.(안채 바깥채 할 때, '동곁채' '서곁채'가 이게 바깥채야.)
108003 @ 아, 저쪽 동쪽은 안거리가 뒈는 거고.(아, 저쪽 동쪽은 안채가 되는 거고.)
108003 #1 아니, 이게 안거리고.(아니, 이게 안채이고.)
108003 @ 예.(예.)
108003 #1 이게 안거리고 동모커리는 창고고.(이게 안채고 '동곁채'는 창고고.)
108003 @ 예.(예.)
108003 #1 서모커리는 부엌이고.('서곁채'는 부엌이고.)
108003 @ 아, 그것도 밧거리로 볼 수 잇는 거예? 아 알앗수다.(아, 그것도 바깥채로 볼 수 있는 거요? 아 알았습니다.)
108003 #1 음.(음.)
108003 @ 그리고 삼춘 이제 주로 집 짓엇는데 멧 칸 집을 주로 짓엇수가?(그리고 삼촌 이제 주로 집 지었는데 몇 칸 집을 주로 지었습니까?)
108003 #1 보통은 초가집 이 안거리는 삼칸.(보통은 초가집 이 안채는 삼간.)
108003 @ 삼칸.(삼간.)
108003 #1 삼칸이민 약 에 평수로 따주민 이십 평.(삼간이면 약 에 평수로 따지면 이십 평.)
108004 @ 아, 게민예, 삼칸집 짓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예, 어떤 식으로 맨 뭐 바닥을 골르는 것으로 시작헤갖고 삼칸집을 흔번 말로 짓어봅서?(아, 그러면요, 삼

간집 짓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요, 어떤 식으로 맨 뭐 바닥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해갖고 삼간집을 한번 말로 지어보십시오?)

108004 #1 이 삼칸집을 짓젠 허면은.(이 삼간집을 지으려고 하면.)

108004 @ 예.(예.)

108004 #1 목수허고 인력이 약 백이십 명 들어.(목수하고 인력이 약 백이십 명 들어.)

108004 @ 아아.(아아.)

108004 #1 그러면 땅을 파서.(그러면 땅을 파서.)

108004 @ 예.(예.)

108004 #1 이 땅을 이렇게 사각으로 파서 담 달 자리를 다지.(이 땅을 이렇게 사각으로 파서 담 쌓을 자리를 쌓지.)

108004 @ 예.(예.)

108004 #1 땅을 이렇게 홈을 지와서 이디 자갈을 놓아서 다져. 이때 달구소리[415] 허면서 땅을 다지주.(땅을 이렇게 홈을 지워서 여기 자갈을 놓아서 다져. 이때 달구소리 하면서 땅을 다지지.)

108004 @ 아, 게민 달구소리도 흔번 헤불카마씨?(아, 그러면 달구소리도 한번 해버릴까요?)

108004 #1 으.(으.)

108004 @ 달구소리도 헤봅서.(달구소리도 해보십시오.)

108004 #1 이 달구소리도 두 가지가 잇는디.(이 달구소리도 두 가지가 있는데.)

108004 @ 예.(예.)

108004 #1 봉분 쌓을 때 허는 달구소리가 틀리곡.(봉분 쌓을 때 하는 달구소리가 다르고.)

108004 @ 예.(예.)

108004 #1 이 달구소리가 틀려.(이 달구소리가 달라.)

108004 @ 아, 게믄 봉분은 나중에 허고 땅을 다졋으니까 달구를 지어봅서.(아, 그러면 봉분은 나중에 하고 땅을 다졌으니까 달구를 지어보십시오.)

108004 #1 이 달구소리가 선소리는 똑같은데.(이 달구소리가 선소리는 똑같은데.)

108004 @ 예.(예.)

108004 #1 봉분 쌀 때는 구신이 빨리 물러가라고 헤서 멀구[416]라고 허고.(봉분 쌓을 때는 귀신이 빨리 물러가라고 해서 '멀구'라고 하고.)

108004 @ 멀구?('멀구'?)

108004 #1 으.(으.)

---

415) '달구소리'는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416) '멀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봉분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보자 송순원은 집을 지을 땅을 다지는 노래는 '달구소리'라고 하고, 봉분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는 '멀구소리'라고 구분해 불렀다.

108004 @ 예.(예.)

108004 #1 땅을 이 집안에 다질 때는 달구라고 헤. 땅을 다진다고 헤서 달구.(땅을 이 집안에 다질 때는 달구라고 해. 땅을 다진다고 해서 달구.)

108004 @ 예, 경헹, 경헹은에 달구를 짛는 거라예. 그 노래는 안 불르젠마씨?(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달구를 찧는 거네요. 그 노래는 안 부르려고요?)

108004 #1 무사 헐 중 알주.(왜 할 줄 알지.)

108004 @ 예, 불러봅서.(예, 불러보십시오.)

108004 #1 에허여 멀구/우럭삼촌 들어덜 봅서/어헤여 달구냐/볼락조케 골으라 듣저/어어허 달구야/간밤에 꿈을 보난/어허여 달구야/쒜공젱이 걸려 베고/어허여 달구야/대구덕에 놓아 베곤. 아이고, 이꺼장만 허주.(에허여 '멀구'/우럭삼촌 들어들 보십시오/어헤여 달구냐/볼락조카 말해라 듣자/어어허 달구야/간밤에 꿈을 보니까/어허여 달구야/쇠꼬챙이 걸려 뵈고/어허여 달구야/대바구니에 놓아 보이고. 아이고, 이까지만 하지.)

108004 @ 예, 그게 우리 집 땅을 헐 때.(예, 그게 우리 집 땅을 할 때.)

108004 #1 다지는 소리.(다지는 소리.)

108004 @ 다지는 소리예. 그 다음에 삼간집. 삼간집 지을 때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헐 일은 뭐우과?(다지는 소리요. 그 다음에 삼간집. 삼간집 지을 때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108004 #1 그다음에 헐 거는 뭐이라. 석공은 담을 닿고.(그다음에 할 거는 뭐야. 석공은 담을 쌓고.)

108004 @ 예.(예.)

108004 #1 목수는 집을 짓고. 나머지는 잡부들은 흑질을 허여.(목수는 집을 짓고. 나머지는 잡부들은 흙질을 해.)

108004 @ 예.(예.)

108004 #1 흑, 이 흑 뀌여다가 담에도 ᄇᆞ르고 이 퉤기도 허고.(흙, 이 흙 이겨다가 담에도 바르고 이 외도 하고.)

108004 @ 예.(예.)

108004 #1 이디 이거는 지금은 저 뭐인가 이 브로꾸[417]로 싸서 공고리[418]를 헷지만은 옛날은 퉤기라고 헌 게.(여기 이거는 지금은 저 뭐인가 이 블록으로 쌓아서 콘크리트를 했지만 옛날은 외라고 한 게.)

108004 @ 예.(예.)

108004 #1 대나무를 요렇게 놔서 요렇게 얽고 요렇게 얽어서 이디 흑 불르는 게 퉤기라.(대나무를 요렇게 놔서 요렇게 얽고 요렇게 얽어서 여기 흙 바르는 게 외야.)

108004 @ 퉤기 예.(외 예.)

---

417) '브로꾸(ブロック)'는 블록(block)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말이다.

418) '공고리(コンクリ)'는 콘크리트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말이다.

108004 #1 퉤기 허영 흑 ᄇᆞ를 때 허는 소리가 잇주.(외 해서 흙 바를 때 하는 소리가 있지.)

108004 @ 예, 그것도 일단 헤봅서.(예, 그것도 일단 해보십시오.)

108004 #1 어.(어.)

108004 @ 것도 헤봅서.(것도 해보십시오.)

108004 #1 막 부려먹젠 헴서.(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

108004 @ 예게. 이왕 삼춘 잘허는 거난게.(예. 이왕 삼촌 잘하는 거니까요.)

108004 #1 이허~어 헉이여 어이 오우 오우 헉이 두러매라/울러매라 어어어어 메여치라 이여 헉이여 어어어 오우 흑이 둘러메라/요 집 짓엉 삼년 만에 이에 이어 어허어 아덜 낳면 효잘 낳라/어어허 어어 헉이 두러매라/딸은 낳면 어어어 열녈 낳라 이여/허어어 헉이 두러매라. 그만허주.(이허~어 흙이야 어이 오우 오우 흙이 둘러매어라/'울러매어라' 어어어어 매어쳐라 이여 흙이야 어어어 오우 흙이 둘러매어라/요 집 지어서 삼년 만에 이에 이 어 어허어 아들 낳으면 효잘 낳아라/어어허어어 흙이 둘러매어라/딸은 낳으면 어어어 열녈 낳아라 이여/허어어 흙이 둘러매어라. 그만하지.)

108004 @ 흐으, 그거는 무슨 노래마씨?(흐으, 그거는 무슨 노래예요?)

108004 #1 이거 흑 불른 때 허는 소리주.(이거 흙 바를 때 하는 소리지.)

108004 @ 흑 불를 때?(흙 바를 때?)

108004 #1 집 짓엉 흑 불를 때.(집 지어서 흙 바를 때.)

108004 @ 흑 불를 때예, 예. 그렇게 헤서 이제 퉤기 헹은에 벽을 다 만들 거 아니.(흙 바를 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 해서 벽을 다 만들 거 아니.)

108004 #1 으으.(으으.)

108004 @ 게믄 지붕도 멘들아얄 거 아니? 방도 멘들고. 퉤기 만든 다음에는 뭐 허는 거우꽈?(그러면 지붕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 방도 만들고. 외 만든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108004 #1 아 그 퉤기 만든 순간에 집은 이 서까래엔 헌 게 잇어.(아 그 외 만든 순간에 집은 이 서까래라고 한 게 있어.)

108004 @ 서까래?(서까래?)

108004 #1 거 서까래는 표준말이고.(거 서까래는 표준말이고.)

108004 @ 예, 우리 제주돈 말?(예, 우리 제주돈 말?)

108004 #1 제주돈 말이 서리.(제주돈 말이 '서리'.)

108004 @ 서리예.(서리요.)

108004 #1 초가집에 서리 걸엉 대나무 놩.(초가집에 서까래 걸어서 대나무 놓아서.)

108004 @ 예.(예.)

108004 #1 서슬 허주, 서슬.(산자 하지, 산자.)

108004 @ 서슬.(산자.)

108004 #1 으, 대나무 놩 서슬 그 위에 저 어웍으로 일주. 억새엔 허민 표준말이고.(으, 대나무 놔서 산자 그 위에 저 억새로 이지. 억새라고 하면 표준말이고.)

108004 @ 예.(예.)

108004 #1 이딧 말로 어웍.(여기 말로 억새.)

108004 @ 어웍 으.(억새 으.)

108004 #1 어웍으로 혼 불 일어.(억새로 한 벌 이어.)

108004 @ 예.(예.)

108004 #1 혼 불 일엉 혼 이십 일쯤 잇당 또 혼 번 새, 새로 더끄주. 새.(한 벌 이어서 한 이십 일쯤 있다가 또 한 번 띠, 띠로 덮지. 띠.)

108004 @ 새로 더꺼예. 그다음에 새로 더끈 다음은 또 새로만 더끄믄 뒙니까? 거 줄도 매야 뒐 거 아니?(띠로 덮지요. 그다음에 띠로 덮은 다음은 또 띠로만 덮으면 됩니까? 거 줄도 매야 될 거 아니?)

108004 #1 아, 줄[419]이사게 그 더플 때 매는 거주게.(아, 줄이야 그 덮을 때 매는 거지.)

108004 @ 예, 예. 게믄 그 준비를 집을 그 지붕을 일젠 허면.(예, 예. 그러면 그 준비를 집을 그 지붕을 이려고 하면.)

108004 #1 으.(으.)

108004 @ 준비헤 놔야 뒐 거 잇지 아녀우과?(준비해 놔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108004 #1 준비헤 놓을 건 무신거라. 재료만 준비헤 놓민 뒐 거주, 뭐. 그자 새 준비헤 놓곡.(준비해 놓을 건 무엇이야. 재료만 준비해 놓으면 될 거지, 뭐. 그저 띠 준비해 놓고.)

108004 #4 줄 비민 뒈주.(줄 꼬면 되지.)

108004 #4 줄 비여당 앗당 옆이 앗당 놓곡 허민 뒐 거주, 무신 뭐.(줄 꼬아다가 가져다가 옆에 가져다가 놓고 하면 될 거지, 무슨 뭐.)

108004 @ 예, 경헤영은에 헐 거고. 게믄 아까 삼춘 삼간이렌 헷잖아예? 그러면 혼 칸 혼 칸마다 이름이 이실 거 아니마씸?(예,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러면 아까 삼촌 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칸 한 칸마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예요?)

108004 #1 이게 삼칸이라.(이게 삼간이야.)

108004 @ 이게 삼칸예. 게믄 그 삼칸에 뭐 뭐 잇수가? 맨 안에는 이거는 무신 방?(이게 삼간요. 그러면 그 삼간에 뭐 뭐 있습니까? 맨 안에는 이거는 무슨 방?)

108004 #1 이건 큰방이고.(이건 큰방이고.)

108004 @ 예.(예.)

108004 #1 저건 작은방.(저건 작은방.)

108004 @ 게난 옛날에도 작은방 영 골앗수가?(그러니까 옛날에도 작은방 이렇게 말했습니까?)

---

419) 여기에서 '줄'은 제주 지역에서 초가를 이은 다음에 매는 줄을 말한다. 달리 '집줄'이라고도 한다.

108004 #1 이게.(이게.)

108004 @ 예. 옛날식으로예.(예. 옛날식으로요.)

108004 #1 이 자식이 많은 데는 방을 많이 꾸미는디, 우린 자식이 많으니까 방을 많이 꾸몄는디.(이 자식이 많은 데는 방을 많이 꾸미는데, 우린 자식이 많으니까 방을 많이 꾸몄는데.)

108004 @ 옛날에는.(옛날에는.)

108004 #1 이게 큰방에는 잠을 자고 저 방에는 제사를 모시는 방이라.(이게 큰방에는 잠을 자고 저 방에는 제사를 모시는 방이야.)

108004 @ 아.(아.)

108004 #1 제삿방[420].('제삿방'.)

108004 @ 제삿방으로 족은방. 게믄 이 성읍은 정제는 모커리에.('제삿방'으로 작은방. 그러면 이 성읍은 부엌은 곁채에.)

108004 #1 정제 서모커리.(부엌 '서곁채'.)

108004 @ 서모커리에 헌 거라예, 게믄.('서곁채'에 한 거네요, 그러면.)

108004 #1 동모커리 쉐막.('동곁채' 외양간.)

108004 @ 쉐막 허고. 옛날도 이 집 삼간집 허면 정제는 그 삼간에 정제를 따로 만들진 아녓수가?(외양간 하고. 옛날도 이 집 삼간집 하면 부엌은 그 삼간에 부엌을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까?)

108004 #2 무사 아녀.(왜 안 해.)

108004 #1 뜨로 만든 디도 잇어.(따로 만든 데도 있어.)

108004 @ 뜨로 만든 디도 잇고.(따로 만든 데도 있고.)

108004 #1 건 족은 이 저 집안이 곤란헌 디게.(건 작은 이 저 집안이 곤란한 데야.)

108004 @ 예.(예.)

108004 #1 곤란헌 딘 따로 저걸 못 만드니깐 이디 저 방 허곡 마루 허여뒁 이디 부억 경 헤난 디도 잇주.(곤란한 데는 따로 저걸 못 만드니깐 여기 저 방하고 마루 해두고 여기 부엌 그렇게 했던 데도 있지.)

108004 #2 그 안넨 고팡 허곡.(그 안에는 고방 하고.)

108004 @ 고팡 허곡.(고방 하고.)

108004 #1 부엌 허단 나머지 저딘 고팡 허고.(부엌 하던 나머지 저긴 고방 하고.)

108004 @ 아, 이 정제 따른 데 만든 데는 고팡도 멘들아?(아, 이 부엌 따른 데 만든 데는 고방도 만들어?)

108004 #2 고팡 다 따르주게.(고방 다 따르지.)

108004 @ 고팡은 어디에 따르는 거?(고방은 어디에 따르는 거?)

108004 #1 고팡은 대개 방 이것이 방이민 저짝에 두이가 고팡.(고방은 대개 방

420) '제삿방'은 제사를 할 때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것이 방이면 저쪽에 뒤가 고방.)

108004 #2 마리 부튼 디.(마루 붙은 데.)

108004 #1 마리 부튼 디.(마루 붙은 데.)

108004 @ 마리 부튼 디가 이제 고팡 허고.(마루 붙은 데가 이제 고방 하고.)

108004 #1 이 조끔 여유가 잇는 디는 부억을 따로 헌 디는 부억에 고팡을 뜨로 멘들주. 부억에 부쩡.(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부엌을 따로 한 데는 부엌에 고방을 따로 만들지. 부엌에 붙여서.)

108004 @ 부청예?(붙여서요?)

108004 #1 여자덜 쏠 거리레 뎅임 쉽게게.(여자들 쌀 뜨러 다니기 쉽게.)

108004 @ 그럼, 삼간집 헐 때는 방이 두 개?(그럼, 삼간집 할 때는 방이 두 개?)

108004 #1 아니, 방 두 개 헌 디도 잇고 세 개 헌 디도 잇는디.(아니, 방 두 개 한 데도 있고 세 개 한 데도 있는데.)

108004 @ 예.(예.)

108004 #1 두 개 헌 디는 거의 부억이 부떠 잇고.(두 개 한 데는 거의 부엌이 붙어 있고.)

108004 @ 예.(예.)

108004 #1 그 방에, 그 집에.(그 방에, 그 집에.)

108004 @ 으.(으.)

108004 #1 그 집에. 세 개 네 개 헌 디는 부억이 따로 잇어.(그 집에. 세 개 네 개 한 데는 부엌이 따로 있어.)

108004 @ 아, 옛날부터 그렇게 뜨로 헨예?(아, 옛날부터 그렇게 따로 했어요?)

108004 #1 우리도 경 헨 저것이 부억인디 이건 이디 방 네 개.(우리도 그렇게 해서 저것이 부엌인데 이건 여기 방 네 개.)

108004 @ 아, 부억은 따로 하고.(아, 부엌은 따로 하고.)

108004 #1 삼이이년, 아 팔십이년도에 지엇는디 이 집을.(삼이이년, 아 팔십이년도에 지었는데 이 집을.)

108004 @ 으음. 삼춘이 직접 지은 집.(으음. 삼촌이 직접 지은 집.)

108004 #1 으.(으.)

108004 @ 알앗수다. 이제 그치록 허영은에 이제 만드는 거라예.(알았습니다. 이제 그처럼 해서 이제 만드는 거네요.)

108004 #1 으.(으.)

108004 @ 그러면 주춧돌은 삼간집을 짓젠 허면 멧 개를 헤야 뒈는 거우과?(그러면 주춧돌은 삼간집을 지으려고 하면 몇 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108004 #1 주칫돌.(주춧돌.)

108004 @ 예.(예.)

108004 #1 폿지둥[421]이 네 개씩 네 개민은 으섯 개.('폿기둥'이 네 개씩 네 개면

여섯 개.)

108004 @ 예.(예.)

108004 #1 아, 맞아. 으섯 개 맞아. 개윗지둥꺼지 으슷.(아, 맞아. 여섯 개 맞아. 툇기둥까지 여섯.)

108004 @ 게민 폿, 폿지둥이 몃 개?(그러면 보, '폿기둥'이 몇 개?)

108004 #1 폿지둥이 네 개.('폿기둥'이 네 개.)

108004 @ 네 개.(네 개.)

108004 #1 개윗지둥이 네 개.(툇기둥이 네 개.)

108004 @ 대윗지둥?('대윗지둥'?)

108004 #1 개위[422].('개위'.)

108004 @ 개윗지둥?(툇기둥?)

108004 #1 으, 개윗지둥.(으, 툇기둥.)

108004 @ 으, 개윗지둥이 이제.(으, 툇기둥이 이제.)

108004 #1 네 개.(네 개.)

108004 @ 네 개. 게민 여덟 개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마다 밑에 주춧돌을 놓는 거우꽈?(네 개. 그러면 여덟 개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마다 밑에 주춧돌을 놓는 겁니까?)

108004 #1 으.(으.)

108004 @ 게믄 주춧돌도 여덟 개가 뒈는 거고.(그러면 주춧돌도 여덟 개가 되는 거고.)

108004 #1 으.(으.)

108004 @ 지둥도.(기둥도.)

108004 #1 여덟 개.(여덟 개.)

108004 @ 여덟 개가 뒈는 거라예? 보는 뭐우꽈?(여덟 개가 되는 거네요? 보는 뭡니까?)

108004 #1 으?(으?)

108004 @ 포, 포?(보, 보?)

108004 #1 포?(보?)

108004 @ 예.(예.)

108004 #1 포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포라.(보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보야.)

108004 @ 길게.(길게.)

108004 #1 저짝 포허고 저짝 개위하고 이짝 가위까지 길게 나오는 게 포.(저쪽 보하고 저쪽 '개위'하고 이쪽 '가위'까지 길게 나오는 게 보.)

108004 #2 상ᄆᆞ루.(용마루.)

---

421) '폿지둥'은 들보를 받쳐서 세운 기둥을 말한다.

422) '개위'는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를 말한다. '개위'를 '가위'로 발음하기도 하였다.

108004 #1 아니우다게. 상ᄆᆞ루는 영 가는 게 상ᄆᆞ루고. 상ᄆᆞ루허고는 상ᄆᆞ룬 ᄒᆞ나고.(아닙니다. 용마루는 이렇게 가는 게 용마루고. 용마루하고는 용마룬 하나고.)

108004 @ 예.(예.)

108004 #1 포는 두 개라.(보는 두 개야.)

108004 @ 아아, 게믄 이제 집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헌 거는 상ᄆᆞ루. 이렇게 헌 거는 포.(아아, 그러면 이제 집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거는 용마루. 이렇게 한 거는 보.)

108004 @ 으, 지붕에예.(으, 지붕에요.)

108004 #1 맞아게.(맞아.)

108004 @ 상ᄆᆞ루 이렇게 헌 거는 그다음 여기 하나 둘 네 개씩 헹은에.(용마루 이렇게 한 거는 그다음 여기 하나 둘 네 개씩 해서.)

108004 #1 여기, 여기에서.(여기, 여기에서.)

108004 @ 예.(예.)

108004 #1 요렇게 또 나강.(요렇게 또 나가서.)

108004 @ 개윗지둥.(툇기둥.)

108004 #1 개윗지둥. 요짝에도.(툇기둥. 요쪽에도.)

108004 @ 개윗지둥. 이렇게 헤서 네 개 이것도 네 개 하나 둘 셋 넷 헤민 요거는 아까 폿지둥.(툇기둥. 이렇게 해서 네 개 이것도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면 요거는 아까 '폿기둥'.)

108004 #1 으.(으.)

108004 @ 예, 폿지둥.(예, '폿기둥'.)

108004 #1 개윗지둥.(툇기둥.)

108004 @ 이거는 개윗지둥예. 음, 헤서 이제 개윗지둥이 뒈는 거고. 아까 삼춘, 그 서슬. 서슬 헐 때는 무신 낭으로 헷수가?(이거는 툇기둥요. 음, 해서 이제 툇기둥이 되는 거고. 아까 삼촌, 그 산자. 산자 할 때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108004 #1 대나무로. 대.(대나무로. 대.)

108004 @ 대낭으로? 대낭으로.(대나무로? 대나무로.)

108004 #1 대나무로도 허고, 이 대나무가 그때 옛날은 어려우니깐.(대나무로도 하고, 이 대나무가 그때 옛날은 어려우니깐.)

108004 @ 음.(음.)

108004 #1 나무 깨어근에.(나무 깨어서.)

108004 @ 예.(예.)

108004 #1 나무를 저 줄게 깨어근에 낭으로도 헌 디도 많아.(나무를 저 잘게 깨어서 나무로도 한 데도 많아.)

108004 @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리, 서리 건덴 헷지 아녀우과? 서리는 어느 쪽으로 거는 게 서리?(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까래, 서까래 건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까래는 어느 쪽으로 거는 게 서까래?)

108004 #1 서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거는 게 서리주.(서까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거는 게 서까래지.)

108004 @ 그럼 상ᄆᆞ루 헤근에.(그럼 용마루 해서.)

108004 #1 여기 상ᄆᆞ루가 잇으면은.(여기 용마루가 있으면.)

108004 @ 예.(예.)

108004 #1 이렇게 거는 게 서리라. 이렇게.(이렇게 거는 게 서까래야. 이렇게.)

108004 @ 이렇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뒈면 이게 서리가 뒈는 거라예. 서리 거는 거는 네 군데로 뒈는 거네.(이렇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면 이게 서까래가 되는 거네요. 서리 거는 거는 네 군데로 되는 거네.)

108004 #1 그렇지. 일로 일로 걸어가곡. 이거는 목 저 각량[423]이렌 허는디.(그렇지. 일로 일로 걸어가고. 이거는 목 저 '각량'이라고 하는데.)

108004 @ 예.(예.)

108004 #1 이짝 각량 저쪽 각량 허민 네 거리가 맞아.(이쪽 '각량' 저쪽 '각량' 하면 네 거리가 맞아.)

108004 @ 아 각량.(아 '각량'.)

108004 #1 으.(으.)

108004 @ 게믄 이 서리 걸 때는 이렇게 허면은 모서리로 가는 게 서리우과? 지붕허면은?(그러면 이 서리 걸 때는 이렇게 하면 모서리로 가는 게 서까래입니까? 지붕하면은?)

108004 #1 지금 집이 요렇게 잇잖아이.(지금 집이 요렇게 있잖아.)

108004 @ 예.(예.)

108004 #1 요렇게 시민 요렇게 거는 게 서리고, 요렇게 오는 거는 강량. 이짝으로 가는 것도 강량.(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거는 게 서까래이고, 요렇게 오는 거는 '각량'. 이쪽으로 가는 것도 '각량'.)

108004 @ 이렇게 허면 이렇, 이렇게 허는 게 그.(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는 게 그.)

108004 #2 하여튼 지붕에는 다 서리 걸어살 거 아니.(하여튼 지붕에는 다 서까래 걸어야 할 거 아니.)

108004 #1 서리가 맞주.(서까래가 맞지.)

108004 @ 이렇게 걸 이렇게 가는 게 서리고, 또 이렇게 걸지 아녑니까? 이게 강량이라는 거?(이렇게 걸 이렇게 가는 게 서까래고, 또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이게 '각량'이라는 거?)

108004 #1 으. 나 말은.(으. 내 말은.)

108004 @ 예.(예.)

108004 #1 이렇게 잇잖아이, 집이.(이렇게 있잖아, 집이.)

108004 @ 예.(예.)

423) '각량'은 도리의 일종이다.

108004 #1 이렇게 거는 건 서리고.(이렇게 거는 건 서까래고.)

108004 @ 예.(예.)

108004 #1 요렇게 거는 건 강량이엔 허난.(요렇게 거는 건 '각량'이라고 하니까.)

108005 @ 으, 알아수다.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헤보께예. 이런 식으로 허는데 보통 옛날에 우리 주춧돌은 우리 돌예? 현무암.(으,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옛날에 우리 주춧돌은 우리 돌요? 현무암.)

108005 #2 주춧돌엔 헌 게 지둥 받후는 게 주춧돌 아니?(주춧돌이라고 한 게 기둥 받치는 게 주춧돌 아니?)

108005 @ 주춧돌을 여기에서는 뭐렌 불럿수과?(주춧돌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108005 #1 여기도 주춧돌.(여기도 주춧돌.)

108005 #2 주춧돌.(주춧돌.)

108005 @ 그냥 주춧돌엔 그냥 골안예.(그냥 주춧돌이라고 그냥 말했지요.)

108005 #1 지둥굽엔도 허고.(기둥밑동이라고도 하고.)

108005 @ 지둥굽이엔도 허곡 주춧돌을.(기둥밑동이라고도 하고 주춧돌을.)

108005 #1 으.(으.)

108005 @ 그다음에 이제. 그 도리는 뭐우과? 도리.(그다음에 이제. 그 도리는 뭡니까? 도리.)

108005 #1 도리?(도리?)

108005 @ 예. 지붕.(예. 지붕.)

108005 #1 도리는 지금 집이 요렇게 요거 상ᄆᆞ루민 이짝 각량 잇고 이짝 잇잖아이.(도리는 지금 집이 요렇게 요거 용마루는 이쪽 '각량' 있고 이쪽 있잖아.)

108005 @ 예.(예.)

108005 #1 요 이 가운데 잇는 게 도리라.(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도리야.)

108005 @ 아아, 아까 이게 도리로구나. 이렇게 뭰 게. 이게예. 으으. 게믄 도리는 몃 개가 뭰 거? 두 개 뒈는 거. 집 하나에.(아아, 아까 이게 도리로구나. 이렇게 된 게. 이게요. 으으. 그러면 도리는 몇 개가 된 거? 두 개 되는 거. 집 하나에.)

108005 #1 상ᄆᆞ루 중ᄆᆞ루[424] 하ᄆᆞ루[425] 헤근에.(용마루 중도리 '하ᄆᆞ루' 해서.)

108005 @ 예.(예.)

108005 #1 하ᄆᆞ루에는 문벽선 세우는 게 하ᄆᆞ루고.('하ᄆᆞ루'에는 벽선 세우는 게 '하ᄆᆞ루'고.)

108005 @ 예.(예.)

108005 #1 중ᄆᆞ루는 가운딘 지둥 없이 요렇게 걸쳐 잇는 게 중ᄆᆞ루.(중도리는 가운덴 기둥 없이 요렇게 걸쳐 있는 게 중도리.)

---

424) '중ᄆᆞ루'는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와의 중간 높은 곳을 말한다.

425) '하ᄆᆞ루'는 '상ᄆᆞ루', '중ᄆᆞ루'에 대비해서 처마 아래쪽을 이르는 도리를 이르는 말이다. '하ᄆᆞ루'를 이용하여 문벽선을 세운다.

108005 @ 중ᄆᆞ루, 게난 저기 상ᄆᆞ루 가로질렁은에 가운데 잇는 게 중ᄆᆞ루.(중도리, 그러니까 저기 용마루 가로질러서 가운데 있는 게 중도리.)

108005 #1 으.(으.)

108005 @ 양쪽에?(양쪽에?)

108005 #1 세와진 건 벡선 세우는 저.(세워진 건 벽선 세우는 저.)

108005 @ 하ᄆᆞ루.('하ᄆᆞ루'.)

108005 #1 으.(으.)

108005 @ 게난 상ᄆᆞ루 중ᄆᆞ루 하ᄆᆞ루 허는구나. 하ᄆᆞ루는 게민 두 개우과?(그러니까 용마루 중도리 '하ᄆᆞ루' 하는구나. '하ᄆᆞ루'는 그러면 두 개입니까?)

108005 #1 하ᄆᆞ루는 게민 양쪽에주. 이짝에도 잇고 저쪽에도 잇고.('하ᄆᆞ루'는 그러면 양쪽에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108005 @ 거 벡선예?(거 벽선요?)

108005 #1 으. 건 그디 문벡선을 세와야 뒈니까.(으. 건 거기 벽선을 세워야 되니까.)

108005 @ 그 밑으로 중ᄆᆞ루로 이렇게 내려와근에 세우는 거구나예? 게믄 보통 제주도 집 짓을 때는 어떤 낭으로 짓언마씨? 상ᄆᆞ루 걸거나 이런 거 헐 때?(그 밑으로 중도리로 이렇게 내려와서 세우는 거구나? 그러면 보통 제주도 집 지을 때는 어떤 나무로 지었어요? 용마루 걸거나 이런 거 할 때?)

108005 #1 옛날은 모르겟는디 우리가 커난 후에 집 짓는 거는 주로.(옛날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컸던 후에 집 짓는 거는 주로.)

108005 @ 예.(예.)

108005 #1 한라산 도벌목[426]을 많이 햇주.(한라산 도벌을 많이 했지.)

108005 @ 무슨 목?(무슨 목?)

108005 #1 한라산.(한라산.)

108005 @ 예.(예.)

108005 #1 한라산에 강 산감덜 몰르게 강 낭 도둑질 헤오는 게 도벌목이주.(한라산에 가서 산감들 모르게 가서 나무 도둑질 해오는 게 '도벌목'이지.)

108005 @ 도벌목. 도벌헤당. 게민 그 낭 종류는 몰르고?(도벌. 도벌해다가. 그러면 그 나무 종류는 모르고?)

108005 #1 낭 종류는 소나무가 잇고.(나무 종류는 소나무가 있고.)

108005 @ 으.(으.)

108005 #1 낙엽송이 잇어.(낙엽송이 있어.)

108005 @ 낙엽. 음, 어느 낭이 좋아마씨?(낙엽. 음, 어느 나무가 좋아요?)

108005 #1 좋긴 낙엽송이 저, 이 소나무허고 낙엽송은 비슷헌데.(좋긴 낙엽송이 저, 이 소나무하고 낙엽송은 비슷한데.)

108005 @ 예.(예.)

426) '도벌목'은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오는 일을 말한다. 표준어 '도벌'에 대응하는 말이다.

108005 #1 이 산나무는.(이 삼나무는.)
108005 #2 ᄎᆞ남.(참나무.)
108005 @ ᄎᆞ남?(참나무?)
108005 #1 아니 ᄎᆞ남이 아니고 산나무에 숙대낭이 산나무인디.(아니 참나무가 아니고 삼나무에 '숙대낭'이 삼나무인데.)
108005 @ 아, 삼나무?(아, 삼나무?)
108005 #1 그거는 이렇게 곧앗당도 벳만 맞아가민 이렇게 휘여불어.(그거는 이렇게 곧았다가도 볕만 맞아가면 이렇게 휘어버려.)
108005 @ 아아, 거는 집으로는.(아아, 거는 집으로는.)
108005 #1 게난 그게 좋지 않덴 허는 거주.(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거지.)
108005 @ 으음, 소낭이나 이런 건 안 휩니까?(으음, 소나무나 이런 건 안 휩니까?)
108005 #1 건 휘지 안 허여.(건 휘지 안 해.)
108005 @ 아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까 이제 그 도리나, 그 지둥포를 허거나 이거 다 그런 낭으로 이제 허는 거네예?(아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까 이제 그 도리나, 그 '지둥포'를 하거나 이거 다 그런 나무로 이제 하는 거네요?)
108005 #1 포는 특별헌 낭으로 허주.(보는 특별한 나무로 하지.)
108005 @ 아, 포는마씨?(아, 보는요?)
108005 #1 뭐 좋은 낭 이시민 좋은 낭으로 허젠만 허고 상ᄆᆞ루도 마찬가지 좋은 낭만 허젠 허는디.(뭐 좋은 나무 있으면 좋은 나무로 하려고만 하고 용마루도 마찬가지 좋은 나무로만 하려고 하는데.)
108005 #2 가시낭으로 허는가?(가시나무로 하는가?)
108005 #1 이 옛날은 가시낭을 많이 썻는디, 가시낭이 한라산에 강 베어오기 전이 없단 말이야.(이 옛날은 가시나무를 많이 썼는데, 가시나무는 한라산에 가서 베어오기 전에 없단 말이야.)
108005 @ 예예.(예예.)
108005 #1 경허기 때문에 대개 이젠 뭐 소낭도 쓰고 산나무도 쓰곡 이렇게 허는디, 원래는 옛날은 가시낭허고 소리낭허고 솔피남을 많이 썻어.(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젠 뭐 소나무도 쓰고 삼나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옛날은 가시나무하고 소리나무하고 솔비나무를 많이 썼어.)
108005 @ 소리낭허고 솔피낭예?(소리나무하고 솔비나무요?)
108005 #1 으. 가시남.(으. 가시나무.)
108005 @ 아, 그게 쎈 낭이우꽈?(아, 그게 센 나무입니까?)
108005 #1 그게 질기주.(그게 질기지.)
108005 #2 솔피낭은 어떤 거?(솔비나무는 어떤 거?)
108006 @ 그런 낭으로 이제, 알앗수다. 허고 삼춘 여기에 그렇게 하면 아까 퉤

기도 헤야 뭰덴 허고예, 그 퉤기는 몃 군데를 허는 거우과? 벽마다 다 허는 거?(그런 나무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삼촌 여기에 그렇게 하면 아까 외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외는 몇 군데를 하는 겁니까? 벽마다 다 하는 거?)

108006 #1 그렇지게. 이기도 이게 요거 욜로 이 사이 사이면은 가운데 기둥 하나 세와서 두 군데를 만들어야 뒈.(그렇지. 여기도 이게 요거 욜로 이 사이 사이면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서 두 군데를 만들어야 돼.)

108006 @ 아.(아.)

108006 #1 넓으면은 이게 퉤기에 흑 불라가면 흥창흥창허영 무너져불어. 게난 가깝게. 이 불과 한 일 메다 간격으로.(넓으면 이게 외에 흙 발라가면 흔들흔들해서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가깝게. 이 불과 한 일 미터 간격으로.)

108006 @ 아, 게난 이 넓으면 이런 식으로 헤영 멧 개를 헌 거네예?(아, 그러니까 이 넓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한 거네요?)

108006 #1 이 방허고 저 방은 만약 방을 만들젠 허민 이디 벡선 한 네 개쯤 세왕 퉤길 만들어야 허지 경 아녀민.(이 방하고 저 방은 만약 방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 벽선 한 네 개쯤 세워서 외를 만들어야 하지 그렇게 않으면.)

108006 @ 으음.(으음.)

108006 #2 무너나불어.(무너져버려.)

108006 #1 사름 건드리면 흘랑흘랑헤영 물러나불어.(사람 건드리면 헐렁헐렁해서 무너져버려.)

108006 @ 벽이 이만큼 허더래도 이만큼씩 다 나눵은에.(벽이 이만큼 하더라도 이만큼씩 다 나눠서.)

108006 #1 한 일 메다 간격으로.(한 일 미터 간격으로.)

108006 @ 일 메다 간격으로 헹 그걸 전부 퉤기를 하는 거라예. 경허고 이제 퉤기 이제 허젠 허면 그 퉤기 밑으로는 또 낭으로 헤갖고 만약에 문을 만약 벽장 이렇게 허면 여기 퉤기 헐 거면 요기는 또 이런 나무 식으로 허잖아예?(일 미터 간격으로 해서 그걸 전부 외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외 이제 하려고 하면 그 외 밑으로는 또 나무로 해갖고 만약에 문을 만약 벽장 이렇게 하면 여기 외 할 거면 요기는 또 이런 나무 식으로 하잖아요?)

108006 #1 거 그 무스거게. 빈지[427], 빈지.(거 그 무엇. '빈지', '빈지'.)

108006 @ 이건 빈지. 빈지는 뭘로 헌 거우꽈?(이건 '빈지'. '빈지'는 무엇으로 한 겁니까?)

108006 #1 널, 널로.(널, 널로.)

108006 @ 널로예? 여기는?(널로요? 여기는?)

108006 #1 옛날은.(옛날은.)

108006 @ 으.(으.)

427) '빈지'는 벽 아래쪽 두 기둥 사이에 가로 질러 막은 널빤지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빈지'를 '한 쪽씩 끼웠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든 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108006 #1 이 제재공장이 없잖아.(이 제재소가 없잖아.)

108006 @ 예.(예.)

108006 #1 게난 옛날은 거의 목수들 이 길이를 재어서 짤라 놔서 깨엿어.(그러니까 옛날은 거의 목수들 이 길이를 재어서 잘라 놔서 깨었어.)

108006 @ 아아.(아아.)

108006 #1 역기[428]로. 이렇게 깨어서 헷는디 이젠 제재소가 생기니까 거기당 헤여당 허는디 옛날은 거의 이 저 대문[429]도.('역기'로. 이렇게 깨어서 했는데 이젠 제재소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해다가 하는데 옛날은 거의 이 저 마루문도.)

108006 @ 예.(예.)

108006 #1 대문 널도 깨엿어.(마루문 널도 깨었어.)

108006 @ 아아, 게믄 깰 때는 무신걸로 깹니까?(아아, 그러면 깰 때는 무엇으로 깹니까?)

108006 #1 도끼를 이렇게 놔서 이디 쒜망치 말목을 놓면서 때린 거지.(도끼를 이렇게 놔서 여기 쇠망치 쐐기를 놓으면서 때린 거지.)

108006 @ 아, 말목을 딱 놔갖고.(아, 쐐기를 딱 놔갖고.)

108006 #1 게난 이 길이면은 말목으로 열 개쯤 박앙 다 때리지. 게민 나가잖아.(그러니까 이 길이면 쐐기로 열 개쯤 박아서 다 때리지. 그러면 나가잖아.)

108006 @ 아아, 게민 말목을 박으면 이제 깨면 곧장 뒈는 거예? 그니까 옛날 집덜 보민 약간 울퉁불퉁헌 게.(아아, 그러면 쐐기를 박으면 이제 깨면 곧게 되는 거네요? 그니까 옛날 집들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게.)

108006 #1 거 시방 옛날 대문 강 봐. 반득헌 디가 없어.(거 시방 옛날 마루문 가서 봐. 반듯한 데가 없어.)

108007 @ 그러니까 울퉁불퉁허게 다 그렇게 깨서 헌 거구나. 게믄 이게 이제 빈지가 뒈고 퉤기가 뒈고.(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다 그렇게 깨서 한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빈지'가 되고 외가 되고.)

108007 @ 으.(으.)

108007 #1 그다음에 이런 방에 허면 이불 개어 놓는 디?(그다음에 이런 방에 하면 이불 개어 놓는 데?)

108007 #1 으.(으.)

108007 @ 그건 뭐렌 헙니까?(그건 뭐라고 합니까?)

108007 #1 건 시렁. 시렁.(건 벽장. 벽장.)

108007 @ 건 시렁. 시렁도 꾸며야 뒐 거 아니우과예?(건 벽장. 벽장도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8007 #1 시렁이 이거라.(벽장이 이거야.)

108007 @ 아, 여기는 시렁이 좁게 허니까.(아, 여기는 벽장이 좁게 하니까.)

---

428) '역기'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돌을 깨는 도구인 것 같다.

429) '대문'은 대청 정면에 단 문을 말한다. 표준어 '마루문'에 해당하는 문이다.

108007 #1 요거 시렁인디.(요거 벽장인데.)

108007 @ 으.(으.)

108007 #1 이게 원래는 한 일 메다 정도 노프게 헤근에.(이게 원래는 한 일 미터 정도 높게 해서.)

108007 @ 예.(예.)

108007 #1 그디 시렁 만들엉.(거기 벽장 만들어서.)

108007 @ 으.(으.)

108007 #1 궤도 놓곡.(궤도 놓고.)

108007 @ 예.(예.)

108007 #1 옷장, 옷 놓는 궤.(옷장, 옷 놓는 궤.)

108007 @ 예. 옛날 궤.(예. 옛날 궤.)

108007 @ 예, 궤.(예, 궤.)

108007 #1 궤도 놓고 이불도 놓곡 거기.(궤도 놓고 이불도 놓고 거기.)

108007 @ 음, 옛날은 주로 그렇게 헌 거라예? 게난 삼춘 시렁도예 우리는 시렁이렌 아녕 벡장이렌 허거든마씨.(음, 옛날은 주로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삼촌 벽장도요 우리는 '시렁'이라고 안 해서 '벡장'이라고 하거든요.)

108007 #1 아, 벡장엔도 헤여, 이디서도.(아, '벡장'이라고도 해, 여기서도.)

108007 @ 아, 이디서도 벡장이렌 골앗수가?(아, 여기서도 '벡장'이라고도 말했습니까?)

108007 #1 벡장도 곧곡 시렁이엔도 곧곡.('벡장'도 말하고 '시렁'이라고도 말하고.)

108007 @ 음, 겐디 서귀포 쪽에 이쪽에 오니까 시렁이렌 허더라고예?(음, 그런데 서귀포 쪽에 이쪽에 오니까 '시렁'이라고 하더라고요?)

108007 #1 서귀포허고 이 저 모실포[430] 말이 여기허고 틀려.(서귀포하고 이 저 모슬포 말이 여기하고 달라.)

108007 @ 틀리지예.(다르지요.)

108007 #1 으.(으.)

108007 @ 으, 게난 여기는 벡장엔도 골고 시렁엔도 곧는 거예? 으음. 그다음에 시렁을 이제 멘들아야 뒐 거고.(으, 그러니까 여기는 '벡장'이라고도 말하고 '시렁'이라고도 말하는 거요? 으음. 그다음에 벽장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고.)

108007 #1 으.(으.)

108007 @ 그다음에 이제 마리에 보면 뭐 그 여긴 뭐렌 허드라? 제기 같은 것도 담앙 놔두는.(그다음에 이제 마루에 보면 뭐 그 여긴 뭐라고 하더라? 제기 같은 것도 담아서 놔두는.)

108007 #1 아아, 장궤[431].(아아, '장궤'.)

---

430) '모실포'는 대정읍 지역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모슬포'라고도 한다.

431) '장궤'는 마루 뒤쪽이나 툇마루 벽을 이용하여 만든 붙박이장을 말한다. 『표준국어사전』의 '벽장(壁欌)'의 의미다.

108006 #4 장궤 아아.(‘장궤’ 아아.)

108007 @ 장궤. 꼭 장궤덜은 이 마리에 멘들앗수과? 성읍에서는.(‘장궤’. 꼭 ‘장궤’들은 이 마루에 만들었습니까? 성읍에서는.)

108007 #1 잘사는 집만 멘들앗주. 이 못사는 사름덜은 그거 헐 여지가 엇어.(잘사는 집만 만들었지. 이 못사는 사람들은 그거 할 여지가 없어.)

108007 @ 아아, 장궤는 멧 군데 멘드는 거?(아아, ‘장궤’는 몇 군데 만드는 거?)

108007 #1 두 군데 양쪽 헷주게. 흔쪽에는 젯상, 젯상을 놓곡.(두 군데 양쪽 했지. 한쪽에는 제상, 제상을 넣고.)

108007 @ 예.(예.)

108007 #1 흔쪽엔 젯그릇 놓곡.(한쪽엔 제기 넣고.)

108007 @ 경헹 그거는 그 장궤는 젯그릇이영 젯상들 놔두는 거.(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 ‘장궤’는 제기랑 제상들 놔두는 거.)

108007 #1 으.(으.)

108007 @ 다른 건 아니고.(다른 건 아니고.)

108007 #1 아니고.(아니고.)

108007 @ 아, 게난 지난번 우리 갔을 때도 장궤가 잇엇잖아예?(아,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갔을 때도 ‘장궤’가 있었잖아요?)

108007 #1 으, 그디 거 거 제 젯상 놓곡 젯그릇 놓는 디.(으, 거기 거 거 제 제상 넣고 제기 넣는 데.)

108007 @ 게믄 무사 삼춘 장궤렌 헌 거우꽈?(그러면 왜 삼촌 ‘장궤’라고 한 겁니까?)

108007 #1 몰르주게. 내 알아게? 원 춤 이런. (웃음). 나 이제.(모르지. 내 알아? 원 참 이런. (웃음). 나 이제.)

108007 @ (웃음).

108007 #1 나 낳기 전에 굴은 말 내 어떵 알아.(나 낳기 전에 말한 말 내 어떻게 알아.)

108007 @ 장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춘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장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촌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108007 #1 으.(으.)

108007 @ 이게 만약에 큰구들허고 여기 마루 영 될 거 아니라예?(이게 만약에 큰방하고 여기 마루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108007 #1 으, 으.(으, 으.)

108007 @ 이렇게 허면 여기가 큰구들예?(이렇게 하면 여기가 큰방이요?)

108007 #1 으.(으.)

108007 @ 예, 큰구들 뒈고 여기는 족은구들?(예, 큰방 되고 여기는 작은방?)

108007 #1 으.(으.)

108007 @ 여기 게민 옆에도 뭐 잇수가? 이것도 구들도 두 개 이신 것도 게믄.

(여기 그러면 옆에도 뭐 있습니까? 이것도 방도 두 개 있는 것도 그러면.)

108007 #1 대개.(대개.)

108007 @ 예.(예.)

108007 #1 이 구들 허당 나머지는 시렁, 시렁을 만들엇주게.(이 방 하다가 나머지는 벽장, 벽장을 만들었지.)

108007 @ 이렇게 허면 시렁 헹은에 하고.(이렇게 하면 벽장 해서 하고.)

108007 #1 이불도 놓곡 뭐허게시리.(이불도 놓고 뭐하게끔.)

108007 @ 여기 시렁 게민, 방마다 시렁을 멘들아수가? 옛날에.(여기 벽장 그러면, 방마다 벽장을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108007 #1 방마다 잇주. 방마다.(방마다 있지. 방마다.)

108007 @ 방마다 시렁을 멘들아예? 게믄 이거는 족은구들.(방마다 벽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은방.)

108007 #1 족은구들 큰구들.(작은방 큰방.)

108007 @ 여기는 뭐우과?(여기는 뭡니까?)

108007 #1 삼방.(대청.)

108007 @ 삼방. 게믄 삼방에 여기는 대문예?(대청. 그러면 대청에 여기는 마루문요?)

108007 #1 으.(으.)

108007 @ 여기 대문 잇일 거 아니라예?(여기 마루문 있을 거 아닌가요?)

108007 #1 으.(으.)

108007 @ 그다음에 이렇게 허면 여긴 뭐?(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긴 뭐?)

108007 #1 뭐 저. 대문 베꼇딘.(뭐 저. 마루문 바깥엔.)

108007 #4 무뚱[432]게. 대문 바꼇디.('무뚱'. 마루문 바깥에.)

108007 #1 대문 베꼇딘, 대문 베꼇딘게 풍체벳긴 더 잇어?(마루문 바깥엔, 마루문 바깥엔 차양밖엔 더 있어?)

108007 @ 여긴 풍체허는데 대문 바갓디.(여긴 차양하는데 마루문 바깥에.)

108007 #1 아, 이디 퉷마리.(아, 여기 툇마루.)

108007 #2 퉷마리.(툇마루.)

108007 @ 예게. 퉷마리.(예. 툇마루.)

108007 #2 난간마리.(난간마루.)

108007 #1 으, 난간마리엔도 허곡 퉷마리옌도 허여.(으, '난간마리'라고도 하고 '퉷마리'라고도 해.)

108007 @ 난간마리를 헤얄 거 아니라예. 이렇게 헹예? 여기는 또.(툇마루를 해야 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또.)

108007 #1 풍체.(차양.)

108007 @ 영 신발 벗는 디?(이렇게 신발 벗는 데?)

---

432) '무뚱'은 마루문이나 방문 등이 있는 처마 밑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 앞의 의미다.

108007 #1 풍체.(차양.)
108007 @ 신발 벗는 디는 뭐?(신발 벗는 데는 뭐?)
108007 #2 신발 벗는 디가 난간 아래주게. 아래.(신발 벗는 데가 툇마루 아래지. 아래.)
108007 #1 난간 아래 이디.(툇마루 아래 여기.)
108007 @ 으.(으.)
108007 #1 잘사는 집은 돌로 이렇게 헤근에 허곡.(잘사는 집은 돌로 이렇게 해서 하고.)
108007 @ 예.(예.)
108007 #1 경 아년 사름은 그냥 이디 신 벗어뒁 들어오곡 경헤낫주게.(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기 신 벗어두고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지.)
108007 @ 게 그 돌로 헌 건 뭐렌 골아?(글쎄, 그 돌로 한 건 뭐라고 말해?)
108007 #2 잇돌.(댓돌.)
108007 #1 잇돌게.(댓돌.)
108007 @ 아, 잇돌예? 잇돌허곡. 그다음에 영 세우는 거는? 이렇게 헹은에 세우는 풍체.(아, 댓돌이요? 댓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세우는 차양.)
108007 #1 으.(으.)
108007 @ 풍체 세울 거 아니라예? 게믄 여기는 이제 장궤 두 개 이렇게 하고.(차양 세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장궤' 두 개 이렇게 하고.)
108007 #1 으, 으.(으, 으.)
108007 @ 여기 게믄 문, 이 문은?(여기 그러면 문, 이 문은?)
108007 #1 으.(으.)
108007 @ 여기도 뒤에?(여기도 뒤에?)
108007 #1 이 뒷문게. 삼방뒷문.(이 뒷문. 마루뒷문.)
108007 @ 삼방뒷문.(마루뒷문.)
108007 #1 으.(으.)
108007 @ 삼방뒷문도 멘들엇고예. 그다음 이 뒤에는 뭐옌 헤?(마루뒷문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이 뒤에는 뭐라고 해?)
108007 #1 이 뒤에 무엇이라. 두엔 아무 것도 아니지 이거 뭐.(이 뒤에 무엇이야. 뒤엔 아무 것도 아니지 이거 뭐.)
108007 @ 아니, 그 거기에 게믄 그 장황들은 어디 놉니까?(아니, 그 거기에 그러면 그 장독들은 어디 놉니까?)
108007 #1 장황은 부억 두에를 만들어. 부억등어리[433]에.(장독은 '부엌등어리'를 만들어. 부엌 등에.)
108007 @ 아.(아.)

433) '부억등어리'는 부엌의 뒤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108007 #4 무사 삼방 등어리도 허주.(왜 대청 등에도 하지.)
108007 #1 부억등어리에 많이 헤여. 부억에서 웨냐믄.(‘부억등어리’에 많이 해. 부엌에서 왜냐하면.)
108007 @ 예.(예.)
108007 #1 장 거리레 다니기 쉽게 부억등어리에서 많이 만들앗어.(장 뜨러 다니기 쉽게 ‘부억등어리’에서 많이 만들었어.)
108007 @ 부억등어리에. 여기 부억을 이 동네서 뭐렌 불럿수가?(‘부억등어리’에. 여기 부엌을 이 동네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108007 #1 으.(으.)
108007 @ 부억을 이 동네서 옛날엔 말이 뭐?(부엌을 이 동네서 옛날엔 말이 뭐?)
108007 #1 정지.(‘정지’.)
108007 #4 (웃음).
108007 #1 정지.(‘정지’.)
108007 @ 게난 삼춘 정지렌 골아줘야 뒈.(그러니까 삼촌 ‘정지’라고 말해줘야 돼.)
108007 #1 정지.(부엌.)
108007 @ 게민 정지등어리렌 헤?(그러면 ‘정지등어리’라고 해?)
108007 #1 으.(으.)
108007 @ 정지등어리에 그, 그거를 무신거 아까?(‘정지등어리’에 그, 그거를 무엇 아까?)
108007 #2 장독.(장독.)
108007 #4 장독.(장독.)
108007 @ 장독을 이딧 말로?(장독을 여기 말로?)
108007 #1 장항.(‘장항’.)
108007 #4 장항.(‘장항’.)
108007 #2 아니, 아니. 장항 말고 무신거 잇이니?(아니, 아니. 장독 말고 무엇 있니?)
108007 @ 장팡뒤.(‘장팡뒤’.)
108007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7 @ 장팡뒤에?(‘장팡뒤에’?)
108007 #2 장독, 장항, 장황뒤.(장독, ‘장항’, 장독대.)
108007 @ 장항뒤.(장독대.)
108007 #4 맞다, 장항뒤. (웃음).(맞다, 장독대. (웃음).)
108007 #1 잘들 앚앙 연구혜여.(잘들 앉아서 연구해.)
108007 @ 삼춘, 어디 가불엄수과?(삼촌, 어디 가버리고 있습니까?)
108007 #1 나 화장실 강.(나 화장실 가서.)

108007 #2 ᄒᆞ꼼 ᄇᆞ름 쎄왕 와사주. 하영 들어가난에.(조금 바람 쐬어서 와야지.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 생략)

108010 @ 삼춘, 이제 아까 이제 정지 그렇게.(삼촌, 이제 아까 이제 부엌 그렇게.)

108010 #2 ** 웃음(** 웃음.)

108010 @ 이제 정지등어리에 장황뒤를 이제 놓을 거라예?(이제 '정지등어리'에 장독대를 이제 놓을 거네요?)

108010 #1 으.(으.)

108010 @ 그건 이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집 안에 아니우과?(그건 이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집 안에 아닙니까?)

108010 #1 으.(으.)

108010 @ 이제 정지를 한번 멘들아보커라예. 정지.(이제 부엌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엌.)

108010 #1 부억.(부엌.)

108010 @ 예게.(예.)

108010 #1 지금 말론 부억.(지금 말론 부엌.)

108010 @ 정지를 멘들면 어느 펜이에 저기.(부엌을 만들면 어느 편에 저기.)

108010 #2 솟 앚지는 거?(솥 거는 거?)

108010 @ 예.(예.)

108010 #1 솟 앚지는 거는 이 서북향을 향헹은 솟을 안 앚지주.(솥 앉히는 거는 이 서북향을 향해서는 솥을 안 앉히지.)

108010 @ 서북향을 솟은 안 앚져? 주로 어디 앚져?(서북향을 솥은 안 앉혀? 주로 어디 앉혀?)

108010 #1 성읍리 같은 경우는 한라산을 향헤서 솟을 안 앚진다 이 말이주. 서북향.(성읍리 같은 경우는 한라산을 향해서 솥을 안 앉힌다 이 말이지. 서북향.)

108010 @ 그 말은 무사 경헤신고예?(그 말은 왜 그랬는가요?)

108010 #1 몰르주게. 옛날부터 서북향을 향해서 소를, 저 솟을 안 앚진다 헤서.(모르지. 옛날부터 서북향을 향해서 소를, 저 솥을 안 앉힌다 해서.)

108010 @ 음.(음.)

108010 #2 서북향. 우리 성읍리도 서쪽디레 솟 앚진 디 엇인가?(서북향. 우리 성읍리도 서쪽으로 솥 앉힌 데 없는가?)

108010 @ 서북향은 아니고 삼춘네 집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북향은 아니고 삼촌네 집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108010 #1 우리는 북향이라.(우리는 북향이야.)

108010 @ 북향예. 북향에 이제 삼춘네는 앚진 거고. 게믄 이 솟은 멧 개?(북향요. 북향에 이제 삼촌네는 앉힌 거고. 그러면 이 솥은 몇 개?)

108010 #1 네 개에서 다섯 개. 게난.(네 개에서 다섯 개. 그러니까.)

108010 @ 네 개에서 다섯 개예? 게믄 그 솟 앚지젠 허면 뭐가 필요헌 거우과?(네 개에서 다섯 개요? 그러면 그 솥 앉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108010 #1 솟덕.(봇돌.)

108010 #2 솟덕.(봇돌.)

108010 @ 솟덕. 솟덕 앚져서 네 개에서 다섯 개를 하면 맨 안쪽에 젤 큰 거?(봇돌. 봇돌 앉혀서 네 개에서 다섯 개를 하면 맨 안쪽에 젤 큰 거?)

108010 #1 으.(으.)

108010 @ 그 솟을 무신 솟 헤?(그 솥을 무슨 솥 해?)

108010 #1 그 두말떼기[434]엔 허주기.(그 '두말떼기'라고 하지.)

108010 @ 두말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두말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8010 #1 그다음은 밥솟이여 무신.(그다음은 밥솥이다 무슨.)

108010 #2 웨솟[435].('외솟'.)

108010 @ 웨솟.('외솟'.)

108010 #1 다슷 개 앚지긴 앚졋는디 젤 나중에ᄁᆞ진.(다섯 개 앉히긴 앉혔는데 젤 나중에까진.)

108010 #2 젤 저 세 개 보통으로 앚져낫주.(젤 저 세 개 보통으로 앉혔었지.)

108010 #1 세 개, 세 개.(세 개, 세 개.)

108010 @ 세 개예. 게민 세 개 허면 두말떼기 하고 그 옆에 거는? 밥 허는 솟은?(세 개요. 그러면 세 개 하면 '두말떼기' 하고 그 옆에 거는? 밥 하는 솥은?)

108010 #1 밥허는 솟. 그다음 국 끌리는 솟, 반찬 허는 솟 경.(밥하는 솥. 그다음 국 끓이는 솥, 반찬 하는 솥 그렇게.)

108010 @ 으.(으.)

108010 #1 두말떼기는 보통 이 콩. 메주.('두말떼기'는 보통 이 콩. 메주.)

108010 @ 예.(예.)

108010 #1 메주 삶을 때 많이 사용허주.(메주 삶을 때 많이 사용하지.)

108010 #2 밥 하영 헐 때.(밥 많이 할 때.)

108010 @ 아, 밥 하영 헐 때.(아, 밥 많이 할 때.)

108010 #1 크게 무슨 큰 제사 때나.(크게 무슨 큰 제사 때나.)

108010 @ 예.(예.)

108010 #1 이런 때 그디 사용허지. 두말떼기는 별로 사용을 안 헤.(이럴 때 거기 사용하지. '두말떼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해.)

108010 #4 우리도 두말떼기 잇수게. 우리도. 아르미.(우리도 '두말떼기' 있습니다. 우리도. 알루미늄.)

108010 @ 두말떼기 솟허고예 그냥 보통은 이제 웨솟은 어느 정도 하는 거?('두

434) '두말떼기'는 쌀 두 말어치의 밥을 할 수 있는 솥이다.
435) '웨솟'은 쌀 한 말어치의 밥을 할 수 있는 솥이다.

말떼기' 솥하고요 그냥 보통은 이제 '외솟'은 어느 정도 하는 거?)

108010 #1 웨솟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거기서 밥허영 먹어.('외솟'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거기서 밥해서 먹어.)

108010 @ 음, 거는 그 밥허는 솟에는 얼마큼 헐 수 잇어? 혼 말 헐 수 잇어? (음, 거는 그 밥하는 솥에는 얼마큼 할 수 있어? 한 말 할 수 있어?)

108010 #1 혼 말들이주. 혼 말.(한 말들이지. 한 말.)

108010 #2 혼 말짜리가 두말떼기.(한 말짜리가 '두말떼기'.)

108010 @ 예.(예.)

108010 #1 이거, 이거는 혼 말.(이거, 이거는 한 말.)

108010 #4 말 두 뒈가웃 허는 건 서말떼기[436].(말 두 되가웃 하는 건 '서말떼기'.)

108010 #2 하영 허는 것도 잇어낫주.(많이 하는 것도 있었었지.)

108010 @ 예.(예.)

108010 #2 큰솟 서말떼기.(큰솥 '서말떼기'.)

108010 #1 그거, 그것 말고.(그거, 그것 말고.)

108010 #2 겐디 보통으로.(그런데 보통으로.)

108010 #1 우리가 보통 밥헹 먹는 거는.(우리가 보통 밥해서 먹는 거는.)

108010 #2 보통으로 두말떼기 저 웨솟.(보통으로 '두말떼기' 저 '웨솟'.)

108010 #1 웨솟이난 저거 혼 뒈승으로 두 개. 아, 관뒈로 두 개.('웨솟'이니까 저거 한 되로 두 개. 아, 관되로 두 개.)

108010 @ 관뒈로 두 개. 두말떼기?(관되로 두 개. '두말떼기'?)

108010 #4 두말떼기는 혼 말.('두말떼기'는 한 말.)

108010 #1 두말떼기 말고게, 중솟[437], 중솟.('두말떼기' 말고, 중솥, 중솥.)

108010 #4 서말뜨긴?('서말뜨기'는?)

108010 #2 웨솟으로 관뒈로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잇주.('웨솟'으로 관되로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지.)

108010 #1 이거는 보통 관뒈로 두 개.(이거는 보통 관되로 두 개.)

108010 @ 두 개짜리나 세 개짜리 잇는 거라예. 알앗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부억 정지에다가 여기에 뭐 하나를?(두 개짜리나 세 개짜리 있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부엌 '정지'에다가 여기에 뭐 하나를?)

108010 #1 살레.(찬장.)

108010 @ 살레. 살레를?(찬장. 찬장을?)

108010 #1 사발은 그딘 사발도 놓곡 숟구락도 놓곡 젓가락 놓곡 다 놔. 이디 접시도 놓곡.(사발은 거긴 사발도 놓고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 놓고 다 놔. 여기 접시도 놓고.)

---

436) '서말떼기'는 서 말어치의 밥을 할 수 있는 솥이다.

437) '중솟'은 중간 크기의 솥을 가리키는 성읍리 지역의 말이다.

108010 @ 삼춘, 직접 살레도 짜봔?(삼촌, 직접 찬장도 짜봤어요?)
108010 #1 으. 짜보진 안헤도 놔봄은 헷주.(으. 짜보진 않아도 놔보기는 했지.)
108010 @ 놔봄은 허고예?(놔보기는 하고요?)
108010 #1 짬은 건 목시가 짜는 거주.(짜기는 건 목수가 짜는 거지.)
108010 @ 삼춘은 주로 목시가 아니고 집이는 게 전공?(삼촌은 주로 목수가 아니고 집이는 게 전공?)
108010 #1 돌담 짜는 것도 전공헷주.(돌담 쌓는 것도 전공했지.)
108010 @ 아, 돌담 싸는 것도? 음, 그다음에 이 여기에 놓곡. 예전에 이제 물.(아, 돌담 쌓는 것도? 음, 그다음에 이 여기에 놓고. 예전에 이제 물.)
108010 #1 물.(물.)
108010 @ 예.(예.)
108010 #1 물항.(물독.)
108010 @ 으, 물항.(으, 물독.)
108010 #1 물항은 대개 이 큰솟 옆엘 놔.(물독은 대개 이 큰솥 옆엘 놔.)
108010 @ 아.(아.)
108010 #1 거려서 가까우니까.(떠서 가까우니까.)
108010 @ 아, 큰솟 옆에. 여기 그럼 제가 잘 그렷네예?(아, 큰솥 옆에. 여기 그럼 제가 잘 그렸네요?)
108010 #1 으.(으.)
108010 @ 으, 물항. 물항. 그리고 그다음 지들커는 어디 놧수가?(으, 물독. 물독. 그리고 그다음 땔감은 어디 놨습니까?)
108010 #1 지들커는 이짝에 놓주게. 이짝에.(땔감은 이쪽에 놓지. 이쪽에.)
108010 @ 살레 잇는 쪽에. 여기엔 지들커.(찬장 있는 쪽에. 여기엔 땔감.)
108010 #1 으.(으.)
108010 @ 지들케, 지들커 여기서?(땔감, 땔감 여기서?)
108010 #1 게난 이딘 검질[438]이옌 허주. 검질.(그러니까 여긴 검불이라고 하지. 검불.)
108010 @ 아, 검질이엔 그냥. 지들케를 검질이렌 헙니까? 으, 검질. 이게 옛날.(아, 검불이라고 그냥. 땔감을 검불이라고 합니까? 으, 검불. 이게 옛날.)
108010 #1 그 우리 생활헤난 거주.(그 우리 생활했던 거지.)
108010 @ 예, 그다음에 이 불 솜아나면 여기에 이 이 두에는 뭐렌 헙니까? 솟두에는?(예, 그다음에 이 불 때나면 여기에 이 이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솥 뒤에는?)
108010 #2 불치 놓는 디.(재 넣는 데.)
108010 #1 불치 놓는 디가 잇주게. 저 이 솟허고 이 축담 사이에 거리가 한 오십 전 한 팔십 전 간격으로 띠와.(재 넣는 데가 있지. 저 이 솥하고 이 축담 사이에

438) 여기에서 '검질'은 김의 의미가 아니라 검불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거리가 한 오십 전 한 팔십 전 간격으로 띠워.)

108010 @ 예.(예.)

108010 #1 그 불치 내물젠.(그 재 내밀려고.)

108010 #2 게난 불 숨으멍 불치도 영 영 밀민 두티레 불치가 나가는 거.(그러니까 불 때면서 재도 이렇게 이렇게 밀면 뒤로 재가 나가는 거.)

108010 @ 응, 그렇게 이제 하고. 여기에 앉앙덜 불 숨지 아녓수광예?(응, 그렇게 이제 하고. 여기에 앉아서들 불 때지 않았습니까요?)

108010 #1 건 무신거라. 방석 끌안 앚앙 헷주.(건 무엇이야. 방석 깔아서 앉아서 했지.)

108010 @ 방석을 무신 방석 헤낫수가?(방석을 무슨 방석 했었습니까?)

108010 #2 줄방석[439].(줄방석.)

108010 #1 줄, 줄께[440]로.(줄, '줄께'로.)

108010 @ 줄께로 헤갖고 줄방석.('줄께'로 해갖고 줄방석.)

108010 #4 줄께로 뱅뱅허게 만들앙.('줄께'로 뱅뱅하게 만들어서.)

108010 #2 에, 벨거 다 들엄쩌, 원.(에, 별거 다 듣고 있다, 원.)

108010 #4 웃음.(웃음.)

108010 #1 제기 들으라게. 경 나 골으저.(재우 들어라. 그렇게 내 말하지.)

108010 @ 줄방석이렌 골아붑서.('줄방석'이라고 말해버리세요.)

108010 #1 줄방석.(줄방석.)

108010 @ 이게 줄방석이 이렇게 잇는 거라예. 예전에는 이 지금은 전기 잇주마는 옛날 혹시 이 불치 헌 이 벽에다가 뭐 그 불 싸는?(이게 줄방석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예전에는 이 지금은 전기 있지만 옛날 혹시 이 재 한 이 벽에다가 뭐 그 불 켜는?)

108010 #1 각제깃불.(등잔불.)

108010 @ 각제기, 각짓불 허는 거.(등잔, 등잔불 하는 거.)

108010 #2 옛날에 각제깃불, 각제깃불 싸낫주게.(옛날에 등잔불, 등잔불 켰었지.)

108010 #1 각제깃불이이.(등잔불이.)

108010 @ 예.(예.)

108010 #1 요디에서 지둥을 이렇게 세와.(여기에서 기둥을 이렇게 세워.)

108010 @ 예.(예.)

108010 #1 요기 요디 저 돌이 이렇게 잇어.(요기 요디 저 돌이 이렇게 있어.)

108010 @ 돌 이렇게.(돌 이렇게.)

108010 #1 게믄 그 우의 각제기 놘 불 싸낫주.(그러면 그 위에 등잔 놔서 불 켰었지.)

108010 #4 각제기 몰라?(등잔 몰라?)

---

439) '줄방석'은 지붕을 동여맬 때 쓰다 남은 줄을 이용하여 만든 방석이다.

440) '줄께'는 지붕을 동여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줄 가운데 일부분을 말한다. '께'는 표준어 '매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108010 #2 각제기.(등잔.)
108010 #1 지름각제기.(기름등잔.)
108010 @ 지름각제기.(기름등잔.)
108010 #2 지금도 어디 거 실 거라.(지금도 어디 거 있을 거야.)
108010 #1 석유각제기[441] 막 박물관에 가민 잇어.('석유등잔' 막 박물관에 가면 있어.)
108010 #2 박물관에.(박물관에.)
108010 @ 어.(어.)
108010 #2 영 영 저 지둥 닮은 거 세우고 앚은 아래 납작허고 영 놔근에 이디 각제기.(이렇게 이렇게 저 기둥 같은 거 세우고 앉은 아래 납작하고 이렇게 놔서 여기 등잔.)
108010 #1 각제기불 잇어게.(등잔불 있어.)
108010 #2 각제기 헨 불 싸는 거?(등잔 해서 불 켜는 거?)
108010 #4 석유.(석유.)
108010 @ 예, 예. 삼춘네도 잇수가?(예, 예. 삼촌네도 있습니까?)
108010 #2 아이, 엿날 잇어낫주만은.(아니, 옛날 있었었지만은.)
108010 #1 우리도 엇주만은 우리도 그거 싸낫젠 말이주게.(우리도 없지만 우리도 그거 켰었다는 말이지.)
108010 @ 게난 각젯기불예. 여기서는 각제깃불엔 허는 거라, 그거를예. 어어.(그러니까 등잔불요. 여기서는 등잔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요. 어어.)
108010 #1 방에 싸는 건 등피.(방에 켜는 건 남포.)
108010 @ 방에 거는 등피.(방에 거는 남포.)
108010 #1 응, 등피에 헌 건 영.(응, 남포에 한 건 이렇게.)
108010 @ 영 뭰 거예?(이렇게 된 거요?)
108010 #1 응, 맞아. 맞아.(응, 맞아. 맞아.)
108010 @ 영 뭰 거예? 예.(이렇게 된 거요? 예.)
108010 #2 등피는 현대 난에 등피가 나왓주. 옛날 완전은 그 각제기.(남포는 현대 나서 남포가 나왔지. 옛날 완전은 그 등잔.)
108010 @ 삼춘네도 지름불도 싸봅디가?(삼촌네도 기름불도 켜봅디까?)
108010 #1 지름불은 이 석유가 떨어질 때 지름불 쌋주게.(기름불은 이 석유가 떨어질 때 기름불 켰었지.)
108010 @ 영 헹은에 씰 헤갖고.(이렇게 해서 실 해갖고.)
108010 #1 씰 헤근에 영 접시에 놩 지름 비와근에 불 싼.(실 해서 이렇게 접시에 넣어서 기름 부어서 불 켜서.)
108010 @ 아, 그것도 싸봔예?(아, 그것도 켜봤다고요?)
108010 #1 아, 제ᄉᆞ 때에. 제ᄉᆞ 때에도 뭐인가.(아, 제사 때에. 제사 때에도 뭐인

441) '석유각제기'는 석유를 넣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등잔을 말한다.

가.)

108010 #2 초 엇인 때 그거 헤난.(초 없을 때 그거 했었어.)

108010 #1 초 엇인 때 기름 놔근에 이디 영 저 종이로 심지 멘들앙 영 세와근에 불 켜주.(초 없을 때 기름 넣어서 여기 이렇게 저 종이로 심지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불 켜지.)

108010 @ 아, 제사 때도 그런 식으로 헤낫어마씨.(아, 제사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108010 #1 제사 때도 경헤낫주.(제사 때도 그렇게 했었지.)

108010 @ 아아.(아아.)

108010 #4 옛날이사 살멍말멍.(옛날이야 살며말며.)

108010 #2 완전 옛날식.(완전 옛날식.)

108010 #4 웃음.(웃음.)

108010 @ 게도 삼춘예, 그런 옛날부터 지금 현대까지 잘살지, 잘살지 아념수과?(그래도 삼촌요, 그런 옛날부터 지금 현대까지 잘살지, 잘살지 않고 있습니까?)

108010 #1 선, 선, 선셍은 팔자 좋은 걸로 생각허여. 우리 그.(선, 선, 선생은 팔자 좋은 걸로 생각해. 우리 그.)

108010 @ 웃음.(웃음.)

108010 #2 우리 대에 나난, 우리 대에 나난 제사 때 지름불 안 싸봣져게.(우리 대에 되니까, 우리 대에 되니까 제사 때 기름불 안 켜봤지.)

108010 @ 으. 어렷을 때.(으. 어렸을 때.)

108010 #1 옛날 헤난 걸 곧는 말이엔 헙주.(옛날 했던 걸 말하는 말이라고 합죠.)

108010 @ 예, 이런 거 봐나긴 헌 거 아니라예?(예, 이런 거 봤었긴 한 거 아닌가요?)

108010 #2 으.(으.)

108010 @ 봐난 거 아니? 다.(봤던 거 아니? 다.)

108010 #2 으?(으?)

108010 @ 이거 다 봐, 그렇게 지름불 싼 것도 다?(이거 다 봐, 그렇게 기름불 켠 것도 다?)

108010 #2 으, 우리 봐난 거.(으, 우리 봤던 거.)

108010 @ 삼춘네 다 봐난 거?(삼촌네 다 봤던 거?)

108010 #1 우리, 우리 역은 후제꾸지 지름불 쌋젠 허난. 우리 각제기, 등핏불도 싼 살안.(우리, 우리 성장한 후에까지 기름불 켰다고 하니까. 우리 등잔, 남폿불도 켜서 살았어.)

108010 #4 몰람주. 시방은 오십 안 뒌 거 닮은게.(모르고 있지. 시방은 오십 안 된 거 같은데.)

108010 @ 예.(예.)

108010 #1 누게?(누구?)

108010 @ 안뒀수다게.(안됐습니다.)

108010 #2 각제기가 무신거여 등핏불이.(등잔이 무엇이다 남폿불이.)

108010 #4 몰라.(몰라.)

108010 @ 자, 게믄예, 그 삼춘 그거는 그 정도 이제 하고. 예전에 이제 방에 이제 우리 큰방에, 큰방에 놓는 거는 시렁허고 또 다른 거 논 거 잇수가?(자, 그러면요, 그 삼촌 그거는 그 정도 이제 하고. 예전에 이제 방에 이제 우리 큰방에, 큰방에 놓는 거는 벽장하고 또 다른 거 놓은 거 있습니까?)

108010 #1 시렁 우의 궤벳긔 논 거 엇주게.(벽장 위에 궤밖에 논 거 없지.)

108010 @ 궤벳긔 엇어예? 따른 것들은 이제 하나도?(궤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도?)

108010 #1 그자 잘사는 집인 궤 두 개 놓곡 못사는 사름은 ᄒᆞ나 놓곡 그자 그거주, 무신. 그 우의 그자 이불도 놓곡.(그저 잘사는 집엔 궤 두 개 놓고 못사는 사람은 하나 놓고 그저 그거지, 무슨. 그 위에 그저 이불도 놓고.)

108010 @ 예.(예.)

108010 #2 원 엇인 사름도 잇고.(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108010 @ 옛날에 이거 없이 이불 헤근에 이불상 헨에 이불도 영 올려놔봅디가?(옛날에 이거 없이 이불 해서 '이불상' 해서 이불도 이렇게 올려놔봅디까?)

108010 #1 아 이불상[442][쌍]엔 헌 건 엇고 시렁.(아 '이불상'이라고 한 건 없고 벽장.)

108010 #4 무사 이불상도 잇주게.(왜 '이불상'도 있지.)

108010 #1 이불상은 중간에사 낫주. 옛날은 엇엇어. 무신 혀뜩헌 소리 허지마라.('이불상'은 중간에야 났지. 옛날은 없었어.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마라.)

108010 #2 옛날은 엇엇어.(옛날은 없었어.)

108010 #4 웃음.(웃음.)

108010 @ 엇엇어.(없었어.)

108010 #1 엇어. 알도 못허멍 그자 무신거 허멍. 옛날 게난 시렁 우의.(없어. 알도 못하면서 그저 무엇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벽장 위에.)

108010 #2 게난 시렁엔 헌 게 그런 거 놓는 거가 시렁.(그러니까 벽장이라고 한 게 그런 거 놓는 것이 벽장.)

108010 #1 궤 읏인 사름은 시렁 우의 그자 이불도 개엉 놓곡 헷주.(궤 없는 사람은 벽장 위에 그저 이불도 개어서 놓고 했지.)

108010 @ 예, 옛날은예. 알앗수다. 이불상은 후제 난 거.(예, 옛날은요. 알았습니다. '이불상'은 후에 난 거.)

108010 #1 어, 중간에사 낫주. 이불상 무신 혀뜩헌 소리.(어, 중간에야 났지. '이불상' 무슨 이상한 소리.)

442) '이불상'은 이불을 올려놓는 용도로 쓰는 상을 말한다.

108010 @ 알앗수다. 삼춘, 이젠 이렇게 뒛잖아. 이제야 다 보일러 옛날 집 허게 뒈면 굴묵은 여기 어디 논 거우꽈?(알았습니다. 삼촌, 이젠 이렇게 됐잖아. 이제야 다 보일러 옛날 집 하게 되면 '굴묵'은 여기 어디 논 겁니까?)

108010 #1 일로.(일로.)

108010 @ 큰방?(큰방?)

108010 #1 큰방 두이로. 아니, 방마다 이 이것이 벡이면.(큰방 뒤로. 아니, 방마다 이 이것이 벽이면.)

108010 @ 예.(예.)

108010 #1 돌담벡[443]이면 이 돌담벡 안으로 시렁을 만들엇잖아이.('돌담벽'이면 이 '돌담벽' 안으로 벽장을 만들었잖아.)

108010 @ 예.(예.)

108010 #1 게민 이 사이가 굴묵[444]이 뒈는 거라.(그러면 이 사이가 '굴묵'이 되는 거야.)

108010 @ 아, 시렁 만든 그 사이가. 아.(아, 벽장 만든 그 사이가. 아.)

108010 #1 일로 와서 들어와서 굴묵 짇고.(일로 와서 들어와서 '굴묵' 때고.)

108010 @ 이렇게 허면 이 이 사이로 이렇게 그 시렁 헐 때예?(이렇게 하면 이 이 사이로 이렇게 그 벽장 할 때요?)

108010 #1 방마다 그렇게 헷주.(방마다 그렇게 했지.)

108010 @ 아, 그걸 굴묵.(아, 그걸 '굴묵'.)

108010 #1 굴묵.('굴묵'.)

108010 @ 굴묵 짇젠 허면은 이렇게 허는 거 뭐우과?('굴묵' 때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108010 #1 근은대.(고무래.)

108010 @ 근은대. 근은, 근은대는 게믄 흔 집에 으라 개가 잇겟네. 굴묵마다 잇이믄.(고무래. 고무, 고무래는 그러면 한 집에 여러 개가 있겠네. '굴묵'마다 있으면.)

108010 #1 방마다 잇주.(방마다 있지.)

108010 #2 굴묵마다.('굴묵'마다.)

108010 @ 굴묵마다예?('굴묵'마다요?)

108010 #1 방마다, 방마다.(방마다, 방마다.)

108010 @ 아, 거는 근은대. 그다음 옛날에 날레 널 때 허는 거는 무신거렌 헤여?(아, 거는 고무래. 그다음 옛날에 '날레' 널 때 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해?)

108010 #1 것도.(것도.)

108010 #2 근은대.(고무래.)

108010 @ 으.(으.)

---

443) '돌담벽'은 돌담을 쌓아 만든 벽을 말한다.

444)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또는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10 #2 근은대. 영 날레[445] 젓는 근은대.(고무래. 이렇게 '날레' 젓는 고무래.)

108010 @ 예. 굴묵 짇는 거는?(예. '굴묵' 때는 거는?)

108010 #2 굴묵 짇는 것도 근은대에 골앗주게. 굴묵근은대[446] '날레 젓는 근은대'[447].('굴묵' 때는 것도 '근은대'라고 말했지. '굴묵근은대' '날레 젓는 근은대'.)

108010 #1 이게이.(이게.)

108010 @ 으.(으.)

108010 #1 굴묵 근는 거는 요렇게 헤서.('굴묵' 긁는 거는 요렇게 해서.)

108010 #2 네모만 닫고.(네모만 닫고.)

108010 #1 네모만 닫고.(네모만 닫고.)

108010 @ 예.(예.)

108010 #1 날레 젓는 거는 요렇게 네모난 디서 이디서 톱니 모냥으로 요렇게 생겻어.('날레' 젓는 거는 요렇게 네모난 데서 여디서 톱니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어.)

108010 #2 골 쳐젼.(골 쳐졌어.)

108010 #1 이렇게 허니까 다 근은댄 근은댄디 이거는 이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게 일로 곡석이 새어 나가나면서 골로로 허꺼지라고 헤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이렇게 하니까 다 고무랜 고무랜데 이거는 이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게 일로 곡식이 새어 나가나면서 골고루 흩어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

108010 #2 젓어가민 골로로 강 널어지렌 허는 거.(저어가면 골고루 가서 널어지라고 하는 거.)

108010 @ 아아, 게믄 별도로 굴묵 허는 거는 굴묵근은대.(아아, 그러면 별도로 '굴묵' 하는 거는 '굴묵근은대'.)

108010 #2 굴묵근은대, 날렛근은대.('굴묵근은대', '날렛근은대'.)

108010 @ 아, 굴묵근은대, 날렛근은대.(아, '굴묵근은대', '날렛근은대'.)

108010 #1 그건 ᄀᆞ튼 거고. ᄀᆞ뜬 거고.(그건 같은 거고. 같은 거고.)

108010 @ 그다음 삼춘 웨 그 굴묵 짇게 뒈면 불씨 밖으로 나오지 못허게 밖에 영 돌 막지 아녑니까예?(그다음 삼촌 왜 그 '굴묵' 때게 되면 불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밖에 이렇게 돌 막지 않습니까요?)

108010 #1 으.(으.)

108010 @ 그 돌 막는 것도 이름 잇수과?(그 돌 막는 것도 이름 있습니까?)

108010 #1 돌 막는 디도 잇고 안 막는 디도 잇는디 우린 돌 막아보진 아녀고.(돌 막는 데도 있고 안 막는 데도 있는데 우린 돌 막아보진 않고.)

---

445) '날레'는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446) '굴묵근은대'는 '굴묵'을 때기 위해서 아궁이에 땔감을 집어넣거나 아궁이의 재를 꺼낼 때 사용하는 고무래를 말한다. 앞의 네모난 나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447) '날레 젓는 근은대'는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은 곡식을 젓거나 그러모을 때 사용하는 고무래다. 앞의 나무 부분을 톱니 모양으로 만들었다. 제보자는 달리 '날렛근은대'라고 하였다.

108010 @ 게민 어떻게 허여?(그러면 어떻게 해?)

108010 #1 이게.(이게.)

108010 @ 예.(예.)

108010 #1 이게 그 굴묵이 방 놀 때에.(이게 그 '굴묵'이 방 놓을 때에.)

108010 @ 예.(예.)

108010 #1 여기서 저 저레 돌을 흔 십 전 나가게 놔.(여기서 저 저리로 돌을 한 십 전 나가게 놔.)

108010 @ 응.(응.)

108010 #1 이 안으로 집어놩 불 부찐 거는 이상이 엇주게.(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불 붙인 거는 이상이 없지.)

108010 @ 아, 절대 나가진 않고.(아, 절대 나가진 않고.)

108010 #1 게난 막는 사름덜은 이거를 나가지 아녀게 허는 따문에 이딜 막는 거라. 우린 이 정의[448]는 이게 굴묵 나가게 허민 이디 돌이 구둘돌이 이렇게 길게 나가주게.(그러니까 막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가지 않게 하는 때문에 여길 막는 거야. 우린 이 '정의'는 이게 '굴묵' 나가게 하면 여기 돌이 구들돌이 이렇게 길게 나가지.)

108010 @ 아, 게민 이 정의 집 짓는 거 허고 저기 우리 서촌 짓는 거 허고?(아, 그러면 이 '정의' 집 짓는 거 하고 저기 우리 서촌 짓는 거 하고?)

108010 #1 틀려, 틀려.(달라, 달라.)

108010 @ 거는 뚜난 거구나예.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구들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굴묵 쪽에는 무신거 헙니까?(거는 다른 거군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방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굴묵' 쪽에는 무엇 합니까?)

108010 #1 뭘?(뭘?)

108010 @ 안, 구들 아래를 뭐렌 헤? 뭐 아랫목이여 웃목이여 허는 거.(안, 방 아래를 뭐라고 해? 뭐 아랫목이다 윗목이다 하는 거.)

108010 #1 이디.(여기.)

108010 @ 예.(예.)

108010 #1 이딘 뭐 아랫목 웃목 그런 말은 들어보질 못허고.(여긴 뭐 아랫목 윗목 그런 말은 들어보질 못하고.)

108010 #2 아랫목 웃목 허는 건 뚜슨 디* 안자리 밧자리를 말허는 거고.(아랫목 윗목 하는 건 따뜻한 데* '안자리' '밧자리'를 말하는 거고.)

108010 #1 안자리 밧자리. 이딘 이디 안자리 이디는 밧자리.(아랫목 윗목. 여긴 '안자리' 여기는 윗목.)

108010 @ 아, 우리는 아랫목 아니고 안자리 밧자리.(아, 우리는 아랫목 아니고 '안자리' '밧자리'.)

108010 #2 아랫목은 안자리.(아랫목은 '안자리'.)

448) '정의'는 조선시대 삼읍의 하나인 '정의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108010 @ 예.(예.)

108010 #1 게여낫자 무신 아랫목이여 윗목이여 안 헤보고. 이딘 안자리 밧자리.(그랬어도 무슨 아랫목이다 윗목이다 안 해보고. 여기 '안자리' '밧자리'.)

108010 #2 손님이라도 오민 안트레 앚이라.(손님이라도 오면 안으로 앉아라.)

108010 #1 안자리 앚입서, 영허영.(아랫목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108010 #4 굴묵은 절로 갈 거난.('굴묵'은 절로 갈 거니까.)

108010 @ 예, 옛날엔예. 예, 예. 안자리 밧자리.(예, 옛날엔요. 예, 예. '안자리' '밧자리'.)

108010 #2 뚯뚯헌 디레 앚이렌 말로 안목[449]이주게.(따뜻한 데로 앉으라는 말로 '안목'이지.)

108010 @ 거고 삼춘 이제 보면, 이제 집을 영 지엇잖아, 아까예.(그러고 삼촌 이제 보면, 이제 집을 이렇게 지었잖아, 아까요.)

108010 #1 으.(으.)

108010 @ 그러면 이 문들을 돌아얄 거 아니우꽈예? 여기에 이렇게 헌 거는 아까 무슨 문?(그러면 이 문들을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한 거는 아까 무슨 문?)

108010 #1 대문.(마루문.)

108010 @ 대문. 그다음에 여기는 무신 문이우과?(마루문.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문입니까?)

108010 #4 뒷문.(뒷문.)

108010 #1 아니, 아니. 이 방에는 옛날은 반창이 없었어.(아니, 아니. 이 방에는 옛날은 반창이 없었어.)

108010 @ 아, 옛날은 반창이 엇고.(아, 옛날은 반창이 없고.)

108010 #1 지금은 반창이 이렇게 잇는디.(지금은 반창이 이렇게 있는데.)

108010 @ 예, 예.(예, 예.)

108010 #1 옛날은 이 반창이 엇어.(옛날은 이 반창이 없어.)

108010 @ 예, 전부 이런 거?(예, 전부 이런 거?)

108010 #1 으. 삼방으로 들어왕 이디 영 문벳긔.(으. 대청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문밖에.)

108010 @ 아, 이 문은 엇엇수가? 옛날엔. 이 문은 무슨 문?(아, 이 문은 없었습니까? 옛날엔. 이 문은 무슨 문?)

108010 #1 어디?(어디?)

108010 @ 여기.(여기.)

108010 #1 여기는 마루로 들어왕 이렇게 방에 들어왓지.(여기는 마루로 들어와서 이렇게 방에 들어왔지.)

108010 @ 예.(예.)

---

449) '안목'은 안쪽 자리라는 뜻이다. 달리 '안자리'라고 한다. 표준어 '아랫목'에 해당하는 말이다.

108010 #1 이, 이디는 옛날도 방이.(이, 여기는 옛날도 방이.)

108010 #2 샛문.(샛문.)

108010 #1 이디 게난 창곰[450]식으로 쪼끄만허게 요렇게 헷지 문이 없엇어.(여기 그러니까 '창곰'식으로 조그맣게 요렇게 했지 문이 없었어.)

108010 #2 젤 먼저 들어오는 건 큰대문[451].(젤 먼저 들어오는 건 '큰대문'.)

108010 @ 예.(예.)

108010 #1 대문.(마루문.)

108010 @ 큰대문.('큰대문'.)

108010 #1 이건 후문.(이건 후문.)

108010 @ 여기는 뒷문.(여기는 뒷문.)

108010 #1 뒷문.(뒷문.)

108010 #4 성님네 집도 족은대문[452] 잇수가?(형님네 집도 '작은대문' 있습니까?)

108010 @ 지겟문은 어디우과?(지게문은 어딥니까?)

108010 #1 어?(어?)

108010 @ 지겟문?(지게문?)

108010 #1 지겟문은 이디 ᄃᆞ는 거.(지게문은 여기 다는 거.)

108010 @ 아.(아.)

108010 #4 성 안넨.(성 안엔.)

108010 #1 삼방으로 방드레 들어온 게 지게문.(대청으로 방으로 들어온 게 지게문.)

108010 @ 아, 게믄 이 여기 ᄃᆞ는 게 지게문예. 으, 상방에서 방으로 오는 게 지게문. 이쪽도 게민 지게문이우과?(아, 그러면 이 여기 다는 게 지게문요. 으, 대청에서 방으로 오는 게 지게문. 이쪽도 그러면 지게문입니까?)

108010 #1 이디.(여기.)

108010 @ 그 삼간집 헐 때 게믄 지게문을 멧 개 ᄃᆞ는 거?(그 삼간집 할 때 그러면 지게문을 몇 개 다는 거?)

108010 #1 이디 두 개.(여기 두 개.)

108010 #2 방마다.(방마다.)

108010 @ 아, 방마다 ᄃᆞ는 거. 삼방 부튼 거는 지게문. 그 다음에 아까 창곰.(아, 방마다 다는 거. 대청 붙은 거는 지게문. 그다음에 아까 '창곰'.)

108010 #1 아, 이디 이디.(아, 여기 여기.)

108010 @ 예.(예.)

108010 #1 이디 방문이 잇엇네.(여기 방문이 있었네.)

---

450) '창곰'은 안을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

451) '큰대문'은 마당에서 마루로 들어오는 쪽에 단 마루문 가운데 큰 문을 말한다.

452) '족은대문'은 마당에서 마루로 들어오는 쪽에 단 마루문 가운데 작은 문을 말한다. '큰대문' 옆에 단다. 지역에 따라서 '호령문'이라고도 한다.

108010 @ 방문 잇엇어예?(방문 있었어요?)

108010 #1 이디 밀장이라고 헤서.(여기 밀장이라고 해서.)

108010 @ 밀장.(밀장.)

108010 #2 것가 창문이 뭘 거주. 무뚱에 문이 창문. 이런 문이 창.(것이 창문이 될 거지. '무뚱'에 문이 창문. 이런 문이 창.)

108010 #1 이 가꼬[453]를 지게문 닮지 아녕 문 가꼬를 크게 헨에 둘아근에 크게 밀장두께비엔 헌 집이 잇어낫어. 밀장두께비[454].(이 모양을 지게문 같지 않아서 문 모양을 크게 해서 달아서 크게 '밀장두께비'라고 한 집이 있었었어. '밀장두께비'.)

108010 @ 밀장두께비마씨?('밀장두께비'요?)

108010 #1 으.(으.)

108010 @ 삼춘, 밀장두께비가 어떤 역할을 허는 거?(삼촌, '밀장두께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108010 #2 두께비.(뚜껑.)

108010 #1 이렇게. 나 말 들어봐이.(이렇게. 내 말 들어봐.)

108010 @ 예.(예.)

108010 #1 밀장 이렇게 잇잖아이.(밀장 이렇게 있잖아.)

108010 @ 예.(예.)

108010 #1 게민 일로 쥐가 들어올 수 잇어이.(그러면 일로 쥐가 들어올 수 있어.)

108010 @ 예.(예.)

108010 #1 그러니까 일로 두께비[455] 허영 이렇게 막아버리면 쥐가 방드레 못 들어오게 헤서.(그러니까 일로 '두께비' 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쥐가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108010 #2 쥐도 허고, 비 온 때도 비 막음 뒈고.(쥐도 하고, 비 올 때도 비 막음 되고.)

108010 @ 게믄 그 밀장은 이 대문처럼 이제 문을 둘안?(그러면 그 밀장은 이 마루문처럼 이제 문을 달아서?)

108010 #1 즉 말허민 이거주게.(즉 말하면 이거지.)

108010 @ 예.(예.)

108010 #1 이 문 잇잖아이.(이 문 잇잖아.)

108010 @ 예.(예.)

108010 #1 이거 밖에 문 잇고 안에 문 잇잖아.(이거 밖에 문 있고 안에 문 있잖아.)

108010 @ 예.(예.)

---

453) '가꼬'는 '모양'의 의미인 일본어 '가꼬(かっこう)'에서 온 말이다.

454) '밀장두께비'는 밀장을 집어넣는 뚜껑을 말한다.

455) '두께비'는 밀장이 안으로 감춰지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제보자는 달리 '두께비집'이라고도 하였다. '두께비'는 '뚜껑'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08010 #1 벳깃문은 밀장이고 안네는 요것이 두께비집[456]이라 이거여.(바깥문은 밀장이고 안에는 요것이 '두께비집'이다 이거야.)

108010 @ 아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다.(아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8010 #1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들으믄 맞어.(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맞아.)

108010 @ 예. 그디 강 이제 앚입서.(예. 거기 가서 이제 앉으세요.)

108010 #2 밀장 받쳐지는 거. 안으로 받쳐지는 거.(밀장 받쳐지는 거. 안으로 받쳐지는 거.)

108010 @ 음.(음.)

108010 #1 밀장두께비엔 헌 게 시방 아지마니네 집의 밀장두께비 잇인 거 닮안게.('밀장두께비'라고 한 게 시방 아주머니네 집의 '밀장두께비' 있는 거 같던데.)

108010 @ 아직도.(아직도.)

108010 #1 집이 잇어. 집이.(집에 있어. 집에.)

108010 @ 이땅 나중에 가면예 다음에 왕 사진 찍엉은에 딱 가야 뒈쿠다. 옛날에는 이제 그 방 앞에 족은방 앞에.(이따가 나중에 가면요 다음에 와서 사진 찍어서 딱 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방 앞에 작은방 앞에.)

108010 #1 으. 아니, 아니.(으. 아니, 아니.)

108010 #2 족은방도 큰방도 다.(작은방도 큰방도 다.)

108010 #1 큰방이나 족은방이나.(큰방이나 작은방이나.)

108010 @ 두 군데 다 밀장을 만든 거구나예? 게난 밀장은 이런 대문처럼 문을 든 것을.(두 군데 다 밀장을 만든 거군요? 그러니까 밀장은 이런 마루문처럼 문을 단 것을.)

108010 #1 지게문보다는 지게문은 쌀이 총총이 벡혀 잇는디.(지게문보다는 지게문은 살이 총총히 박혀 있는데.)

108010 @ 예.(예.)

108010 #1 이 저 밀장은 쌀이.(이 저 밀장은 살이.)

108010 @ 듬성듬성.(듬성듬성.)

108010 #1 간격이 넓어.(간격이 넓어.)

108010 @ 아아.(아아.)

108010 #2 그 밀장엔 허는 건.(그 밀장이라고 하는 건.)

108010 @ 으.(으.)

108010 #2 즉 말허민 시방 이런 문을 널문을 더꺼분 거 아니?(즉 말하면 시방 이런 문을 널문을 덮어버린 거 아니?)

108010 @ 예.(예.)

108010 #1 더꺼부난 킁킘허난 밀장 들아가지고 영 칸을 넓게 헤근에 종이로 불

456) '두께비집'은 밀장이 안으로 감춰지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랑 ᄃᆞ난에 ᄒᆞ꼼 씨원허렌 그걸 든 거.(덮어버리니까 캄캄하니까 밀장 달아가지고 이렇게 칸을 넓게 해서 종이로 발라서 다니까 조금 시원하라고 그걸 단 거.)

108010 @ 아아, 밖으로는 널문 ᄃᆞᆯ앙 있으니까.(아아, 밖으로는 널문 달아서 있으니까.)

108010 #2 으.(으.)

108010 @ 안에는. 게믄 안에 게 두꺼비.(안에는. 그러면 안에 게 '두꺼비'.)

108010 #1 안에 거는 종이로 ᄇᆞᆯ라 잇주게.(안에 거는 종이로 발라 있지.)

108010 @ 그게 밀장두께비렌 허는 거 그게.(그게 '밀장두께비'라고 하는 거 그게.)

108010 #1 아니, 밀장도 종이로 ᄇᆞᆯ라.(아니, 밀장도 종이로 발라.)

108010 @ 밀장도 종이로 ᄇᆞᆯ르고.(밀장도 종이로 바르고.)

108010 #2 두께비 만약이 밀장이 안트레 털어지지 말라허기 위헤서 요렇게 ᄃᆞᆯ고 요렇게 ᄃᆞᆯ고 요 벳겻듸 널문 세 가지로 뒈여낫주게.('두께비' 만약에 밀장이 안으로 떨어지지 말라 하기 위해서 요렇게 달고 요렇게 달고 요 바깥에 널문 세 가지로 되었었지.)

108010 @ 세 가지로 뒈는 거. 게믄 그 사이를 막는 거를 두께비렌.(세 가지로 되는 거. 그러면 그 사이를 막는 거를 '두께비'라고.)

108010 #1 게난 여기도.(그러니까 여기도.)

108010 @ 예.(예.)

108010 #1 여기도 지게문을 ᄃᆞᆯ아낫어이.(여기도 지게문을 달았었어.)

108010 @ 지게문 ᄃᆞᆯ고.(지게문 달고.)

108010 #1 이거는 태풍이 부난 바람이 막 심헐 때는 요 저 지게문을 걷어버리고.(이거는 태풍이 부니까 바람이 아주 심할 때는 요 저 지게문을 걷어버리고.)

108010 @ 예.(예.)

108010 #1 경 아녈 때 창문만 닫앙 자곡 이렇게 헤낫주. 게난 이거는 막 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요 지게문을 닫앙.(그렇게 않을 때 창문만 닫아서 자고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요 지게문을 닫아서.)

108010 @ 것도 우리 대문처럼 달앙. 양쪽 널문으로?(것도 우리 마루문처럼 달아서. 양쪽 널문으로?)

108010 #1 비가 빗물이라도 이레 오지 말렌 헨에 거 ᄃᆞᆯ아낫주.(비가 빗물이라도 이리로 오지 말라고 해서 거 달았었지.)

108010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0 #2 대문이나 ᄀᆞ뜬 거.(마루문이나 같은 거.)

108010 @ 예, 예. 옛날에는 다 여닫이로 헤갖고예?(예, 예. 옛날에는 다 여닫이로 해갖고요?)

108010 #1 요디는 널로 만드는 건디 요기는 쌀로 만든 거야.(요기는 널로 만드

는 건데 요기는 살로 만든 거야.)

108010 @ 아, 지게문은 쌀로 만들고?(아, 지게문은 살로 만들고?)

108010 #1 요디 지게문 모냥으로 쌀로 만든 거라.(요기 지게문 모양으로 살로 만든 거야.)

108010 @ 예. 바깥에만 널로 지게문을 이제 만든 거라, 하나 더.(예. 바깥에만 널로 지게문을 이제 만든 거야, 하나 더.)

108010 #1 여기도 지게문은 종이로 볼라낫주. 종이로.(여기도 지게문은 종이로 발랐었지. 종이로.)

108010 @ 예, 예, 예. 평소에는 열었다가예?(예, 예, 예. 평소에는 열었다가요?)

108010 #2 지금 우리 사는 데도 문 종이로만 볼란 살암주게.(지금 우리 사는 데도 몽땅 종이로만 발라서 살고 있지.)

108010 @ 예. 거난 삼촌네 집도 가야커라.(예. 그러니까 삼촌네 집도 가야겠어.)

108010 #1 종이로 볼른 게 맞수다.(종이로 바른 게 맞습니다.)

108010 #2 아 이네 설명 들으민 뒈여. 우리 집 올 필요 엇어.(아 이네 설명 들으면 되어. 우리 집 올 필요 없어.)

108010 @ 이 집은 옛날 집 아니라부난. 그 다음엔예. 여기도 혹시 이 마루에 헤갖고 옛날에 여기 뭐 돌화리 같은 거 박고 헤나수가?(이 집은 옛날 집 아니어버리니까. 그 다음엔요. 여기도 혹시 이 마루에 해갖고 옛날에 여기 뭐 돌화로 같은 거 박고 했었습니까?)

108010 #1 부섭[457].('부섭'.)

108010 @ 부섭.('부섭'.)

108010 #2 거 막 잘사는 집이 허는 거.(거 막 잘사는 집에 하는 거.)

108010 #1 그거는.(그거는.)

108010 #2 잘사는 집 부제칩이라야.(잘사는 집 부잣집이어야.)

108010 #1 그거는 성읍리도 부섭 잇는 디가 멧 곤데 안 뒈여.(거는 성읍리도 '부섭'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어.)

108010 @ 아아.(아아.)

108010 #2 조 하르방[458]네 집이 튿어벼실 거라.(조 하르방네 집에 뜯어버렸을 거야.)

108010 #1 전인 잇입디다만은 몰르쿠다.(전엔 있습디다만 모르겠습니다.)

108010 #2 새 집 헌 후제 뜯어벼실 거라.(새 집 한 후에 뜯어버렸을 거야.)

108010 #1 새 집 이 집 수리허면서 거 뜯어벼신가 모르겟는디.(새 집 이 집 수리하면서 거 뜯어버렸는가 모르겠는데.)

---

457) '부섭'은 난방을 위하여 마루 뒤 쪽에 박아놓은 돌화로다. 예전에는 이 '부섭'을 이용하여 제사 때 고기를 구웠다.

458) 여기에서 '조 하르방'은 예전에 객주였던 '조일훈 가옥'을 일컫는 이름이다. '조일훈 가옥'은 1979년 1월 23일 중요민속자료 제68호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1월 23일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68호로 변경되었다.

108010 #2 엇어, 엇어. 시방 생각허난 엇인게.(없어, 없어. 시방 생각하니까 없는데.)

108010 #1 아니, 어. 이 보통 잘사는 집의는 부섭이라고 헤서.(아니, 어. 이 보통 잘사는 집에는 '부섭'이라고 해서.)

108010 @ 예.(예.)

108010 #1 그 마루에.(그 마루에.)

108010 @ 예.(예.)

108010 #1 요렇게 부섭을 벡여서 웨냐면 이디 불 살랑 겨울에도 이디 앚앙 뭐 멍석도 줄곡 멕도 줄곡 허는 사람 불 초기 위해서 그 부섭을 박아낫주게.(요렇게 '부섭'을 박아서 왜냐면 여기 불 살라서 겨울에도 여기 앉아서 뭐 멍석도 겯고 멱도 겯고 하는 사람 불 쬐기 위해서 그 '부섭'을 박았었지.)

108010 @ 아.(아.)

108010 #1 거 잘사는 집벳긔.(거 잘사는 집밖에.)

108010 @ 잘사는 집.(잘사는 집.)

108010 #2 잘사는 집만.(잘사는 집만.)

108010 #1 그 저 못사는 집은 아녓어.(그 저 못사는 집은 않았어.)

108010 @ 옛날에 송당을 갓을 때는 이 부섭을 정지에.(옛날에 송당을 갔을 때는 이 '부섭'을 부엌에.)

108010 #1 으, 정지에 헌 디도 잇어.(으, 부엌에 한 데도 있어.)

108010 @ 아, 정지에 헌 디도 잇어마씨?(아, 부엌에 한 데도 있어요?)

108010 #2 삼방 엇인 집이 이칸집[459]은 정지에 헷주게.(대청 없는 집에 '이간집'은 부엌에 했지.)

108010 #1 아니 삼방 잇어도 인필이 하르방네 저 성안에 살 땐 부억에 부섭을 박아낫수다.(아니 대청 있어도 인필이 할아버지네 저 성안에 살 땐 부엌에 '부섭'을 박았었습니다.)

108010 @ 음.(음.)

108010 #2 삼방 엇엇낫어?(대청 없었었어?)

108010 #1 삼방 잇어낫수다. 겐디 요디 성수 아방네 요디 살 때에도 부억에 부섭을 박아낫어.(대청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요기 성수 아버지네 요기 살 때에도 부엌에 '부섭'을 박았었어.)

108010 @ 음, 경허민 거기에서 옛날에 피 같은 거.(음,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옛날에 피 같은 거.)

108010 #1 고리[460].('고리'.)

108010 @ 고리에 헤갖고 물리고 헤낫덴 헙디다.('고리'에 해갖고 말리고 했었다고 합디다.)

---

459) '이칸집'은 칸이 두 개로 이루어진 집을 말한다.

460) '고리'는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어서 만든 그릇이다. 예전에 피 따위를 말릴 때 불을 사른 '부섭' 위에 젖은 피를 담은 고리를 매달아 놓으면 피가 말랐다.

108010 #1 고리.(‘고리’.)

108010 @ 이 성읍도 옛날 피 갈아낫잖아예?(이 성읍도 옛날 피 갈았었잖아요?)

108010 #1 피 아니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헨 물롸낫주.(피 아니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해서 말렸었지.)

108010 @ 아, 장마에 보리도 으음.(아, 장마에 보리도 으음.)

108010 #1 벳 안 나민 어떵 말이라.(볕 안 나면 어떻게 말이야.)

108010 @ 밑에 부섭 불 피왕 이제 물린 거. 게믄 부억에.(밑에 ‘부섭’ 불 피워서 이제 말린 거. 그러면 부엌에.)

108010 #1 이 책자에 고리가 나왓어.(이 책자에 ‘고리’가 나왔어.)

108010 @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쿠다.(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8010 #2 돌아메영은에 알로 불 살룬 거.(매달아서 아래로 불 사른 거.)

108009 @ 음. 그다음에 삼춘 그 고팡?(음. 그다음에 삼촌 그 고방?)

108009 #1 으.(으.)

108009 @ 고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거우꽈? 고팡은.(고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고방은.)

108009 #1 고팡은 이디 들어가민 이게 방이민 이게 저짝.(고방은 여기 들어가면 이게 방이면 이게 저쪽.)

108009 @ 옆에가.(옆에가.)

108009 #1 지금은 방인디 저게 고팡 뒈는 거주게.(지금은 방인데 저게 고방 되는 거지.)

108009 @ 고팡 뒈는 거잖아예. 게믄 고팡에 뭐, 뭐 놔?(고방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방에 뭐, 뭐 놔?)

108009 #1 쌀. 쌀.(쌀. 쌀.)

108009 #2 쌀독덜 놩 쌀 놓는 거.(쌀독들 놔서 쌀 놓는 거.)

108009 @ 쌀독은 주로 어떤 걸로 놔? 옛날에?(쌀독은 주로 어떤 걸로 놔? 옛날에?)

108009 #2 대정항[461]도 놓곡.(‘대정항’도 놓고.)

108009 #1 항.(항아리.)

108009 @ 항.(항아리.)

108009 #1 항으로 놧주.(항아리로 놨지.)

108009 #2 대정항이나 무시거니 옛날 이딧 항은?(‘대정항’이나 무엇이니 옛날 여기 항아리는?)

108009 #1 육짓항[462]덜도 놧고 이 지세항[463]도 놧곡. 지세항은 꺼먼 건디.(‘육

461) ‘대정항’은 대정 지역에서 만든 항아리를 칭하는 말이다. 육지에서 들어온 항아리는 달리 ‘육짓항’이라고 한다. ‘대정’은 조선시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삼읍 체제로 나눌 때 대정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462) ‘육짓항’은 육지, 즉 제주도 밖에서 들어온 항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463) ‘지세항’은 ‘지세’ 즉 ‘기와’와 같이 검은 빛을 띠는 항아리를 말한다. ‘검은굴’이라 불리는 가마에서 구워낸 항아리다.

짓항'들도 놨고 이 '지세항'도 놨고. '지세항'은 꺼먼 건데.)
108009 @ 예.(예.)
108009 #1 그거는 지세항에는 물이 놔도 변허질 아녀.(그거는 '지세항'에는 물이 놔도 변하질 않아.)
108009 @ 음.(음.)
108009 #1 그런 항에도 놧고.(그런 항아리에도 놨고.)
108009 #2 곡석.(곡식.)
108009 #1 곡석 놓는 게 그 옛날은 대개 항.(곡식 놓는 게 그 옛날은 대개 항아리.)
108009 @ 예.(예.)
108009 #1 간직헐 때 쥐 안 들기 위헤서는 간직헤 볼 게 거벳긴 엇거든.(간직할 때 쥐 안 들기 위해서는 간직해 볼 게 거밖엔 없거든.)
108009 @ 삼촌, 아까 쏠 간수허는 게 이제 항이렌 헷잖아예. 무사 마리에 놧던 마리에?(삼촌, 아까 쌀 간수하는 게 이제 항아리라고 했잖아요. 왜 마루에 놨던 마루에?)
108009 #1 두지.(뒤주.)
108009 @ 으, 두지.(으, 뒤주.)
108009 #1 두지도 잘사는 집벳긴 없엇어.(뒤주도 잘사는 집박엔 없었어.)
108009 #2 곡석 하영 허는 집.(곡식 많이 하는 집.)
108009 @ 곡석 하영 허는 집.(곡식 많이 하는 집.)
108009 #1 저기 성읍리도 조일훈이네 집의 가보민 지금 두지가 잇어.(저기 성읍리도 조일훈이네 집에 가보면 지금 뒤주가 있어.)
108009 @ 음.(음.)
108009 #2 시방 밧거리에 이신가?(시방 바깥채에 있는가?)
108009 #1 안거리에 이십디다. 안거리에.(안채에 있습디다. 안채에.)
108009 @ 음, 게민 두지를 놓면 곡석 놓는 거예. 보통 두지는 상방에 놧수가?(음, 그러면 뒤주를 놓으면 곡식 놓는 거요. 보통 뒤주는 대청에 놨습니까?)
108009 #1 삼방에 거의.(대청에 거의.)
108009 @ 건 삼방에 주로 놓는 거라예. 이제 삼방에 놓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 고팡은 문을 안 둘 거 아니우과? 들어가는 문만 둘앙. 지게문만 둘앙.(건 대청에 주로 놓는 거네요. 이제 대청에 놓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 고방은 문을 안 달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문만 달아서. 지게문만 달아서.)
108009 #1 아 뒷문 잇어. 쪼꼴락허영 크진 안허고.(아 뒷문 있어. 조그마해서 크진 안하고.)
108009 @ 아, 게믄 그 문은 무슨 문 헤?(아, 그러면 그 문은 무슨 문 해?)
108009 #1 거 이 반창 모냥으로.(거 이 반창 모양으로.)
108009 @ 예.(예.)

108009 #1 반창 식으로 허주게. 쪼끌락허게.(반창 식으로 하지. 조그맣게.)

108009 @ 예.(예.)

108009 #1 게 반창.(글쎄 반창.)

108009 @ 반창 식으로예, 창곰 같은 것도 냇수가?(반창 식으로요, '창곰' 같은 것도 냈습니까?)

108009 #1 창곰은 그걸 못헌 딘 창곰을 내주게.('창곰'은 그걸 못한 덴 '창곰'을 내지.)

108009 @ 아, 반창 못헌 디는 창곰을.(아, 반창 못한 데는 '창곰'을.)

108009 #1 창곰을 요렇게 헤서 겨울엔 뭐 지푸레기라도 막아불곡 여름엔 트고.('창곰'을 요렇게 해서 겨울엔 뭐 지푸라기라도 막아버리고 여름엔 트고.)

108009 #2 창구멍.(창구멍.)

108009 #1 으. 창구멍.(으. 창구멍.)

108009 @ 으.(으.)

108009 #1 건.(건.)

108009 @ 그 창구멍에는 비엿어예. 뭐를 막진 않고 겨울에만 이 ᄇᆞ름, 그거는 공기 통허렌 그거.(그 창구멍에는 비었지요. 뭐를 막진 않고 겨울에만 이 바람, 그거는 공기 통하라고 그거.)

108009 #1 공기도 통허곡 방에 들어가민 글로 헷빛 좀[쫌] 비치니깐 방이 밝아지주게.(공기도 통하고 방에 들어가면 글로 햇볕 좀 비추니깐 방이 밝아지지.)

108009 @ 옛날엔 등도 엇이난.(옛날엔 등도 없으니까.)

108009 #1 고팡이 붉아져. 경 아녀민 콩콤허난.(고방이 밝아져. 그렇게 않으면 캄캄하니까.)

108009 @ 이 성읍 같은 경우도 안칠성 헹은에 고팡신 헙니까?(이 성읍 같은 경우도 '안칠성' 해서 '고방신' 합니까?)

108009 #1 안칠성[464] 밧칠성[465].('안칠성' '밧칠성'.)

108009 #2 허는 집은 헤여. 허는 집은 허는디 아무 집의나 엇어.(하는 집은 해. 하는 집은 하는데 아무 집에나 없어.)

108009 @ 것도 허는 집만예? 안칠성하고 밧칠성은 무신거?(것도 하는 집만요? '안칠성'하고 '밧칠성'은 무엇?)

108009 #1 안칠성은.('안칠성'은.)

108009 #2 안칠성은 고팡지기[466].('안칠성'은 '고방지기'.)

108009 @ 예.(예.)

108009 #2 밧칠성은 베염당[467].('밧칠성'은 '베염당'.)

---

464) '안칠성'은 칠성신 중에 집 안 고방에 모시는 신이다.

465) '밧칠성'은 칠성신 중에 집 뒤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 신을 모시는 곳에 주저리를 씌워 둔다.

466) '고팡지기'는 '고팡' 즉, 고방을 지키는 신의 의미다.

467) '베염당'은 뱀을 숭상하는 당이라는 뜻으로, 구술의 "밧칠성은 베염당"이라는 내용을 보면, '밧칠성'의 주신은 '뱀신'임을 알 수 있다.

108009 #1 그거는 나가 설명을 드리겟는디이.(그거는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108009 @ 예.(예.)

108009 #1 아무 집이나 건 엇어.(아무 집이나 건 엇어.)

108009 #1 제ᄉᆞ 때에 여기는 문제[468][문쩨]라는 게 잇어이.(제사 때에 여기는 '문제'라는 게 있어.)

108009 @ 문제[문쩨].('문제'.)

108009 #1 제사 지내기 전에.(제사 지내기 전에.)

108009 @ 예.(예.)

108009 #1 삼방마루에서 이 대문을 향헤서 그 메 ᄒᆞ나를 놓곡.(대청마루에서 이 마루문을 향해서 그 메 하나를 놓고.)

108009 #2 건 모관[469]디레 아녀는가?(건 '모관'으로 않는가?)

108009 #1 건 아녀는 딘 안 헙니다.(건 않는 덴 안 합니다.)

108009 @ 안 허는 딘 안 허고 허는 딘 헤마씨?(안 하는 덴 안 하고 하는 덴 해요?)

108009 #2 문제 지내나민 제 지내여.('문제' 지내나면 제 지내어.)

108009 #4 멩호넨 **.(멩호넨 **)

108009 #1 문제를 지낸 다음에는 또 잡식을 허영 이게 또 어디 가는고 허니까 조왕제[470]라고 헤서이, 조왕에 그 솟 앚진 자리 부억.(문제를 지낸 다음에는 또 잡식을 해서 이게 또 어디 가는가 하니까 '조왕제'라고 해서, 조왕에 그 솥 건 자리 부엌.)

108009 @ 예, 솟덕에 강.(예, 봇돌에 가서.)

108009 #1 솟 앚진 디 가서 여기 쪼끔씩 뿌려이. 그게 조왕제를 문제 지낸 다음에 이 제를 가지고 조왕제를.(솥 건 데 가서 여기 조끔씩 뿌려. 그게 '조왕제'를 '문제' 지낸 다음에 이 제를 가지고 '조왕제'를.)

108009 @ 그다음에 안칠성은?(그다음에 '안칠성'은?)

108009 #1 안칠성은 아녀는 집인 아녀난 몰라.('안칠성'은 않는 집엔 안 하니까 몰라.)

108009 @ 삼춘네는 헤난?(삼촌네는 했었어요?)

108009 #1 우리는 아니.(우리는 아니.)

108009 @ 안칠성은 아까 삼춘 헌 거처럼 고팡지기?('안칠성'은 아까 삼촌 한 거처럼 '고방지기'?)

108009 #1 으.(으.)

108009 @ 그다음에 안칠성 하고, 그다음에도 여기 찻방 이런 거, 청방 그 부억으로 가는 데 헤근에 따로 이렇게 그 찬장 같은 거 노는 방도 만듭니까?(그다음에

468) '문제[문쩨]'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469) '모관'은 '목 안' 즉 '제주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주목은 조선시대 삼현 체제의 하나인 '제주목'을 '모관'이라고 하였다.

470) '조왕제'는 부엌 신을 위한 제이다.

‘안칠성’ 하고, 그다음에도 여기 찻방 이런 거, 청방 그 부엌으로 가는 데 해서 따로 이렇게 그 찬장 같은 거 놓는 방도 만듭니까?)

108009 #1 성읍린 난 구경 못헤 봔.(성읍린 난 구경 못해 봤어.)

108011 @ 그런 건 아녀보고예? 그다음에 삼춘, 이제 그 아까 이 문을 이렇게 돌앗잖아예?(그런 건 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삼촌, 이제 그 아까 이 문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108011 #1 으.(으.)

108011 @ 마루 이렇게 허면 이 문 돌젠 허면 여기 이 밑에 거를 뭐렌 해? 뭘 세워야 뭴 거 아니우과? 문 달젠 허면?(마루 이렇게 하면 이 문 달려고 하면 여기 이 밑에 거를 뭐라고 해? 뭘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문 달려고 하면?)

108011 #1 이렇게 가는 건 귀클.(이렇게 가는 건 귀틀.)

108011 @ 귀클.(귀틀.)

108011 #1 요렇게 세우는 건 벡선.(요렇게 세우는 건 벽선.)

108011 @ 세우, 세우는 거는 벡선. 우로 세우는 거 벡선.(세우, 세우는 거는 벽선. 위로 세우는 거 벽선.)

108011 #1 우로 세우는 건 벡선.(우로 세우는 건 벽선.)

108011 @ 벡선. 귀클하고 벡선예? 그다음 이 앞에 문 ᄃᆞ는 영 허는 거.(벽선. 귀틀하고 벽선요? 그다음 이 앞에 문 다는 이렇게 하는 거.)

108011 #1 이디도 이렇게 귀클 잇어. 이거.(여기도 이렇게 귀틀 있어. 이거.)

108011 @ 게믄 귀클이 저기 문지방 그런 거우과?(그러면 귀틀이 저기 문지방 그런 겁니까?)

108011 #2 문지방은 문 아래.(문지방은 문 아래.)

108011 #1 이 문이.(이 문이.)

108011 @ 예.(예.)

108011 #1 집이 여기 폿지둥[471]이 잇어이.(집이 여기 ‘폿지둥’이 있어.)

108011 @ 예.(예.)

108011 #1 네 귀에이.(네 귀에.)

108011 @ 예.(예.)

108011 #1 일로 이 새에 폿지둥 사이에 이렇게 귀클 허곡 이렇게 귀클 허곡 다 허주게, 영.(일로 이 새에 ‘폿지둥’ 사이에 이렇게 귀틀 하고 이렇게 귀틀 하고 다 하지, 이렇게.)

108011 @ 아, 그러면 이 밑으로 옆으로 헌 거는 귀클이고.(아, 그러면 이 밑으로 옆으로 한 거는 귀틀이고.)

108011 #1 으.(으.)

108011 @ 이 귀클 옆으로 헹은에 문 달 자리는.(이 귀틀 옆으로 해서 문 달 자리는.)

---

471) ‘폿지둥’은 보를 받쳐서 세운 기둥을 말한다.

108011 #1 요.(요.)
108011 @ 이건 뭐? 이거, 삼춘.(이건 뭐? 이거, 삼촌.)
108011 #1 문대방.(문지방.)
108011 @ 이 옆에 건?(이 옆에 건?)
108011 #1 거 문벽선.(거 벽선.)
108011 #4 것가 귀클게.(그것이 귀틀.)
108011 #1 문벽선.(벽선.)
108011 @ 이거 문벡선이고. 그 옆에 거는 귀클 뒈는 거예?(이거 벽선이고. 그 옆에 거는 귀틀 되는 거요?)
108011 #1 거 아래.(거 아래.)
108011 @ 아래 잇는 거.(아래 있는 거.)
108011 #1 아래 이렇게 간 건 귀클.(아래 이렇게 간 건 귀틀.)
108011 @ 귀클이고, 아아. 이거는 문벡선.(귀틀이고, 아아. 이거는 벽선.)
108011 #1 으.(으.)
108011 @ 여기는 문대방. 이제 우리.(여기는 문지방. 이제 우리.)
108011 #2 ** 하나도 모르켜.(** 하나도 모르겠어.)
108011 #1 몰르걸랑 ᄀᆞ만히 앚앙 들음만 헙서.(모르걸랑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
108008 @ 게 문대방 허는 거고. 삼춘 옛날 마리 놓젠 허면, 마리 놓젠 허면 어떤 식으로 놘?(게 문지방 하는 거고. 삼촌 옛날 마루 놓으려고 하면, 마루 놓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놘?)
108008 #1 마리귀클 놘.(마룻귀틀 놨어.)
108008 @ 마리귀클 놔갖고.(마룻귀틀 놔갖고.)
108008 #1 이거를.(이거를.)
108008 @ 예.(예.)
108008 #1 지금 이건 디이.(지금 이건 데.)
108008 @ 으.(으.)
108008 #1 이게 이게 마린디이.(이게 이게 마룬데.)
108008 @ 예.(예.)
108008 #1 귀클을 이렇게 허여.(귀틀을 이렇게 해.)
108008 @ 아, 가로로예, 예.(아, 가로로요, 예.)
108008 #1 한 팔십 전 뒈게.(한 팔십 전 되게.)
108008 @ 예.(예.)
108008 #1 귀클을 많이 허려면 위로 수평 봐단 우에 널로 마리 놓는 거.(귀틀을 많이 하려면 위로 수평 봐다가 위에 널로 마루 놓는 거.)
108008 @ 삼춘 널 노는 것도 종류가 ᄐᆞ나잖아.(삼촌 널 놓는 것도 종류가 다르잖아.)

108008 #1 아, 틀려.(아, 달라.)
108008 @ 옛날 건 무신 널 헙니까?(옛날 건 무슨 널 합니까?)
108008 #1 홈마리[472]엔 헌 게 잇어.('홈마루'라고 한 게 있어.)
108008 @ 홈마리?('홈마루'?)
108008 #1 홈마리엔 헌 거는 이 귀클허고 저 귀클 사이에만 놔.('홈마루'라고 한 거는 이 귀틀하고 저 귀틀 사이에만 놔.)
108008 @ 예.(예.)
108008 #1 게민 귀클, 귀클은 이렇게 나와.(그러면 귀틀, 귀틀은 이렇게 나와.)
108008 @ 예.(예.)
108008 #1 마리허곡 꼭같으게 보여.(마루하고 똑같게 보여.)
108008 @ 으.(으.)
108008 #1 그렇게 허영 놔 가는 게 홈마리엔 허주게.(그렇게 해서 놔 가는 게 '홈마루'라고 하지.)
108008 @ 홈마리. 그다음에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허는 게 홈마리로구나. 네모난 널로 노는 거?('홈마루'. 그다음에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하는 게 '홈마루'로구나. 네모난 널로 놓는 거?)
108008 #1 어, 게난 지금 아까 나가 설명헷잖아이.(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108008 @ 예.(예.)
108008 #1 이 저 귀클 이렇게 메운덴 허는 게.(이 저 귀틀 이렇게 메운다고 하는 게.)
108008 @ 예, 가로로.(예, 가로로.)
108008 #1 귀클을 보이게 허는 게 홈마리고.(귀틀을 보이게 하는 게 '홈마루'고.)
108008 @ 어, 귀클을 보이게 허는 게.(어, 귀틀을 보이게 하는 게.)
108008 #1 귀클을, 귀클을 못 바리게 허는 거는 이건 펭마리[473]라고 헤서 그냥 귀클 이렇게 메운 다음에 우에 널 깔아부는 거고.(귀틀을, 귀틀을 못 보게 하는 거는 이건 '평마루'라고 해서 그냥 귀틀 이렇게 메운 다음에 위에 널 깔아버리는 거고.)
108008 @ 아, 건 널마리우과? 그게.(아, 건 널마루입니까? 그게.)
108008 #1 펭마리.('펭마리'.)
108008 @ 펭마리. 아아, 평평하게 헌다고 헤서 펭마리. 그 보이는 옛날, 옛날 집 헌 게 홈마리.('펭마리'. 아아, 평평하게 한다고 해서 '펭마리'. 그 보이는 옛날, 옛날 집 한 게 '홈마루'.)
108008 #1 으.(으.)
108008 @ 길게 이렇게 허는 마리가 길게.(길게 이렇게 하는 마루가 길게.)

472) '홈마리'는 귀틀에 홈을 파서 널을 끼워 넣은 마루를 말한다.
473) '펭마리'는 귀틀을 보지 못하게 귀틀 위에 널을 깐 마루를 말한다. 제보자가 말하는 '펭마리'는 표준어 '널마리'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다.

108008 #1 그게 평마리엔 허니까.(그게 '평마리'라고 하니까.)

108008 @ 그게 평마리렌 허는 거.(그게 '평마리'라고 하는 거.)

108008 #1 널을 장으로 깔아불어 그냥.(널을 장으로 깔아버려 그냥.)

108008 @ 아, 그거는 평마리예?(아, 그거는 '평마리'요?)

108008 #1 게난 홈마리는 욜로 요 사이마다 다 널을 요 정도만 짤랑 욜로 요 사이 놓고, 요거는 귀클이민 귀클 우에서 보여.(그러니까 '홈마루'는 욜로 요 사이마다 다 널을 요 정도만 잘라서 욜로 요 사이 놓고, 요거는 귀틀이면 귀틀 위에서 보여.)

108011 @ 예, 예, 예. 알아지쿠다. 옛날 집들 보면은예. 그다음에 삼춘, 이제 문을 달젠 허면 아까 이제 대문을 달젠 허면 왜 이렇게? 삼춘, 녹음 뒈난 ᄒᆞ꼼만 조용혜 줍서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옛날 집들 보면은요. 그다음에 삼촌, 이제 문을 달려고 하면 아까 이제 마루문을 달려고 하면 왜 이렇게? 삼촌, 녹음 되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십시오?)

108011 #2 예.(예.)

108011 @ 웃음. 이렇게 문이 이제 고리에 달잖아예? 이렇게 셍기잖아예? 여기는 문대방에 윗문. 저 우에 거는 문대방 아니? 저 우에도예? 옛날 달 때. 여기 대문 달 때.(웃음. 이렇게 문이 이제 고리에 달잖아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는 문지방에 윗문. 저 위에 거는 문지방 아니? 저 위에도요? 옛날 달 때. 여기 마루문 달 때.)

108011 #1 으으.(으으.)

108011 @ 문이 이렇게 생겻수다. 이렇게 영 꼿이는 거잖아예? 게믄 이 부분은 뭐렌 헤? 여기 허면서 이렇게 헹은에 이렇게 헹은에 ᄃᆞᆯ아야 뒐 거 아니예?(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해?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달아야 될 거 아니예요?)

108011 #1 이거이.(이거.)

108011 @ 예.(예.)

108011 #1 주치, 아 이거 주치 뭐엔 헌다마는. 대문 ᄃᆞ는 그 영.(주추, 아 이거 주추 뭐라고 한다만. 마루문 다는 그 이렇게.)

108011 @ 게민 이렇게 헹은에 영 꼿을 거 아니라예. 이렇게 헤서 이렇게 하면.(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꼿을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08011 #1 쫄락허게 나온 게 잇어.(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

108011 @ 으.(으.)

108011 #4 도절귀.(돌쩌귀.)

108011 #1 아니, 아니. 도절귀엔 헌 건 쒜로 만든, 쒜로 만든 걸 도절귀엔 허고.(아니, 아니. 돌쩌귀라고 한 건 쇠로 만든, 쇠로 만든 걸 돌쩌귀라고 하고.)

108011 @ 예.(예.)

108011 #2 문, 문 저 영 문 ᄃᆞ는 거?(문, 문 저 이렇게 문 다는 거?)

108011 @ 예게.(예.)
108011 #2 문 ᄃᆞ는 거 고망 난 거.(문 다는 거 구멍 난 거.)
108011 @ 으.(으.)
108011 #1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8011 #2 문대방 아니?(문지방 아니?)
108011 #1 문대방이 말고. 문대방이 대문 영 허영.(문지방 말고. 문지방 마루문 이렇게 해서.)
108011 @ 꽂앙은에.(꽂아서.)
108011 #1 문을 쪼질락허게 멘들아사 찔릅네께. 영. 아래 거영.(문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찌릅니다. 이렇게. 아래 거랑.)
108011 #2 거 문에 부뜬 거난 뭣산디.(거 문에 붙은 거니까 무엇인지.)
108011 #1 그걸 나 잊어볏네.(그걸 나 잊어버렸네.)
108011 @ 이름 잇긴 잇어예?(이름 있긴 있지요?)
108011 #1 어, 이름 잇어.(어, 이름 있어.)
108011 @ 문대방에 영 고망 뚤르믄 찔르는 거.(문지방에 이렇게 구멍 뚫으면 찌르는 거.)
108011 #1 잇어.(있어.)
108011 #2 건 목시가 알지, 뭐.(건 목수가 알지, 뭐.)
108011 @ 문대방에 그다음에 여기 영 허여근에 허는 거예?(문지방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요?)
108011 #1 대문, 대문 ᄌᆞᆼ그는 거?(마루문, 마루문 잠그는 거?)
108011 @ 예.(예.)
108011 #1 문, 건 대문골[474][대문꼴]이엔 허여. 대문골.(문, 건 '마루문틀'이라고 해. '마루문틀'.)
(잡음)
108011 @ 대문골이.('마루문틀'.)
108011 #1 이걸 튼내짐직헌 디 튼내질 못허겟네. 아이고, 거 미릇 ᄀᆞᆯ아시민 목시안티 들어봉이라도 놔둘 건디.(이걸 생각날 듯한 데 생각하질 못하겠네. 아이고, 거 미리 말했으면 목수한테 들어봐서라도 놔둘 건데.)
108011 @ 아니, 오늘 말고 다른 때 들어봉 놔두믄 그때 ᄀᆞᆯ아주민 뒈지. 다음 올 때.(아니, 오늘 말고 다른 때 들어봐서 놔두면 그때 말해주면 되지. 다음 올 때.)
108011 #1 이건 대문골이가 맞아.(이건 '마루문틀'이 맞아.)
108011 @ 대문골이고예. 저기 돌쩌귀는 어디에 허는 거?('마루문틀'이고요. 저기 돌쩌귀는 어디에 하는 거?)
108011 #1 뭐?(뭐?)
108011 @ 돌철귀?(돌쩌귀?)

474) '대문골[대문꼴]'은 대문, 즉 마루문을 달 수 있게 만든 문틀이다.

108011 #1 돌철귀?(돌쩌귀?)

108011 @ 으. 돌철귀는 어디 ᄃᆞ는 거우과?(으. 돌쩌귀는 어디 다는 겁니까?)

108011 #2 도절귀?(돌쩌귀?)

108011 @ 응, 도절귀.(응, 돌쩌귀.)

108011 #1 도절귀는 이 저 무시거 지게문 ᄃᆞᆯ 때 도절귀가 필요헌 거지. 대문 ᄃᆞᆯ 때는 도절귀가 필요 없지.(돌쩌귀는 이 저 무엇 지게문 달 때 돌쩌귀가 필요한 거지. 마루문 달 때는 돌쩌귀가 필요 없지.)

108011 @ 지게문 할 때는 어디 다는 거우과? 지게문.(지게문 할 때는 어디 다는 겁니까? 지게문.)

108011 #2 방, 방.(방, 방.)

108011 #1 지게문 헐 때는 즉 말허민 이런 거라. 조방[475].(지게문 할 때는 즉 말하면 이런 거야. '조방'.)

108011 #2 도절귀?(돌쩌귀?)

108011 @ 으.(으.)

108011 #1 조방 식이라. 문 열엇다 더끌 때 이거, 이거. 이게, 이게.('조방' 식이야. 문 열였다 닫을 때 이거, 이거. 이게, 이게.)

108011 @ 아.(아.)

108011 #1 지금은 조방이엔 허는디 옛날은 이게 도절귀엔 헷단 말여.(지금은 '조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은 이게 돌쩌귀라고 했단 말이야.)

108011 @ 이런 거.(이런 거.)

108011 #2 도절귀 쒜로 허영 영 끼우는 거.(돌쩌귀 쇠로 해서 이렇게 끼우는 거.)

108011 #1 아, 그게 옛날 도절귑주.(아, 그게 옛날 돌쩌귑지요.)

108011 @ 예, 예, 예. 이렇게 영헤영은에 저.(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108011 #1 지금은 조방이라고 허는디.(지금은 '조방'이라고 하는데.)

108011 @ 으.(으.)

108011 #2 조방?('조방'?)

108011 #1 으, 조방이엔 허는디 옛날은 저걸 도절귀엔 헷어.(으, '조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은 저걸 돌쩌귀라고 했어.)

108011 @ 예. 알아지쿠다. 문 영 중글 때 허는 거예? 건 지게문에만 ᄃᆞᆯ고 대문에는 없는 거구나예?(예. 알겠습니다. 문 이렇게 잠글 때 하는 거요? 건 지게문에만 달고 마루문에는 없는 거군요?)

108011 #1 대문에는 중그는 디벳긔 저 안 들어가지.(마루문에는 잠그는 데밖에 저 안 들어가지.)

---

475) '조방'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으나, 돌쩌귀의 일본어 '全面(ぜんめん)を四(よっつ)の長方形(ちょうほうけい)に区切(くぎり)2色(にしょく)の色紙(いろがみ)を交互(こうご)に張(はっ)てつくった凧(たこ)'의 '長方形ちょうほうけいに'의 'ちょう方'에서 온 말이 아닌가 싶다.

108011 @ 삼춘, 게문 문입젱이는 어느 거?(삼촌, 그러면 문설주는 어느 거?)
108011 #1 으?(으?)
108011 @ 입젱이. 문입젱이 이런 말도 씁니까? 여기.(문설주. 문설주 이런 말도 씁니까? 여기.)
108011 #1 문입젱이렌 헌 말 나 들어보지 아년.('문입젱이'라고 한 말 내 들어보지 않았어.)
108011 @ 문얼굴?(문얼굴?)
108011 #1 문얼굴?(문얼굴?)
108011 @ 그런 말도 안 들어보고예?(그런 말도 안 들어보고요?)
108011 #2 건 뭐허는 거라.(건 뭐하는 거야.)
108012 @ 모르쿠다. 나도 뭔지 모르는데 여기 영 써지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뛔창문이렌 헌 말도 잇어?(모르겠습니다. 나도 뭔지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써지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뙤창문이라고 한 말도 있어?)
108012 #1 으?(으?)
108012 @ 반, 아, 반 반창?(반, 아, 반 반창?)
108012 #1 반창엔 헌 건.(반창이라고 한 건.)
108012 @ 으, 요즘 말?(으, 요즘 말?)
108012 #1 큰문 못허난 조그만허게 헌 게 반창이주게.(큰문 못하니까 조그맣게 한 게 반창이지.)
108012 @ 옛날부터 반창.(옛날부터 반창.)
108012 #1 창굼 내는, 창굼.('창굼' 내는, '창굼'.)
108012 #2 지금도 반창 잇잖아게.(지금도 반창 있잖아.)
108012 #1 창굼, 창굼. 창굼이라. 쪼그만허게 허영.('창굼', '창굼'. '창굼'이야. 조그맣게 해서.)
108012 #2 아래는 저 그냥 빈지로 뒈고.(아래는 저 그냥 빈지로 되고.)
108012 @ 으.(으.)
108012 #2 우의로 허영 영 헌 중간에 거가 반창 아니라게.(위로 해서 이렇게 한 중간에 것이 반창 아닌가.)
108012 @ 음, 그거를 그자 반창. 이런 창문**.(음, 그거를 그저 반창. 이런 창문**.)
108012 #1 옛날은 그걸 창굼이옌 헷다 말여.(옛날은 그걸 '창굼'이라고 했다 말이야.)
108012 @ 아아.(아아.)
108012 #2 창굼은 족아낫주마는 반창은 ᄒᆞ꼼 문 우의 ᄃᆞ는 거난 큰 거.('창굼'은 작았었지만 반창은 조금 문 위에 다는 거니까 큰 거.)
108012 @ 아, 게난 옛날도 저 반창도 돌기도 헨?(아, 그러니까 옛날도 저 반창도 달기도 했어?)

108012 #1 옛날도 이 처녀덜 사는 방엔 반창 크민 총각놈 들어온덴 반창을 족게 놔서. 쪼꼴락허게. 걸 알아야주.(옛날도 이 처녀들 사는 방엔 반창 크면 총각놈 들어온다고 반창을 작게 놔서. 조그맣게. 걸 알아야지.)

108012 #2 웃음.(웃음.)

108012 @ 으으.(으으.)

108012 #1 문 크민 총각놈덜 들어온덴 허영 쪼꼴락허게 멘들아낫주.(문 크면 총각놈들 들어온다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었지.)

108012 @ 음. 그거는 방에 다는 거예?(음. 그거는 방에 다는 거요?)

108012 #1 으, 방 저 뒤쪽에. 족은방에.(으, 방 저 뒤쪽에. 작은방에.)

108012 @ 족은방?(작은방?)

108012 #1 족은방 뒤쪽에. 뒤쪽에 그 그게 반창이주기.(작은방 뒤쪽에. 뒤쪽에 그 그게 반창이지.)

108012 @ 아아, 앞에 잇는 거는 그냥 이제?(아아,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108012 #1 큰 건, 이건 어른이 사는 방이난 허는디 족은방엔 뚤덜이 자니깐.(큰 건, 이건 어른이 사는 방이니까 하는데 작은방엔 딸들이 자니깐.)

108012 @ 예, 예. 반창으로.(예, 예. 반창으로.)

108012 #1 그 소님, 소님 못 들어오게 반창 멘든 거라.(그 손님, 손님 못 들어오게 반창 만든 거야.)

108012 @ 경허고 쪼끔만헌 건 창곰이고? 으.(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건 '창곰'이고? 으.)

108012 #2 골아보난 닮다. 소님 못 들어오게.(말해보니까 같다. 손님 못 들어오게.)

108012 @ 소님 못 들어오게. 알앗수다. 옛날은 삼춘, 창들 다 불랏잖아예? 지게문 헤갖고.(손님 못 들어오게. 알았습니다. 옛날은 삼촌, 창들 다 발랐잖아요? 지게문 해갖고.)

108012 #1 으.(으.)

108012 @ 보통 뭘로 불랏수과?(보통 무엇으로 발랐습니까?)

108012 #1 창오지로.(창호지로.)

108012 @ 창오지로 불른 거. 옛날부터 그 창오지.(창호지로 바른 거. 옛날부터 그 창호지.)

108012 #1 음.(음.)

108012 @ 요즘 거랑 똑같은 거. 이제 창오지 불랏고, 그다음에 방은 이제 방을 구들을 놔얄 거 아니?(요즘 거랑 똑같은 거. 이제 창호지 발랐고, 그다음에 방은 이제 방을 구들을 놔야할 거 아니?)

108012 #1 으.(으.)

108012 @ 구들은 어떤 식으로 놘? 옛날에.(구들은 어떤 식으로 놘? 옛날에.)

108012 #1 돌로 놧주.(돌로 놨지.)

108012 @ 돌로 꼴아예? 게믄 그 돌 꺼는 그 돌을 무슨 돌 헷수과?(돌로 깐다고요? 그러면 그 돌 까는 그 돌을 무슨 돌 했습니까?)

108012 #1 구둘돌.(구들장.)

108012 @ 구둘돌. 구둘돌 다 꼴면 그 우에는 또 흑 볼란?(구들장. 구들장 다 깔면 그 위에는 또 흑 발랐어요?)

108012 #2 흑으로 메완.(흙으로 메웠어.)

108012 #1 구둘돌도.(구들장도.)

108012 @ 예.(예.)

108012 #1 이걸 알아야 뒈이. 구둘돌을 요렇게 놓민 이디 받침대가 잇어이.(이걸 알아야 되어. 구들장을 요렇게 놓으면 여기 받침대가 있어.)

108012 @ 예.(예.)

108012 #1 이걸 아래 도에 데깍 놔버리민 방이 뜨시지 아녀. 여기로 불을 때민은 이게 환풍이 뒈영 연기가 돌아야 방이 뜨실 건데.(이걸 아래 입구에 빽빽이 놔버리면 방이 따습지 않아. 여기로 불을 때면 이게 환풍이 되어서 연기가 돌아야 방이 따스울 건데.)

108012 @ 예.(예.)

108012 #1 이걸 다 메와버리면 이디 불 때나 마나라.(이걸 다 메워버리면 여기 불 때나 마나야.)

108012 @ 아아.(아아.)

108012 #1 게난 일로 이렇게 주칫돌 모냥으로 돌을 다 받쳣어이. 중간 중간.(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주춧돌 모양으로 돌을 다 받쳤어. 중간 중간.)

108012 @ 아, 게민 이렇게 영 들러지게.(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지게.)

108012 #1 즉 말하면.(즉 말하면.)

108012 #2 궁기를 낸다 말여.(구멍을 낸다 말이야.)

108012 #1 요렇게 요렇게 헌 거주게. 즉 말허면이. 요거 요것이 구들돌이라고 허면은.(요렇게 요렇게 한 거지. 즉 말하면. 요거 요것이 구들장이라고 하면.)

108012 @ 예.(예.)

108012 #1 요렇게 네 군데 받쳐근에.(요렇게 네 군데 받쳐서.)

108012 @ 어.(어.)

108012 #1 가운데로 공간을 비게 만들엇다 말여. 게서 게면은 불 때면은 이 열이 돌아다니라고 헤서.(가운데로 공간을 비게 만들었다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불 때면 이 열이 돌아다니라고 해서.)

108012 @ 예, 예, 예. 그렇게 헹은에 구들돌로 다 놓고, 그다음에 허는 일은 뭐. 구들돌 놓곡.(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구들장을 다 놓고, 그다음에 하는 일은 뭐. 구들장 놓고.)

108012 #1 그다음에는 이디 흑 꼴앗주게.(그다음에는 여기 흙 깔았지.)

108012 @ 흑? 그 흑은 무슨 흑으로 꼴아수가?(흙? 그 흙은 무슨 흙으로 깔았습

니까?)
108012 #1 건 아무 흑이라도 뒈여.(건 아무 흙이어도 되어.)
108012 #2 촌흑.(찰흙.)
108012 @ 어, 촌흑으로 이제 끌고, 촌흑 끌면 이건 뭐렌 헤? 여기 촌흑 꼰 다음에 뭐 헤?(어, 찰흙으로 이제 깔고, 찰흙 깔면 이건 뭐라고 해? 여기 찰흙 깐 다음에 뭐 해?)
108012 #1 이걸 촌흑 꼴면은.(이걸 찰흙 깔면.)
108012 @ 으.(으.)
108012 #1 물 주멍 막 다려.(물 주면서 막 다져.)
108012 @ 아.(아.)
108012 #1 이거. 물 주멍 막 다려근에.(이거. 물 주면서 막 다져서.)
108012 @ 예.(예.)
108012 #1 이걸 또 수평 만들젠 허민은 뭘로 밀엇냐 허면 사발.(이걸 또 수평 만들려고 하면 무엇으로 밀었느냐 하면 사발.)
108012 @ 예. 사발로 으.(예. 사발로 으.)
108012 #1 사발로 밀엇어.(사발로 밀었어.)
108012 @ 어.(어.)
108012 #1 사발로 밀어서 수평을 맞췃단 말여. 옛날은 수평대가 없으니까.(사발로 밀어서 수평을 맞췄단 말이야. 옛날은 수평대가 없으니까.)
108012 @ 게믄 사발은 어느 쪽에를?(그러면 사발은 어느 쪽에를?)
108012 #1 사발.(사발.)
108012 @ 굽으로?(밑으로?)
108012 #1 넙은, 넙은 걸 알러레 가게 헷지.(넓은, 넓은 걸 아래로 가게 했지.)
108012 #2 어펑 민다 말여.(엎어서 민다 말이야.)
108012 @ 아, 사발 어펑 이렇게.(아, 사발 엎어서 이렇게.)
108012 #4 옛날에 사기사발일 거라게.(옛날에 사기사발일 거야.)
108012 #2 사기사발.(사기사발.)
108012 #1 사발로 밀엇다 말여.(사발로 밀었다 말이야.)
108012 #2 아, 시방 거 미는 그 쒜손이 없으니까.(아, 시방 거 미는 그 쇠손이 없으니까.)
108012 #1 전에는 수평 보는 게 그것벳긘 없거든.(전에는 수평 보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108012 @ 으.(으.)
108012 #1 게니깐. 게난.(그러니깐. 그러니까.)
108012 #2 멘짝허게 사발로 밀어.(매끄럽게 사발로 밀어.)
108012 #1 옛날도 이 방바닥이 저기서 물을 비왕 이짝으로 흘러오는 디 방은 좀자기가 편안한데.(옛날도 이 방바닥이 저기서 물을 부어서 이쪽으로 흘러오는 데

방은 잠자기가 편안한데.)

108012 @ 으.(으.)

108012 #1 여기서 물을 비왕 저레 흘러가는 방은 즘자기가 페까라와.(여기서 물을 부어서 저리로 흘러가는 방은 잠자기가 까다로워.)

108012 @ 게믄 이렇게 올라가불민예? 어.(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요? 어.)

108012 #1 건 사람이 페까롭나고 헤서 옛날도 저딧 물을 이레 흘러오게끔 방을 만들엇지. 좀 경사지듯허게.(건 사람이 까다롭다고 해서 옛날도 저기 물을 이리로 흘러오게끔 방을 만들었지. 좀 경사지듯이.)

108012 @ 아랫물은 위로 흐르게. 게믄 방은 평평헌 게 아니라 머리맛 잇는 디가 ᄒᆞ꼼 더 낮아.(아랫물은 위로 흐르게. 그러면 방은 평평한 게 아니라 머리맡 있는 데가 조금 더 낮아.)

108012 #1 쪼꼼 경사지게 헷지.(조금 경사지게 했지.)

108012 @ 어어, 게 수평 보는 거를 사발로 헹은에 민 거라예?(어어, 게 수평 보는 거를 사발로 해서 민 거네요?)

108012 #1 으.(으.)

108012 @ 게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우에는 이제 장을, 장판을 헤얄 거 아니우과?(그러면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장을, 장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8012 #1 장판을 허젠 허민 처음은 옛날은 마분지엔 헌 게 잇어. 종이가.(장판을 하려고 하면 처음은 옛날은 마분지라고 한 게 있어. 종이가.)

108012 @ 예.(예.)

108012 #1 마분지를 ᄒᆞᆫ 불 ᄇᆞᆯ라놩 따시 ᄇᆞᆯ르곡 헷주.(마분지를 한 벌 발라놔서 다시 바르고 했지.)

108012 @ 그 우의는 무신 종이를 ᄇᆞᆯ라? 장판 드릴 때는.(그 위에는 무슨 종이를 발라? 장판 드릴 때는.)

108012 #1 장판지도 옛날은 장판지 셔? 엇이난 쏠푸대 ᄀᆞ튼 거 튿어근에 그걸로 ᄇᆞᆯ랑 무신 유치름 ᄇᆞᆯ르곡 무신거 헤연 헷주. 무신 옛날 어디 장판지가 어디 잇어?(장판지도 옛날은 장판지 있어? 없으니까 쌀부대 같은 거 뜯어서 그걸로 발라서 무슨 들기름 바르고 무엇 해서 했지. 무슨 옛날 어디 장판지가 어디 있어?)

108012 #2 두더운 종이가 잇어낫주.(두꺼운 종이가 있었었지.)

108012 @ 으.(으.)

108012 #2 유치름 ᄇᆞᆯ르민 장판이 벤찍벤찍 곱게, 곱게 뒈렌.(들기름 바르면 장판이 반짝반짝 곱게, 곱게 되라고.)

108012 @ 아, 보통은 유치름으로 ᄇᆞᆯ랏수가? 게믄.(아, 보통은 들기름으로 발랐습니까? 그러면.)

108012 #1 들깨지름.(들기름.)

108012 @ 예.(예.)

108012 #1 그걸로 불란 그걸로 헷주, 무신 어디.(그걸로 발라서 그걸로 했지, 무슨 어디.)

108012 #2 장판 절루덴 허영 경헤낫주.(장판 곁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지.)

108012 #1 장판.(장판.)

108012 @ 장판 절루는 거예? 으으, 게믄 그 지름을 멧 번 불라?(장판 곁는 거요? 으으, 그러면 그 기름을 몇 번 발라?)

108012 #1 어 두세 번 불르주. 하영 불라지믄 좋주마는 어디 서?(어 두세 번 바르지. 많이 발라지면 좋지만 어디 있어?)

108012 #4 웃음.(웃음.)

108012 @ 게난 옛날, 옛날에는 장판이 허면은 노랑헤영은에 잘도 고와예?(그러니까 옛날, 옛날에는 장판이 하면 노래서 잘도 곱지요?)

108012 #1 아, 그거 유치름 불른 거.(아, 그거 들기름 바른 거.)

108012 @ 어어, 보통 유치름 불랏구나. 콩지름은 안 불릅니까?(어어, 보통 들기름 발랐구나. 콩기름은 안 바릅니까?)

108012 #1 콩지름은 우리 불르는 건 못 보고.(콩기름은 우리 바르는 건 못 보고.)

108012 #2 콩지름은 절지 아녀주게, 콩은게.(콩기름은 곁지 않지, 콩은.)

108012 @ 아아.(아아.)

108012 #2 유치름은 저는 거난 그거 불르는 거 아니라게. 절루젠.(들기름은 곁는 거니까 그거 바르는 거 아닌가. 결으려고.)

108012 @ 절루젠. 게믄 아까 삼춘, 절룬덴 헌 말은 무슨 말?(결으려고. 그러면 아까 삼촌, 곁는다고 한 말은 무슨 말?)

108012 #2 잘 절게 허젠. 멘짝허게 허젠.(잘 곁게 하려고. 반드럽게 하려고.)

108012 @ 음.(음.)

108012 #1 경허고 이.(그렇게 하고 이.)

108012 #4 빗깔 나게.(빛깔 나게.)

108012 #1 빗깔도 나고 이 저 유치름이 불르면은.(빛깔도 나고 이 저 들기름이 바르면.)

108012 @ 예.(예.)

108012 #1 이 종이가.(이 종이가.)

108012 @ 음.(음.)

108012 #2 빛깔이 나주.(빛깔이 나지.)

108012 #1 이 빛깔이 나곡 뭐인가 경 아년 다른 지름 불랑은 종이가 오래 가면은.(이 빛깔이 나고 뭐인가 그렇게 않은 다른 기름 발라서는 종이가 오래 가면.)

108012 #2 일어나벼.(일어나버려.)

108012 @ 아.(아.)

108012 #1 푸습새가 일어나근에 문지가 나와. 겐디 유치름 불르면 문지가 안 나

와.(부풀이 일어나서 먼지가 나와. 그런데 들기름 바르면 먼지가 안 나와.)

108012 @ 딱 그 아까 삼춘 곧듯이 절롸진 거구나. 정말 단단허게.(딱 그 아까 삼촌 말하듯이 결어진 거구나. 정말 단단하게.)

108012 #1 공고리 절루듯 절라부린 거.(콘크리트 겯듯 결어버리는 거.)

108012 #2 거 절루기 위헤서 유치름 불르는 거.(거 겯기 위해서 들기름 바르는 거.)

108013 @ 으음. 게믄 이제 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우리 지난번에 올 때도 우리 선생님이 물어봔게마는 호령창 헌 것도 잇수가? 여기에. 성읍은. 하르방덜 앚앙은에.(으음. 그러면 이제 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우리 지난번에 올 때도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더니만 '호령창' 한 것도 있습니까? 여기에. 성읍은. 할아버지들 앉아서.)

108013 #2 호령창[476] 족은문[477] 말이라. 족은대문[478].('호령창' '족은문' 말이야. '족은대문'.)

108013 #1 이, 아, 이 그게 잇수다.(이, 아, 이 그게 있습니다.)

108013 @ 예.(예.)

108013 #1 그게 아무 집안이나 잇는 건 아니고.(그게 아무 집안이나 있는 건 아니고.)

108013 @ 예.(예.)

108013 #2 막 잘사는 집.(아주 잘사는 집.)

108013 #1 성읍리도 호령창 잇는 디가 나가 알기론 흔 네 곤데.(성읍리도 '호령창' 있는 데가 내가 알기론 한 네 군데.)

108013 @ 음.(음.)

108013 #1 지금 지금 민속마을 안네 그 집이 지어져 잇는데.(지금 지금 민속마을 안에 그 집이 지어져 있는데.)

108013 @ 예.(예.)

108013 #1 그게 호령창이엔 헌 건 이짝은 작은, 작은문을 달고 이짝은 큰문을 달주게.(그게 '호령창'이라고 한 건 이쪽은 작은, 작은문을 달고 이쪽은 큰문을 달지.)

108013 @ 예.(예.)

108013 #2 건 예펜덜 안 뎅기는 문.(건 여자들 안 다니는 문.)

108013 @ 예.(예.)

108013 #1 게난 일로, 일로는 소님덜이 다니고 이 호령창으론 손님들이 못 다녀.(그러니까 일로, 일로는 손님들이 다니고 이 '호령창'으론 손님들이 못 다녀.)

---

476) '호령창'은 마루문에 딸린 작은 창이다. 주인이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며 호령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477) '족은문'은 마루문에 딸린 작은 문이다. 마루문을 제주에서는 '대문'이라고 하는 것에 겹어서 '족은대문'이라고도 한다.

478) '족은대문'은 '대문', 즉 마루문에 딸린 작은 마루문이다. '족은대문'은 주인이 앉아서 밖을 내다볼 때 사용하는 문이다.

108013 @ 아아.(아아.)

108013 #2 여자들 안 뎅기는 문.(여자들 안 다니는 문.)

108013 #1 게난 집주인이 이디 앚앙 베꼇디레 내다보는 게 호령창이라.(그러니까 집주인이 여기 앉아서 바깥으로 내다보는 게 '호령창'이야.)

108013 @ 예.(예.)

108013 #1 거기 앚앗당 잘못허민 호령허고.(거기 앉았다가 잘못하면 호령하고.)

108013 @ 음.(음.)

108013 #1 허는 게 호령창이엔 헌 게.(하는 게 '호령창'이라고 한 게.)

108013 #2 남자가 뎅이는 문.(남자가 다니는 문.)

108013 #1 저 성안[479]에 가민 우리 윤필이 아방 살아난 디 우리 처부 살아난 디 잇고 홍 의원 살아난 디 잇고.(저 '성안'에 가면 우리 윤필이 아버지 살았던 데 우리 처부 살았던 데 있고 홍 의원 살았던 데 있고.)

108013 #2 홍 의원이 누게니?(홍 의원이 누구니?)

108013 #1 저 아두골[480]마씨.(저 '아두골'요.)

108013 #2 아 행자 아방 살아난 디.(아 행자 아버지 살았던 데.)

108013 #1 저 저 저 성안에 가면은 선욱이 아방 살아난 디 읏고. 흔 멧.(저 저 저 '성안'에 가면 선욱이 아버지 살았던 데 없고. 한 몇.)

108013 #4 맹자네 살아난 딘 엇구나?(명자네 살았던 덴 없구나?)

108013 #1 맹자네 살아난 딘 엇어.(명자네 살았던 덴 없어.)

108013 #4 엇수게양?(없지요?)

108013 #1 그딘 엇고?(거긴 없고?)

108013 #2 객사 앞의 잇어나신디.(객사 앞에 있었었는데.)

108013 #2 객사 앞엔 잇수다.(객사 앞엔 있습니다.)

108013 #4 석근이네 집 이딘 잇고.(석근이네 집 여긴 있고.)

108013 #1 석근이네도 집의도 엇어.(석근이네도 집에도 없어.)

108013 @ 거난 그 호령창으로는 여자는 못 뎅겨예?(그러니까 그 '호령창'으로는 여자는 못 다녀요?)

108013 #1 예.(예.)

108013 @ 무사 못 뎅긴덴 허는 거?(왜 못 다닌다고 하는 거?)

108013 #1 여자가 부정 탄다고 헤서.(여자가 부정 탄다고 해서.)

108013 @ 예.(예.)

108013 #1 옛날은 씨집온 여자가 절대 이 마루방으로 들어가지 못허여. 부억방으로 부억으로 헤영 들어가주.(옛날은 시집온 여자가 절대 이 마루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부엌방으로 부엌으로 해서 들어가지.)

108013 @ 아, 마루 그 대문으로 들어가질 못허여?(아, 마루 그 마루문으로 들어

479) 여기에서 '성안'은 정의현성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다.
480) '아두골'은 성읍1리의 골목 이름의 하나인 것 같다.

가질 못해?)

108013 #1 절대 건. 건 불법이라.(절대 건. 건 불법이야.)

108013 @ 게믄, 게믄 방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부억으로 들어가는 거마씨?(그러면, 그러면 방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8013 #1 일로 들어강 만약 씨아버지가 여기 앚앗으면.(일로 들어가서 만약 시아버지가 여기 앉았으면.)

108013 @ 예.(예.)

108013 #1 일로 들어강 이레 또 마루로 들어가는 문이 잇어이.(일로 들어가서 이리로 또 마루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108013 @ 예.(예.)

108013 #1 여기 들어강 아버지 왓습니다, 이렇게 허지 일로 들어가멍 아버지 나 왓수다 이 절대.(여기 들어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 이 절대.)

108013 #2 제발 가라, 헐 거야.(제발 가, 할 거야.)

108013 @ 아.(아.)

108013 #1 그래서 호령창이 잇는 게.(그래서 '호령창'이 있는 게.)

108013 #4 옛날에 우리 아지망[481]이 춤 저 부억으로 들어강 삼방에 강 사근에 아버지 나 왓수다, 흔 기억이 잇저. 웃음.(옛날에 우리 아주머니가 참 저 부엌으로 들어가서 대청에 가서 서서 아버지 나 왔수다, 한 기억이 있다. 웃음.)

108013 @ 음, 절대 그 대문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 대문이든 저기 호령문이든*예.(음, 절대 그 마루문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 마루문이든 저기 '호령문'이든*예.)

108013 #1 여기 대문은 두 개가 잇는디.(여기 마루문은 두 개가 있는데.)

108013 @ 예.(예.)

108013 #1 호령창 두 갠 이디는 남자가 통허지 여저는 보통 일로 통허지 안혜.('호령창' 두 갠 여기는 남자가 통하지 여자는 보통 일로 통하지 안 해.)

108013 @ 아.(아.)

108013 #4 시방사. 잡음.(시방이야. 잡음.)

108013 @ 그 앞에 퉷마리 쪽으로는 남자들은 들어가고?(그 앞에 툇마루 쪽으로는 남자들은 들어가고?)

108013 #1 여기, 여기에 달린 게 이디 부억이 잇거든.(여기, 여기에 달린 게 여기 부엌이 있거든.)

108013 @ 예.(예.)

108013 #1 부억으로 들어강 부억에서 또 마루에 들어가는 방 저 문이 잇어.(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에서 또 마루에 들어가는 방 저 문이 있어.)

108013 @ 예.(예.)

481) 여기에서 '아지망'은 올케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08013 #1 글로 들어가지.(글로 들어가지.)

108013 @ 삼춘, 부억에서 마리레 들어가는 그 문은 무슨 문 헤?(삼촌, 부엌에서 마루로 들어가는 그 문은 무슨 문 해?)

108013 #1 샛문이옌도 허곡, 샛문.(샛문이라고도 하고, 샛문.)

108013 @ 샛문. 아, 부억에서 마루레 들어가는 건 이제. 게믄 그 문만 여자들이 이용한 거네. 정짓문만예?(샛문. 아, 부엌에서 마루로 들어가는 건 이제. 그러면 그 문만 여자들이 이용한 거네. 부엌문만이요?)

108013 #1 으. 게난 여자가 그만이 답답헷주게.(으.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이 답답했지.)

108013 @ 게난마씨? 어떵허믄 좋아.(그러니까요? 어떡하면 좋아.)

108013 #2 옛날 법도가 경 헤노난 홀 수가 엇주.(옛날 법도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할 수가 없지.)

108013 @ 여기 성읍같은 경우는 이 현청이 잇어나니까 다른 지역보단 더 경허는 거 닮아예.(여기 성읍같은 경우는 이 현청이 있었었으니까 다른 지역보단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108013 #1 아 그렇주, 건.(아 그렇지, 건.)

108013 @ 여기는예, 으.(여기는요, 으.)

108013 #1 그럴 수가 잇주.(그럴 수가 있지.)

108014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굴묵 허젠 허면 보통 뭘로 때엿수가? 굴묵은.(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굴묵' 하려고 하면 보통 무엇으로 때었습니까? '굴묵'은.)

108014 #2 ᄆᆞᆯ똥.(말똥.)

108014 #1 ᄆᆞᆯ똥, 쉐똥.(말똥, 쇠똥.)

108014 @ 아.(아.)

108014 #1 또 이 보리 보리 태작 헤난 보릿ᄀᆞ스락[보릳끄스락].(또 이 보리 보리 타작 했던 보리까끄라기.)

108014 @ 예.(예.)

108014 #1 그거 주로 많이 썻주.(그거 주로 많이 썼지.)

108014 @ 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8014 #4 아이고, 굴묵 짇는 거보단도 불껑 파내는 거 일.(아이고, '굴묵' 때는 거보단도 재 파내는 거 일.)

108014 @ 무신거마씨?(무엇요?)

108014 #1 불껑 파내는 거게.(재 파내는 거.)

108014 #4 파내기 막 궂어. * 바락바락.(파내기 아주 궂어. * 바락바락.)

108014 @ 아.(아.)

108014 #1 불껑 이렇게 꺼내벼야 따시 집어놩 불 땔 거난에게 파내주.(재 이렇게 꺼내버려야 다시 집어넣어서 불 땔 거니까 파내지.)

108014 #2 경허난 근은대 논 거주게. 걸로 ᄃᆞᆼ겨내 뒁은에 또 살르는 거.(그렇게 하니까 고무래 놓은 거지. 걸로 당겨내 두고 또 사르는 거.)

108014 @ 게믄 그 불껑은 허면은 거 다 이제 메와 놔야 할 거 아니라예? 건 어디 강 메와마씨?(그러면 그 재는 하면 거 다 이제 모여 놔야 할 거 아닌가요? 건 어디 가서 모여요?)

108014 #1 ᄆᆞ멀 갈 때 썻주게.(메밀 갈 때 썼지.)

108014 #2 어디 ᄒᆞᆫ착 구석디라도 메와놩 써.(어디 한쪽 구석에라도 모여 놔서 써.)

108014 @ ᄆᆞ멀 갈 때?(메밀 갈 때?)

108014 #1 ᄆᆞ멀 갈[깔] 때 불치 서꺼근에 영 접아놩 ᄆᆞ멀 갈아낫주.(메밀 갈 때 재 섞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메밀 갈았었지.)

108014 @ 음.(음.)

108014 #1 지금은 씨 삐영 허주만은.(지금은 씨 뿌려서 하지만.)

108014 @ 예.(예.)

108014 #1 옛날은 쉐로 영 젱기로 골 긋으민 그레 영 접아놔. 여자덜이 접아놔.(옛날은 쇠로 이렇게 쟁기로 골 그으면 그리로 이렇게 집어놔. 여자들이 집어놔.)

108015 @ 음, 그거로 하나씩 이렇게 허면서예? 그것도 옛날 이제 나중에 물어보쿠다. 삼춘, 풍체는 어떻게 만드는 거?(음, 그거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요? 그것도 옛날 이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삼촌, 차양은 어떻게 만드는 거?)

108015 #1 풍체는 이디 ᄃᆞ는 거주. 집 앞에 ᄃᆞᆯ리는 게 초가집 앞에 ᄃᆞᆯ리는 게 풍첸디.(차양은 여기 다는 거지. 집 앞에 달리는 게 초가집 앞에 달리는 게 차양인데.)

108015 @ 예.(예.)

108015 #1 보통 삼간집인 두 개.(보통 삼간집엔 두 개.)

108015 @ 예.(예.)

108015 #1 사칸집[482]읜 세 개를 헤여.('사간집'에는 세 개를 해.)

108015 @ 아, 풍체도 세 개도 세와마씨? 어어. 거난 풍체 세우젠 허면은 옆에 영 세우는 건 뭐옌 헤?(아, 차양도 세 개도 세워요? 어어. 그러니까 차양 세우려고 하면 옆에 이렇게 세우는 건 뭐라고 해?)

108015 #1 풍체작데기[483].('풍체작데기'.)

108015 @ 풍체?(차양?)

108015 #1 작데기.(작대기.)

108015 @ 풍체작데기를 세와.('풍체작데기'를 세워.)

108015 #2 받치는 거.(받치는 거.)

108015 @ 받치는 거예. 게민 우에는?(받치는 거요. 그러면 위에는?)

---

482) '사칸집'은 칸이 네 개인 집을 말한다.

483) '풍체작데기'는 차양을 벌려 세울 때 사용하는 기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108015 #1 그 우에는 저 서리에 강 돌아메여.(그 위에는 저 서까래에 가서 매달아.)

108015 @ 서리에 돌아메영은에.(서까래에 매달아서.)

108015 #1 흔착 거만 이렇게 받쳐주는 거.(한쪽 거만 이렇게 받쳐주는 거.)

108015 @ 그러면 이렇게 그 저기 경사지게 허는 거라예. 끝에 게믄 그 풍체 우에는 뭐를 이렇게 놓는, 뭘로 영 놓는 거우과?(그러면 이렇게 그 저기 경사지게 하는 거네요. 끝에 그러면 그 차양 위에는 뭐를 이렇게 놓는, 무엇으로 이렇게 놓는 겁니까?)

108015 #1 대나무 놩 여끄주게. 대나무.(대나무 놔서 엮지. 대나무.)

108015 #2 대나무 놩 새 더껑.(대나무 놔서 띠 덮어서.)

108015 @ 아.(아.)

108015 #1 이게 만약 풍체가 요렇게 길이가 잇다면은이.(이게 만약 차양이 요렇게 길이가 있다면.)

108015 @ 예.(예.)

108015 #1 육짓말론 띤디 성읍리 말론 새라이.(육지 말로는 띤데 성읍리 말론 '새'야.)

108015 @ 예.(예.)

108015 #1 새로 요렇게 더펑 놩 대나무를 요렇게 놩 여끄주게. 무끄주게. 요렇게.(띠로 요렇게 덮어서 놔서 대나무를 요렇게 놔서 엮지. 묶지. 요렇게.)

108015 @ 게믄 아까 이게 풍체라고 셍각하면 삼춘. 이제 이, 이 요것도 짜마씨? 여기도.(그러면 아까 이게 차양이라고 생각하면 삼촌. 이제 이, 이 요것도 짜요? 여기도.)

108015 #1 으.(으.)

108015 @ 짜는 건 아니?(짜는 건 아니?)

108015 #1 짜질 아녀고.(짜질 않고.)

108015 @ 예.(예.)

108015 #1 아니 짜는 건 이 ᄂᆞ람지엔 헌 게 잇어. ᄂᆞ람지.(아니 짜는 건 이 이엉이라고 한 게 있어. 이엉.)

108015 @ 예.(예.)

108015 #1 ᄂᆞ람지 알아져?(이엉 알아져?)

108015 @ 예.(예.)

108015 #1 ᄂᆞ람지 예펴당 이디 놓주.(이엉 엮어다가 여기 놓지.)

108015 @ ᄂᆞ람지도 여기 예피기도 하지예?(이엉도 여기 엮기도 하지요?)

108015 #1 예평 이디 놩 우에 대나무 놩.(엮어서 여기 놔서 위에 대나무 놔서.)

108015 @ 아, 게난 새를 끌기도 하고 ᄂᆞ람지 예평은에.(아, 그러니까 띠를 깔기도 하고 이엉 엮어서.)

108015 #2 더프기도 허고.(덮기도 하고.)

108015 @ 더프기도 허는 거? 게믄 그냥 새 더끈 거는 확 저기 불리기도 허켜예?(덮기도 하는 거? 그러면 그냥 띠 덮은 거는 확 저기 불리기도 하겠네요?)

108015 #1 게니까 우의 대나무 놩.(그러니까 위에 대나무 놔서.)

108015 #2 딱 지둘롬주게.(딱 지지르고 있지.)

108015 @ 아아.(아아.)

108015 #1 대나무 우에.(대나무 위에.)

108015 #2 우알에 놔가지고. 우알로 믄 지둘롬주게.(위아래에 놔가지고. 위아래로 몽땅 지지르고 있지.)

108015 #1 욜로 욜 사이면은 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쯤 놩 밑에 대나무허고 무껏주.(욜로 욜 사이면 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쯤 놔서 밑에 대나무하고 묶었지.)

108015 @ 게믄 삼춘,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기 새를 영 더끌 거?(그러면 삼촌,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기 띠를 이렇게 덮을 거?)

108015 #1 으.(으.)

108015 @ 이렇게 새 더끄고 영 헹은에 저 뭐를 놓는 거? 대나무는?(이렇게 띠 덮고 이렇게 해서 저 뭐를 놓는 거? 대나무는?)

108015 #1 새는 이렇게 더끄고.(띠는 이렇게 덮고.)

108015 @ 아, 새가 이렇게 더끄고.(아, 띠가 이렇게 덮고.)

108015 #1 으.(으.)

108015 @ 예.(예.)

108015 #1 대나무는 이렇게 길게 놩 무껏주게.(대나무는 이렇게 길게 놔서 묶었지.)

108015 @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놩은에.(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놔서.)

108015 #1 겐디.(그런데.)

108015 @ 으.(으.)

108015 #1 옛날은 이렇게 헷어이. 풍체가 이렇게 잇잖아. 네 개이.(옛날은 이렇게 했어. 차양이 이렇게 있잖아. 네 개.)

108015 @ 예, 풍체 잇으면?(예, 차양 있으면?)

108015 #1 쌀이 이렇게 있어이. 풍체쌀[484].(살이 이렇게 있어. '차양살'.)

108015 @ 예.(예.)

108015 #1 게민 요기를 대나무를 놔서.(그러면 요기를 대나무를 놔서.)

108015 @ 예.(예.)

108015 #1 여기 새를 노면서 일부러, 일부러 손으로 이 노로 노로 헤서 이거 삐졌어.(여기 띠를 놓으면서 일부러, 일부러 손으로 이 노로 노로 해서 이거 다졌어.)

108015 @ 아아.(아아.)

108015 #1 옛날 옛날은.(옛날 옛날은.)

484) '풍체쌀'은 차양을 덮은 띠를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살을 말한다.

108015 @ 그러면 이런 풍체살이 또 풍체.(그러면 이런 '차양살'이 또 차양.)
108015 #1 이게 쌀이고.(이게 살이고.)
108015 @ 예.(예.)
108015 #1 대나무를 또 이렇게 놔.(대나무를 또 이렇게 놔.)
108015 @1 요거는 풍체살.(요거는 '차양살'.)
108015 #1 으.(으.)
108015 @ 예.(예.)
108015 #1 이거 대나무를 한 네 개쯤 놔근에.(이거 대나무를 한 네 개쯤 놔서.)
108015 @ 예.(예.)
108015 #1 요기 새 이렇게 놓면서.(요기 띠 이렇게 놓으면서.)
108015 @ 예.(예.)
108015 #1 쪼끔 즉 놀 때마다 이거 풍체를 이렇게.(조금 즉 놓을 때마다 이거 차양을 이렇게.)
108015 @ 으, 게난 새를 영 놩은에 영 여껀예?(으, 그러니까 띠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엮었어요?)
108015 #1 으.(으.)
108015 @ 이런 식으로 허영은에 여껏다는 거 아니? 무껀, 무껀. 그걸 도망가지 안 허게.(이런 식으로 해서 엮었다는 거 아니? 묶었어요, 묶었어요. 그걸 도망가지 안 하게.)
108015 #1 으.(으.)
108015 @ 아.(아.)
108015 #4 (잡음)
108015 @ 새도, 새를 나중에 더끄기도 헷다라는 거네예?(띠도, 띠를 나중에 덮기도 했다는 거네요?)
108015 #1 기주게. 이 대나무 전부 논 다음에 샌 젤 내중에 놩.(그렇지. 이 대나무 전부 놓은 다음에 띤 젤 나중에 놔서.)
108015 @ 맨 내중에. 맨 처음에. 게서 이걸 풍쳇쌀 하고 이거 풍체작데기 헌 거.(맨 나중에.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걸 '차양살' 하고 이거 '풍체작데기' 한 거.)
108015 #1 으으.(으으.)
108016 @ 으으, 물팡은 어디 놧수과?(으으, '물팡'은 어디 놨습니까?)
108016 #1 물팡[485]은 부억 앞에 놓주. 부억.('물팡'은 부엌 앞에 놓지. 부엌.)
108016 @ 아, 부억 앞에.(아, 부엌 앞에.)
(잡음)
108016 #1 부억에서 젤 가까운 디.(부엌에서 젤 가까운 데.)
108016 @ 으음. 물팡은 멧 개 놔마씨? 물팡.(으음. '물팡'은 몇 개 놔요? '물팡'.)
108016 #1 그 집의 식구에 따랑.(그 집의 식구에 따라서.)

485)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돌로 만든 대다. 보통 부엌 입구에 설치한다.

108016 @ 예.(예.)

108016 #1 물허벅[486]이 만약 두 사람이 질어올 수 잇는 거민 물팡을 조끔 크게 만들곡.('물허벅'이 만약 두 사람이 길어올 수 있는 거면 '물팡'을 조금 크게 만들고.)

108016 @ 예.(예.)

108016 #1 경 아녀민 물팡 ᄒᆞ나만 만들앙 물허벅 ᄒᆞ나만 놓게시리.(그렇게 않으면 '물팡' 하나만 만들어서 '물허벅' 하나만 놓게끔.)

108016 @ 아, 그 물팡 우에는 물허벅 노는 거.(아, 그 '물팡' 위에는 '물허벅' 놓는 거.)

108016 #1 그딘 뚤들이라 하민 물 질어올 사름이 한 사름, 한 디는 물팡이 ᄒᆞ꼼 커야 허벅이라도 두 개 놓주마는 뚤 ᄒᆞ나쯤 잇는 사름은 기자 물팡 허벅 ᄒᆞ나 놀 정도로만.(거긴 딸들이라 하면 물 길어올 사람이 많은 사람, 많은 데는 '물팡'이 조금 커야 '허벅'이라도 두 개 놓지만 딸 하나쯤 있는 사람은 그저 '물팡' '허벅' 하나 놓을 정도로만.)

108016 @ 아, 게난 물팡도 이 소곱에 뭐 놓젠 헤영 비지 안 헙니까?(아, 그러니까 '물팡'도 이 속에 뭐 놓으려고 해서 비지 안 합니까?)

108016 #2 공간.(공간.)

108016 #1 게난 돌을 이렇게 싸주게.(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쌓지.)

108016 @ 예, 돌을예?(예, 돌을요?)

108016 #1 이디는 작은 돌로 메와불어.(여기는 작은 돌로 메워버려.)

108016 @ 속에는?(속에는?)

108016 #1 으. 경 헤영 우에 큰 돌 ᄒᆞ나 놔 이렇게.(으. 그렇게 해서 위에 큰 돌 하나 놔 이렇게.)

108017 @ 예, 예, 예. 겡은에 물팡에는 허벅, 물구덕[487]에 허벅을 항상 놔두는 거라예? 으. 경허고 삼춘, 여기는 집에 있으면 다 그 올레들이 이렇게 다 잇잖아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물팡'에는 '허벅', '물구덕'에 '허벅'을 항상 놔두는 거네요? 으. 그렇게 하고 삼촌, 여기는 집에 있으면 다 그 오래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108017 #1 으.(으.)

108017 @ 이 올레도 이름이 잇수과?(이 오래도 이름이 있습니까?)

108017 #1 올레 이름은 올레주, 무신. 올레 이름이 *.(오래 이름은 오래지, 무슨. 오래 이름이 *.)

108017 @ 아니 올레도 어떤 딘 가난 먼올레 영 ᄀᆞᆫ기도 헙디다.(아니 오래도 어떤 덴 가니까 '먼올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디다.)

108017 #2 먼올렌 먼디난 먼올레[488] ᄇᆞ든 딘 ᄇᆞ든올레[489]주.('먼올레'는 먼데니

486) '물허벅'은 물을 긷는 데 사용하는 동이를 말한다. 달리 '허베기'라고도 하였다.
487)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오리로 결어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488) '먼올레'는 집에서 도로까지의 거리가 긴 골목을 말한다.

까 ‘먼올레’ 밭은 덴 ‘ᄇᆞ든올레’지.)

108017 #1 올레가 이 도로허고 가까우고 멀고 헌 차이주.(오래가 이 도로하고 가깝고 멀고 한 차이지.)

108017 #2 여기가 이디도 먼올레지 올레가 머니까.(여기가 여기도 ‘먼올레’지 오래가 머니까.)

108017 @ 으.(으.)

108017 #1 도로허고 가까우고 멀고 헌 차이.(도로하고 가깝고 멀고 한 차이.)

108017 #2 멀고 ᄇᆞ디는 것이 올레 ᄇᆞ든 거.(멀고 밭은 것이 올래 밭은 거.)

108017 #1 먼올레 멀리 나갓덴 헌 말인디.(‘먼올레’ 멀리 나갔다고 한 말인데.)

108017 @ 으.(으.)

108017 #1 건.(건.)

108017 #2 올레가 긴덴 말로 먼올레.(오래가 길다는 말로 ‘먼올레’.)

108017 #1 그건 그거는 별 차이 없는 거.(그건 그거는 별 차이 없는 거.)

108017 @ 아, 삼춘. 여기서도 ᄇᆞ딘올레 이런 말도 써?(아, 삼촌. 여기서도 ‘ᄇᆞ딘올레’ 이런 말도 써?)

108017 #1 ᄇᆞ딘올레 도로가 가까우니까. 바로 옆이가.(‘ᄇᆞ딘올레’ 도로가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가.)

108017 #2 마당에서 올레가 ᄌᆞᆱ으민 ᄇᆞ딘올레.(마당에서 오래가 짧으면 ‘ᄇᆞ딘올레.’)

108017 #1 이게 도로면은 ᄇᆞ딘올레주게.(이게 도로면은 ‘ᄇᆞ딘올레’지.)

108017 @ 아아.(아아.)

108017 #2 질민 먼올레.(길면 ‘먼올레’.)

108017 @ 아, 게난 그 도로하고에 관계를 헤서.(아,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의 관계를 해서.)

108017 #2 멀고 ᄇᆞ든 차이라.(멀고 밭은 차이야.)

108017 #1 그거는 별거 아니고.(그거는 별거 아니고.)

108017 @ 건 아니고 그냥 올레예? 에, 게믄 올레 얘기를 하고, 그 올레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곧장 안 헹 꼭 이렇게 에스 자 곡선처럼 허는 이유는 무사라마씨?(건 아니고 그냥 오래요? 에, 그러면 오래 얘기를 하고, 그 오래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곧장 안 해서 꼭 이렇게 에스 자 곡선처럼 하는 이유는 왜예요?)

108017 #2 건 곧장허게 허지 못허난에.(건 곧게 하지 못하니까.)

108017 #1 아니, 그거는.(아니, 그거는.)

108017 @ 예. 못허니까 아니고 꼭 그렇게예?(예. 못하니까 아니고 꼭 그렇게요?)

108017 #1 아니, 아니. 이 집의서 올레 그 땅 모양이.(아니, 아니. 이 집에서 오래 그 땅 모양이.)

489) ‘ᄇᆞ든올레’는 집에서 도로까지의 거리가 밭은 골목을 말한다.

108017 @ 예.(예.)
108017 #1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라.(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야.)
108017 @ 아, 부러 에스 허는 건 아니?(아, 부러 에스 하는 건 아니?)
108017 #1 아니. 아니. 이렇게 허면은 사름 다니기도 불편허곡 만약 차가 들어온덴 헤도 불편헐 건디 웨 그렇게 만들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소유기 때문에.(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만약 차가 들어온다고 해도 불편할 건데 왜 그렇게 만들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소유기 때문에.)
108017 @ 예.(예.)
108017 #1 이, 이거를 이렇게 헐랴고 헤도 이게 남의 소유기 때문에 못허는 거.(이,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남의 소유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108017 @ 아, 게난 에스 자 아니. 사름들이 막 에스 자로 허는 이유가 잇다고.(아, 그러니까 에스 자 아니. 사람들이 막 에스 자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108017 #1 아, 건 몰라. 우린.(아, 건 몰라. 우린.)
108019 @ 그건 아니다, 삼춘은. 게믄 이 이제 게믄 요 마당, 여기도 마당이렌 허지예?(그건 아니다, 삼촌은. 그러면 이 이제 그러면 요 마당, 여기도 마당이라고 하지요?)
108019 #1 으.(으.)
108019 @ 마당 허민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아까 쉐막도 잇고 헐 거 아니우과? 게믄 쉐촐 헤 주는 게 잇을 거 아니?(마당 하면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아까 외양간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꼴 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
108019 #1 촐.(꼴.)
108019 @ 예, 촐 누는 디?(예, 꼴 가리는 데?)
108019 #1 으.(으.)
108019 @ 거긴 뭐렌 헤?(거긴 뭐라고 해?)
108019 #1 우연.(텃밭.)
108019 @ 우연. 우연이 잇고.(텃밭. 텃밭이 있고.)
108019 #1 으.(으.)
108019 @ 우연에 촐눌을 누는 거?(텃밭에 꼴가리를 가리는 거?)
108019 #1 으.(으.)
108019 @ 거기에 숭키 가는 건 뭐렌 헤?(거기에 푸성귀 가는 건 뭐라고 해?)
108019 #1 숭키는 쉐가 나가분 다음에 숭키 갈 거난 겨울엔 필요가 없지. 숭키 가는 게.(푸성귀는 소가 나가버린 다음에 푸성귀 갈 거니까 겨울엔 필요가 없지. 푸성귀 가는 게.)
108019 @ 으.(으.)
108019 #2 쉐촐 놓당도 쉐가 나가불민.(소꼴 놓다가도 소가 나가버리면.)

108019 #1 쉐촐.(소꼴.)

108019 #2 ᄉᆞᆼ키 갈 거.(푸성귀 갈 거.)

108019 #1 쉐가 나가병. 쉐가 드르에 산에 ᄉᆞᆼ키를, ᄂᆞᄆᆞᆯ 갈 거난 그땐 쉐촐 눌 땐 필요가 엇지.(소가 나가버려서. 소가 들에 산에 푸성귀를, 나물 갈 거니까 그땐 소꼴 가릴 땐 필요가 없지.)

108019 @ 아, 그러니까 성읍에서는 옛날 쉐덜을 집에서만 키운 게 아니라 드르에 올렁은에 내분 거구나예?(아, 그러니까 성읍에서는 옛날 소들을 집에서만 키운 게 아니라 들에 올려서 내버린 거군요?)

108019 #1 아, 쳉명 뒈면은.(아, 청명 되면.)

108019 @ 예.(예.)

108019 #1 사월 오일 쳉명 아니라게. 쳉명 뒈면은 쉐가 나가서 하튼 저 동지꺼지 저, 저 입동ᄁᆞ진 안 들어와.(사월 오일 청명 아닌가. 청명 되면 소가 나가서 하여튼 저 동지까지 저, 저 입동까진 안 들어와.)

108019 @ 아, 집에서는 그땐 엇인 거 쉐가.(아, 집에서는 그땐 없는 거 소가.)

108019 #1 입동 뒈야 들어오지.(입동 돼야 들어오지.)

108019 @ 아아, 게믄 그 우연에 쉐 엇이난 그때 ᄂᆞ물 갈고 따로 우영이 잇고.(아아, 그러면 그 텃밭에 소 없으니까 그때 배추 갈고 따로 텃밭이 있고.)

108019 #1 아이 건 필요 엇고.(아니 건 필요 없고.)

108019 @ 눌왓[490]이 잇는 게 아니고 여기는.('눌왓'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108019 #1 아니.(아니.)

108019 @ 우리 동네는예, 따로 우영이 잇고 눌왓이 따로 잇고.(우리 동네는요, 따로 텃밭이 있고 '눌왓'이 따로 있고.)

108019 #1 저기는 눌 누는 딜 보니까.(저기는 가리 가리는 델 보니까.)

108019 @ 예.(예.)

108019 #1 돌멩이 헤서 이렇게.(돌멩이 해서 이렇게.)

108019 @ 눌굽[491].('눌굽'.)

108019 #1 싸서.(쌓아서.)

108019 @ 예.(예.)

108019 #1 웨냐면 이 돌멩이 이렇게 놘에 눌 누는 딜 만든 디가 잇더라고. 웨냐면 이거는 눌어도.(왜냐면 이 돌멩이 이렇게 놔서 가리 가리는 델 만든 데가 있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가리어도.)

108019 #3 물 골르는 디 아니?(물 고이는 데 아니?)

108019 #1 아니, 눌어도 습기 차지 말앙 썩지 말렌 헌 이윤디.(아니, 가리어도 습기 차지 말고 썩지 말라고 한 이윤데.)

108019 @ 으.(으.)

---

490) '눌왓'은 가리를 가리게 된 공간을 말한다. 주로 꼴이나 보릿대 따위의 가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공간이다.
491)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을 자리다. 주로 돌을 둥그렇게 깔아서 만든다.

108019 #1 여기는 멧 개월 동안이니깐 그렇게 안 헤.(여기는 몇 개월 동안이니깐 그렇게 안 해.)

108019 @ 아.(아.)

108019 #2 한겨울에도.(한겨울에도.)

108019 #1 건 오래 놔둘 필요가 엇거든.(건 오래 놔둘 필요가 없거든.)

108019 @ 예, 여기는 우연을 그렇게 활용헌 거라예?(예, 여기는 텃밭을 그렇게 활용한 거네요?)

108019 #1 시월달에 들어왕은에 이삼월 뒈민 이삼월 뒈민 이거 엇어져불어.(시월에 들어와서 이삼월 되면 이삼월 되면 이거 없어져버려.)

108019 #2 소 다 먹엉 나가불민 매기[492].(소 다 먹어서 나가버리면 '매기'.)

108019 #1 매기주.('매기'지.)

108019 @ 매기. 그렇게 이제 하고. 집 저기 울타리를 하잖아예? 여기는. 울타리를 뭐렌 허여?('매기'. 그렇게 이제 하고. 집 저기 울타리를 하잖아요? 여기는. 울타리를 뭐라고 해?)

108019 #1 울담.(울담.)

108019 @ 울담. 음, 울담이고 허면 또 삼춘 저기 올레에서 들어올 때도 돌들 이렇게 놓지 안 헙니까?(울담. 음, 울담이고 하면 또 삼촌 저기 오래에서 들어올 때도 돌들 이렇게 놓지 안 합니까?)

108019 #1 아, 그건 팡돌[493].(아, 그건 '팡돌'.)

108019 @ 집에 영 비 올 때 으.(집에 이렇게 비 올 때 으.)

108019 #1 그게 비가 오면은.(그게 비가 오면.)

108019 @ 으.(으.)

108019 #1 이 땅이 수평 뒌 디는 물이 비와도 싹싹 빠지지만은.(이 땅이 수평 된 데는 물이 비와도 싹싹 빠지지만.)

108019 @ 네.(네.)

108019 #1 땅이 수평 안 뒌 디는 물이 고인 디가 잇거든.(땅이 수평 안 된 데는 물이 고인 데가 있거든.)

108019 @ 어.(어.)

108019 #1 게니까 그거를 방지허기 위헤서 이 담 쪽으로 돌을 놔.(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담 쪽으로 돌을 놔.)

108019 @ 으.(으.)

108019 #1 게 팡돌, 거.(게 '팡돌', 거.)

108019 @ 건 팡.(건 '팡'.)

108019 #1 건 블랑 오라. 블랑 들어오라고.(건 밟아서 와라. 밟아서 들어오라고.)

108019 @ 거는 팡돌이고 집 앞에 놓는 거는 잇돌?(거는 '팡돌'이고 집 앞에 놓

492) '매기'는 '물건이 다되어 없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493) 여기에서 '팡돌'은 디디고 갈 수 있게 듬성듬성 놓은 돌을 말한다.

는 거는 ‘잇돌’?)
108019 #1 잇돌.(댓돌.)
108019 @ 건 이름이 ᄐᆞ난 거다예? 어.(건 이름이 다른 거네요? 어.)

초가지붕 이기

108026 @ 이제 이렇게 하고, 어 그다음엔 또 삼춘한테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집 이는 얘기는 안 헌 거 닮아, 예. 집 보통 여기서는 멧 년에 ᄒᆞᆫ 번 일어수가?(이제 이렇게 하고, 어 그다음엔 또 삼촌한테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지붕 이는 얘기는 안 한 거 같아, 예. 집 보통 여기서는 몇 년에 한 번 이었습니까?)
108026 #1 일 년에 ᄒᆞᆫ 번.(일 년에 한 번.)
108026 @ 집 일 년에 ᄒᆞᆫ 번 일어마씨? 이 동네는, 옛날부터.(집 일 년에 한 번이어요? 이 동네는 옛날부터.)
108026 #1 으.(으.)
108026 @ 아, 그 여기 ᄇᆞ름 쎈 편이우과?(아, 그 여기 바람 센 편입니까?)
108026 #1 ᄇᆞ름이 좀 강하주.(바람이 좀 강하지.)
108026 @ 아, 그래서 일 년에 ᄒᆞᆫ 번 이는 거라예?(아,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이는 거네요?)
108026 #1 장마도 강하고.(장마도 강하고.)
108026 @ 비도 하영 오고 하니까. 게믄 집 일젠 허면 준비하는 게 잇어얄 거 아니우과? 어떻게 헤 건?(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면 집 이려고 하면 준비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 건?)
108026 #1 저 동지 뒈민 밧듸 강 새, 새 비여 와사주.(저 동지 되면 밭에 가서 띠, 띠 베어 와야지.)
108026 @ 음.(음.)
108026 #1 동지 뒈민.(동지 되면.)
108026 @ 예.(예.)
108026 #1 새 비여당 줄 놓.(띠 베어다가 줄 놓아서.)
108026 @ 예.(예.)
108026 #1 줄 놓는 거 알아져?(줄 놓는 거 알아져?)
108026 @ 예. 그 영.(예. 그 이렇게.)
108026 #4 웃음.(웃음.)
108026 #1 줄 놔.(줄 놔.)
108026 @ 예.(예.)
108026 #1 또 십이월 뒈민 지붕 더프는 거주.(또 십이월 되면 지붕 덮는 거지.)
108028 @ 게난 줄 놀 때도 이렇게 영 허영은에 그 헤주는 사름도 잇고. 영허영 돌리는 거 이건 줄 빈덴 아까.(그러니까 줄 놓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해주

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 이건 줄 꼰다고 아까.)

108028 #1 거 줄 비는 사름.(거 줄 꼬는 사람.)

108028 @ 예, 줄 비는 사름.(예, 줄 꼬는 사람.)

108028 #1 이건 줄 놓는 사름.(이건 줄 놓는 사람.)

108028 @ 영 허영 영 허는 사람은 줄 놓는 사람? 그다음에 앚앙은에.(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줄 놓는 사람? 그다음에 앉아서.)

108028 #1 앚앙 내중엔 줄 어울릴 때는 이거 뒤치기[494]라고 헤서이 뒤 돌리는 사름.(앉아서 나중엔 줄 어울릴 때는 이거 '뒤치기'라고 해서 뒤 돌리는 사람.)

108028 @ 예.(예.)

108028 #2 뒤치는[495] 거.('뒤치는' 거.)

108028 @ 뒤치는 거? 그다음에 그거 허는 도구도 이름이 다 틋날 거 아니예? 줄 빌 때 쓰는 거는 뭐우꽈?('뒤치는' 거? 그다음에 그거 하는 도구도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예요? 줄 벨 때 쓰는 거는 뭡니까?)

108028 #1 호렝이[496].('호렝이'.)

108028 @ 호렝이.('호렝이'.)

108028 #1 이거 뒤에서 돌리는 건 뒤치기.(이거 뒤에서 돌리는 건 '뒤치기'.)

108028 #2 뒤치기.('뒤치기'.)

108029 @ 뒤치기. 그다음에 영 저 줄 놓는 거는?('뒤치기'. 그다음에 이렇게 저 줄 놓는 거는?)

108029 #1 영 어울리는 거.(이렇게 어울리는 거.)

108029 @ 어울리는 거.(어울리는 거.)

108029 #1 그건 사름이 허는디 사름이 이 손이.(그건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이 손이.)

108029 #2 사름 손으로 헐 거주.(사람 손으로 할 거지.)

108029 #1 원래는 옛날은 사람 손으로 헷어, 이거.(원래는 옛날은 사람 손으로 했어, 이거.)

108029 @ 아.(아.)

108029 #1 손으로 헷는디 사람이 이젠 하도 손이 아프니깐 이젠 나무로 헤서 거 줄 어울리는 걸 만들엇어. 나무로.(손으로 했는데 사람이 이젠 하도 손이 아프니깐 이젠 나무로 해서 거 줄 어울리는 걸 만들었어. 나무로.)

108029 @ 아, 옛날엔 손으로만 헤신디예?(아, 옛날엔 손으로만 했는데요?)

108029 #2 옛날사 손으로 다.(옛날이야 손으로 다.)

108029 #1 이젠 머리가 비상하니깐 걸 만든 거지.(이젠 머리가 비상하니깐 걸 만든 거지.)

---

494) '뒤치기'는 두 가닥의 줄을 하나로 꼬아 '집줄'을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돌물레'에 해당하는 도구다.

495) '뒤치는'은 '뒤로 돌리는'의 의미다.

496) '호렝이'는 줄, 참바 따위를 꼴 때 쓰는 도구다. 지역에 따라 '훼롱', '훼롱이'라고 한다.

108027 @ 게난 이제 네 명이 필요헌 거구나. 그렇게 줄 놓는 사름. 삼춘네 삼간집 헐 때 옛날 그 지붕 일젠 허면 예, 새가 멧 개 멧 뭇 정도 필요헤?(그러니까 이제 네 명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줄 놓는 사람. 삼촌네 삼간집 할 때 옛날 그 지붕 이려고 하면 예, 띠가 몇 개 몇 뭇 정도 필요해?)

108027 #1 새가.(띠가.)

108027 @ 예.(예.)

108027 #2 삼간집.(삼간집.)

108027 #1 이십 평 기준으로 한 백이십 단.(이십 평 기준으로 한 백이십 단.)

108027 @ 백이십 단. 백이십 단 허는데, 그 이만큼 큰 게 아니라 이 줄 놓는 거는 새가 아니라 또 다른?(백이십 단. 백이십 단 하는데, 그 이만큼 큰 게 아니라 이 줄 놓는 거는 띠가 아니라 또 다른?)

108027 #1 각단[497]이엔.('각단'이라고.)

108027 #2 각단이엔 ᄒᆞ끔 쫄른 거.('각단'이라고 조금 짧은 거.)

108027 #1 각단인디 옛날이 각단인디 지금은 다 새로 헤여.('각단'인데 옛날이 '각단'인데 지금은 다 띠로 해.)

108027 #2 짧은 거.(짧은 거.)

108027 @ 아.(아.)

108027 #1 각단이 ᄯᅮ로 비어오는 사름 엇어.('각단'이 따로 베어오는 사람 없어.)

108027 @ 아.(아.)

108027 #1 엿날은 각단엔 헌 걸.(옛날은 '각단'이라고 한 걸.)

108027 #2 ᄍᆞᆲ은 거 ᄍᆞᆲ은 거.(짧은 거 짧은 거.)

108028 #1 낫[498]으로 후려근에.(낫으로 후려서.)

108028 @ 예.(예.)

108028 #1 헷는디 이젠 그런 게 없어.(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

108028 @ 그런 게 없어예. 옛날엔 각단을 헷잖아예?(그런 게 없다고요. 옛날엔 '각단'을 했잖아요?)

108028 #1 으.(으.)

108028 @ 거고 이 저 집 일 때도 새 더프지 안 헙니까?(그러고 이 저 집 일 때도 띠 덮지 안 합니까?)

108028 #1 으.(으.)

108028 @ 거기도 진 것도 잇고 ᄍᆞ른 새도 놀 거 아니?(거기도 긴 것도 있고 짧은 띠도 놓을 거 아니?)

108028 #1 으.(으.)

108028 @ 어디는 진 새 노고 어디는 ᄍᆞ른 새 논 걸.(어디는 긴 띠 놓고 어디는 짧은 띠 놓은 걸.)

---

497) '각단'은 지붕을 동여맬 때 사용하는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498) 여기에서 '낫'은 날이 길고 서서 베는 도구를 말한다. 앉아서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는 '호미'라고 한다.

108028 #1 어디 진 새 어디 쯔른 새는 엇고.(어디 긴 띠 어디 짧은 띠는 없고.)

108028 @ 예.(예.)

108028 #1 왜 진 새가 하나 더프면은 쯔른 새는 두 번을 덮어줘야 뒈. 경헤야 이 길이가 ᄀᆞ따.(왜 긴 띠가 하나 덮으면 짧은 띠는 두 번을 덮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이 길이가 같아.)

108028 @ 아. 건 따로 허는 건 엇고예. 건데 줄은 뚜, 뚜나지 안 헙니까?(아. 건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줄은 다, 다르지 안 합니까?)

108028 #1 진줄[499] 쯔른줄[500] 잇주.('긴줄' '짧은줄' 있지.)

108028 @ 기지예? 진줄은 어느 쪽으로?(그렇지요? '긴줄'은 어느 쪽으로?)

108028 #1 긴줄은 이거 길게 나간 게 진줄이고 쯔른줄은.('긴줄'은 이거 길게 나간 게 '긴줄'이고 '짧은줄'은.)

108028 @ 게믄 가로로 메는 거는 진줄.(그러면 가로로 매는 거는 '긴줄'.)

108028 #1 아 길이로 메는 건 긴줄.(아, 길이로 매는 건 '긴줄'.)

108028 #2 길이로 메는 게 긴줄.(길이로 매는 게 '긴줄'.)

108028 #1 가로로 메는 건 쯔른줄.(가로로 매는 건 '짧은줄'.)

108028 @ 아, 길이로 메는 게 진줄.(아, 길이로 매는 게 '긴줄'.)

108028 #2 가로 세로 메니까.(가로 세로 매니까.)

108028 @ 저쪽 어 가로로 허는 거는?(저쪽 어 가로로 하는 거는?)

108028 #1 쯔른줄.('짧은줄'.)

108028 @ 쯔른줄. 게믄 그 진줄은 몇 개 필요하고 ᄌᆞ른줄은 멧 개 필요헤?('짧은줄'. 그러면 그 '긴줄'은 몇 개 필요하고 '짧은줄'은 몇 개 필요해?)

108028 #1 삼관집이면 보통 스물일곱 개쯤 필요허곡, 긴줄이.(삼간집이면 보통 스물일곱 개쯤 필요하고, '긴줄'이.)

108028 @ 으.(으.)

108028 #1 ᄌᆞ른줄은 마흔두 개쯤 필요헤.('짧은줄'은 마흔두 개쯤 필요해.)

108030 @ 마흔두 개. ᄌᆞ른줄이 더 하영 필요헌 거구나예?(마흔두 개. '짧은줄'이 더 많이 필요한 거군요?)

108030 #1 아, 훨씬 많이.(아, 훨씬 많이.)

108030 @ 아, 게믄 삼춘 줄 무끄젠 허민 아까 여기 안 나왓는데 앞에 대낭으로 딱 헤갖고.(아, 그러면 삼촌 줄 묶으려고 하면 아까 여기 안 나왔는데 앞에 대나무로 딱 해갖고.)

108030 #1 으, 거왕.(으, 평고대.)

108030 @ 거왕예? 게 그 거왕 허는 거는 주로 뭘로 헤여?(평고대요? 그래, 그 평고대 하는 거는 주로 무엇으로 해요?)

---

499) '진줄'은 '진줄'은 길이가 긴 줄이라는 뜻이다. 초가지붕을 인 후에 지붕을 단단히 동여맬 때 사용하는, 길이로 매는 줄을 말한다.

500) '쯔른줄'은 '짧은 줄'이라는 의미다. 초가지붕을 인 후에 지붕을 단단히 동여맬 때 사용하는, 가로로 매는 줄을 말한다.

108030 #1 대나무로.(대나무로.)

108031 @ 왕대로? 으, 거왕. 그 줄 지붕 일젠 헤도 사람 빌어사지 안합니까?(왕대로? 으, 평고대. 그 줄 지붕 이려고 해도 사람 빌어야지 않습니까?)

108031 #1 경허주.(그렇게 하지.)

108031 #2 사름, 으라 사름.(사람, 여러 사람.)

108031 @ 그런 사름을, 집 이는 사름을 뭐렌 불르는 일름은 엇수과?(그런 사람을, 지붕 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까?)

108031 #1 거 집[501] 이는 사름이주게. 뭐 이름이 무신거.(거 지붕 이는 사람이지. 뭐 이름이 무엇.)

108031 #4 웃음.(웃음.)

108031 @ 아이고, 경허여도.(아이고, 그렇게 해도.)

108031 #1 그때 송순원이 헤도 뒈여.(그때 송순원이 해도 되어.)

108031 #4 웃음.(웃음.)

108031 @ 웃음. 그런 식으로. 옛날에 집 일젠 허면 혼자가 안 뒈는 거잖아. 다 수눌엉헷잖우꽈?(웃음. 그런 식으로. 옛날에 집 이려고 하면 혼자가 안 되는 거잖아. 다 품앗이했잖습니까?)

108031 #1 그렇주.(그렇지.)

108031 @ 수눌엉 허젠 허면은 그 수눈 사름덜안티 물도 질엉 와도 뒈고. 아, 물은 안 질어왓구나. 그때는.(품앗이 하려고 하면 그 품앗이한 사람들한테 물도 길어서 와도 되고. 아, 물은 안 길어왔구나. 그때는.)

108031 #1 그거를 나가 설명허겟는디이.(그거를 내가 설명하겠는데.)

108031 @ 예.(예.)

108031 #1 우리가 어린 때 한 이십 대까지는 줄 이 집 이는 것도 수눌음이라고 헤서.(우리가 어릴 때 한 이십 대까지는 줄 이 지붕 이는 것도 품앗이라고 해서.)

108031 @ 예.(예.)

108031 #1 우리가 오널은 이집이 거 일민 내일은 저 집의 강 일어주곡 돌아가면서 이렇게 헷는데.(우리가 오늘은 이집의 거 이면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이어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108031 @ 예.(예.)

108031 #1 이게 한 이십년 전부터는 국가기능보유 이디 문화재로 지정이 뒈니까 이 집 이는 더프는 집값이 나와요.(이게 한 이십년 전부터는 국가기능보유 여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이 지붕 이는 덮는 집값이 나와요.)

108031 @ 예, 예. 맞수다.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08031 #1 돈이 나와요.(돈이 나와요.)

108031 @ 으.(으.)

108031 #1 그러니까 이제부터는.(그러니까 이제부터는.)

501) 여기에서 '집'은 지붕의 의미로 쓰였다.

108031 @ 으.(으.)

108031 #1 우리 무상으론 안 헤주겟다. 이젠 돈 받기 시작헌 거야.(우리 무상으론 안 해주겠다. 이젠 돈 받기 시작한 거야.)

108031 @ 음, 음.(음, 음.)

108031 #1 그래서 돈 받고 허니까.(그래서 돈 받고 하니까.)

108031 @ 게난. 게니까 옛날에 그 문화재 할 때, 천구백팔십년 전에. 그때 수눌엉은에 헤서 헷던 그 얘기 헤줍서.(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화재 할 때, 천구백팔십년 전에. 그때 품앗이해서 해서 했던 그 얘기 해주십시오.)

108031 #1 그때에는 동네 돌아가면서 헷주게.(그때에는 동네 돌아가면서 했지.)

108031 @ 예.(예.)

108031 #1 댓 사람이 오늘은 우리 거 허민 낼. 게난 이게 옛날은 아침에 일찍 시작헤서 한 아홉 시 전에. 그 집이 한 세 개가 뒛든 네 개가 뒛든 아침에 강 끗내와근에 잘허민 조반 얻어먹고 술이나 흔 잔 얻어먹곡 잘허민.(댓 사람이 오늘은 우리 거 하면 낼. 그러니까 이게 옛날은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한 아홉 시 전에. 그 집이 한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아침에 가서 끝내서 잘하면 조반 얻어먹고 술이나 한 잔 얻어먹고 잘하면.)

108031 #2 담베나 흔 갑.(담배나 한 갑.)

108031 #1 담베도 옛날은 이 골련이 없었어요.(담배도 옛날은 이 궐련이 없었어요.)

108031 @ 예.(예.)

108031 #1 저 이 ᄆᆞᆯ아초[502].(저 이 'ᄆᆞᆯ아초'.)

108031 #2 봉초.(봉초.)

108031 #1 그거 저 헨 주고 헷주.(그거 저 해서 주고 했지.)

108031 #2 ᄆᆞᆯ아초, 봉초.('ᄆᆞᆯ아초', 봉초.)

108031 #1 이제야 뭐 이 저 담베가 나왕 이 담베 얘기하는 거주. 옛날은 우리 처음 어린 때 집 일레 뎅길 때는.(이제야 뭐 이 저 담배가 나와서 이 담배 얘기하는 거지. 옛날은 우리 처음 어릴 때 집 이러 다닐 때는.)

108031 #2 봉초. 입담베가 잇어나지 아녓어.(봉초. 잎담배가 있었었지 않았어.)

108031 #1 입담베엔 헌 거는 집에서 담베 키완 여껀 ᄆᆞᆯ른 거.(잎담배라고 한 거는 집에서 담배 키워서 엮어서 마른 거.)

108031 @ 예.(예.)

108031 #2 톧아당 ᄆᆞᆯ른 거.(뜯어다가 마른 거.)

108031 #1 이걸 줘근에 칼 주멍 썰엉 가렌 헤여.(이걸 줘서 칼 주면서 썰어서 가라고 해.)

108031 @ 아.(아.)

108031 #1 우리 거 헤봣덴 허니까.(우리 거 해봤다고 하니까.)

---

502) 'ᄆᆞᆯ아초'는 잘게 썬 잎담배를 종이에 넣어서 말아서 피우는 담배이다.

108031 @ 아.(아.)

108031 #1 헷는디 그다음 봉초가 나오기 시작허고 그다음은 궐련이 나오기 시작헤서 담베를 헷주, 뭐.(했는데 그다음 봉초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은 궐련이 나오기 시작해서 담배를 했지, 뭐.)

108031 @ 그때는 음식 같은 것도.(그때는 음식 같은 것도.)

108031 #1 음식은.(음식은.)

108031 @ 특별하게 헷덴 헨게?(특별하게 했다고 하던데?)

108031 #1 특별헌 게 옛날은 못사니까 우리가 성읍리에서는 솔직이 말허민 백반이옌 헌 건 먹어보질 못헷거든.(특별한 게 옛날은 못사니까 우리가 성읍리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백반이라고 한 건 먹어보질 못했거든.)

108031 @ 예.(예.)

108031 #1 그때는 집 이는 날은 특별허다고 헤서 잘허민 곤쏠에다가 이 저 쫌이 저 무신거 피쏠 있어.(그때는 지붕 이는 날은 특별하다고 해서 잘하면 흰쌀에다가 이 저 좀 이 저 무엇 핍쌀 있어.)

108031 @ 예, 피쏠.(예, 핍쌀.)

108031 #1 피쏠 서끄곡 저 오토미.(핍쌀 섞고 저 옥돔.)

108031 @ 예.(예.)

108031 #1 셍성.(옥돔.)

108031 @ 으.(으.)

108031 #1 그거 사당 국 끌리곡 헤영 그자 식사 대접헷주.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그거 사다가 국 끓이고 해서 그저 식사 대접했지.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108031 @ 으.(으.)

108031 #1 그자 뭐 돌아가면서 허니까.(그저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구조

108020 @ 서로 돌아다니멍 허니까예. 이젠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도새기 질롯지 아녀우과?(서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요. 이젠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돼지 길렀지 않습니까?)

108020 #1 어 질롯주.(어 길렀지.)

108020 @ 그 돗통은 어떤 식으로 만들아마씨? 여기 불 어디 잇수과?(그 돼지우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 불 어디 있습니까?)

108020 #1 뭐?(뭐?)

108020 @ 여기 방에 불.(여기 방아 불.)

108020 #1 저거. 이짝 거.(저거. 이쪽 거.)

108020 #4 이펜이 거. 이펜이 거.(이편의 거. 이편의 거.)

108020 @ 으.(으.)

108020 #1 돌.(돌.)

108020 @ 돗, 돗 질루는 디?(돼지, 돼지 기르는 데?)

108020 #1 도새기 질루는 딘 방위 봥 질롯주.(돼지 기르는 덴 방위 봐서 길렀지.)

108020 @ 보통 어느 방위 허여?(보통 어느 방위 해?)

108020 #1 보통은 이 건, 근방이라고 헤서.(보통은 이 건, 간방(艮方)이라고 해서.)

108020 @ 예.(예.)

108020 #1 건방은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503]허고 이 남산망[504] 사이를 근방이라고 헤여.(건방은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하고 이 남산망 사이를 간방이라고 해.)

108020 @ 예, 근방? 으.(예, 간방? 으.)

108020 #1 게난 이쪽 방을 택헤영 이 화장실을 멘들어야 도새기 잘 큰덴 헤근에 허영 경헤낫주게.(그러니까 이쪽 방(方)을 택해서 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지 잘 큰다고 해서 해서 그렇게 했었지.)

108020 @ 으, 그러면 도새기 질루는 디를 뭐렌 골안? 여기선.(으, 그러면 돼지 기르는 데를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선.)

108020 #1 돗통.(돼지우리.)

108020 @ 돗통. 돗통 허고. 조일훈 하르방넨 강 보난?(돼지우리. 돼지우리 하고. 조일훈 할아버지넨 가서 보니까?)

108020 #1 돌로.(돌로.)

108020 @ 으, 돌로 헤갖고예?(으, 돌로 해갖고요?)

108020 #1 지붕. 그거 그거 옛날 게난 잘사는 사름이난 그걸 헷주.(지붕. 그거 그거 옛날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이니까 그걸 했지.)

108020 @ 예.(예.)

108020 #1 옛날.(옛날.)

108020 #2 아, 그디 돌로 뒛어?(아, 거기 돌로 됐어?)

108020 #1 그디허고 몽구[505] 살아난 딘 시방도 돌로 뒌 거 그냥 잇수게.(거기하고 몽구 살았던 덴 시방도 돌로 된 거 그냥 있습니다.)

108020 @ 어.(어.)

108020 #1 돌로 뒌 거 잇수게.(돌로 된 거 있어요.)

108020 @ 경헤근에.(그렇게 해서.)

108020 #2 몽고 살아난 디.(몽구 살았던 데.)

108020 #1 으.(으.)

108020 #2 거 어디라? 몽구 살아난 디?(거 어디야? 몽구 살았던 데?)

108020 #1 거 누게 안방수네 살아난 디.(거 누구 안방수네 살았던 데.)

108020 #2 그디가 몽고 살아난 딘가?(거기가 몽구 살았던 덴가?)

---

503) '영주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소재의 오름 이름이다.

504) '남산망'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소재의 오름 이름이다.

505) '몽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살았던 조몽구를 말한다. '몽구'를 제보자는 '몽고'라고도 표현하였다.

108020 #1 거 몽구 살아난 디. 그디 강 봅서. 그디도 이 돌 화장실 지붕이 돌로 뒈어수다.(거 몽구 살았던 데. 거기 가서 보십시오. 거기도 이 돌 화장실 지붕이 돌로 되었습니다.)

108020 @ 으.(으.)

108020 #1 그디 허곡 저 아니 새로 아니 어디냐. 저 태범이네 집.(거기 하고 저 아니 띠로 아니 어디냐. 저 태범이네 집.)

108020 #2 저.(저.)

108020 #1 공문동산[506] 아래. 그 폭낭 아래.(공문동산 아래. 그 팽나무 아래.)

108020 #2 그디도 돌로 뒈어 잇어?(거기도 돌로 돼 있어?)

108020 #1 그디도 돌로 뒈어 잇수다.(거기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108020 @ 으, 그런 식으로 돗통. 돗통 할 거잖아예? 돗통 하면은 도새기가 사는 집도 영 멘들어 주지 아녓수가?(으, 그런 식으로 돼지우리. 돼지우리 할 거잖아요? 돼지우리 하면 돼지가 사는 집도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108020 #1 아이고, 맞아.(아이고, 맞아.)

108020 @ 건 무신거렌 헤?(건 무엇이라고 해?)

108020 #1 그 도새기집[507].(그 '도새기집'.)

108020 @ 게민 걸 도새기집?(그러면 걸 '도새기집'?)

108020 #1 으.(으.)

108020 @ 돗집?('돗집'?)

108020 #1 으. 돗집이 아니라 옛날 도새기집이엔 헷주.(으. '돗집'이 아니고 옛날 '도새기집'이라고 했지.)

108020 #2 도새기집.('도새기집'.)

108020 #1 돗집이엔 말은 아녀고 도새기집.('돗집'이라는 말은 않고 '도새기집'.)

108020 @ 여기는 돗집이라는 말 안허는 거구나예? 도새기집.(여기는 '돗집'이라는 말 안하는 거군요? '도새기집'.)

108020 #1 으.(으.)

108020 @ 도새기집 허게 뒈면 돗통 그 주변에서 보면 가이네 이제 것 먹는 디가 잇일 거 아니우과예?('도새기집' 하게 되면 돼지우리 그 주변에서 보면 걔네 이제 먹이 먹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108020 #1 으.(으.)

108020 @ 건.(건.)

108020 #2 도고리[508].('도고리'.)

108020 #1 돌도고리[509].('돌도고리'.)

108020 @ 돌도고리.('돌도고리'.)

---

506) '공문동산'은 성읍1리의 지명 이름이다.
507) '도새기집'은 돼지우리 안에 집처럼 꾸며진 공간이다. 이 공간을 이용하여 돼지가 잠을 잔다.
508) '도고리'는 나무나 돌로 둥글넓적하게 만든 그릇이다.
509) '돌도고리'는 돌로 둥글넓적하게 만든 그릇이다. 주로 돼지 먹이를 주는 그릇으로 활용된다.

108020 #1 돌도고리.(‘돌도고리’.)

108020 @ 으, 돌도고리 놩 허고, 밖에는 또 영 항 같은 거 놓잖아예?(으, ‘돌도고리’ 놔서 하고, 밖에는 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놓잖아요?)

108020 #1 예 그건.(예 그건.)

108020 @ 그건 뭐렌 골아?(그건 뭐라고 말해?)

108020 #1 건 궂인물항[510].(건 ‘궂인물항’.)

108020 @ 궂인물항도. 궂인물항 욒의는?(‘궂인물항’도. ‘궂인물항’ 옆에는?)

108020 #1 이 웨냐민.(이 왜냐면.)

108020 @ 으.(으.)

108020 #1 옛날은 저 그릇 씻을 때 비누 같은 거 뭐 이 세척기를 안 쓰잖아.(옛날은 저 그릇 씻을 때 비누 같은 거 뭐 이 세척기를 안 쓰잖아.)

108020 @ 예.(예.)

108020 #1 게민 이거 싯져난 물이.(그러면 이거 씻었던 물에.)

108020 @ 예.(예.)

108020 #1 밥티도 들어가곡 그게 궂은물이 뒈서.(밥알도 들어가고 그게 구정물이 돼서.)

108020 #2 도새기 주는 물.(돼지 주는 물.)

108020 #1 그거 그거 갖당 도새기 줫주.(그거 그거 갖다가 돼지 줬지.)

108020 @ 예, 도새기 저기 주는 그 궂인물항 잇잖우과양. 그 옆에 또 항이 하나 잇지예?(예, 돼지 저기 주는 그 ‘궂인물항’ 있잖습니까요. 그 옆에 또 항아리가 하나 있지요?)

108020 #1 도새기 체 놓는 거.(돼지 겨 놓는 거.)

108020 @ 체 놓는 것도 잇고. 게믄 하나 더 잇인게. 오줌항은 어디 놔?(겨 넣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하나 더 있는데. ‘오줌항’은 어디 놔?)

108020 #1 오줌항[511]은 그 쪼끔 떨어진 디 잇엇주.(‘오줌항’은 그 조금 떨어진 데 있었지.)

108020 @ 아, ᄒᆞ꼼 떨어진 디.(아, 조금 떨어진 데.)

108020 #4 신 디 잇고 엇인 디도 잇고.(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고.)

108020 #2 오줌항은 아무 집의나 안 놔.(‘오줌항’은 아무 집에나 안 놔.)

108020 @ 아, 아무 집의나 안 놔마씨?(아, 아무 집에나 안 놔요?)

108020 #1 집집마다 놓진 아녀고. 젊은 사름덜은 안 놓주게.(집집마다 놓진 않고. 젊은 사람들은 안 놓지.)

108020 @ 아아, 그래도 게난 옛날은 오줌 헤서 거름이난.(아아, 그래도 그러니까 옛날은 오줌 해서 거름이니까.)

108020 #1 옛날은, 옛날은 늙신네덜이 오줌요강을 밤에 즘잘 때 이제 방에 놩

510) ‘궂은물항’은 구정물을 받아서 넣어두는 항아리다.

511) ‘오줌항’은 오줌을 받아서 모으기 위하여 돼지우리 곁에 두는 항아리다.

오줌 쌋당 뒷날 아척 간 비우곡 헷주. 젊은 사름덜 베겻듸 강 쌋주, 무신.(옛날은, 옛날은 늙으신네들이 요강을 밤에 잠잘 때 이제 방에 놔서 오줌 누웠다가 뒷날 아침 가서 붓고 했지. 젊은 사람들 바깥에 가서 쌌지, 무슨.)

108020 #2 항아리 놩 오줌 받앙은엥에 저 무신.(항아리 놔서 오줌 받아서 저 무슨.)

108020 #1 걸름 허젠, 걸름 허젠도 헷주.(거름 하려고, 거름 하려고도 했지.)

108020 #4 게도 엿날에 씨집갈 때도.(그래도 옛날에 시집갈 때도.)

108020 #2 마농에 주젠.(마늘에 주려고.)

108020 #4 오줌요강은 다 헤연 갓주.(요강은 다 해서 갔지.)

108020 #1 아, 그거는.(아, 그거는.)

108020 #4 오줌요강 헤영 가낫어.(요강 해서 갔었어.)

108020 #1 그거는 새각시, 새 새각시덜 의무라. 오줌요강 허는 거.(그거는 새색시, 새 새색시들 의무야. 요강 하는 거.)

108020 #2 항 놩 오줌 받는 건 저 걸름 허젠.(항아리 놔서 오줌 받는 건 저 거름 하려고.)

108020 @ 예.(예.)

108020 #2 ᄂᆞᆯ팟듸도 주곡.(배추밭에도 주고.)

108020 #4 웃음.(웃음.)

108020 #1 보리밧듸도 강 줫수게.(보리밭에도 가서 줬습니다.)

108020 #2 보리밧듸도 주곡.(보리밭에도 주고.)

108020 @ 게고 그 우리.(그러고 그 우리.)

108020 #2 옛날 오줌이 오죽 걸어낫어.(옛날 오줌이 오죽 걸었었어.)

108021 @ 그 응가나 허젠 허면 그 화장실도 아까 돗집 그 도새기집 잇잖아예? 그다음 우리 볼 일 보는 디.(그 '응가'나 하려고 하면 그 화장실도 아까 '돗집' 그 '도새기집'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볼 일 보는 데.)

108021 #1 으.(으.)

108021 #2 짇을, 짇을팡 놔사 그디 강 똥 싸문 도새기도 먹곡게?(디딜, 부춘돌 놔야 거기 가서 똥 누면 돼지도 먹고?)

108021 @ 무슨 팡?(무슨 '팡'?)

108021 #1 짇을팡.(부춘돌.)

108021 @ 짇을팡. 돌 이렇게 논 게 짇들팡예? 그다음에 여기도 영 돌로 영 쌓아갖고 영 고망도 영 내우잖아예? 그런 것도 이름 이수과?(부춘돌. 돌 이렇게 놓은 게 부춘돌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갖고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것도 이름 있습니까?)

108021 #2 것가 짇들팡 아니?(그것이 부춘돌 아니?)

108021 #4 짇들팡이주.('부춘돌'이지.)

108021 #1 요렇게 돌을 쌓아이.(요렇게 돌을 쌓아.)

108021 @ 예.(예.)

108021 #1 일로 도야지가 들어왕 이디 강 볼일 보면은 먹어.(일로 돼지가 들어와서 여기 가서 볼일 보면 먹어.)

108021 @ 예.(예.)

108021 #1 이 우의 또 이렇게 ᄀᆞ로 이렇게 놔.(이 위에 또 이렇게 가로 이렇게 놔.)

108021 @ 예.(예.)

108021 #1 여기 사름이 앚앙 똥 싸민 이레 떨어지게 만들어.(여기 사람이 앉아서 똥 누면 이레 떨어지게 만들어.)

108021 #2 것가 디들팡.(것이 부춘돌.)

108021 @ 경허영 영 디디는 거난 디딜팡 헌 거구나. 디딜팡 이제 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예전에는 영 저기 그 통시에 가면 여기 통시엔 헙니까? 여기도.(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디는 거니까 '디딜팡' 한 거구나. 부춘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예전에는 이렇게 저기 그 돼지우리에 가면 여기 '통시'라고 합니까? 여기도.)

108021 #1 으. 통시 맞아.(으. '통시' 맞아.)

108021 #4 돗통.(돼지우리.)

108021 @ 돗통예. 돗통.(돼지우리요, 돼지우리.)

108021 #4 돗통.(돼지우리.)

108021 @ 사름 영 와가믄 영 헹은에 베렁. 누게 와가민 거기에서 인기척 허고.(사람 이렇게 와가면 이렇게 해서 봐서. 누구 와가면 거기에서 인기척 하고.)

108021 #2 건 싸멍 똥 싸멍 베렁 사름 와가민 나 이디 잇노렌 응[512] 허는 거주.(건 누면서 똥 누면서 봐서 사람 와가면 나 여기 있노라고 '응' 하는 거지.)

108021 #4 웃음.(웃음.)

108021 @ 이치룩 헷어예? 나 여기 잇이난 건들지 마 이렇게.(이처럼 했다고요? 나 여기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108021 #2 으.(으.)

108021 @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8021 #2 지금 화장실이나 마찬가지.(지금 화장실이나 마찬가지.)

108021 #4 웃음.(웃음.)

108021 @ 예전에 그 또 저기 돗통에 보면 이 막뎅이 같은 것도 이제 놔두지 안헙니까?(예전에 그 또 저기 돼지우리에 보면 이 막대기 같은 것도 이제 놔두지 안합니까?)

108021 #1 건.(건.)

108021 #2 건 도새기 다울리젠게.(건 돼지 쫓으려고.)

108021 #1 도새기 다울리젠.(돼지 쫓으려고.)

512) 여기에서 '응'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장식하며 내는 소리다.

108021 #2 똥 싸민 머리 똥 싸민 떨민 사름 옮기카부덴 도새기 오지 말라고.(똥 누면 머리 똥 누면 떨면 사람 옮길까봐 돼지 오지 말라고.)

108021 #1 이런 공간이 야튼 디는 야튼 디는 설사 난 사름덜.(이런 공간이 얕은 데 얕은 데는 설사 난 사람들.)

108021 @ 예.(예.)

108021 #4 다 잊어벼신디.(다 잊어버렸는데.)

108021 @ 예.(예.)

108021 #1 볼일 보민 머리빡에 강 도새기가 탁탁 털민 이게 튀어오르거든.(볼일 보면 머리빡에 가서 돼지가 탁탁 털면 이게 뛰어오르거든.)

108021 @ 예.(예.)

108021 @ 오래 허는 중 알안 지도 죽어부럼신게. 게난 메낭[513]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 성읍 오니까 특이한 게 이제 그 장독대도 그렇지만 춤[514].(오래 하는 줄 알아서 저도 죽어버리고있네. 그러니까 '메낭'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 성읍 오니까 특이한 게 이제 그 장독대도 그렇지만 '춤'.)

108021 #1 춤.('춤'.)

108021 @ 예.(예.)

108021 #1 건 옛날 물, 물이 어려우난 물 받앙 쓰젠 춤 헷주게.(건 옛날 물, 물이 어려우니까 물 받아서 쓰려고 '춤' 했지.)

108021 @ 게도 다른 동네보단 이 동네가 춤을 하영 멘 거 닮읍디다.(그래도 다른 동네보단 이 동네가 '춤'을 많이 맨 거 같습디다.)

108021 #1 이디는 물 길어올 디가 멀주게. 거리가.(여기는 물 길어올 데가 멀지. 거리가.)

108025 @ 여기는 어디 강 물 질엉와마씨?(여기는 어디 가서 물 길어와요?)

108025 #1 옛날 시건이[515]엔 헌 디가 일 키로.(옛날 '시건이'라고 한 데가 일 키로.)

108025 @ 시건이물. 나 여기 쓴 거 잇수다. 시건이물.('시건이물'. 나 여기 쓴 거 있습니다. '시건이물'.)

108025 #2 시건이 정수암[516].('시건이' '정수암'.)

108025 #1 정수암은 웃동네 사름덜은 정수암 강 질고.('정수암'은 윗동네 사람들은 '정수암' 가서 긷고.)

108025 #2 웃동네 사름은 정수암엔 헌 디.(윗동네 사람은 '정수암'이라고 한 데.)

108025 @ 으음.(으음.)

108025 #1 게난 물 길어오는 게 머니까 먹는 것만 질어왓지. 이 집의서 잇당 발도 싯고 놋도 싯고 허는 건 춤 받안 그걸로도 싯고.(그러니까 물 길어오는 게 머니

513) '메낭'은 소를 맬 수 있도록 외양간 앞에 설치된 나무 기둥을 말한다.
514) '춤'은 나무 따위에 매달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띠로 땋아 만든 물건을 말한다.
515) '시건이'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516) '정수암'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근처에 물이 있다. 달리 '정소암'이라고 한다.

까 먹는 것만 길어왔지. 이 집에서 이따금 발도 씻고 낯도 씻고 하는 건 '츰' 받아서 그것으로도 씻고.)

108025 @ 츰 받젠 허면 보통 그 츰 받젠 허민 그 무슨 낭?('츰' 받으려고 하면 보통 그 '츰' 받으려고 하면 그 무슨 나무?)

108025 #1 아무 낭이라도 건 관곈 없어.(아무 나무라도 건 관곈 없어.)

108025 @ 아무 낭이나 상관없고?(아무 나무나 상관없고?)

108025 #2 제일 좋은 건 돔박낭.(제일 좋은 건 동백나무.)

108025 @ 돔박낭.(동백나무.)

108025 #2 먹는 것도 좋곡. 겐디 아무 낭이라도 츰을 받아사 물을 받을 거난.(먹는 것도 좋고. 그런데 아무 나무라도 '츰'을 받아야 물을 받을 거니까.)

108025 @ 예, 예, 예. 게난 요즘 좋덴 헌 게.(예,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좋다고 한 게.)

108025 #1 츰 받는 물은 보통 먹을 용으로 안 받고.('츰' 받는 물은 보통 먹을 용으로 안 받고.)

108025 @ 아아.(아아.)

108025 #1 그자 발도 씻곡 놎도 싯곡.(그저 발도 씻고 낯도 씻고.)

108025 @ 으.(으.)

108025 #1 모욕이나 허젠.(목욕이나 하려고.)

108025 #2 숭키도 싯곡.(푸성귀도 씻고.)

108025 @ 게믄 츰 받젠 허면은 그 다음에 그 츰을 멘들아야 뒐 거 아니우꽈양? 츰은 뭘로 멘들아?(그러면 '츰'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츰'은 뭐로 만들어?)

108025 #1 새로 멘들주. 새.(띠로 만들지. 띠.)

108025 @ 새로. 어 새로 헤갖고.(띠로. 어 띠로 해갖고.)

108025 #1 놔람지, 놔람지 예프는 식으로 허영은에.(이엉, 이엉 엮는 식으로 해서.)

108025 @ 으음, 게믄 그걸 츰이렌 허는 거라예?(으음, 그러면 그걸 '츰'이라고 하는 거네요?)

108025 #1 으?(으?)

108025 @ 게믄 그 낭은 뭐렌 헙니까?(그러면 그 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108025 #1 뭘?(뭘?)

108025 @ 돔박낭이든 츰 매는 낭은?(동백나무든 '츰' 매는 나무는?)

108025 #1 낭은 츰 동백낭도 잇고 소낭도 잇고 숙대낭도 잇곡 다 잇어. 아무 낭이라도 츰만 메여. 이 저 펭낭에도 메곡.(나무는 참 동백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삼나무도 있고 다 있어. 아무 나무라도 '츰'만 매어. 이 저 팽나무에도 매고.)

108025 @ 게믄 그거를 츰 받는 낭 이런 말은 안 써?(그러면 그거를 '츰' 받는 나무 이런 말은 안 써?)

108025 #1 아니. 춤.(아니. '춤'.)

108025 @ 그냥 춤이렌 하고. 밑에 항아리는?(그냥 '춤'이라고 하고. 밑에 항아리는?)

108025 #1 항아리는 춤 이제 앚당.(항아리는 참 이제 가져다가.)

108025 #2 춤 받는 항엔 허민 뒐 거.('춤' 받는 항아리라고 하면 될 거.)

108025 @ 어, 그냥 그것만 춤 받는 항 허지 낭에 대해서는 이름은 엇구나예? 게믄 새로 이렇게 허는 거는 춤.(어, 그냥 그것만 '춤' 받는 항아리 하지 나무에 대해서는 이름은 없군요? 그러면 띠로 이렇게 하는 거는 '춤'.)

108025 #1 자 대개 잇날도 가정에서 춤 받을 수 잇는 낭이 돔박낭 아니면은.(자 대개 옛날도 가정에서 '춤' 받을 수 있는 나무가 동백나무 아니면.)

108025 @ 예.(예.)

108025 #1 이 다른 낭 혀뜩헌 낭은 이 집안엘 싱그지 아녀주게. 이 좀 필요헌 낭만 집안에 싱것지. 무슨 요새 소낭이나 이런 삼나무 ᄀᆞ튼 건 울안에 그 가정에 싱그지 아녀.(이 다른 나무 이상한 나무는 이 집안엘 심지 않지. 이 좀 필요한 나무만 집안에 심었지. 무슨 요새 소나무나 이런 삼나무 같은 건 울안에 그 가정에 심지 않아.)

108025 @ 으으, 보통 주로 싱그는 게 성읍에서 돔박낭을 하영 싱것수가?(으으, 보통 주로 심는 게 성읍에서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까?)

108025 #1 돔박낭을 주로 많이 썻일 거라.(동백나무를 주로 많이 썼을 거야.)

108032 @ 그다음에 이제 하고 아까 이제 초가 하다가 이제 하는 거예. 그 쓰다 남은 거, 아까 줄로 헤갖고는 아까 주로 뭐 만든 거마씨? 아까.(그다음에 이제 하고 아까 이제 초가 하다가 이제 하는 거요. 그 쓰다 남은 거, 아까 '집줄'로 해갖고는 아까 주로 뭐 만든 거예요? 아까.)

108032 #1 방석.(방석.)

108032 @ 방석 이렇게 만들엇잖아예?(방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108032 #1 그 정젯방석게.(그 부엌방석.)

108032 @ 으.(으.)

108032 #1 정제 부억에 밥헐 때 끌앙 앚앙 불 솜는 거.(정주 부엌에 밥할 때 깔아서 앉아서 불 때는 거.)

108032 @ 정젯방석예?(부엌방석요?)

연장

108033 @ 그다음에 집 짓젠 허믄 삼춘, 연장들이 잇어얄 거 아니우과?(그다음에 집 지으려고 하면 삼촌, 연장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8033 #1 연장사 목시가 아져뎅기는 거주. 그것사 무신 뭐 연장이사.(연장이야 목수가 가져다니는 거지. 그것이야 무슨 뭐 연장이야.)

108033 @ 게난 어떤, 목시 아졍뎅기는 연장덜이 어떤 거 잇어? 옛날 집들?(그러

니까 어떤, 목수 가져다니는 연장들이 어떤 거 있어? 옛날 집들?)

108033 #4 우리도 줄방석 만들어낫어.(우리도 줄방석 만들었었어.)

108033 #1 옛날덜토 목시가 지금은 저 이 장비덜이 워낙 좋은데.(옛날들도 목수가 지금은 저 이 장비들이 워낙 좋은데.)

108033 @ 예.(예.)

108033 #1 엿날 목수덜은 가정뎅기는 게 톱허고.(옛날 목수들은 가져다니는 게 톱하고.)

108033 @ 예.(예.)

108033 #1 귀자귀[517]허고.('귀자귀'하고.)

108033 @ 예.(예.)

108033 #1 손자귀허곡.(손자귀하고.)

108033 @ 으.(으.)

108033 #1 고분자귀[518]허고 먹통허고.('곱자귀'하고 먹통하고.)

108033 @ 음.(음.)

108033 #1 돌끌[519]허고 저 낭끌[520]허곡.('돌끌'하고 저 나무끌하고.)

108033 @ 예.(예.)

108033 #1 것벳긔 안 가정뎅겻어.(것밖에 안 가져다녔어.)

108033 @ 낭끌? 돌끌도 가정다니고.(나무끌? '돌끌'도 가져다니고.)

108033 #1 아니 돌끌은 건 석공이 허는 거고.(아니 '돌끌'은 건 석공이 하는 거고.)

108033 @ 예.(예.)

108033 #1 낭끌은 이 나무 이렇게 벡선 세울랴고 허민 구녁을 파사 세우니까 이거 팔랴고 끌 아정뎅기는 거.(나무끌은 이 나무 이렇게 벽선 세우려고 하면 구멍을 파야 세우니까 이거 팔려고 끌 가져다니는 거.)

108033 @ 아, 게난 나무에 구멍 판다고 헤서 낭끌이구나예. 쒜로 뒈도예?(아, 그러니까 나무에 구멍 판다고 해서 나무끌이구나. 쇠로 되어도요?)

108033 #1 으.(으.)

108033 @ 어어. 이거는 목수가 가정뎅기는 거곡.(어어. 이거는 목수가 가져다니는 거고.)

108033 #1 으.(으.)

108033 @ 그다음에 돌 쌓는 거는 석공.(그다음에 돌 쌓는 거는 석공.)

108033 #1 이 석공.(이 석공.)

108033 @ 석공이 아 그 벽을 뭐렌 헙니까?(석공이 아 그 벽을 뭐라고 합니까?)

108033 #1 이거 축담.(이거 죽담.)

---

517) '귀자귀'는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말한다.

518) '고분자귀'는 자귀의 일종이다. 나무의 홈을 깎을 때 사용한다.

519) '돌끌'은 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이다.

520) '낭끌'은 나무를 쪼개거나 구멍을 팔 때 사용하는 끌을 말한다.

108033 @ 으, 축담. 축담을 먼저 쌓아야 뒈. 아까 축담 얘기를 안 골아신게.(으, 죽담. 죽담을 먼저 쌓아야 돼. 아까 죽담 얘기를 안 말했는데.)

108033 #1 축담은 게난 집을 세와.(죽담은 그러니까 집을 세워.)

108033 @ 예.(예.)

108033 #1 저 상ᄆᆞ루ᄁᆞ지 걸고.(저 용마루까지 걸고.)

108033 @ 으.(으.)

108033 #1 서리 걸기 전의 축담을 싸.(서까래 걸기 전에 죽담을 쌓아.)

108033 @ 으.(으.)

108033 #1 서, 게난 축담 싸놩 서리 걸주.(서, 그러니까 죽담 쌓아놔서 서까래 걸지.)

108033 @ 축담 쌍 서리 걸잖아예? 축담 싸문 게믄 담만 싼 게 아니라 거기에 그다음 이제 흑질헤야 뒐 거 아니우꽈?(죽담 쌓아서 서까래 걸잖아요? 죽담 쌓으면 그러면 담만 쌓은 게 아니라 거기에 그다음 이제 흙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8033 #1 아니 건 저 게난 서리 걸엉.(아니 건 저 그러니까 서까래 걸어서.)

108033 @ 예.(예.)

108033 #1 집 우에 더픈 다음에 흑질허여.(집 위에 덮은 다음에 흙질해.)

108033 @ 아, 다 더픈 다음에. 새도 다 헌 다음에. 아, 나중에야 흑질허는 거우과? 흑질헐 때도 옛날 막 큰일이엔 헨에.(아, 다 덮은 다음에. 띠도 다 한 다음에. 아, 나중에야 흙질하는 겁니까? 흙질할 때도 옛날 아주 큰일이라고 해서.)

108033 #1 아니, 그게 잇어이.(아니, 그게 있어.)

108033 @ 예.(예.)

108033 #1 저 새 더프기 전의 조끔 잘사는 사름덜은 고대라고 헤서.(저 띠 덮기 전에 조금 잘사는 사람들은 새우라고 해서.)

108033 @ 예, 예.(예, 예.)

108033 #1 그 집 서슬 헌 우에.(그 집 발비 한 위에.)

108033 @ 으.(으.)

108033 #1 흑을 올려이.(흙을 올려.)

108033 @ 예.(예.)

108033 #1 고대. 그게 고댄디.(새우. 그게 새운데.)

108033 @ 으.(으.)

108033 #1 그게 올령 집, 저 억새 어욱으로 더픈 사름도 잇주.(그게 올려서 집, 저 억새 억새로 덮은 사람도 있지.)

108033 @ 아, 고대 올린 다음에 음.(아, 새우 올린 다음에 음.)

108033 #1 건 조끔 좀 여유 여유 잇는 사름덜.(건 조금 좀 여유 여유 있는 사람들.)

108033 @ 게난 옛날에는 고대 안 올령은에 천아반도 안 헹 그대로 헤영 살앗잖아예?(그러니까 옛날에는 새우 안 올려서 천장도 안 해서 그대로 해서 살았잖아

요?)

108033 #1 게난 그 대신 또 이 고대 아니 올려도.(그러니까 그 대신 또 이 새우 아니 올려도.)

108033 @ 으.(으.)

108033 #1 내중에 다 더픈 다음에 안으로 앙토엔 헌 게 잇어. 안으로만 흑 블라.(나중에 다 덮은 다음에 안으로 앙토라고 한 게 있어. 안으로만 흙 발라.)

108033 @ 예.(예.)

108033 #1 그게 앙토엔 허는디.(그게 앙토라고 하는데.)

108033 @ 앙토. 예전에는 주로 이 앙토만 허지 안 헨예?(앙토. 예전에는 주로 이 앙토만 하지 안 했어요?)

108033 #1 아니 고대 올령 앙토허는 게 쉽주게. 일허기가.(아니 새우 올려서 앙토하는 게 쉽지. 일하기가.)

108033 @ 일허기가?(일하기가?)

108033 #1 앙토만 허젠 허민 흑이 잘 안 부떵 우에 달라부틀 게 엇이난.(앙토만 하려고 하면 흙이 잘 안 붙어서 위에 달라붙을 게 없으니까.)

108033 @ 예.(예.)

108033 #1 흑이 부찌민 어웍, 어웍에 흑을 부찌민 그게 부떠게? 안 부떵 자꾸 털어지곡 털어지곡 혜영 경헨 좀 그 고대 올린 디는 흑이니깐 잘 달라붙거든.(흙이 붙이면 억새, 억새에 흙을 붙이면 그게 붙어? 안 붙어서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 새우 올린 데는 흙이니깐 잘 달라붙거든.)

108033 @ 으음, 게도 그 고대흑 허젠 허민 힘든 거 아니?(으음, 그래도 그 새우 하려고 하면 힘든 거 아니?)

108033 #1 아니 힘들긴 허주.(아니 힘들긴 하지.)

108033 @ 예, 그건 고대흑이엔 헙니까?(예, 그건 새우라고 합니까?)

108033 #1 아니, 그게 앙토엔 허주. 안으로 블르니까 앙토.(아니, 그게 앙토라고 하지. 안으로 바르니까 앙토.)

108033 @ 앙토. 고대는 우의로 헤갖고 눌러주니까 고대 허는 거고예. 게고 삼춘 흑질허젠 허민 축담 블라얄 거 아니우과?(앙토. 새우는 위로 해갖고 눌러주니까 새우 하는 거고요. 그러고 삼촌 흙질하려고 하면 죽담 발라야 할 거 아닙니까?)

108033 #1 으.(으.)

108033 @ 그 흑 이기는 것도 완전 큰일이엔 옛날 헨게마는. 물도 질어와야 뒈고.(그 흙 이기는 것도 완전 큰일이라고 옛날 하더니만. 물도 길어와야 되고.)

108033 #2 물 질어오는 거는 흑 뀌는 사름도.(물 길어오는 거는 흙 반죽하는 사람도.)

108033 #1 건 여인들이 대개 이 흑을 엿날은 어디 강 파올 디 어시니까 집을 지으면 이 마당에.(건 여인들이 대개 이 흙을 옛날은 어디 가서 파올 데 없으니까 집을 지으면 이 마당에.)

108033 @ 예.(예.)

108033 #1 마당에 흑을 팡은에 흑질을 허여.(마당에 흙을 파서 흙질을 해.)

108033 @ 아, 마당 흑으로?(아, 마당 흙으로?)

108033 #1 여제덜이 흔 삼사십 명이 허벅으로 물을 질어와이.(여자들이 한 삼사십 명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와.)

108033 @ 예.(예.)

108033 #1 게믄 이거 진투굿이, 저 흑굿[521]이옌 허는디.(그러면 이거 '진토굿'이, 저 흙구덩이라고 하는데.)

108033 @ 흑굿?(흙구덩이?)

108033 #1 으.(으.)

108033 @ 으.(으.)

108033 #1 그 흑굿에 들어가는 사름은 젊은 사름덜 골려근에 강 이렇게 홈 지우민 이디 물 비우민 자꾸 흑 이렇게 서끄곡 서끄곡 허주게.(그 흙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가려서 가서 이렇게 홈 지우면 여기 물 부으면 자꾸 흙 이렇게 섞고 섞고 하지.)

108033 @ 음.(음.)

108033 #1 경 헤낭 쉐로 볼리주.(그렇게 해서 소로 밟지.)

108033 @ 으음.(으음.)

108033 #4 그때 산듸찍 썰어놔신가?(그때 밭볏짚 썰어놨는가?)

108033 #1 산듸찝도 허곡 ᄆᆞ멀찝도 허곡 건?(밭볏짚도 하고 메밀짚도 하고 건?)

108033 #2 그신새[522]도 썰곡 흔이 셔?('그신새'도 썰고 한이 있어?)

108033 #1 건.(건.)

108033 @ 게난 그때 산듸찍 썰고 그신새 썰고 헤근에 거기 놓는 걸 뭐렌 골앗잖우꽈?(그러니까 그때 밭볏짚 썰고 '그신새' 썰고 해서 거기 넣는 걸 뭐라고 말했잖아요?)

108033 #1 건.(건.)

108033 #4 수세[523].('수세'.)

108033 #2 수세.('수세'.)

108033 @ 수세 놔야 잘 부뜨는 거라예?('수세' 놔야 잘 붙는 거라고요?)

108033 #4 으, 흑만은 안 썻어.(으, 흙만은 안 썼어.)

108033 #1 이게 엇이면은.(이게 없으면.)

108033 @ 예.(예.)

108033 #2 수세가 많아야 잘 부뜨는 거.('수세'가 많아야 잘 붙는 거.)

108033 #1 흑만도 헤도 뒈는데.(흙만도 해도 되는데.)

---

521) '흑굿'은 집의 담 벽 따위에 바를 흙을 반죽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흙구덩이를 말한다.

522) '그슨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그신새, 기신새'라고 부른다.

523) '수세'는 담벼락에 흙질할 흙에 넣는 짚 따위를 일컫는 말이다. 달리 '수세미'라고도 하는데, 흙을 이길 때 '수세'를 넣어야 흙이 벽에 잘 붙는다고 한다.

108033 @ 예.(예.)
108033 #1 담에 흑을 불랏을 때에.(담에 흙을 발랐을 때에.)
108033 @ 예.(예.)
108033 #1 수세가 잇는 디는 비가 와도 이게 견뎌내는데.('수세'가 있는 데는 비가 와도 이게 견뎌내는데.)
108033 @ 예.(예.)
108033 #1 수세가 없는 디는 비가 오민 이거 시청 떨어져불어.('수세'가 없는 데는 비가 오면 이거 씻어져서 떨어져버려.)
108033 @ 아아.(아아.)
108033 #2 수세 하영 놔사 흑 부뜨는 게 든든허주.('수세' 많이 놔야 흙 붙는 게 단단하지.)
108033 #1 게난 수세미를 많이 놔야.(그러니까 수세미를 많이 넣어야.)
108033 #2 많이 놓고 흑 불리는 게 오죽 공들어.(많이 넣고 흙 밟는 게 오죽 공들어.)
108033 @ 음.(음.)
108033 #1 건 말은 못허여, 쉐벳긴.(건 말은 못해, 소밖에는.)
108033 @ 으음. 그 안에 쉐?(으음. 그 안에 소?)
108033 #1 탁 발이 들어가민은.(탁 발이 들어가면.)
108033 @ 예.(예.)
108033 #1 쉐는 발쿱이 이렇게 셍겻잖아.(소는 발굽이 이렇게 생겼잖아.)
108033 @ 예.(예.)
108033 #1 말은 이렇게 셍기니까 물은 이렇게 불라봐도이 깊게 들어가질 아녀.(말은 이렇게 생기니까 말은 이렇게 밟아 봐도 깊게 들어가질 않아.)
108033 #2 뀌어지지 아녀.(이겨지지 않아.)
108033 @ 아.(아.)
108033 #1 소는 이렇게 허니까 들어가는데.(소는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는데.)
108033 @ 으음.(으음.)
108033 #1 말이 요렇게 셍기니까 안 들어가.(말이 요렇게 생기니까 안 들어가.)
108033 @ 음.(음.)
108033 #1 게서 소를 많이 허여.(그래서 소를 많이 해.)
108033 @ 게난 쉐를 영영 뱅뱅 돌리멍은에 허는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이렇게 뱅뱅 돌리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108033 #1 으.(으.)
108033 @ 게믄, 그치록 쉐가 영 허는 거를 무신 일 헴젠 허여? 쉐가?(그러면, 그처럼 소가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일 하고 있다고 해? 소가?)
108033 #1 흑 불렴젠 허주게. 흑.(흙 밟는다고 하지. 흙.)
108033 @ 흑 불렴젠. 삼춘, 흑 불릴 때도 노래 불럿잖우꽈?(흙 밟는다고. 삼촌,

흙 밟을 때도 노래 불렀잖습니까?)
108033 #1 에이, 나 어느때 헐 말이라게.(에이, 나 언제 할 말이야.)
108033 #4 웃음.(웃음.)
108033 #1 나 봐나도 아녀뒁 무신 날ᄀᆞ라 헷젠.(나 봐나지도 않아두고 무슨 날 보고 했다고.)
108033 @ 삼춘은 안 봐난마씨?(삼촌은 안 봤었어요?)
108033 #2 안 불림은, 헤보고 직접 헷주.(안 밟기는, 해보고 직접 했지.)
108033 @ 게난 직접 헷덴 허멍?(그러니까 직접 했다고 하면서?)
108033 #1 어느때 헷어? 나 어느때, 어느때 나 허는 거 봐낫어.(언제 했어? 나 언제, 언제 나 하는 거 봤었어.)
108033 #2 나가 봣주.(내가 봤지.)
108033 @ 게난. 웃음. 게영.(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108033 #2 흑 불리는 거 잘도 못 전디여. 흑 불리는 거.(흙 밟는 거 잘도 못 견뎌. 흙 밟는 거.)
108033 @ 게난.(그러니까.)
108033 #2 초벌 불령.(초벌 밟아서.)
108033 @ 으.(으.)
108033 #1 쉐 내놔뒁.(소 내놔두고.)
108033 @ 예.(예.)
108033 #2 그거 다 뒈싸 놩 두불 또 불린다고. 게영 풀풀허시리 흑이 부뜰 잘 부뜰 때까지 불려사.(그거 다 뒤집어 놓아서 두벌 또 밟는다고. 그래서 풀풀하게끔 흙이 붙을 잘 붙을 때까지 밟아야.)
108033 @ 예.(예.)
108033 #3 시방은 막 기계로덜 헴주게.(시방은 막 기계로들 하고 있지.)
108033 @ 게난 어디 옛날에는 흑 불리는 흑질허젠 허면 막 세미떡 헤영도 막 주고 헷덴 헙디다. 만뒤떡 허영도 막 주고.(그러니까 어디 옛날에는 흙 밟는 흙질하려고 하면 막 '세미떡' 해서도 막 주고 했다고 합디다. '만뒤떡' 해서도 막 주고.)
108033 #1 저 피력[524], 피력헤근에.(저 '피력', '피력'해서.)
108033 #2 흑 불릴 때 밥덜 방상덜은 밥 헤가고.(흙 밟을 때 밥들 방상들은 밥 해가고.)
108033 @ 예.(예.)
108033 #1 일가덜토 밥헤 오곡 피력도 헤당 멕이곡.(일가들도 밥해 오고 '피력'도 해다가 먹이고.)
108033 #2 떡도 헤당 멕이고.(떡도 해다가 먹이고.)
108033 #1 떡도 헤당 멕이곡.(떡도 해다가 먹이고.)
108033 @ 예.(예.)

524) '피력'은 한자어 '畢役'에서 온 말로, 일꾼들에게 고마운 뜻에서 주는 떡 따위의 물품을 말한다.

108033 #2 방상 존 디덜은 떡 헤당 멕이고.(방상 좋은 데들은 떡 해다가 먹이고.)

108033 @ ᄆᆞᆯ돌레도?(메밀도래도?)

108033 #2 모멀만뒤[525]를 허나 돌레떡을 허나.('모멀만뒤'를 하나 도래떡을 하나.)

108033 #1 일가, 일가덜 많은 디주. 일가 엇인 사름은 그자 정심이나 멕이민 그냥 넘어가곡.(일가, 일가들 많은 데지. 일가 없는 사람은 그저 점심이나 먹이면 그냥 넘어가고.)

108033 #4 흑피력[526]이라고.('흑피력'이라고.)

108033 #2 흑, 무시거 흑질허는 날옌 헤근에 막 세주게. 그날은.(흙, 무엇 흙질하는 날이라고 해서 아주 세지. 그날은.)

108033 @ 예. 게난 그 흑질헷던 이런 경험들이 하. 게난 집 짓젠 허면 젤 큰 일이 흑질허는 날이구나.(예. 그러니까 그 흙질했던 이런 경험들이 많아. 그러니까 집 지으려고 하면 젤 큰 일이 흙질하는 날이구나.)

108033 #2 젤 못 젼딘 일이 큰 일, 저 흑질이주게.(젤 못 견딘 일이 큰 일, 저 흙질이지.)

108033 @ 예에.(예에.)

108033 #1 궤롭주게. 겐디 그게.(괴롭지. 그런데 그게.)

108033 #4 그때 부지도 허주게.(그때 부조도 하지.)

108033 @ 아아.(아아.)

108033 #1 게난 이건 남자덜만 못허주게. 여자, 여자들이 그 허벅으로 물을 날라 와야 질어오는 따문.(그러니까 이건 남자들만 못하지. 여자, 여자들이 그 허벅으로 물을 날라 와야 길어오는 때문.)

108033 #2 여자덜은 물 멀어부난.(여자들은 물 멀어버리니까.)

108033 #1 물 질어올 디가 멀어노니까.(물 길어올 데가 멀어놓으니까.)

108033 @ 으.(으.)

108033 #1 삼ᄉᆞ십 명이 강 질어와 봐도 왕 ᄒᆞᆫ 번 비우민 엇어져불곡 허난.(삼사십 명이 가서 길어와 봐도 와서 한 번 부으면 없어져버리고 하니까.)

108033 #4 옛날은 잔치헐 때도 허벅으로 질주게. 우리 씨집갈 때도 허벅으로 질어왓어.(옛날은 잔치할 때도 물동이로 긷지. 우리 시집갈 때도 물동이로 길어왔어.)

108033 @ 기지예. 거난 흑질헐 땐 아까 부주도 헌덴 허멍?(그렇지요. 그러니까 흙질할 땐 아까 부조도 한다고 하면서?)

108033 #1 부지허주.(부조하지.)

108033 #4 흑질헐 때 부주허여.(흙질할 때 부조해.)

---

525) '모멀만뒤'는 메밀가루 반죽으로 반달 모양으로 얇게 만든 후에, 안에 팥소를 넣어 집어서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을 말한다.

526) '흑피력'은 집을 지을 때 흙질할 때에 일가에서 일꾼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부조로 해가는 떡 따위의 물품을 말한다.

108033 #1 거 일가덜 많이 허여. 동네 사름덜도 허고.(거 일가들 많이 해. 동네 사람들도 하고.)

108033 #2 부주허는 건 흑밥 헤가는 거.(부조하는 건 '흑밥' 해가는 거.)

108033 #1 아이 흑밥도 허고 돈으로 현찰로 부주허는 사름도 잇어.(아니 '흑밥'도 하고 돈으로 현찰로 부조하는 사람도 있어.)

108033 @ 게난 옛날은 집 짓는 일이 큰일이니까.(그러니까 옛날은 집 짓는 일이 큰일이니까.)

108033 #1 아, 젤 큰일이주게.(아, 젤 큰일이지.)

108033 @ 그러니까.(그러니까.)

108033 #2 (잡담)

108033 @ 삼춘, 아까 흑밥헷덴 헌 말은 무슨 말?(삼촌, 아까 '흑밥'했다고 한 말은 무슨 말?)

108033 #2 흑질헐 때 밥헤 가는 거.(흙질할 때 밥해 가는 거.)

108033 #1 밥덜(밥들.)

108033 #2 친촉덜이나.(친척들이나.)

108033 #1 일가 가까운 친촉덜.(일가 가까운 친척들.)

108033 #2 권당덜.(권당들.)

108033 #1 가까운 근족덜.(가까운 근족들.)

108033 #2 흑질허는 날은 사람이 하영 드난에.(흙질하는 날은 사람이 많이 드니까.)

108033 #1 가까운 친촉덜은 그 흑밥[527]엔 헤근에.(가까운 친척들은 그 '흑밥'이라고 해서.)

108033 #2 밥 헤당은에 아침도 멕이곡 정심도 멕이곡.(밥 해다가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108033 #1 멕이곡.(먹이고.)

108033 #4 (잡음)

108033 @ 음, 거기에다가 떡도 헹은에 가는 사름도 잇고.(음, 거기에다가 떡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108033 #1 떡도 헤당 멕이고.(떡도 해다가 먹이고.)

(잡음)

108033 @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아까 집 짓는 연장 헐 때 아까 이제 그 이건 목시가 갖는 톱, 뭐 먹.(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아까 집 짓는 연장 할 때 아까 이제 그 이건 목수가 갖는 톱, 뭐 먹.)

108033 #1 먹통.(먹통.)

108033 @ 먹통 먹술 이런 건 허잖아예?(먹통 먹줄 이런 건 하잖아요?)

527) '흑밥'은 집을 짓는 '흙일'을 할 때 친척 등이 일꾼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지어가는 밥이다. '흑'은 표준어 '흙'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8033 # 으.(으.)

108033 @ 그 돌 허는 사름이 쓰는 연장은 어떤 거 잇어? 축담허고 허젠 허면?(그 돌 하는 사람이 쓰는 연장은 어떤 거 있어? 죽담하고 하려고 하면?)

108033 #1 갠노[528]엔 헌 게 잇주. 겐노엔 헌 건 저 일본말인데.(쇠메라고 한 게 있지. '갠노'라고 한 건 저 일본말인데.)

108033 @ 예, 갠노는 일본말이고.(예, '갠노'는 일본말이고.)

108033 #1 어떻든 갠노허,엔 헌 거 가졍 잇어.(어떻든 쇠메하,라고 한 거 가져서 있어.)

108033 #2 갠노ᄀᆞ라 뭐엔 헌다마는.('갠노'보고 뭐라고 한다만.)

108033 #1 옛날은 돌차귀[529]엔 허여. 여기.(옛날은 '돌차귀'라고 해. 여기.)

108033 @ 돌차귀 으.('돌차귀' 으.)

108033 #2 맞아.(맞아.)

108033 @ 돌차귀예?('돌차귀'요?)

108033 #1 지금은 갠노엔 헌 디 저 겐노엔 헌 건 일본말이라.(지금은 '갠노'라고 하는데 저 '겐노'라고 한 건 일본말이야.)

108033 @ 예, 예, 예. 게민 돌차귀가 필요허고.(예, 예, 예. 그러면 '돌차귀'가 필요하고.)

108033 #1 응.(응.)

108033 @ 돌 헹 오젠 허면?(돌 해서 오려고 하면?)

108033 #1 돌차귀만 가졍 가민 담 다는 건 돌 앚당 놓민 그걸로.('돌차귀'만 가져서 가면 담 쌓는 건 돌 갖다가 놓으면 그걸로.)

108033 #2 그 ᄏᆞ칭허게 만드는 거주게.(그 나란하게 만드는 거지.)

108033 #1 거 때리, 때리멍.(거 때리, 때리면서.)

108033 #2 때리멍.(때리면서.)

108033 @ 돌차귀만 잇이민 돌을 담은 다 달 수 잇어?('돌차귀'만 있으면 돌을 담은 다 쌓을 수 있어?)

108033 #1 달 수 잇주게.(쌓을 수 있지.)

108033 #2 담만 앗다놓민 돌차귀로 다주게.(담만 갖다놓으면 '돌차귀'로 쌓지.)

108033 #1 나 강 베와ᄃᆞ렌 허민 저디 강 베와주커라.(내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저기 가서 보여주겠어.)

108033 #4 웃음.(웃음.)

108033 @ 나중에 사진 찍으쿠다. 돌차귀하고.(나중에 사진 찍겠습니다. '돌차귀' 하고.)

108033 #4 웃음.(웃음.)

108033 @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앙 들 수 잇는 게 뭐가 잇지? 옛날에는 못은

528) '겐노(げんのう)'는 큰 쇠메를 가리키는 일본어다. 돌을 깰 때 사용하는 망치다.

529) '돌차귀'는 '돌+ㅎ+자귀' 구성으로, '돌차귀'는 돌을 깎을 때 쓰는 자귀라는 의미다. '쇠메'를 제보자는 '돌차귀'라고 하였다.

안 썻수가?(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옛날에는 못은 안 썼습니까?)

108033 #1 못?(못?)

108033 @ 으.(으.)

108033 #1 못은 아주 옛날에는.(못은 아주 옛날에는.)

108033 @ 으.(으.)

108033 #1 못 대신.(못 대신.)

108033 @ 예.(예.)

108033 #1 구녁 뚧아근에.(구멍 뚫어서.)

108033 @ 예.(예.)

108033 #1 대나무 왕, 이 저 왕대.(대나무 왕, 이 저 왕대.)

108033 @ 예.(예.)

108033 #1 왕대로 못 모냥으로 동글락허게 만들엉 이딜 때렁 못으로 사용헷어.(왕대로 못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길 때려서 못으로 사용했어.)

108033 @ 아, 왕대로. 게믄 그 못은 무슨 못 혜?(아, 왕대로. 그러면 그 못은 무슨 못 해?)

108033 #1 어?(어?)

108033 @ 거는 무슨 못?(거는 무슨 못?)

108033 #2 대못.(대못.)

108033 #1 대못. 대나무로 대나무 만든 대못.(대못. 대나무로 대나무 만든 대못.)

108033 @ 아, 그래서 대못이구나예? 대나무 못이?(아, 그래서 대못이군요? 대나무 못이?)

108033 #1 이 쒜로 나온 못이 나오기 시작헌 거는 해방 후에 이제 나왓지. 그전엔 엇엇어.(이 쇠로 나온 못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해방 후에 이제 나왔지. 그전엔 없었어.)

108034 @ 음, 그래서 대못. 게믄 그거는 이제 못 하는 거고, 삼춘, 그 다음에 톱도 종류가 으라 질 아니예?(음, 그래서 대못.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못 하는 거고, 삼촌, 그 다음에 톱도 종류가 여러 질 아닌가요?)

108034 #1 으.(으.)

108034 @ 무슨 톱 무슨 톱 잇입니까?(무슨 톱 무슨 톱 있습니까?)

108034 #1 손톱 잇고, 줄톱[530] 잇고.(손톱 있고, '줄톱' 있고.)

108034 @ 손톱은 뭐우꽈?(손톱은 뭡니까?)

108034 #1 손톱은 혼자 허는 거고.(손톱은 혼자 하는 거고.)

108034 @ 예.(예.)

108034 #1 줄톱은 둘이 허는 거고.('줄톱'은 둘이 하는 거고.)

108034 @ 어.(어.)

530) '줄톱'은 둘이 마주앉아 나무 따위를 켤 때 쓰는 톱이다.

108034 #1 어, 양쪽에 앉앙 둘이 이렇게 땡기고 밀리고.(어, 양쪽에 앉아서 둘이 이렇게 당기고 밀리고.)
108034 @ 그게 줄톱, 그게 대톱이우과?(그게 '줄톱', 그게 대톱입니까?)
108034 #1 아니 대톱은.(아니 대톱은.)
108034 @ 으.(으.)
108034 #1 대톱은 커.(대톱은 커.)
108034 @ 건 어떤 식으로 커?(건 어떤 식으로 커?)
108034 #1 건 이 널판 오릴 때.(건 이 널판 오릴 때.)
108034 @ 어어.(어어.)
108034 #1 저 엿날도 관널.(저 옛날도 관판.)
108034 @ 예, 예.(예, 예.)
108034 #1 관널을 옛날은 건재사가 없으니깐 거의 개판이나 관널을 집에서 오련 썻단 말여.(관판을 옛날은 건재사가 없으니깐 거의 개판이나 관판을 집에서 오려서 썼단 말이야.)
108034 @ 예.(예.)
108034 #1 그때 대톱을 썻주.(그때 대톱을 썼지.)
108034 @ 게믄 대톱도.(그러면 대톱도.)
108034 #4 할망 총총 허영 안 뒈커라.(잡음)(할머니 총총 해서 안 되겠어.)(잡음)
108034 @ 어, 두 개 이렇게 허는 거.(어, 두 개 이렇게 하는 거.)
108034 #1 대톱은 너이가 허여.(대톱은 넷이 해.)
(잡음.)
108034 (잡음) 이렇게 넷이서 하는 거고. 줄톱은 둘이서 하는 거고.((잡음) 이렇게 넷이서 하는 거고. '줄톱'은 둘이서 하는 거고.)
108034 #1 으.(으.)
108034 @ 게믄 톱도 세 종류?(그러면 톱도 세 종류?)
108034 #1 으. 손톱은 혼 사름만.(으. 손톱은 한 사람만.)
108034 @ 그다음에 양쪽에 톱이 이렇게 잇는 것도 잇지 안허우꽈? 이렇게 뭰 거?(그다음에 양쪽에 톱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
108034 #1 놀 두 개로 잇는 거?(날 두 개로 있는 거?)
108034 @ 으.(으.)
108034 #1 그게 목수가 그 줄톱게, 자기만 쓰는 거주게.(그게 목수가 그 '줄톱', 자기만 쓰는 거지.)
108034 @ 어, 어디 가난 무신 양놀베기여?(어, 어디 가니까 무슨 양날톱이다?)
108034 #1 양놀베기엔 헌 건 양짝으로 놀이 잇이난 양놀베기라는 건디 그 목수가 건 혼자만 쓸 수 있는 톱.(양날톱이라고 한 건 양쪽으로 날이 있으니까 양날톱이라는 건데 그 목수가 건 혼자만 쓸 수 있는 톱.)
108034 @ 아, 그건 혼자만 쓰는 거예? 예.(아, 그건 혼자만 쓰는 거요? 예.)

108034 #1 지금도 그런 톱 잇어.(지금도 그런 톱 있어.)

108037 @ 으음, 자귀도 아까 이제 손자귀 귀자귀 곱은자귀 이제 세 종류?(으음, 자귀도 아까 이제 손자귀 귀자귀 '곱자귀' 이 세 종류?)

108037 #1 곱은자, 곱은자엔 헌 건. 곱은자귀가 아니고 곱은자.(곱자, 곱자라고 한 건. '곱은자귀'가 아니고 곱자.)

108037 @ 아, 곱은자? 으.(아, 곱자? 으.)

108037 #1 곱은자 나 저기 강 앗당 베와주카?(곱자 나 저기 가서 가져다가 보여 줄까?)

108037 @ 기역자로 뒌 거예?(기역자로 된 거요?)

108037 #1 으.(으.)

108037 @ 자도 곱은자도 잇고. 곱은자만 잇입니까? 또 다른 자도 잇입니까?(자도 곱자도 있고. 곱자만 있습니까? 또 다른 자도 있습니까?)

108037 #1 곱은자 웨에는 목수들 가졍뎅기는 게 엇주.(곱자 외에는 목수들 가져다니는 게 없지.)

108037 @ 아아, 이거는 엇고예? 으 곱은자 이제.(아아, 이거는 엇고예? 으 곱자 이제.)

108037 #1 지금은 뭐 줄자가 잇는디, 옛날은 줄자엔 헌 게 엇어시난.(지금은 뭐 줄자가 있는데, 옛날은 줄자라고 한 게 없었으니까.)

108039 @ 예. 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은 예전에 그 이거 바를 때 다 손으로 불르지 아녓수가예?(예. 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은 예전에 그 이거 바를 때 다 손으로 바르지 않았습니까요?)

108039 #1 그렇주.(그렇지.)

108039 @ 이제 그 손으로 헌 다음에 흑허는 영 손 받는 건 뭐? 요즘은 이제 쒜손 흑손.(이제 그 손으로 한 다음에 흙하는 이렇게 손 받는 건 뭐? 요즘은 이제 쇠손 흙손.)

108039 #1 옛날은 남자덜은 ᄇᆞ르곡.(옛날은 남자들은 바르고.)

108039 @ 예.(예.)

108039 #1 여자덜은 접아주곡.(여자들은 집어주고.)

108039 @ 으.(으.)

108039 #1 게민 그대로 헷어.(그러면 그대로 했어.)

108039 @ 손으로예? 게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헷는데.(손으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108039 #1 받치는 거 엇어.(받치는 거 없어.)

108039 @ 받치는 게 엇어예? 요즘은 받치는 거?(받치는 게 없지요? 요즘은 받치는 거?)

108039 #1 이제는 지금 받치는 건 사깡[531]덜 요새 사깡 아졍뎅기멍 받치멍 허

531) '사깡'은 일본어 'さかん'에서 온 말로, 미장이에 대응하는 어휘다.

는 거지. 옛날은 그런 게 엇어.(이제는 지금 받치는 건 미장이들 요새 미장이 가져다니면서 받치면서 하는 거지. 옛날은 그런 게 없어.)

108039 @ 쒜손 이런 건 엇어? 흑손도예? 으.(쇠손 이런 건 없어? 흙손도요? 으.)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4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